무주군지를 발간하며



무주는 우리 나라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무주는 백제와 신라로 나뉘어져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하였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 전후 비로소 한 국가에 속하게 되었고, 이후 각기 다른 행정구역으로 있다가 조선 태종 14년(1414)에 이르러 비로소 단일 행정구역에 속하게 되면서 '무주' 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3권으로 나뉘어 발간되는 『무주군지』 의 첫번째에 해당되는 상권은 무주의 자연 인문환경 역사 그리고 정치와 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상과 함께 새로운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이 무주에 관한 역사서이자 교양서로 군민은 물론 무주를 알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독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낌없는 충고를 바랍니다.

『무주군지』 를 펴내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찬위원님들과 집필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5월

무주군지편찬위원회 위원장

김 세 웅

무 주 군 수



장엄하고 유구한 역사에서 빚어진 무주의 힘

무주의 변천사를 한 눈에 이해하고, 선현들의 얼과 삶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무주군지』 발간을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주군지』는 장엄하고 유규한 역사에서 빚어진 무주의 힘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도와 법령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선현들의 일상적 삶에 이르기까지 연대기적으로 기술된 『무주군지』는 군민에게 무주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재정립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무주는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전라 경상 충청 3도의 문화를 아우르며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무주는 그 찬란한 역사를 배경 삼아 국민통합의 시대적 소명과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지』는 무엇이 원칙이고 중심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에 대하여 역사를 통해 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주군민은 『무주군지』를 통해 무주에 대한 역사인식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무주군민에게 사랑받는 역사서로서 현재를 반추해 볼 수 있는 삶의 거울이자, 미래를 열어가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않고 『무주군지』가 증보될 수 있도록 남다른 소명과 노력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찬위원과 집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주군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3년 5월

무주군의회 의장 김 원 수

해 제

이 책은 1968년 편찬된 『무주군사』, 20여 년 후인 1990년 발간된 무주군지』의 증보판이다. 불과 10여 년만에 증보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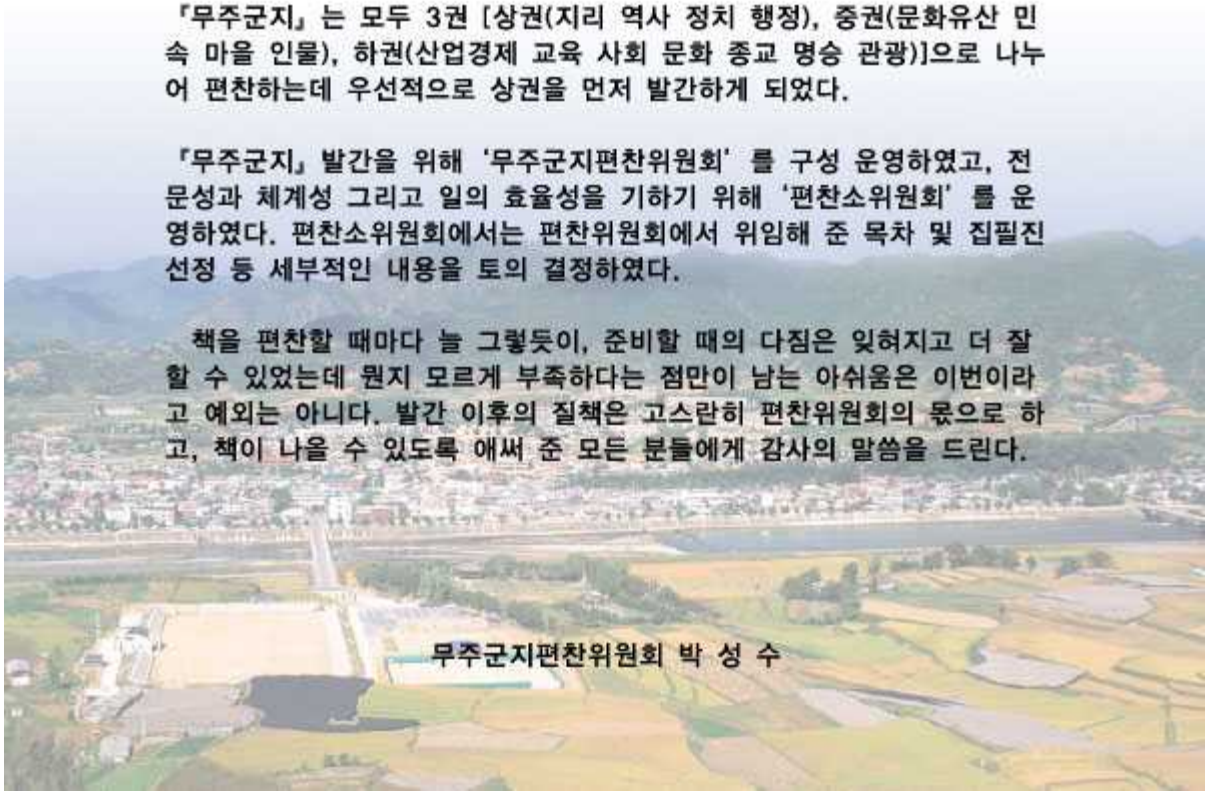
1990년대는 우리 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지방자치시대' 가 실현되었고, 20세기를 마감하는 새로운 세기, 즉 새 천년을 여는 2000년대가 시작되었으므로 지난 시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열어 가는 디딤돌로 삼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반영한 『무주군지』 편찬을 처음 계획한 것은 1999년이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멈짓거리다 군지편찬을 보다 체계적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2001년 전문 인력을 채용,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러 작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무주군지』는 모두 3권 [상권(지리 역사 정치 행정), 중권(문화유산 민속 마을 인물), 하권(산업경제 교육 사회 문화 종교 명승 관광)]으로 나누어 편찬하는데 우선적으로 상권을 먼저 발간하게 되었다.

『무주군지』 발간을 위해 '무주군지편찬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였고, 전문성과 체계성 그리고 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찬소위원회' 를 운영하였다. 편찬소위원회에서는 편찬위원회에서 위임해 준 목차 및 집필진 선정 등 세부적인 내용을 토의 결정하였다.

책을 편찬할 때마다 늘 그렇듯이, 준비할 때의 다짐은 잊혀지고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뭔지 모르게 부족하다는 점만이 남는 아쉬움은 이번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발간 이후의 질책은 고스란히 편찬위원회의 몫으로 하고,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주군지편찬위원회 박 성 수

무주의 상징



무주군기



무주군 상징마크

자연과 인간을 주제로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미래를 추구하는 무주군민을 반딧불이의 형상화를 통해 표현하였다.



마스코트 반딧불이



군의 꽃/철쭉

낙엽 활엽 관목으로 나무는 회갈색, 잎은 도란형으로 녹색, 꽃은 연한 홍색을 띠고 화관 윗부분에 적갈색 반점이 있다. 5월부터 계곡에서 피기 시작하여 덕유산 정상까지 분포하며 6월까지 군락으로 장관을 이룬다. 정열적인 화합의지와 활기찬 번영을 상징한다.



군의 새/원앙

우리 고장에 서식하는 텃새로 저수지나 하천 등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사랑' 을 상징하는 새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랑으로 화합하는 군민을 상징한다.



군의 나무/주목(朱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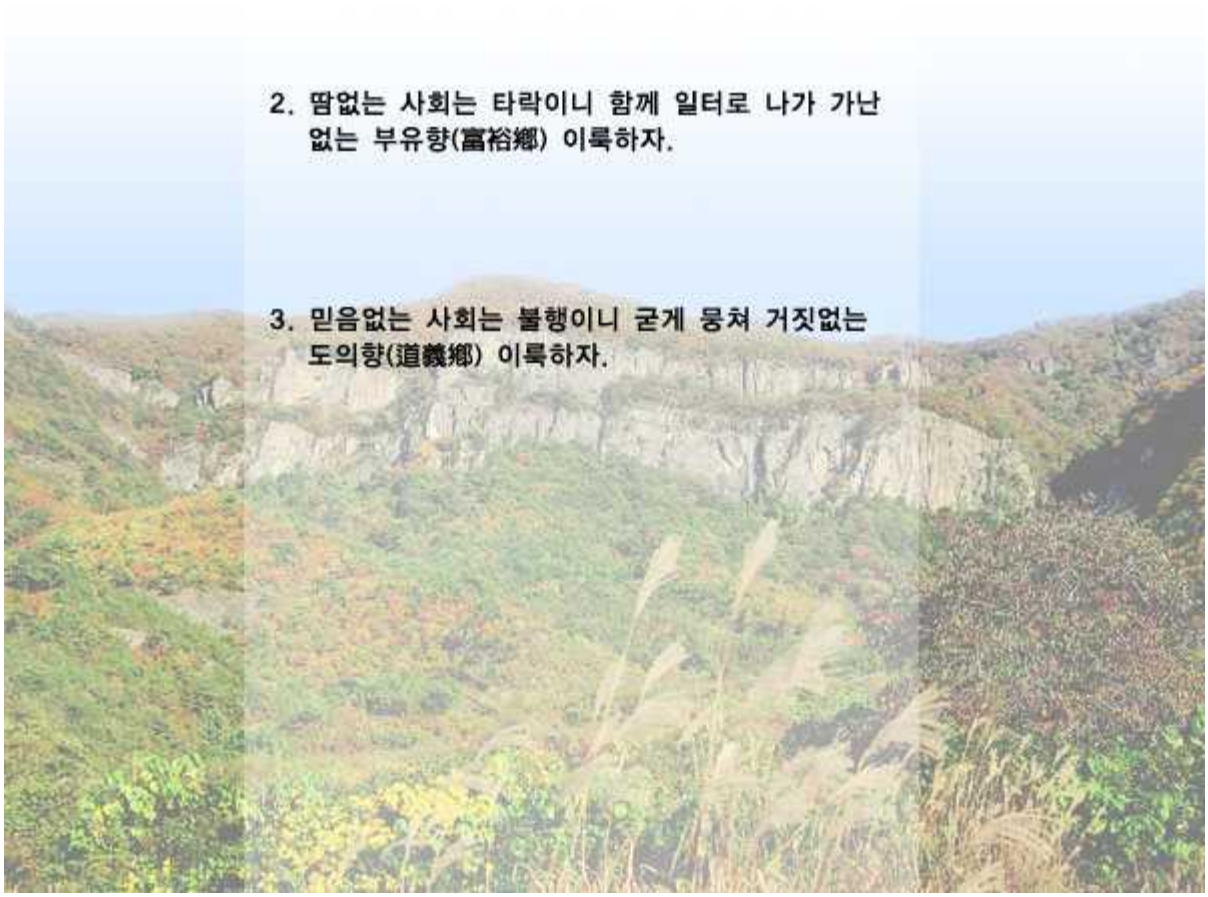
고산성 생엽 교목이며 수간은 적색으로 윤기가 흐른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이라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주목은 꿋꿋하고 끈질긴 군민성과 미래지향적인 이상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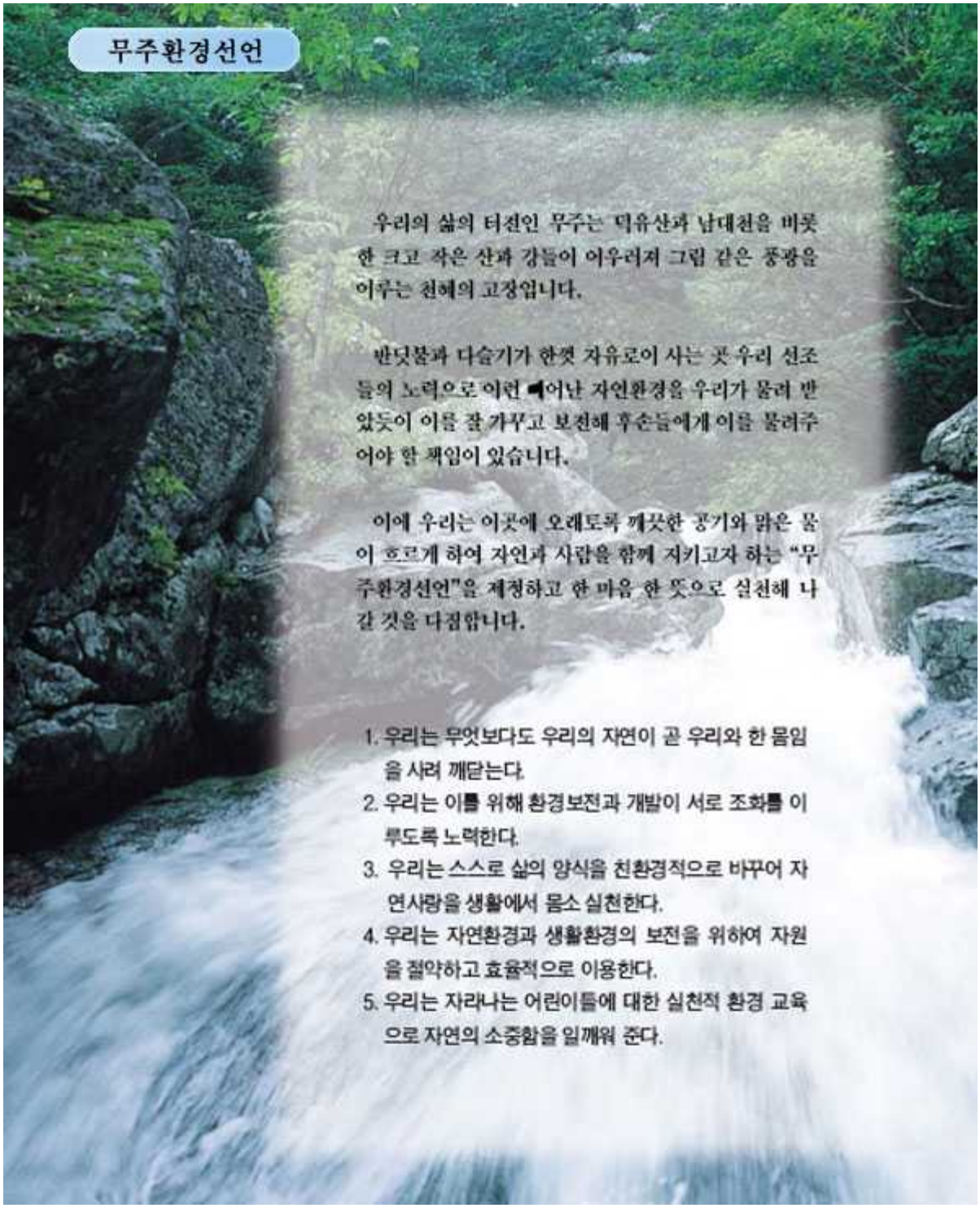
우리 군민은 사랑(愛)과 땀(汗)과 믿음(信)으로써
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하자.

1. 사랑없는 사회는 암흑이니 서로 손잡고 싸움없는 평화향(平和鄕) 이룩하자.

2. 땀없는 사회는 타락이니 함께 일터로 나가 가난없는 부유향(富裕鄕) 이룩하자.

3. 믿음없는 사회는 불행이니 굳게 뭉쳐 거짓없는 도의향(道義鄕) 이룩하자.





무주환경선언

우리의 삶의 터전인 무주는 덕유산과 남대천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산과 강들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광을 이루는 천혜의 고장입니다.

반딧불과 다슬기가 한껏 자유로이 사는 곳 우리 선조들의 노력으로 이런 빼어난 자연환경을 우리가 물려 받았듯이 이를 잘 가꾸고 보전해 후손들에게 이를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곳에 오래도록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게 하여 자연과 사람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 "무주환경선언"을 제정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1.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연이 곧 우리와 한 몸임을 사려 깨닫는다.
2. 우리는 이를 위해 환경보전과 개발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3. 우리는 스스로 삶의 양식을 친환경적으로 바꾸어 자연사랑을 생활에서 몸소 실천한다.
4. 우리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5. 우리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실천적 환경 교육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무주군민의 노래

김기동 작사
강병규 작곡



무주군 행정구역



행정구역	
읍	1
면	5
법 정 리	48
행 정 리	149
반	515
자연마을	267
면 적	631.70



일제강점기 때의 무주군청사



현재의 무주군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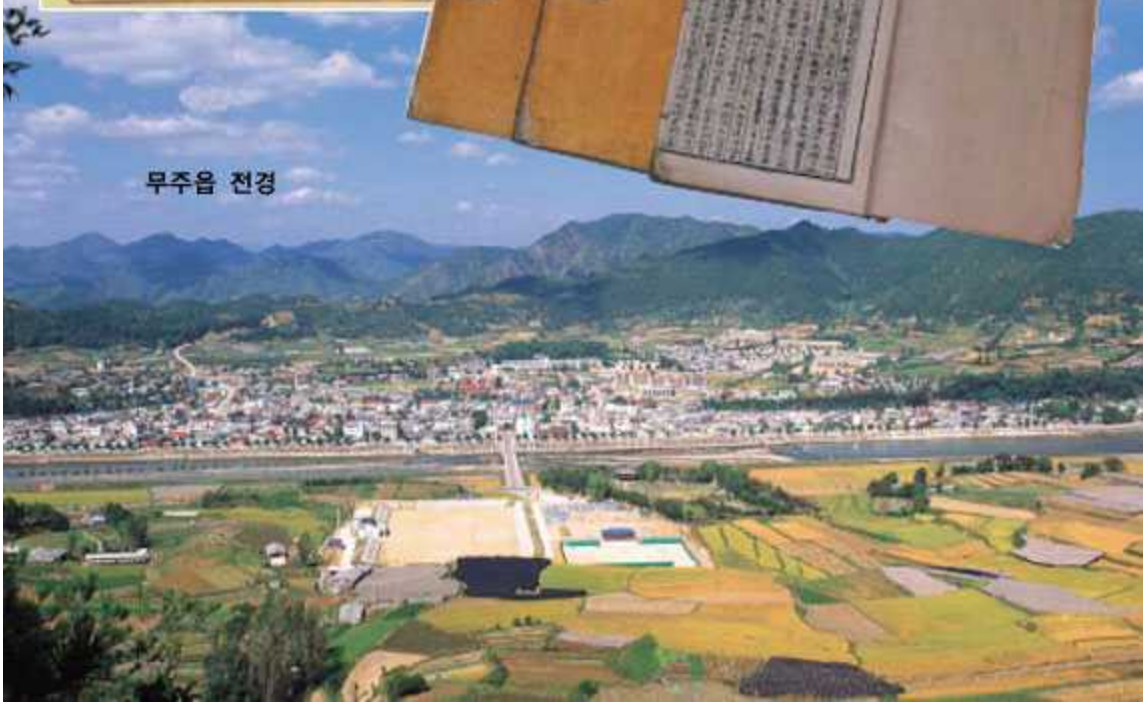
무주군의회청사



1872년 무주읍지도



1898년 발간된 「적성지(赤城誌)」



무주읍 전경



지석묘(支石墓)적상면 사천리 신대마을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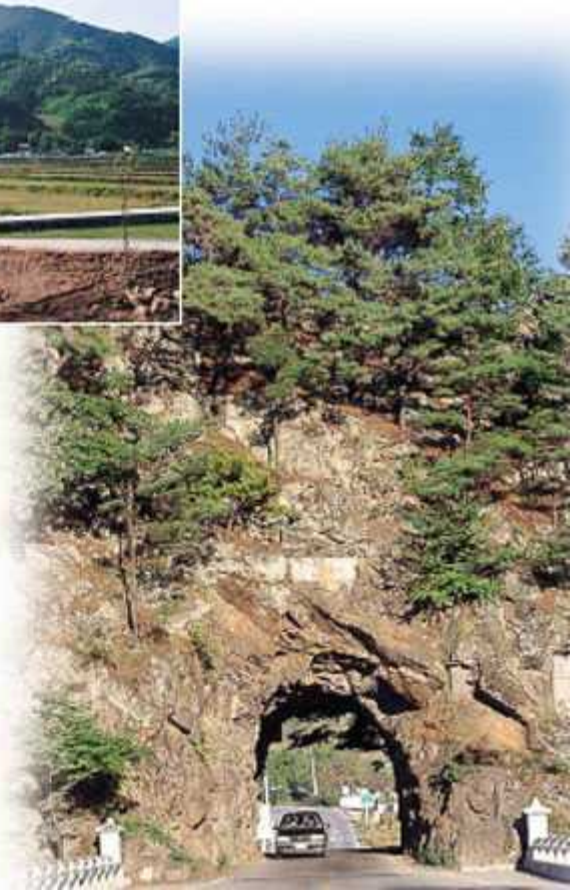
선돌(立石)안성면 장기리 하이목마을



주계현의 중심지였던
주계고성지



무풍현의 중심지였던
무풍고성지



백제와 신라의 국경지대였음을
상징하는 '라제통문'



적상산성



조선왕조실록과 선원록을 보관했던 적상산사고



반딧불축제



무주리조트



민선출범 제1기



환경대상시상

茂朱郡誌

(上)

『일러두기』

1. 편찬 방침

가.≪무주군지≫는 통권으로 하던 것을 3권으로 분책하였다. 이는 통권의 방대함을 줄이고 주제별로 나누어 편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원고 집필은 해당 분야의 전문학자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도모하였다.
다.목차의 구성과 내용의 전개는 체계적인 편차와 현장자료의 보완을 통해 무주군의 특성이 최대한 표현되도록 하였다.
라.역사적인 사실과 사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실적인 서술을 우선함으로써 사실 위주의 역사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2. 표기 방법

가.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고유명사나 특수용어 등 필요한 경우는 한자 및 원어를 병기하였다.
나.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을 섞어 표기하였다.
다.각종 부호 사용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랐다.
라.인물에 대한 경칭은 생략하였다.

3. 교열 및 감수

가.교열 및 감수는 모두 4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나.1차는 편찬위원회 전문위원이 하고, 2차는 집필진, 3차는 무주군 지역내 인사와 편찬 위원회, 4차는 별도 교정자를 선임하여 추진하였다.
다.전문학자들이 집필한 관계로 표현 체제 등 차이점이 발생, 편집·교열·교정과정에서 수정 보완하여 사실적 표현과 체제의 통일에 노력하였다.

<무주군지 편찬위원회 위원>

위 원 장 :	김세웅(무주군수)
부위원 장 :	김경석(무주문화원장)
	(전임 성대휴, 前무주문화원장)
위 원 :	박성수(국제평화대학교 총장)
	서재균(前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
	황일태(前 전북저널 편집국장)
	유재두(무주향토사연구회장)
	박희명(前 무주교육장)
	김재환(前 무주군의회 의장)
	이규정(대한불교 조계종 안국사 주지)
	백낙근(前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오세득(무주반딧불제전위원회 부위원장)
	박석용(前무주군 내무과장)
	양선모(무주구천동관광연합회장)
	전기순(무주읍진흥회장)
	신경수(前환경신문 무주군 주재기자)
	신운호(무주문화원 이사)
	문기득(무주군체육회 이사)
	백성기(대한바이애슬론연맹 부회장)
	이태랑(향토사학자)
	맹갑상(무주군 문화관광과장)
간 사 :	맹갑상(무주군 문화관광과장)
서 기 :	오종석(무주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전임 : 김창종)
전문위 원 :	박대길(무주군 전문계약직)

<상권 집필 위원>

제1편 총설

제1장 무주군 연혁
박노석 (전북대학교 강사)
제2장 자연환경
길봉섭 (원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
제3장 인문환경
장세길 (前문화저널 기획팀장)

제2편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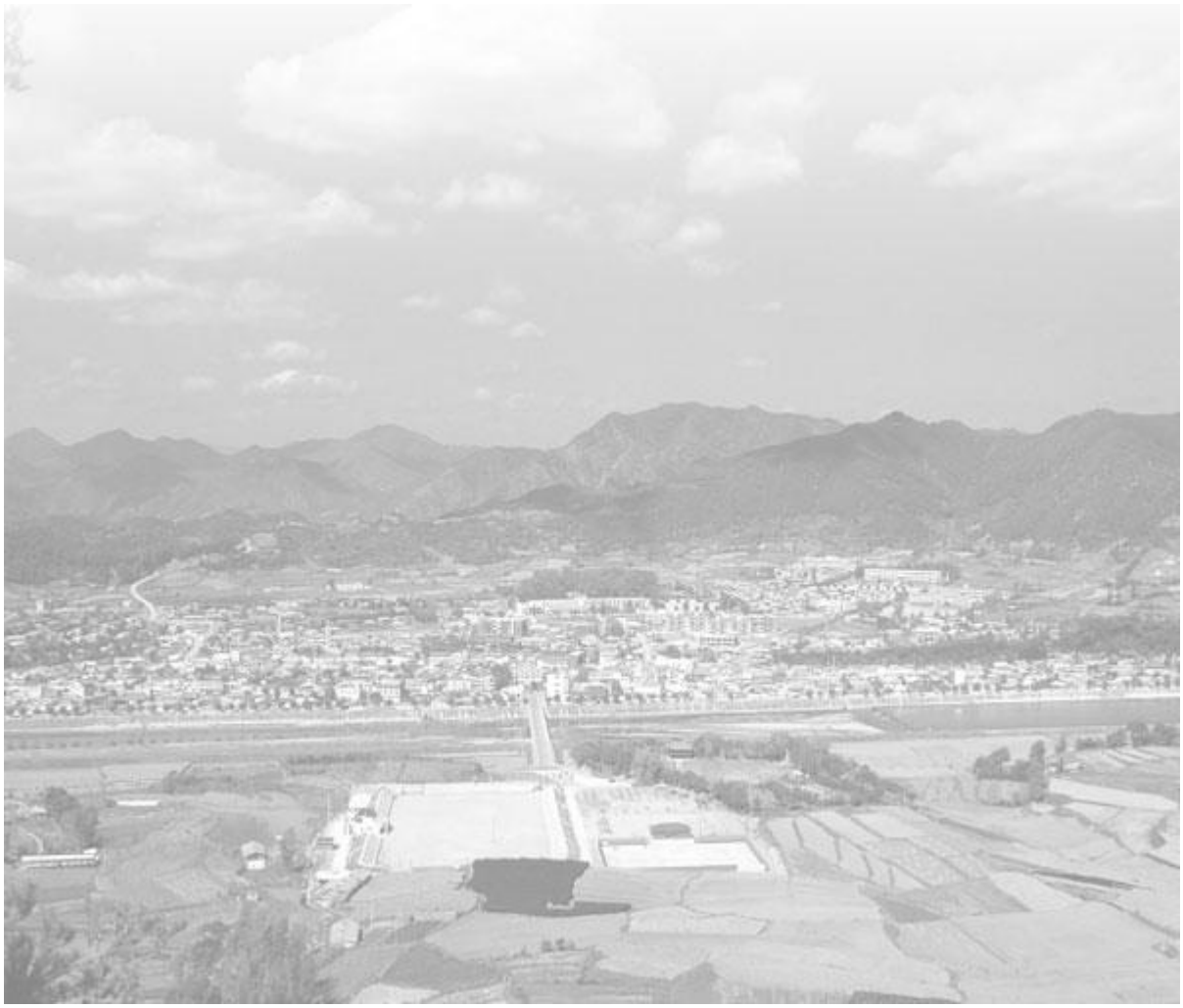
제1장 선사시대
김승욱 (전북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제2장 고대사회의 무주
박노석 (전북대학교 강사)
제3장 고려시대의 무주
유호석 (전북대학교·군산대학교 강사)
제4장 조선시대의 무주
이동희 (예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제5장 한말의 무주
이진영 (정부기록보존소 학예연구사)
제6장 일제 강점기의 무주
임혜영 (전북대학교·군산대학교 강사)
제7장 현대사회의 무주
김경석 (무주문화원장)

제3편 정치·행정

제1장 정치(정당과 지구당)
제2장 선거와 투표
황일태 (前전북저널 편집국장)
제3장 지방자치
신기현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4장 행정 개황
제5장 행정시책
이기언 (전북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제6장 행정기관
제7장 자치행정 10년
이명환 (내일신문 기자)



제1편 총설(總說)



제1편 총 설(總說)

제1장 무주군 연혁

제1절 군 연혁

1. 개요

무주군의 영역이 확정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87년 전인 1914년이었다. 그 후 별다른 변동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무주군 영역은 오랜 옛적부터 무산(茂山)과 주계(朱溪)로 나뉘어 다른 국가 또는 다른 행정구역에 속해오다가, 병합(倂合) 또는 통폐합(統廢合)의 과정을 거치면서 1414년에 이르러 단일 행정구역을 이루었다.

삼한시대(三韓時代)를 보면, 현재의 무풍면(茂豊面)을 중심으로 한 무산은 변진국(弁辰國)[1]에 속했고, 현재의 무주읍(茂朱邑)을 중심으로 한 주계(朱溪)는 마한국(馬韓國)[2]에 속하였다.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이르면, 주계는 백제(百濟)에 정복되면서 적천(赤川)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무산은 신라(新羅)의 영역에 속하여 각기 다른 국가에 소속되었다. 특히 주계와 무산은 양국의 국경 지대였던 관계로 치열한 전쟁터를 이루었을 것이나, 한편으로는

---

1) 한반도 중부 이남 지역에 분포한 삼한(三韓) 중의 하나로 변한(弁韓)이라고도 한다. 대체로 기원 전후부터 4세기경까지 지금의 김해·마산 지역에 분포한 정치 집단을 가리킨다. 진한과 변한의 구분은 종족적·지역적인 구분에 의해서 대비되지만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변진은 진한과 잡거하며 언어·법속·의식주가 같고 다만 귀신의 섬김이 다르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진한과 변한은 전체적으로 같은 문화기반을 가진 정치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지≫에 변진은 12개의 소국 이외에 독립된 거수(渠帥)가 있는 여러 소별읍(小別邑)이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변진은 경상도 지역에 분포한 여러 정치 집단 가운데 진한연맹체에 속하지 않은 세력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뒤에 가야연맹체를 구성하였다. 변한은 유명한 철산지로서 중국 군현과 왜에 철을 수출하였고 왜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문신(文身)의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2) 한반도 중부 이남 지역에 분포한 삼한(三韓) 중의 하나이다. 대체로 BC 1세기~AD 3세기에 경기·충청·전라도지방에 분포한 54개의 소국(小國)을 가리킨다. 진수(陳壽)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따르면, 마한 54소국은 큰 나라는 1만여 가(家), 작은 나라는 수천 가로서 모두 합하면 10여만 호(戶)가 되었다고 한다.

인적·물적 교류의 장소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산과 주계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바로 전에 처음으로 같은 국가에 속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한 국가에 속했다 하더라도 각기 다른 행정구역에 속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통일신라 때에도 무산을 상주(尙州)의 개령군(開寧郡, 현재의 경북 김천시)에 편제하면서 이름을 무풍(茂豊)으로 고쳤고, 주계는 전주(全州)의 진례현(進禮縣, 지금의 충남 금산군)에 속하게 되는데 이름마저 단천(丹川)으로 바꾸었던 것이다. 그 후 고려시대에 이르러 같은 행정구역인 강남도(江南道)[3] 남원부 진례현에 속하고 이어 전라도에 예속되면서 각기 다른 작은 현(縣)으로 존속되었는데, 감무제(監務制) 실시에 따라 같은 행정체제에 합병되기도 하였다.

조선 태종 14년(1414)에 이르러 지방행정구역을 8도제(八道制)로 개편할 때, 무풍과 주계를 통폐합하여 무주현(茂朱縣)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적상산성에 사고(史庫)가 설치되어 실록이 보관되고 무주현이 무주도호부(茂朱都護府)로 승격되면서 금산(錦山)에 속하던 안성소(安城所)와 구천동(九千洞)을 포함하고 있던 횡천소(橫川所)가 편입되어 오늘날 무주군의 기틀을 형성하게 되었다.

1895년 행정개편에 따라 무주도호부가 폐지되고 전라도 남원부에 속한 무주군(茂朱郡)이 되었고, 이듬해 전라남·북도의 분리에 따라 전라북도 무주군이 되었다. 1914년에는 금산군에 속하던 부남면(富南面)이 편입되고 기존의 각 면들이 통합되어 6개 면으로 개편되었다. 1979년에는 전국의 군청 소재지 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무주면이 무주읍으로 승격되어, 2003년 현재 1읍 5면으로 편제되어 있다.

2. 지리적 요건

무주군은 우리나라 군(郡) 중에서 바다와 가장 멀리 떨어진 내륙지방에 위치한 소백산맥의 중심부, 즉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내륙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임야가 84%를 차지하는 산악지대이다. 무주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의 등줄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쪽은 고지형(高地形)으로 해발 1,000m이상의 산만 해도 10여 곳이 넘는다. 반면에 서쪽은 갈수록 고도가 낮아져 평균 300m 정도의 고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산줄기 사이에서 흘러나온 무풍면의 남대천, 설천면의 구천동과 원당천, 적상면 괴목

3) 금강(錦江) 이남 지역으로 현재의 전라북도 지역.

리의 상곡천과 삼가리의 적상천, 삼유리의 삼유천 등이 남대천에서 합류하여 금강의 상류를 이룬다. 이들 하천의 합류지점에 무주읍이 형성되어 있다. 또 다른 물길인 구량천이 안성분지를 지나 금강으로 합류하여 용담댐의 용수가 되며, 부남면의 안창천은 곧바로 금강에 합류한다.

금강의 상류지점으로 물줄기에 따라 분지의 형성과 농경의 발달을 예측할 수 있지만, 실제 농경생활을 하기에는 빈약하다. 비록 안성과 무풍의 농경지가 무주읍이나 다른 면보다 좀 넓은 편이나 나머지는 평야지대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많은 편이다.

또한 무주군은 전라북도의 동북쪽 가장 끝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4개의 다른 도(道)와 접경을 이루고 있다. 무풍면이 경상북도 김천시와 경상남도 거창군과 접하고 있으며, 설천면은 충북 영동군, 무주읍은 충북 영동군과 충남 금산군, 부남면은 충남 금산군과 경계를 이룬다. 이와 함께 안성면이 전라북도내 장수군·진안군과 경계를 이룬다.

3. 시대적 변천

1)삼한시대

무산(지금의 나제통문 동쪽지역)은 변진국을 맹주국으로 하는 감문국(甘文國)[4]에 속하였고, 주계(지금의 무주읍 지역)는 마한국에 속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나, 삼한 때의 옛 지명은 확인할 길이 없다.

2)삼국시대

신라 조분왕(助賁王) 2년(231) 석우로(昔于老)에 의해 감문국이 신라에 병합된 후 무산(茂山)으로 명명(命名)되었고, 경덕왕(景德王) 때에 이르러 무풍(茂豊)으로 개명(改名)되었

4) 삼한시대에 지금의 경북 김천시 개령면(開寧面)·감문면(甘文面) 지역에 있던 나라. ≪三國志≫ 권30 魏書東夷傳韓條에 나오는 弁辰甘路國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三國史記≫ 권2 신라본기 2와 권45 열전 5 석우로(昔于老)에 따르면, 231년(조분왕 2) 이찬 석우로(昔于老)가 감문국을 쳐서 깨뜨리고 군(郡)으로 삼았다고 한다. 557년(진흥왕 18) 여기에 군주(軍主)를 두어 청주(靑州)라 하고, 661년(문무왕 1) 주(州)를 폐하여 감문군을 설치하였으며, 경덕왕 때 개령군(開寧郡)으로 개칭하였다. 또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 開寧縣古跡條에 따르면, 조선 전기까지 이 지역에는 감문국 때의 궁궐터와 감문국왕인 김효왕릉(金孝王陵) 및 장부인(獐夫人)의 묘로 전하는 장릉이 있었다고 한다. [≪삼국사기≫ 지리지 개녕군]

다.[5] 그 후 진흥왕 11년(557) 청주(靑州)의 무산현이 되었고, 문무왕 원년(661)에는 감문군(甘文郡)의 무산현이 되었다.

주계는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 346~375)이 마한의 모든 세력을 통일한 시기(369년)를 전후(前後)하여 백제에 속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그 당시 지명은 적천(赤川)이었다.[6] 그 후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지명의 변동 없이 지속되었다. 삼국시대 무풍과 주계는 신라와 백제의 국경지대를 이루고 있었다. 그 당시 국경선이 구체적으로 어디였는지 문헌상으로 확인할 길은 없으나 무풍과 주계의 언어와 풍속의 차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현재의 설천면에 있는 '무주목'이라는 고개와 설천면 장덕리 진들마을 근처로 추정되고 있다.[7]

3)통일신라

신라는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7년(660) 백제를 멸망시키고, 문무왕(文武王) 8년(668)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데 이어 676년 당나라군을 축출하였다. 주계가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 구체적인 시기를 확인할 자료는 없으나, 백제가 멸망하기 전에 신라에 병합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실질적인 통치력의 행사는 신라가 당나라 군사마저 물리치고 난 후로 보인다.

이 시기 적천에 대한 별다른 기록이 없는데, 경덕왕 16년(757)에 이르러 적천이 단천(丹川)으로 개명되었고, 전주 진례현의 속현이 되었다. 이 때 무산이 속했던 감문군은 개녕군(開寧郡)으로 개명되었고, 동시에 무산현이 무풍현으로 바뀌면서 상주(尙州)에 속하게 되었다.

4)고려

신라말의 혼란과 후삼국의 대립구도를 통일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통일왕국을 처음으로 개국한 태조 왕건은 초기에는 신라의 지방제도를 답습하였다. 그러나 재위 23년(940)에 이르러 주·군·현(州郡縣)의 지명을 개정하면서[8] 진례현에 속한 단천현의 이름을 주계현(朱溪縣)으로 개명하였다. 반면에 개녕군에 속한 무풍현의 지명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성종 14년(995)에 지방제도를 개편했는데, 이 때에 이르러 주계와 무풍은 처음으로 같은

---

5) … 茂豊縣本茂山縣景德王改名今因之. ≪三國史記≫ 卷第34(雜誌第3) 地理誌開寧郡條.
6) ≪東國與地勝覽≫茂朱條참조.
7) 최낙철, ≪무주군사≫, 어문각, 1968. 35쪽.
8) … 春三月以慶州爲大都督府改諸州郡號(≪高麗史節要≫ 卷之一太祖神聖大王庚子二十三年)

행정구역인 강남도(江南道) 남원부(南原府) 진례현의 속현으로 편제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각기 다른 현이었다.

현종 9년(1018)에 이르면, 전국을 5도[9]와 양계(兩界)[10]로 구획하고, 이를 다시 4도호부(四都護府)·8목(牧)·129군(郡)·335현(縣)·29진(鎭)으로 나누게 된다. 이 때 주계와 무풍은 전라도에 속하게 되었으며, 명종 2년(1172) 감무제(監務制)[11]를 실시하면서 주계와 무풍 2개의 현을 1인의 감무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였다. 그 당시 무풍의 감무가 주계까지 관할하였는데, 공양왕 3년(1391)까지 같은 행정체제에 병합(倂合)되었다.

5) 조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태종 14년(1414)에 이르러 전국을 8도제로 바꾸는 행정구역 개편을 하게 되었다. 이때 주계와 무풍이 통합되고 무풍의 '무(茂)'와 주계의 '주(朱)'를 따서 '무주(茂朱)'라는 새로운 지명이 만들어졌다. 이 때에 이르러 비로소 본군은 단일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었으며, 치소(治所)는 주계성이었다.

그 후 광해군 6년(1614) 본군의 적상산에 사고(史庫)가 설치되어 평안도 묘향산(妙香山)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이 이안(移安)된 뒤, 인조 19년(1641)에는 선원각(璿源閣)이 건립되어 완전한 사고지(史庫地)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현종 15년(1674) 2월 무주현이 무주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되었다. 이때 금산군에 속하던 안성과 구천동·덕지리 지역이었던 횡천이 본군에 편입되었다.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를 개편하여 23부(府) 331군(郡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무주 도호부가 폐지되고 '무주군'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시기에 잠시 전라도 남원부에 속했으나, 이듬해인 고종 33년(1896) 전라도를 남(南)·북(北)도로 나누면서 전라북도 전주부 무주군

---

9) 양광도(楊廣道: 경기도)·경상도·전라도·교주도(交州道: 강원도)·서해도(西海道: 황해도).

10) 동계(東界: 함경도)·북계(北界: 평안도)

11) 고려 전기 지방제도는 현종 때 일단락되었으나, 실제로는 수령을 파견하지 못한 속군현(屬郡縣)이 많이 존재하였다. 이에 1106년(예종 1) 중앙에서 정식으로 관리를 설치하지 못했던 속군현과 향(鄕)·소(所)·부곡(部曲)·장(莊)·처(處) 등에 감무를 파견하였다. 설치 목적은 주현[主縣: 통상 지방관이 파견된 곳은 주현(主縣: 主邑),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은 속현(屬縣: 屬邑)이라 하였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속군현의 유망민을 안정시켜 조세와 역을 효과적으로 수취하면서 중앙집권책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감무는 과거 급제자를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문종 때 7품 이상인 현령보다 한 품계 낮게 하였다. 그 뒤 1353년(공민왕 2) 경관(京官) 7품 이하로 삼았다가 1359년 현령과 함께 안집별감(安集別監)으로 고쳤으며, 창왕 때 다시 현령감무로 바꾸면서 5~6품으로 하였다. 1413년(태종 13) 군현제를 정비하면서 현감으로 개칭하였다.

(全羅北道全州府茂朱郡)으로 개편되었다.

6) 근·현대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로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일제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는데, 이 때까지 본군에서 관할하던 12개 면(面)[12]과 금산군에 속하던 부남면(富南面)을 본군에 편입시킨 뒤 통폐합하여 6개 면으로 개편하였는데, 행정지명은 전라북도 무주군이었다.

그 후 해방과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도 별다른 변동이 없었는데, 1963년 5월 '면출장소설치' 조례가 공포되면서 동년 6월 적상면(赤裳面) 상곡출장소(裳谷出張所)와 설천면(雪川面), 구천출장소(九千出張所)가 개소 되었다. 1975년 4월에는 부남면(富南面) 가정출장소(柯亭出張所)가 설치되었다. 1979년 5월 1일에는 전국의 군청 소재지의 면이 읍(邑)으로 승격됨에 따라 종전의 무주면이 무주읍으로 승격되었다. 그 당시 무주군의 행정구역은 1읍, 5면, 3출장소, 48리였다. 그러나 1998년 11월, 출장소가 폐지되어 2001년 12월 31일 현재 본군의 행정구역은 1읍 5면이다.

제2절 읍·면의 연혁

1. 무주읍

무주군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79.42㎢이다. 동쪽으로 설천면(雪川面), 서쪽으로 부남면(富南面), 남쪽으로 적상면(赤裳面), 북동쪽으로 충북 영동군, 북서쪽으로 충남 금산군과 접한다.

대부분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지이며, 평지가 있는 곳은 덕유산(德裕山)에서 발원하는 남대천의 곡류부에 해당하는 읍내리(邑內里)·대차리(大車里)·앞섬 등지로, 해발고도는 200~250m이다. 주요 농산물은 쌀·보리 외에 인삼·버섯·약초 재배가 활발하다. 또한 충남·충북·경북·경남 등 4도와 접하는 국도 19호와 30호, 그리고 37호가 통과하는 교통·상업의 중심지가 되며, 영동·금산·임실·남원·김천·거창 방면으로 통하는 지방도가 이곳에서 분기한다. 대전과 가까워서 전주보다 대전의 영향이 크며, 남쪽에 위치한 덕유

12)府內·新豊·豊西·豊東·豊南·橫川·裳谷·柳加·二安·一安·西·北. [≪적성지≫(天), 33쪽]

산국립공원(무주 구천동)의 입구에 해당하여 관광객이 많이 모인다.

옛 기록에 따르면, 무주읍은 마한에 속했는데 나중에 백제의 적천현(赤川縣)으로 되었다가, 통일신라 경덕왕 때 단천(丹川)으로 이름을 바꾸고 종전에 이성현(伊城縣)으로 불렸던 진례현(進禮縣)에 예속되었다.

고려 때에는 주계현(朱溪縣)으로 개명(改名)되었는데, 현의 중심지였다. 조선 태종 14년(1414) 무풍현과 통합되어 '무주현(茂朱縣)'이 되었으며 치소(治所)가 주계성에 설치되어 무주현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 당시 무주현의 행정구역은 부내면·북면·서면·신풍면·풍서면·풍남면·풍동면·상곡면·유가면 등 9개 면이었다. 그 중 무주읍에 해당하는 지역은 부내면(현재의 읍내리·오산리·대차리의 다산), 북면(앞섬을 제외한 내도리 일대), 서면 (다산을 제외한 대차리·용포리·가옥리), 신풍면(장백리) 등이었다.

현종 15년(1674) 적상산성 사고(史庫)와 관련하여 무주현이 무주도호부(茂朱都護府)로 승격된 후에도, 현재의 무주읍은 본군의 전역을 관할하는 관아(官衙)가 설치된 지방행정의 중심지였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13]이 단행되었다. 이 때 종전의 부내면(府內面) 전역을 비롯하여 서면(西面)과 북면(北面)의 전역, 신풍면(新豊面)의 상장(上長)과 하장(下長)이 통폐합되었다. 여기에 금산군의 부동면에 속하던 전도리(前島里. 앞섬)와 금산군 부리면의 요대마을을 편입시키면서 무주군의 소재지이자 중심지가 되어 무주면(茂朱面)으로 이름하였다. 그 후 1979년 5월 전국의 군청소재지가 있는 면(面)이 읍(邑)으로 승격되면서 무주읍(茂朱邑)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1년 현재, 무주읍의 행정구역은 8개 법정리(法定里), 행정상 30개 리, 152개 반(班), 34개 자연마을로 구획되어 있다.

2. 무풍면

무주군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91.23㎢이다. 동쪽으로 경북 김천시, 남동쪽으로 경남 거창군, 북서쪽으로 설천면과 접한다. 대덕산(大德山)에서 발원하는 남대천의 물줄기가 삼도봉에서 발원한 미령천과 원촌에서 합해져 설천 쪽을 향해 흐르고 있다.

---

13) 전국의 행정구역을 13도(道)로 구획하고, 그 밑에 부(府)·군(郡)·도(島)를 두고 말단행정기구로 읍·면을 둔 3단계 조직이었다. 1914년 12부 220군 2,522면으로 조정되었다.

면의 중심인 현내리(縣內里) 부근은 화강암이 침식·풍화된 해발고도 400~900m의 분지이고, 그 주위는 해발고도 700~1,000m의 산지이다. 주곡 농업 외에 고랭지채소·엽연초 등이 생산된다. 현내리에서 무주·김천·거창 방면으로 통하는 도로가 분기된다. 삼국시대에는 신라에 속했었고 현재도 경상도와 인접하여 언어·풍속이 영남권에 가깝다.

삼한시대에는 변진의 감문국에 속하였고, 삼국시대에는 신라의 무산현(茂山縣)으로 치소(治所)였다. 신라의 변방(邊防)이던 무산은 백제의 적천현과 국경을 이루었으며, 신라 경덕왕 때 무풍(茂豊)으로 개칭되었다. 고려 성종 때에는 신라권역의 영남권에서 백제권역인 호남권으로 편제되어 강남도 남원부 진례현의 속현(屬縣)이 되었으며, 명종 때 실시된 감무제(監務制)에 따라 무풍현의 감무가 주계현의 행정까지 관할하였고 한 때는 병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 태종 14년,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무풍과 주계가 통폐합되어 '무주(茂朱)'라는 새로운 지명이 생기면서 치소가 주계로 옮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무풍은 무주현에 딸린 면(面)단위의 행정구역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무풍의 행정구역은 풍동면(豊東面. 현재의 현내리, 지성리, 금평리)과 풍남면(豊南面. 현재의 철목리, 증산리, 은산리)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다시 옛 이름을 되찾게 된다. 즉 무주군이 6개 면으로 나뉘게 되는데, 무풍은 풍동과 풍남을 통폐합하고 종전의 횡천면(橫川面, 지금의 구천동·덕지리 지역)에 속해 있던 덕동과 오정동을 편입시키면서 옛 명칭을 다시 살려 '무풍면'이 된 것이다. 1414년 무풍현이 폐지된 후, 500년 만에 옛 지명을 되찾은 것이다.

조선 후기 참위설(讖緯說)과 풍수지리설을 신봉하던 술가(術家)들의 말에 의하면, 무풍은 '십승지지(十勝之地)[14]'의 하나이다. 특히 남사고비결(南師古秘訣)은 임진왜란(壬辰倭亂) 이전에 나온 것으로, 임진왜란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풍으로 찾아와 난리를 피하고 정착하기도 하였다. 즉 무풍은 술가들이 복지(卜地)로 선망(羨望)하던 곳이다. 한편 현내리에는 명례궁(明禮宮)이 있었다.

2001년 현재, 무풍면의 행정구역은 8개 법정리(法定里), 행정상 17개 리, 55반(班), 43개 자연마을로 구획되어 있다.

---

14) 풍기 金鷄村, 안동 春陽面, 보은 俗離山, 운봉 頭流山, 예천 金堂洞, 공주 維鳩·麻谷, 영월 正東上流, 부안 邊山, 성주의 萬壽洞.

3. 설천면

무주군의 동부에 위치한 설천면의 면적은 157.89㎢이다. 소백산맥 중의 산간지대에 위치 하여 북쪽은 충북 영동군, 남쪽은 경남 거창군과 접하며, 동쪽은 무풍면(茂豊面), 남서쪽은 안성면, 서쪽은 적상면, 북서쪽은 무주읍과 경계를 이룬다.

대부분이 화강암질 편마암으로 구성된 해발고도 700～1,000m의 산지이며 남대천(南大 川) 주변에 해발고도 300～600m의 좁은 평지가 있다. 서쪽의 두문산(斗文山: 1,051m) 동쪽에 800～1,000m의 고원이 전개된다. 주요 농산물은 쌀·보리 외에 고랭지 채소가 생산 된다.

덕유산(德裕山: 1,614m)에서 나제통문(羅濟通門)까지 25km 길이의 남대천 상류에는 물의 소용돌이에 의해서 기반암에 형성된 인월담·비파담 등을 비롯한 무주구천동의 33경 이 있어 덕유산국립공원의 중심을 이룬다. 소천리(所川里)에 있는 나제통문은 백제와 신라 의 국경을 이루었던 곳으로, 이를 경계로 동부와 서부의 언어·풍속이 아직도 다르다. 또 여기서 무주～무풍, 무주～구천동 도로가 갈라진다. 장덕리 전 115외(수한마을) 일대는 천연기념물 322호 반딧불과 그 먹이 다슬기 서식지로 지정되어 있다.

덕유산에서 발원하는 원당천(元唐川)과 무풍 대덕산에서 발원한 남대천이 소천리에서 합류하여 청량리와 기곡리를 거쳐 무주읍 쪽으로 향해 흐르다 금강에 합류한다.

설천면은 마한과 변진에 속하였는데, 삼국시대에는 백제에 속해 신라와 국경을 이루었다. 즉 백제의 변방인 적천현의 가장 끝머리에 위치하여 신라의 무산현과 국경선을 이루게 되어 양국간의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병사들의 생사가 갈렸으며 국경선이 달라지기도 했던 고장 이었다. 백제와 신라의 국경이었다고 하는 '라제통문(羅濟通門)' 아래로 흐르는 개울은 양국의 군사들이 싸우다가 숨진 시체들로 온 개울을 메웠고, 피비린내를 맡고 모여든 파리 떼들이 들끓었던 곳이라 하여 '파리소'라 불리우고 있다.

설천면은 통일신라 때에는 단천현에, 고려 때는 주계현에 속하면서 전주(全州)와 청주(靑 州) 또는 상주(尙州)에 속하였다. 조선 초에는 주계현에 소속되어 무풍현 또는 금산군에 속하던 횡천면과 경계를 이루었다.

조선 태종 14년 행정구역 개편시 무풍현과 주계현이 통폐합되면서 설천은 '무주현'에 소속되어 풍서면(豊西面, 지금의 소천리·대불리·미천리·장덕리)이 되었다. 그 후 1914 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종전의 신동면(新東面)이었던 신풍면(新豊面)의 기곡리·길산리·

청량리와 종전의 금산군에 속 했었던 구천동 지역, 즉 횡천면의 삼공리·심곡리·두길리를 통폐합시켜 설천면으로 편제 되었다.

그 후 1963년 면출장소설치조례(面出張所設置條例)가 공포되어 삼공리(三公里)에 구천 출장소가 설치되었다가 1998년 11월 6일 폐지되었다. 2001년 현재, 설천면의 행정구역은 10개 법정리(法定里), 행정상 25개 리(分里), 75반(班), 52개 자연마을로 구획되어 있다.

설천면의 지명 유래는 2가지 설로 정리된다. 하나는 조선 영조 때의 문관(文官)인 이봉상(李鳳祥)이 이 고장에 살면서 자신의 호를 설천(雪川)이라 한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이 고장에 9천명의 승려들이 수도하였는데, 이들의 밥을 짓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쌀을 씻던 하얀 쌀뜨물이 계곡을 따라 온통 눈과 같이 하얗게 흘러내렸다 하여 '설천'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4. 적상면

적상면은 무주군의 중앙에 위치하며, 면적은 135.91㎢이다. 덕유산의 북쪽 사면에 위치하며, 동쪽은 설천면, 서쪽은 부남면, 남쪽은 오두치(烏頭峙: 590m) 등을 경계로 안성면, 북쪽은 무주읍에 각각 접한다. 중앙에 적상산(I,034m)이 있고, 그 동쪽과 서쪽에서 금강의 상류인 남대천의 지류가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따라서 이들 계류의 주변에 해발고도 200~400m의 좁은 평지가 있을 뿐, 대부분 산지이다. 영세한 주곡 농업 외에 인삼·잎담배·약초·산나물·버섯 등의 특산물이 생산된다. 적상산에는 산성이 축조되었으며, ≪조선왕조실록≫과 관계된 사고지(史庫地)와 안국사(安 國寺)·호국사(護國寺) 등의 사찰과 유적지가 있다. 전주~진안~안천(顔川)~무주의 도로와 전주~진안~장계(長溪)~무주의 도로가 면의 동서부를 가르고 있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에 속했으며, 백제의 적천현, 통일신라의 단천현, 고려의 주계현에 속하였고, 조선 태종 이후에는 주계현이 무주현으로 개칭됨에 따라 무주현에 속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유가면[柳加面, 현재의 사천리와 사산리(마산 제외), 삼유리와 방이리, 그리고 안성면 진도리]과 상곡면(裳谷面, 현재의 북창리·괴목리, 사산리의 마산 마을과 안성면의 사전리)으로 나뉘었었다. 한편 적상면의 관할지는 현재의 무주읍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서 변경되어 왔다.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유가면과 상곡면이 통폐합되어 적상면이라는 이름을 새

로 갖게 되었으며 용담거리(龍潭街)에 면사무소가 설치되었다. 이 때 유가면에 딸렸던 진도리와 상곡면에 속했던 사전리는 안성면으로 편입되었다.[15)]

적상면의 지명은 관내에 있는 적상산(赤裳山)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즉 여인의 붉은 치마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적상산의 이름을 그대로 면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적상산에는 산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사고지와 수호사찰 등 이 있었다.

그 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1963년 면출장소설치조례(面出張所設置條例)가 공포되어 포내리(浦內里)에 '적상출장소'가 설치되어 종전의 상곡면 지역을 관할하다가 1998년 11월 6일 폐지되었다. 2001년 현재, 적상면의 행정구역은 8개 법정리, 행정상 25개 리, 75반, 54개 자연마을로 구획되어 있다.

5. 안성면

무주군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97.33km이다. 동쪽은 두문산(斗文山: 1,051m)과 덕유산 등을 경계로 설천면 및 경남 거창군 북상면(北上面)에 접하고, 서쪽은 진안군 동향면(銅鄕面), 남쪽은 장수군 계북면(溪北面), 북쪽은 오두치(烏頭峙: 590m) 등을 경계로 적상면에 접한다.

소백산맥 중의 덕유산 줄기 서쪽 사면의 분지에 위치하고 있다. 동부와 남부에 덕유산을 비롯한 해발고도 1,300～1,500m의 산지가 솟아 있는데, 이 일대가 덕유산 국립공원 이다. 덕유산의 북서쪽 사면에는 해발고도 400～550m의 넓은 분지가 전개되며, 덕유산에서 발원하는 명천(明川)과 통안천(通安川)이 장기리에서 합류하여 구량천(九良川)을 이룬 다음, 진도리를 지나 진안쪽으로 곡류(曲流)하여 금상상류를 이룬다.

분지의 지질은 화강암질 편마암이 심층풍화한 뒤 구리향천에 의해 개석 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3단의 단구상(段丘狀)을 형성한다. 한국 남서부 내륙분지의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모식적인 분지이다.

북쪽에는 무주군내에서 가장 넓은 평야가 전개되어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를 이룬다. 쌀·보리 농사 외에 잎담배·인삼·약초·고랭지 채소가 많이 생산되며, 장기리에서 집산·유통된다. 동향~안성 간 도로, 진안~장계~무주 간 국도가 통과하여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

15)≪내 고장 전설집≫, 414~415쪽.

남동쪽에 용추폭포와 칠연폭포가 있고 무주구천동(茂朱九千洞)의 남쪽 입구에 해당함으로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다.

안성면의 경지 면적을 보면, 농경지가 밭보다 많을 뿐 아니라 논의 비율 역시 무주군에서 가장 높으며, 전체 경지면적 역시 무주군의 다른 읍·면에 비해 압도적으로 넓다. 또한 원통사·칠연의총·칠연폭포·용추폭포 등 관광명소가 있다.

안성면은 본래 대곡소(大谷所)·횡천소(橫川所)와 함께 부리현(富利縣)에 속했던 안성소(安城所)였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에, 백제 때에는 진내군(進乃郡), 통일신라 때는 진례군(進禮郡), 고려 때는 금주군(錦州郡) 또는 부리현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금산군(錦山郡)에 속하였으며, 현종 15년(1674) 적상산사고와 관련하여 무주현이 무주도호부로 승격하면서 횡천면과 함께 무주도호부에 소속되었고, 일안면(一安面)과 이안면(二安面) 그리고 횡천면으로 개편되었다.

1914년 행정개편 시 일안면과 이안면 전역을 중심으로 유가면의 오동·진원·물리·도치 등 4개 리와 적상면의 사교(斜郊)·사전(斜田)·구교(鳩郊) 등 3개 리를 편입하여 8개리로 개편하고, 옛 안성소의 이름에 따라 안성면이라 하였다.

2001년 현재, 안성면의 행정구역은 8개 법정리, 행정상 36개 리, 115반, 61개 자연마을로 구획되어 있다.

6. 부남면

무주군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9.98㎢이다. 동쪽으로 조항산(鳥項山:799m) 등의 산지를 경계로 무주읍, 서쪽으로 지장산(智藏山: 723m) 등을 경계로 진안군·충남 금산군, 남쪽으로 진안군 동향면, 북쪽은 충남 금산군에 접한다.

800m 고도의 산지 중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계류(溪流)와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금강 상류 주변에 해발고도 200～350m의 평지가 있을 뿐 대부분 산지이다. 주요 농산물은 쌀·보리 외에 인삼이 많이 재배된다. 교통은 금산～무주를 잇는 국도와 진안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어, 충남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진안군에서 흘러온 금강 상류가 대소리(大所里)와 대유리(大柳里) 그리고 굴암리(屈岩里)를 지나 무주읍의 남대천과 합류한다.

부남면은 본래 부리현(富利縣)에 속한 대곡소(大谷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삼한 때에는 마한에 속하였다. 백제 때는 두시이현(豆尸伊縣) 또는 부시이현(富尸伊縣)에 속하였고, 통

일신라 때에는 지금의 금산인 진례군에 영속된 이성현(伊成縣)에 속한 채 고려초기까지 지속되었다. 고려 때 금산은 금계군이 되었다가 다시 현으로 축소되기도 하였는데, 이성현이 부리현(富利縣)으로 분리 개칭되는 변화를 겪었다. 이에 따라 고려 말에는 다시 군으로 승격된 금주군의 속현이 된 부리현에 속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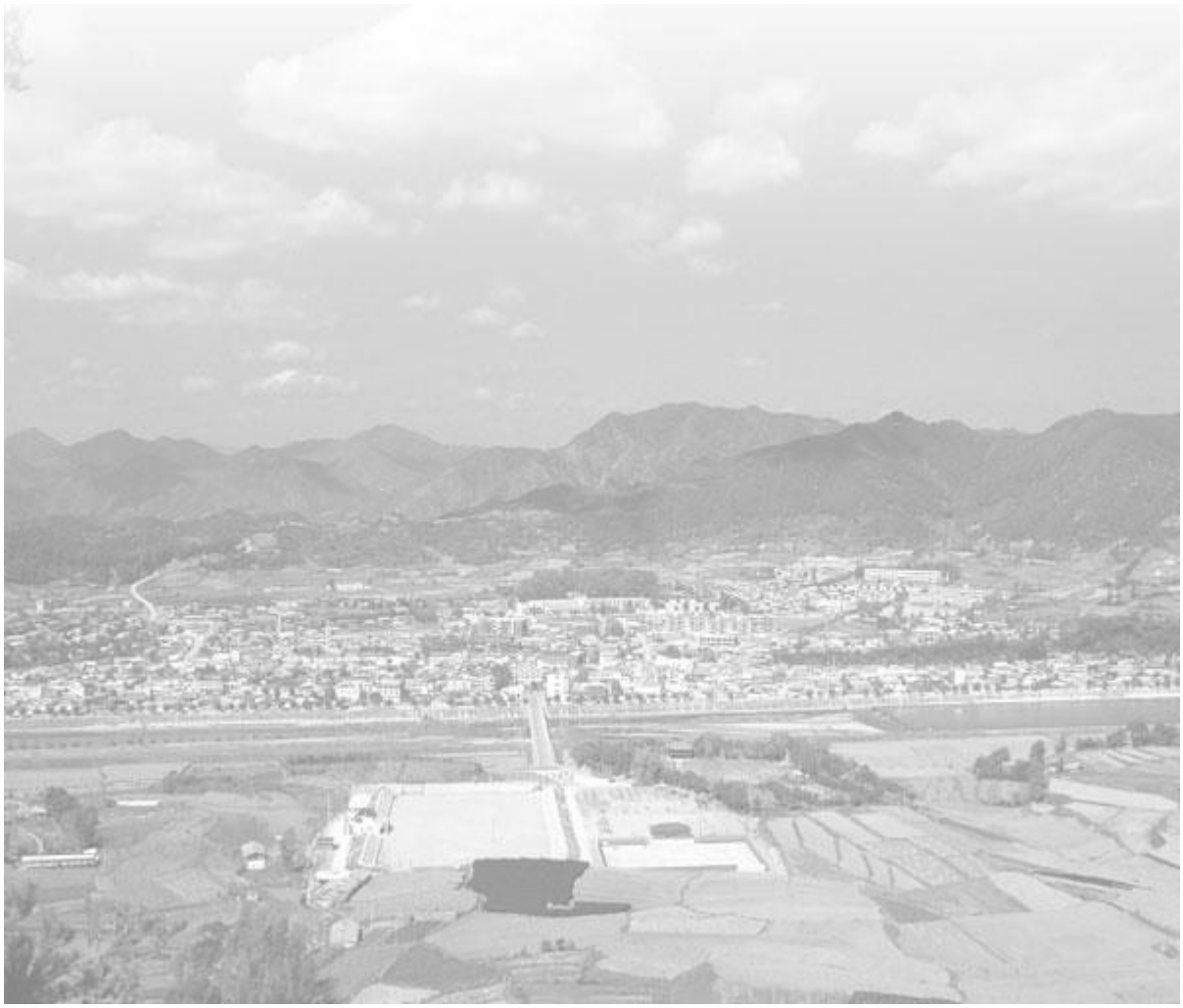
1414년 전국에 있는 군·현의 지명 중 주(州)자를 사용하던 고장의 지명을 모두 산(山)자로 고칠 때 금주는 금산으로 바뀌어 오늘날의 금산군이 되었는데, 그 이후 각 고을을 면단위로 분할하면서 부리현은 부동(富東)·부서·부북·부남 등 4개 면이 되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이 고장의 지명으로 사용되던 대곡(大谷)은 부남이 되었고 소재지는 대소리에 설치 되었다.

1914년 행정개편에 따라 부남면은 부동면(富東面)의 전도리(前島里)와 함께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편입되었는데, 전도리는 무주면에 편입되었다. 부남이란 지명은 본래 부리현을 4개의 면으로 나눌 때 부리의 남쪽에 있었던 고을이라 하여 부리의 부와 남쪽의 남을 따서 붙여진 지명이다. 그러나 금산의 남쪽에 있는 고을이라 하여 부남면으로도 불리 웠다고 한다. 이 때 종전의 평당·대티·대소·대곡·도소 등 5개 리를 가당리, 굴암리, 대유리, 대소리, 고창리, 장안리 등 6개의 법정리로 편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이후 별다른 변화는 없었는데, 1975년 2월 20일 면출장소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된 후 가당리(柯堂里)와 굴암리 등 오지 사람들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동년 4월 1일 '가정출장소'가 설치되었다가, 1998년 11월 6일 폐지되었다. 250여 년전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는 방앗거리 놀이는 대소·대티·가정마을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오고 있으며, 무주군내에서 유일하게 계승발전시켜 나온 전통민속놀이다. 부남면에는 강변유원지·조항산과 지장산·문암계곡 등의 관광명소가 있으며, 자연환경을 이용한 비지정 관광지가 운영되고 있고, 감나무골 단지를 조성하여 주민소득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1년 10월 현재, 6개 법정리와 16개 분리 그리고 43개 반, 23개의 자연마을로 구획되어 있다.

[집필 : 박노석]



제2장 자연환경

제1절 위치와 면적

1. 위치

무주군은 전라북도 북동부에, 소백산맥의 서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진안군과 장수군, 북쪽으로 충청북도 영동군과 충청남도 금산군, 동쪽으로 경상북도 김천시와 경상남도 거창군 등 4도 1시 5군과 접하고 있다. 북쪽 끝은 무주읍 내도리, 남쪽 끝은 안성면 공진리의 삿갓봉, 동쪽은 무풍면 금평리 주치령으로 이곳은 전라북도의 가장 동쪽 끝이며, 서쪽은 부남면 가당리가 된다.

설천면 소천리의 나제통문은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역 이었고, 무주읍과 영동군 학산면 압재는 남해와 원주를 이어주는 도로가 개설되었다. 2002년 개통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부남면과 무주읍 그리고 적상면과 안성면을 지나며, 무주읍과 안성면에 인터체인지가 자리하고 있다.

한편, 무주의 동부지역인 무풍면은 김천시와, 서부의 부남면은 금산군을 통해서 대전과, 무주읍은 영동과 교류가 빈번하다. 그래서 무풍 일대에 사는 사람들은 영남사투리를 쓰고, 무주읍에서는 충청도 사투리, 부남과 안성에는 전라도 북부지방의 사투리가 남아있다.

무주군의 지리적 좌표는 동경127°54′(무풍면 금평리)~127°31′(부남면 가당리)이며, 북위 36°.04′



〈그림 1-2-7〉 무주군 위치도

(안성면 공진리)~36°47′(무주읍 내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내륙지방에서 가장 중심부를 점유하고 있는 산악지대 이다.

2. 면적

무주군은 소백산맥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총면적 631.59㎢로서, 전라북도 면적(8,051.72㎢)의 7.84%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무주의 임야면적은 520.36㎢로서 전체 면적의 8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서의 길이 37㎞, 남북길이 30㎞로 되어있다. 덕유산 국립공원 면적은 219.0㎢여서 군 전체면적의 34.7% 즉, 국립공원이 약 3분의 1이상이나 되는 산간지라는 특징이 있다.

논과 밭의 면적 비율은 4.8 : 5.2로서 밭이 논보다 더 많은 것도 전라북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대상이 된다.

제2절 지형

1. 산지

태백산맥에서 분기된 소백산맥이 지리산으로 가는 중간지대에 덕유산이 솟아있는데 향적봉(1,614m)이 최고봉이며, 능선은 남서쪽으로 이어져 남덕유산(1,507m)을 이루고 있다. 덕유산의 이웃에 민주지산(1,242m), 석기봉(1,299m), 삼도봉등을 거쳐 부항령(釜項嶺)과 대덕치(大德峙)를 형성하고 대덕산(大德山1,290m)에 이르러 가야산맥(伽倻山脈)이 갈라지고 여기서 경상북도와 경계를 이룬다.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여섯 지맥이 뻗어 커다란 산괴를 이룬다. 첫 줄기는 무풍과 설천의 경계를 이루고, 둘째 줄기는 덕유산(德裕山)에서 갈라져서 설천의 백운산(雪川白雲山)에 이르며, 셋째 줄기는 적상산(赤裳山1,034m)을 형성했고, 넷째 줄기는 적상면 삼유리(赤裳面 三柳里)쪽으로 뻗었으며, 다섯째 줄기는 국사봉(國師峯756m)과 옥녀봉(玉女峰)을 형성하여 부남쪽으로 뻗쳤고, 여섯째 줄기는 노루고개(獐嶺)와 밤고개(栗嶺) 등을 지나 지리산에 이르러 진안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무주군지, 1990).

덕유산지의 해발고도 900～1,000m이상 되는 정상 주변에는 백악기말(白堊紀末)-고제삼기(古第三紀)의 지형면인 고기삭박면(古紀削剝面old denudation surfaces)이 분포하며, 산밑에는 중신세후기(中新世後期)-경신세후기(更新世後期)의 지형면인 신기삭박면(新期削剝面new denudation surfaces)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김상호, 1980), 신기삭박면은 산간분지 및 고원을 이룬다(장호, 1981). 분지란 주위가 고지(高地)로 둘러 쌓인 낮고 편평한 지형으로 주변의 고지를 분지벽(basin wall), 낮고 편평한 평지를 분지상(盆地床 basin floor)이라 한다. 분지를 성인에 따라 나누면 단층에 의해서 함몰되어 이루어진 단층분지(fault basin), 곡강운동(曲降運動)에 의한 곡강분지(warped basin), 지각변동에 기인한 것을 구조분지(構造盆地tectonic basin), 차별침식에 의해서 발달한 것을 침식분지라 한다. 고원(plateau, table land)은 주변지역보다 해발고도가 높고 표면기복이 작은 평탄한 지형으로 산맥의 사이에 있는 산간고원(intermontane plateau), 산맥과 평야의 중간에 있는 산록고원(山麓高原piedmont plateau), 인도나 아프리카와 같이 주변의 저지와의 사이에 급애(急崖)가 있는 것을 탁상고원(卓狀高原table plateau)이라 한다. 따라서 분지와 고원의 지형적 차이는 국지기복(局地起伏)과 주변에 높은 산지의 유무여서 비고(比高)가 큰 산지가 있는 것이 분지이다.

무주군에는 산간분지 및 고원의 분지상으로 볼 때 2개의 분지가 있다. 즉, 무풍분지는 무풍면 일대에 있으며 해발고도 400～500m로 형성되었고, 지질은 불국사화강암, 토양은 적황색토와 충적토로 구성되어 있다. 또 안성분지는 안성면 일대에서 볼 수 있는데 해발고도 400～550m, 지질은 화강암질편마암이며, 토양은 적황색토와 충적토로 구성되어 있다. 덕유산은 전라북도의 무주군·장수군과 경남 거창군·함양군에 걸쳐 있으며, 그 분수계가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의 경계가 된다. 무주군 설천면과 안성면의 경계가 되는 두문산(斗文山1,053m)에서 남덕유산까지 남북 주능선이 약 20㎞이며, 주봉은 설천면과 안성면의 경계를 이루는 덕유산인데 북덕유산 이라고도 한다. 덕유산은 꼭대기가 뾰쪽하지 않고 비교적 평탄한 소위 토산(土山)을 이루어 산정 가까이에 샘이 있다. 산정의 평탄면은 두문산 동쪽에도 잘 발달하여 설천면 심곡리(深谷里)에 해발고도 800~1,000m의 고원이 위치한다.

2. 하천

앞에서 살펴본 여섯 줄기의 지맥과 지맥사이를 하천이 흘러 소백산맥과 첫 줄기 지맥사이

에 남대천이 흐르면서 무풍면을 이루고, 첫 줄기와 둘째 줄기 사이는 원당천(元塘川)이 흘러 설천면을 형성하였고, 둘째 줄기와 셋째 줄기의 적상산(赤裳山)지맥 사이에 괴목천(槐木川)이 흘러 적상면이 형성되며, 다섯째 줄기와 여섯째 줄기 사이는 부남면이 형성되었다.

이상의 남대천, 원당천, 괴목천, 삼유천, 고창천이 합류하여 남대천으로 유입, 다시 금산(錦山)으로 흘러 금강(錦江)의 상류를 이루는데, 이 부분에 무주읍이 자리잡고 있다. 또 구량천(九良川)은 안성(安城)분지를 흘러 부남을 경유하여 금강에 이르는데, 이 구량천 분지가 안성면이다.

무풍과 안성은 분지라 할 수 있고 평야라 할 만한 곳은 없다. 각 하천은 급경사가 된 산, 계곡을 흘러 대부분 급류에 사행천을 이루고 있다. 무풍에서 무주읍을 지나 대차리(大車里)로 흐르는 남대천과 안성에서 흐르는 구량천이 합류하여 내도리(內島里)로 휘돌아 섬을 이루고 금강으로 합류하는데 내도리에서 사행천의 대표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무주군 전체의 형상이 큰 주머니 모양이 되어 여섯 줄기의 산맥과 5개의 하천이 주머니의 주름이 되고, 남대천이 주머니의 끈이 되어 모든 물이 주머니 입을 통하여 흐르도록 되어 있다(무주군지, 1990).

제3절 지질과 토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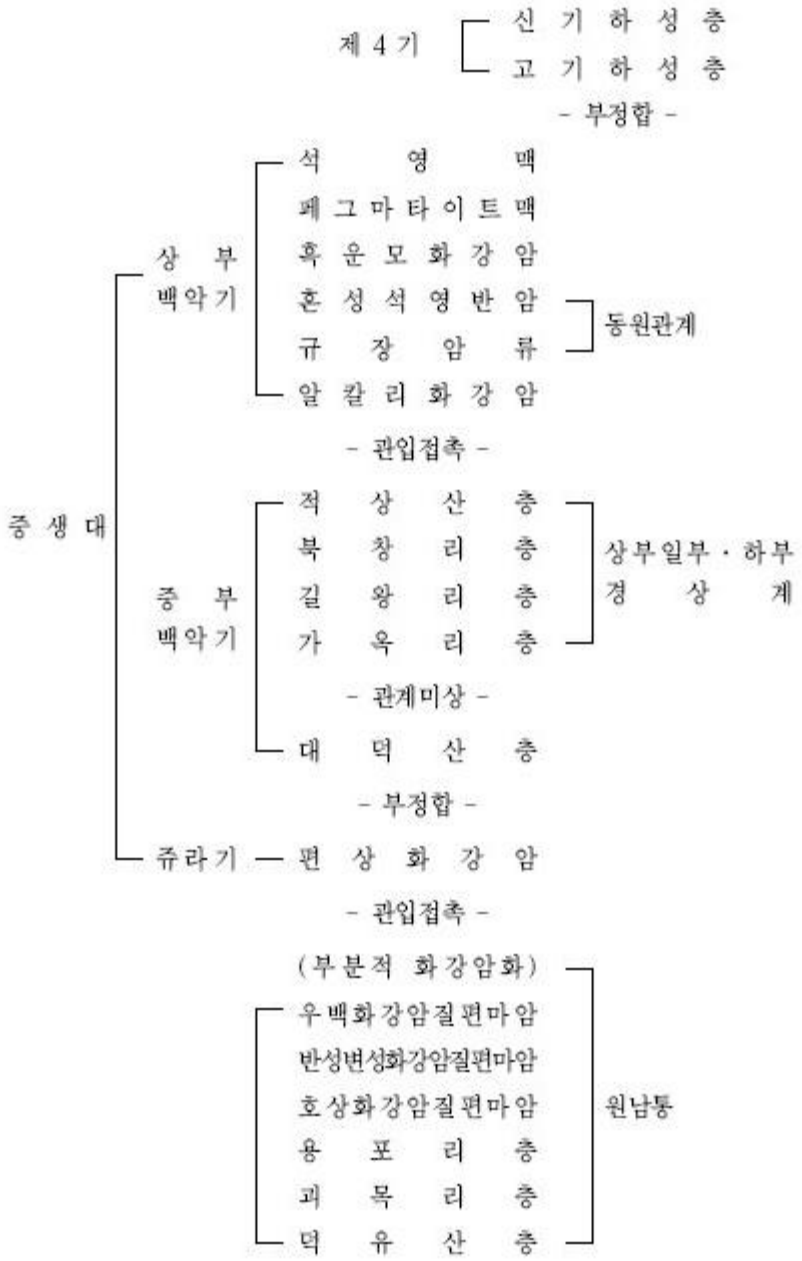
전라북도의 동부산간지대에 속하는 무주군은 지질이 선캠브리아기의 화강암질 편마암이나 편마암으로 구성된 변성암 복합체, 퇴적암류, 화산암류 등의 풍화에 강한 암석들이 분포되어 있다. 즉, 무주군은 중앙북부와 서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쥬라(Jura)기로 추정되는 편상화강암(片狀花崗岩)이 관입되었으며, 다시 이들은 중생대(中生代)의 경상계에 대비되는 퇴적암(堆積岩)에 의해서 북부중앙과 서남일부에 부정합(不整合)으로 덮여있다.

무주군의 변성암은 암질(岩質)에 따라 화강암질편마암(花崗岩質片麻岩)과 결정편암류(結晶片岩類)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결정편암류는 본군의 동남·서북부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중앙에는 편마암내의 소규모 잔류체로 분포한다. 이 결정편암류는 지역에 따라 변질도를 달리하여 동남부 지역은

❖ 지질 층서 개관도 ❖


제 4 기
신 기 하 성 층
고 기 하 성 층
- 부정합 -
중 생 대
상 부 백악기
석 영 맥
페그마타이트맥
흑운모화강암
혼성석영반암
규 장 암 류
동원관계
알칼리화강암
- 관입접촉 -
중 부 백악기
적 상 산 층
북 창 리 층
길 왕 리 층
가 옥 리 층
상부일부 · 하부 경 상 계
- 관계미상 -
대 덕 산 층
- 부정합 -
쥬라기
편 상 화 강 암
- 관입접촉 -
(부분적 화강암화)
우백화강암질편마암
반성변성화강암질편마암
호상화강암질편마암
원남통
용 포 리 층
괴 목 리 층
덕 유 산 층

주로 흑운모편암으로 비교적 높은 변성도를 보이고, 남대천의 곡류를 따라 동북에서 서남으로 발달하는 편암류는 녹니석편암(錄泥石片岩)과 규암(硅岩)으로 와층(瓦層)을 이루는데 변성도가 비교적 낮다.

화강암질편마암은 무주군의 중앙부와 부남면 대소리(大所里)일대, 덕유산 동쪽 산록에 분포하는데, 편마암과 접하는 데는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적상산 일대에는 경상계에 속하는 층이 분포하고 있는데 주로 적상산 일대와 사산교(斜山橋) 동쪽 산지에 국지적으로 분포한다.

본층은 하위(下位)로부터 응회암질(凝灰岩質), 사암(砂岩), 유문암(流紋岩), 적색(赤色) 세일, 녹색응회암(綠色凝灰岩), 녹회색유문암질암석(綠灰色流紋岩質岩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암은 형재되어 있지 않다.

본층은 N25°E, 27°NW : NS나 N28～30°W와 수직경사의 절리(節理)가 잘 발달하는데 그 중에서도 N28～30°W와 수직의 것이 뚜렷하여 이면에 따라 절벽이 만들어져 험준한 지형을 이룬다. 특히 무주지방에는 유명한 구상화강편마암(球狀花崗片麻岩)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적상면 사산리 마산동굴(赤裳面斜山里馬山洞窟)이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무주군지, 1990).

제4절 기후

1.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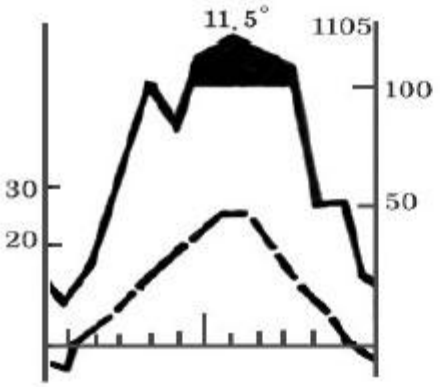
무주지방은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하여 한국남부의 전형적인 기후를 나타낸다. 겨울에는 시베리아로부터 차고 건조한 북서 계절풍이 불어 춥고 건조한 기후가 되고, 여름에는 북태평양으로부터 덥고 습한 동남계절풍이 불어 무덥고 습한 기후가 되어 차고 더운 차이가 무척 크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시베리아(Siberia)기단, 오츠크(Orhotsk)해 기단, 북태평양 기단, 양쯔강 기단, 적도 기단 등인데 이들 중 시베리아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이 가장 크다. 시베리아기단은 한랭건조하고, 겨울철에 시베리아대륙에 발달하며, 북서계절풍으로 불어오나 가끔 봄·가을에도 출현한다. 오츠크해기단은 한랭다습한 특성을 보이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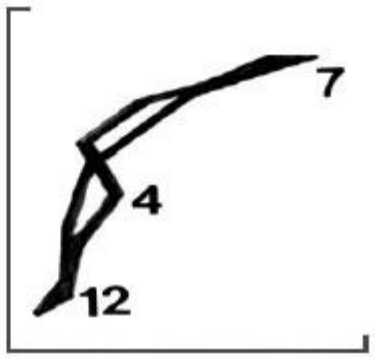
초 여름경 오츠크 부근에서 발달하며, 남서로 뻗치어 장마전선을 형성하고 봄·가을에도 나타난다. 봄에는 약화된 시베리아 기단에서 분리된 이동성 고기압이 자주 통과하므로 변덕스런 날씨를 보이고 또 편서풍에 의한 황사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가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쇠퇴와 시베리아고기압 확장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되며 하늘이 높고 푸르다.

무주군은 산간부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은 춥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내륙분지 모양으로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봄, 가을, 겨울은 상당히 건조하다.

기온과 강수량은 식물의 분포에 큰 영향을 준다. 기온과 강수량과의 관계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나타낸 그림이 기후도(climate diagram)와 온우도(hythergraph)이다. <그림 1-2-2>와 <그림 1-2-3>은 무주군의 기후도와 온우도이다.



〈그림 1-2-3〉 무주의 기후도



〈그림 1-2-3〉 무주의 온우도

온우도에 의하면 한국의 기후 유형 4가지 즉, 울릉도와 같은 동우형, 함경도와 같은 대륙형, 대구와 같은 내륙형, 부산과 같은 남해안형 중 무주군 지방은 내륙형 기후에 속한다.

2. 기온

무주지방의 기온 측정 자료는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장수측후소)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1> 월평균 기온 (1971~2000)

(기상청.2001)

월 기온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평균 기온 (℃)	-2.7	-1.2	3,8	10.2	15.4	19.7	23.1	23.1	18.0	11.1	5.1	-0.6	10.4

위 <표 1-2-1>을 보면 겨울철에는 결빙이 되고 7·8월은 높은 기온으로 식물 생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 월평균 최고, 최저기온 (1971~2000)

(기상청.2001)

월 기온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최고 기온 (℃)	3.2	5.3	10.8	17.8	22.0	25.1	27.6	28.3	24.6	19.4	12.4	6.0	16.9
최저 기온 (℃)	-8.2	-6.8	-2.2	2.9	8.9	14.7	19.3	18.9	12.8	4.5	-0.9	-6.2	4.8

월평균 최고기온은 8월에 28.3℃를 기록했고 월평균최저 기온은 1월에 -8.2℃로 나타났다.

3. 강수량

연강수량은 1,422.1mm로 비교적 높은 값이고 건조하지 않아서 식물의 생육에 충분하며 강수량은 식생의 분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주지방에 가까운 장수 측후소에서 실측한 30년간 (1971～2000)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1-2-3> 월평균 강수량 (1971~2000)

(기상청, 2001)

월 강수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강수량 (mm)	39.5	46.3	67.1	82.9	95.0	219.1	300.2	291.1	150.7	47.4	52.8	30.0	1,422.1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고 이러한 수분량은 동·식물생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5절 생물자원 (동·식물)

1. 서론

무주지방은 산간지역 이어서 공장 폐기물 등에 의한 생태계 오염은 비교적 적은 곳이지만 개발에 따르는 인위적 교란은 많은 편이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2차 식생의 자연적 복원과 발달, 여기에 뒤따르는 동물 서식처의 안정화 등으로 다양한 동·식물들이 분포하고 있다.

2. 동물

1) 포유류(哺乳類, Mammalia)

무주지방에 분포하는 포유류는 우(1988, 1993)의 기록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4> 무주지방에 분포하는 포유류(*한국특산품)

(길과 김. 1996)

이름	학명	분포지	
		덕유산	적상산
소目	Artiodactyla		
멧돼지科	Suidae		
멧돼지	*Sus scrofa coreanus*	○	○
사슴科	Cervisae		
*사향노루	*Moschus moshigerus parvipes*	○	○
노루	*Capreolus capreolus bedfordi*	○	○
고라니	*Hydropotes inermis argyropus*	○	○
식육目	Camivora		
족제비科	Mustelidae		
*수달	*Lutra lutra lutra*	○	○

이름	학명	분포지	
		덕유산	적상산
오소리	*Meles meles melanogenys*	○	○
족제비	*Mustela sibirica coreana*	○	○
대륙목도리담비	*Charronica flavigula aterrima*	○	
개과	Canidae		
여우	*Vulpes vulpes chanco*	○	
너구리	*Nyctereutes procyonides koreensis*	○	○
고양이과	Felidae		
표범	*Panthera padus orientalis*	○	
삵	*Felis bengalensis mandshurica*	○	○
토끼目	Lagomorpha		
토끼과	Leporidae		
멧토끼	*Lepus sinensis cereanus*	○	○
쥐目	Rodentia		
다람쥐과	Sciuridae		
청설모	*Sciurus vulgaris coreae*	○	○
다람쥐	*Tamias sibiricus asiaticus*	○	○
*하늘다람쥐	*Pteromys volans aluco*	○	
쥐과	Muridae		
갈밭쥐	*Microtus fortis pelliceus*	○	
집쥐	*Rattus norvegicus*	○	○
생쥐	*Mus molossinus*	○	○
비단털쥐	*Cricetulus triton nester*	○	
식충目	Insectivora		
고슴도치과	Erinaceidae		
고슴도치	*Erinaceus europaeus koreensis*	○	○
땃쥐과	Soricidae		
작은땃쥐	*Crocidura suaveolens shantungensis*	○	
두더지과	Talpaidae		
두더지	*Talpa micrura coreana*	○	
박쥐目	Chiroptera		
관박쥐과	Rhnolophidae		
관박쥐	*Rhinolophus ferumequinum korai*	○	○
애기박쥐과	Vespertilionidae		
붉은박쥐	*Myotis formosus tsuensis*	○	
멧박쥐	*Myctalus lasiopterus aviator*	○	
집박쥐	*Pipistrellus abramus abramus*	○	

2)조류(鳥類, Aves)

무주구천동의 여름철 조류 조사보고(원과 윤, 1973, 1974)를 비롯하여 환경처(1986a, 1987e)의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1-2-5>와 같다.

<표 1-2-5> 무주지방에서 관찰되는 조류

(길과 김. 1996)

이름	학명	분포지	
		덕유산	적상산
황새目	Ciconiiformes		
백로科	Ardeidae		
알락해오라비	*Botaurus stellaris stellaris*		○
해오라비	*Nycticorax nycticorax*		○
검댕기해오라비	*Butorides striatus amurensis*	○	○
중대백로	*Egretta alba modesta*		○
매目	Falconiformes		
수리科	Accipitridae		
*붉은배새매	*Accipiter solsensis*	○	
검독수리	*Aquila chlysaetos japonica*	○	
닭目	Galliformes		
들꿩科	Tetraonidae		
들꿩	*Tetrastes bonasia vicinitas*		
꿩科	Phasianidae		
꿩	*Phasianus colchicus karpowi*		
두루미目	Gruiformes		
뜸부기科	Rallidae		
뜸부기	*Gallicrex cinerea*		○
도요目	Charadriiformes		
물떼새科	Charadriidae		
꼬마물떼새	*Charadrius dubius curonicus*		○
비둘기目	Columbidae		
비둘기科	Columbidae		
멧둘기	*Streptopelia orientalis orientalis*	○	○
두견이目	Cuculiformes		
두견이科	Cuculidae		
검은등뻐꾸기	*Cuculus micropterus micropterus*	○	

이름	학명	분포지	
		덕유산	무주군
뻐꾸기	*Cuculus amorus telephonus*	O	O
벙어리뻐꾸기	*Cuculus poliocephalus poliocephalus*	O	O
두견이	*Cuaulus fugax hyperuthrus*	O	O
올빼미目	Strigifirmes		
올빼미科	Strix alucoma		
*소쩍새	*Otus scops stictonctus*	O	
쏙독새目	Caprimulgiformes		
쏙독새科	Caprimulgidae		
쏙독새	*Caprimulgus indicus jataka*	O	
칼새目	Apidiformes		
칼새科	Apodidae		
칼새	*Apus pacificus pacifcus*	O	
파랑새目	Coracidiformes		
물총새科	Alcedinidae		
청호반새	*Halcyin pileata*	O	O
호반새	*Halcyon coromanda major*	O	O
물총새	*Alceda atthis bengalensis*	O	O
파랑새科	Coraciidae		
파랑새	*Eurystomus orientalis calonyx*	O	O
후투티科	Upupidae		
후투티	*Upupa epops saturata*		O
딱따구리目	Piciformes		
딱따구리科	Picidae		
청딱따구리	*Picus canus griseoviridis*	O	
오색딱따구리	*Dryobates major hondoensis*	O	
쇠딱따구리	*Dryobates kizuki izimae*	O	
까막딱따구리	*Dryocopus martius martius*	O	
참새目	Passeriformes		
종다리科	Alaudidae		
종다리	*Alauda arvensis*	O	
꾀꼬리科	Oriolidae		
꾀꼬리	*Oriolus chinensis diffusus*	O	
제비科	Hirundidae		
제비	*Hirundo rustica guttralis*	O	O

이름	학명	분포지	
		덕유산	무주군
귀제비	*Hirundo daurica japonica*		O
할미새科	Motacillcdae		
물레새	*Dendronanthus indicus*	O	O
노랑할미새	*Motacilla cinerea robusta*	O	O
알락할미새	*Motacilla clba leucopsis*	O	O
할미새사촌科	Campephagidae		
할미새사촌	*Pericrocotus roseus divaricatus*	O	O
직박구리科	Pycononotidae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hensoni*	O	O
때까치科	Laniidae		
때까치	*Lanius bucephalus bucephalus*		O
노랑때까치	*Lanius cristatus lucionensis*	O	O
물까마귀科	Cinclidae		
물까마귀	*Cinclus pallasii pallasii*	O	
딱새科	Muscicapidae		
딱새	*Phoenicurud auroreus auroreus*	O	
검은딱새	*Saxicola torquta stejenegeri*	O	
호랑지빠귀	*Turucus dauma aureus*	O	
흰배지빠귀	*Turucus pallidus*	O	
굴뚝새科	Troglodytidae		
굴뚝새	*Turudus troglodytes dauricus*		O
붉은머리오목눈이	*Paradoxornis webbiana fulvicdua*	O	O
휘파람새	*Cettis diphone borealis*	O	O
개개비	*Acrocephalus arundinaceus orientalis*		O
솔새	*Phylloscopus borealis xanthodryas*	O	
흰눈썹황금새	*Ficedula zanthopygia*	O	O
큰유리새	*Cyanoptila cyanomelana cyanomelana*	O	
솔딱새	*Muscicapa sibirica sibirica*	O	
쇠솔딱새	*Muscicapa latirostris*	O	
삼광조	*Terpsihpone atrocaudata atrocaudata*	O	
오목눈이科	Aegithalidae		
오목눈이	*Aegithalis candatus magnus*		O
박새科	Paridae		
쇠박새	*Parus palustris hellmyri*	O	O

이름	학명	분포지	
		덕유산	무주군
진박새	Parus ater amurensis	O	
곤줄박이	Parus varius varius	O	O
박새	Pauus major minor	O	O
동고비科	Sittidae		
동고비	Ditta europae amurensis	O	
멧새科	Emberizdae		
멧새	Emberizidae cioides castsneiceps	O	O
붉은뺨멧새	Emberizida fucata fucata	O	O
노랑턱멧새	Emberizida aureola ormata	O	
되새科	Fringillidae		
방울새	Cardueilis sinica ussurensis	O	O
밀화부리	Eophona migratoria		O
참새科	Ploceidae		
참새	Passer montanus dybowskii	O	O
꾀꼬리科	Oriolidae		
꾀꼬리	Oriolus chinensis diffusus		O
까마귀科	Corvidae		
어치	Garrulus glandarius brandtii	O	O
물까치	Cyanopica cyanus koreensis	O	O
까치	Pica pica sericea	O	O
까마귀	Corvus corone orientalis	O	O
	지 역 별 분 포 종 수	57	44

3) 파충류(爬蟲類, Reptilia)

최근의 급변하는 과학 문명과 생활의 향상 및 편리화를 위한 자연의 무분별한 변조, 개발과 도시하수, 농약 등으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갖고 있는 자체 조절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또 파충류는 우리나라 특유의 보신을 위한 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차별 포획함으로써 그 수가 급격히 감소되어 이제는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종들도 있게 되었다. 산악지대에서 많이 관찰되는 종은 유혈목이, 능구렁이, 무자치, 구렁이, 살모사, 까치살모사 등이고 줄장지뱀, 누룩뱀과 쇠살모사는 적었다.

<표 1-2-6> 무주지역에 살고 있는 파충류

(길과 김, 1996)

이름	학명	분포지	
		덕유산	적상산
거북目	Testudinata		
자라科	Trionychidae		
자라	*Trionyx maakii*	O	
남생이科	Testudinidae		
남생이	*Geoclemys reevesii*	O	
뱀目	Squamata		
장지뱀科	Lacertidae		
아므르장지뱀	*Takydromus amurensis*	O	
줄장지뱀	*Takydromus wolteri*	O	
표범장지뱀	*Eremias argus*	O	O
뱀科	Colubridae		
대륙유혈목이	*Amphiesma vibakari ruthveni*	O	
유혈목이	*Rabdophis tigrinus tigrinus*	O	O
능구렁이	*Dinodon rufozonatum*	O	O
실뱀	*Zamenis spinalis*	O	O
무자치	*Elaphe rufodorsata*	O	O
구렁이	*Elaphe schrenckii*	O	O
누룩뱀	*Crotalidae*	O	O
살모사科	Crotalidae		
쇠살모사	*Agkistrodon ussuriensis*	O	O
살모사	*Agkistrodon blomhoffii brevicaudus*	O	O
까치살모사	*Agkistrodon saxatilis*	O	O
지 역 별 분 포 종 수		15	10

4) 양서류 (兩棲類, Amphibia)

양서류는 생태계(生態系, ecosystem)에서 주로 초식동물을 먹는 제2차 소비자(第二次消費者)로서 산란 장소가 논, 저수지,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 하천, 계류 등으로 물속에서 생활하는 어린 시기(올챙이 시기)에 원활한 호흡을 위하여 수중의 용존 산소량(溶存 酸素量)을 많이 요구하므로 수질 오염에 아주 민감하다. 따라서 오늘날 수질오염의 문제는 양서류의

산란 및 생육을 위한 서식처마저도 줄어들게 함으로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이제는 멸종의 위기에 놓이게 된 종들도 많게 되었다.

무주지방에 서식하고 있는 양서류는 백(1973)의 조사결과 5과 8종으로 보고되었다. 무당개구리, 옴개구리, 참개구리, 청개구리, 두꺼비는 보편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종류이고 도롱뇽은 우리나라 특산종이며, 꼬리치레도롱뇽은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종으로 분류되었다 (한국자연보존협회, 1989).

<표 1-2-7>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양서류

(길과 김, 1996)

이름	학명	분포지	
		덕유산	적상산
유미(도롱뇽)目	Caudata		
도롱뇽科	Hynobiidae		
도롱뇽	*Hymobius leechii*	O	O
꼬리치레도롱뇽	*Onychodactylus fischeri*	O	O
무미(개구리)目	Salientia		
무당개구리科	Discoglessidae		
무당개구리	*Bombina orientalis*	O	O
두꺼비科	Bufonidae		
두꺼비	*Bufo bufo gargarizans*	O	O
청개구리科	Hylidae		
청개구리	*Hla arborea japonica*	O	O
개구리科	Ranidae		
참개구리	*Rana nigromaculata*	O	O
산개구리	*Rana dybozskii*	O	
옴개구리	*Rana rugosa*	O	O
	지 역 별 분 포 종 수	8	7

5) 어류 (魚類, Pisces)

무주지방에는 금강(錦江)의 지류가 흐르고 있다. 담수어류에 관한 조사로는 최와 김 (1972)의 무주 구천동의 어류상 조사가 있다. 또 최 등(1985)의 금강하류의 담수어류 자원조사와 환경처(1987)의 자연생태계 전국조사 기록 등이 있다.

한국에서 서식하는 담수어류(북한 제외)는 약 100여종으로 알려져 있고, 금강의 상류인 무주와 진안 그리고 금강의 하구에서 조사된 어류는 67종류로 나타났고 그 중에도 우리나라 특산종이 22종류나 된다. 이는 우리나라 특산 32종의 약 70%가 주목할만하다.

<표 1-2-8> 무주 (금강)에 살고 있는 담수어류 (* 한국 특산종)

(길과 김, 1996)

이름	학명	금강
칠성장어科	Petromyzontidae	
다묵장어	*Lametra reissneri*	O
철갑상어科	Acipenseridae	
칼상어	*Acipenser dabryanus*	O
뱀장어科	Anguillidae	
뱀장어	*Anguilla japonica*	O
바다빙어科	Osmeridae	
빙어	*Hypomesus olidus*	O
잉어科	Cyprinidae	
버들치	*Moroco oxycephalus*	O
*금강모치	*Moroco keumkang*	O
피라미	*Zacco platypus*	O
갈겨니	*Zacco temminckii*	O
끄리	*Psariichthy samurensis uncirostris*	O
왜몰개	*Phyocypris chinensis*	O
치리	*Hemiculter eigenmanni*	O
모래무지	*Pseudogobio esocinus*	O
버들매치	*Abbottina rivularis*	O
*왜매치	*Abbottina springeri*	O
*돌마자	*Mycrophysogobio yaluensis*	O
배가사리	*Mycrophysogobio longidorsalis*	O
*됭경모치	*Mycrophysogobio tungingensis*	O
참마자	*Hemibarus longirostris*	O
누치	*Hemibarus labeo*	O
*어름치	*Hemibarus mylodon*	O
참붕어	*Pseudorasbora parva*	O
돌고기	*Pungtungia hergi*	O
중고기	*Sarcocheilichthys nigripinnis morii*	O

이름	학명	금강
*몰개	Squalidus japonicus coreanus	O
*참중고기	Sarcocheilichthys variegatus wakiyae	O
*감돌고기	Pseudopungtungia nigra	O
*쉬리	Coreoleuciscus splendidus	O
*줄몰개	Gnathopogon strigatus	O
*긴몰개	Squalidus gracilis majimae	O
잉어	*Cyprinus carpio*	O
붕어	*Carassius auratus*	O
흰줄납줄개	*Rhodeus ocellatus*	O
*각시붕어	*Rhodeus uyekii*	O
떡납줄갱이	*Rhodeus notatus*	O
칼납자루	*Acheilognathus koreensis*	O
납자루	*Acheilognathus intermedia*	O
줄납자루	*Acheliognathus yamatsutae*	O
납지리	*Acheliognathus rhombea*	O
큰납지리	*Acanthorhodeus assumussi*	O
기름종개科	Cobitidae	
미꾸리	*Misgurnus anguillicadatus*	O
미꾸라지	*Misgurnus mizolepis*	O
점줄종개	*Cobitis taenia lutheri*	O
*참종개	*Cobitis koreensis*	O
*미호종개	*Cobitis choii*	O
쌀미꾸리	*Lefua costata*	O
동자개科	Bagridae	
동자개	*Pseudobagrus fulvidraco*	O
*눈동자개	*Pseudobagrus koreanus*	O
밀자개	*Leiocassis nitidus*	O
대농갱이	*Leiocassis ussuriensis*	O
*자가사리	*Liobagrus mediadiposalis*	O
*퉁사리	*Liobagrus obesus*	O
메기科	Siluridae	
메기	*Silurus asotus*	O
미유기	*Silurus microdorsalis*	O
송사리科	Oryziidae	
송사리	*Orizias latipes*	O

이름	학명	금강
가물치科	Channidae	
가물치	Channa argus	O
드렁허리科	Synbranchidae	
드렁허리	Monopterus albus	O
둑중개科	Cottidae	
둑중개	Cottus poecilopus	O
농어科	Percichyidae	
꺽지	Coreoperca herzi	O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O
등목어科	Belontiidae	
버들붕어	Macropodus chinensis	O
구굴무치科	Eleotriidae	
*얼룩동사리	Odontobutis obscurus interrupta	O
동사리	Odontobutis platycephala	O
망둑어科	Gobiidae	
밀어	Rhinogobius brunneus	O
	분 포 종 수	67

금강 상류지역인 진안군과 무주군 하구역 일대에서 조사된 담수어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되었다<표 1-2-8>. 무주 남대천(南大川)의 설천면과 무주읍 지점에서 조사된 담수어류상을 환경처의 자료(1987a)를 참고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설천면 일대의 어류상 : 피라미, 돌고기, 동사리, 참종개, 칼납자루, 감돌고기, 버들치, 미꾸리, 갈겨니, 돌마자 등 10종. 이곳의 우점종은 피라미와 돌고기인데 15년전의 조사(최와김, 1972)에서는 쉬리가 우점종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 종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상류인 덕유산 계곡에서 발생한 오염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지역의 이러한 생물상의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무주읍 일대의 어류상은 파라미, 돌마자, 납자루, 참종개, 모래무지, 돌고기, 쉬리, 갈겨니, 감돌고기, 줄납자루, 꺽지, 동사리 등 12종으로 조사되었다. 이곳은 무주읍에서 하수가 직접 유입되는 곳으로 피라미, 돌마자, 납자루가 우세하다. 15년 전에 조사된 17종 중 돌상어와 쉬리가 우점 하였던 점과 비교하면 돌상어, 자가사리, 꾸꾸리, 뱀장어, 참마자, 붕어, 눈동자개, 둑중개 등 8종류가 없어지고 피라미, 갈겨니, 줄납자루 등 3종류가 새로이 채집된 점은

조사의 정확성을 감안하더라도 폐수와 하수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돌마자, 참종개, 쉬리, 감돌고기, 줄납자루 등 6종류의 한국 특산종이 서식하고 있다(길과 김, 1996).

무주지역에서 조사된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척추동물은 다음과 같다.

(1) 천연기념물

무주구천동에서 나는 척추동물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은 포유류 3종과 조류 10종이 있다.

① 사향노루 Moschus moschiferus parvipes Hollister
② 하늘다람쥐 Pteromys volans aluco (Thomas)
③ 수달 Lutra lutra lutra (Linneus)
④ 붉은배새매 Accipter soloensis (Horsfield)
⑤ 새매 Accipter nisus nisosimilis (Tickell)
⑥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interstictus Horsfield
⑦ 올빼미 Strix alco ma (Clark)
⑧ 수리부엉이 Bubo bubo kiantchensis Reichennow
⑨ 칡부엉이 Asio otus otus (Linnaeus)
⑩ 솔부엉이 Ninox scutulata (Raffea)
⑪ 소쩍새 Otus scops stictonotus (Sharpe)
⑫ 큰소쩍새 Otus bakkamoena ussuriensis (Buturlin)
⑬ 원앙 Ais galericulata (Linnaeus)

(2) 한국 특산종

무주구천동 소산 척추동물 중 한국 특산종은 포유류 2종과 어류 10종이다.

① 하늘다람쥐 Pteromys volans aluco (Thomas)
② 고슴도치 Erinaceus europaeus koreensis Mori
③ 쉬리 Coreoleuciscus splendidus Mori
④ 감돌고기 Pesudopungtungia nigra Mori

⑤ 참마자 Hemibarbus longirostris (Regan)
⑥ 돌마자 Microphysogobio yaluensis (Mori)
⑦ 돌상어 Gobiobotia brevibarba Mori
⑧ 금강모치 Phoxinus oxycephalus (Saubage et Dabry)
⑨ 참종개 Cobitis koreensis koreensis Kim
⑩ 미유기 Siluris microdosata Mori
⑪ 자가사리 Libagrus mediadiposalis Mori
⑫ 꺽지 Coreopeica herzi Herzentein

(3) 특정 야생동물

무주 구천동 소산 척추동물 중에서 특정야생동물로 지정된 종은 양서류 5종과 파충류 9종이다.
① 꼬리치레도롱뇽 Onychodactylus fischeri (Boulenger)
② 도롱뇽 Hynobius leechii (Boulenger)
③ 두꺼비 Bufo bufo gargariznas Cantor
④ 산개구리 Rana dybowskii Gunther
⑤ 남생이 Chinemis reevesii (Gray)
⑥ 자라 Pelodiscus sinensis (Wiegmann)
⑦ 도마뱀 Scincella laterale laterale Say
⑧ 구렁이 Elaphe schrenckii Strauch
⑨ 무자치 Enhydris rufodorsata (Cantor)
⑩ 능구렁이 Dinodon rufodorsata rufodorsata (Cantor)
⑪ 실뱀 Zamenis spinalis Peters
⑫ 대륙유열목이 Amphiesma vibakari ruthveni (Van Denburgh)
⑬ 살모사 Agkistrodon brevcaudus Stejneger
⑭ 까치살모사 Agkistrodon saxatilis Emelinov

6) 거미

덕유산의 거미류에 대해서는 남궁준에 의하여 1968년 9월 11일~14일간에 걸쳐, 그 북사면 일부를 조사하여 95종을 보고한 바 있고, 그 후 1975년 8월 17일~18일의 백남극의 조사와 1986년 7월 4일~9일의 부분적 조사가 있어, 그 자료를 정리한 바, 30종 가량을 추가하여 전체를 종합하여 모두 22과 72속 125종의 덕유산 거미를 확인하였다

이는 광대한 덕유산의 극히 일부분의 조사이고, 특히 상층부에 대한 조사는 거의 실시 된 바 없었으므로, 이로써 덕유산의 거미상을 논하기는 부족하지만, 분포자료의 일부로서 개략적인 보고를 해두고자 한다.

목록에 쓰인 약기호는 (Pal : 구북계), (Hol : 전북구), (Or : 동양계), (Cos : 범세계종), (K : 한국고유종), (K. J. C : 한·일·중 공통종), (K. J : 한·일 공통종), (K. C : 한·중 공통종)이다 (남궁, 1996).

<표 1-2-9> 덕유산 일대의 거미 목록

(남궁, 1996)

학명, 과명	국명	구분
Amaurobiidae 비탈거미과		
Callobius koreanus (PAIK, 1996)	반도비탈거미	(K.)
Trtanoecidae 자갈거미과		
Nurscia albofasciata (STRNAD, 1907)	살깃자갈거미	K. J. C.
Dictynidae 잎거미과		
Dictyna felis (Bös. et STR., 1906)	잎거미	K. J. C.
Hloboridae 응달거미과		
Hyptiotes affinis (Bös. et STR., 1906)	부채거미	K. J. C.
Miagrammopes orientalis (Bös. et STR., 1906)	손짓거미	K. J. C.
Octonoba sybotides (Bös. et STR., 1906)	꼽추응달거미	K. J. C.
Pholcidae 유령거미과		
Pholcus crypticolens (Bös. et STR., 1906)	산유령거미	K. J. C.
Pholcus opilionoides (SCHRANK, 1781)	대륙유령거미	K. J. C.(Hol.)
Theridiidae 꼬마거미과		
Achaearanea angulithorax (Bös. et STR., 1906)	종꼬마거미	K. J. C.
Achaearanea japonica (Bös. et STR., 1906)	점박이꼬마거미	K. J. C.
Achaearanea kompirensis (Bös. et STR., 1906)	석점박이꼬마거미	K. J. C.
Achaearanea tepidariorum (C. L. KOCH 1841)	말꼬마거미	K. J. C.(COS.)
Anelosimus crassipes (Bös. et STR., 1906)	잎무늬꼬마거미	K. J. C.

학명, 과명	국 명	구 분
Argyrodes saganus (Dös. et STR., 1906)	창거미	K. J.
Chrysso punctifera (YAGINUMA, 1960)	별연두꼬마거미	K. J. C.
Chrysso vapulum (YAGINUMA, 1960)	삼각점연두꼬마거미	K. J. C.
Coleosoma octomaculatum (Bös. et STR., 1906)	여덟점꼬마거미	K. J. C.
Dipoena castrata (Bös. et STR., 1906)	검정미진거미	K. J.
Dipoena mustelina (SIMON, 1988)	게꼬마거미	K. J.
Enoplognatha japonica (Bös. et STR., 1906)	작살가랑잎꼬마거미	K. J. C.
Theridion chikunii (YAGINUMA, 1960)	갈비꼬마거미	K. J.
Theridion latiforum (YAGINUMA, 1960)	넓은잎꼬마거미	K. J. C.
Theridion takayense (S. SAITO, 1939)	넉점꼬마거미	K. J. C.
Linyphiidae 접시거미과		
(Linyphiinae 접시거미 아과)		
Lepthyphantes cericeus (S. SAITO, 1934)	비단가시접시거미	K. J.
Lepthyphantes nasus (PAIK, 1965)	코접시거미	(K.)
Neriene emphana (WALCKENAER, 1841)	대륙접시거미	K. J. C.(Pal.)
Neriene japonica (OI, 1960)	가시접시거미	K. J. C.
Neriene limbatinella (Bös. et STR., 1906)	쌍줄접시거미	K. J. C.
Neriene longipedella (Bös. et STR., 1906)	농발접시거미	K. J. C.
Neriene nigripectoris (OI, 1960)	검정접시거미	K. J. C.
Neriene radiata (WALCKENAER, 1841)	테두리접시거미	K. J. C. (Hol.)
Strandella pargongensis (PAIK, 1965)	팔공접시거미	K. J.
(Erigoninae 애접시거미 아과)		
Collinsia inerrans (O. P. CAMBRIDGE, 1885)	언덕애접시거미	K. J. C.
Gonatium japonicum (SIMON, 1984)	애가시다리애접시거미	K. J. C.
Hylyphantes graminicola (SUNDEVALL, 1829)	흑갈풀애접시거미	K. J. C.(Pal.)
Mimetidae 해방거미과		
Ero japonica (Bös. et STR., 1906)	뿔해방거미	K. J. C.
Mimetus testaceus (YAGINUM, 1960)	큰해방거미	K. J. C.
Araneidae 왕거미과		
Araneus conutus (CLERCK, 1758)	기생왕거미	K. J. C.(Hol.)
Araneus fuscocoloratus (Bös. et STR., 1906)	먹왕거미	K. J. C.
Araneus ishisawai (KISHIDA, 1928)	부석왕거미	K. J.
Araneus mitificus (SIMON, 1885)	미녀왕거미	K. J. C.
Araneus tsuno (YAGINUMA, 1972)	뿔왕거미	K. J. C.
Araneus ventricosus (L. KOCH, 1878)	산왕거미	K. J. C.
Argiope bruennichii (SCOPOLI, 1772)	긴호랑거미	K. J. C.(Pal.)
Cyclosa argenteoalba (Bös. et STR., 1906)	은먼지거미	CK. J. C.

학명, 과명	국 명	구 분
Cyclosa ginnaga (YAGINUMA, 1959)	장은먼지거미	K. J. C.
Cyclosa japonica (Bös. et STR., 1906)	복먼지거미	K. J. C.
Cyclosa octotuberculata (KARSCH, 1879)	여덟혹먼지거미	K. J. C.
Cyclosa sedeculata (KARSCH, 1879)	넷혹먼지거미	K. J. C.(Or.)
Cyclosa vallata (KEYSERLLING, 1886)	녹두먼지거미	K. J. C.(Or.)
Cyrtarachne inaequalis (THORELL, 1895)	큰새똥거미	K. J. C.(Pal.)
Hypsosinga sanguinea (C. L. KOCH, 1844)	산짜매왕거미	K. J. C.
Mangora herbeoides (Bös. et STR., 1906)	퀴털거미	K. J. C.(Pal.)
Neoscona adianta (WALCKENAER, 1802)	각시머리왕거미	K. J. C.
Neoscona mellotteei (SIMON, 1895)	점연두머리왕거미	K. J. C.(Cos.)
Neoscona nautica (L. KOCH, 1875)	집머리왕거미	K. J. C.
Neoscona pungctigera (DOLESCHALL, 1857)	적갈머리왕거미	K. J. C.
Neoscona scylla (KARSCH, 1879)	지이머리왕거미	K. J. C.
Neoscona scylloides (Bös. et STR., 1906)	연두머리왕거미	K. J. C.
Pronous minutus (S. SAITO, 1939)	콩왕거미	K. J. C.
Zilla sachalinensis (S. SAITO, 1934)	북왕거미	K. J. C.
Tetragnathidae 갈거미과		
Dyschiriognatha tenera (KARSCH, 1879)	애가랑갈거미	K. J. C.
Leucauge subblanda (Bös. et STR., 1906)	꼬마백금거미	K. J. C.
Leucauge subgemmea (Bös. et STR., 1906)	검정백금거미	K. J.
Menosira ornata (CHIKUNI, 1955)	가시다리거미	K. J.
Meta reticuloides (YAGINUMA, 1958)	민무늬왕거미	K. J.
Metleucauge kompirensis (Bös. et STR., 1906)	병무늬왕거미	K. J. C.
Metleucauge yunohamensis (Bös. et STR., 1906)	안경무늬왕거미	K. J. C.
Nephila clavata (L. KOCH, 1878)	무당거미	K. J. C.(Or.)
Tetragnatha caudicula (KARSCH, 1879)	꼬리갈매기	K. J. C.
*Tetragnatha extensa (*LINNAEUS, 1758)	큰배갈거미	K. J. C.(Hol.)
Tetragnatha lauta (YAGINUMA, 1959)	비단갈거미	K. J. C.
Tetragnatha maxillosa (THORELL, 1895)	민갈거미	K. J. C.
Tetragnatha praedonia (L. KOCH, 1875)	장수갈거미	K. J. C.
Tetragnatha squamatha (KARSCH, 1879)	비늘갈거미	K. J. C.
Urocteidae 납거미과		
Urocrea lesserti (SCHENKEL, 1937)	대륙납거미	K. C.
Agelenidae 가게거미과		
Agelena koreana (PAIK, 1965)	고려가게거미	(K.)
Agelena limbata (THORELL, 1897)	들풀거미	K. J. C.(Or.)
Agelena opulenta (L. KOCH, 1878)	애풀거미	K. J. C.

학명, 과명	국 명	구 분
Coelotes bifidus (PAIK, 1976)	민무늬가게거미	(K.)
Coelotes songminjae (PAIK et YAGINUMA, 1969)	민자가게거미	(K.)
Paracoelotes spinivulva (SIMON, 1880)	한국깔때기거미	K. C.
Tegenaria domstica (CLERCK, 1758)	집가게거미	K. J. C.(Cos.)
Cybaenidae 굴뚝거미과		
Cybaeus mosanensis (PAIK et NAMKUNG, 1967)	모산굴뚝거미	(K.)
Cybaeus triangulus (PAIK, 1966)	삼각굴뚝거미	(K.)
Pisauridae 닷거미과		
Dolomedes raptor (Bös. et STR., 1906)	먹닷거미	K. J. C.
Dolomedes sulfureus (L. KOCH, 1878)	황닷거미	K. J. C.
Pisaura ancora (PAIK, 1969)	닷표늪서성거미	K. C.
Pisaural lama (Bös. et STR., 1906)	아기늪서성거미	K. J. C.
Lycosidae 늑대거미과		
Pardosa astrigera (L. KOCH, 1878)	별늑대거미	K. J. C.
Pardosa hedini (SCHENKEL, 1937)	중국늑대거미	K. J. C.
Pardosa lyrifera (SCHENKEL, 1937)	모래톱늑대거미	K. J. C.
Pardosa lugubris (WALCKENAER, 1802)	흰표늑대거미	K. J.(Pal.)
Pirata piraticus (CLERCK, 1758)	늪산적거미	K. J.(Hol.)
Pirata procurvus (Bös. et STR., 1906)	좀늑대거미	K. J. C.
Oxyopidae 스라소니거미과		
Oxyopes parvus (PAIK, 1969)	아기스라소니거미	K. C.
Clubionidae 염낭거미과		
Cheiracanthium japonicum (Bös. et STR., 1906)	애어리염낭거미	K. J. C.
Clubiona japonicola (Bös. et STR., 1906)	노랑염낭거미	K. J. C.
Clubiona japonicola (KARSCH, 1879)	살깃염낭거미	K. J. C.
Clubiona pseudogermanica (SCHENKEL, 1937)	강동염낭거미	K. J. C.
Ctenidae 너구리거미과		
Anahita fauna (KARSCH, 1879)	너구리거미	K. J. C.
Heteropodidae 농발거미과		
Heteropoda stellata (SCHENKEL, 1963)	별농발거미	K. J. C.
Micrommata roseum (CLERCK, 1758)	이슬거미	K. J. C.(Pal.)
Thomisidae 게거미과		
Diaea subodola (O. P. CAMBRIDGE, 1885)	각시꽃게거미	K. J. C.
Lysiteles coronatus (GRUBE, 1861)	남궁게거미	K. J. C.
Misumenops tricuspidatus (FABRICIUS, 1775)	꽃게거미	K. J. C.(Hol.)
Oxytate striatipes (L. KOCH, 1878)	줄연두게거미	K. J. C.
Synema globosum (FABRICIUS, 1775)	불짜게거미	K. J. C.(Pal.)

학과, 과명	국명	구분
Tmarus Piger (WALCKENAER, 1802)	참범게거미	K. J. C.(Pal.)
Xysticus atrimaculatus (Bös. et STR., 1906)	점게거미.	K. J. C.
Xysticus croceus (FOX, 1937) 풀게거미 K. J. C.	풀게거미	K. J. C.
Xysticus ephippiatus (SIMON, 1880)	대륙게거미	K. J. C.
Philodromidae 새우게거미과		
Philodromus cespitum (WALCKENAER, 1802)	흰새우게거미	K. J. C.(Hol.)
Philodromus fuscomarginatus (DE-GEER, 1778)	집새우게거미	K. C.(Pal.)
Thanatus miniuceus (SIMON, 1880)	중국참게거미	K. J. C.
Tibellus tenellus (L. KOCH, 1876)	넉점가재거미	K. J. C.
Salticidae 깡충거미과		
Carrhotus xanthogramma (LATREILLE, 1891)	털보깡충거미	K. J. C.(Pal.)
Evarcha albaria (L. KOCH, 1878)	흰눈섭깡충거미	K. J. C.
Marpissa elongata (KARSCH, 1879)	살깃깡충거미	K. J. C.
Marpissa magister (KARSCH, 1879)	수검은깡충거미	K. J. C.
Phintella linea (KARSCH, 1879)	안경깡충거미	K. J. C.
Phintella melloteei (SIMON, 1888)	눈깡충거미	K. J. C.
Rhene atrata (C. L. KOCH, 1881)	까치깡충거미	K. J. C.
Synagelides agoriformis (STRAND, 1906)	머리개미거미	K. J. C.
Yaginumaella medvedevi (PRöSZYNSKI, 1979)	흰줄깡충거미	K. C.

합 계 22과 72속 125종

7) 곤충

덕유산지역 조사된 곤충류는 12목 116과 699종이다<표 1-2-10>.

<표 1-2-10> 덕유산의 곤충 조사 현황 (환경처, 1990)

(환경처, 1990)

목명		과수	종수
Collembola	톡 토 기 목	1과	1종
Dermaptera	집 게 벌 레 목	1과	3종
Orthoptera	메 뚜 기 목	1과	1종
Odonata	잠 자 리 목	1과	5종
Anoplura	이 목	2과	7종
Hemiptera	매 미 목	18과	79종
Neuroptera	뿔 잠 자 리 목	2과	4종
Mecoptera	밑 드 리 목	1과	5종

목 명		과수	종수
Lepidoptera	나 비 목	21과	213종
Coleoptera	딱 정 벌 레 목	20과	185종
Hymenoptera	벌 목	26과	95종
Diptera	파 리 목	22과	101종
합계	12목	116과	699종

(1) 특기할만한 종

덕유산의 희귀종으로 Parnassius bremeri(붉은점모시나비), Melitaea phoebe(암어리 표범나비), Farbiciana nerippe(왕은점표범나비), Bibasis striata(큰수리팔랑나비)가 확 인되었으며 문헌상에는 Chlorophorus diadema(범하늘소)의 채집기록도 있다.

<표 1-2-11> 덕유산의 곤충 목록(문헌 1990년)

종 명		본조사	문헌조사
Order Collembola	톡토기목		
Family Tomoceridae	가시톡토기과		
Tomocerus ocreatus Denis	드니가시톡토기		*
Order Odonata	잠자리목		
Family coenagrionoidae	실잠자리과		
Cercion hieroglyphicum Brauer	등줄실잠자리		
Family Lestidae	청실잠자리과		
Sympycna paedisca Brauer	묵은실잠자리		
Family calopterygidae	물잠자리과		*
Calopteryx atrata Selys	검은물잠자리		*
Family Libellulidae	잠자리과		*
Orthetrum japonicum Uhler	중간밀잠자리		*
Lyriothemis pachygastra Selys	베치레잠자리		*
Order Dermaptera	집게벌레목		
Family Forficulidae	집게벌레과		
Forficula scudderi Bormans	못뽑이집게벌레	+	*
Timomenus komarovi Semenov	고마르브집게벌레	+	*
Anechura japonica Bormans	좀집게벌레		*
Order Orthoptera	메뚜기목		

종 명		본조사	문헌조사
Family Tetrigidae	모메뚜기과		
Tetrix japonica (Bolivar)	모메뚜기		*
Order Hemiptera	노린재목		
Family Pentatomidae	노린재과		
Carbula crassiventris (Dallas)		+++	
Eurydema rugosa Motschulsky	비단노린재		*
Eurydema pulchrum Westwood	각시비단노린재		*
Eysarcoris lewisi (Scott)	큰가시점둥글노린재	+	
Eysarcoris ventralis Westwood	배둥글노린재		*
Dolycoris baccarum Linné	알락수염노린재	+	
Palomena angulosa Motschulsky	북방풀노린재	++	*
Family Acanthosomatidae	뿔노린재과		
Acanthosoma denticaudum Jakovlev	등빨간뿔노린재	+	*
Acanthosoma labiduroides Jakovlev	긴가위뿔노린재		*
Family Scutelleridae	광대노린재과		
Poecilocoris lewisi Distant	광대노린재		*
Menida violacea Motschulsky	깜보라노린재		*
Family Rhopalidae	잡초노린재과		
Rhopalus (Aeschniteles) maculatus Fieber	붉은잡초노린재		*
Liorhyssus hyalinus Fabriciu	투명잡초노린재		*
Family Aradidae	넓적노린재과		
Mezira taiwanica Kormilev	검정넓적노린재		*
Family Plataspididae	알노린재과		
Coptosoma biguttulum Motschulsky	눈박이알노린재	++	
Family Coreidae	허리노린재과		
Anoplocnemis dallasi Kiritschenko	장수허리노린재	+	
Melypteryx fuliginosa Uhler	큰허리노린재		*
Homoeocerus dilatatus Horvath	넓적배허리노린재	+	*
Cletus schmidti Kiritschenko	우리가시허리노린재		*
Family Alydidae	호리허리노린재과		
Riptortus clavatus Thunber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
Family Lygaeida	긴노린재과		
Geocoris varius (Uhler)	큰딱부리긴노린재	+	
Family Nabidae	쐐기노린재과		
Nabis reuteri Jakovlev	로이터쐐기노린재		*
Family Gerridae	소금쟁이과		
Gerris lacustris Linné	참소금쟁이	++	

종 명		본조사	문헌조사
Family Reduviidae	침노린재과		
Haematoloecha rufithorax Breddin	붉은등침노린재		*
Labidocoris pectoralis Stal	잔침노린재		*
Rhynocoris ornatus Uhler	홍도리침노린재		*
Rhynocoris leucospilus (Stal)	배홍무늬침노린재		*
Sphedanolestes impressicollis Stal	다리무늬침노린재	+	
Family Miridae	장님노린재과		
Deraeocoris ater Jokovlev	밀감무늬검정장님노린재	+	
Adelphocoris triannulatus (Stal)	설상무늬장님노린재	+	
Monalocoris filicis (Linné)	고사리장님노린재		*
Orthocephalus funestus Jakovlev	암수다른장님노린재		*
Creontiades pallidifer Walker	날개홍선장님노린재		*
Polymerus pekinensis Horváth	페킨장님노린재		*
Onomaus lautus Uhler	쐐기풀장님노린재		*
Family Homoptera	매미목		
Family Cercopidae	쥐머리거품벌레과		
Eoscartopsis assimilis Uhler	쥐머리거품벌레		*
Family Aphrophoridae	거품벌레과		
Philaronia nigrifrons Matsumura	어리광대거품벌레		*
Lepyronia okadae (Matsumura)	오카다광대거품벌레		*
Aphrophora major (Uhler)	노랑무늬걸품벌레		*
Aphrophora intermedia (Uhler)	흰띠거품벌레		*
Neophilaenus exclamationis (Thunberg)	승모거품벌레		*
Aphrophora costalis Matsumura	거품벌레		*
Aphrophora straminea Kato	만주거품벌레		*
Family Membracidae	뿔매미과		
Tsunozemia paradoxa (Lethierry)	모지뿔매미		*
Tricentrus coreanus Kato	참뿔매미		*
Machaerotypus sibiricus (Lethierry)	외뿔매미		*
Family Cicadellidae	매미충과		
Neotituria kongosana (Matsumura)	금강산귀매미		*
Dryodurgades lamellaris Vilbaste	고사리매미충		*
Onukigallia onukii (Matsumura)	오누키양치매미충		*
Onukia onukii Matsumura	오누키관매미충		*
Evacanthus interruptus (Linné)	날개무늬관매미충		*
Nephotettix cincticeps (Uhler)	끝동매미충		*
Acharis ussuriensis (Melichar)	고구려매미충		*

종 명		본조사	문헌조사
Futasujinus candidus (Matsumura)	두줄박이애미충		*
Futasujinoidella nobilis Kwon et Lee	닮은두줄애미충		*
Alobaldia tobae (Matsumura)	남방애미충		*
Yanocephalus yanonis (Matsumura)	야노뾰족애미충		*
Yanocephalus kongosanus (Matsumura)	금강산애미충		*
Handianus limbifer (Matsumura)	앞흰넓적애미충		*
Matsumurella curticauda Anufriev	버금그물눈애미충		*
Balclutha pseudoviridis Vilbaste	초록다홍알락애미충		*
Macrosteles brunnescens Anufriev	꼬마애미충		*
Macrosteles striifrons Anufriev	꼭지애미충		*
Austroasca vittata (Lethierry)	노랑줄애애미충		*
Aguriahana triangularis (Matsumura)	경희애애미충		*
Arboridia apicalis (Nawa)	두정박이애애미충		*
Bothrogonia japonica Ishihara	끝검은알애미충		*
Bathysmatophorus shabliovskii kusnezov	고산알애미충		*
Family Achilidae	**좀머리멸구과**		
Kosalya flavostrigata Distant	정숙머리멸구		*
Family Tropiduchidae	**방패멸구과**		
Ommatissus binotatus Fieber	방패충멸구		*
Family Cixiidae	**장삼벌레과**		
Pentastiridius apicalis (Uhler)	장삼벌레		*
Family Delphacidae	**멸구과**		
Chloriona tateyamana Matsumura	무주멸구		*
Unkanodes sapporonus (Matsumura)	운계멸구		*
Laodelphax striatellus (Fallén)	애멸구		*
Sogatella furcifera (Horváth)	흰등멸구		*
Sogatella vibix (Haupt)	피멸구		*
Nilaparvata lugens (Stal)	벼멸구		*
Toya lyraeformis (Matsumura)	여수멸구		*
Terthron albovittatum (Matsumura)	등줄멸구		*
family Psyllidae	**나무이과**		
Psylla alni (Linné)	오리나무이		*
Psylla elaeagni Kuwayama	갈정보리나무이		*
Psylla rhododendri Puton	진달래나무이		*
Psylla coccinea Kuwayama	으름나무이		*
Psylla abieti Kuwayama	단풍나무이		
Family Carsidaridae	**소태나무이과**		

종 명		본조사	문헌조사
Trioza abdominalis Flor	갈고리나무이		*
Trioza nigra Kuwayama	때죽나무이		*
Order Neuroptera	풀잠자리목		
Family Coridalidae	뱀잠자리과		
Protohermes grandis Thunberg	뱀잠자리		*
Family Chrysopidae	풀잠자리과		
Chrysopa formosa Brauer	갑오풀잠자리		*
Chrysoperla furcifera Okamoto	줄풀잠자리		*
Chrysoperla ciliata Wesmael	민풀잠자리		*
Order Coleoptera	딱정벌레목		
Family Cicindelidae	길앞잡이과		
Cicindela hybrida japonensis Chaudoir	참길앞잡이		*
Family Carabidae	딱정벌레과		
Trephionus microphthalmus S. Ueno		+	
Bradycellus subditus Lewis		++	
Dolichus halensis Schaller	등빨간먼지벌레	+	
Carabus wulffusi Morawitz	세줄흑점박이딱정벌레		*
Carabus japonicus Motschulsky	마야산딱정벌레		*
Carabus smaragdinus Fischer	홍단딱정벌레		*
Carabus jankovskii Kraatz	앙코브스키딱정벌레		*
Colpodes chloresis Bates			*
Colpodes ehikoensis Habu			*
Colpodes pachinus Bates			*
Lebidia octogutata Morawitz	팔점박이먼지벌레		*
Harpalus coreanus Tschitscherine	고려머리먼지벌레		*
Chlaenius naeviger Morawits	쌍무늬먼지벌레		*
Family Staphylinidae	반날개과		
MegaloPaederus gottschei Kolbe	곳체개미반날개		*
Philonthus japonicus Sharp	좀반날개		*
Othius rufipennis Sharp	홍딱지긴반날개		*
Liusus hilleri Weise	어리큰칠흑반날개		*
Family Dytiscidae	물방개과		
Hyphydrus laeviventris Sharp		+	
Rhantus erraticus Sharp		++	
Hydaticus grammicus Germer	꼬마줄물방개	+	
Family Silphidae	송장벌레과		
Necrodes nigricornis Harold	수중다리송장벌레	++	

종 명		본조사	문헌조사
Necrodes asiaticus Portevin	큰수중다리송장벌레	++	
Nicrophorus dauricus Motschulsky	다우리아송장벌레		*
Necrodes nepalensis Hope	굵은넉점박이송장벌레		*
Nicrophorus quadripuntatus Kraatz	넉점박이송장벌레		*
Necrophorus maculifrons Kraatz	이마무늬송장벌레		*
Eusilpha jakowlewi Motschulsky	큰넓적송장벌레		*
Eusilpha brunneicollis Kraatz	대모송장벌레		*
Family Catopidae	애송장벌레과		
Catopodes fuscifrons Kraatz	빗수염애송장벌레		*
Family Histeridae	풍뎅이붙이과		
Saprius niponicus Dahlgren	둥근풍뎅이붙이		*
Merohister jekeli Marseul	풍뎅이붙이		*
Family Hydrophilidae	물땡땡이과		
Sternolophus rufipes Fabricius	애물땡땡이	+	
Hydrophilus acuminatus Motschulsky	물땡땡이	+	
Family Coccinellidae	무당벌레과		
Coccinella ainu Lewis	십일점박이무당벌레		*
Propylea japonica Thunberg	꼬마남생이무당벌레		*
Calvia quindecimguttata (Fabricius)	열닷점박이무당벌레		*
Calvia quatuordecimgutta (Linné)	유럽무당벌레		*
Anatis halonis Lewis	달무리무당벌레		*
Coccinella septempunctata Linné	칠성무당벌레	+++	*
Hamonia axyridis (Pallas)	무당벌레		*
Aiolocaria hexaspilota (Hope)	남생이무당벌레		*
Hemosepilachna vigintioctopunctata (Fabricius)	28점박이무당벌레		
Epilachna chinensis Weise	중국무당벌레		*
Vibidia duodecimguttata Poda	12흰점무당벌레		*
Synharmonia hirayamai Yuasa			*
Verania discolor Fabricius			*
Family Cantharidae	병대벌레과		
Athemus suturellus Motschulky	왕병대벌레		*
Athemus vitellinus Kiesenwetter	회황색병대벌레		*
Podabrus lictorius Lewis	포졸병대벌레		*
Podabrus heydeni Kiesenwetter	탐라병대벌레		*
Podabrus longissimus Pic	노랑테병대벌레		*
Family Lycidae	홍반디과		
Macrolycus flabellatus Motschulsky	살짝수염홍반디		*

종 명		본조사	문헌조사
Family Lampyridae	반딧불이과		
Hotaria papariensis (Doi)	파파리반딧불이		
Luciola lateralis Motschulsky	애반딧불이		
Lychnuris rufa (Olivier)	늦반딧불이		
Family Buprestidae	비단벌레과		
Agrilus yamawakii Y. Kurosawa	검정호리비단벌레		*
Habroloma lewisi E. Saunders	루이스좀비단벌레		*
Family Elateridae	방아벌레과		
Actenicerомorphus selectus Candéze	산꽃큰뿔방아벌레	+	*
Anchastus mus Lewis		+	*
Spheniscosomus restrictus Candéze	검정빗살방아벌레		*
Penthelater plebejus Candéze	길쭉방아벌레		*
Selatosomus puncticollis Motschulsky	청둥방아벌레		*
Agriotes sericeus Candéze	누런방아벌레		*
Agriotes persimlis Lewis			*
Actenicerus selectus Candéze			*
Adelocera fuliginosus Candéze			*
Ecta menogonus rugipennis Lewis			*
Family Dedemeridae	하늘소부치과		
Paronocomera yatoi Nakane		+	
Xanthochroa waterhousei Harold	청색하늘소붙이		*
Xanthochroa atriceps Lewis	노랑가슴하늘소붙이		*
Oedemerina subrobusta Nakane			*
Oekemerina robusta Lewis			*
Family Chrysomelidae	잎벌레과		
Clyfra arida Weise		+++	
Hemipyxis plagioderoides Motschulsky		+	
Basilepta balyi Harold		+	
Clythraxeloma cyanipennis Kraatz	수중다리잎벌레		*
Lilioceris rugata Baly	털보긴가슴잎벌레		*
Lema concinnipennis Baly	노란배남색잎벌레		*
Clytra laeviuscula Ratzeburg	넉점박이잎벌레		*
Cryptocephalus fortunatus Baly	소요산잎벌레		*
Cryptocephalus approxinatus Baly	장미잎벌레		*
Cryptocephalus japanus Baly	8점박이잎벌레		*
Chrysomela vigintipunctata Scopoli	버들잎벌레		*
Agelastica corulea Baly	오리나무잎벌레		*

종 명		본조사	문헌조사
Agelasa nigriceps Motschulsky	노랑가슴금록색잎벌레		*
Nonarthra cyaneum Baly			*
Phyllotreta rectilineata Chen			*
Altica caerulescens Baly	등록색잎벌레		*
Altica oleracea Linné			*
Dactylispa angulosa Solsky	노랑테가시잎벌레		*
Thasjpida lewisii Baly	루이스남생이잎벌레		*
Thaspida Biramosa japonica Spaeth	좀남생이잎벌레		*
Lochmaea capreae Linné	질경이잎벌레		*
Gastrolinoides japonica Harold			*
Linaeidea aenea insularis Chujo			*
Family Cerambycidae	하늘소과		
Prionus insubris Motschulsky	톱하늘소	+	
Corymbia succedanea Lewis		+++	
Spondylis buprestoides (Linné)	검정하늘소		*
Pterolophia maacki Blessing	대륙마키아하늘소		*
Evodinus borealis Gyllenihall	북방꽃하늘소		*
Acmaeops minuta Gebler	남색꽃하늘소		*
Pidinia gibbicollis Blessig	세줄박이각시꽃하늘소		*
Anoplodera sequensi Reitter	옆검은산꽃하늘소		*
Anoplodera misella Battes	꼬마산꽃하늘소		*
Leptura aethiops poda	검정꽃하늘소		*
Leptura arcuata Panzer	광대꽃하늘소		*
Leptura duodecimguttata Fabricius	열두점박이하늘소		*
Leptura femoralis Motschulsky	진검정꽃하늘소		*
Strangalia tenuis Solsky	어치꽃하늘소		*
Strangalia attenuata Linné	남나무꽃하늘소		*
Chlorophorus diadema Motschulsky	범하늘소		*
Hayaschiclypus acutivittis Kraatz	측범하늘소		*
Lamia textor Linné	황철나무하늘소		*
Moechotypa diphysis Pascoe	털두꺼비하늘소		*
Agapanthia pilicornis Fabricius	송낙수염남털보하늘소		*
Epiglenea comes Bates	노란눈박이하늘소		*
Eumecoera impustulata Motschulsky	당나귀하늘소		*
Phytoecia rufiventris Gautier	국화하늘소		*
Family Cephaloidae	목대장과		
Cephaloon pallens Motschulsky	목대장		*

종 명		본조사	문헌조사
Family Curculionidae	바구미과		
Euops splindida Voss	루리거우벌레		*
Apoderus rubidus Motschulsky	분홍거우벌레		*
Apoderus nitens Roelofs			*
Paroplapoderus validus nigraguttatus Kono			*
Cycnotrachelus roelofsi Harold			*
Byctiscus congenes Jekel			*
Paracentrocorynus nigricollis Roelofs			*
Myllocerus nigromaculatus Roelofs			*
Episomus turritus Gyllenhal	흑바구미		*
Lepyrus japonicus Roelofs	노랑쌍무늬바구미		*
Hylobius abietis haroldi Faust	솔곰보바구미		*
Hylobius cribripennus Matsumura et Kono			*
Callirhopalus obesus Roelofs			*
Callirhopalus setosus Roelofs			*
Phaecopholus major Roelofs			*
Baris dispilota Solsky		+ + +	
Baris sp.		+	
Apoderus(Compsapoderus) erythropterus Zachach	북방거우벌레	+	
Attelabus mutus Faust	앞다리톱거우벌레		*
Family Lucanidae	사슴벌레과		
Neolucanus sandersi Parry		+	
Macrodordus rectus Motschulsky	애사슴벌레	+	
Eurytrachelus platymelus Saders	넓적사슴벌레	+	
Platycerus delicatulus Lewis	비단사슴벌레	+	
Family Scarabaeidae	풍뎅이과		
Anomala rutocuprea Motschulsky		+++	
Blitopertha okinawaensis Ohaus		+++	
Melolontha japonica Burmeister		+	
Aserica fusania Murayama	부산우단풍뎅이		*
Sophrops heydeni Brenske	하이덴풍뎅이		*
Serica opaciventris Moser	아래검은우단풍뎅이		*
Serica nakayamai Murayama	나카야마우단풍뎅이		*
Serica motschulskyi Brenske	모출스키우단풍뎅이		*
Serica orientalis Motschulsky	애우단풍뎅이		*
Serica renardi Ballion			*
Trichius succinctus Pallas	호랑꽃무지	+++	*

종 명		본조사	문헌조사
Popillia indigonacea Motschulsky	콩풍뎅이	+++	
Anomala triangularis Schonfeldt		+	
Anomala testaceipes Motschulsky	줄풍뎅이	+++	
Anomala sieversi Heyden	대마도줄풍뎅이		*
Heptophylla picea Motschulsky		+++	
Mimela holosericea Fabricius	금줄풍뎅이	+	
Mimela splendens Gyllenhal	풍뎅이	+	
Mimela costata Hope		+	
Ectinohoplia fufipes Motschulsky	밤색긴다리풍뎅이	++	
Onthophagus fodiens Waterhouse	모붙이풍뎅이		*
Aphodius urostigma Harold	갓털똥풍뎅이		*
Aphognia cribricollis Burmeister	잔감자풍뎅이	+	*
Aphodius sturmi Harold	애노랑똥풍뎅이		*
Aphodius unoplagiatus Waterhouse	띄똥풍뎅이		*
Aphodius elegans Allibert	큰점박이똥풍뎅이		*
Aphodius sordidus (Fabricius)	넉점박이똥풍뎅이		*
Sercania kamiyai Sawada			*
Sercania hasegawai Murayama	하세가와우단풍뎅이		*
Sercania koryoensis Murayama	광릉우단풍뎅이		*
Sercania fuscolineata Motschulsky	흑다색우단풍뎅이		*
Trichoserica polita (Gebler)	북방우단풍뎅이		*
Maladera verticalis Fairmaire	좀빨간우단풍뎅이	++	*
Maladera japonica (Motschulsky)	우단풍뎅이		*
Maladera gibbiventris (Brenske)	주름배우단풍뎅이		*
Maladera orientalis (Motschulsky)	애우단풍뎅이		*
Gastroserica herzi Heyden	참줄우단풍뎅이		*
Holotrichia kiotensis Brenske	검정풍뎅이		*
Holotrichia titanis Reitter	큰다색풍뎅이		*
Heptophylla picea Motschulsky	긴다색풍뎅이		*
Adoretus tennimaculatus Waterhouse	주둥이무늬풍뎅이		*
Hoplia moerens Waterhouse	황토색긴다리풍뎅이		*
Potosia aerata Erichson	점박이풍뎅이		*
Oxycetonia jucunda Faldermann	풀색꽃무지		*
Order Hymenoptera	벌목		
Family Pamphiliidae	납작일벌과		
Pamphilius tenuis Takeuchi	테누이스납작잎벌		*
Family Ichneumonidae	맵시벌과		

종 명		본조사	문헌조사
Aphanistes bellicoides Uchida			*
Trichomma fulvidens (Wesmael)			*
Trichomma koreanum Lee et Kim			*
Trichomma enecator (Rossi)			*
Therion circumflexum (Linné)			*
Brachynervus tsunekii Uchida			*
Dolichomitus tuberculatus subsp			*
Acropimpla persimilis Ashmead	먹수염납작맵시벌		*
Itoplectis alternans spectabili Matsumura	송충살이납작맵시벌		*
Rhyssa persuasoria Linné	송곳벌살이납작맵시벌		*
Ligtrognathus eccopteromus Uchida	왜이마뿔뾰족맵시벌		*
Hyposoter takagii Matsumura	송충잡이자루맵시벌		*
Metopius (Metopius) rufus browni Ashmead	누런줄뭉툭맵시벌		*
Mertopius (Ceratopims) dissectorius dissectorius Panzer	줄뭉툭맵시벌		*
Habronyx heros Wesmael	장수자루맵시벌		*
Chasmias major Uchida	말맵시벌		*
Noetypus nobilitator orientalis Uchida	등빨간맵시벌		*
Smicroplectus erosus (Holmgren)	노란띠뭉툭맵시벌		*
Cteniscus qwadriceps (Uchida)	흰띠수염뭉툭맵시벌		*
Habronyx sonani (Uchida)			*
Therion circumflexum (Linné)			*
Family Chrysididae	**청벌과**		
Hedychridium roseum Rossi	로시청벌		*
Family Vespidae	**말벌과**		
Vespa crabro Linné	말벌		*
Family Polistidae	**쌍살벌과**		
Polistes snelleni Saussure	별쌍살벌		*
Family Eumenidae	**호리병벌과**		
Eumenes architectus Smith	민호리병벌		*
Rhynchium mandarineum Saussur	쌍띠감탕벌		*
Rhynchium quadrifasciatus Fabricius	땅감탕벌		*
Rhynchium seuli Radoszkowski	별참두줄감탕벌		*
Symmorphus captivus Smith	잎벌레살이감탕벌		*
Family Argidae	**등에잎벌과**		
Arge jonasi Kirby	청등에잎벌		*
Arge mali Takeuchi	사과등에잎벌		*

종 명		본조사	문헌조사
Arge coerulescens Geoffroy	루리등에잎벌		*
Arge pagana Panzer	장미등에잎벌	+	*
Family Cimbickdae	**수중다리잎벌과**		
Abia iridescens Marlatt	구리수중다리잎벌		*
Family Diprionidae	**솔잎벌과**		
Neodiprion japonicus Marlatt	솔잎벌		*
Family Tenthredinidae	**잎벌과**		
Dolerus armillalus Konow	어리노랑배잎벌		*
Allantus longipennis Matsumura	긴꼬리잎벌		*
Athalia proxima Klug	두색무잎벌		*
Athalia rosae Linné	무잎벌		*
Macrophya coxalis Motschulsky	애황종아리잎벌		*
Macrophya duodecimpunctata var. sodalitia Mocsary	북방넉점박이잎벌		*
Macrophya sibirica Forsius	시베리아검정잎벌		*
Macrophya timida Smith	좀검정잎벌		*
Tenthredo analis Andre	띠호리잎벌		*
Tenthredo nigropicta Smith	황줄잎벌		*
Tenthredo vivida Malaise	비비다잎벌		*
Tenthredo mortivaga Marlatt	황호리병잎벌		*
Family Braconidae	**고치벌과**		
Apanteles glomeratus Linné	배추나비고치벌		*
Sigalphus irrorator Fabricius	꼬리뭉툭고치별		*
Chelonus pectinophorae Cushmann	검고치벌		*
Meterorus camtolomae Watandbe	호리병고치벌		*
Coelinidea hordeicola Watanabe	보리잎속파리고치벌		*
Family Bombidae	**뒤영벌과**		
Bombus hypocrita hypocrita (Perez)			*
Bombus ardens Smith	샌뒤영벌		*
Bombus koreanus Skorikov	참호박뒤영벌		*
Bombus tersatus Smith	어리황뒤영벌		*
Family Formicidae	**개미과**		
Paratrecina foavipes F. Smith	가시개미		*
Formica lemani Bondroit	제만개미		*
Camponotus caryae quadrinotatus Forel	네눈개미		*
Camponotus japonicus Mayr	일본왕개미	+	*
Camponotus obscuripes Mayr	홍가슴개미	+	*

종 명		본조사	문헌조사
Formica fusca Linné	곰개미	+	
Lasius niger (Linné)	도동털개미	+	*
Plagiolepis pygmaea (Latreille)	루리개미	+	
Formica sanguinea Latreille	분개미	+	*
Lasius alienus (Forster)	누운털개미	+	*
Crematogaster caboriosa Smith	용골등꼬리치레개미		
Tetramorium caespitum (Linné)	주름개미	+	
Pheidole nodus Smith	흑개미	+	
Family Encyrtidae	벼룩좀벌과		
Cheiloneurus claviger Thomson	솜깍지벌레벼룩좀벌		*
Cheiloneurus japonicus Ashmead	일본깍지벌레벼룩좀벌		*
Anabrolepsis lindingaspidis Tachisawa	검둥근깍지벌레벼룩좀벌		*
Metaprionomitus stenopsyllae Tachikawa	나무이벼룩좀벌		*
Family Pompilidae	대모벌과		
Episyron capitosus Smith	꼬마허리무늬대모벌		*
Priocnemis fenestrata Gussakovskij	흰허리가시다리대모벌		*
Family Pemphredonidae	진딧물벌과		
Pemphredon(Cemonus) diervilla Iwata	애기진딧물벌		*
Family Sphecidae	구멍벌과		
Ammophila infesta Smith	나나니	+	*
Fmaily Alyssonidae	알리손어리감탕벌과		
Alysson ratzburgi Dahlbom	라쯔버그어리감탕벌		*
Fmaily Crabronidae	은주둥이벌과		
Ectemmius (Hypodrabro) continnus Fabricius	은주둥이벌		*
Family Halictidae	꼬마꽃벌과		
Halictus aerarius Smith	스미드애꽃벌		*
Lasioglossum nipponensis Hirashima	닙폰줄애꽃벌		*
Lasioglossum laeviventre Perez	페레쯔줄애꽃벌		*
Lasioglossum duplex Dalla Torre	두풀랙스줄애꽃벌		*
Sphecodes simillimus Smith	홍배꼬마꽃벌		*
Family Anthophoridae	청줄벌과		
Anthophora acervorum villosula Smith	털보줄벌		*
Family Megachilidae	가위벌과		
Osmia(Osmia) cornifrons Radoszkowski	머리뿔가위벌		*
Osmia(Osmia) excavata Alfken	흰줄뿔가위벌		*
Osmia(Osmia) pedicornis Cockerell	뿔가위벌		*
Family Xylocopidae	어리호박벌과		

종 명		본조사	문헌조사
Xylocopa appendiculata circumvolans Smith	어리호박벌		*
Family Ceratinidae	광채꽃벌과		
Ceratina japonica Cockerell	일본광채꽃벌		*
Family Andrenidae	애꽃벌과		
Andenida kyunsani Kim et Kim	규산애꽃벌		*
Andenida plumosa Kim et Kim	털애꽃벌		*
Family Apidae	꿀벌과		
Apis cerana Fabricius	재래꿀벌		*
Apis mellifica Linné	양봉꿀벌		*
Order Mecoptera	밑들이목		
Family Panorpidae	밑들이과		
Panorpa kirishimaensis Issiki			*
Panorpa gokaensis Miyake			*
Panorpa japonica Thunberg			*
Panorpa nipponensis Navas			*
Panorpa correana Okamoto	참밑드리		*
Order Diptera	파리목		
Family Bibionidae	털파리과		
Bibio matsumurai Okamoto			*
Bibio holomaurus Hardy et Takahashi			*
Family Tipulidae	각다귀과		
Ctenophora(Phoroctenia) vittata Meigen			*
Ctenophora biguttata Matsumura			*
Neohrotoma cornicina Linné	황나각다귀		*
Tipula aino Alexander	아이노각다귀		*
Tipula bubo Alexander	졸잠자리각다귀		*
Tipula(Nippotipula) coquilletti Enderlein	잠자리각다귀		*
Tipula nova Alexander	애잠자리각다귀		*
Tipula(Oreomyza) flavocostalis Alexander			*
Tipula(Oreomyza) mystica Alexander			*
Liminia(Metalimnobia) bifasciata Schrenk			*
Antocha(Proantocha) serricauda Alexander			*
Family Calliphoridae	검정파리과		
Phaenicia seriata Meigen	구리금파리	+	
Lucilia caesar Linné	왕루리먹파리		*
Calliphora vomitoria Linné	검정파리		*
Calliphora lata Coquillett	큰검정파리		*

종 명		본조사	문헌조사
Lucilia porphyrina Walker	붉은등파리		*
Family Tachinidae	**기생파리과**		
Gymnochaeta viridis Fallen	루리기생파리	+	
Tachina nupta micado (Kirby)			*
Servillia jakovlewii Portschinsky	뒤병기생파리		*
Servillia politula Coquillett			*
Echinomyia mikado Kirby	등줄기생파리		*
Sturmia sericariae Colnalia	누에기생파리		*
Gonia fuscipes Matsumura	검정머리기생파리		*
Family Solvidae	**점밑드리파리매과**		
Solva maculata Meigen	얼룩점밑드리파리매		*
Family Acroceridae	**곱추등에과**		
Philopota nigroaenea Motschulsky	곱추등에		*
Family Bombyliidae	**재니등에과**		
Bombylius major Linné	빌로오드재니등에		*
Family Empididae			
Empis latro Frey			*
Empis flavobasalis Matsumura			*
Family Dolichopodidae			
Dolichopus nitidus Fallen	장다리파리		*
Family Syrphidae	**꽃등에과**		
Epistrophe balteata De Geer	호리꽃등에		*
Sphaerophoria menthastri Linné	꼬마넓적꽃등에		*
Metasyrphus scalare Fabricius	광꽃등에		*
Metasyrphus corollae Fabricius	별넓적꽃등에		*
Metasurphus nitense Zetterstedt	물결납작꽃등에		*
Syphus confrater Wiedemann	대만넓적꽃등에		*
Syphus ribesii Linné	좀넓적꽃등에		*
Syphus torvus Osten-Sacken	털좀넓적꽃등에		*
Dideoides lautus Coquillett	끝노랑꽃등에		*
Patagus tibialis Fallen	종아리꽃등에		*
Chrysotoxum festivum Linné	수염치레꽃등에		*
Chrysotoxum japonicum Shiraki	일본수염치레꽃등에		*
Eumerus iidai Shiraki	이이다꽃등에		*
Eumerus japonicus Matsumura	일본알뿔리꽃등에		*
Zelima coquilletti Herve-Basin	루리긴꽃등에		*
Zelima frontalis Shiraki et Edashige	알락긴허리꽃등에		*

종 명		본조사	문헌조사
Eristalomyia tenax Linné	꽃등에		*
Eristalis cerealis Fabricius	한국꽃등에		*
Tubifera virgatus Coquillett	수중다리꽃등에		*
Lathyrophthalmus ocularis Coquillett	눈루리꽃등에		*
Lampetia equestris Fabricius	수선화꽃등에		*
Volucella nigricans Coquillett	검정대모꽃등에		*
Volucella tabanwides Motschulsky	어리대모꽃등에		*
Microdon auricomus Coquillett	개미꽃등에		*
Microdon japonicus Yano	좀개미꽃등에		*
Pseudozetterstedt unicolor Shiraki	황가슴꽃등에		*
Eristalis cerealis Fabricius	배짧은꽃등에	+++	
Helophilus virgatus V. Coquillett		+++	
Eristalis tarsalis (Macquart)		+	
Baccha maculata Walker	알락꽃등에	+	
Xylota coquilletti Herve-Bazin		+	
Volucella sp.		+	
Zelima frontalis Shirakiet Edashige	알락허리꽃등에	+	*
Pseudomerodon takasagoensis Matsumura	왕진흙꽃등에		*
Family Sarcophagidae	쉬파리과		
Boettcherisca peregrina Ronineau-Desvoidy	똥쉬파리		*
Pierretia kayaenisis Park	가야쉬파리		*
Family Phasiidae	뚱보꽃파리과		
Ectophasia sinensis Villeneuve	중국뚱보파리		*
Gymnosoma rotundatum Linné	뚱보꽃파리		*
Phasia crassipennis Fabricius	뚱보별파리		*
Hermyia beelzebul Wiedemann	검정수염꽃파리		*
Family Pipuculidae			
Pipunculus kumamotoensis Matsumura	구마모도짱구등에		*
Family Conopidae	벌붙이파리과		
Asiconops opimus Coquillett	검정가슴벌붙이파리		*
Physocephala obscura Krober	왕벌붙이파리		*
Zodion cinereum Fabricius			*
Family Trypetidae	광대파리과		
Sphaeniscus atilia Walker			*
Stylia messalina Hering			*
Family Lauxanidae			
Minettia longipennis Fabricius			*

종 명		본조사	문헌조사
Family Scatophagidae	똥파리과		
Scatophaga stercoraria Linné	똥파리		*
Family Muscidae	집파리과		
Fannia scalaris Fabricius	털아기집파리		*
Fannia prisca Stein	검정아기집파리		*
Muscina pascuorum Meigen	큰집파리		*
Musca convexifrons Thomson	검정집파리		*
Dasyphora cyanicolor (Zetterstedt)			*
Family Heleomyzidae			
Tephrochlamys japonica Okadome		+	
Orbellia tokyoensis Ozerny		+	
Family Asilidae	파리매과		
Cytopogon pictipennis Coquillett	배털보파리매		*
Eutolmus brevistylus Coquillett	분파리매		*
Laphria rufa Roder	빨간뒤영벌파리매		*
Molobratia sapporensis Matsumura	삿포로장다리파리매		*
Neoitamus angusticornis Loew	광대파리매	+	*
Philonicus albiceps Meigen	쥐색파리매		*
Trichomachimus scutellaris (Coquillett)		+	
Family Tabanidae	등에과		
Tabanus trigonus Coquillett	소등에		*
Chrysozona tristis Bigot	깨다시등에		*
Chrysops japonicus Wiedemann	검정대모등에(신칭)		*
Heterochrysops van-der-wulpi Krober	집파리등에		*
Family Stratiomyiidae	동애등에과		
Ptecticus tenebrifer Walker	동애등에		*
Ptecticus mitsuminensis Ouchi	미쯔미동애등에		*
Ephippium obtusum James	두줄동애등에		*
Order Lepidoptera	나비목		
Family Noctuidae	밤나방과		
Amphipoea ussuriensis (Petersen)	깃노랑밤나방		*
Euplexia lucipara (Linné)	구리밤나방		*
Rusidrina depravata (Butler)	잔디밤나방		*
Amphipyra erebina (Butler)	지옥까마귀밤나방		*
Amphipyra schrenckii (Ménétriès)	흰점까마귀밤나방		*
Cosmia exigua (Butler)	주먹무늬밤나방		*
Bena parasinana Linné	푸른줄애기밤나방		*

종 명		본조사	문헌조사
Pseudoips sylpha (Butler)	큰쌍줄푸른밤나방		*
Plusilla rosalia Staudinger	은빛붉은밤나방		*
Dysmilichia gemella (Leech)	쌍둥이밤나방		*
Callopistria repleta Walker	얼룩어린밤나방		*
Sphragifera sigillata (Ménétriès)	봉인밤나방		*
Anuga multiplicans Walker	긴수염비행기밤나방		*
Amathes c-nigrum Linné	씨무늬밤나방		*
Hermonassa cecilia Bulter	점박이밤나방		*
Rivula sericealis Scopoli	점노랑짤름나방		*
Siglophora sanguinolenta (Moore)	붉은무늬갈색밤나방		*
Corgatha argilacea (Butler)	흰점꼬마밤나방		*
Lophoruza pulcherrima (Butler)	꽃꼬마밤나방		*
Sugia idiostygia Sugi	담색지옥꼬마밤나방		*
Neustrotia noloides Butler	북방꼬마밤나방		*
Acanthpolusia agnata (Staudinger)	콩금무늬방나방		*
Erythpoplusia pyropia (Butler)	붉은등은무늬밤나방		*
Polychrysia splendida (Butler)	알락은무늬나방		*
Family Yponomeutidae	집나방과		
Yponomeuta tokyonllus matsumura	참빗살집나방		*
Family Incurvariidae	곡나방과		
Nemophora amurensis Alpheraki	아므르긴수염나방		*
Family Pyralidae	명나방과		
Tyspanodes striata Butler	꽃날개들명나방		*
Dysgonia maturata Walker	보라끝수중다리밤나방		*
Ercheia niveostrigata Warren	청백무늬밤나방		*
Scolipteryx libatrix (Linné)	톱니밤나방		*
Calpe capucina (Esper)	칼페갈고리밤나방		*
Sypnoides picta (Butler)	흰줄썩은잎밤나방		*
Pseudoips sylpha (Butler)			*
Pangrapta flavomacula Staudinger	흰줄짤름나방		*
Bomolocha stygiana Butler	고개무늬수염나방		*
Edessena hamada Felder et Rogenhofer	쌍복판눈수염나방		*
Family Notodontidae	재주나방과		
Fentonia ocypete (Bremer)	밤나무재주나방		*
Peridea gigantea Butler	곧은줄재주나방		*
Ptilodon unwayamae Matsumura	애기린재주나방		*
Ptilodon jezoensis Matsumura	기린재주나방		*

종 명		본조사	문헌조사
Fusapteryx ladislai (Oberthur)	푸른무늬재주나방		*
Drymonia dodonides Staudinger	점줄재주나방		*
Lophocosma atriplaga (Staudinger)	검은줄재주나방		*
Eguria ornata (Oberthur)	각시재주나방		*
Spatalia doerriesi Graeser	은무늬재주나방		*
Phalera flavescens Bremer et Grey	먹무늬재주나방		*
Leucodonta bicoloria Linné	흰날개재주나방		*
Family Lymantriidae	독나방과		*
Dasychra lunulata Butler	루눌라독나방		*
Lymantria monacha (Linné)	얼룩매미나방		*
Euproctis similis (Fuessly)	흰독나방		*
Family Thyatiridae	뾰족날개나방과		
Habrosyne aurorina Butler	애기담홍뼈족날개나방		*
Habrosyne dieckmanni Graeser	담홍뾰족날개나방		*
Tethea octogesima Butler	좁은뾰족날개나방		*
Tethea consimilis Warren	홍백띠뾰족날개나방		*
Family Agaristidae	얼룩나방과		
Mimeusemia persimilis Butler	애기얼룩나방		*
Family Arctiidae	불나방과		
Spilosoma lubricipeda Linné	배점무늬불나방		*
Family Drepanidae	갈고리나방과		
Auzata superba superba Butler	작은민갈고리나방		*
Sabra harpagula (Inoue)	물결갈고리나방		*
Nordstromia japonica (Moore)	황줄점갈고리나방		*
Nordstromia grisearia (Staudinger)	황줄갈고리나방		*
Oreta paki (Inoue)	세욱갈고리나방		*
Agnidra scabiosa Butler	참나무갈고리나방		*
Deroca inconclusa Walker	남방흰갈고리나방		*
Family Cyclidiidae	왕민갈고리나방과		
Cyclidia substigmaria Hubner	왕민갈고리나방		*
Family Zygaenidae	알락나방과		
Illiberis tenuis Butler	포도유리날개알락나방		*
Elcysma westwoodi Vollenhoven	벚나무모시나방		*
Family Saturmiidae	산누에나방과		
Actias artemis Bremer et Grey	긴꼬리산누에나방		*
Family Geometridae	자나방과		
Arichanna melanaria Linné	뒷노랑점가지나방		*

종 명		본조사	문헌조사
Angerona prunaria Linné	오얏나무가지나방		*
Phthonosema invenustaria Leech	뿔무늬가지나방		*
Rhynchobapta cervinaria Moore	두줄갈고리가지나방		*
Comibaena ingrata (Wilemaan)	가줄푸른자나방		*
Rheumaptera hecate Butler	까치물결자나방		*
Family Hesperiidae	팔랑나비과		
Isoteinon lamprospilus C. et R. Felder	지리산팔랑나비		*
Bibasis striata Hewitson	큰수리팔랑나비	+	*
Lobocla bifasciata Bremer et Grey	왕팔랑나비		*
Daimio tethys Ménétriès	왕자팔랑나비		*
Erynnis montanus Bremer	멧팔랑나비		*
Pyrgus malvae Linné	꼬마흰점팔랑나비		*
Pyrgus maculatus Bremer et Grey	흰점팔랑나비		*
Leptalina unicolor Bremer et Grey	은줄팔랑나비	+	*
Heterophalus morpheus Pallas	돈무늬팔랑나비		*
Aeromachus inachus Ménétriès	파리팔랑나비		*
Thymelicus sylvaticus Bremer	수풀꼬마팔랑나비	+	*
Thymelicus leoninus Butler	줄꼬마팔랑나비		*
Hesperia comma Linné	꽃팔랑나비		*
Ochlodes venata Bremer et Grey	수풀떠들썩팔랑나비		*
Ochlodes subhyalina Bremer et Grey	유리창떠들썩팔랑나비		*
Ochlodes ochracea Bremer	검은테떠들썩팔랑나비		*
Potanthus flavum Murray	황알락팔랑나비		*
Carterocephalus dieokmanni Graeser	참알락팔랑나비		*
Carterocephalus sylvicola Meigen	수풀알락팔랑나비		*
Parnara guttata Bremer et Grey	줄점팔랑나비		*
Polytremis pellucida Murray	산팔랑나비		*
Pelopidas mathias Fabricius	제주꼬마팔랑나비		*
Family Papilionidae	호랑나비과		
Luehdorfia puziloi Erschoff	애호랑나비		*
Sericinus montela Grey	꼬리명주나비		*
Parnassius stubbendorfii Ménétriès	모시나비		*
Parnassius bremeri Bremer	붉은점모시나비	+	*
Parnassius nomion Fischer	왕붉은점모시나비		*
Parnassius eversmanni Ménétriès	황모시나비		*
Atrophoneura alcinous Klug	사향제비나비		*
Graphium sarpedon Linné	청띠제비나비		*

종 명		본조사	문헌조사
Papilio machaon Linné	산호랑나비		*
Papilio xuthus Linné	호랑나비	+	*
Papilio helenus Linné	무늬박이제비나비		*
Papilio protenor Gramer	남방제비나비		*
Papilio macilentus Janson	긴꼬리제비나비	+++	*
Papilio bianor Cramer	제비나비	+	*
Papilio maackii Ménétriès	산제비나비	+	*
Family Pieridae	흰나비과		
Leptidea morsei Fenton	북방기생나비		*
Leptidea amurensis Ménétriès	기생나비		*
Colias erate Esper	노랑나비	+	*
Colias palaeno Linné	높은산노랑나비		*
Colias heos Herbst	연주노랑나비		*
Eurema hecabe Linné	남방노랑나비		*
Aporia hippia Bremer	눈나비		*
Eurema laeta Boisduval	극남노랑나비		*
Aporia crataegi Linné	상제나비		*
Gonepteryx rhamni Linné	멧노랑나비		*
Gonepteryx aspasia Ménétriès	각시멧노랑나비		*
Artogeia napi Boisduval	줄흰나비		*
Artogeia melete Ménétriès	큰줄흰나비		*
Artogeia canidia Sparrman	대만흰나비	+++	*
Artogeia rapae Linné	배추흰나비		*
Pontia daplidice Linné	풀흰나비		*
Pontia chloridice Hubner	북방풀흰나비		*
Anthocharis scolymus Butler	갈구리나비		*
Family Lycaenidae	부전나비과		
Artopoetes pryeri Murray	선녀부전나비		*
Ussuriana michaelis Oberthur	금강산큐빛부전나비		*
Thecla betulae Linné	암고운부전나비		*
Shirozua jonasi Janson	민무늬큐빛부전나비		*
Japonica lutea Hewitson	큐빛부전나비		*
Favonius orientalis Murray	큰녹색부전나비		*
Favonius aurrorinus Oberthur	산녹색부전나비		*
Rapala caerulea Bremer et Grey	범부전나비	+	*
Spindasis takanonis Matsumura	쌍꼬리부전나비		*
Callophrys frivaldszkyi Lederer	쇳빛부전나비		*

종 명		본조사	문헌조사
Lycaena phlaeas Linné	작은주홍부전나비	+	*
Niphanda fusca Bremer et Grey	담흙부전나비		*
Everes argiades Pallas	암먹부전나비	+	*
Tongeia fischeri Eversmann	먹부전나비		*
Celastrina argiolus Linné	푸른부전나비		*
Scolitandides orion Pallas	작은홍따점박이푸른부전나비		*
Lycaeides argyronomon Bergstrasser	부전나비		*
Pseudozizeeria maha Kollar	남방부전나비		*
Family Nymphalidae	네발나비과		
Libythea celtis Fuessly	뿔나비		*
Parantica sita Kollar	왕나비		*
Melitaea diamina Lang	담색어리표범나비		*
Melitaea scotosia Butler	암어리표범나비	+	*
Melitaea athalia Rottemburgh	어리표범나비		*
Eurodryas aurinia Rottemburgh	금빛어리표범나비		*
Clossiana selene Schiffermuller	작은은선점표범나비		*
Clossiana oscarus Eversmann	큰은점선표범나비		*
Brenthis daphne Denis et Schiffermuller	큰표범나비		*
Argyronome laodice Pallas	흰줄표범나비		*
Argyronome ruslana Motschulsky	큰흰줄표범나비		*
Damora sagana Doubleday	암검은표범나비		*
Nephargynnis anadyomene C. et R. Felder	구름표범나비		*
Argynnis paphia Linné	은줄표범나비		*
Speyeria aglia Linné	풀표범나비		*
Fabriciana adippe Linné	긴은점표범나비		*
Fabriciana pallescens Butler	은점표범나비		*
Fabriciana nerippe C. et R. Felder	왕은점표범나비	+	*
Limenitis camilla Linné	줄나비		*
Limenitis helmanni Lederer	제일줄나비		*
Limenitis doerriesi Staudinger	제이줄나비		*
Neptis sappho Pallas	애기세줄나비	+	*
Neptis speyeri Staudinger	높은산세줄나비		*
Neptis philyra Ménétriès	세줄나비		*
Neptis philyroides Staudinger	참세줄나비		*
Neptis pryeri Butler	별박이세줄나비		*
Neptis rivularis Scopoli	두줄나비		*
Neptis alwina Bremer et Grey	왕세줄나비		*

종 명		본조사	문헌조사
Neptis thisbe Ménétriès	황세줄나비		*
Araschnia burejana Bremer	거꾸로여덟팔나비		*
Polygonia c-aureum Linné	네발나비		*
Nymphalis xanthomelas Denis et Schiffermuller	들신선나비		*
Kaniska canace Linné	청띠신선나비		*
Cyntia cardui Linné	작은멋쟁이나비		*
Dravira ulupi morii Doherty	수노랑나비		*
Vanessa indica Herbst	큰멋쟁이나비	+	*
Dichorragia nesimachus Boisdtval	먹그림나비		*
Apatura metis Freyer	황오색나비		*
Mimathyma schrenckii Ménétriès	은판나비	+	*
Sephisa princeps Fixsen	대왕나비	+	*
Hestina assimilis Linné	홍점알락나비		*
Hestina japonica C. et R. Felder	흑백알락나비		*
Sasakia charonda Hewitson	왕오색나비		*
Apatura iris Linné	번개오색나비	+	
Araschnia burejana Bremer	거꾸로여덟팔나비	+	*
Ypthima argus Butler	애물결나비	+	*
Ypthima motschulski Bremer et Grey	물결나비		*
Oeneis walkyria Fixsen	참산뱀눈나비		*
Minois dryas Scopoli	굴뚝나비		*
Lasiommata deidamia Eversmann	뱀눈그늘나비		*
Pararge achine Scopoli	눈많은그늘나비		*
Kirinia epimenides Ménétriès	알락그늘나비		*
Ninguta schrenckii Ménétriès	왕그늘나비		*
Lethe marginalis Motschulsky	먹그늘나비붙이		*
Melanargia halimede Ménétriès	흰뱀눈나비		*
Melanargia epimede Staudinger	조흰뱀눈나비		*
Mycalesis trancisca Cramer	부처사촌나비		*
Coenconympha hero Linné	도시처녀나비		*
Coenconympha oedippus Fabricius	봄처녀나비		*
Coenconympha amaryllis Cramer	시골처녀나비		*
Melanitis leda Linné	먹나비		*
Lethe diana Butler	먹그늘나비		*
Lethe sicelis Hewitson	시셀리그늘나비		*
Erebia wanga Bremer	외눈이지옥사촌나비		*

주) * : 문헌기록종 + : 1~ 5개체, ++ : 6~10개체, +++ : 10개체이상

3. 식물

월터(Walter, 1975)의 분류에 의하면, 무주지방은 식물 분포상 낙엽활엽수림대에 속한다. 식물구계로 보면 일화식물구계의 한국구 중 남부아구(이와 임, 1978)에 속하며 식물군계로 보면 냉온대 남부에 속한다.

1) 무주의 관속식물상

무주군 일대에 나는 관속식물은 117과 443속 810종 4아종 163변종 20품종으로 총 997종류로 밝혀졌다<표 1-2-12>. 이 곳에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우리나라 4,191종류(Nakai,1952)의 약 23.8%에 상당하며 비교적 다양하다. 민주지산의 관속식물의 수는 총 699종류이고 덕유산은 781종류이었다. 그리고 양치식물계수(Pte-Q)는 민주지산이 1.04이며 덕유산은 0.76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존된 점봉산의 1.24(이 등, 1991)에 비해 낮으나 비교적 잘 보존된 곳으로 나타났다.

<표 1-2-12> 무주지역 관속식물 종류 조성

(이 등, 1996)

분 류 군	과	속	종	아 종	변 종	품 종	계
양치식물	8	17	33	·	4	·	37
나자식물	5	11	16	·	·	·	16
피자식물	104	415	761	4	159	20	944
쌍자엽식물	88	322	602	3	134	18	757
단자엽식물	16	93	159	1	25	2	187
계	117	443	810	4	163	20	997

본 지역에 나는 것 중에서 한국특산식물(목록의 *표 한 것)은 개비자나무, 떡버들, 가는장구채, 참줄바꽃, 할미밀망, 금꿩의다리, 참장대나물, 속리기린초, 흰괭이눈, 매화말발도리, 터리풀, 섬양지꽃, 풀싸리, 나래완두, 노랑갈퀴, 좁은단풍, 회양목(재), 금강제비꽃, 지리산오갈피나무, 지리강활, 산앵도나무, 개나리(재), 자란초, 참배암차즈기, 오동나무(재), 토현삼, 병꽃나무, 금마타리, 어리병풍, 개쑥부쟁이, 국화방망이, 고려엉겅퀴, 분취, 금강애기나리, 죽대, 왕둥굴레, 지리대사초 등 37종류로 소산식물의 약 3.7%에 달하며 우리나라 특산식물의 6.5%에 해당한다(백, 1994).

덕유산 지역의 식물상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갈나무가 무성하고 고도 1,300m에서부터 한 대성 침엽수인 구상나무와 주목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산정 부근에서는 관목대로 바뀐다(김, 1994). 민주지산 지역의 식물상은 상부는 신갈나무군락, 하부는 소나무군락으로 대표되는 2차림이며, 대불리의 팽나무골 솔정지와 신선동 말채정에 남아 있는 고목, 말채나무(DBH=94㎝), 소나무(DBH=68㎝), 갈참나무(DBH=76㎝), 팽나무(DBH=98㎝)가 그 옛날에 울창했던 삼림을 설명해 주고 있다. 민주지산 정상부의 식물은 신갈나무, 소나무, 버드나무, 호랑버들, 쇠물푸레, 붉은병꽃나무, 들메나무, 철쭉꽃, 털진달래, 털조록싸리, 미역줄나무 같은 나지막한 목본성인 것이 주축을 이루고, 하부에 쥐손이풀, 넓은잎외잎쑥, 산거울, 원추리, 뱀고사리, 질경이, 돌양지꽃, 개회향 같은 초본성 식물이 자라고 있다.

<표 1-2-13> 무주지역 일대의 식물목록 (* 한국 특산종)

(이 등, 1996)

이 름	민주지산	덕유산
Lycopodiaceae 석송과		
Lycopodium serratum Thunberg 뱀톱		O
Equisetaceae 속새과		
Equisetum arvense Linne 쇠뜨기	O	O
E. palustre L. 개쇠뜨기		O
E. pratense Ehrh. 물쇠뜨기		O
Osmundaceae 고비과		
Osmunda cinnamomea L. var. fokiensis Copeland 꿩고비	O	
O. japonica Thunberg 고비	O	
Pteridaceae 고사리과		
Dennstaedtia hirsuta (Sw.) Mett. 잔고사리	O	
D. wilfordii (Moore) Christ. 황고사리	O	O
Pteridium aquilinum (L.) Kuhn var. latiusculum (Desv.) Underw. 고사리	O	O
Aspidaceae 면마과		
Athyrium brevifrons Nakai 참새발고사리	O	O
var. angustifrons Kodama 새발고사리		O
A. conilii (Fr.et Sav.) Tagawa 좀진고사리	O	
A. henryi (Baker) Diels 곱새고사리	O	
A. japonicum (Thunb.) Copel. 진고사리	O	
A. nipponicum (Mett.) Hance 개고사리	O	O
A. nipponicum (Mett.) Hance 왕고사리	O	O
A. pycnosorum H. Christ. 털고사리	O	O

이 름	민주지산	덕유산
A. vidalii (Fr.et Sav.) Nakai 산개고사리	O	
A. yokoscense (Fr. et Sav.) Christ. 뱀고사리	O	O
Dryopteris austriaca(Jacq.) Woynar ex Schinz et Thellung 퍼진고사리	O	
D. chinensis (Baker) Koidz. 가는잎족제비고사리	O	
D. crassirhizoma Nakai 관중	O	O
D. monticola (Mak.) C. Christ. 왕지네고사리	O	
Lastrea thelypteris (L.) Bory 처녀고사리	O	O
Matteuccia struthiopteris (L.) Todaro 청나래고사리	O	
Matteuccia orientalis (Hooker) Trev. 개면마		O
Onoclea sensibilis var. interrupta Max. 야산고사리	O	O
Phegopteris decursive-pinnata (van Hall) Fee 설설고사리	O	
P. polypodioides Fee 가래고사리	O	
Polystichum tripteron (Kuntze) presl 십자고사리	O	O
Rumohra miqueliana (Max.) Ching 왁살고사리		O
Woodsia manchuriensis Hooker 만주우드풀		O
W. polystichoides Eaton 우드풀	O	O
Aspleniaceae 꼬리고사리과		
Asplenium incisum Thunberg 꼬리고사리.		O
Polypodiaceae 고란초과		
Lepisorus ussuriensis (Regel et Maack.) Ching 산일엽초	O	O
L. thunbergianus (Kaulf.) Ching 일엽초	O	
Salviniaceae 생이가래과		
Salvinia natans (L.) All. 생이가래		O
Ginkgoaceae 은행나무과		
Ginkgo biloba L. 은행나무(재)	O	
Pinaceae 소나무과		
Abies holophylla Max.. 전나무	O	O
Abies nephrolepis Max. 분비나무		O
Larix leptolepis (S. et Z.) Gordon 낙엽송(재)	O	O
Picea jezoensis Carr. 가문비나무		O
Pinus densiflora S.et Z. 소나무	O	O
P. koraiensis S.et Z. 잣나무	O	O
P. rigida Mill. 리기다소나무(재)	O	
P. thunbergii Parl. 해송		O
Taxodiaceae 낙우송과		
Cryptomeria japonica (L. f.) D.Don 삼나무(재)	O	
Cupressaceae 측백나무과		

이 름	민주시잔	덕유산
Chamaecyparis obtusa (S.et Z.) Endl. 편백나무(재)		O
Juniperus chinensis L. 향나무(재)	O	
Juniperus rigida S. et Z. 노간주나무	O	O
Thuja orientalis L. 측백나무(재).		O
Taxaceae 주목과		
**Cephalotaxus koreana* Nakai 개비자나무	O	O
Taxus cuspidata S. et Z. 주목		O
Juglandaceae 호도나무과		
Juglans mandshurica Max. 가래나무	O	O
J. sinensis Dode 호도나무(재)	O	O
Platycarya strobilacea Siebe. et Zucc. 굴피나무	O	O
var. coreana Miq. 털굴피나무		O
Salicaceae 버들과		
Populus davidiana Dode 사시나무		O
P. deltoides Marsh. 미류(재)	O	
P. tomentiglandulosa T. Lee 은사시나무(재)	O	
Salix babilonica L. 수양버들(재)		O
S. caprea L. 호랑버들	O	O
S. chaenomeloides Kimura 왕버들		O
S. gilgiana Seem. 내버들		O
S. glandulosa Seem. var. pilosa Nak. 털왕버들		O
S. gracilistyla Miq. 갯버들	O	O
**S. hallaisanensis* Level. 떡버들	O	
S. koreensis Andersson 버드나무	O	O
S. nipponica Fr. et Sav. 선버들	O	O
S. purpurea var. japonica Nakai 키버들	O	O
Betulaceae 자작나무과		
Alnus hirsuta (Spach) Rupr. 물오리나무	O	
A. mandshurica (Call.) Handel-Mazzetti 덤불오리나무		O
Betula chinensis Max. 개박달나무	O	O
B. davurica Pallas 물박달나무	O	O
B. ermani Chamisso 사스래나무		O
var. *communis* Koidz. 고채목		O
B. schmidtii Regel 박달나무	O	O
Carpinus cordata Blume 까치박달	O	O
C. laxiflora (S. et Z.) Blume 서어나무	O	O
C. heterophylla Fisch. Blume 난티잎개암나무	O	O

이 름	민주지산	덕유산
var. thunbergii Blume 개암나무	O	O
C. sieboldiana Bl. 참개암나무	O	O
var. mandshurica (Max.) Sch.. 물개암나무	O	
Fagaceae 참나무과		
Castanea crenata S. et Z 밤나무(재)	O	O
Quercus acutissima Carruth. 상수리나무	O	O
Q. aliena Blume 갈참나무	O	O
Q. dentata Thunb. 떡갈나무	O	O
Q. fabri Hance 떡속소리나무	O	
Q. mongolica Fischer 신갈나무	O	O
Q. serrata Thunberg 졸참나무	O	O
Q. urticaefolia Blume 갈졸참나무	O	O
Q. variabilis Blume 굴참나무	O	O
Ulmaceae 느릅나무과		
Celtis bungeana Blume 좀풍게나무		O
C. choseniana Nakai 검팽나무		O
C. jessoensis Koidz 풍게나무		O
for. angustifolia (Nakai) W. Lee 긴잎풍게나무	O	
C. sinensis Pers. 팽나무	O	O
Hemiptelea davidii (Hance) Planchnon 시무나무	O	O
Ulmus davidiana Planchon var. japonica Nakai 느릅나무	O	O
U. laciniata (Trautv.) Mayr 난티나무		
U. parvifolia Jacq. 참느릅나무	O	
Zelkova serrata (Trautv.) Makino 느티나무(재)	O	O
Moraceae 뽕나무과		
Broussonetia kazinoki Sieb. 닥나무		O
B. papyrifera (L.) Vent.enat 꾸지나무		O
Morus alba L. 뽕나무(재)	O	O
M. bombycis Koidz. 산뽕나무	O	O
for. *kase* Uyeki 가새뽕나무	O	O
Cannabinaceae 삼과		
Humulus japonicus S. et Z 환삼덩굴	O	O
Urticaceae 쐐기풀과		
Boehmeria longispica Steud. 왜모시풀	O	
B. spicata (Thunb.) Thunb. 좀깨잎나무	O	O
B. tricuspis (Hance) Makino 거북꼬리	O	O
var. unicuspis Mak. 풀거북꼬리	O	O

이 름	민주지산	덕유산
Pilea mongolica₩ Weddell 모시물통이	O	
P. peploides Hooker et Arnott 물통이	O	
U. angustifolia Fischer 가는잎쐐기풀	O	O
U. laetevirens Maxim. 애기쐐기풀	O	
U. thunbergiana S.et Z. 쐐기풀	O	
Santalaceae 단향과		
Thesium chinense Turcz. 제비꿀		O
Loranthaceae 겨우살이과		
Viscum album var. coloratum (Kom.)Ohwi 겨우살이		O
Polygonaceae 여뀌과		
Aconogonum polymorphum (Ledeb.) T.Lee 싱아	O	O
Bilderdykia pauciflora (Max.) Nakai 애기닭의덩굴		O
Bistorta manshuriensis (V.Petrov) Kom. 범꼬리	O	O
Fallopia dumetorum (L.) Holub 닭의덩굴	O	O
Persicaria conspicua (Nakai) Nakai 꽃여뀌		O
P. dissitiflora (Hemsley) H.Gross 가시여뀌	O	O
P. filiformis (Thunb.) Nakai 이삭여뀌	O	
P. hydropiper (L.) Spach 여뀌		O
var. salicifolia (Sibthorp) Miyabe 흰솜여뀌		O
P. longiseta (De Btuyn) Kitagawa 개여뀌		O
P. nepalensis (Meisn) H.Gross 산여뀌	O	O
P.nodosa (Persoon) Opiz 명아자여뀌		O
P. filifoliata (L.) H.Gross 며느리배꼽	O	O
P. pubescens (Blume) Hara 바보여뀌	O	O
P. senticosa (Meisn.) Gross 며느리밑싯개	O	O
P. sieboldii (Meisn.) Ohki 미꾸리낚시	O	O
var. aestiva Ohki 민미꾸리낚시		O
P. thunbergii Nakai 고마리	O	O
P. viscofera (Mak.) H.Gross 끈끈이여뀌	O	
var. robusta (Mak.) Nakai 큰끈끈이여뀌	O	O
P. yokusaiana (Mak.) Nakai 장대여뀌	O	O
Pleuropterus cillinervis (Steward) Nakai 나도하수오		O
Polygonum aviculare L. 마디풀	O	O
Rumex acetosa L. 수영	O	O
R. acetocella L. 애기수영		O
Rumex aquatics L. 토대왕	O	
R. conglomeratus Murr. 묵밭소리쟁이		O

이 름	민주지산	덕유산
R. crispus L. 소리쟁이	O	O
Phytolaccaceae 자리공과		
Phytolacca esculenta V.Houtte 자리공(재)	O	O
Potulacaceae 쇠비름과		
Portulaca oleraceae L. 쇠비름	O	O
Caryophyllaceae 석죽과		
Arenaria serphyllifolia L. 벼룩이자리	O	O
Cerastium holosteoides Fries var. *hallaisanense* Mizushima 점나도나물	O	O
Dianthus sinensis. 패랭이꽃	O	O
var. *longicalycinus* (Max.) Williams 술패랭이꽃		O
Lychnis cognata Max. 동자꽃	O	O
Melandryum firmum (S.et Z.) Rohrb. 장구채	O	O
for. *pubescens* (Makino) Makino 털장구채	O	
*M. seoulense Nakai 가는장구채	O	O
Pseudostellaria davidii (Fr.) Pax 덩굴개별꽃	O	O
P. heterophylla (Miq.) Pax 개별꽃	O	O
P. palibiniana (Takeda) Ohw 큰개별꽃	O	
Sargina japonica (Swart) Ohwi 개미자리	O	O
Stellaria alsine Grimm var. undulata (Thunb.) Ohwi 벼룩나물	O	O
S. aquatica Scop. 쇠별꽃	O	O
S. media (L.) Villars별꽃	O	
Chenopodiaceae 명아주과		
Chenopodium acuminatum Wild. var. tenuifolium Chung 참명아주	O	
C. album L. var. *centrorubrum* Makino 명아주	O	O
C. ficifolium Smith. 좀명아주	O	O
C. glaucum L. 취명아주		O
Corispermum puberrulum Iljin for. *lissocarpus* (Kitagawa) Kitagawa 장다리나물	O	
Kochia scoparid (L.) Schard. 댑싸리(재)	O	O
Amarantaceae 비름과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쇠무릅	O	O
Amaranthus lividus L. 개비름	O	O
A. mangostanus L. 비름	O	
A. retroflexus L. 털비름		O
Magnoliaceae 목련과		
Magnolia sieboldii K.Koch 함박꽃나무	O	O
Schisandra chinensis (Turcz.) Baill. 오미자	O	O
var. *glabra* Nak. 개오미자		O

이 름	민주지산	덕유산
Lauraceae 녹나무과		
Lindera erythrocarpa Bi. 비목나무	O	O
L. glauca BL. 백동백나무		O
L. obtusiloba Bl 생강나무	O	O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Aconitum jaluense Komarov 투구꽃	O	O
**A. neotortuosum* Nakai 참줄바꽃	O	
A. pseudo-laeve Nakai var. *erectum* Nakai 진범	O	O
A. uchiyamai Nakai 그늘돌쩌귀	O	
A. volubile Pallas var. *oligotrichum* (DC.) Kitagawa 놋젓가락나물	O	O
Actaea asiatica Hara 노루삼	O	
Aquilegia buergeriana S. et Z. var. *oxysepala* (Tr. et Mey.) Kitamura 매발꽃		O
Caltha palustris L. var. *sibirica* Regel 참동의나물		O
var. *membranacea* Turcz. 동의나물		O
Cimicifuga heracleifolia Komar. 승마	O	O
C. japonica Spreng. 왜승마	O	
C. simplex Wormsk. 촛대승마	O	O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O	O
C. brevicaudata DC. 좀사위질빵	O	
C. heracleifolia DC. 조희풀		O
C. koreana Komarov 세잎종덩굴		O
C. mandshurica Rupr. 으아리	O	
C. patens Morren. et Decne. 큰꽃으아리	O	
**C. trichotoma* Nakai 할미밀망	O	O
Hepatica asiatica Nakai 노루귀	O	O
Pulsatilla koreana Nakai 할미꽃	O	
Ranunculus chinensis Bunge 젓가락풀	O	O
R. japonicus Thunb. 미나리아재비	O	
R. paishamensis Kitagawa 산미나리아재비		O
R. quelpaertensis (Lev.) Nakai 왜젓가락풀		O
R. tachiroei Fr. et Sav. 개구리미나리		O
**Thalictrum actaefolium* S et Z var. *brevistylum* (Lev.) Nakai 금꿩의다리		O
T. aquilegifolium L. 꿩의다리		O
T. filamentosum Max. 큰산꿩의다리	O	
var. *tenerum* (H. Boiss.) Ohwi 산꿩의다리	O	O
T. kenmens (DC.) var. *hypoleucum* (S.et Z.)Kitagawa 좀꿩의다리	O	O
T. uchiyamai Nakai 자주꿩의다리		O

이름	민주지산	덕유산
Berberidaceae 매자나무과		
Berberis amurensis Rupr. 매발톱나무		O
Caulophyllum rebustum Max. 꿩의다리아재비		O
Lardizabalaceae 으름덩굴과		
Akebia quinata (Thunb.) Decaisne 으름덩굴	O	O
var. *polyphylla* Nak. 여덟잎으름		O
Menispermaceae 새모래덩굴과		
Cocculus trilobus (Thunb.) DC. 댕댕이덩굴	O	O
Menispermum dauricum DC. 새모래덩굴		O
Chloranthaceae 홀아비꽃대과		
Chloranthus japinocus Sieb. 홀아비꽃대	O	
Aristolochiaceae 쥐방울덩굴과		
Aristolochia contorta Bunge 쥐방울덩굴	O	O
A. heterotropoides (Fr. Schm.) Maekawa 민족도리풀		O
A. sieboldii Miq. 족도리풀	O	O
Paeoniaceae 작약과		
Paeonia japonica (Makino) Miyabe et Takeda 백작약	O	O
P. lactiflora Pallus var. *hortensis* Makino 작약(재)	O	
P. obovata Maxim. 산작약	O	O
Actinidiaceae 다래나무과		
Actinidia arguta (S. et Z.) Planch. 다래나무	O	O
A. Kolomikta (Rupr. et Max) Max. 쥐다래	O	O
Theaceae 차나무과		
Stewartia koreana Nakai 노각나무		O
Guttiferae 물레나물과		
Hypericum ascyron L. 물레나물	O	O
var. *longistylum* Maxim.큰물레나물		O
H. erectum Thunb. 고추나물	O	O
H. japonicum Thunberg 애기고추나물	O	O
H. laxum (Blume) Koidzumi 좀고추나물	O	
Papaveracrae 양귀비과		
Chelidonium majus L. var, *asiaticum* (Hara) Ohwi 애기똥풀	O	O
Corydalis ochotensis Turcz. 눈괴불주머니	O	O
C. speciosa Maxim. 산괴불주머니	O	O
C. turtschanovii Besser 현호색		O
Hylomecon japonica (Thunb.) Prantl var. *vernalis* (Max.) Kitagawa 피나물		O
Cruciferae 십자화과		

이름	민주지산	덕유산
*Arabis columnalis Nakai 참장대나물		O
A. gemmifera (Matsum.) Makino 큰산장대	O	
A. glabra (Linne) Bernh. 장대나물	O	O
A. nipponica De Boissieu 털장대	O	O
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us 냉이	O	O
Cardamine flexuosa Withering 황새냉이	O	O
C. leucantha (Tausch) O. E. Schulz 미나리냉이	O	O
C. impatiens L. 싸리냉이	O	O
C. scutata Thunberg 큰황새냉이		O
Draba nemorosa L. 꽃다지	O	O
Lepidium apetalum Willd. 다닥냉이	O	O
Rorippa cantoniensis Ohwi 좀개갓냉이		O
R. indica (L.) Hiern 개갓냉이	O	O
R. islandica (Oeder) Borbas 속속이풀	O	O
Thlaspi arvense L. 말냉이	O	O
Platanaceae 버즘나무과		
Platanus orientalis L. 버즘나무(재)	O	
Crassulaceae 돌나물과		
Orostschys japinicus (Max.) A.Beger 바위솔	O	
O. sikokianus (Makino) Ohwi 난쟁이바위솔	O	O
Sedum aizoon Linne 가는기린초	O	O
S. erythrosticum Miquel 꿩의비름	O	O
S. kamtschaticum Fischer 기린초	O	O
S. orizifolium Makino 땅채송화		O
S. polytrichoides Hemsl. 바위채송화	O	O
S. sarmrntosum Bunge 돌나물	O	O
S. verticillatum L. 세잎꿩의비름		O
*S. zokuriensis Nakai 속리기린초		O
Saxifragaceae 범의귀과		
Astilbe chinensis Max. var. davidii Franchet 노루오줌	O	O
A. koreana Nakai 숙은노루오줌		O
*Chrysosplenium barbatum Nakai 흰괭이눈	O	O
C. flagelliferum Fr. Schmidt. 애기괭이눈		O
C. grayanum Max. 괭이눈	O	O
C. macrostemon Maxim. 바위괭이눈	O	
Hydranges macrophylla (Thunb.) seringe var. acuminata (S. et Z.) Makino 산수국	O	O
*Deutxia coreana Leveille 매화말발도리	O	O

이 름	민주지산	덕유산

var. triradiata (Nakai) Hatus 지이말발도리

D. hamata Koehne 바위말발도리

D. glabrata Komar. 물참대

D. parviflora Bunge 말발도리나무

var. pilosa Naki 털말발도리

D. triradiata Nakai 삼지말발도리

Mukdenia rossii(Oliver)Koidzumi 돌단풍

Parnassia palustris Linne 물매화풀

Philadelphus pekinensis Ruprecht and Maack 각시고광나무

P. schrenckii Rupr. 고광나무

P. tenuifolius Rupr. et Max. 엷은잎고광나무

Ribes fasciculatum S. et Z. var. chinense Maxim. 까마귀밥여름나무

var. breviracemum T. Lee 좀꼬리까치밥나무

R. mandshuricum Komarov 까치밥나무

for. subglabrum (Mom.)Kitagawa 개앵도나무

R. maximowiczianum Komarov 명자순

Saxifraga fortunei Hooker fil. var. incisolobata (Engler et Irmsch) Nakai 바위떡풀

Rodgersia podophylla A. Gray 도깨비부채

var. glabrescens Nakai 지리산바위떡풀

S. oblongifolia Nakai 참바위취

S. punctata Linne 톱바위취

Rosaceae 장미과

Agrimonia pilosa Ledeb 짚신나물

Crataegus pinnatifida Bunge 산사나무

Duchesnea chrysantha (Zoll. et Mor.) Miquel 뱀딸기

*Filipendula glaberrima Nakai 터리풀

F. yezoensis Hara 붉은터리풀

Geum aleppinum Jacquin 큰뱀무

G. japonicum thunb. 뱀무

Malus baccata (L.) Borkahausen 야광나무

M. sieboldii (Regel) Rehder 아그배나무

Potentilla chinense Seringe 딱지꽃

P. cryptotaeniae Max. 물양지꽃

P. dickinsii Fr. et Sav. 돌양지꽃

*var. grabrata Nakai 섬양지꽃

P. fragarioides L. var. major Max. 양지꽃

P. kleiana Bornmuller 세잎양지꽃

이 름	민주지산	덕유산
P. kleiana Wei. & Arnott var. *robusta* Fr. et Sav. 가락지나물	O	O
P. yokusaiana Makino 민눈양지꽃	O	O
Pourthiaea villosa (Thunb.) Decne 윤노리나무	O	
var. *zollingeri* (Decne) Nakai 털윤노리나무		O
var. *longipes* Nakai 꼭지윤노리나무	O	
Prunus armeniaca L. var. ance Max. 살구나무(재)	O	O
P. jamasakura Sieb. 벚나무		O
var. *tomentella*(Nakai)W. Lee 털벚나무		O
P. leveilleana Koehne 개벚나무	O	
var. *pilosa* Nakai ex Kawamoto 털참벚나무		O
P. mume Soiebold and Xuccarini 매화나무		O
P. padus L. 귀룽나무		O
var. *seoulensis* Nakai 서울귀룽나무		O
P. persica (L.) Batsch 복숭아나무(재)	O	O
P. salicina Lindley 자도나무(재)		O
P. sargentii Rehder 산벚나무	O	O
P. tomentosa Thunb.앵도나무		O
Pyrus pyrifolia (Burmannb.) Nakai 돌배나무(재)	O	
P. ussuriensis Max. 산돌배나무	O	
for. *pubescens* (Nakai) W. Lee 털산돌배나무		O
Rosa kamtschatica Veutenat 가해당화		O
R. maximowcziana Regel 용가시나무	O	
R. multiflora Thunberg 찔레나무	O	
R. xanthinoides Nakai 노란해당화		O
Rubus coreanus Miq. 복분자딸기	O	O
for. concolor T. Lee 청복분자딸기		O
R. crataegifolius Bunge 산딸기나무	O	O
R. oldhami Miq. 덩굴딸기	O	O
R. parvifolius L. 멍석딸기	O	O
R. phoeicolasius Max. 붉은가시딸기	O	O
Sanguisorba officinalis L. 오이풀	O	O
S. tenuifolia Fischer 가는오이풀		O
Sorbaria sorbifolia(Max.)C.K.Schneider var. *stellipida* Max. 개쉬땅나무		O
Sorbaria sorbifolia(S. et Z.)K.Koch 팥배나무	O	O
var. libulata T. Lee 벌배나무		O
S. amurensis Koehne var. *rufa* Nakai 차빛마가목		O
S. commixta Hedlund 마가목	O	O

이 름	민주지산	덕유산
var. *rufo-hirtella* Nakai 왕털마가목		O
Spiraea fritschiama Schmeider 참조팝나무	O	O
S. microgyna Nakai 좀조팝나무		O
S. prunifolia S. et Z. for. *simpliciflora* Nakai 조팝나무	O	O
S. salicifolia var. *lanceolata* Max. 꼬리조팝나무		O
Stephanandra incisa (Thunb.) Zabel 국수나무	O	O
Leguminosae 콩과		
Albizzia julibrissin Durazzini 자귀나무	O	O
Amphicarpaea edgeworthii Benth. var. *trisperma* (Miq.) Ohwi 새콩	O	O
Amorpaha fruticosa L. 족제비싸리(재)	O	
Caragana sinica (Buchoz) Rehder 골담초(재)		O
Cassia nomame (Sieb.) honda 차풀	O	O
Cercis chinensis Bunge 박태기나무(재)	O	O
Desmodium oldhami Oliver 큰도둑놈의갈구리	O	
D. oxyphyllum DC. 도둑놈의갈구리	O	O
Gleditsia japonica var. *koraiensis* (Nakai) Nakai 주엽나무		O
Indigofera kirilowi Max. 땅비싸리	O	O
Kummerowia stipulacea (Max.) Makino 둥근매듭풀	O	O
K. striata (Tunb.) Schneidler 매듭풀	O	O
Lathyrus davidii Hance 활량나물	O	
Lespedeza bicolor Turcz. 싸리나무	O	O
var. *typica* Maximowicz 좀풀싸리		O
L. crytobotrya Miq. var. *pedunculata* Nakai 고양싸리		O
L. cuneata G. Don 비수리	O	O
L. cyrtobotrya Miq. 참싸리	O	O
L. maximowiczii Schneider 조록싸리	O	O
var. *tomentella* Nakai 털조록싸리	O	O
L. melanantha Nakai 검나무싸리		O
L. thunbergii (DC.) Nakai *var. *intermedia* (Nakai) T.Lee 풀싸리	O	O
L. tomentosa (Thunb.) Sieb. 개싸리	O	O
Maackia amurensis Rupr. et Max. 다릅나무	O	O
Medicago hispida Gaertn. 개자리	O	
Pueraria lobata (Willd.) Ohwi 칡	O	O
Phaseolus nipponensis Ohwi 새팥		O
Robinia pseudo-accacia L. 아까시나무(재)	O	O
Trifolium pratense L. 붉은토끼풀		O
T. repens L. 토끼풀	O	O

이름	민주지산	덕유산
Vicia angustifolia Nakai var. *segetalis* (Thuill.)Koch 살갈퀴	O	
V. amoena Fischer 갈퀴나물		O
**V. hirticalycima* Nakai 나래완두	O	
V. japonica A. Gray 넓은잎갈퀴		O
V. unijuga Al. Braun 나비나물	O	O
V. enosa (Willd.) Max. 연리갈퀴		O
var. *cuspidatas* Max. 광능갈퀴		O
**V. venosissima* Nakai 노랑갈퀴		O
Oxalidaceae 괭이밥과		
Oxalis obtriangulata Max. 큰괭이밥	O	O
O. acetosella Linne 애기괭이밥	O	
O. corniculata L. 괭이밥	O	O
Geraniaceae 쥐손이풀과		
Geranium eriostemon Fischer 털쥐손이		O
G. thunbergii S. et Z. 이질풀	O	O
Euphorbiaceae 대극과		
Phyllanthus urinaria L. 여우구슬	O	
P. ussuriensis Rupr. et Max. 여우주머니		O
Sapium japonicum (S. et Z.) Pax et Hoffmann 사람주나무		O
Securinega suffrutisosa (Pallas) Rehder 광대싸리	O	O
Callitrichacrae 별이끼과		
Callitriche verna L. 물별이끼		O
Rutaceae 운향과		
Dictamnus dasycarpus Turcz. 백선	O	
Evodia daniellii Hemsl. 쉬나무		O
Phellodendron amurense Rupr. 황벽나무	O	O
P. sachalinense Sarg. 넓은잎황벽나무		O
Poncirus trifolists (L.) Rafinesque 탱자나무(재)	O	
Zanthoxylum piperitum (L.) DC. 초피나무	O	
Z. planispinum Sieb. et Zucc. 개산초나무	O	
Z. schinifolium S. et Z. 산초나무	O	O
Simaroubaceae 소태나무과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가중나무(재)		O
Picrasma quassioides (D. Don) Bennett 소태나무	O	O
Meliaceae 멀구슬나무과		
Cedrela sinensis Jussien 참중나무(재)	O	
Polygalaceae원지과		

이름	민주지산	덕유산
Polygala japonica Houttuyn 애기풀	O	
Anacardiaceae 옻나무과		
Rhus javanica L. 붉나무	O	O
R. sylvestris S. et Z. 산검양옻나무		O
R. trichocarpa Miq. 개옻나무	O	O
R. vermiciflua Stokes 옻나무(재)	O	O
Aceraceae 단풍나무과		
Acer barbinerve Maxim. 청시닥나무		O
A. ginnala Max. 신나무	O	O
for. *divqricatum* (Nakai) T.Lee 괭이신나무		O
A. mandshuricum Max. 복장나무	O	O
var. *savatieri* (Pax.) Nakai 왕고로쇠	O	O
A. palmatum Thunb. 단풍나무	O	O
A. pseudo-sieboldianum (Pax.) Kom. 당단풍	O	
*var. *koreanum* Nakai 좁은단풍	O	O
var. *macrocarpum* Nakai 왕단풍나무		O
A. triflorum Kom. 나도박달		O
A. tschonoskii Max. var. *rubripes* Kom. 시닥나무	O	O
A. ukurunduense Trautv. et Meyer 부게꽃나무	O	O
Balsaminaceae 봉선화과		O
Impatiens noli-tangere L. 노랑물봉선	O	O
I. textori Miq. 물봉선	O	O
Aquifoliaceae 감탕나무과		
Ilex macropoda Miq. 대팻집나무	O	O
Celastrus flagellaris Rupr. 푼지나무	O	O
C. orbiculatus Thunb. 노박덩굴	O	O
var. *punctatus* Rehder 해변노박덩굴		O
C. stephanotifolius (Makino) Makino 털노박덩굴	O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화살나무	O	O
for. *apterus* (Regel) Rehder 당회잎나무		O
for. *ciliato-dentatus* (Fr. et. Sav.) Hiyama 회잎나무	O	O
E. fortunei var. radicans (Sieb. et Miq) Rehder 줄사철나무	O	O
E. japonicus Thunb. 사철나무(재)	O	
E. oxyphyllus Miq. 참회나무	O	O
E. planipes (Koehne) Koehne 회나무	O	O
E. sieboldiana Blume 참빗살나무	O	O
Tripterygium regelii Sprague et Takeda 메역순나무	O	O

이름	민주지산	덕유산
Staphyleaceae 고추나무과		
Staphylea bumalda DC. 고추나무	O	O
Buxaceae 회양목과		
**Buxus koreana* Nakai 회양목(재)	O	
Rhamnaceae 갈매나무과		
Hovenia dulcis Thunb. 헛개나무		O
Rhamnus crenata Sieb. et Zucc. 산황나무	O	
R. davurica Pallas 갈매나무		O
var.*nipponoca* Makino 참갈매나무		O
R. yoshinoi Makino 짝자래나무	O	O
Zizyphus jujuba Miller var. *inermis* (Bumge) Rehder 대추나무(재)	O	
Vitaceae 포도과		
Ampelopsis brevipedunculata (Max.) Trautv. 개머루	O	O
A. humulifolia Bunge var. *incisa* Nakai 왕개머루		O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 et Z.) Planchon 담쟁이덩굴	O	O
Vitis amurensis Rupr. 왕머루	O	O
V. coignetiae Pulliat 머루	O	O
V. flexuosa Tnunb 새머루	O	O
Tiliaceae 피나무과		
Corchoropsis tomemtosa (Thunb.) Makino 수까치깨		O
C. psilocarpa Harms et Loesner 까치깨	O	
Tilia amurensis Rupr. 피나무	O	O
T. mandshurica Rupr. et Max. 찰피나무	O	O
T. taquetii Schneider 뽕피나무	O	
Malvaceae 아욱과		
Abelmoschus manihot Medikus 황촉규(재)		O
Abutilon theophrasti Medicus 어저귀		O
Hibiscus syriacus L. 무궁화(재)	O	O
Elaeagnaceae 보리수나무과		
Elaegnus um bellata Thunb. 보리수나무	O	O
Violaceae 제비꽃과		
Viola acuminata ledebour 졸방제비꽃	O	O
V.albida Palibin 태백제비꽃	O	O
for. *takahashii* (Nakai) Kitagawa 단풍제비꽃	O	
V. collina Besser 둥근털제비꽃	O	O
**V. diamantiaca* Nakai 금강제비꽃	O	
V. dissecta Ledeb. var. *chamaephylloides* (Regel) Mskino 남산제비꽃	O	O

이름	민주지산	덕유산
V. hirtipes S. Moore 흰털제비꽃	O	
V. japonica Langsd. 왜제비꽃	O	O
V. keiskei Miq. 잔털제비꽃	O	
V. mandshurica W. Becker 제비꽃	O	O
V. phalacrocarpa Max. 털제비꽃	O	
V. orientalis (Max.) Becker 노랑제비꽃	O	O
V. rossii Hemsley 고깔제비꽃	O	O
V. selkirkii Pursh 뫼제비꽃	O	
V. variegata Fischer 알록제비꽃	O	O
V. verecunda A.Gray 콩제비꽃		O
var. *semilunaris* Maxim. 반달제비꽃		O
Cucurbitaceae 박과		
Schizopepon bryoniaefolius Max. 산외		O
Trichosanthes kirilowii Max. 하늘타리	O	O
Lythraceae 부처꽃과		
Largerstroemia indica L. 배롱나무		O
Lythrum anceps (Koehne) Makino 부처꽃		O
Onagraceae 바늘꽃과		
Circaea alpina L. 쥐털이슬	O	O
C. caulescens (Kom.) Nak. and Hara var. *glabra* Hara 큰쥐털이슬		O
C. cordata Royle 쇠털이슬	O	
Circaea mollis S.et Z. 털이슬	O	
Epilobium angustifolium L. 분홍바늘꽃	O	O
E. cephalostigma Hausskn. 돌바늘꽃	O	
E. pyrricholophum Fr.et Sav. 바늘꽃		O
Oenothera odorata Jacq. 달맞이꽃	O	O
Alangiaceae 박쥐나무과		
Alangium platanifolium (S. et Z.) Harms var. trilobum 박쥐나무	O	O
for. *velutina* (Nakai) W. Lee 누른대나무		O
Cornaceae 층층나무과		
Cornus controversa Hemsley 층층나무	O	O
C. kousa Buerger 산딸나무	O	O
C. macrophylla Wallich 곰의말채	O	O
C. officucinalis S. et Z. 산수유나무(재)	O	O
C. walteri Wangerin 말채나무	O	O
Araliaceae 두릅나무과		
**Acanthopanax chiisanensis* Nakai 지리산오갈피나무	O	O

이름	민주지산	덕유산
A. rufinerve Nakai 털오갈피		O
A. sessilifolrus (Rupr.et Max.) Seemann 오갈피나무	O	
Aralia cordata Thunbreg 독활	O	O
A. elata (Miquel) Seemann 두릅나무	O	O
Kalopanax pictus (Thunb.) Nakai 음나무	O	O
var.*chinense* Nakai et Kawamoto 당음나무		O
var. *maximowiczii* Nakai 가는잎음나무		O
Panax schinseng Nees 인삼(재)		O
Umbelliferae 산형과		
Angelica decursiva (Miq.) Fr. et Sav. 바디나물	O	O
A. dahurica (Fisch.) Bentham et Hooker. 구릿대	O	O
A. distans Nakai 흰바디나물		O
A. gigas Nakai 참당귀	O	O
A. polymorpha Maxim 궁궁이		O
**A. purpuraefolia* Chung 지리강활		O
Anthriscus sylvestris (L.) Hoffmann 전호		O
var. hirtifructus (Ohwi) Hara 털전호	O	
Bupleurum longeradiatum Turcz. 개시호		O
Cnidium officinale Makino 천궁		O
Cryptotaenia japonica Hasskarl 반디나물	O	
Heracleum moellendorffii Hance 어수리	O	
Ligusticum tenuissimum (Nakai) Kitagawa 고본		O
Oenanthe javanica (Blume) DC. 미나리	O	O
Osmorhiza aristata (Thunb.) Makino et Yabe 긴사상자	O	O
Ostericum crassum (Nakai) Kitagawa 큰참나물	O	O
O. grosseserratum (Max.) Kitagawa 신감채	O	
O. sieboldii (Miq.) Nakai 묏미나리	O	O
Peucedanum terebinthaceum (Fisch.) Fischer 기름나물	O	O
Pleurospernum uralense Hoffmann 왜우산풀	O	
Sanicula chinensis Bunge 참반디	O	O
S. rubiflora Fr. Schnidt 붉은참반디		O
Sium cicutaefolium Gmelin. var. *angustifolium* Komarov 가는잎개발나물		O
Pimpinella brachycarpa (Kom.) Nakai 참나물	O	O
P. koreana Nakai 가는참나물		O
Tilinga fachiroei (Fr. et Sav.) Makino 개회향	O	
Torilis japonica (Houtt.) DC. 사상자	O	
Pyrolaceae 노루발과		

이름	민주지산	덕유산
Chimaphila japonica Miquel 매화노루발	O	
Monotropa hypopithys L. 구상난풀	O	
Pyrola japonica Klenze 노루발풀		O
Ericaceae 철쭉과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진달래	O	O
for. *ciliatum* (Nakai) Kitagawa 털진달래	O	O
var. *maritimum* Nak. 반들진달래		O
R. schlippenbachii Max. 철쭉	O	O
R. tschonoskii Max. 흰참꽃나무		O
R. yedoense Max. var. poukhanense (Lev.) Nakai 산철쭉	O	O
**Vaccinium hirtum* Thunb. var. *koreanum* (Nakai) Kitamura 산앵도나무	O	O
V. oldhami Miq. 정금나무	O	O
Primulaceae 앵초과		
Androsace umbellata (Lour.) Merrill 봄맞이꽃	O	O
Lysimachia clethroides Duby 큰까치수영	O	O
L. davurica Ledb 큰좁쌀풀		O
L. japonica Thynb. 좀가지풀	O	
Primula jesoana Miq. 큰앵초	O	O
Ebenaceae 감나무과		
Diospyros kaki Thunb. 감나무(재)	O	O
D. lotus L. 고욤나무(재)	O	O
Styracaceae 때죽나무과		
Styrax japonica Sieb. et Zucc. 때죽나무	O	O
S. obassia S.et Z. 쪽동백	O	O
Symplocaceae 노린재나무과		
Symplocos chinensis (Lour) Druce var. *leucocarpa* (Nakai) Ohwi for. pilose (Nakai) Ohwi 노린재나무	O	O
S. paniculata Miq. 검노린재나무		O
Oleaceae 목서과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개나리(재)		O
Fraxinus chiisanensis Nakai 물푸레들메나무		O
F. mamdshurica Rupr. 들메나무	O	O
F.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	O	O
F. sieboldiana Blume 쇠물푸레	O	O
Ligustrum ibota S.et Z. 좀털쥐똥나무		O
var. *glbrum* Nakai 청쥐똥나무		O
L. lucidum Aiton 당광나무	O	

이름	민주지산	덕유산
L. obtusifolium Sieb. et Zucc. 쥐똥나무	O	O
Syringa palibiniana Nakai var. *kamibayashii* Nakai 둥근정향나무		O
S. velutina Komariv var. *kamibayashii* (Nak.) T.Lee 정향나무	O	
for. *lactea* (Nakai) T.Lee 흰정향나무		O
Gentianaceae 용담과		
Gentiana scabra Bunge 용담	O	O
G. squarrosa Ledeb. 구슬붕이	O	O
G. triflora Pall. 과남풀		O
Swertia pseudo-chinensis (Bunge) Hara 자주쓴풀	O	
S. tetrapetala Pallas 네귀쓴풀		O
Asclepiadaceae 박주가리과		
Cynanchum paniculatum (Bunge) Kitagawa 산해박	O	
C. wilfordii (Maxim.) Hemsley 은조롱	O	O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박주가리	O	O
Rubiaceae 꼭두선이과		
Asperula maximowiczii Komarov 개갈퀴	O	O
A. odorata L. 선갈퀴	O	
Galium kinuta Nakai et Hara 민둥갈퀴	O	O
G. pogonanthum Fr. et Sav. 산갈퀴덩굴	O	
G. pseudo-asprellum Makino 큰네잎갈퀴	O	
G. spurium L. var. echinospermon (Wallr.) Hayek 갈퀴덩굴	O	O
G. trachyspermum A. Gray 네잎갈퀴	O	
G. verum L. var. asiaticum Nakai 솔나물	O	O
Paederia scandens (Lour.) Merrill 계요등	O	
Rubia akane Nakai 꼭두서니	O	O
R. chinensis Regel et Maack 큰꼭두서니	O	O
R. cordifolia L. var. *pratensis* Max. 갈퀴꼭두서니	O	O
Convolvulaceae 메꽃과		
Calystegia hederacea Wallich 애기메꽃		O
C. japonica (Thunb.) Choisy 메꽃	O	O
Cuscuta japonica Choisy 새삼	O	O
Boraginaceae 지치과		
Brachybotrys pariformis Maximowicx et Oliver 당개지치	O	
Trigonotis icumae (Maxim.) Makino 덩굴꽃말이	O	
T. nakaii Hara 참꽃말이	O	O
T. peduncularis (Trevir.) Bentham 꽃말이	O	O
Verbenaceae 마편초과		

이름	민주지산	덕유산
Callicarpa dichotoma (Lour.) K.Koch. 좀작살나무		O
C. japonica Thunb. 작살나무	O	O
var. *luxurians* Rehder 왕작살나무		O
Caryopteris divaricata (S.et Z.) Max. 누린내풀	O	O
Clerodendrum trichotomum Thunb. 누리장나무	O	O
Labiatae 꿀풀과		
Agastache rugosa (Fisch.et Meyer) O.Kuntze 배초향		O
**Ajuga spectabilis* Nakai 자란초	O	
Amethystanthus excisus (Max.) Nakai 오리방풀	O	O
Clinopodium chinenes O.Kuntze var. *parviflorum* (Kudo) Hara 층층이꽃	O	O
var. *shilbetchense* Koidz. 산층층이	O	O
Elsholtzia ciliata (Thunb.) Hylander 향유	O	O
E. pseudo-cristata Lev. & Van. var. splendens (Nak.) Kitagawa 꽃향유	O	O
Lamium album var. *barbatum* (S.et Z.) Fr. et Sav. 광대수염	O	
L. amplexicaule L. 광대나물	O	
Leonurus macranthus Max. 송장풀	O	O
L. sibiricus L. 익모초	O	O
Lycopus lucidus Turcz. 쉽싸리	O	O
Meehania urticifolia (Miq.) Makino 벌깨덩굴	O	O
Mentha sacharineensis (Isriguet) Kudo 박하		O
Mosla dianthera (Hamilt) Max. 쥐깨		O
M. japonica (Bentham) Max. 산들깨	O	
M. punctulata (Gmel.)Nakai 들깨풀	O	O
Perilla frutescens(L.) Britton var. acuta (Thunb.) Decne 차즈기(재)		O
Phlomis umbrosa Turcz. 속단	O	O
Plectranthus inflexus (Thunb.) Vahl 산박하	O	O
P. japonicus (Burmann) Koidz 방아풀	O	O
Prunella vulgaris var. *lilacina* Nakai 꿀풀	O	O
var. *aleutica* Fern. 두메꿀풀		O
**Salvia chanroenica* Nakai 참배암차즈기		O
S. fauriei Lev. et Vnt. 그늘골무꽃	O	
S. indica L. 골무꽃	O	O
var. *tsusimensis* Ohwi 떡잎골무꽃		O
S. pekinensis Maxim.		
var. *alpina* (Nak.) Hara 수골무꽃		O
var. *transitra* (Makino) Hara 산골무꽃	O	

이름	민주지산	덕유산
Stachys riederi Chamisso var. *hispida* (Ledeb.) Hara 털석잠풀		O
var. *japonica* (Miq.) Hara 석잠풀		O
Teucrium japonicum Houtt. 개곽향	O	
Solanaceae 가지과		
Lycium chinense Mill. 구기자나무(재)	O	
Physaliastrum japonicum Honda 가시꽈리	O	
Physalis alkekengi var. *francheti* (Masters) Hort. 꽈리		O
Scopolia parviflora (Dunn) Nakai 미치광이풀	O	O
Solanum nigrum L. 까마중		O
Scrophulariaceae 현삼과		
Euphrasia maximowiczii Wettstein 좁쌀풀		O
Mazus japonicus (Thunb.) O. Kuntze 주름잎	O	O
Melampyrum roseum Max. 꽃며느리밥풀	O	O
M. setaceum var. *nakaianum* Yamazaki 새며느리밥풀		O
Mimulus nepalensis Benth var. *japonica* Miq. 물꽈리아재비	O	O
**Paulownia coreana* Uyeki 오동나무(재)	O	O
P. tomentosa (Thunb.) Steud. 참오동(재)		O
Pedicularis resupinata L. 송이풀	O	O
var. *oppositifolia* Miq. 마주송이풀	O	
P. vaniotiana Bonati 그늘송이풀		O
Phtheirospermum japonicum (Thunb.) Kanitz 나도송이풀	O	O
Scrophularia kakudensis Fr. 큰개현삼	O	
**S. koraiensis* Nakai 토현삼	O	O
Siphonostegia chinensis Bentham 절국대	O	O
Veronica arvensis L. 선개불알풀	O	
V. longifolia L. 긴산꼬리풀		O
Veronicastrum sibiricum (L.) Pennell 냉초		O
Orobanchaceae 열당과		
Phacellanthus tubiflorus Sibe. et Zucc. 가지더부살이	O	
Phrymaceae 파리풀과		
Phryma leptostachya (non L.) kitagawa var. *asiatica Hara* 파리풀	O	O
Plantaginaceae 질경이과		
Plantago asiatica L. 질경이	O	O
P. depressa willd. 털질경이	O	O
P. major L. var. *japonica* (Fr. et. sav) Miyabe 왕질경이	O	O
Caprifoliaceae 인동과		
Lonicera caerulea L. var. *emphyllocalyx* Nakai 개들쭉		O

이름	민주지산	덕유산
L. chtysantha Turcz. var. crssipes Nakai 산괴불나무		O
L. cerasides Nakai 지리괴불나무	O	O
L. japinica Thunb. 인동덩굴		O
L. nigra var. barbinervis (Kom.) Nakai 암괴불나무		O
L. praeflorens Batalin 올괴불나무		O
L. ruprechtiana Regel 물앵도나무		O
L. sachalinensis Nakai 홍괴불나무		O
L. subsessilis Rehder 청괴불나무		O
L. vidalii Fr. et Sav. 왕괴불나무		O
Sambucus latipinna Nakai 넓은잎딱총나무		O
S. qilliamsii Hance v. coreana Nakai 딱총나무	O	O
for. *calvescens* (Rehder) Rehder 청백당나무		O
Weifela florida (Kom.) A. DC. 붉은병꽃나무	O	O
**W. subsessilis* L. H.Bailey 병꽃나무	O	O
Valerianaceae 마타리과		
**Patrinia saniculaefolia* Hemsley 금마타리		O
P. scabiosaefolia Fischer ex Link. 마타리	O	O
P. villosa (Thunb.) Jussieu 뚝갈	O	O
Valeriana fauriei Briquet 쥐오줌풀	O	O
Dipsacaceae 산토끼꽃과		
Scabiosa tschiliensis Grunning 체꽃		O
Campanulaceae 초롱꽃과		
Adenophora divaricata Fr. et Sav. for. *manshurica* (Nakai) Kitagawa 넓은잎잔대	O	O
A. Grandiflora Nakai 도라지모시대		O
A. radiatifolia Nakai 층층잔대	O	O
A. remotiflora (Sieb. et Zucc.) Miq. 모시대	O	O
A. triphylla (Thunb.) A.DC. var. *angustifolia* (Regel) Kitamura 잔대	O	O
var. *hirsuta* Fr. Schmidt 털잔대	O	
A. verticillata Fischer var. angustifolia Regel 가는층층잔대	O	O
Asyneuma japonica (Miq.) Brip. 영아자	O	O
Campanula punctata Lamarck 초롱꽃	O	O
Codonopsis lanceolata (Sieb. et Zucc.) Trautv. 더덕	O	O
C. pilosula (Fr.) Nannfeldt 만삼	O	
Platycodon grandiflorum (Jacq.) DC. 도라지	O	O
Lobeliaceae 숫잔대과		
Lobelia chinensis Lour. 수염가래꽃	O	O

이름	민주지산	덕유산
Compositae 국화과		
Achillea alpina L. 톱풀	O	
Adenocaulon himalaicum Edgew. 멸가치		O
Adenocaulon lavenia (Linne) O. Kuntz 진득찰아재비	O	
Ainsliaea acerifolia Sch.-Bip. var. subapoda Nakai 단풍취	O	O
Ambrosia artemisifoia L. var. elatior (L.) Desc. 돼지풀		O
Arctium lappa L. 우엉(재)	O	O
Artemisia capillaris Thunberg 사철쑥	O	O
A. dubia Wall. 참쑥		O
A. feddei Leveille et Vaniot 뺑쑥	O	O
A. japinica Thunb. 제비쑥	O	O
A. keiskeana Miq. 맑은대쑥	O	O
A. gmelini Weber 더위지기	O	O
A. montana (Nakai) Pamp. 산쑥	O	O
A. princips Pampanini 쑥	O	O
A. stelleriana Bess. 흰쑥		O
A. stolonifera (Max.) Komarov 넓은외잎쑥	O	
Aster ageratoides Trcz. 까실쑥부쟁이	O	O
**A.* Ciliosa Kitamura 개쑥부쟁이	O	O
A. fastigiatus Fischer 옹굿나물		O
A. tataricus Linne fil. 개미취	O	O
Atractylis japonica (Koidz.) Kitagawa 삽주	O	O
Bidens bipinnata L. 도깨비바늘	O	
B.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O
B. parviflora Wolldenow 까치발	O	O
B. tripartita L. 가막사리		O
Cacalia auriculata DC. 귀박쥐나물	O	O
var. *matsumurana* Nakai 박쥐나물	O	O
C. hastata var. *orientalis* (Kit.) Ohwi 민박쥐나물		O
C. praetermissia (Pojarkova) Pojarkova 나래박쥐	O	
**C. pseudo-taimingasa* Nakai 어리병풍	O	
Carduus crispus L. 지느러미엉겅퀴	O	O
Carpesium dbrotanoides L. 담배풀	O	
C. divaricatum Siedold et Zuccarini 긴담배풀	O	
C. triste Maxim. 두메담배풀	O	
Centipeda minima (L.) Al. Braun et Acherson 중대가리풀	O	O
Chrysanthemum boreale (Makino) Makino 산국	O	O

이름	민주지산	덕유산
C. zawadskii Herbich 산구절초	O	O
var. *latilobum* (Max.) Kitam. 구절초	O	O
Cirsium japinicum DC. var. ussuriense (Regel) Kitamura 엉겅퀴	O	O
C. pendulum Fischer 큰엉겅퀴	O	O
**C. setidens* (Dunn.) Nakai 고려엉겅퀴	O	O
C. vlassovianum Fischer 흰잎엉겅퀴.	O	
Echinops setifer Iljin 절굿대	O	
Eclipta prostrata (L.) L. 한련초	O	O
Erigeron annuus (L.) 개망초	O	O
E. bonariensis L. 실망초		O
E. canadensis L. 망초	O	O
Eupatorium chinense L. var. *simplicifolium* (Makino) Kitamura 등골나물	O	O
E. lindleyanum DC. 골등골나물	O	O
var. *tripartitum* (Makino) Hara 향등골나물	O	O
Gnaphalium affine D.Don 떡쑥	O	
G. hypoleucum DC. 금떡쑥		O
Helianthus tuberosus Linne 뚱딴지(재)		O
Hemistepta lyrata (Bunge) Bunge 지칭개	O	O
Heteropappus hispidus (Thunb.) Less. 갯쑥부쟁이	O	
Hieracium umbellatum L. 조밥나물	O	O
Hololeion maximowiczii Kitamura 께묵		O
Inula britannica L. var. *chinensis* (Rupr.) Regel 금불초	O	
var. *linariaefolia* Regel 가는금불초		O
I. salicina L. var. asiatica Kitamura 버들금불초		O
Ixeris chinensis (Thunb) Nakai var. *strigosa* (Lev. et Van.) Ohwi 선씀바귀	O	O
I. dentata (Thunb.) Nakai 씀바귀	O	O
Kalimeris pinnatifida (Max.) Kitamura 버드쟁이나물	O	O
Lactuca indica L. var. *laciniata* (O.Kunze)Hara 왕고들빼기	O	O
var. *laciniata* Hara for. *indivisa* Hara 가는잎왕고들빼기		O
L. raddeana Max. 산씀바귀	O	O
L. triangulata Max. 두메고들빼기		O
Leibnitzia anandria (L.) Turcz 솜나물		O
Ligularia fischeri (Ledeb.) Turcz. 곰취	O	O
Matricaria maritima subsp. limosa (Max.) Kitamura 개꽃		O
Petasites japonicus (S.et Z.) Max. 머위(재)	O	O
Picris davurica L. var. *koreana* (Regel) Ohwi 쇠서나물	O	O
Prenanthes blinii (Leveille) Kitagawa 왕씀배.	O	O

이름	민주지산	덕유산
Rudbeckia laciniata Linne 삼잎국화(재)	O	O
var. *hortensis* Bailey 양노랭이(재)		O
Saussurea gracilis Max. 은분취	O	
S. grandifolia Max. 서덜취	O	O
S. japonica (Thunb.) DC. 큰각시취		
var. *subintegra* Regel 각시취	O	
**S. seoulensis* Nakai 분취	O	O
S. integrifolius (L.) Clairville var. *spathulatus* (Miq.) Hara 솜방망이	O	
**S. koreanus* Kom. 국화방망이	O	
S. triangulata subsp. manshurica (Kom.) Kitamura 덤불취		O
Serratula coronata L. var. insularis (Iljin) Kitamura 산비장이	O	O
Siegesbeckia glabrescens (Makino) Makino 진득찰	O	O
S. pubescens (Makino) Makino 털진득찰		O
Solidago virga-aurea L. var. *asiatica* Nakai 미역취	O	O
var. *coreana* Nakai 나래미역취		O
Syneilesis palmata (Thunb.) Max. 우산나물	O	O
Synurus deltoides (Aiton) Nakai 수리취	O	O
Taraxacum coreanum Nakai 흰민들레	O	
T.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O	
T. platycarpum H. Dahlstaedt 민들레	O	O
Xanthium strumarium L. 도꼬마리	O	O
Youngia chelidoniifolia (Makino) Kit. 까치고들빼기	O	O
Youngia denticulata Kitamura 이고들빼기	O	O
Y. japonica (L.) DC. 뽀리뱅이	O	O
Y. sonchifolia Max. 고들빼기	O	O
Sparganiaceae 흑삼릉과		
Sparganium stoloniferum Hamilton 흑삼릉		O
Alismataceae 택사과		
Alisma canaliculatum A. Braun et Bon. 택사		O
Blyxa japonica Max. 올챙이솔		O
Sagittaria aginashi Makino 보풀		O
Sagittaria pygmaea Miq. 올미		O
S. trifolia var. *longiloba* (Turcz.) Kitagawa 가는벗풀		O
Hydrocharitaceae 자라풀과		
Ottelia alismoides (L.) Pers. 물질경이		O
Potamogetonaceae 가래과		
Potamogeton brechtoldii Fieber 실말		O

이름	민주지산	덕유산
P. distinetus A. Bennett 가래		O
Liliaceae 백합과		
Allium macrostemon Bennett 산달래	O	
A. monanthum Max. 달래	O	
A. sacculiferum Max. 참산부추	O	O
A. taquetii Lev. et Vnt. 한라부추		O
Asparagus oligoclonos Maxim. 방울비짜루	O	
A. schoberioides Kunth 비짜루	O	
Clintonia udensis Trautv. et Meyer 나도옥잠화		O
Convallaria keiskei Miq. 은방울꽃	O	O
H. minor Miller 애기원추리	O	
Hosta koreana Nakai 골잎원추리	O	
H. lancifolia Engler 산옥잠화	O	O
H. longipes (Fr. et Sav.) Matsumura 비비추	O	O
H. minor Nakai 좀비비추	O	
Lilium amabile Palibin 털중나리	O	O
L. callosum Sieb. et Zucc. 땅나리	O	
L. concolor Salisbury 하늘나리	O	
L. lancifolium Thunb. 참나리	O	O
L. leichtlinii Hooker for. var. maximowiczii (Regel) Baker 중나리	O	O
L. medeoloides A. Gray 말나리	O	O
L. tsingtauense Gilg. 하늘말나리	O	O
Liriope spicata (Thunb.) Lour. 개맥문동	O	O
L. platyphylla Wang et Tang. 맥문동	O	
Polygonatum inflatum Komarov 퉁둥굴레	O	O
P. involucratum (Fr. et Sav) Maxim. 용둥굴레	O	O
**P. lasianthum* Max. 죽대	O	O
P. odoratum (Mill.) Druce var. *pluriflorum* Ohwi 둥굴레	O	O
P. odoratum var. *thunbergii* (Morr. et Decne.) Kitag. 산둥굴레	O	
**P. robustum* Nakai 왕둥굴레	O	
Scilla sinensis (Loureiro) Marrill 무릇	O	O
Smilacina japonica A. Gray 솜대	O	
Smilax china L. 청미래덩굴	O	O
S. nipponica Miquel var. *manshurica* (Kitag.) Kitag 선밀나물	O	O
Smilax sieboldii Miquel 청가시나무	O	O
var. *inermis* Nakai 민둥청가시나무		O
Tricyrtis macropoda Miquel 뻐꾹나리	O	O

이름	민주지산	덕유산
Veratrum maackii Regel var. *japonica* (Baker) T.Shimizu 여로	O	O
V. maximowiczii Baker 파란여로	O	O
V. patulum Loesner fil. 박새	O	
Dioscoreaceae 마과		
Dioscorea batatas Decaisne 마(재)	O	
D. japonica Thunb. 참마	O	O
D. nipponica Makino 부채마	O	O
D. septemloba Thunb. 단풍마	O	O
D. quinqueloba Thunb. 국화마	O	
D. tokoro Makino 도고로마	O	O
Pontederiaceae 물옥잠과		
Monochoria vaginalis (Burm. f.) Presl var. *plantaginea* (Roxb.) Solms-Laub. 물달개비	O	O
Iridaceae 붓꽃과		
Iris ensata Thunb. var. *spontanea* (Makino) Nakai 꽃창포	O	O
I. sanguinea Hormemann 붓꽃	O	O
Juncaceae 골풀과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Buchenau 골풀	O	O
J. krameri Fr. et Sav. 비녀골풀	O	O
J. leschenaultii Gay 참비녀골풀	O	O
J. papillosus Fr. et Sav. 청비녀골풀	O	O
Luzula capitata (Miquel) Miquel 꿩의밥	O	
Commelinaceae 닭의장풀과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O	O
var. *angustifolia* Nakai 좀닭의장풀	O	O
Eriocaulaceae 곡정초과		
Eriocaulon miquelianum Koern. 개수염		O
E. sieboldianum Sieb. et Zucc. 곡정초	O	
Gramineae 벼과		
Agropyron ciliare for. pilosum T.Lee 가는개밀		O
A. tsukushinense (Honda) Ohwi var. transiens (Hack.)Ohwi 개밀	O	O
Agrostis clavata Trin var. *nukabo* Ohwi 겨이삭		O
A. clavata Trinius 산겨이삭	O	
A. scabra Willd. 긴겨이삭		O
Alopecurus aequalis Sobol. var. *amurensis* (Kom.) Ohwi 둑새풀	O	O
Andropogon brevifolius Sw. 쇠풀	O	
Arthraxon hispidus var. *brenideta* (Regel) Hara 조개풀	O	O

이름	민주지산	덕유산
Arundinella hirta (Thunb.) Tanaka 새	O	O
Avena fatua L. 메귀리	O	
Beckmannia syzigachne (Steud.) Fernald 개피	O	
Bromus remotiflorus (Thunb.) Fernald 꼬리새		O
B. japonicus Thunb. 참새귀리	O	O
Calamagrostis arundinacea (L.) Roth 실새풀	O	O
C. epigeios (L.) Roth 산조풀		O
Cymbopogon tortilis (Presl.) Hitch. var. *goeringii* (Steud.) Handel-Mazz. 개솔새	O	
Dactylis glomerata L. 오리새		O
Diarrhena japonica Fr. et Sav. 용수염풀	O	O
Digitaria sanguinalis (L.) Scopoli 바랭이	O	O
Eccoilopus cotulifer (Thunb.) A. Camus 기름새	O	
Echinochloa crus-galli (L.) Beauv. 돌피	O	O
Eleusine indica (L.) Gaertner 왕바랭이		O
Eragrostis ferruginea (Thunb.) Beauv. 그령	O	O
E. multicaulis Steud. 비노리	O	O
Eriochloa villosa (Thunb.) Kunth 나도개피	O	O
Festuca ovina L. 김의털	O	O
F. rubra L. 왕김의털	O	
Glyceria leptolepis Ohwi 왕미꾸리꽝이		O
Hemarthria sibirica (Gandoger) Ohwi 쇠치기풀	O	O
Hierochloe odorata (L.) Beauv. v. *pubescens* krylov. 향모	O	
Isachne globosa (Thunb.) O.Kuntze 기장대풀	O	O
Isachaemum crassipes (Steud.) Thell. 쇠보리		O
Leersia japonica Makino 나도겨풀		O
Melica onoei Franchet et Savater 쌀새	O	
M. nutans L. 왕쌀새	O	O
Milium effusum L. 나도겨이삭	O	
Miscanthus sacchariflorus (Max.) Bentham 물억새	O	
M. sinensis Andersson 참억새 var. *purpurascens* (Andersson) Rendle 억새	O	O
Muhlenbergia japonica Steudel 쥐꼬리새	O	O
M. longistolon Ohwi 큰쥐꼬리새		O
Phragmites communis Trinius 갈대		O
P. japinica Steud. 달뿌리풀	O	O
Phyllostachy migra (Lodd.) Munro var. *henonis* (Miquel) Stapf 솜대(재)		O

이름	민주지산	덕유산
Poa acroleuea Steud. 실포아풀		O
P. sphondylodes Trinius 포아풀	O	O
Pseudosasa japonica (S. et Z.) Makino 이대(재)	O	
Sasa borealis (Hack.) Mskino et Shibata 조릿대	O	O
Setaria glauca (L.) Beauv. 금강아지풀	O	O
S. viridis (L.) Beauv. 강아지풀	O	O
var. *major* (Gaucin) Petermann 가라지조	O	
Spodiopogon sibiricus Trinius 큰기름새	O	O
Stipa Pekinensis Hance 나래새	O	
Themeda triandra Forsk var. *japonica* (Willd.) Mak. 솔새	O	O
Trisetum bifidum (Thumb.) Owi 잠자리피		O
Zizania latifolia Turcz. 줄	O	
Zoysia japonica Steud. 잔디	O	O
Araceae 천남성과		
Arisaema amurense for. *serratum* Max. 천남성	O	
A. peninsulae Nakai 점백이천남성	O	O
A. robustum Nakai 넓은잎천남성	O	
Pinellia termata (Thunb.) Breitenb. 반하	O	
Lemnaceae 개구리밥과		
Lemna paucicostata Hegelmaier 좀개구리밥	O	
Spirodela polyrhiza (L.) Schleiden 개구리밥	O	
Cyperaceae 사초과		
Bulbostylis densa (Wallich) Handel-Mazzetti 꽃하늘직이	O	O
Carex bostrichostigma Max. 길뚝사초	O	
C. ciliato-marginata Nakai 털대사초	O	
C. conica Boott. 흰사초		O
C. dickinsii Fr. et Steud. 도깨비사초		O
C. dimorpholepis Steud. 이삭사초		O
C. dispalata Boott 삿갓사초	O	
C. filipes Fr. et Sav. var. oligostachys Kuek. 낚시사초	O	O
C. humilis Leyss. var. *nana* (Levl. et Vant.) Ohwi 산거울	O	O
C. jaluensis Komarov 참삿갓사초		O
C. japonica Thunberg 개찌버리사초	O	O
C. lanceolata Boott 그늘사초	O	O
C. leiorhyncha C. A. Meyer 산괭이사초	O	O
C. mollicula Boott 애기흰사초	O	
C. nervata Fr. & Sav. 양지사초		O

이름	민주지산	덕유산
C. neurocarpa Max. 괭이사초		O
**C. okamotoi* Ohwi 지리대사초	O	
C. planiculmis Komarov 그늘흰사초	O	O
C. pruinosa Boott subsp. *maximowiczii* (Miq.) Kukenth. 왕비늘사초	O	O
C. rhynchophysa C. A. Meyer 왕삿갓사초		O
C. siderosticta Hance 대사초	O	O
Cyperus amuricus Max. 방동사니	O	O
C. brevifolius var. leiolepis (Fr. et Sav) T.Koyama 파대가리		O
C. difformis Linne 알방동사니	O	O
C. flaccidus R.Br. 병아리방동사니		O
C. iria Linne 참방동사니	O	O
C. microiria Steud. 금방동사니		O
C. sanguinolentus Vahl 방동사니대가리	O	O
Eleocharis congesta D.Don 바늘골	O	O
E. tetraquetra Nees 네모골	O	O
E. wichurae Bockeler 좀네모골		O
Fimbristylis miliacea (L.) Vahl 바람하늘직이		O
F. subbispicata Nee & Meyer 꽃하늘직이		O
Lipocarpha microcephala (R.Br.) Kunth 세대가리	O	
Scirpus juncoides Roxb. 올챙이고랭이	O	O
S. karuizawensis Makino 솔방울고랭이		O
Orchidaceae 난과		
Amitostigma gracilis (Bi.) Schlechter 병아리난초	O	O
Cephalanthera longibracteata Blume 은대난초	O	
Cypripedium macranthum Swartz 개불알꽃	O	O
Gastrodia elata Blume 천마	O	
Liparis japonica (Miq.) Maxim. 키다리난초	O	O
L. makinoana Schlechter 나리난초	O	
Platanthera freynii Kranzlin 제비난초	O	O
P. hologlattis Maximowicz 흰제비란		O
P. mandarinorum Reichb fil. 산제비란	O	
Spiranthes sinensis (Bieberstein) Sprengel 타래난초	O	O

2) 식물상의 특징

덕유산 국립공원일대의 소산 관속식물은 110과 378속 682종 1아종 111변종 11품종으로 총 805종류로 밝혀졌다<표 1-2-14>.

이 중에서 목본식물은 242종류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양치식물, 속새, 석송식물은 31종류에 불과하다.

과별로는 국화과 75종류, 장미과 47종류, 미나리아재비과 35종류, 벼과 32종류, 산형과 32종류, 콩과 29종류, 마디풀과 23종류 그리고 인동과, 꿀풀과 식물이 각각 21종류씩 조사되었다. 내무부(1992)에 의하면 북한산의 경우는 총 650종류 가운데 종류수가 많은 식물을 과별로 볼 때 국화과, 장미과, 벼과, 백합과, 콩과, 미나리아재비과, 사초과의 순이다.

박과 박(1972)에 의하면 덕유산 식물은 62과 128속 174종 36변종 4품종으로 214종류라고 했고, 환경청(1988) 조사보고에 따르면 덕유산의 식물은 88과 247속 377종이었고, 목본은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으며, 덕유산 국립공원내에 있는 적상산의 식물은 91과 250속 386 종이 조사되었고, 목본은 약 35%였다고 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는 덕유산과 적상산을 함께 포함하여 집계한 까닭에 종류수가 증가했을 것이다.

본 조사지의 식물상의 특징은 첫째, 종류수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내장산의 식물은 105과 311속 433종 1아종 75변종 9품종으로 도합 518종류(환경청, 1988), 고창 선운산은 103과 300속 430종 44변종 3품종으로 총 477종류(Kim et al. 1988) 합천 가야산(陜川 伽椰山)은 109과 335속 518종 80변종 6품종 총 594종류(정, 1990), 장수 장안산은 99과 440종67변종 7품종 1아종으로 총 515종류(김, 1987), 완주군 대둔산은 108과 346속 511종 2아종 75변종 5품종, 도합 539종류(조, 1987)로 보고된 바 있다. 그래서 덕유산 국립공원일대의 소산 식물상이 다양하고 많았다.

둘째, 고산성 또는 북쪽 지방에서 나는 식물이 상당수가 있다. 예컨대 주목,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진부애기나리(금강애기나리), 모데미풀, 자주꽃방망이, 나도개감채, 두루미꽃, 처녀치마, 개병풍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약용 기타 자원식물이 풍부하다. 예컨대, 노각나무, 느티나무, 층층나무, 주목은 아름다운 나무로서 정원수로 쓰이고 또 천마, 승마, 백작약, 투구꽃, 오미자, 오이풀, 자귀나무, 고삼, 이질풀, 오갈피나무, 참당귀, 시호, 미치광이풀, 삽주 등은 약용식물이다.

넷째, 경관이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수종들로 구성되어 있다. 침엽수와 활엽수가 분포지를

나란히 하면서 혼효림을 이루고, 단풍을 이루는 종류 즉 고로쇠나무, 당단풍, 시닥나무, 복장나무, 복자기, 부게꽃나무, 신나무 등은 좋은 예이다.

<표 1-2-14> 덕유산 국립공원 일대의 관속식물 종류

길 과 김(1996)

구 분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합계
석송식물	2	2	2				2
속새식물	1	1	1			1	1
양치식물	7	14	26		2		28
나자식물	3	7	12			1	13
피자식물	97	354	641	1	109	10	761
(단자엽식물)	(12)	(71)	(112)		(18)		(130)
(쌍자엽식물)	(85)	(283)	(529)	(1)	(91)	(10)	(631)
합 계	110	378	682	1	111	11	805

다섯째, 귀화식물이 적다. 임과 전(1980)의 보고를 참고해 보면 비름, 자리공, 자운영, 아까시나무, 토끼풀, 가죽나무, 애기땅빈대, 달맞이꽃, 선개불알풀, 개망초, 망초, 양하가 조사되어 귀화식물지수, 즉 남한의 귀화식물 총 종류수(110종)에 대한 덕유산 지방의 귀화식물 종수의 백분율은 10.9%(조, 1987) 전주 20%(허와 길, 1986)와 비교해 볼 때 훨씬 적다.

여섯째, 환경청(1988)의 보고서에서는 기재되었으나, 본 조사에서 빠진 종류는 다음과 같다. 즉, 고비고사리, 왕지네고사리, 좀진고사리, 겨이삭, 좀바랭이, 바랭이, 참새피, 솔방울 고랭이, 파대가리, 석창포, 별꿩의밥, 파란여로, 실부추, 산부추, 상사화, 단풍마, 서울귀룽, 산사, 좁은잎산사, 개자리, 선이질풀, 원지, 개시닥나무, 짝자래나무, 콩제비꽃, 네귀쓴풀, 송장풀, 애귀쉽사리, 큰개현삼, 선갈퀴, 분꽃나무, 불두화, 당잔대, 머위, 애기우산나물, 참쑥, 그늘쑥, 멸가치, 삼잎국화, 우엉, 은분취, 큰수리취, 선씀바귀, 두메고들빼기, 노랑무늬붓꽃, 흰각시붓꽃, 노랑꽃창포, 천일봉무엽란, 이태리포플러, 갯버들, 고채목, 삼, 호장근, 세뿔여 귀, 고마리, 가시여뀌, 산여뀌, 개오미자, 개구리미나리, 방기, 가는장대, 새끼꿩의비름, 선괭 이눈, 까치밥나무, 터리풀 등 많은 종류의 차이가 나타나는 바, 이것은 조사시 서로 시기가 틀려서 이미 당년의 일생을 마친 식물, 재배식물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 실제 답사 시 찾지 못한 것들이었지 그 간에 멸종된 것은 아닐 것으로 본다.

3) 무주지역의 식물군락

식물군락의 특징은 덕유산의 산림식생에 관하여 김과 장(1972)은 고도의 식생분포에 관하여 주요 중요치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환경처(1990)의 보고와 김(1992)의 보고가 있는데, 이 두 보고서들은 조사자가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환경처(1990)의 보고서에서는 덕유산의 산림을 소나무군락, 신갈나무군락, 졸참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개서어나무군락, 들메나무군락, 주목 - 구상나무군락 등 7개 군락으로 구별했다.

그 후 김(1992)은 덕유산 국립공원의 산림식생을 군집분류한 결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즉, 당단풍 - 신갈나무, 서어나무군단 소나무군단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철쭉꽃 - 신갈나무군집 등 4개 군집, 구상나무군락 등 4개 군락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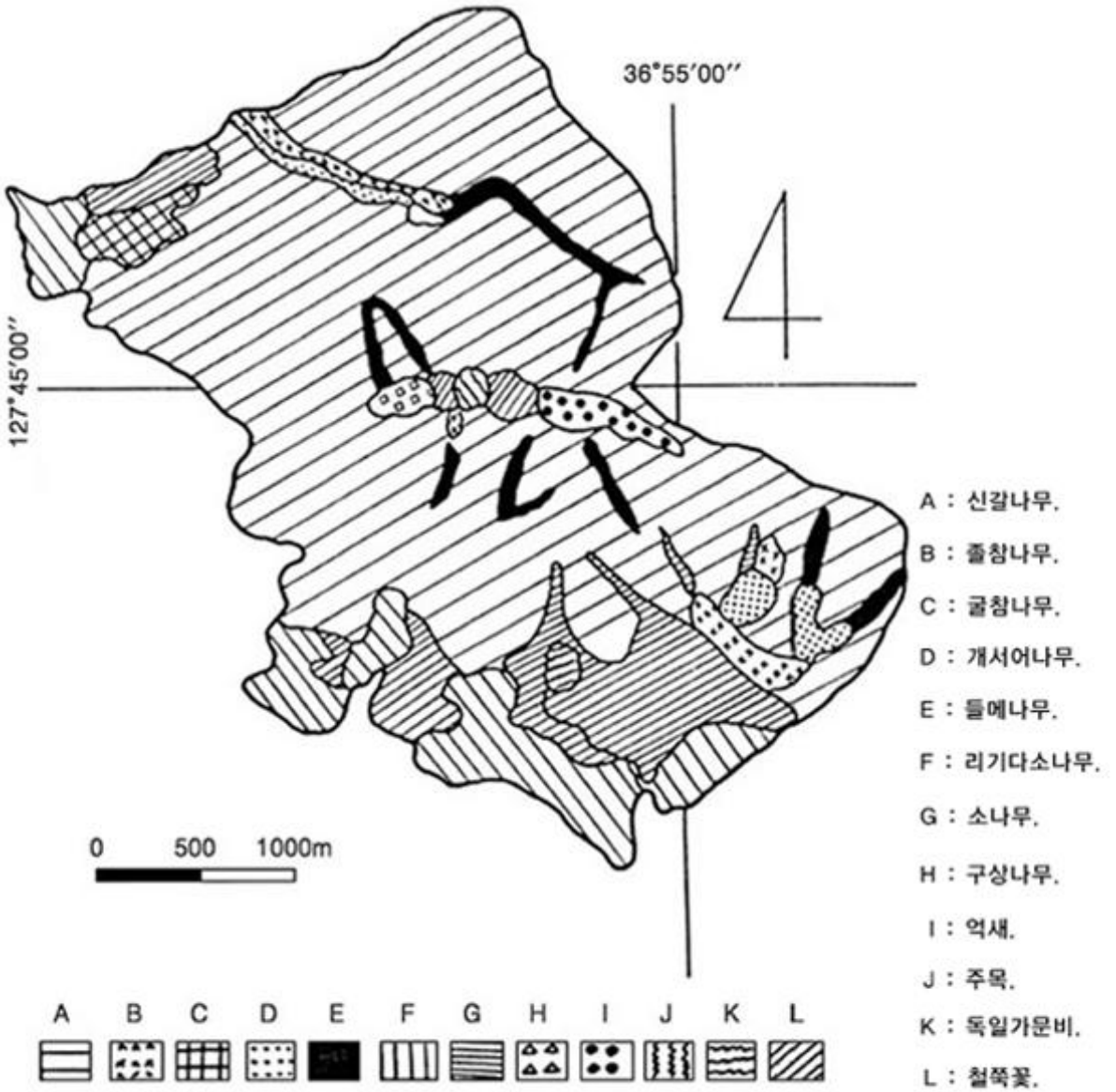
Ⅰ. 당단풍 - 신갈나무 군단(Acer-Quercion mongolicae Kim et Yim 1988)
  A. 철쭉꽃 - 신갈나무 군집(Rhododendro-Quercion mongolicae Kim et Yim 1988)
    a. 전형아군집(Typical subassociation)
    b. 조릿대아군집(Sasa borealis subassociation)
  B. 구상나무군락(Abies koreana community)
    c. 조릿대아군락(Sasa borealis subcommunity)
Ⅱ. 서어나무군단(Carpineum laxiflorae Kim et Yim 1986)
  C. 서어나무군집(Carpineum laxiflorae Kim et Yim 1986)
  D. 굴참나무군락(Quercus variabilis community)
  E. 졸참나무군락(Quercus serrata community)
    d. 조릿대아군락(Sasa borealis community)
    e. 대사초아군락(Carex siederosticta subcommunity)
Ⅲ. 소나무군단(Pinion densilflorae Suz. - Tok. 1966)
  F. 진달래 - 소나무군집(Rhododendro mucronulati - Pinetum densiflorae Kim et Yim 1986)
Ⅳ. 상급단위 불명
  G. 물참대 - 들메나무군집 (신칭) (Deutzio-Fraxinetum mandshuricae assoc. nov.)
    f. 산수국아군집(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subassociation)
Ⅴ. 주목군락(Taxus cuspidata community)

위의 군집분류는 Braun - Blanquet(1964)의 식물 사회학적 조사로 나타난 식생조사표를 가지고 소표를 작성하였다.

4) 덕유산 식물의 분포역

조사지에서 설치한 방형구에서 얻은 자료와 상관에 의하여 1:25,000의 지형도에 그린 후 축소한 현존 식생도는 다음과 같다<그림 1-2-4>.

덕유산 국립공원을 분포역으로 가장 널리 우점하는 것은 철쭉꽃 - 신갈나무군집이다. 각 군집별로 분포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2-4〉 덕유산의 현존 식생도(김, 1992)

(1) 철쭉꽃 - 신갈나무군집

이 군집은 덕유산 일대의 대표적인 군집으로서, 표고 900m이상에서 우점하고 있다. 백련사 - 향적봉으로 이어지는 일부 지역과 정상 - 칠봉사이의 중간지역, 남덕유산의 표고 1,000m 이상의 극상림으로 보이는 신갈나무 숲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40~50년 전에 벌채 된 후 이루어진 2차림으로 되어 있다.

(2) 구상나무군락

구상나무군락은 덕유산 정상부분에 상당히 넓게 분포하고 있다. 향적봉(정상) 바로 밑 칠봉으로 가는 등산로 부근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아울러 백련사 사이 계곡에 주목과 함께 분포되어 있다.

(3) 서어나무군집

약간 습한 곳에 발달하며, 표고 700~800m 부근에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칠연폭포에서 무룡산으로 이어지는 계곡과 칠연폭포에서 향적봉으로 가는 계곡과 사면에 분포하고 있다.

(4) 굴참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은 비교적 건조한 저지대 능선 부근에 주로 분포하며, 무주 리조트 전망대 부근과 제1야영장 부근, 칠봉 - 인월교 능선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5) 졸참나무군락

졸참나무군락으로 된 곳은 많지 않으며, 신갈나무와 섞여서 분포한다. 칠연폭포에서 무룡산으로 이루어지는 표고 700~800m 사이와 칠연폭포와 향적봉으로 이어지는 표고 700~ 900m계곡 근처에 순군락을 이루고 있다.

(6) 진달래 - 소나무군집

이 군집은 비교적 저지대와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으로 되어있는 능선부 및 암석지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칠연폭포 부근 전북자연학습원 근방에서 확인되고 있다.

(7) 물참대 - 들메나무군집

습한 곳에 한정적으로 분포하며, 표고 900m이상의 계곡에 잘 발달하여 있다. 이 군집은 표고 1,000m이상에서는 신갈나무와 경쟁하고, 점점 신갈나무로 바뀌는 모양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8) 주목군락

주목군락은 향적봉에서 칠봉으로 가다가 소규모로 분포하고, 또 칠연폭포로 내려가는 등산로 부근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구상나무보다 훨씬 높은 우점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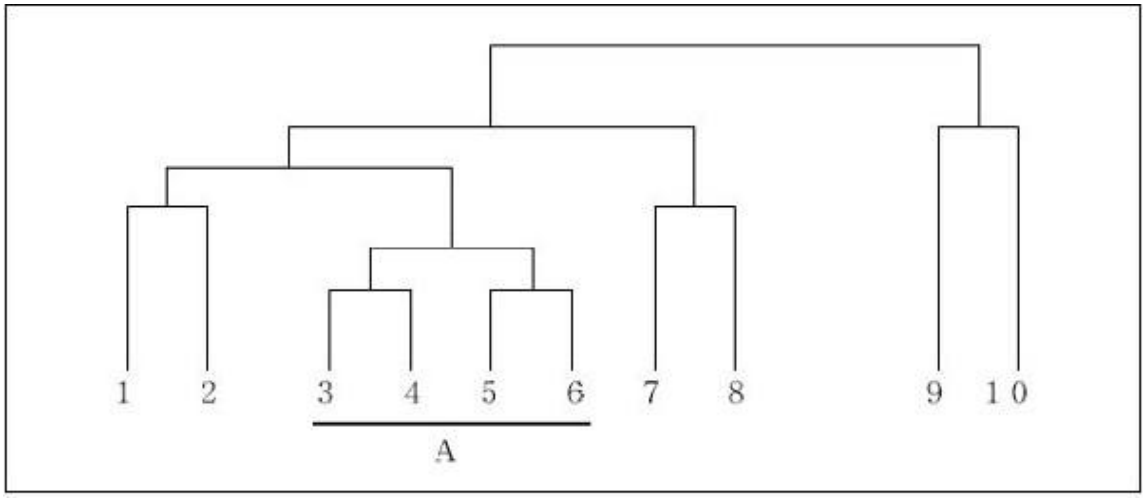
요약하면 덕유산 국립공원일대의 대부분 지역을 신갈나무가 우점하고, 저지대와 능선부 는 소나무, 농경지 부근에 리기다소나무 식재림이 있고, 그 나머지 지역은 굴참나무, 졸참나무, 주목 등이 분포역을 나누어서 차지하고 있다.

한편, 덕유산 국립공원 일대의 식생을 흉고직경 2㎝이상의 매목조사에서 얻은 정량적 측정치와 13개의 환경요인을 관련 지워서 78개 임분을 TWISPAN(Two-way Indicator Species Analysis)에 의하여 분석하였다(김, 1992). 그 결과를 보면 소나무, 굴참나무, 신갈 나무 - 철쭉꽃, 신갈나무 - 구상나무, 신갈나무 - 당단풍, 신갈나무 - 노린재나무, 졸참나무, 서어나무 - 개서어나무, 들메나무, 주목의 10개 군으로 분류되었다<그림 1-2-5>.

이들 분류군들은 Z - M방법에 의한 군집분류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신갈나무 군락군을 형성하는 신갈나무 - 철쭉꽃, 신갈나무 - 구상나무, 신갈나무 - 당단풍, 신갈나무 - 노린재나무 중 신갈나무 철쭉꽃 군과 신갈나무 - 당단풍 군은 식물사회학적 분류체계에서 는 각각 신갈나무 - 철쭉꽃 군집과 신갈나무 - 당단풍군단으로 분류되어 지며, 신갈나무 - 구상나무 군은 교목층의 상층부는 구상나무가, 하층부는 신갈나무가 우점하는 군락구조를 보여서 분류법에서의 구상나무 군락과 구조적으로 거의 같다고 하겠다.

신갈나무 - 노린재 나무군의 경우는 식물사회학적 방법에 의한 분류체계를 보면 노린재나 무가 서어나무 군집의 표준종이지만, 덕유산 국립공원 일대에서는 신갈나무가 분포하는 지역에서 높은 중요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주목되고 있다.

서어나무 - 개서어나무 군의 군도 식물사회학적 분류체계에서의 서어나무 군집과 개서어 나무아군집으로 분류된 것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2-5〉 덕유산 국립공원 일대에 분포하는 산림식생을 TWISPAN에 의하여 구분한 그림

1=소나무, 2=굴참나무, A=신갈나무군, 3=신갈나무-철쭉꽃, 4=신갈나무-구상나무, 5=신갈나무-당단풍, 6=신갈 나무-노린재나무, 7=졸참나무, 8=서어나무-개서어나무, 9=들메나무, 10=주목 (김,1992)

5) 식물군집의 안정성

덕유산 국립공원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군집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종의 다양성, 중요성, 흉고 직경크기의 분포를 분석했다. 김(1992)에 의하면 조사지 표고에 따라 다양성 지수들(SR, H', J', C)을 조사한 결과는 <표 1-2-15>와 같다. SR은 종풍부도 (Species richness), H'는 Shannon's diversity, J'은 evenness C는 Simpson's 우점도 지수를 말한다.

<표 1-2-15> 덕유산 국립공원 일대의 삼림의 고도별 종다양성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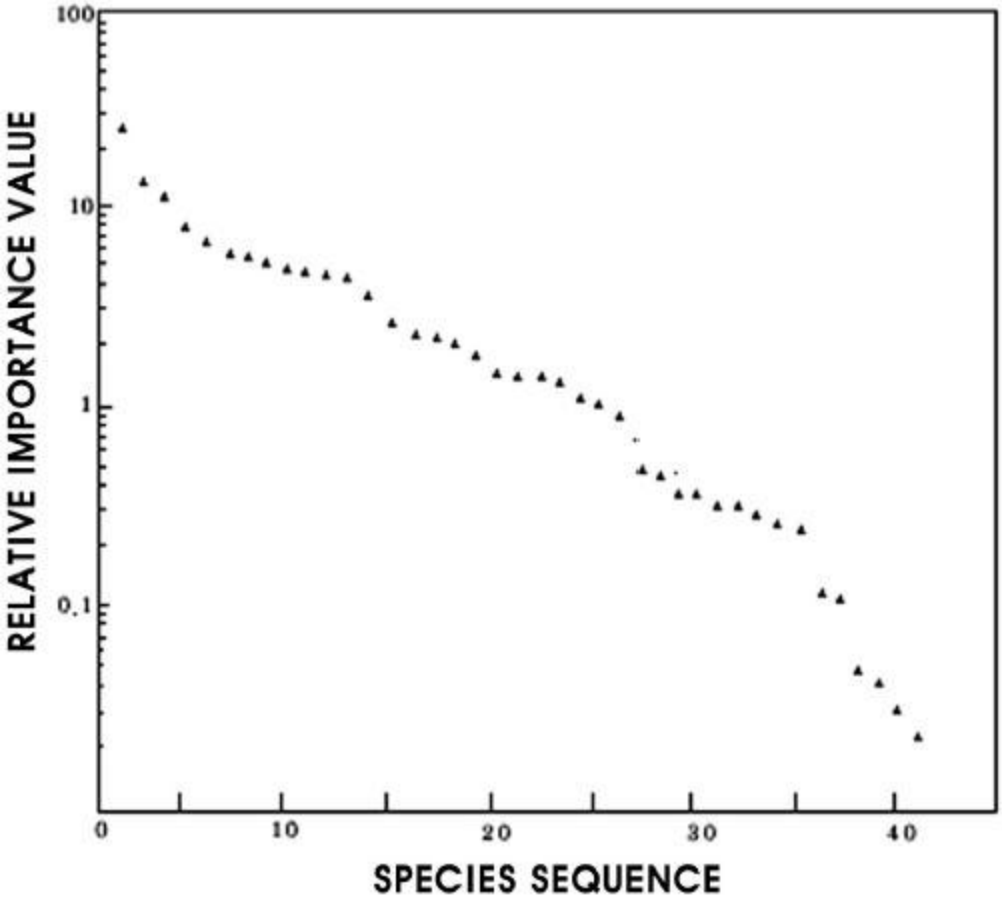
(김, 1992)

조사구수	고도		SR		H'		J'		C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6	710	72.6	6.36	1.26	0.834	0.136	0.767	0.088	0.266	0.143
4	822	25	6.35	2.84	0.789	0.232	0.745	0.055	0.341	0.102
9	927	24.7	7.02	2.71	0.834	0.221	0.750	0.132	0.225	0.131
5	1050	48.6	6.49	1.42	0.879	0.056	0.789	0.029	0.168	0.048
4	1190	45.5	5.41	3.68	0.754	0.273	0.746	0.086	0.247	0.171
4	1360	111.7	3.90	1.54	0.667	0.177	0.779	0.136	0.282	0.164

SR = 풍부도지수, H' = 다양성지수, J'= 균등성지수, C = 우점도지수.

위 <표 1-2-15>를 보면 풍부도지수와 다양도지수는 표고 900~1,100m를 정점으로 하여 감소형태를 보였고, 균등성 지수와 우점도 지수는 낮은 것으로 보아 표고 900~1,100m 사이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물들이 모여서 군락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다양도 지수와 풍부도 지수, 균등성 지수와의 관계별로 볼 때, 덕유산의 환경조건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부분의 조사지점이 우점도 지수보다 다양도 지수가 높아 한 두 종에 의하여 우점된 지역은 별로 볼 수 없다.

한편, 덕유산 국립공원 일대에 분포하는, 주요 41종에 대한 종 서열과 중요치와의 관계 곡선을 보면 대다수 정규분포 곡선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그림 1-2-6>. 종서열 중요치 곡선의 상위부분 기울기가 급격한 것은, 몇몇 종의 우점도가 높고, 전체 기울기가 완만한 것은 균등성이 높아서 군락의 안정성이 큰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덕유산산림은 비교적 소수의 몇 몇 종에 의하여 군락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들 군락을 형성하는 구성종은 풍부하고 다양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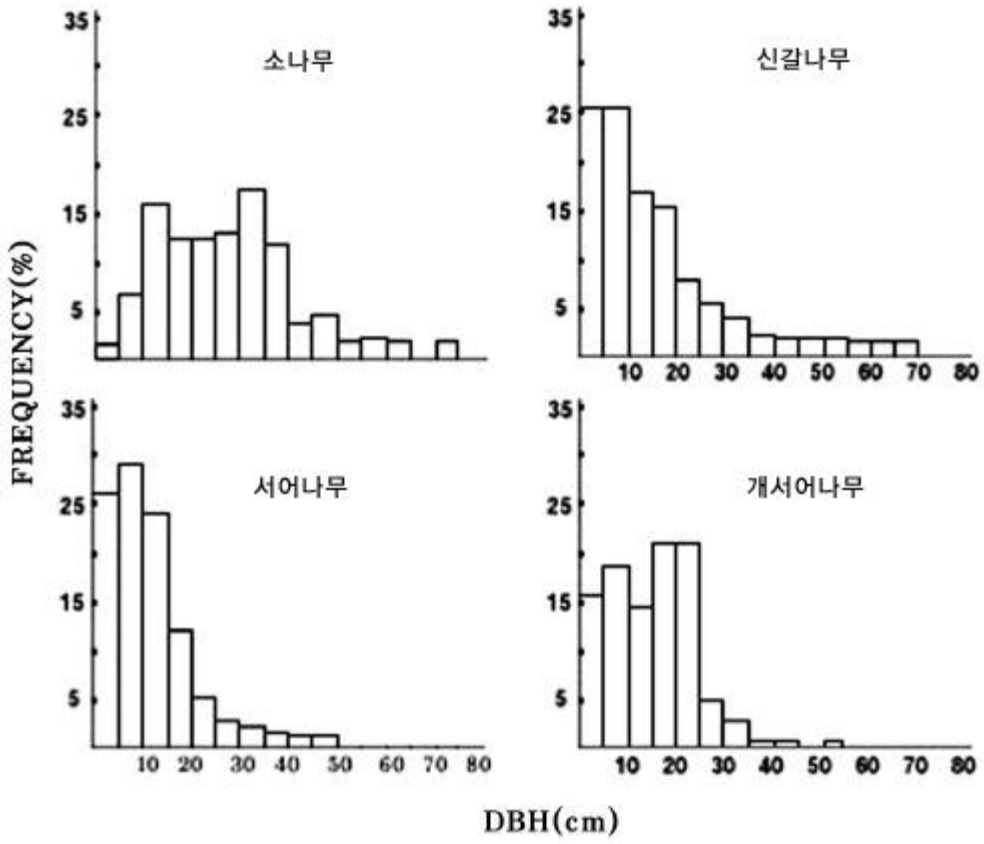


〈그림 1-2-6〉 덕유산 국립공원 일대의 산림의 종서열-중요치 곡선 (김,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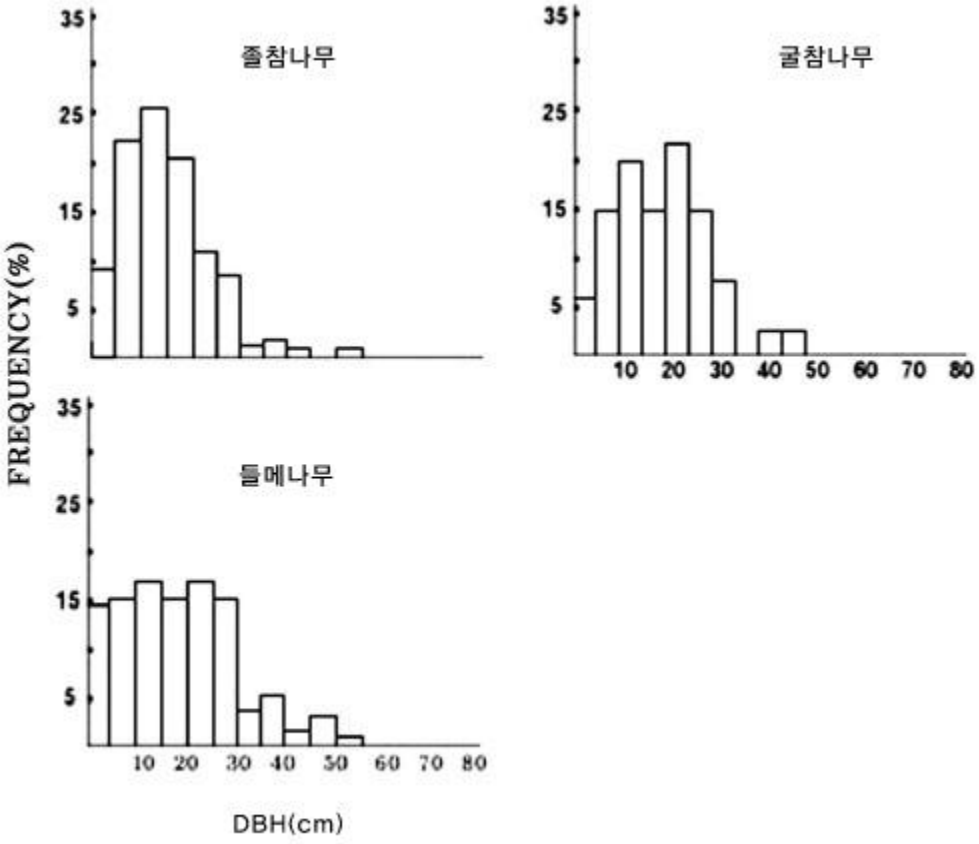
6) 이차 천이

종의 안정성 이차 천이를 검토하여 보았다. 즉, 덕유산 국립공원 일대의 산림주요 종 7종류 (소나무, 신갈나무, 서어나무, 개서어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들메나무)를 선정하여 이들의 DBH 빈도분포를 보면 <그림 1-2-7>, <그림 1-2-8>과 같다.

소나무의 DBH 빈도분포는 완만한 종 모양(bell)을 나타내며, DBH 50㎝이상의 크기에서 는 별로 많지 않으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그 크기의 수령을 가진 소나무는 아마 벌목으로 없어졌거나, 다른 이유로 사라진 결과로 추정된다. 그런데 DBH 5㎝이하의 소나무 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앞으로 조사지의 소나무는 다른 수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또 졸참나무와 굴참나무는 DBH 5㎝이하의 크기의 계급에서 심한 감소현상을 보였고 DBH 50㎝ 이상은 거의 없었다. 들메나무와 개서어나무는 DBH 5㎝ 이하의 크기 계급에 서 약간의 감소를 보였고, DBH 50㎝ 이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신갈나무와 서어나무는 작은 개체들의 감소 경향은 없었으며, 신갈나무는 60㎝ 이상되는 큰 수목도 분포하였으나, 서어나무는 DBH 50㎝의 개체는 볼 수 없었다.



〈그림 1-2-7〉 덕유산 국립공원내 산림군락의 주요종의 흉고직경분포 (김, 1992)



〈그림 1-2-8〉 덕유산 국립공원내의 산림군락의 주요종의 흉고직경 (김, 1992)

그러므로 덕유산 국립공원 일대의 삼림식생의 천이는 소나무 군락 → 굴참나무 군락 → 신갈나무 군락 → 소나무 군락 → 신갈나무 군락, 졸참나무 군락 → 신갈나무 군락, 소나무 군락 → 졸참나무 군락 → 서어나무 → 개서어나무 군락, 소나무 군락 → 서어나무 → 개서어나무 군락과 같은 몇 가지 경로로 이루어 질 것으로 유형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서어나무 군락의 비교적 안정된 산림의 경우와 급경사나 암벽 등에 의하여 심하게 노출된 지역의 소나무 군락과 표고 1,000m 이상의 신갈나무 군락에서는 심한 교란이 없는 한, 소위 순환 천이 경로를 거쳐서, 재생 단계를 달리하는 소임분의 'mosaic'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4. 생물자원의 변화상

최근 우리나라는 도로, 고속도로, 해안매립, 건축 등 개발의 진전에 따른 자연환경의 파괴, 훼손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와 공해의 증가를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무주군의 경우에도 무주 구천동의 스키장, 리조트 기타 편의시설 및 인공물 축조를 하면서

도로의 확포장과 공사 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변화는 자연생태계의 변화로 이어졌다. 예컨대, 스키장 건설로 인한 덕유산 향적봉 부근으로부터 산비탈을 거쳐서 산밑까지 울창하게 차지하고 있던 삼림식생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곳에 우점하고 있던 들메나무군락지는 우리나라 삼림 중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려운 좋은 숲이었고, 주목과 구상나무군락 또한 아쉽게도 대규모로 파손되었다. 공사과정에서 주목과 구상나무를 이식하였으나 대부분 고사해 버렸다. 향적봉이라는 이름은 주목을 일컫는다고 하니 이는 주목이 많다는 뜻이고 보면 향적봉 일대에 주목이 예로부터 많았었다는 뜻이 된다. 구상나무숲도 덕유산이 우리나라 구상나무의 북한계 지점이 된다. 아쉽지만 스키장 건설로 많이 훼손되었고 복원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생각된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개발로 하천생태계가 파괴 되어 반딧불이 생존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또한 적상산 양수발전소 건설로 많은 수목이 제거되었다. 다만 이곳은 비교적 학술상 특기 할 종류는 없었다고 본다. 대전 - 진주간 고속도로는 금산과 무주군의 경계로부터 안성면을 지나 장수군 장계로 향하는 최근 건설된 도로인 바, 건설과정에서 야산, 들, 농경지의 여러 가지 식물이 사라져 버렸다. 특히 적상면 삼가리에 있던 소나무 노거목들은 아깝게도 제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고속도로가 건설되어있다.

1) 1973년 이후 덕유산의 개발로 인한 환경변화로 도래하지 않은 조류

(1) 고니 : Cygnus bewickii Yarrell

고니는 한국에 1月에 왔다가 겨울을 넘기고, 다음해 3월에 북상하는 겨울철새로 구천동에서는 1957년 2월 12일에 소천리(所川里) 평지마을 앞 개울에 날아와 물 가운데 있는 것을 포획한 것으로, 색깔이 약간 검은 고니 새끼였다. 이 고니는 북상하던 중 기상이변으로 무리에서 떨어져 금강 상류인 이곳까지 온 것으로 추정된다.

(2) 비오리 : Mergus merganser mergansel Linne

본 종은 겨울철새로 민물에서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종으로, 1955년 1월에 남대천에서 급류로 인해 결빙되지 않은 곳을 찾아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비오리 3마리 중에서 1마리를 포획하였다.

(3) 청둥오리 : Anas platyrhynchos platyrhynchos Linne

본 종은 겨울철새로 남대천에서는 기곡리, 길산리(吉山里), 장덕리(長德里)의 강폭이 넓고 한적한 곳에 4~6마리가 떼지어 도래하였으나, 1975년부터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청둥오리를 볼 수 없었다.

(4) 쇠오리 : Anas crecca crecca Linne

본 종은 겨울철새로 남대천과 저수지에 도래하였으나, 청둥오리와 같이 근년에 와서는 관찰 할 수 없었다.

(5) 흰뺨검둥오리 : Anas poecilorhyncha zonorhyncha Swinhoe

본 종은 오리과의 텃새에 속하나 일부는 겨울철새로 봄에 북상한다. 남대천에서는 나제통문 뒤쪽 이남마을에서 1개체를 포획하였다.

구천동에 국도가 남대천을 따라 건설되었고, 도로포장이 되면서 교통량의 증가 소음 등으로 인하여 오리류는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6) 큰말똥가리 : Buteo rufinus hemilasius Temminck et Schlegel

본 종은 말똥가리에 비해 희소종으로 겨울철새에 속한다. 1959년 11월 12일 대불리(大佛 里)에서 윤도학 포수(尹道學 砲手)가 1개체를 포획하였다.

(7) 털발말똥가리 : Buteo lagopus kamtschatkensis Dementiev

본 종은 희소종으로 겨울철새이다. 1956년 11월 20일에 기곡리(基谷里)에서 전선주에 앉아 있는 것을 포획하였다.

(8) 개구리매 : Circus aeruginosus spilonotus Kaup

본 종은 천연기념물 제323호로 지정된 종으로 1960년 12월 1일에 김순석 포수(金淳錫 砲手)가 양지리 저수지 소나무 위에 앉아 있는 것을 포획하였다.

(9) 솔개 : Milnus mugrans lineatus (J. E. Gray)

본 종은 겨울철새에 속하며 196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다수의 개체가 도래하였으나, 점차 도래하는 수가 감소되고 있다. 구천동에서는 1956년 2월 16일 청량리 백운산 아래에서 1개 체가 포획되었다.

(10) 팔색조 : Pitta brachyuta mynpha Temminck et Schlegel

본 종은 천연기념물 제204호로 지정된 여름철새에 속한다. 팔색조는 제주도와 거제도에 서 번식하고, 가을에 한반도를 거쳐 중국으로 이동하며, 1957년 9월 13일에 설천면 남악리(南岳里) 과수원에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11) 칼새 : Apus pacificus pacificus (Lin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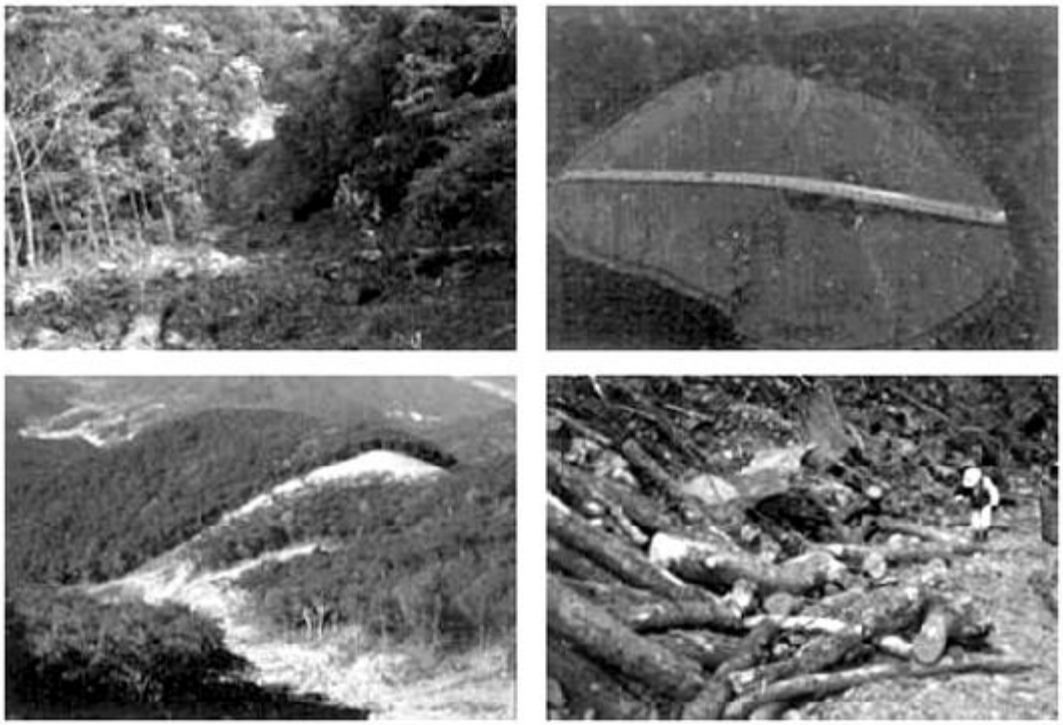
본 종은 여름철새로 고산지대와 해변의 절벽을 선호하며, 덕유산 향적봉에 가면 칼새가 활강하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으나, 한국전쟁 이후 향적봉에 통신부대가 주둔한 이후 칼새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백, 1960).

■ 참고문헌

1. 기상청. 한국기후표. 2001. 632p.
2. 길봉섭. '90 자연생태계 전국조사(II-2), 제5차년도(전북의 식생). 환경처. 1990. pp.83-447.
3. 길봉섭·김정언. 전라북도의 자연환경.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6. 464p.
4. 길봉섭·김창환. 국립공원 덕유산의 식물상. 원광대 논문집. 28권. 1994. pp.63-100.
5. 길봉섭. 덕유산국립공원의 식생. 설천백남극교수 정년퇴임기념문집 발간위원회. 1996. pp.92-107.
6. 김상호. 한반도의 지형형성과 지형발달서설. 지리학연구 2권. 1980. pp.1-15.
7. 김준민·장남기. 무주구천동의 삼림군락의 식물사회학적 분석. 한국자연보존협회 조사 보고서.5,6권.1972.pp.55-64.
8. 김창환. 전북 장안산의 삼림식생형과 그 구조.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58p.
9. 김창환. 덕유산 국립공원 삼림식생의 구조와 이차천이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156p.
10. 남궁 준. 덕유산의 거미. 무주 구천동의 자연 그리고 설천. 설천 백남극교수 정년퇴임기념문집 발간위원회. 1996. pp.108-113.
11. 내무부.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덕유산 국립공원-. 1993. 214p.

12. 무주군지 편찬위원회. 무주군지. 대흥정판사. 1990. 63p.
13. 박만규·박홍덕. 무주 구천동의 식물상. 한국자연보존연구회 조사보고. 5권. 1972. pp.31-54.14. 백남극.
14. 덕유산의 척추동물 목록. 한국동물학회지. 16권 3호. 1973. pp.203-210.
15. 백원기. 한국특산식물의 실체와 분포 조사. 한국자연보존협회 조사보고서. 13권. 1994. pp.5-84.
16. 우한정. 지리산의 포유류, 조류. 지리산 자연생태계 조사보고서. 환경청. 1988. pp.129-158.
17. 우한정. 덕유산의 조수류. 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보고서(덕유산). 내무부. 1993. pp.80-96.
18. 원병오·윤무부. 무주 구천동 하계의 조류 조사. 한국자연보존협회. 5권. 1973. pp.115-128.
19. 원병오·윤무부. 내장산 일대의 조류 조사. 한국자연보존협회 조사보고. 8권. 1974. pp.149-166.
20. 이우철·백원기·유기억. 설천면지역 일대의 식물상. 설천백남극교수 정년퇴임기념문집 발간위원회.1996. pp.64-91.
21. 이우철·임양재. 한반도 관속식물의 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식물분류학회지.8권 부록. 1978. pp.64-91.
22. 이우철·정연숙·백원기. 북한강 원류수역의 생태학적 연구. 1.진동리 계곡일대의 식생. 강원대학교 논문집 과학기술연구. 30권. 1991. pp.27-57.
23. 임양재·전의식. 한반도의 귀화식물분포. 한국식물학회지. 23권 3-4호. 1980. pp.69-83.
24. 장호. 무주군 안성분지의 지형발달. 전북대 사대논문집 7권. 1981. pp.45-54.
25. 전라북도. 전라북도지(제1권). 1989. pp.51-361.
26. 정민호. 가야산의 식생.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52p.
27. 조중배. 대둔산의 식생.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48p.
28. 최기철·김익수. 무주 남대천의 어류상에 관하여. 한국육수학회지. 5권 1-2호. 1972. pp.1-12.
29. 한국자연보존협회. 한국의 희귀 및 위기식물도감. 1989. 165p.
30. 허지순·길봉섭. 전주지역의 식생. 원광대학교 기초과학연구지 5권 1호. 1986. pp.57-62.
31. 환경처. '86자연생태계 전국조사-해역편-. 1986a. pp.157-237.
32. 환경처. '87자연생태계 전국조사(III-1) - 포유류, 조류. 1987e. 403p.
33. 환경청. '88자연생태계 전국조사(I -2) - 1988. pp.160-170.
34. 환경처. '90자연생태계 전국조사(II-2) - 1990. pp.85-147.
35. Kim, J.U., Y.J. Yim and B.S. Kil. The flora of Seonunsan provincial park area. Korea. The journal of Natural Science. vol. 7. No. 1. 1988. pp.34-45.
36. Nakai, T. A Synoptical sketch of Korean flora. Bull. Mus. Tokyo. vol. 31. 1952. pp.1-152
37. Walter, H. 1975. Vegetation of the earth. Springer Verlag. New York. Heidelberg. Berlin. 237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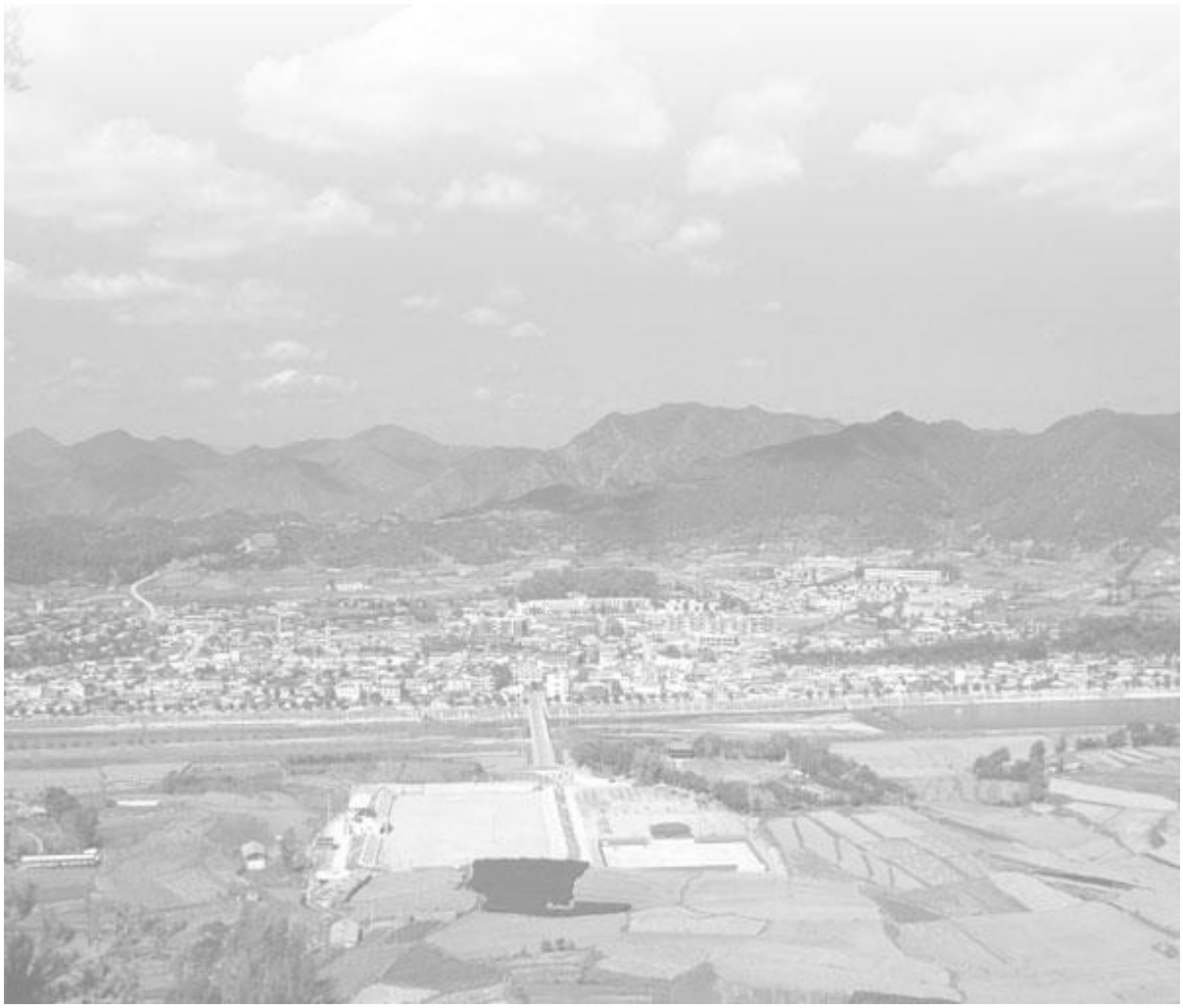
[집필 : 길봉섭]



개발은 숲의 파괴가 따른다.



덕유산의 식생 낙엽 · 활엽수기 울창하게 우거져 있다.



제3장 인문환경

제1절 인구 및 가구

인구는 특정 지역의 문화·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인구의 성장과 감소는 출생과 사망의 변화 그리고 이동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인구수의 많고 적음은 특정 지역의 주거환경이 거주와 생활에 적합하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지렛대가 되기도 한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무주군의 인구감소 경향은 무주군 만의 현상이 아니다. 1960년대는 우리나라의 산업화·도시화가 본격화 된 시기로, 도시의 높은 고용기회와 보수, 사회·문화 적 편리함 혹은 도시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무작정 상경 등 복잡한 요인이 작용하여 이촌 향도(離村向都)의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까지 계속되었으며,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1960년 약 28%에 불과했던 도시화율이 1990년 약 75%에 이르고, 1995년 도·농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도시화율은 85%를 넘어섰다. 이처럼 1960년대 이후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농촌의 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는데, 무주군 또한 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농촌지역이 이촌향도의 성향을 나타내면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농촌지역의 발전 정도와 대도시와의 인접성 여하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즉, 수도권 지역의 농촌지역이 서울특별시의 교외화(郊外化)와 분산 정책 등 영향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도시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무주군은 오지와 낙후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특히 민선자치 출범 이후 의욕적인 인구 유입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의 개통에 따라 근접성이 전국적으로 가장 뛰어난 곳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이 대전광역시와의 인접해 있으며, 내륙교통이 관통한다는 교통상 편리함이 오히려 인구 감소를 가져오고 있다.

1. 총인구 및 가구 현황

무주군의 총인구 변천을 보면 급격한 인구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1958년 무주군 총인구는 58,674명이었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1967년에는 76,197명으로 30%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1968년을 고비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8년 말 당시 40,905명으로 줄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의 감소는 경제개발로 인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한국 농촌의 전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런데 2000년에 이르러서는 3만선마저 위협 받고 있다.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만선이 무너져 29,254명이었는데, 1년 후인 2001년 12월 31일 현재 30,385명으로 다시 3만선을 회복하였으나, 3만선을 유지하거나 증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반면 인구밀도는 전년에 비해 ㎢당 48.13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가구는 10,625로 가구당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인구의 감소와 일시적 증가는 전·출 입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한해 동안 전입인구는 2,402명으로 1일 평균 6.6명이었음에 비해, 전출은 4,871명으로 1일 평균 13.3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2001년도 통계를 보면 전입인구가 6,321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4,000여 명(1일 평균 17,3명)이 증가하였지만, 이에 못지않게 5,151명(1일 평균 14,1명)이 전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170명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출생과 사망을 보면, 출생이 226명임에 비해 사망이 329명이 이르고 있어 젊은층보다 노년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인구의 자연 감소마저 그 폭이 증가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획기적인 인구 유입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와 같은 현상을 지속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총인구 중 남녀 인구의 비중은 2001년 12월 현재 남자 49.22% 여자 50.88%로, 1996년 남자 50.04% 여자 49.96%에 비해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그러나 미세하나마 여성 인구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국적인 현상과 일치한다. 무주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의 하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이다. 임야가 군 전체 면적 의 82.4%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적은 농지[16]를 기반으로 농업에 편중된 산업구조[17]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용 및 소득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

16) 총면적 631.68㎢ 중 전(37.66㎢) 6.0%, 답(36.01㎢) 5.7%이며, 대지가 4.85㎢로 0.7, 기타 32.8㎢로 5.2%를 차지하고 있다.(2001년도 무주군 통계연보)

17) 1990년 전체 취업자 중 농업 및 임업이 58.9%를 차지하고, 2000년 현재 5,120세대 13,434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2001년 무주군 통계연보)

자료 : 무주군 통계연보(1991·1996·2001·2002)를 토대로 작성

위와 같은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함께 열악한 교육 및 문화·의료여건으로 인해 과거 30년 간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어[18] 1970년도에 72,615명(세대당 인구 5,78명)이던 군의 인구가 2000년 말 현재 29,254명(세대당 인구 3,0명)으로 줄어드는 한편(<표 1-3-1> 참조)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60세 이상의 인구가 1995년 현재 18.5%에서 2000년 현재 25.3%로 증가하였다.(<표 1-3-2> 참조)

가구 현황을 보면, 1970년 12,542세대로 세대 당 인구수는 5,78명으로 핵가족 보다는 대가 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85년 10,813세대로 그간 2,000여 세대가 줄어들었고, 세대 당 인구수 역시 4,37명으로 줄었다. 10년 후인 1995년에 이르면 세대는 9,919로 급격한 감소 현상은 아니지만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세대 당 인구수는 3,26명으로 줄었다. 그런데, 2000년에 이르면 10,339세대로 감소의 폭이 크지는 않은데 비해, 세대 당 인구수는 2,9명으로, 한 세대의 구성이 부모와 자녀 1인이라는 평균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부모와 따로 사는 세대가 증가하고, 독거노인 혹은 노부부만 거주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다면, 무주군의 가구 현황은 인구 감소와 함께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표 1-3-1> 무주군 인구추이

연도별	세대수	인구수			세대당 인구수	인구밀도(㎢)
		계	남	여		
1970	12,542	72,615	36,675	35,940	5.78	113.0
1975	12,532	70,337	35,394	34,943	5.61	109.4
1980	11,236	55,693	27,658	28,008	4.95	86.8
1985	10,813	47,341	24,090	23,251	4.37	73.8
1990	10,228	37,183	19,220	17,963	3.64	58.8
1995	9,919	32,320	16,087	16,233	3.26	51.2
2000	10,339	29,254	14,523	14,731	3.0	46.3
2001	10,625	30,385	14,956	15,429	2.9	48.1

18) 인구유출 원인에 대해 1995년 12월 무주군이 실시한 '지역발전에 관한 주민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4%가 자녀 교육을 위해, 39.0%가 돈벌이를 위해 고향을 떠난다고 응답했는데, 2000년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

*자료 : 무주군 통계연보(1991·1996·2002). ※ ( )는 백분율

<표 1-3-2> 연령별 인구수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1년
10세 미만	13,992(24.7)	8,868(18.7)	4,981(13.4)	3,298(10.2)	3,486(11.5)
10~20세미만	13,417(23.7)	11,534(24.4)	7,560(20.3)	5,724(17.7)	3,772(12.4)
20~30세미만	7,150(12.6)	6.209(13.1)	4,687(12.6)	5,351(16.5)	4,322(14.2)
30~40세미만	5,564(9.80)	4,731(10.0)	4,555(12.3)	3,788(11.7)	3,794(12.5)
40~50세미만	6,686(11.8)	5,505(11.6)	4.216(11.3)	3,292(10.1)	3,741(12.3)
50~60세미만	4,842(8.50)	5,187(11.0)	5,381(14.5)	4,510(13.9)	3,493(11.5)
60세 이상	4,985(8.80)	5,280(11.2)	5,800(15.6)	6,357(19.6)	7,725(25.5)
계	56,636 (100)	47,314 (100)	37,180 (100)	32,320 (100)	30,333 (100)

2. 연령별 인구

무주군의 2001년 말 현재 연령별 인구구조는 10세 미만이 3,486명(남 1,840, 여 1,646), 10대 3,772명(남 1938, 여 1834), 20대 4,322명(남 2,451, 1,871), 30대 3,794명(남 2,010, 여 1,784), 40대 3,741명(남 1,955, 여 1,786), 50대 3,493명(남 1,541, 여 1,952), 60대 4,585명 (남 2,012, 여 2,573), 70세 이상이 3,140명(남 1,202, 1,938) 등으로 분포하고 있다.

0세부터 14세까지 이른바 비경제 인구는 1985년 33.5%에서 2000년 15.7%로 급격히 감소 하였는데, 1996년 16.9%와 비교해도 계속해서 감소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부녀층과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하는 전통적인 농촌형 인구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40대까지는 남성 인구 비율이 높은데 반해, 50대부터는 여성인구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과 동일하며, 농촌지역 역시 40대 이후의 남성 사망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15~64세의 인구수는 1985년 59.3%에서 67%로 상대적인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절대적인수는 역시 감소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층은 7.2%에서 17.3% 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유소년층 인구수의 격감과 노령인구의 가속화를 통해 실질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을 야기하는 전형적인 농촌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다. 남녀 인구비율은 1986~1996년 기간 중 남자>여자에서 남자<여자로 반전되었다가 1996 년에 다시 남자>여자로 전환되었으나 2000년부터 또다시 남자<여자로 반전되는 등 두드러

지게 한쪽으로 편중되지는 않고 있다.

무주군은 전북의 타지역에 비해 농가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구이동의 추이는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이촌향도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주시 등 인근 시·군 등 전라북도내 보다는 대전이나 대구 등 타 시·도로의 전출자가 많은 편이다.

<표 1-3-3> 연령별 및 성별 인구

성별 및 단위	1991년			1996년			2001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34,891	17365	17,526	31,531	15,779	15,752	30,333	14,949	15,384
0~14	8,222	4,162	4,060	5,339	2,762	2,577	5,186	2,759	2,427
15~19	3,558	1,914	1,644	3,073	1,536	1,537	2,072	1,019	1,053
20~29	3,911	2,177	1,734	5,078	2,962	2,116	4,322	2,451	1,871
30~39	4,343	2,250	2,093	3,808	2,032	1,776	3,794	2,010	1,784
40~49	3,797	1,811	1,986	3,298	1,670	1,628	3,741	1,955	1,786
50~59	5,300	2,516	2,784	4,348	1,938	2,410	3,493	1,541	1,952
60~69	3,514	1,633	1,881	3,966	1,795	2,171	4,585	2,012	2,573
70세 이상	2,246	902	1,344	2,621	1,084	1,537	7,725	3,214	4,511

*자료 : 무주군 통계연보(1991·1996·2002).

3. 읍·면별 인구분포

무주군의 각 읍면별 인구는 <표 1-3-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1년 현재 무주읍 10,552명, 무풍면 2,972명, 설천면 5,247명, 적상면 3,417명, 안성면 6,156명, 부남면 2,041명으로 무주읍과 설천면 그리고 안성면을 합한 인구가 21,955명으로 무주군 전체의 7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면(무풍·적상·부남면)은 8,378명으로 무주읍 보다 적은 숫자 무주군 전체 인구의 27.62%에 불과하다. 전체적인 인구의 감소 속에서, 무주군 관내에서도 읍내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인 인구편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1996년 통계에 의하면, 인구수의 감소에 비해 세대수 감소 비율이 덜한 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교육문제나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대는 그대로 두고 개인 혹은 가족의 일부가 도시로 나가는 일반적인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19] 그러나

2001년도 통계를 보면, 세대수 역시 인구수 못지않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족 구성원 일부가 타지로 떠나던 이전의 현상과는 달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타지로 떠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표 1-3-4> 읍·면별 인구 및 세대

(단위 : 명, %, 세대, 인/가구)

구 분	계	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인 구(명)	30,333	10,552	2,972	5,247	3,417	6,156	2,041
구성비(%)	100	34.8	9.8	17.3	11.3	20.3	6.7
가구(세대)	10,625	3,498	1,084	1,868	1,256	2,191	728
세대당인구(인)	2.9	3.0	2.7	2.8	2.7	2.8	2.8

*자료 : 무주군 통계연보(2002)

4. 농가인구

무주군 전체 농가인구는 2001년 12월 말 현재 13,284명으로 전체인구 30,333명의 43.79%를 차지한다. 이는 1995년 50.30%를 고비로 1996년 51.41%, 1998년49.71%, 1999년 41.45% 등으로 일시적인 증가와 감소 상태를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다.

그리고 무주군 농가인구율은 1981~1996년간 72.8%에서 51.4% 급격히 감소하다가 2001 년 12월에 이르러서는 43.79%까지 감소했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감소 요인은 교육문제와 취업문제로 전출자가 늘어난 데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만 전출하거나 취업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의 일부만 전출하였으나, 근래 들어

---

19) 1996년 읍·면별 인구 및 세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 세대, 인/가구)

구 분	계	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인 구(명)	31,531	10,421	3,067	5,289	3,786	6,870	2,098
구성비(%)	100	33.0	9.7	16.8	12.0	21.8	6.7
가구(세대)	10.017	3,187	1,061	1,723	1,255	2.065	726
세대당인구(인)	3.1	3.3	2.9	3.0	3.0	3.3	2.9

자료 : 무주군 통계연보(1997)

서는 가족 구성원 전체가 전출하고 그 중 일부만 직장 등을 연고로 하여 다시 무주로 되돌아 오는 등의 사례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갈수록 노인층의 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유휴농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유휴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표 1-3-5> 농가·비농가 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총인구	농가인구	비농가인구	농가인구율	비고
1981	56,038	40,780	15,258	72.77	
1986	45,908	32,674	13,234	71.17	
1991	35,182	22,686	12,496	64.48	
1996	31,531	16,212	15,319	51.41	
2001	30,333	13,284	17,049	43.79	

참고로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표 1-3-6>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면적 631.76㎢ 중 임야 520.36㎢(82.38%), 전 37.66㎢(5.96%), 답 36.0㎢(5.70%), 하천 15.96 ㎢(2.52%), 도로 8.13㎢(1.29%), 대지 4.85㎢(0.7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임야 및 전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넓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임야의 비중이 82.38%에 이르고 있어, 전형적인 산간지형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농가인구의 비율을 가름하게 한다.

<표 1-3-6>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구 분		계	전	답	임야	도로	대지	하천	기타
무주군	면적(㎢)	631.68	37.66	36.01	520.36	8.13	4.85	15.96	8.71
	구성비(%)	100.0	5.96	5.70	82.38	1.29	0.77	2.52	1.38

제2절 무주군의 생활권

1. 생활권의 특성

현재 1읍 5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무주군의 생활권은 산간지역이 많은 지역적 제한과 주변 대도시와의 연계교통이 원활치 못한 관계로 각 면이 위치한 인근 지역 위주의 생활권이 중심을 이루었다.

즉 무주읍과 적상면을 포함하는 무주생활권, 부남면은 충남 금산생활권, 안성면은 장수 및 전주생활권, 무풍면은 경북 김천생활권, 설천면은 경북 거창생활권 등으로 각기 분산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광역생활권으로 보면, 비록 무주군은 전라북도에 위치하여 전주생활권에 속하나 교통과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대전생활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삼도봉을 중심으로 충남 영동군과 경북 김천시, 경남 거창군 등과도 상호 교류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1997년 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2001년 대전-무주간 고속도로에 이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무주를 관통하게 됨으로써 무주는 내륙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적으로는 전북에 속하지만 국토의 중심부와 고속도로가 관통한다는 점이 부각되어 전북은 물론 충남·북과 경·남북 등으로 생활권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무주군 전체의 생활권은 크게 무주읍과 안성면을 중심으로 생필품 및 농기계류의 구입과 자녀교육 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과 병원시설의 이용 등은 대전이나 전주 등의 도시권으로 흡입되어 생활권의 자족적 기능은 자체적으로 형성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1995년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무주경제 살리기 운동'과 같은 지역개발정책이 추진되고, 문화 및 사회복지 시설 특히 의료시설 등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해 인구유입정책을 펼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2. 생산활동

무주군민의 주된 생업(生業)은 농업 즉 벼농사와 밭농사였다. 그러나 도시화의 물결이

일고, 농기구의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재래식 용구를 이용한 농업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20여 년 전만 해도 '길쌈'을 하는 농가가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사라지는 등 농기구의 현대화로 인해 집단적인 노동이 투자되는 일은 점차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양잠이나 담배 등 사람의 일손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기피 대상이 되고 있으며, 소수만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토리묵이나 메밀묵 또는 두부 등을 만들 때에는 일부에서 여전 히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손수 콩나물을 길러서 먹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반면 축산업(한우, 젖소, 돼지)과 특용작물(인삼, 표고, 호도), 그리고 고랭지 채소, 사과, 옥수수 등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상품이 자급자족을 넘는 범위로 재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급자족하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던 농촌의 생업은 도시화와 대량생산, 농기구의 현대화 등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고 도시 공산품을 구입하게 되면서 '길쌈'같은 의료(衣料)생업활동은 중단되었고, 식생활 풍속도 갈수록 인스턴트화 되고 있다. 명절 때 집집마다 만들던 떡도 떡방아간에서 만들어 오고, 콩을 멧돌에 갈아서 끓이던 두부와 손수 길러서 먹던 콩나물도 대다수가 식품점에서 사다 먹는다. 이러한 분업화 도시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되면서 농촌의 전통적인 생업은 설자리마저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들어 무주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호1품(한마을 한가정 한상품)운동 등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전통적인 생업을 되살리려는 노력은 그 결과를 떠나 적극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 할 것이다.

3. 소비생활

농산물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급자족하면서 잉여영농산물은 재래시장에 내다 팔았으나, 농가소득이 저하되면서 근래에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것보다 식품점에서 사는 경우 가 흔하게 되었다.

간단한 일상용품은 장날에 시장에서 구입[20]하거나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마트 등에서 구입 하고 있으나 대전이나 전주 또는 경북 김천시나 거창, 나아가 대구에서 구입하기도 한다.

---

20) 5일장이 서지 않는 적상면은 무주장이나 안성장을 이용한다. 부남면의 경우는, 간단한 식품은 면소재지에서 소화 하면서 인근의 충남 금산장이나 대전에서 구입한다.

무주군이 행정 구역상으로 전라북도에 속하면서도 충청도나 경상도의 소비생활권에 속하게 된 것은 지리적인 여건에서 볼 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군 자체의 수지타산은 물론 전라북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소비생활권이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4. 의생활(衣生活)

일반적으로 의생활은 기후와 주거생활 등의 생활양식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옛적에는 무더운 여름에는 삼베옷을, 겨울에는 솜을 넣은 무명베옷을 주로 입었다. 명주옷과 모시옷을 입기도 했으나 이는 부유한 계층에 해당되었다. 신발은 짚신을 삼아서 신었고 나막신을 신기도 하였다.

그런데, 개화의 영향으로 서양식 복식제도가 들어오면서 양복의 착용이 점차 확산되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에서는 주로 집에서 주부가 직접 지은 한복이 이용되었으나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진행에 따라 의복의 대량생산체제가 가능해지고, 기성복시대가 열리면서 의생활도 급변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전통복식은 평상복과 노동복 그리고 의례복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평상복은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으로 노동복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오래 입은 후 헌 옷이 된 평상복을 대개 노동복으로 사용하였다. 의례복은 관혼상제에 따라서 엄격하게 지켜졌는데, 현재는 전통 혼례복과 상례복(喪禮服) 그리고 제례복(祭禮服)이 남아 있다. 혼례복은 전통혼례 대신 서양식 혼례가 성행하여 면사포가 등장했고, 제례복도 향교에서 지내는 의례복만 전승될 뿐 자취를 감추고 있다. 아직까지 전통 복식을 가장 많이 고수하는 의례는 상례복인데, 이마저 굴건제복 대신 양복에 상장(喪章)만을 표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생활에 불편한 한복을 개량한 이른바 '개량한복'이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무주에서는 아직까지 두드러진 현상은 아니다.

5. 식생활(食生活)

음식은 조상 대대로 이어 내려온 문화유산으로 주변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음식의 재료가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식은 지방색을 가장 강하게 나타낸다. 음식의 전통은 같은 지방이라 하더라도 주부의 솜씨에 의해서 특징 지워지고,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딸과 며느리로 전해지는 비법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요즘에는 교통의 발달과 빈번한 왕래로 인하여 지방색을 띤 음식들이 줄어들고 있다. 어떤 지방 어떤 가문에서 유명한 음식이 상품화되면, 다른 지방에서 그것을 모방하거나 분점을 내 영업을 하게 되어 향토음식의 독특한 지방색이 사라지고 만 것이다.

무주지방의 음식은 주식에 있어서 다른 지방과 큰 차이가 없다. 국·밥·김치·간장·된 장이 기본이며, 한국 음식이 일반적으로 맵고 짜듯이 이 곳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특색이 있다면, 산간지방 이므로 산에서 나오는 산채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봄이면 산과 들에서 나는 산나물이 입맛을 돋군다.

먼저 산에서 나는 나물로는 취나물·참나물·두릅·삽주싹·홀잎나물·곤달비·원추리·더덕·도라지·고사리 등이 있다. 들에서 나는 나물에는 냉이·씀바귀·참비름·쇠비름·가죽·우엉·자운영·벌금자리·달래·돌나물·불미나리·고수·메밀 같은 나물을 생채로 혹은 숙주나물로 많이 먹는다. 산에서 나는 버섯요리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인데, 송이·냉이·싸리·느타리버섯 등이 대표적이다. 송이버섯은 오래 묵은 소나무 숲에서 자연생산되는데, 무주는 소나무 숲이 발달하여 향이 높은 송이가 많이 생산되었다.

물 좋은 무주의 시냇가에서 나오는 물고기로 만든 다양한 요리가 있다. 무주의 시냇가에는 강의 하류처럼 어족이 풍부하지 않으나 청정지역에 서식하는 피라미·쏘가리·꺽저기·모래무지·빠가사리·메기 등의 요리가 있는데, 특히 이들을 섞어서 끓인 '어죽'이 유명하다.

무주에서 '고동'이라 부르는 다슬기로 끓인 고동국(올갱이)도 향토음식으로 내세울 만 하다. 다슬기는 반딧불 유충의 먹이가 되는데, 과다한 농약 살포로 전국적으로 반디불이가 사라지게 되자, 반디불이의 먹이가 되는 다슬기 서식지역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구천동에서 흘러내리는 설천면 기곡리 앞의 냇물을 다슬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했던 것이다.

무주지방의 평상식은 하루 세 끼니에 밥을 주식으로 한다. 천연재해 등으로 식량난에 부딪쳤을 때에는 고구마나 감자 등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죽을 먹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침식 사는 반드시 밥을 주식으로 하였다. 밥을 주식으로 차릴 때에는 국·간장·김치가 기본이며, 부식으로 곁들인다. 상은 3첩 반상에서 9첩 반상까지 차리지마는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개 3~5첩 반상을 차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사 후에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숭늉을 마시는 풍속이 남아 있었으나, 근래에는 후식으로 커피를 마시는 새로운 풍속이 자리하고 있다.

6. 주생활(住生活)

1) 무주가옥의 일반적 특색

일반적으로 주거생활은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주의 지형은 산간 분지이므로 여름에는 전국 평균보다 1.34도 높고 겨울에는 0.15도가 낮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는 배산임수(背山臨水)로 남향집을 가장 이상적으로 여 기고 있다. 무주의 마을 형태도 이에 맞추어 형성되었다. 즉 무주읍의 경우, 북으로 향로산을 배산으로 하면서 남쪽의 남대천을 바라보며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무주는 산악지역으로 나무가 풍부한 편이다. 이에 따라 목재를 걸어서 짓는 가구식(架構 式) 구조로 대부분 우진각 또는 뱃집 형태의 초가가 많았다. 간혹 팔작의 기와집 형태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관아를 비롯한 전 민가가 불에 타고, 한국전쟁 때에는 관내 전 지역이 폭격으로 불타버려서 전통가옥은 몇 채 남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수복 후 다시 집을 짓거나 1970년대 초 새마을 주택개량사업으로 전통가옥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최근에는 다시 입식부엌으로 개량하고 편리한 양옥의 형태, 즉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바뀌어 화장실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변화를 겪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재래식 구조의 가옥은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전쟁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입은 부남면 대소리 대소마을에 소재한 김호진씨 가옥 은 안채 옆으로 아래채가 있고, 그 건너편에 뒤주와 같이 붙어있는 마굿간과 변소가 있다. 장독대는 마당 쪽에, 우물은 안채와 아래채 사이에 있다. 지붕은 1977년 초가지붕을 스레트로 개량하였다. 이 집의 안채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우진각 지붕이고, 부엌과 큰 방 그리고 작은 방(웃방)으로 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마루가 있었다.[21)]

2) 무주지방의 전통가옥

무주는 산악지역으로 주거형태를 보면, 이른바 전통가옥과 함께 산악지역에만 존재하는

---

21) 무주군, ≪향토문화재지≫, 무주군, 1994, 306쪽.

귀틀집이 있었다.

무주지방의 전통가옥은 일반적으로 자연석(自然石) 주초(柱礎)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부엌과 안방, 웃방으로 구분하며 방 앞에는 마루를 놓고 뒤에는 툇마루를 설치한다. 그리고 부엌과 마루 위 천정은 서까래가 노출되는 연등천정으로 되어 있고, 방은 평천정으로 하며 큰방에는 부엌쪽으로 벽장을 설치하여 작은 살림들을 들여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민 층에서도 생활형편이 조금 나은 가정에서는 정면 4칸 측면 2칸 집으로 부엌·안방·대청· 웃방으로 구분되는데, 대청은 우물마루로 놓는다. 재료는 나무와 흙, 그리고 볏짚 등을 이용 했는데, 현대화되면서 콘크리트와 벽돌, 그리고 쓰레트 등을 이용한 건축양식으로 변화하고, 최근에는 신소재와 철골구조 등을 활용한다.

1990년대 들어 대규모 공동주택 시설인 아파트가 무주읍과 설천면소재지 등을 중심으로 건설되었고, 빌라를 비롯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함께 현대화된 전원주택 등이 형성되고 있다. 반면, 한국전쟁 이후 건립된 개인주택 등은 최근 건립되는 주택에 비해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개량하거나 새로 짓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통적인 농가였던 초가집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서서히 사라져 현재는 구경하기조차 힘들다.

무주지방의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귀틀집이 있었다. 이는 무주지방에 나무가 흔한 관계로 옛날에는 여러 채의 집이 있었다 하나, 1994년 당시 남아있는 귀틀집은 구천동 삼공리 월곡 마을(당골)에 거주하는 송봉갑 댁이었다.

이 집은 우물 정자(井字) 모양으로 귀를 맞추고 층층이 쌓아올린 다음 틈새를 흙으로 발라 벽을 이루었으며, 지붕은 우진각 초가지붕 이었는데, 그 당시는 스레트 지붕으로 개량되어 있었다. 이 집의 구조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부엌·안방·웃방으로 구분되고, 웃방은 다시 2개로 나누어 쓰며 안방 앞에 마루를 놓았다. 또한 아래채도 귀틀집으로 짓고, 방·창 고·변소를 갖추고 있었으며, 아래채 앞에 장독대가 있고 출입문 옆에는 돌담으로 만든 마굿간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 마을에는 이 밖에도 유용학 댁의 아래채, 황종현 댁의 안채, 길운서 댁의 안채, 이점수 댁의 아래채, 박복녀 댁의 안채도 귀틀집이었는데, 모두 한국전쟁 이후에 건축된 것이라 한다.[22)]

그러나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1년 현재 무주군의 대표적인 가옥은 단독주택

22)위의 책, 307쪽.

(전통가옥 포함)과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그리고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무주 읍내에 300세대가 넘는 반딧불 아파트가 건립되고, 주민이 이주하면서 무주군내 단일구역에서는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다.

<표 1-3-7> 주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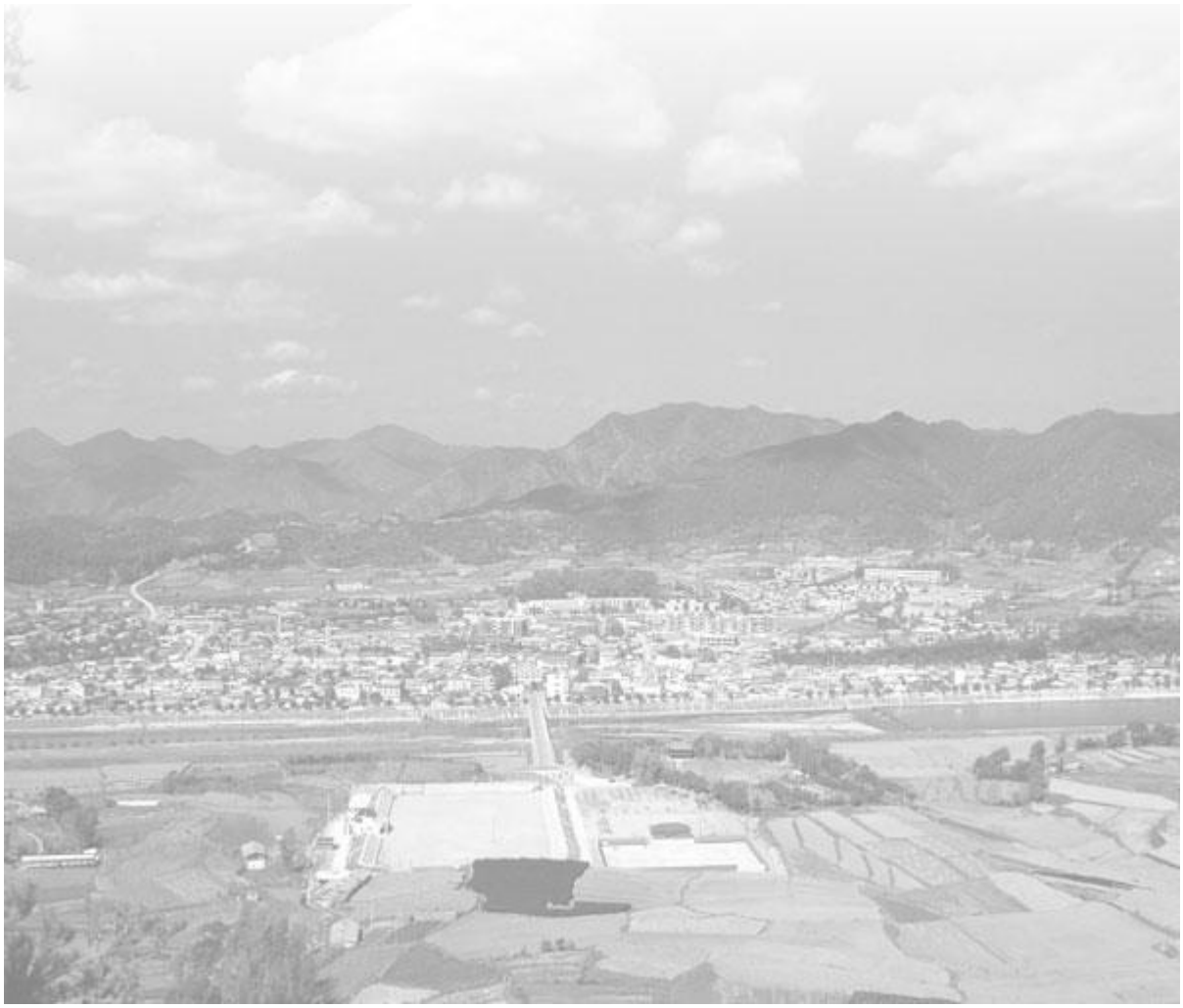
(단위 : 호·명·동)

연도별	세대수	합 계	주택 보급율(%)	주 택 종 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1995	9,919	10,231	103	9,260	206	199	24	542
1996	10,017	9,122	91	8,188	189	179	37	529
1997	10,121	9,735	96	8,647	296	143	120	529
1998	10,208	9,695	95	8,594	296	143	129	533
1999	10,646	10,223	96	9,117	296	143	134	533
2000	10,339	10,127	98	8,632	313	244	134	804
2001	10,625	10,360	97.5	8,648	613	244	34	821

[집필 : 장세길]



제2편 역사(歷史)



제2편 역사(歷史)

제1장 선사시대

제1절 구석기시대

인류가 처음으로 출현하여 살기 시작한 때를 문화사적으로는 구석기시대라고 한다. 구석기시대의 인류는 주로 뗀석기(打製石器)를 사용하여 수렵과 채집생활을 영위하고 주로 자연 동굴을 이용하여 생활하였다. 우리나라의 거의 전역에서 일찍부터 이러한 구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으나 최근까지도 전북지역에서는 구석기문화의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현재까지 무주군에서는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최근 금강의 최 상류인 진안과 금강의 하류지역인 익산 일대에서 유적과 유물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발견되는 구석기 문화를 살펴 봄으로서 무주군에 언제부터 사람이 거주하게 되었는가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금강의 중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익산일대에서는 최근 지표조사를 통하여 구석기 시대의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즉 익산의 창평, 신막, 율촌리, 영등동, 온수리에서 맥석영과 유문암으로 만들어진 찍개, 주먹도끼, 세석기, 돌날석기 등이 발견되었다.[1] 이러한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아닌 지표채집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이들 지역에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증거이며, 석기의 재질과 종류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 판단된다.

1995년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에서는 다양한 시기의 귀중 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정천면 모정리에서 발견된 진그늘유적은 전북 최초로 발굴 조사된 구석기시대의 유적이다.(사진 1)

---

1) 이형우·이영덕, 2000, <익산지역의 구석기 유적>,《호남고고학보》12: 7~46.

유적은 금강의 최상류 지역인 정자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동-남서 방향으로 약 250m, 남동-북서 방향으로 약 180m에 걸쳐 유물이 발견되었다.[2] 유적에서는 '석기 제작소', '완성된 석기구역', '화덕자리'가 발견되어 당시의 살림살이와 공간 사용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1만 여점이넘는 유물이 발견되었다. 석기는 대부분 유문암과 응회암을 비롯한 산성화산암과 석영맥암, 비정질 실리카를 이용하여 제작되었고, 종류를 보면 돌날몸돌과 돌날, 격지, 슴베찌르개, 밀개, 새기개, 긁개, 뚜르개 등이 있다.



〈사진 1〉 진그늘 유적 전경(조선대박물관 제공)

이러한 석기 중 서로 붙는 돌날몸돌과 돌날, 새로운 때림면을 얻으려고 쳐낸 '때림면 격지(Rejuvenation flake of striking platform)', '모서리 돌날(Crest blade)' 등은 돌날 만드는 과정을 자세하게 복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사진 2〉 진그늘유적 출토 슴베찌르개(조선대박문관 제공)

또한 슴베찌르개는 사냥에 사용되는 석기로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가 발견되었고(사진 2) 대전 용호동, 공주 석장리, 단양 수양개, 순천 월평, 밀양 고례리, 그리고 일본과 연해주 지역에서도 발견되어 이들 지역간의 상호교류를 검토하는데 핵심적인 자료가 되리라 판단된다.

진그늘 구석기유적은 발견된 유구의 종류와 규모, 석기 내용으로 볼 때 사냥용 연장을 만들고 잡은 짐승을 처리하던 대규모 '사냥캠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호 화덕자리의 연대가 22,850±350BP이고 출토유물이 후기 구석기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진그늘유적은 대부분 후기 구

2) 이기길, 2001, <진안 진그늘 선사유적 개요>,《한국 농경문화의 형성》, 제 2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석기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후기 구석기시대의 아래층에서 중기 구석기시 대의 석영자갈로 만들어진 몸돌, 여러면 석기 등도 발견되고 공주 석장리 등 금강유역에서 중기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진그늘 유적의 연대는 후기 구석기시대를 훨씬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비록 무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구석기시대의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전 북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예로 보아 향후 조사가 증가하면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금강의 최상류에 위치하고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진그늘유적과 무주지역에도 홍적세층이 넓게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이다.

제2절 신석기시대

기원전 6,000년경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 인류는 이제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 기(磨製石器)를 제작하고 빗살무늬토기로 대표되는 그릇을 제작하여 사용하게 된다. 또한 이 시대의 인류는 수혈움집에 거주하고 수렵과 채집 뿐만이 아니라 원시적인 형태의 농경을 실시하게 된다. 전북 지역에서는 부안군 계화도와 군산 선유도에서 신석기시대 조개무지가 조사된 이래 1990년대에는 비응도, 노래섬, 가도, 띠섬, 오식도, 내초도, 말도, 덕도 등 서해안 의 대부분의 섬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이 조사되고 있다.

전북의 평야지대 및 도서지역과 달리 동부 산악지대에서는 최근까지도 주목할 만한 신석 기시대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비록 인근 내륙지역인 영동 금정리[3], 장수 남양리[4]와 월곡 리[5], 남원 대곡리[6]에서 빗살무늬토기를 위시한 신석기시대 유물이 수습되어 내륙 깊숙이 신석기시대의 문화가 형성되었음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들 유적에서는 당시의 유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문화양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용담댐 수몰지역 내의 농산·갈머리·진그늘·여의곡·안자동·승금·용평리유적에서 신석기시대의 다양

3) 이융조·신숙정, 1988, <중원지방의 빗살무늬토기 고찰>,《손보기박사 정년기념 고고인류학 논총》
4) 윤덕향, 2000,《남양리》, 전라북도 장수군·전북대학교박물관.
5) 윤덕향·강원종, 2001, <장수 월곡리 유적>, 《유적조사보고서》.
6) 전북대박물관, 2001,《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지역 문화재발굴조사약보고서》, 유인물.

한 유구와 유물이 발견되어 전북 내륙지역 신석기 문화의 발전양상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7]. 구석기시대와 마찬가지로 무주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신석기시대 유적이나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인근지역의 양상을 살펴 봄으로서 무주지역 신석기문화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용담댐 수몰지구내의 여러 지점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되었지만, 그 중에서 갈머리유적이 대표적이다. 갈머리유적은 S자형으로 곡류하는 정자천변 의 충적대지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생활유적으로 집터 2기와 야외화덕자리로 추정되는 원형의 집석유구 53기, 이형유구 3기가 조사되었다.[8]



〈사진 3〉 갈머리유적출토 빗살무늬 (호남문화재연구원 제공)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종류는 다양한데 능형(菱 形)·삼각집선문(三角集線文)과 금강식토기, 조우문 (鳥羽文), 격자문토기, 구연이 외반된 자돌점열문(刺 突點列文), 이중구연토기(二重·緣土器)가 주로 발견 되었고, 지자문(之字文) 호형토기(壺形土器), 단사(短 斜)집선문, 종주(縱走)·횡주어골문(橫走魚骨文), 구 순각목문(·脣刻目文)의 토기도 일부 발견되었다.(사 진 3) 석기는 굴지구와 갈돌, 갈판이 가장 많이 출토되 었고 이외에 돌화살촉, 돌도끼, 숫돌, 환형석기(環形石 器), 발화석(發火石), 무늬새기개 등이 발견되었다.

갈머리유적의 연대는 출토된 토기의 양상으로 볼 때 크게 3시기로 나누어진다. 1 기는 단사집선문·조대문·뇌문·조우문·능격문이 시문된 토기가 출토되는 시기로서 기원전 4000년기 후반이다.

II기는 격자문·점열문이 시문되는 봉계리식토기가 발견되는 기원전 3000년기 전반기 이다. 마지막 III기는 횡단선문·사단선문과 이중구연토기가 발견되는 시기로서 기원전 3000년기 후반기로 볼 수 있다. 갈머리유적에서 보이는 이와 같이 유구와 토기상은 인근의 농산, 진그늘, 여의곡, 안자동, 승금, 용평리 등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기원전 3,000년 에서 2,000년 사이에 진안 일대 하천변의 충적대지상에는 수많은 신석기인들이 거주하였던

7) 김승옥·이종철, 2001,《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VIII-여의곡유적》
8) 이영덕, 2001, <진안 갈머리(갈두)유적 발굴조사 개보>,《한국 신석기시대의 환경과 생업》,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 연구소.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금강 최상류에서 최근 들어 신석기시대 유적들의 발견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 하천이 산지 사이를 곡류하다 만든 충적대지에 입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적이 충적대지에 입지하는 이유는 하천과 산을 끼고 있어 농경과 수렵채집 등의 생계방식을 통한 안정된 정착생활을 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신석기시대인들이 생활 하기에 적합한 충적대지는 무주지역의 구량천과 남대천일대에 넓게 분포한다. 따라서 무주 지역 일대에서도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면 진안 일대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신석기시대 의 유적과 유물이 다수 발견되리라 예상된다.

제3절 청동기시대

1. 사천리 지석묘

사천리 지석묘는 적상면(赤裳面) 사천리(斜川里) 답 515-21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점에 는 2기의 지석묘가 위치하고 있었고, 1982년 논의 소유주가 2기 중 1기의 상석을 제거하다가 돌검(磨製石劍)과 돌화살촉(磨製石鏃)이 발견되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9] 조사된 지석 묘는 지하에 굴광을 하고 매장시설을 만든 다음에 상석을 덮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사진 4) 보고자는 상석아래에 3개의 지석이 놓여 있는 바둑판식 지석묘(남방식지석묘)로 판단하고 있다. 상석의 형태는 판상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 길이 3.0m, 폭 2.35m, 두께 0.46m이다.

조사된 지석묘의 매장주체시설은 석관으로서 남북방향을 하고 있다. 석관은 얇은 판석을 이용하여 축조된 형태인데 석관의 외곽에는 자갈돌을 쌓았고 바닥에는 자연판석 4매를 깔았다. 석관의 규모는 길이1.55m, 폭



〈사진 4〉 적상면 사천리 지석묘

9) 전영래, 1990,《문화재지》, p. 96, 전라북도.



〈사진 5〉 적상면 사천리 지석묘 출토 유물

0.55m, 높이 0.50m이다. 석관은 판석을 이용하여 이중으로 덮여 있어 전체적으로 지석묘는 석관 위에 이중으로 뚜껑돌 을 올리고 그 위에 상석을 올리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사천리 지석묘에서는 돌검 2점과 돌화살촉 4점이 발견되었는데, 돌검 1점과 돌화살촉 2점은 파손되어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다. 형태가 남아 있는 돌검은 전형적인 일단병식이고 돌화살촉도 전체적으로 세장한 모습을 보이는 유경식이다.(사진 5).

2. 길왕리 지석묘

적상면 길왕리의 마을 앞을 흐르는 개천가와 개천 둑 근처에는 여러 개의 부정형 할석이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부정형 할석이 모두 지석묘의 상석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이중 1기는 하부에 3개의 지석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사천리 지석묘와 유사한 형태의 지석묘일 것으로 보인다[10]. 또한 길왕리 마을회관 근처에는 4기 이상의 고인돌로 추정되는 유구가 존재하는데, 이중 1기에서는 유경식 석촉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5~6점 출토되었다고 전해진다. 길왕리의 이러한 유구들은 대부분 지표조사와 동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 확인되어, 이들 모두가 지석묘인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지석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장기리 선돌

장기리 선돌은 안성면 장기리 이목마을에 자리하고 있다.(사진 6). 장기리 하이목에서 안성 장기리로 가는 도로변 좌측 논가에 2기의 선돌이 위치하고 있는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본래 이러한 선돌이 7기 정도 있었다고 한다[11]. 장기리 선돌 1기는 규모가 높이 157cm,

10) 전북대학교전라문화연구소, 1997,《대전-진주(무주-장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전라문화연구소연구보고서 97-2.

11) 전주대학교박물관, 1998,《무주지방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전주대학교박물관·전라북도무주군.

장폭 59.5cm이고 다른 1기는 높이 157cm, 장폭 60cm, 둘레 227cm이다. 이들 2기의 선돌은 원래 도로변에 있었던 것을 도로확장 포장사업으로 현재의 위치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로 볼 때 장기리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선돌은 지석묘와 함께 거석문화(巨石文化)의 일종인데 청동기시대와 조선시대에 축조되고 두 시간대 사이에 축조된 예는 거의 없다. 따라서 장기리의 선돌을 막연히 청동기시대 의 유구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진 6〉 안성면 장기리 하이목 선돌

예를 들어 진안군에서도 현재까지 선돌이 17기 확인되고 있는데, 일부는 조선시대에 축조되었고 대부분은 연대를 알 수 없는 것들이다.[12] 17기의 선돌 중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진안군 상전면 금당리의 선돌 3기만 하더라도 발견된 유물이 모두 조선시대의 백자편이고 주변에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전혀 발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동기시대의 선돌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 장기리 선돌의 경우 도로변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동할 당시 정식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축조 연대와 성격을 알 수 없는 형편이다.

4. 기타 유적 및 발견유물

이상의 유적 외에도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를 통해 무주지역 청동기 문화의 흔적을 엿볼수 있는 유물들이 발견된 곳이 있다. 먼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구간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가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발굴조사 결과 길왕리에서는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 저부 4점이 출토되었다.[13] 무문토기가 출토된 지점과 주변지점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이루어졌지만 특별한 유구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문토기 저부가 출토되었고 주변에 지석묘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걸로 보아, 이 지역일대에는 청동기시대인

12)윤덕향·이민석·장지현, 2001, <구룡리 금당 입석>,《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VI》

13)전북대학교박물관·군산대학교박물관, 2000,《대전-통영간 고속도로(무주-장계구간) 건설공사 문화유적발굴조 사보고서》

들이 거주했고 이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이 인근에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무주군에서는 설천면 청량리 1074번지 일대에 반딧불이 환경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공사 시행 전에 이 지점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14] 지표조사 결과 고려시대 및 삼국시대 유물들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청동기시대의 마제석촉 1점이 수습되었다. 발견된 마제석촉은 유경식석촉의 편으로서 지표조사를 통해 수습되었기 때문에 이 지점에 유적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제석촉이 발견된 지점은 남대천변의 저평한 충적대지이기 때문에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밀조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무주군 선사문화의 특징 - 청동기시대를 중심으로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무주지역에서는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주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금강 최상류의 진안군 정천면 진그늘유적에서 중기 구석기시대에서 후기 구석기시대에 걸친 대규모의 유적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향후 무주 지역의 역사는 중기구석기 시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강 중류지역의 대전 용호동, 노은동, 공주 석장리유적에서 다양한 구석기시대의 유구와 유물이 발견되는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예이다. 이웃 전남지역에서는 1990년대 이후 활발한 조사를 통해 무려 80여 군데의 구석기 출토지점이 보고되어 전남의 도처에 구석기인들의 문화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데, 이 또한 무주지역에 구석기문화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료이다.

구석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무주지역에서 신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근 지역의 다양한 신석기시대의 유적의 존재로 볼 때, 같은 금강 상류인 무주지역 일대에서 향후 조사가 증대되면 많은 유적이 발견될 것으로 판단 된다. 무주지역과 인접한 진안고원은 섬진강 수계의 발원이기도 하고 남강 수계와도 쉽게 연결되는데, 이 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 토기의 양상으로 볼 때 서해안보다는 남해안적 요소가 중심을 이룬다. 또한 무주지역에서는 진안 일대의 유적, 대전 둔산, 청원 쌍청리,

14) 김승옥·이민석, 2001,《무주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예정지구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전북대학교박 물관·(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영동 금정리와 연결되는 금강식 토기문화가 발견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무주지역의 신석기 문화는 금강, 섬진강, 남강변에 위치한 동시대의 문화와 상호교류 및 접촉을 활발히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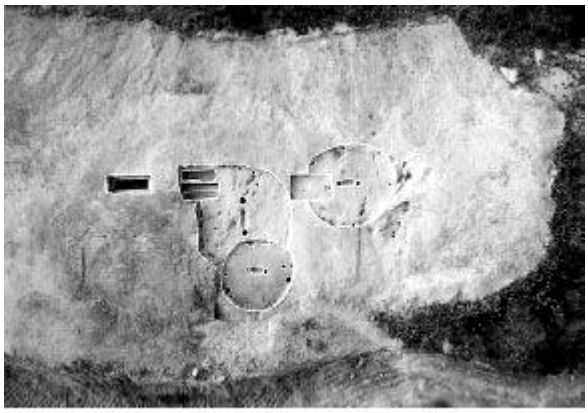
무주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는 사천리와 길왕리의 지석묘가 있고 무문토기 저부와 석촉이 발견된 지점들이 있다. 무주지역 청동기시대의 문화적 특징은 이러한 유적과 유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상기한 유적 중에서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은 사천리에서 발견된 지석묘 1기가 전부이다. 또한 장기리 선돌유적은 오래 전에 이동이 이루어졌고, 이동당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동기시대의 유구인지 조선시대의 유구인지도 알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 때문에 무주군의 청동기문화의 성격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논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용담댐 수몰지구에서 발견된 청동기문화의 특징을 논함으로서 무주지역 청동기문화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주 지역과 진안 지역은 같은 금강상류의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청동기문화를 이룩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용담댐 수몰지구내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무덤유적과 주거유적으로 대별된다. 무덤유적은 정천면 진그늘[15], 모곡[16], 망덕[17], 여의곡[18], 안천면 구곡, 수좌동[19], 안자동[20], 풍암유적[21]에서 130여기가 조사되었으며, 상전면은 월포리[22]에서 수 기의 지석묘가 조사되었다. 이외에 용담댐 수몰지역은 아니지만 진안 마령면 평지리[23]에서도 1기의 지석묘가 조사된 바 있다. 용담댐 수몰지구내에서 확인된 주거유적은 여의곡과 인근의 농산[24], 그리

15)윤덕향·박영민·장지현, 2001,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II》
16)김승옥·이종철·조희진, 2001,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II》
17)호남문화재연구원, 2000,〈진안 망덕 무문토기시대 유적>,《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4차 발굴조사 및 지석묘 이전복원》, 지도위원회의자료.
18)김승옥·이종철, 2001, 전게서.
19)신대곤·김규동, 2001,《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III》.
20)신대곤·김규동, 2001, 전게서. 김승옥·이종철·김은정, 2001,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II》
21)김승옥·이종철·조희진, 2001,《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X-풍암유적
22)곽장근·한수영·조인진, 1998,《진안 평지리 고분군》, (재)백제문화개발연구원·군산대학교박물관.
23)곽장근·한수영·조인진, 1998,《진안 평지리 고분군》, (재)백제문화개발연구원·군산대학교박물관.
24)김승옥·이종철·김은정, 2001,《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IX-농산유적》

고 진그늘[25]과 수좌동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청동기시대의 유적 중에서 여의곡유적은 청동기시대의 대규모 복합유적으로서 주거지, 무덤, 밭, 구상유구, 상석 이동로, 집석유구 등이 발견되어 이 시대의 문화상을 대표할 수 있는 유적이다. 여기서는 여의곡을 중심으로 청동기문화의 특징을 논하고 필요한 경우 인근의 유적도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여의곡유적은 정자천과 상전면으로부터 흘러오는 금강이 합류하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유적의 주변으로 넓은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어 청동기시대의 대규모 집단이 생활할 수 있는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유적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커다란 취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체공간은 다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영역, 경작지와 같은 생산영역, 장송의례가 행해지는 매장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여의곡유적의 공간배치는 최근 여러 지역에서 조사된 유적, 예를 들어 대구 동천동유적, 진주 대평리유적과 상촌리유적, 산청 묵곡리 유적에서 보이는 공간조직과 매우 유사하다.[26]



〈사진 7〉 여의곡유적 주거지

여의곡유적에서 주거지는 모두 7기가 확인되었다.(사진 7).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원형이나 타원형을 하고 집터 내부 중앙에 타원형 작업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양단에 기둥을 설치한 소위 송국리형 주거지이다. 인근의 농산유적에서는 방형계의 주거지도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여의곡유적에도 방형계의 주거지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여의곡의 주거지는 평지 혹은 평지와 야산이 만나는 지점과 야산 정상부의 평탄면에 축조되었다. 야산쪽은 과거 토취사업으로 인해 상당부분이 삭평됨에 따라 전체 취락의 규모를 단정하기가 어렵지만 유적에서 함께 발견된 무덤의 수량과 밭, 구상유구의 축조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감안할 때 삭평된 부분에도 많은 주거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5) 김은정·김선주, 2001, <진안 진그늘 신석기유적>,《호남지역의 구석기문화》, 제 9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 요지.

26) 이상길, 2000, <남강유역의 농경-대평지역 밭을 중심으로->,《진주 남강유적과 고대일본》, 경상남도·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주거영역에서는 저장고로 추정되는 구덩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고상가옥의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농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각 주거지에 별도의 저장고가 확인되지 않는 점과 주거영역에서 저장구덩이가 발견되지 않는 점은 의문을 남긴다. 그러나 인근의 농산유적에서는 100기 이상에 달하는 원형과 방형의 유구가 발견되었는데 이들 시설은 저장시설, 야외 노지, 폐기장 혹은 제사 관련시설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의곡유적에서 발견된 대규모의 전작지를 감안할 때 여의곡에서도 수확한 식량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영역 주변에서 폐기장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생활쓰레기나 의례행위 등의 잔존물로 여겨지는 단편적인 흔적은 일부 발견되었다. 즉 집석유구에서 소할석과 대량의 토기편과 석기편 등이 섞여서 출토되었고, 이러한 집석유구는 동일 공간의 세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규모가 가장 큰 유구는 단독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나머지는 무덤 주변부에 형성되어 있다. 이들 유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출토된 토기류의 대부분이 마모가 심해 생활쓰레기였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집석유구는 폐기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호남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여의곡유적의 밭은 대략 107m×40m의 범위로 1,300평 정도가 확인되었지만 훼손된 부분을 감안하면 원래는 이보다 훨씬 대규모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밭고랑은 야산으로부터 하천변의 방향으로 뻗어있어, 등고선의 방향과 직교하도록 조성되어 있다. 밭에서는 고랑과 두둑이 확인되었고, 이들 사이에서는 토기편과 석기편 등이 일부 출토되었다. 밭에서 채집된 토양내의 식물 규소체 분석결과 여의곡에서는 조, 피, 율무, 기장등과 벼가 재배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곡의 밭에서는 작물을 식재했던 구덩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고랑과 두둑 모두에서 규소체가 발견되고 있어, 작물이 고랑에서 재배되었는지, 혹은 두둑에서 재배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상대적으로 두둑에서 아령형의 규소체가 다량 검출되었고 강모규소체도 두둑에서 상당량이 검출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랑을 파면서 두둑을 만들고 두둑에 작물을 식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남강댐 수몰지구에서 발견된 대평리유적[27]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랑에 작물을 식재한 구덩이가 발견되지 않는 점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야트막한 경사면에 조성된 밭은 등고선방향과 직교하도록 고랑을 만듦으로서 자연

27)이상길, 2000, 전게논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두둑에 식재된 작물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까지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정한 방향과 거의 동일한 길이로 조성된 고랑의 형태는 부분적으로 단절되어 있지만, 대부분 하나의 고랑을 이루면서 거의 등 간격을 이루는 형상을 하고 있다. 1300여평 이상의 대지에 조성된 이러한 밭이 당시 어떤 형태로 경영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단위별로 구획되지 않은 남강유적의 밭이 집단적인 공동경작 형태로 경영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처럼[28] 여의곡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경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공동경작에 따른 분배제에 대해서는 추론이 불가능하지만 여의곡유적에 조성된 무덤의 배치형태로 보아 가족공동체 혹은 세대공동체별 구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3~4기의 무덤이 하나의 무덤군을 이루는 무덤단위는 전체 취락내의 사회적·친족적 단위를 시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가 공동경작에 따른 공동분배체제의 기본 단위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진 8〉 여의곡유적지 지석묘



〈사진 9〉 여의곡유적 지석묘군

지석묘를 축조하는데 있어 수 톤에서 수십 톤에 달하는 상석을 운반하는 작업은 대규모의 노동력과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최근까지 한국에서 무수히 많은 지석묘 유적이 발굴 조사되었으나 지석묘의 상석을 운반했던 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단지 채석장으로 추정되는 장소나 상석의 석질 분석 등으로 무덤군과의 연관성을 추정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여의곡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확인된 상석 이동로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여의곡에서 확인된 상석 이동로는 통나무를 겹쳐서 레일형태로 만들고 그 위에 상석을 운반하기 위한

28)이상길, 2000, 전게논문.

시설을 한 뒤에 상석을 고정하여 이동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의곡유적에서 무덤은 모두 65기 정도가 확인되었는데 지석묘가 41기, 석관묘는 12기, 석개토광묘는 3기, 옹관묘 1기가 발견되었다.(사진 8, 9) 석관묘는 일단토광과 이단토광의 형식이 발견되었고 석개토광묘 역시 일단과 이단의 구조가 보인다.29) 용담댐 수몰지구에서 발견된 지석묘의 공통적인 형태적 특징은 방형이나 타원형의 묘역부를 갖추고 단독으로 축조되거나 서로 연접되어 축조된다는 점이다. 연접묘는 3~4기정도의 개별 무덤들이 서로 연접하여 축조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3~4기의 무덤이 여의곡무덤의 기본적인 무덤단위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무덤단위가 당시 취락의 기본단위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동족마을과 같이 여의곡의 전체 구성원은 친족적으로 가까운 자들이었을 것이고, 전체 구성원내에서도 친족적으로 가까운 여러 개의 집단이 있었을 것이다. 친족적으로 가까운 이러한 소집단이 여의곡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무덤군을 이루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의곡유적은 이상과 같은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되어 오랜 기간동안 취락을 형성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수십 기에 이르는 지석묘, 길이가 100여미터 이상되고 깊이가 50~100cm에 이르는 구상유구나 지석묘 상석을 옮기기 위한 길, 1300평 정도의 밭 등을 고려할 때 당시 금강상류의 진안 일대에서 가장 중심적 세력이 여의곡 유적을 점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의곡을 위시한 용담댐 수몰지구내에서 발견되는 토기는 대부분 외반구연 호와내만구연 심발, 소형토기, 천발, 홍도 등이 출토된다. 석기도 다양하게 발견되는데 석촉, 석검, 석도, 유구석부, 석부, 석착, 대팻날, 방추차, 어망추, 갈돌 및 갈판 등이 주로 출토된다. 이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석기는 석촉과 석검이다. 예를 들어 여의곡유적의 무덤유구에서 출토된 석촉과 석검을 보더라도 전자는 90점, 후자가 44점이 발견되어 단일유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양이 발견되었다.(사진 10)



〈사진 10〉여의곡유적 출토석검

여의곡유적을 위시한 용담댐의

29) 김승옥, 2001, <금강유역 송국리형 묘제의 연구-석관묘·석개토광묘·옹관묘를 중심으로>,《한국고고학보》 45: 45-74.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구의 성격, 방사성탄소연대를 고려할 때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기원전 10세기 전후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최전성기는 7~6세기 정도이며 일부 가장 늦은 시기의 유구는 기원전 4세기까지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금강 상류의 진안일대에 정주했던 청동기시대 취락민의 주거문화와 매장문화에 대해서는 차차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의곡을 제외한 나머지 유적은 총체적인 입장에서 취락을 논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정천면에서 조사된 농산유적은 주거유적만이 조사되어 취락민의 매장유적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고, 이와는 반대로 망덕유적은 매장유적만이 확인되어 그들의 주거문화는 알 길이 없다. 인근의 진그늘유적에서는 주거지 1기와 하부 구조가 완전히 파괴된 수 기의 무덤만이 조사되어 분명한 취락형태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안천면에서 조사된 구곡, 수좌동, 안자동유적에서도 모두 매장유적만이 조사되어, 진안지역에 존재했던 청동기시대 주민들의 주거문화 연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진안일대에서 발견되는 주거지는 매장유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모두 송국리형 주거지이고 출토된 유물도 대부분 송국리형 문화에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진안지역의 대표적인 문화는 송국리형 문화[30]라고 할 수 있다. 금강유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송국리형 유적간의 상호관련성은 하천을 따라 문화의 전파나 파급 혹은 확산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안지역과 거리상으로 가깝지만 지형적인 장애로 인하여 상관관계를 논하기 어려운 황강 유역이나 남강유역은 낙동강이라는 하천을 근간으로 문화적 확산이 진행되어 왔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최근 호남지역의 동서교통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을 넘어 문화적 교류나 정치적 진출 가능성을 제시한 견해가 있다.[31]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고대 문화는 부여나 공주에서 진안을 통해 월성치를 넘어 황강유역으로 넘어가거나 무주 구량천을 따라가다 백두대간의 육십령을 넘어 남강유역으로 전파될 수 있다. 또한 금산과 진안을 통해 무주 남대천을 따라가면 낙동강과 황강유역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러한 동서교통로 연구는 백제, 신라, 가야와의

---

30)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소위 '송국리형 문화'는 부여 송국리유적에서 발견되는 일련의 유구와 유물을 표지로 하는 청동기시대의 독특한 문화체계이다. 즉 송국리유형이란 중앙부에 타원형의 구덩이를 가지고 있는 원형이나 방형의 주거지와 이들 유구에서 발견되는 외반구연의 호형토기, 플라스크형의 단도마연토기, 일단병식석검, 삼각형석도, 유구석부 등이 발견되는 유적을 지칭한다. 송국리형 문화는 기원전 8~7세기경 금강 중하류에서 발생한 이후 호남 전 지역으로 확산된다. 송국리형 문화는 본격적인 논농사를 수반하며 일본에도 논농사를 전해주면서 일본의 야요이 문화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1) 곽장근, 1999,《호남 동부지역의 석곽묘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대외관계를 고려한 것이지만 선사시대에도 이러한 지리적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진안 일대의 금강상류와 무주지역의 구량천과 남대천 일대는 선사시대의 문화가 동서와 남북으로 연결되는 교통 요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주지역과 진안지역이 선사시대의 주요한 문화적 교통로였다는 사실은 고고학적 조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송국리형 주거지가 진안지역에서 발견됨으로써 금강유역의 최상류지역까지 송국리형 문화가 파급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황강유역의 대야리, 임불리, 무릉리 등의 유적과도 문화적으로 연결된다.[32] 또한 남강과 황강에서 발견되는 청동기시대의 무덤유적은 진안지역의 것들과 거의 흡사한 형태와 구조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금강 최상류지역과 남강 및 황강유역 간의 청동기시대 문화적 교류와 전파를 시사하는 유적이 산청 사월리[33], 진주 대촌[34]·대평리 일대[35]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무주지역 선사문화의 기원과 발전과정, 특징을 논하는데 있지만 여러가지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인근지역, 특히 용담댐 수몰지구내에서 발견된 문화유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밖에 없었다. 무주군은 진안군이나 장수군에 비해 금강하류에 위치하고 있지만 금강이 감입곡류하여 전반적으로 골짜기가 좁고 깊으며 지형이 험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의 지류인 구량천과 남대천일대에는 안성분지와 무풍분지가 형성되어 있어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진안이나 장수, 남원 등 인근 지역에 비해 선사시대의 유적이 상대적으로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무주지역은 진안지역과 유사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고 동일한 금강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유적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용담댐 수몰지구에서 수많은 유적이 발견되어 이 지역의 풍부한 선사문화를 발굴하였지만, 그 이전에 이 지역의 유적과 유물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따라서 향후 무주지역의 선사문화를 조명하고 수많은 문화유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주지역 전체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유적이 각종 개발로 인해 훼손될 경우 공사 전에 철저한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길왕리

---

32) 이종철, 2000,《남한지역 송국리형 주거지에 대한 일고찰》,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3) 임효택·조현복, 1999,《산청 사월리유적》, 동의대학교박물관. 이원균·이상률·이창엽, 1998,《산청 사월리 환호유적》, 부경대학교박물관.
34)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1998,《진주 귀곡동 대촌유적》,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경상남도.
35) 조영제 외, 1999,《진주 대평리 옥방 2지구 선사유적》, 경상남도·경상대학교박물관. 이형구, 2001,《진주 대평리 옥방 5지구 선사유적》, 선문대학교·경상남도. 경상남도·동아대학교박물관, 1999,《남강류역 문화유적 발굴도록》.

지석묘나 장기리 선돌의 예처럼 문화유산이란 일단 교란되거나 파괴되면 영원히 되살릴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진안지역에서는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의 많은 유적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여러 지역의 선사문화가 지나는 문화적 가교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서부평야지대의 선사문화는 전라북도의 동부 산간지대에 위치하는 무주와 진안지역을 거쳐 남강과 황강을 거쳐 영남내륙지역으로 전파되고 섬진강을 거쳐 남해안으로 연결되며, 후자 지역의 문화가 역으로 전파되는 길목이 바로 무주와 진안지역이다.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청동기시대에 이어 원삼국시대[36]와 삼국시대[37]에도 무주와 진안지역은 이러한 '문화적 점이지대'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주지하다시피 고고학의 목적은 쓰여지지 않은 역사, 즉 선사시대의 땅에 묻혀 있는 문화를 발굴하여 복원하는 분야이다. 또한 과거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비춰 주는 거울이다. 향후 무주지역의 활발한 문화유적의 조사와 보존을 통해 무주의 과거를 되살리고, 이 글에서 논의한 무주의 선사문화가 다시 쓰여지기를 기대한다.

---

36)김승옥, 2000, <호남지역 마한 주거지의 편년>,《호남고고학보》11: 29-77.
37)곽장근, 1999, 전게서.

제2장 고대사회의 무주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와 군이 그러하듯이 무주군도 두 개의 고을이 통합되어서 하나의 고을이 되었다. 즉, 무주군은 무풍현과 주계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통합되면서 두 현의 앞 글자를 따서 무주군이라 하게 된 것이다.38) 이처럼 지금은 비록 하나의 고을로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두 개의 고을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주군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풍현과 주계현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시대를 구분할 경우, 일반적으로 서양의 구분방법을 따라서 선사, 고대, 중세, 근대, 현대라 하거나, 우리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선사, 삼국, 남·북국, 고려, 조선, 현대로 분류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고대는 고조선과 삼한, 삼국시대까지를 의미하고 남·북국시대와 고려를 중세라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향은 삼국시대와 남·북국 시대까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을 따라서 고대라 했을 때에는 고조선과 삼한 그리고 삼국과 남·북국시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남·북국시대의 범위는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발해가 건국된 이후부터 고려가 건국되기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 그런데 고려가 건국되기 이전의 몇 십 년간은 신라가 다시 후백제와 고려·신라로 분리되는데, 이 시기를 따로 후삼국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삼한시대와 삼국시대, 남·북국 시대 그리고 후삼국시대로 시기를 분리해서 다루고자 한다.

---

38) 이 외에도 부리현(富利縣)이 있었다. 이 부리현은 지금의 충남 금산군 제원면 남부와 부리면, 그리고 무주군 부남면 지역 일대였다. 하지만 부남면은 계속 금산군에 속해 있다가 1895년에 금산군에서 무주군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주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은 무풍현과 주계현이다.

제1절 삼한시대

일반적으로 삼한시대라 하면 우리나라의 남부에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삼한이 정립되어 있던 시기이다. 하지만 삼한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점은 아직도 명확하지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동기 시대부터는 각 지역에 소국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철기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발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삼한은 청동기시대 혹은 철기시대부터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청동기 시대의 시작은 정확하지 않지만 대체로 서기 전 10세기경부터이고, 철기시대는 서기 전 300년경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삼한의 형성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서기 전 194년에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쫓겨 한의 땅으로 이주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한의 형성은 이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참조하여본다면 처음 무주 지방에 어떤 정치세력이 형성되었다면, 그 시기는 청동기시대 혹은 철기시대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때부터 무주지방에도 어떠한 국가가 존재하였을 것이고, 이 국가는 삼한 중 어느 하나에 속하였을 것이다.

한편, 삼국시대 무주 지역은 무풍현과 주계현 그리고 부리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현들이 이전의 정치세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현'으로 편성되었을 것이므로 무주지방에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정치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 무주지역에 정확히 몇 개의 정치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들이 삼한 중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백제는 마한의 영역을 점령하면서 발전하였으며, 신라는 진한과 변한의 영토를 차지하면서 발전하였다. 한편 부리현은 백제의 두시이현이었으며, 주계현도 백제의 적천현이었다.[39] 그리고 무풍현은 신라의 무산현이었던[40] 것으로 보아서 부리현과 주계현 지역은 마한에 속하였을 것이고, 무풍현 지역은 진한이나 변한에 속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39) 進禮郡 本百濟進仍乙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 三 伊城縣 本百濟豆尸伊縣 景德王 改名 今 富利縣 淸渠縣 本百濟 勿居縣 景德王 改名 今因之 丹川縣 本百濟赤川縣 景德王 改名 今朱溪縣(·삼국사기· 권제 36, 잡지 제 5, 지리 3, 진례군)

40) 開寧郡 … 茂·縣 本茂山縣 景德王改名 今因之(·삼국사기· 권 제 34 잡지 제 3 지리 1 개령군)

한편 이 지역에 대한 고고학 발굴 결과, 주변에서 가야계통에 속하는 토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문화적으로는 가야의 전신인 변한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록 그렇다고는 하지만 진한과 변한, 마한의 경계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한과 변한 중 어디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이와 같이 무주지역에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국가들이 존재했을 것이지만 이들이 삼한 중 어디에 속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백제와 신라가 점차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곳도 각기 백제와 신라의 영역에 편제 되었다.

제2절 삼국시대와 나제통문



백제와 신라의 국경검분소를 재현한 나제동문

여기에서 삼국시대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와 백제·신라가 상호 정립했던 시기를 말한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삼국시대는 신라에 의해서 대가야가 점령 당한 서기 562년부터 고구려가 멸망한 서기 668년까지의 약 100여년 간의 기간에 불과하다. 즉 대가야가 멸망하기 이전에는 고구려와 백제·신라 그리고 가야와 많은 작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시기이다. 하지만 고구려와 백제·신라가 각기 나라를 세우고,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기 전까지의 시기를 우리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삼국시대라 하므로, 여기에서도 이에 따라서 삼국시대는 백제와 신라가 건국되면서부터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를 말한다.

한편, 백제와 신라·가야는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각기 마한과 진한 또는 변한의 영역에 속해있던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며 영역을 확장해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한과 진한 또는 변한에 속해 있었을 무주지역의 소국들도 백제와 신라와 가야의 영역에 편제 되었다. 즉, 무주지역의 일부는 백제의 영토가 되어 두시이현과 적천현이 되고, 일부는 신라의

영토가 되어 무산현으로 개편되었다. 그런데 안성읍 공진리 마암마을의 남쪽에 있는 고분군들이 문화적으로 가야계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가야의 지배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신라가 무주지역에 진출하게 된 것은 서기 3세기경으로 보인다. 즉, 서기 231년에 이찬 우로로 하여금 감문국(甘文國)을 점령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감문국의 영역은 그 정확한 판도를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지금의 김천시 대부분과 구미시를 포함하는 선산군의 서부까지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감문국은 김천 분지의 중앙에 도읍하여 그 영토가 동으로는 낙동강, 서쪽으로는 추풍령에 이르고 북쪽과 남쪽으로는 산지를 경계로 상주와 고령 등과 접경 하였을 것이다.[41)]

그런데 후에 신라는 감문국이 있던 곳에 개령군을 설치하고 무풍에 있던 무산현을 통솔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신라는 감문국을 점령하면서 이 지역까지 차지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신라는 서기 231년 감문국을 점령함으로 해서 이곳 무풍면 지역까지 점령한 것이다. 이곳을 점령한 신라는 지금의 무풍면 현내리 거문들 마을 일대에 성을 쌓고 치소를 설치하여 무산성이라 이름하고서 백제와 대치하였다. 비록 그렇다고는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안성읍 지역에서 가야계통의 고분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무주에서 의 신라와 가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한편, 백제가 무주지역에 진출한 정확한 시기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백제는 온조왕대에 이미 금강유역까지 진출했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곳 무주지역 까지 차지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정확한 연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백제는 무주읍 읍내리와 대차리 경계지역인 이른바 성안이라는 곳에 적천현을 두고서 지금의 무주읍 일대를 통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도 무주읍의 진산인 향로산에서 서남으로 흘러내린 능선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동헌터로 보이는 축대와 둘레 약 1㎞정도 되는 성곽이 보존되어 있다.[42)] 이곳이 백제의 적천현 치소로서 이곳을 중심으로 동쪽의 신라와 대치하였던 것이다.

즉, 백제는 지금의 무주읍 지역에 적천현(赤川縣)을 두고 통치하였으며, 지금의 금산군

---

41) 최병운 ·신라 상고의 영토 변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125쪽.

42) 이 성의 동문지로 보이는 동북쪽은 흙과 돌을 섞어서 쌓은 토석혼축성(土石混築城)으로 축조되었고 그 이외는 모두 석성으로 축조되었다. 이 성의 남쪽과 북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이중 남쪽은 약 50m의 절벽으로써 그 밑에는 무주읍내를 관류하고 내려온 남대천(옛날의 적천)이 벼랑을 스치고 휘돌아 강선대를 향해 흘러간다.

부리면에 두시이현(豆尸伊縣)을 두고 지금의 무주군 부남면 지역을 통치하였다. 반면 신라 는 지금의 무풍면 지역에 무산현(茂山縣)을 두고서 통치한 것이다.

이러한 백제와 신라의 대치는 삼국시대 내내 계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곳에서의 직접적인 전투에 대해서는 백제의 의자왕대에 가서야 기록에 나타난다. 의자왕대 무주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전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자왕 2년(642) 가을 7월에 왕이 친히 병사를 거느리고 신라를 공격하여 미후 등 40여 성을 빼앗았다. 8월에 장군 윤충에게 병사 1만을 주어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대야성의) 성주 품석과 그 처자가 나와서 항복하자 윤충이 이들을 모두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 왕도에 보냈다. 사로잡은 남녀가 1,000여 인이었다.[43]

> 선덕왕 11년(642) 가을 7월에 백제 의자왕이 병사를 크게 내어 공격하여 나라의 서쪽에 있는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다. … 이달(8월)에 백제의 장군 윤충이 병사를 거느리고 대야성을 공격하여 도독 이찬 품석과 사지 죽죽·용석 등을 모두 죽였다.[44]

위의 기록과 같이 백제는 서기 642년 7월에 신라를 공격하여 신라의 서쪽에 있는 40여개의 성을 빼앗았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의자왕은 윤충을 보내어서 대야성을 점령하게 하였다. 대야성은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에 있었다. 한편, 이곳은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넘어 가는 주요 통로의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이곳에 김춘추의 사위인 품석을 성주로 임명한 것이다.

한편, 서기 642년 7월에 백제에서 점령한 40여 성은 아마도 김천을 비롯한 경상북도 동부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계속해서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 의자왕 4년(644) 가을 9월에 신라장군 유신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7개의 성을 빼앗았 다.[45]

---

43) 義慈王 二年 秋七月 王親帥兵侵新羅 下獼猴等四十餘城 八月 遣將軍允忠 領兵一萬 攻新羅大耶城 城主品釋與妻子 出降 允忠盡殺之 斬其首 傳之王都 生獲男女一千餘人 (『삼국사기』 권 제 28, 백제본기 제 6)

44) 善德 十一年 秋七月 百濟王義慈大擧兵 攻取國西四十餘城 … 是月 百濟將軍允忠領兵攻拔大耶城 都督伊·品釋王舍知竹竹王龍石等死之(『삼국사기』 권 제 5 신라본기 제 5)

45) 義慈王 四年 秋九月 新羅將軍庾信領兵來侵 取七城(『삼국사기』권 제 28, 백제본기 제 6)

선덕왕 13년(644) 가을 9월에 왕이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삼고 병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하게 하였다. (김유신이) 크게 이기고 7개의 성을 빼앗았다.[46)]

(선덕왕) 13년 가을 9월에 왕이 (김유신을) 상장군으로 삼고 백제를 공격하게 하였다. (김유신이) 병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하여 가혜성(加兮城), 성열성(省熱城), 동화성(同火城) 등 7개의 성을 빼앗았다. 이로 해서 가혜진(加兮津)이 열렸다.[47)]

이와 같이 서기 642년에 신라는 백제에게 대야성과 서쪽의 40여성을 함락당하는 큰 피해를 보자, 2년후인 서기 644년에 김유신을 상장군으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하게하여 7개의 성을 빼앗게 하였다. 이때 김유신이 빼앗은 성은 가혜성, 성열성, 동화성 등 7군데이다.

이중 가혜성은 『대동지지』와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일대이다. 그리고 성열성은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이다.[48)] 마지막으로 동화성은 지금의 경북 구미시 인의동(옛날의 칠곡군 인동면) 일대이다.[49)] 즉, 김유신이 점령한 백제의 7성은 의자왕대에 점령한 40여 개의 성 중 일부일 것이다. 그러므로 의자왕이 빼앗은 신라의 40여개의 성도 이처럼 경북 고령군과 구미시 그리고 경남 의령군 일대까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경북 고령과 구미, 경남 의령 등지에서 전투가 있은 이후 무주 지역에서도 백제와 신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의자왕 7년(647) 겨울 10월에 장군 의직으로 하여금 보병과 기병 3,000명을 거느리고 진격하여 신라의 무산성 아래에 진을 치고 병사를 나누어서 감물과 동잠 2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그러자) 신라 장군 김유신이 병사들을 독려하여 결사적으로 싸워 결국 크게 패하고 의직은 홀로 돌아왔다.[50)]

---

46)善德 十三年 秋九月 王命庾信爲大將軍 領兵伐百濟 大克之 取城七(『삼국사기』 권 제 5 신라본기 제 5)

47)(善德王) 十三年 秋九月 王命爲上將軍 使領兵伐百濟加兮城·省熱城·同火城等七城 大克之 因開加兮之津(『삼국사 기』 권 제 42 열전 1, 김유신 상)

48)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291~292쪽.

49)전영래 『백제 남방 경역의 변천』『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1985, 156쪽.

50)義慈王 七年 冬十月 將軍義直帥步騎三千 進屯新羅茂山城下 分兵攻甘勿·桐岑二城 新羅將軍庾信親勵士卒 決死而 戰 大破之 義直匹馬而還(『삼국사기』권 제 28, 백제본기 제 6)

> 진덕여왕 원년 겨울 10월에 백제 병사들이 무산 감물 동잠 3성을 포위하자 왕이 김유신에게 보병과 기병 1만명을 거느리고 가서 막게 하였다. (김유신은) 힘써 싸웠지만 힘이 딸렸다. 김유신의 휘하에 비령자와 그 아들 거진이 적진으로 들어가 싸우다가 죽었다. 남은 군사들이 모두 분격하여 싸워서 (적의 머리) 3,000여급을 베었다.[51]

> 진덕왕 태화 원년(647) 이때 김유신이 압량주 군주가 되었다. … 청하여 백제를 공격하여 대량주의 패배를 복수하고자 하였다. … 드디어 승리의 기세를 타고 백제의 영토에 들어가 악성 등 12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2만 여명을 목베고, 9,000명을 사로잡았다. 공로를 논하여 이찬으로 승진시키고 상주 행군 대총관에 임명하였다. 다시 적의 영토에 들어가 진례 등 아홉성을 무찔러 9,000여명을 목 베고 600명을 포로로 잡았다.[52]

앞서 백제는 서기 644년에 김유신에게 공격을 당하여 의자왕 초기에 빼앗은 지역을 다시 빼앗기게 되자, 장군 의직에게 명하여 신라의 무산성과 감물·동잠 등 3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에 신라에서는 김유신이 보병과 기병 1만을 동원하여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불리하자 마침내 비령자 부자의 죽음을 통해 간신히 막아내었다.

이때 백제가 노린 3성 중 무산성은 무주군 무풍면이며, 감물성은 지금의 경북 김천시 어모면이나 개령면 일대이다. 그리고 동잠성은 김유신 열전에 나오는 동화성과 동일한 곳으로 경북 구미시 인의동 일대이다. 즉 이때 백제에서는 무주와 김천시 그리고 구미시 지역까지 공격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때의 싸움에서 백제는 결국 패배를 하게 되었고 아마도 계속되는 김유신의 공격으로 지금의 금산군인 진례 등 9개의 성을 빼앗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명칭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이웃한 금산군 지역이 신라에 빼앗긴 것으로 보아서 이때 9개의 성중에는 적천성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백제는 이때 무산성과 이웃한 적천성에 기지를 두고서 무산성 등을 공격하였고, 이때 패배함으로 해서 김유신은 적천성을 빼앗고 계속해서 진례로 진격하게 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

51) 眞德女王 元年 冬十月 百濟兵圍茂山·甘勿·桐岑三城 王遣庾信 率步騎一萬 以拒之 苦戰氣竭 庾信麾下丕寧子及其 子擧眞入敵陣 急格死之 衆皆奮擊 斬首三千餘級(『삼국사기』 권 제 5, 신라본기 제 5)

52) 眞德王大和元年 時 庾信爲押梁州軍主 … 請伐百濟以報大梁州之役 … 遂乘勝入百濟之境 攻拔嶽城等十 二城 斬首二萬餘級 生獲九千人 論功 增秩伊·爲上州行軍大摠管 又入賊境 屠進禮等九城 斬首九千餘級 虜得六百 人(『삼국사기』 권 제 42 열전 제 1, 김유신 상)

이와 같이 백제의 의자왕 초기부터 백제와 신라는 경상북도 동부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무주는 전투의 초기에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은 듯 하다. 그것은 진례성과 적천성 무산성 등이 이전과 같이 각기 백제와 신라에 속해 있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직이 신라의 무산성(지금의 무풍면)을 공격하였다가 패배 하면서 김유신의 공격으로 진례성(지금의 금산군) 등 9개의 성을 빼앗기게 됨으로 해서 무주군 지역이 신라의 영역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무주지역은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신라의 영역으로 편제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지금의 무주읍 지역에 해당하는 적천현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백제의 영역에 편제 되었고, 지금의 설천면과 무풍면 지역에 해당하는 무산성 지역은 신라에 편입되어 무산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대에 김유신의 공격으로 진례성 등 9개의 성이 신라에 넘어가게 되어 무주군의 전 지역이 신라의 영토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은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신라의 영역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제3절 남·북국 시대

남·북국 시대라는 명칭은 우리 역사에서 이전에 '통일신라'시대라고 부르던 시대를 말한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라고 했을 때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우리의 역사에서 제외하는 불합리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신라와 발해를 동등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하게 되었다.

하지만 무주지역은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647년에 김유신이 무주군 전체를 신라에 편입시킨 이후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신라의 영역이 되었다. 그리고 남·북국 시대에도 이곳은 신라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무주는 신라의 후방에 속하는 곳이어서 그런지 남·북국 시대에는 이렇다 할 만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때에 현의 명칭이 바뀌게 되는 등의 행정적인 변화만이 보일 뿐이다. 이때의 행정적인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진례군은 본래 백제의 진잉을군이었는데 경덕왕대에 이름을 바꾸었고 지금(고려)도

그대로이다. 영현은 세 개가 있다. 이성현은 본래 백제의 두시이현인데 경덕왕대에 (이성현)이라 바꾸었다. 지금은 부리현이다. 청거현은 본래 백제의 물거현인데 경덕왕대에 (청거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도 그대로이다. 단천현은 본래 백제의 적천현인데 경덕왕대에 (단천현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지금은 주계현이다.53)

개령군은 옛날에 감문소국이다. 진흥왕 18년인 양(梁)의 영정 원년에 군주를 두고 청주라 하였다. 진평왕대에 주를 폐지하였다. 문무왕 원년에 감문군을 두었고 경덕왕대에 (개령군이라)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그대로이다. 영현은 4개가 있다. … 무풍현은 본래 무산현인데 경덕왕대에 (무풍현이라)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그대로이다.54)

이와 같이 서기 757년(경덕왕 16년) 12월에 백제의 영역이었던 적천현은 단천현으로 이름이 바뀌고 진례군 즉, 지금의 금산군의 영현이 되었다. 그리고 신라의 영역이었던 무산현은 이때에 무풍현으로 이름이 바뀌고 개령군 지금의 김천시의 영현이 되었다.

이때 영현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주현(主縣)의 지시를 받아서 행정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단천현은 진례군의 지시를 받아 행정을 펴고, 무풍현은 개령군의 지시를 받아서 행정을 펴는 것이다.

이때의 단천현과 진례군의 경계는 아마도 설천면이었을 것이다. 지금도 이곳을 경계로 두 곳의 말과 풍습에 많은 차이가 난다.

한편 남·북국 시대에 이곳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지내는 제사가 치러지기도 하였다. 즉 신라에서는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라 하여 제사를 지냈다. 대사는 국내의 세 곳에서 제사를 지내며, 중사는 오악(五岳), 사진(四鎭), 사해(四海), 사독(四瀆), 기타로 해서 23군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리고 소사는 국내의 주요 산천에서 지내는 것으로 총 23군데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때 지내는 제사는 국가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직접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곳 무주에서는 소사가 치루어졌다. 즉 동로악(冬老岳)에서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동로악은 진례군 단천현에 있었다. 즉 지금의 무주읍 부근에 있는 동로악이라는 데에

---

53) 進禮郡 本百濟進仍乙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伊城縣 本百濟豆尸伊縣 景德王改名 今富利縣 ○淸渠縣 本百濟勿居縣

54) 開寧郡 古甘文小國也 眞興王十八年 梁永定元年 置軍主 爲靑州 眞平王時 州廢 文武王元年 置甘文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四 ○茂豊縣 本茂山縣 景德王改名 今因之(『삼국사기』 권 제 34 잡지 제 3 지리 1)

소사가 지내졌던 것이다.[55]

이 동로악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현재의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에서 남쪽으로 약 4~5㎞ 떨어진 부근에 있는 동엽령(冬葉嶺)이라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이곳은 단천현(丹川縣)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진례의 안성소(安城所)에 속하는 곳이다. 또 하나의 설은 단천현에 속했던 적상산(赤裳山)일 것이라는 설이 있다. 하지만 어느 것이 맞는가 하는 점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단천현이라 한 것으로 보아 단천현 즉, 지금의 무주읍 인근에서 동로악을 찾아야 하므로 적상산의 어느 곳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이와 같이 남·북국 시대에는 이전의 적천현이 단천현으로, 무산현은 무풍현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단천현은 진례군의 관리를 받고, 무풍현은 개령군의 통제를 받았다. 그리고 단천현에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소사가 치루어졌다.

제4절 후삼국과 무주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신라도 후기에 오면 왕들의 계속되는 실정에 의해서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후백제의 견훤과 태봉의 궁예가 각기 세력을 형성하여 신라와 함께 삼분하게 되었다. 이 시기를 후삼국시대라 한다.

이 시기는 크게 보면, 남·북국시대에 속하지만 세분하여 보면 후삼국시대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후삼국시대로 분류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 시기에 무주지역은 신라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이후 견훤이 대야성을 함락하고 주변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 경명왕 4년(920) 겨울 10월에 후백제의 견훤이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하고 진례성으로 진군하였다. 왕이 아찬 김율을 보내어서 태조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태조가 군대를 내어 그를 구원하고자 하니 견훤이 듣고 물러났다.56)

---

55) 小祀 霜岳高城郡 雪岳·城郡 花岳斤平郡 鉗岳七重城 負兒岳北漢山州 月奈岳月奈郡 武珍岳武珍州 西多山伯海郡 難知可縣 月兄山奈吐郡 沙熱伊縣 道西城萬弩郡 冬老岳進禮郡 丹川縣 竹旨及伐山郡 熊只屈自郡 熊只縣 岳髮一云 髮岳 于珍也郡 于火生西良郡 于火縣 三岐大城郡 卉黃牟梁 高墟沙梁 嘉阿岳三年山郡 波只谷原岳阿支縣 非藥岳退 火郡 加林城加林縣 一本有靈嵒山·虞風山 無加林城 加良岳菁州 西述牟梁(『삼국사기』 권 제32 지 제 1 제사)

56) 景明王 四年 冬十月 後百濟甄萱率騎一萬 攻陷大耶城 進軍於進禮 王遣阿·金律 求援於太祖 太祖命將出師救之

(정명(貞明)) 6년 견훤이 보병과 기병 1만을 거느리고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 시키고 군대를 진례성으로 옮겼다. 신라왕이 아찬 김율을 보내어 태조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태조가 군대를 내자 견훤이 이를 듣고 물러났다.57)

이처럼 견훤은 서기 920년에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 시켰다. 이때 견훤이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인 당시의 대야성을 함락한 것은 640년에 의자왕이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을 통해서 경주로 나가는 통로를 열기 위한 목적이었다. 사실 이곳을 점령한 다음에 후백제는 경주로 진격하여 경애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세웠다. 이처럼 이곳은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넘어가는 주요 통로였다.

하지만 주변 지역이 모두 신라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좁은 통로를 통해서 경주로 진격하게 되면 후방에서 신라의 협공을 받게 되어 포위될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견훤은 주변 지역도 함께 점령하면서 신라로 진격할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그래서 견훤은 대야성을 점령한 다음에 계속해서 군대를 지금의 금산인 진례성으로 향하였다. 합천에서 금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창을 지나 무주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다. 즉 이때 견훤의 군대는 이러한 길을 따라서 금산으로 진격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진례성과 그 주변지역은 신라의 영토였기 때문에 견훤의 군대는 진례성을 공격하였고, 신라의 경명왕은 아찬 김율을 보내서 고려의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왕건은 이를 듣고 요청을 수락하였다. 그러자 견훤은 진례성을 공격하지 않고 그대로 물러났다.

이와 같이 무주도 후삼국시대에 견훤의 군대가 진례성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뻔 하였지만 견훤의 군대가 물러남으로 해서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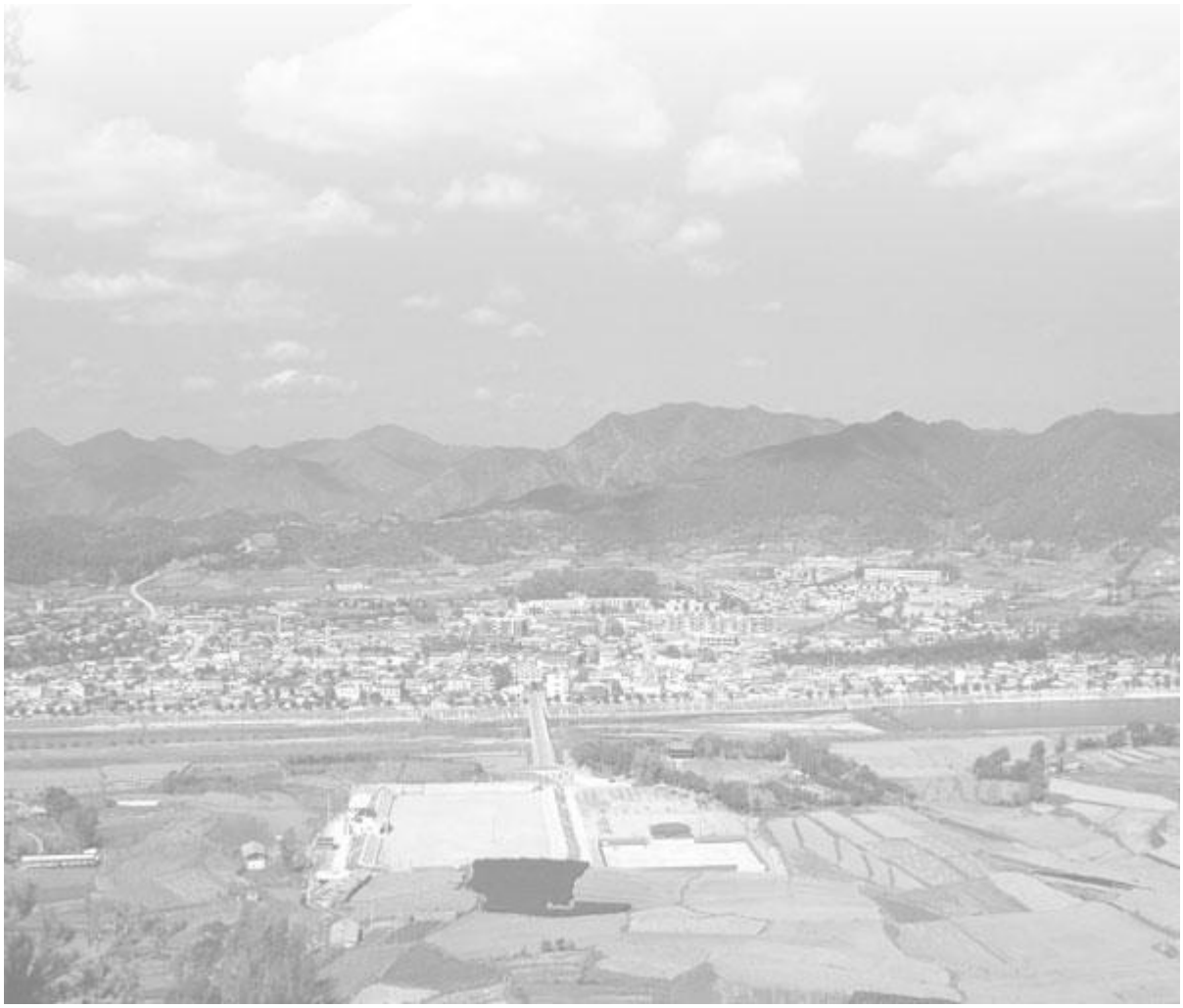
그리고 비록 견훤의 군대가 물러났다고는 하지만 무주 주변의 여러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발휘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무주 지역이 그 당시 신라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는지 아니면 이때 견훤의 영역으로 편제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렵다.

이와 같이 무주는 삼국시대 말엽에 신라의 영역으로 편제 되었고, 이후 후삼국 시대에는 견훤의 군대가 공격하려다가 철수함으로 해서 계속해서 신라의 영역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집필 : 박노석]

萱聞乃去(『삼국사기』 권 제 12, 신라본기 제 12)

57) 六年 萱率步騎一萬 攻陷大耶城 移軍於進禮城 新羅王遣阿湌金律 求援於太祖 太祖出師 萱聞之 引退 萱與我太祖陽 和而陰剋(『삼국사기』 50, 『열전』 10, 견훤)



제3장 고려시대의 무주

무주는 오늘날 진안, 장수와 더불어 무진장으로 알려져 있는 동북쪽의 산간지역으로, 산이 많고 지형 또한 험한 곳이다. 이곳은 또 전라도와 충청도와 경상도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와 신라의 영역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었으며, 신라 말엽에는 견훤(甄萱)의 후백제 지역으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오늘날 무주군의 터전이 된 무풍현(茂豊縣)과 주계현(朱溪縣)이 행정 구역상 서로 다른 지역에 속하였으며, 고려 말에 이르러 주계현이 무풍현에 병합되었지만, 정작 둘이 무주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것은 조선조 태종조에 들어와서의 일이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무주라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조부터이다.

고려시대의 무주 지역에 관하여 현재 전하고 있는 관련 자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것은 이 지역이 지방관이 파견된 주군(主郡)이나 주현(主縣)이 아닌 속현(屬縣)에 지나지 않았고, 무인정권 초에 가서야 비로소 지방관(監務)이 파견된, 그것도 산간의 외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아 있는 얼마 안 되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 극히 소략한 기술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필자 나름의 추정을 덧붙이면서 고려시대의 무주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1절 고려 건국초 군현제(郡縣制)의 개편과 무주 지역

오늘의 무주 지역과 관련된 고려시대의 지명으로 확인되는 곳은 앞에서 언급한 무풍현(茂豊縣)과 주계현(朱溪縣), 그리고 부리현(富利縣)이다. 무풍현은 지금의 무주군 무풍면 북부와 설천면 북부지역이며, 주계현은 지금의 무주군 무주읍과 적상면 지역이다. 또한 부리현은 지금의 충남 금산군 제원면 남부와 부리면, 그리고 무주군 부남면 지역 일대에 해당한다. 그런데 부남면의 경우 1895년(고종 32)에 들어와서 금산군에서 무주군으로 편입되었기 때

문에 사실상 무주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은 위의 무풍현과 주계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들 지역은 고려 건국 초기에 어떤 형편에 놓여 있었던 것일까. 먼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두 지역이 진례현(進禮縣)의 속현(屬縣)이었다는 점이다. 진례현은 지금의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일대로, 1963년에 박정희 정권이 충청남도에 붙이기 전까지는 1896년의 행정구역 개편 이래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속해 있었던 지역이다. 진례현은 신라시대에는 군(郡) 지역이었다가 고려에 들어와서 현령관(縣令官)이 설치된 현(縣)으로 강등되었지만, 무풍현과 주계현을 포함하여 네 곳의 속현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는 지사(知事)가 파견되는 금주(金州)로 승격되었다. 이렇게 보면, 고려 초에 무풍과 주계를 중심으로 한 무주 지역은 진례현의 관할 하에 다스려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주의 옛날을 이야기할 때 진례현을 빠트릴 수 없으며, 또한 그 정황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시대의 주현(主縣)과 속현(屬縣)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모든 주(州), 부(府), 군(郡), 현(縣)에 외관(外官)을 파견하지 못했으며 중요한 지역에 한하여 파견하였다. 따라서 외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인근의 외관이 이를 아울러 다스려야 하였다. 지방관이 파견된 곳은 영부(領府), 영군(領郡), 영현(領縣)으로,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하고 인근의 영군이나 영현에서 다스리는 지역은 속군(屬郡), 속현(屬縣)으로 불리웠다. 속군과 속현은 그들을 관할하는 영군과 영현, 즉 주군(主郡)과 주현(主縣)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과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고려시대에서의 군현 사이의 이러한 주속관계(主屬關係)는 신라말 고려초에 호족들이 지배하던 세력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당시 호족간에 성립된 상하 주속관계가 군현제도의 편성 때에 군현 상호간의 주속관계로 전환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특히 속군 속현이 상당수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그만큼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에까지 침투하지 못하였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 무주 지역은 이러한 속현의 하나였다. 여기에서 주현(主縣)으로서의 진례현과 속현(屬縣)으로서의 무풍현·주계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고려 건국 초기의 군현제도(郡縣制度)의 성립과정에 대하여 잠시 살펴 보기로 하자.

고려왕조는 3성(省) 6부(部)로 대표되는 중앙정치기구의 정비와 함께 지방제도의 개편에도 힘을 기울여 성종대(成宗代)에 이르러 12목(牧)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전주(全州)를 포함하여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이 설치된 사실은 바야흐로 지방에 상주하는 관리가 조정에서 파견되어 지방의 호족세력에 대한 통제가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지방관이 설치되기 전인 고려 초만 하더라도 각 지방은 호족세력의 지배에 놓여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다가 성종대에 들어와서 국왕이 문신 최승로(崔承老)의 건의를 받아 들이는 형식을 취하면서 당시 중요지역으로 간주되었던 양주(楊州), 광주(廣州), 충주(忠州), 청주(淸州), 공주(公州), 진주(晋州), 상주(尙州), 전주(全州), 나주(羅州), 승주(昇州), 해주(海州), 황주(黃州) 등지에 목(牧)을 설치하고 목사(牧使)를 파견함으로써 중앙의 통제력이 본격적으로 지방에까지 침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 성종 2년의 지방관제가 아직은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하였지만 지방에 대한 확고한 중앙 통제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성종대의 지방제도 개편은 지방세력에 대한 통제에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마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개혁의 시도는 분명 고려 초기 이래 계속되어 온 중앙에서의 권력 다툼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에 그 힘을 쏟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성종대부터 시작된 지방제도의 정비는 목종(穆宗)을 거쳐 현종대(顯宗代)에 이르러 그 골격을 갖추게 된다. 현종 9년에 4도호(都護), 8목(牧), 56지주군사(知州郡事), 28진장(鎭將), 20현령(縣令)이 설치되어 지방제도는 마침내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고려의 기본적인 군현제(郡縣制)를 기록한 ≪고려사≫ 지리지(地理志)가 위의 현종 9년 이후의 지방제도를 기준으로 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연유에서이다.

이로써 고려의 지방관제는 4도호, 8목을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에 중앙에서 지방관을 상주시키는 56개의 주와 군, 28개의 진, 20개의 현으로 편성되게 되었다. 이제 중앙의 행정력이 비로소 군·현의 행정단위에까지 직접 침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현종 9년에 완성 된 지방관제는 고려 일대의 지방관제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현종 9년의 관제에 따르면, 전라도 지역의 경우 전주(全州)는 나주(羅州)와 더불어 전라도에 설치된 2목(牧) 가운데 하나로, 군현의 상급행정기구로서 지방통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고려시대의 무주 지역은 행정 계통상으로 볼 때 바로 이곳 전주의 관할 구획 안에 있었다. 당시 전주목의 관할 아래에 들어 있던 지역을 살펴보면, 영부(領府 : 知事府)가 1, 영군(領郡 : 知事郡)이 1, 영현(領縣 : 縣令官)이 4곳 있었으며, 속군(屬郡)은 1, 속현(屬縣)은 11곳이 있었다. 여기에서 지사부는 남원(南原)이며, 지사군은 고부(古阜), 현령관은 임피(臨陂), 진례(進禮), 김제(金堤), 금구(金溝)로 당시 전주의 관할 구역이 오늘보다 훨씬 광범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현령관이 파견된 진례현

은 아직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인근의 무풍현과 주계현을 포함하여 부리현(富利縣), 청거현(淸渠縣), 진동현(珍同縣) 등 모두 5곳의 속현을 거느리면서 관련 사무를 맡아보았던 것이다.

제2절 고려 중엽 감무관(監務官)의 파견과 무풍현・주계현의 병합

속현으로서의 무풍현과 주계현의 위치에 변화가 온 것은 무인정권 초인 1176년(명종6)에 이르러서였다. 이 때 무풍현에 감무(監務)가 파견된 것이다. 감무는 하급의 외관(外官)으로서 현령(縣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속현의 입장에서는 그 설치로 인하여 주현의 감독과 관리를 받는 형편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고려시대에 감무가 처음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1106년(예종 원년)부터였다. 이해 4월 서해도(西海道) 곧 지금의 황해도에 있는 유주(儒州), 안악(安岳), 장연(長淵) 등 3현에 감무관을 처음으로 파견한 데 이어, 우봉(牛峯), 토산(兎山), 적성(積城) 등 24현에 다시 감무관을 파견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감무의 파견은 이후 무신정권기를 거쳐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으며,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태종초까지 계속되어 마침내 속군・속현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자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고려시대에 파견된 감무의 설치 회수를 살펴보면, 예종대와 명종대, 그리고 공양왕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고려 중엽 이후 빈번하게 감무가 파견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위의 예종 원년에 처음 감무가 파견된 사정에서 얻어낼 수 있다.

> 임금이 조(詔)를 내리기를, "근래에 유사(有司)가 서해도(西海道)의 유주(儒州), 안악(安岳), 장연(長淵) 등 현(縣)에서 인물(人物)이 유망(流亡)하였음을 아뢰었다. 그로 인하여 처음으로 감무관(監務官)을 파견하여 그들을 안무(安撫)하도록 하였더니 드디어 유민들이 점차로 돌아와 산업(産業)이 날로 번성하게 되었다. 이제 우봉(牛峯), 토산(兎山), 적성(積城), 파평(坡平), 사천(沙川), 삭녕(朔寧), 안협(安峽), 승령(僧嶺), 동음(洞陰), 안주(安州), 영강(永康), 가화(嘉禾), 청송(靑松), 인의(仁義), 금성(金城), 제주(堤州), 보령(保寧), 여미(餘尾), 당진(唐津), 정안(定安), 만경(萬頃), 부

윤(富閏), 양구(楊口), 낭천(狼川) 등 군현(郡縣)의 인물들도 또한 유망하는 기세가 보이니, 마땅히 유주(儒州)의 예에 준하여 감무(監務)를 두어 초무(招撫)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고려사≫ 권 12, 세가 12 예종 원년 4월 경인)

위의 인용 사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 군현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유민(流民)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감무를 파견한 주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유민의 발생은 곧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 약화를 뜻하는 것이며, 이것은 조세의 징수나 군역(軍役)과 공부(貢賦)의 부과에서도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여 중앙 재정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과 속현의 경우에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한 형편이었다. 조금 뒤의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러한 백성들의 유망 현상은 궁극적으로 무인난이 발생하게 된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또한 무인정권 초기 특히 명종조에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농민과 천민의 항쟁의 한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속군과 속현 지역에 감무를 파견하여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강화하여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예종대(睿宗代) 이후의 고려 중엽에 속군과 속현 지역에 감무가 빈번하게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물론 감무관이 반드시 이러한 연유에서만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 가령 1172년(명종 2)에 50여 개의 속현에 한꺼번에 감무가 설치된 것은 당시 무인실력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준의(李俊儀)의 주청(奏請)에 따른 것으로, 무신 권력의 세력기반 구축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무풍현에 감무가 설치된 것도 그로부터 얼마 지난 같은 명종대인 무인정권초의 일이었던 만큼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사정이 전해지지 않아 확실 한 것은 알 수 없다.

아무튼 1176년 무풍현에 감무가 설치되었지만, 오늘의 무주 지역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주계현에는 감무가 설치되지 않고 대신 무풍현의 감무가 이곳을 아울러 다스리게(來兼) 되었다. 이것은 무주 지역의 중심이 당시 주계현이 아닌 무풍현이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감무에는 과연 어떤 사람이 임명되었으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일까. 원래 현령과 감무에는 등과사류(登科士類), 곧 과거에 급제한 문신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무인정권기 이후 이른바 문무교차제(文武交叉制)에 의하여 현령과 감무직에도 무관이 임명되었으며, 원의 간섭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제사(諸司)의 서리(胥吏)들까지 현령과 감무직에 임명되었다. 더욱이 이들이 백성들을 침탈(侵奪)하고 괴롭히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자,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다시 사인(士人)으로 명망이 있는 자를 등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러했던 만큼 왕권 대행자로서의 감무의 영향력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주현의 감독을 받는 속현의 처지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직접 연결될 수 있었지만, 속현의 하나인 소현(小縣)에 파견된 수령으로서의 감무직은 그다지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흔히 좌천의 형식으로 감무직의 파견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무풍감무가 주계현을 겸임하는 형편에 변화가 온 것은,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흐른 뒤인 1391년(공양왕 3) 고려왕조가 다할 무렵이었다. 이때 주계현이 무풍현에 완전히 병합(倂合) 된 것이다. 물론 이때의 병합 조치는 단지 무주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려 말 조선 초에 있었던 전국적인 군현 통·폐합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시기에 수령이 없는 여러 속군현에 감무가 파견되었는가 하면, 이웃 고을에 대한 감무의 겸임과 그에 따른 속군현의 병합 또는 폐합이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 전라도 지역의 경우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낭산현(朗山縣) : 1391년 여량현(礪良縣)의 감무가 겸임.
○ 마령현(馬靈縣) : 1391년 진안현(鎭安縣)의 감무가 겸임.
○ 운제현(雲梯縣) : 1391년 고산현(高山縣)의 감무가 겸임.
○ 장계현(長溪縣) : 1391년 장수현(長水縣)에 이속(移屬).
○ 보안현(保安縣) : 부령현(扶寧縣)의 감무가 계속 겸임하다가 1386년(우왕 12)에 이르러 부령현과 보안현에 각각감무를 설치.
○ 부윤현(富閏縣) : (시기 불명) 만경현(萬頃縣)에 이속(移屬).
○ 진동현(珍同縣) : 1390년 고산현(高山縣)의 감무가 겸임.
○ 주계현(朱溪縣) : 1391년 무풍현(茂豊縣)에 병합.
○ 원율현(原栗縣) : 1391년 담양군(潭陽郡)의 감무가 겸임.
○ 남평군(南平郡) : 1172년(명종 2) 감무를 두었으나 1390년 화순 감무(和順監務)가 겸임.
○ 무송현(茂松縣) : (시기 불명) 장사현(長沙縣)의 감무가 겸임.

고려 말에 있었던 이러한 군현의 통·폐합 조치는 조선왕조의 개국을 위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확립을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이러한 조치들이 궁극적으로는 중앙 집권력의 강화와 지방 토착세력의 약화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반발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소현(小縣)들을 함께 병합할 경우에 어느 현을 주읍(主邑)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무풍현과 주계현의 경우가 또한 그러하였다. 고려 말 주계현이 무풍현에 병합되고 나서 5년이 지난 조선조 1396 년(태조 5) 9월 정부는 풍해도(豊海道)와 전라도(全羅道)의 일부 군현을 통폐합하면서 무풍과 주계를 합하여 무풍 감무로 하는(“茂豐朱溪合爲茂豐監務”) 조치를 단행한다. 얼핏보기에 이 조치는 5년 전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것은 아마도 무풍과 주계의 병합 조치가 그리 수월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말과는 달리 무주지역의 치소(治所)가 무풍에서 주계로 바뀌었던 점도 저간의 복잡한 사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지역이 완전히 합쳐져 무주(茂朱)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은 그로부터 다시 18년이 지난 1414년(태종 14)의 일이었다.

제3절 고려말 왜구의 침입과 무주 지역

고려말 왜구의 침입은 고려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궁극적으로 고려를 멸망으로 이끈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구가 우리나라 해안 지방을 침범하여 백성들을 약탈하며 괴롭힌 것은 멀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특히 고려말에 이르러서는 전국 곳곳의 해안은 물론 내륙 깊숙한 곳까지 빈번하게 쳐들어 와서 약탈행위를 일삼았다. 왜구로 인한 피해는 곡창지대인 전라도, 특히 서해안 지역에서 심하였는데, 그것은 왜구의 주된 목표가 다름아닌 곡물이었기 때문이다. 이곳 무주 지역도 왜구의 침입으로 많은 피해를 받았다.

원 간섭기인 1350년(충정왕 2)부터 본격화된 왜구의 침입은 왕조가 무너지는 1392년(공 양왕 4)까지의 약 40년간 가장 치열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이 왜구로부터 상당한 침탈을 당하였다. 지역적으로 볼 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가장 심하였으며,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 등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도도 빠짐없이 약탈을 당하였다. 특히 삼남지방(三南地方)의 연해안은 말할 것도 없고 내륙 깊숙한 곳까지 왜구가 침입하였으며, 서울인 개경(開京)에 가까운 승천부(昇天府)와 강화(江華), 교동(喬

桐), 예성강(禮成江)에까지 자주 출몰하여 약탈과 방화를 자행하였다. 그리하여 서울에 계엄령이 내려지는가 하면 천도론(遷都論)까지 나올 정도로 위기의식이 팽배하였다.

고려말 조선 초기에 왜구가 창궐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일본 국내의 사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이 무렵 일본에서는 1333년(충숙왕 2년) 아시까가(足利氏)에 의한 새로운 무로마찌막부(室町幕府)가 들어서면서 황실이 남북으로 갈라져 싸우는 이른바 남북조(南北朝)의 분열기를 맞이하여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혼란을 거듭하였다. 따라서 중앙의 통치권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였으며 일반 백성들의 생활은 매우 곤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는 사이에 서부 일본지방의 연해민(沿海民)들이 집단화 하면서 해적들로 변하여 인접 지역이나 국가에 침입하여 약탈과 파괴행위를 자행하였는데, 이들의 행위는 일본 조정의 혼란으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고려나 원이 일본 정벌 이후에 대륙을 봉쇄하여 일본과의 교통을 막았기 때문에 왜인들은 대륙의 물자, 특히 생활 필수품인 미곡을 획득하기 위하여 약탈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적인 요인 이외에 고려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과 국방력의 약화라는 내부적인 요인도 왜구의 침탈을 가속화 시킨 주된 요인이 되었다.

왜구의 주된 약탈의 대상은 생활 필수품인 미곡이었다. 따라서 왜구가 침탈하는 주된 지역은 곡창지대나 조창(漕倉)의 소재지가 대부분이었다. 왜구들은 특히 남해로부터 서해를 통해 들어오는 조선(漕船)을 약탈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동해안보다 서해안 지역이 더 왜구의 침탈을 당했다. 전라도 지역은 1350년(충정왕 2) 4월 왜선 백여 척이 대거 순천부에 침입하여 남원과 구례, 영광, 장흥 등지의 조선(漕船)들을 약탈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거의 끊임없이 피해를 당하였다. 군산(群山) 지역의 진성창(鎭城倉)은 잦은 왜구의 약탈을 견디다 못해 결국 1358년(공민왕 7) 4월에 이르러 내지(內地) 깊숙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조창을 내지로 옮겼다고 하여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공민왕대의 후반기에 들어서면 왜구들은 연해 지역에서 점차 내륙까지 침입해 왔으며, 드디어는 기병(騎兵)까지 동원하여 기동성을 발휘하였다. 왜구들이 내륙으로까지 쳐들어온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 왜구의 노략질로 인하여 해안의 주군에서 미곡 생산이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왜구의 노략질을 피하여 해운(海運)에서 육운(陸運)으로 조운이 옮겨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우왕대에 이르러서는 왜구의 노략질이 극심해지면서 충청도와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 등 하삼도(下三道)의 여러 고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이제 ≪고려사≫의 기록 등을 참고로 하여 왜구가 고려말에 전라도 지역에 침입한 주요

사례를 년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50년(충정왕 2) 4월 왜선 백 여척이 순천부(順天府)에 침입하여 남원, 구례, 영광, 장흥 등지에 있는 조선(漕船)을 약탈하였으며, 한달 뒤인 5월에는 왜선 66척이 다시 순천부에 침입하였다. 이에 아군이 이들을 추격하여 배 한 척을 노획하고 적병 13명을 죽였다.

1352년(공민왕 1) 6월 왜구가 전라도 모두량(茅頭梁)에 침입하였다. 이때 지익주사(知益 州事) 김휘(金輝)가 수군(水軍)을 거느리고 나아가 적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1355년(공민왕 4) 3월 왜구가 전라도의 여러 지역에 쳐들어 왔다. 같은 해 4월 왜구가 전라도의 조선(漕船) 2백 여척을 약탈하였다.

1358년(공민왕 7) 4월 왜구가 한주(韓州)와 진성창(鎭城倉)에 침입하였다. 전라도 진변사 (鎭邊使) 고용현(高用賢)의 청을 받아들여 연해(沿海)의 창고를 내지(內地)로 옮겼다. 7월에 왜구가 검모포(黔毛浦)에 침입하여 전라도의 조선(漕船)에 불을 질렀다. 이때 왜구의 방해로 인하여 조운(漕運)이 통하지 않자 한인(漢人) 장인보(張仁甫) 등 6명을 시켜 전라도의 세조(稅租)를 수송하게 하였지만 왜구들이 바람을 타서 불을 놓아 태웠으며, 아군이 크게 패전하였다.

1376년(우왕 2) 6월 왜구가 임주(林州)에 침입하자 전라도 병마사 유실(柳實)과 지익주사 (知益州事) 김밀(金密) 등이 힘껏 싸워 그들을 물리쳤다. 7월에 왜구가 배 20여 척을 몰고 전라도 원수영(元帥營)을 침략하였으며, 또 영산(榮山)에 침입하여 고려의 전함을 불살랐다. 그 뒤 왜구가 낭산(朗山)과 풍제(豊堤) 등의 현에 침입하자 전라도 원수 유영(柳濚)과 전주목사 유실(柳實)이 이를 격퇴하였다. 9월 왜구가 고부(古阜), 태산(泰山), 흥덕(興德) 등지에 침입하여 관청을 불살랐으며, 보안(保安), 인의(仁義), 김제(金堤), 장성(長城) 등지에 침입하였다. 얼마 뒤에 왜구가 다시 전주(全州)에 쳐들어오자 목사 유실이 왜적을 상대로 싸웠으나 패전하였다. 윤9월에 왜구의 침입으로 뱃길이 막히자 조운(漕運)을 중지하고, 전 라도와 양광도의 연해주군(沿海州郡)에 대하여는 요역을 차등 있게 감면하여 주었다. 10월 왜구가 진포(鎭浦)에 침입하였다.

1378년(우왕 4) 9월 왜구가 익주(益州)와 전주(全州)를 침략하였다. 10월 왜구가 다시 전주에 침입하여 사람을 살륙하고 집에 방화하였다.

1380년(우왕 6) 6월 왜구가 정읍현(井邑縣)에 침입하자 원수(元帥) 지용기(池湧奇)가 이를 격퇴하였다. 7월 왜구가 금주(錦州)와 옥주(沃州)에 침입하였으며, 또 함열(咸悅), 풍제

(豊堤) 등지에 침입하였다. 8월 왜선 5백 척이 진포(鎭浦) 어구에 침입하여 약탈을 자행하였다. 시체가 산과 들을 덮었으며, 곡식을 그들의 배로 나르면서 떨어뜨린 쌀이 한 자 두께나 되었다. 고려 정부는 나세(羅世), 심덕부(沈德符), 최무선(崔茂宣) 등을 진포에 파견하여 왜적을 상대로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이때 최무선이 만든 화포(火砲)가 처음으로 사용되어 커다란 전과를 올렸다.

1381년(우왕 7) 4월 왜구가 지리산에 침입했다가 무등산으로 달아났다. 전라도 도순문사 이을진(李乙珍)이 결사대를 모집하여 이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여 승전을 하였다.

1383년(우왕 9) 8월 왜구가 거령(居寧)과 장수(長水) 등지를 함락하고 병력을 나누어 전주에 쳐들어 오려고 하자 전주 부원수 황보림(皇甫琳)이 여현(礪峴)에서 적과 싸워 이들을 물리쳤다.

1384년(우왕 10) 7월 왜구가 영동(永同), 주계(朱溪), 무풍(茂豊) 등지에 침입하여 노략질을 하였다. 8월 왜구가 은천소(銀川所), 영동(永同), 청산(靑山), 안읍(安邑) 등지에 침입하였으며, 전라도(全羅道) 안성소(安城所), 소천역(所川驛)에 침입하였다.

1387년(우왕 13) 12월 왜구가 정읍현에 침입하였다.

1388년(창왕 즉위) 6월 왜구가 전주 침입하여 관청을 불살랐으며, 김제(金堤), 만경(萬頃), 인의(仁義) 등지에도 침입하였다. 7월 왜구가 광주(光州)를 함락하였다. 정부는 양광 전라 경상도 도체찰사 황보림과 양광도 부원수 도흥, 전라도 부원수 김종연, 경상도 부원수 구성로 등에게 명령하여 이를 구원하도록 하였다.

1389년(공양왕 1) 11월 왜구가 구례(求禮) 등지에 침입하였다.

1390년(공양왕 2) 8월 왜구가 전라도에 침입하였다. 도절제사 이무(李茂)가 이를 격퇴하고 27명의 목을 베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왜구는 전라도의 거의 모든 지역에 침입하여 백성들을 괴롭혔다. 무풍 주계 지역의 경우 1384년에 큰 피해를 입었다. 고려말 전라도는 양광도(경기도)와 함께 왜구로부터 가장 혹독한 침략을 당한 지역이었다. 특히 연해주군(沿海州郡)은 "쓸쓸하게 텅 비어 버렸다(蕭然一空)"고 전할만큼 참담한 실정이었다. 당시 전라도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나위 없이 고통스러웠다.

고려 정부는 이러한 왜구의 침입에 대하여 우선 군사를 동원하여 이들을 물리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고려의 모든 해안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출몰하는 왜구를 토벌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정부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일본에 대한 외교를 통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먼저 외교적인 교섭부터 살펴보자. 고려 정부는 충정왕대 이후 격화된 왜구의 발호를 근절하기 위하여 수 차례에 걸쳐 일본에 사절을 파견하였다. 공민왕 말엽과 우왕대에 걸쳐 김용(金龍), 김일(金逸), 나흥유(羅興儒), 안길상(安吉祥), 정몽주(鄭夢周), 이자용(李子庸), 한국주(韓國柱), 윤사충(尹思忠) 등을 각 각 일본에 파견하여 왜구를 근절할 것을 요청하였다. 처음에는 북조정권의 막부 권력자를 대상으로 외교적 교섭을 벌였으나, 뒤에는 구주지역의 실력자들로 그 대상을 바꿨다. 당시 일본이 남북조의 대립기였던 데다가, 왜구의 주요 근거지가 구주 연안과 대마도(對馬島) 등 주변의 도서 지방이어서 막부를 대상으로 한 외교 교섭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구주 지역 역시 남북조의 대립으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실력자들과의 교섭에서도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일본은 교섭과정에서 고려에 승려를 파견하거나 왜구에 붙들려 간 자를 송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 병력을 고려에 파견하여 왜구를 토벌하기도 하면서 우호적인 태세를 보였지만, 왜구의 발호는 여전하였다. 결국 대일외교를 통하여 왜구를 막으려는 고려 정부의 노력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것은 당시의 일본 정세로 미루어 볼 때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왜구에 대한 고려정부의 군사적인 대응방안을 살펴보자. 고려말 전국의 해안지역은 물론 육지 깊숙이 쳐들어오는 왜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인정권과원 간섭기를 거치면서 와해된 군사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병력의 증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사실상 군사조직이 와해된 형편이어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군제개혁(軍制改革)이 선행되어야 했다. 그리고 군역(軍役)과 전제(田制)가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제개혁을 위해서는 또한 전제개혁(田制改革)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세가(勢家)들의 토지 겸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왜구 토벌을 위해 필요한 병력은 그때그때 농민들 중에서 적당한 자를 병사로 징발하는 식으로 해결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공민왕대에는 연호군(煙戶軍)이 징발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일반 농민 이외에 노예까지 포함된 임시부대였으며, 사실상 노예군에 가까운 것으로 실질적인 전투력은 거의 갖추지 못하였다. 왜구의 침입이 더욱 격심하여 갔던 우왕대에는 국민 총동원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익군제(翼軍制)가 실시되었다. 익군제는 양반 이하 향리와 평민,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을 동원

한 것으로, 왜구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일이 그만큼 절실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익군제는 당시의 사회적인 여건을 무시하고 양반으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 대하여 무조건 군역(軍役)을 부과하여 편제 시킨 결과 과중한 군역의 부담에 따르는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었다. 특히 익군으로 인하여 많은 농민이 실업하게 되어 이들로부터 공물이나 조세를 거두거나 부역에 동원하는 일이 불가능하여 국세(國勢)가 날로 궁핍 하여졌기 때문에 결국 이 제도는 폐지되고 말았다. 요컨대 근본적인 토지제도의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제도의 개편은 성공을 거둘 수 없었으며, 따라서 왜적의 방어에 필요한 병력 동원도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었다.

고려정부는 또한 산성이나 읍성을 수축(修築)하면서 왜구의 침입에 대처하는 한편, 수군력(水軍力)의 증강(增强)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다. 바다를 통하여 침입해 오는 왜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 훈련된 선군(船軍)과 충분한 전함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고려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전함을 건조하는 한편, 선군의 정예화를 위한 훈련과 해상 전투력의 향상을 위한 화기(火器)와 화포(火砲)의 제작 등을 통해서 차츰 막강한 전투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최무선(崔茂宣)은 1237년(우왕 3) 정부에 건의하여 화통도감(火桶都監)을 설치한 뒤 여기에서 화포 등 새로운 각종 화기를 제작하여 전투력 증강에 크게 기여하였다.

수군력(水軍力)의 증강은 이제 왜구를 대상으로 한 전투가 해상을 통해 침입해 들어오는 왜구를 대상으로 하여 육지전을 벌이던 기왕의 수세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수륙양면(水陸兩 面)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고려의 이와같은 군사적인 대응방식은 왜구의 침입을 물리치는데 때로는 꽤 큰 성과를 보았다. 1240년 진포 전투의 승리가 바로 그 두드러진 실례로, 고려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해 왔던 수군력의 증강이 가져온 결실이었다. 진포의 전투는 해안에 내린 왜구를 대상으로 하여 고려의 전함이 막강한 화력의 화포와 화기를 사용하면서 큰 승리를 거둔 싸움이었다. 그보다 조금 뒤인 우왕 13년의 대마도 정벌 역시 수군력의 향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방식은 곧 고려가 처한 당시의 현실과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 준 것이기도 하였다. 이들 대응방식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군사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져야만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무엇보다도 경제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고려말의 현실에서 이것은 이루기 어려운 과제였다.

왜구의 침입은 우왕 말 이후 크게 수그러지지만, 그것은 고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피해를 남겼다. 개성에 계엄령이 자주 내려져 민심이 크게 동요되었는가 하면, 천도론이 대두되어 조정이 분열되었으며, 요동공벌의 불가론을 주장하는 측에 게 명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적인 혼란의 와중에서 화척(禾尺)이나 재인(才人) 등 일부 천민들이 왜구를 가장하여 노략질을 하는 이른바 가왜(假倭)가 등장하였으며, 귀중 한 각종 문화재가 전란 가운데에서 소실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하였던 것은 세곡을 운반하는 조운선이 약탈되어 결국 조운이 중지되었는가 하면, 이로 인하여 군수와 녹봉 등 국가 재정의 곤란을 가중시켰다는 점이다. 이것은 고려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4절 무주 지역의 소(所)

■ 안성소(安城所), 횡천소(橫川所), 대곡소(大谷所)

안성소(安城所)와 횡천소(橫川所)와 대곡소(大谷所)는 1895년에 무주군에 편입된 지역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기는 하지만, 대체로 볼 때 안성소는 오늘날 무주의 안성면에 해당하며, 횡천소는 무풍면의 남부와 설천면의 남부에 해당하고, 대곡소는 부남면의 장안리 일대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고려시대에는 진례현(進禮縣) 곧 지금의 금산군에 속해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무주 지역 또한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진례현의 속현인 무풍현과 주계현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무주지역을 이야기할 때 안성소와 횡천소와 대곡소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소(所)는 향(鄕), 부곡(部曲), 처(處), 장(莊)과 함께 고려시대의 특수 행정 구역이었다. 이 가운데 향과 부곡은 이미 신라시대에, 소와 장과 처는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각기 형성된 지역으로 흔히 부곡제(部曲制)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데서 알 수 있듯이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고려 군현제도와 신분제도, 그리고 수취제도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관점이 제시되어 있지만, 고려의 독특한 군현제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제도이며 그 거주민들이 정부에 대하여 특수한 역역(力役) 내지 공역(貢役)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가운데에서 소(所)는 금(金)·은(銀)·동

(銅)·철(鐵)·자기(瓷器)·종이·기와·소금·묵(墨)·어량(魚梁) 등 중앙정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물품을 생산하여 공납하는 곳이었다. 소(所)와 그 소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 먼저 소가 군현의 행정체계와는 다른 특수한 행정체계를 갖는 구역이며, 따라서 소의 주민들은 군현에 살고 있는 일반 양민과는 구별되는 노비에 가까운 존재라는 설이 있는가 하면, 소 역시 고려 군현제하의 촌락을 기초로 한 지역으로 결코 독립된 특수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일반 군현의 예하 촌락과 등질적인 것으로서, 중앙에 납부할 공물을 생산하기에 자연적 사회적 제조건이 합당한 곳이며, 따라서 그 주민들 역시 일반 촌락민들과 동일한 신분으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제반 생산활동 예컨대 농업활동에도 참여했으리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 소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은 향과 부곡이 경상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특히 자기, 차, 어량소 등이 전라도에 집중되어 있다. 소가 이 지역에 집중되었던 것은 유리한 생산조건이나 그러한 생산품들이 해로를 통하여 수도인 개경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교통로상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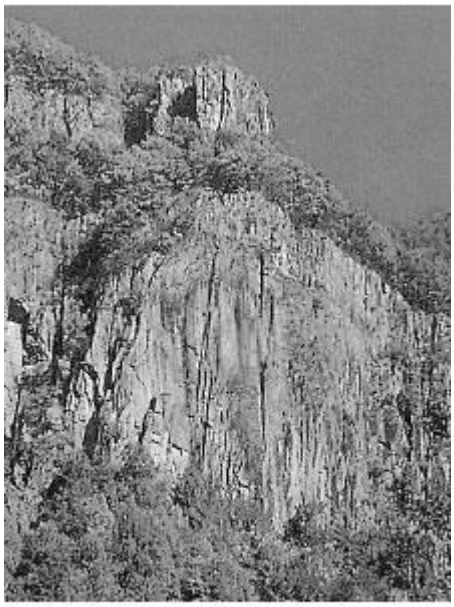
횡천소의 경우 철소(鐵所)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가까운 무주 대덕산 지역에서 예전부터 철(鐵)이 생산된 것에서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안성소와 대곡소의 경우 어떤 물품을 생산한 곳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관련 기록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다.

제5절 안렴사와 안렴대

편집자의 부탁으로 여기에서 잠시 지면을 빌려 무주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안렴대』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사실 『안렴대』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적 항목에서 다루어야 하겠지만, 무주군지의 연차적인 편찬 계획에 따라 이 부분의 발간이 조금 늦어지므로 역사편에서 언급해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부탁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안렴대』가 안렴사에서 유래된 것인 만큼 아무래도 고려시대의 무주를 다룬 역사편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안렴대는 적상면 사산리 적상산 기봉 서남쪽에 있는 유적지로, 기왕에 편찬된 무주군지에 따르면 고려시대에 거란병이 침입하였을 때 3도 안렴사(按廉使)가 피난하였던 곳이라고

하여 안렴대라고 불리웠다고 하며, 또한 3도의 안렴사가 인근의 여러 지역민들과 함께 이곳으로 피신 하였다고도 한다. 이곳은 또 조선조 인조때에는 병자호란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적상산 사고의 실록을 피난 시킨 곳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고려말 왜구의 침입 때 3도의 안렴사가 인근의 백성과 함께 피신했다는 안렴대

그런데 문제는 3도의 안렴사가 이곳에 함께 피신 하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과연 역사적인 사실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전설은 어디까지나 전설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치부하면 그뿐이지만, 전설에 담 겨져 있는 사실과 허구를 가려서 생각하면 의외로 숨겨진 역사의 일면을 엿볼 수도 있는 것이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란의 침입으로 3도의 안렴사가 이곳까지 피난하였다면 그 시기는 아마도 제2차 침입 때인 1010년(현종 1)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3차에 이르는 거란의 침입 가운데, 993년(성종 12)의 제1차 침입 때에는 거란군이 청천강 이남의 안융진(安戎鎭)을 공격하다가 실패한 데다가 서희와 소손녕 간의 담판으로 이내 철수를 하였고, 1015년(현종 6) 이후 본격화된 제3차 침입 때에는 수차례의 공격이 되풀이되었지만 통주(通州), 용주(龍州), 곽주(郭州), 귀주(龜州)등의 지역에 국한되었으며, 그나마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반면 제2차 침입 때인 993년에는 거란군에 의하여 서경이 위협당하고 개경까지 공격을 받기에 이르러 국왕이 몽진(蒙塵)을 단행하였다. 그런 데 이때 국왕 일행은 개경을 떠나 양주를 지나고 공주와 삼례를 거쳐 라주(羅州)에 다다랐던 것이다. 물론 무주와 라주는 지역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국왕의 몽진이라는 비상한 시국을 맞이하여 안렴사가 국왕을 호종하여 왔을 가능성을 전혀 부인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는 하여도 3도의 안렴사가 이곳 무주에 집결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 보아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안렴사라는 관직 그 자체이다. 안렴사는 군현의 수령을 통할하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졌던 관직이지만, 처음에는 주현을 순행(巡行)하여 수령을 출척(黜陟)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이름도 안찰사(按察使)로 불리웠다. 즉 안렴사라는 이름은 《고려사》 백관지에 따르면 1276년(충렬왕



고려말 최영 장군이 칼로 내래쳤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장도바위

2)에 기왕의 안찰사를 안렴사로 고치면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고려초인 현종대에 안렴사가 벌써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고려사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문종대에 안렴사라는 관직명이 사료상에 나타난다. 이것은 아마도 ≪고려사≫의 찬자가 고려 후기에 사용되던 안렴사라는 명칭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3도의 안렴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고려에서 서해도, 양광충청주도, 경상진주도, 전라주도, 춘주도 등 5도(道)의 안찰사제가 성립하는 것은 예종대로, 그 이전에는 서해도 에만 안찰사가 파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고려초인 현종대에 3도의 안렴사가 등장하는 것은 사실과는 매우 다른 이야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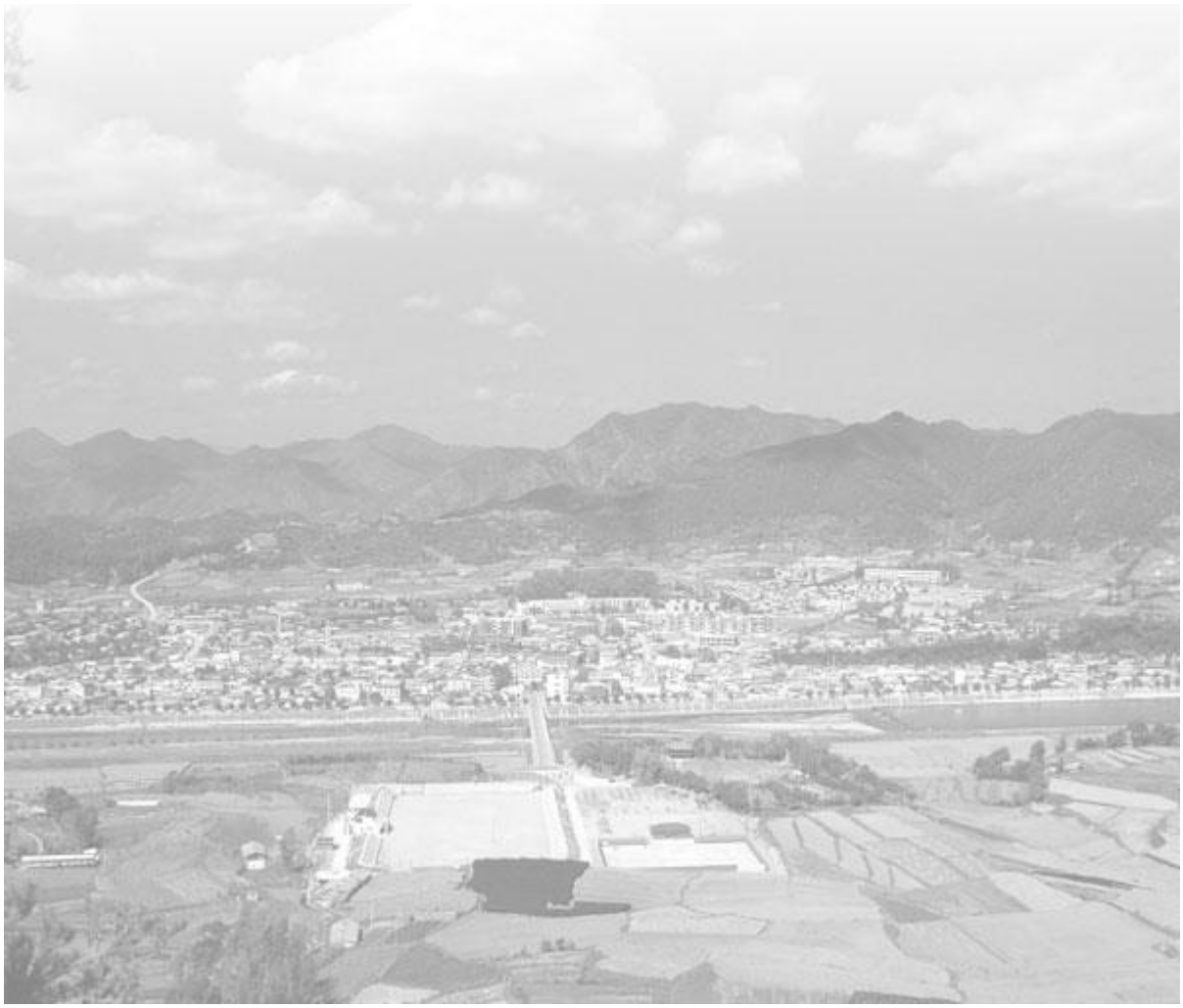
신화나 전설은 시간이 갈수록 그 내용이 바뀌어지기 마련이다. 새로운 내용이 첨가 되는가하면, 기왕의 내용 가운데 일부가 사라져버리고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변화되기도 한다. 안렴대에 관한 전설도 마찬가지이 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야기를 전혀 허구의 것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안렴대는 비록 변형된 설화를 통해서나마 아주 오래 전에 거란군의 침입과 관련하여 무주가 겪었던 불안과 고통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新增東國輿地勝覽≫
李基白, ≪高麗兵制史硏究≫, 일조각, 1968.
변태섭, ≪高麗政治制度史硏究≫, 일조각, 1971.
손홍렬, <麗末·鮮初 被倭俘虜의 刷還>, ≪사총≫ 19, 고려대학교 사학회, 1975.
최완기, <高麗朝의 稅穀運送>, ≪한국사연구≫ 34, 1981.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 5 - 8, 1975-1981.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硏究≫, 一潮閣, 1984.
朴龍雲, ≪高麗時代史≫, 일지사, 1987.
朴宗基, ≪高麗時代 部曲制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 13-18, 20, 1993-1994.
윤훈표, <高麗末 朝鮮初期 兵器의 製造 및 管理體系에 관한 硏究>, ≪東方學志≫ 77·78·79 합집, 1993.
윤훈표, <麗末鮮初 軍制改革의 推移>,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孫弘烈, <高麗漕運考>, ≪史叢≫ 21·22 합집, 고려대학교 사학회, 1997.
김기섭, <14세기 倭寇의 동향과 고려의 대응>, ≪한국민족문화≫ 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7.
柳浩錫, <高麗末 倭寇에 대한 中央政府의 對應과 그 性格>, ≪全羅文化硏究≫ 12, 전북향토문화연구회, 2000.

[집필 : 유호석]



제4장 조선시대의 무주

제1절 무주지방의 통치체제

1. 조선건국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

1) 신흥세력의 성장과 조선 건국

고려 무신집권기 '능문능리(能文能吏)'로 그 모습을 처음 드러낸 신흥사대부들은 몽고와 의 관계가 정립된 이후 본격적으로 중앙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사대부들은 국왕과 손을 잡고 지배 세력인 권문세족의 정치적 독점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바로잡고 자 하였다. 그리하여 원명교체기인 공민왕대에 이르러서는 정몽주·정도전 등이 중앙정계에 자리를 잡는 등 신흥사대부들은 그 정치적 기반을 굳건히 구축하였다.

한편 고려 말 왜구와 홍건적의 계속된 침입으로 최영·이성계 등 무장들의 세력이 크게 성장하였다. 왜구는 대마도 등 일본 근해의 해적들로 이미 고종 때부터 우리 근해에 출몰하였으며 고려 말에 이르러 더욱 극성을 부렸다. 공민왕대에는 또 홍건적이 침범하여 개경이 함락되기까지 하였다. 즉 고려 말 원명교체기라는 국제 상황의 변동과 함께, 국내에서는 신흥사대부와 무장들이 그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공민왕 사후 정권을 장악한 이인임은 우왕을 내세우고 원과 명에 두 다리를 걸치는 양면외교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등거리 외교정책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무리한 공물 요구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명에 대한 고려의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명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급기야는 공민왕대 수복하였던 철령위 이북의 땅을 다시 반환하라는 요구를 해왔던 것이다.

이에 고려조정은 그 대책을 놓고 친원·친명세력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다. 당시, 이인임 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최영은 크게 분개하여 명이 아직 요동을 돌볼 수 없는 틈을 타 요동을 정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성계는 4불가론을 내세워 요동정벌에 반대하였다. 논란을 거듭하던 고려조정은 마침내 명의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 요동공략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최영이 8도도통사, 조민수가 좌도도통사, 이성계가 우도

도통사가 되어 요동정벌에 나섰다.

그러나 요동정벌에 반대하였던 이성계는 끝내 조민수를 설득하여 압록강 위화도에서 회군을 단행하였다. 군사를 몰아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최영을 축출하고 우왕을 폐위시켰다. 회군직후 조민수 일파가 창왕을 옹립하는 등 잠시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듯하였으나 곧바로 이성계 세력에 의해 숙청되었다.

우왕 14년(1388) 위화도회군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한 이성계 세력은 유배 보냈던 최영을 죽이고, 우왕·창왕을 신돈의 자식이라 하여 사사(賜死)하였다. 이어 잔존한 권문세족을 김저 사건, 윤이·이초 사건 등에 연루 시켜 대거 숙청하였다. 이와 함께 회군직후 착수하였던 토지제도 개혁을 공양왕 3년 과전법체제로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정치권력과 함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한 역성 혁명파들은 고려 수절의 마지막 보루인 정몽주를 선죽교에서 격살하고, 1392년(공양왕 4년) 마침내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새 왕조 조선을 개창하였다.

2) 지방통치체제의 정비

조선정부는 건국 후 지방통치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고려시대 5도 양계로 편제되었던 지방통치체제는 태종 13년에 이르러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강원도·황해도·함경도·평안도 등 8도체제로 정비되었으며, 주속현(主屬縣) 체제로 되어 있던 고려의 군현제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수많은 속현들을 독립시키거나 통폐합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지방통치체제는 경기·충청·전라·경상·황해·강원·평안·함경도 등 8도와, 도 아래에 주·부·목·군·현 등으로 편성되었다. 도(道)에는 감사[관찰사], 그 아래의 군현에는 수령이 파견되어 지방통치행정을 수행하였다.

감사(監司)는 종2품으로 수령의 불법을 규찰하고 성적을 평가하는 등 외헌적(外憲的) 기능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도내의 모든 민정·군정 등의 통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방백적(方伯的)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들 감사는 국왕과 직접 연결되어, 중앙의 이·병조 등의 검찰을 받지 않고 일도(一道)를 전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감사의 권한이 비대해질 염려가 있었으며, 이에 조선정부는 감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1년에 한하였다.

수령(守令)은 군현의 대소에 따라 주에는 부윤(종2품), 대도호부에는 대도호부사(정3품), 목에는 목사(정3품), 도호부에는 부사(종3품), 군에는 군수(종4품), 현에는 현령(종5품)·현

감(종6품)이 각각 임용되었다. 그러나 이들 군현 간에 행정적인 상하관계는 없었다. 즉 군현간에 등급의 차이는 있었으나, 행정적으로 독립되어 오직 감사의 지휘를 받았다. 수령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당상관 및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없는 미설가(未挈家) 수령은 900일, 그 외의 수령은 1800일이다. 그러나 수령의 잦은 교체로 이러한 임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다산 정약용은 수령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고 하였다.

수령은 '수령칠사(守令七事)'라 하여 농잠을 번성시키고(農桑盛), 호구를 증가시키고(戶口增), 학교를 일으키고(學校興), 군정을 다스리고(軍政修), 부역을 균등하게 하고(賦役均), 소송을 간편하게 하고(詞訟簡), 간특하고 교활한 자를 그치게 하는 것(奸猾息) 등을 그 임무로 하였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 공물의 징수 상납이었다.

이러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모든 지방행정단위에는 이·호·예·병·형·공의 6방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향리들이 이를 향역으로 세습하면서 담당하였다. 또한 각 지방에는 향청이라는 자치단체가 있었다. 향청에는 원래 양반들이 좌수 별감 등의 향임을 겸하여 향리를 규찰하고 수령을 돕는 등 지방통치에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향촌사회는 수령·향리·양반 3세력의 역학관계 속에 조직되고 운영되었다.

3) 전라도지방의 통치체제

전라도는 고려시대 전주목과 나주목이 합쳐져 도를 형성한 이래, 그 영역과 도명은 조선건국 후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다만 조선후기에 이르러 도명이 인조 때에 전남도(全南 道)·광남도(光南道)로 잠시 바뀐 일이 있고, 영조 때에 전광도(全光道)라고 개칭된 적이 있으나(영조 4년~13년), 이내 곧 전라도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군현들은 조선 건국 후 대폭적인 개편이 단행되었다. 많은 군현들이 통폐합되고, 그 이름이 개칭되었다. 그리하여 태종대 지방제 정비가 일단락 된 직후 전라도는 제주도 3개 군현을 포함하여 총 58개 군현에, 유수부(留守府) 1·목(牧) 2·도호부(都護府) 4·군 (郡) 12·현(縣) 39개 읍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주·나주·남원·장흥 등 4개의 계수관체제(界首官體制)로 편제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등재된 이러한 전라도 군현편제는, 이후 계수관제가 혁파되고, 1개 읍이 폐합되는 등 부분적으로 개편되어, 성종대 ≪경국대전≫으로 법제화되었다. 그리하여 조선 건국 후 전라도는 제주도 3개 군현을 포함한 총 57개 군현에, 1부·3목·4도호부·12

군·37현 체제로 확립되었다.

1600년(선조 33) 진원현이 장성부에 편입됨에 따라, 조선후기에는 전라도가 총 56개 군현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런 군현 편성은 1895년 갑오개혁으로 전국이 23부제로 개편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능주현이 목으로 승격되고, 무주현을 비롯한 여산군과 장성현이 각각 도호 부로 승격되어, 1746년(영조 22) ≪속대전≫ 편찬 당시 전라도는 총 56개 군현에, 1부·4 목·7도호부·11군·33현이었다. 또한 1786년(정조 10) ≪대전통편≫ 편찬 후에는 제주도 의 대정현과 정의현이 각각 군으로 승격되어, 1865년(고종 2) ≪대전회통≫ 편찬 당시에는 전라도가 1부·4목·7도호부·13군·31현이었다.

이러한 전라도의 군현편제를 ≪속대전≫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윤(종2품, 1원) :	전주.
목사(정3품, 4원) :	나주·제주·광주·능주(經:현령).
부사(종3품, 7원) :	남원·장흥·순천·담양·여산(經:군수)·장성(經:현감)·무주 (經:현감).
군수(종4품, 11원) :	보성·익산·고부·영암·영광·진도·낙안·순창·금산·진 산·김제.
현령(종5품, 5원) :	창평·용담·임피·만경·금구.
현감(종6품, 28원) :	광양·용안·함열·부안·함평·강진·옥과·고산·태인·옥구·남평·흥덕·정읍·고창·무장·무안·구례·곡성·운봉·임실·장수·진안·동복·화순·흥양·해남·대정(會:군수)·정의(會:군수). (진원현 : 선조 33년 혁파) * 經 : ≪經國大典≫(성종 16년) : '會' : ≪大典會通≫(고종 2년)

한편 조선시대 전라도는 좌도와 우도로 나뉘었는데, 57개 군현 중 전라좌도가 21개 읍, 우도가 36개 읍이다.

전라우도(36개 읍) :	전주·익산·김제·고부·금산·진산·여산·만경·임피·금구·정읍·흥덕·부안·옥구·용안·함열·고산·태인·나주·광산·영암·영광·함평·고창·장성·진원·무장·남평·무안·장흥·진도·강진·해남·제주·대정·정의.

전라좌도(21개 읍) :	남원·담양·순창·용담·창평·임실·무주·곡성·진안·옥 과·운봉·장수·순천·낙안·보성·능성·광양·구례·흥양· 동복·화순

2. 무주현 설치와 도호부 승격

1) 조선건국후 무주현 설치

여말선초 군현제 개편시 무풍현(茂豊縣)과 주계현(朱溪縣)을 병합하고, 무풍의 '무(茂)' 자와 주계의 '주(朱)'자를 따서 무주현(茂朱縣)이라 하였다. 군현간의 통폐합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타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무풍과 주계의 통합은 서로 국가를 달리 했던 군현이 합쳐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무풍은 신라 땅이고, 주계는 백제 땅이었다.

무풍현은 원래 신라의 무산현(茂山縣)이었다. 통일신라 경덕왕 때 무풍현으로 개명되어 개령군(開寧郡, 현 경북 김천시)의 속현이 되었고, 고려초에는 진례현(進禮縣, 현 충남 금산) 의 속현으로 편제되었다. 반면에 주계현은 본래 백제의 적천현(赤川縣)으로 신라 때 단천현 (丹川縣)으로 개명되어 진례군에 속했으며 고려 때 다시 주계현으로 고쳐졌다. 속현으로 인접한 큰 고을 수령의 통제 하에 있던 무주지방에 수령이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명종대의 일이다. 명종 2년(1172)에 이르러 무풍현에 감무(監務)가 파견되었으며, 명종 6년에는 무풍현 감무가 주계현 감무까지 겸하여 양 군현을 통할하였다. 무풍과 주계 통합의 싹은 여기에서부터 싹텄다 할 수 있다. 무풍의 치소, 즉 무풍고성지는 지금의 현내리 거문들 지역이다.

무풍과 주계의 합병에 대해, ≪세종실록지리지≫·≪동국여지승람≫·≪적성지≫에는 '고려 말 공양왕 3년(1391)에 두 현을 병합해 무풍감무라 했다'하고, ≪태조실록≫에는 '태조 5년에 무풍과 주계를 합하여 무풍감무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58] 반면에 ≪태종실록≫에 는 '태종 14년(1414)에 무풍과 주계를 합쳐 무주로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59] 태종 14년 은 지방제를 개편해 감무를 현감으로 개칭한 해이다. 이런 기사들로 미루어 볼 때, 고려

58) 『태조실록』 10, 태조 5년 9월 계미조.
59) 『태조실록』 28, 태종 14년 12월 갑오조.

말 두 현을 병합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공양왕 3년 두 현이 통합되었고, 조선 건국 후 태종 14년 감무를 현감으로 개칭하면서 군현명을 무주현으로 고쳐 종6품의 현감을 임용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고려 중기 무풍현에 감무가 파견되어 주계현까지 다스리게 되면서 통합의 기틀이 마련되었던 무풍과 주계의 통합은 고려 말에 본격화되어 조선 건국 후 1414년(태종 14) 무주현 설치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무풍에 있던 무주지방의 치소는 여말선초 두 현이 통합되면서 주계현으로 옮겨졌다. 주계현 고성터는 현재 무주 읍내리에서 대차리로 가는 길의 중간쯤에 해당되는 지역이다.[60] 그러다가 중종 때에 이르러 무주현 치소를 현 군청지로 이전하였다. 당시 현 군청 터는 울창 한 갈대밭으로 인가도 없었다 한다.

2) 조선후기 무주도호부로 승격

조선전기 현감(종6품)이 임용되는 조그마한 읍이었던 무주현에 임진왜란 후 적상산사고 가 설치되면서 읍격을 도호부로 승격시키자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조선은 왜란의 와중에서 유일하게 보존되었던 전주사고본을 토대로 1606년(선조 39) ≪조선왕조실록≫ 4본을 새로 만들어, 서울 춘추관을 비롯해 강화도 마니산, 평안북도 영변 군 묘향산, 강원도 평찬군 오대산, 경상북도 봉화군 태백산에 분장하였다. 조선전기 4대사고 가 모두 평지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전란에 취약하자, 임난 후 깊은 산속으로 사고를 옮겼던 것이다.

그런데 임난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북방의 야인들이 일어나 후금을 세우고 조선의 북방을 위협하자 묘향산사고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다. 더욱이 묘향산 사고는 관리 소홀로 서책의 망실과 훼손이 잦았기 때문에 사고를 옮겨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이에 남쪽의

---

60) 주계성터를 1968년에 답사하고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성의 흔적이 확연한데, 성 둘레가 그대로 남아있고, 동헌터는 축대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둘레는 약 1㎞ 정도이며 동쪽과 북쪽의 성은 토성(흔성) 이나 서쪽과 남쪽은 석성이다. 남쪽과 북쪽은 급경사인데 특히 남쪽은 약 50m의 단애(斷崖)로 밑에는 남대천이 흐르고 있다. 이 고지의 소유는 역대 한씨의 소유지로 한기문씨의 증언에 의하면 칼, 재털이 기타 토기 등이 발굴되었다 하나 보존된 것은 하나도 없다 한다. 동헌터라고 전해지는 곳에 석축과 죽림(竹林) 등이 남아 있다. 무풍 고성지에도 죽림이 남아 있다. 성지의 사방에 무수히 흩어져 있는 기와장을 보면 한결같이 두께가 얇고 무늬가 새겨져 있다. 특히 표면의 무늬는 섬세하다. 무풍고지에서 출토된 신라기와에 비하면 그 제작기술이 뛰어 나다. 신라 기와는 두껍고 무겁고 무늬도 보잘 것이 없다. 백제문화가 신라문화에 비해 앞서 있었음을 증명해 준다(≪무주군지≫(1990년, p.162)

안전지대로 옮기기로 공론이 모아져 1610년(광해군 2)부터 새 사고지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반드시 아주 험하여 인적이 닿지 않는 곳을 택한다"는 방침이 정해졌으며 이에 따라 무주의 적상산이 새 사고지로 선정되었다. 적상산성을 수리하고, 1614년(광해군 6) 실록봉 안을 위한 실록각(實錄閣)이 건립되었으며, 이로부터 4년 후인 1618년(광해군 10)에 처음으 로 실록이 봉안되었다. 그러나 이때 봉안된 실록은 새로 편찬된 ≪선조실록≫이었으며, 아직 묘향산사고본이 이안된 것은 아니었다.

묘향산사고본의 적상산사고 이안은 그로부터 20여년이 흐른 1634년(인조 12년)에 이루어 졌다. 그리하여 묘향산사고가 폐지되고, 적상산사고가 조선후기 5대 사고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후 1641년(인조 19) 선원각(璿源閣)이 건립되어 조선왕실의 족보인 ≪선원록(璿 源錄)≫이 봉안됨에 따라, 적상산사고는 조선후기 다른 사고와 같이 사각(史閣)과 선원각을 완비하게 되었다.[61]

조선후기 적상산성이 수축되고, 여기에 사고가 들어서면서 무주에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산성과 사고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세금과 부역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주군민은 마침내 1673년(현종 14) 금산현의 안성면(安城面)을 무주에 편입시켜달라는 진정서를 중앙에 올리게 되었다.

1, 2차 두 번에 걸친 상소문에는 당시 무주군의 사회상 또한 잘 나타나 있다.[62] 먼저 현종 14년 8월에 무주 유학들이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 1차 상소문의 주요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무주는 삼남의 등에 위치하여 좁은 지역임은 조그마한 책이라도 펼쳐보면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신들이 번거롭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는 척박하고 농사는 황폐하여 쇠잔함이 도처에 있어 항거(恒居)의 낙이 없고 기한(飢寒)을 면할 수 없으니 해마다 겨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
> 적상산성을 창건(수축)한 후 부역의 번거로움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은 무슨 까닭입니까. 곧 실록과 선원록을 본 산성에 봉안함으로써 서울에서 오는 사행(使行)과 전라도 내외의 공적인 출장 등 서로 왕래가 잦은 때문입니다. 포쇄(曝晒), 고출(考出), 봉안(奉 安) 등으로 수개월씩 머뭅니다. 감사(監司)의 순찰과 병사(兵使)의 습조(習操)는 해마

61) 무주군, 『적상산사고와 조선왕조실록』, 2002.

62) 1차 상소문은 박일표(朴日杓)씨가 소장한 것으로 『적성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2차 상소문은 『적성지』(1898)에 등재되어 있다.

다 있어 온 터이나, 보내고 맞아들이고 접대하는 비용이 적은 민력으로 이미 고갈 되었습니다. 또 매년 가을마다 풀베기를 하여 비상시에 대비하는데 한 현의 남녀가 총동원되어 혹 수개월에 이르니 삼농(三農)은 먹고 사는 근본인데 너나 할 것 없이 시기를 놓쳐 백성의 곤궁함이 극에 이르렀습니다. ……

적상산성의 산세를 말하면 금산의 속현인 안성이 무주 남문으로부터는 10리 안에 있는데 금산에서는 80리입니다. 옥천의 속현인 양산은 무주의 북문에서 서로 바라보이는 10리안에 있으나 옥천과는 60여리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 두 속현은 무주와는 견아(犬 牙)와 같아 실로 입술과 같이 가까운 사이에 있습니다. 또 그 주민의 왕래와 친밀함을 볼 때 무주에 붙임이 편리함은 부언하지 아니해도 모두가 그 이로움을 알고 있으니 실로 복잡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본군의 전결은 겨우 800결로 금산과 옥천에 비교하면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비록 안성과 양산을 합병하여 본군에 소속한다 해도 토지와 인구 가 금산 옥천과 비등합니다. ……

지금 해야 할 일은 앞서 명을 받고 산성을 답사하고 상소한 것만 의존하지 말고 안성 양산을 합병하여 그 지역을 넓히고 현을 부로 승격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면 본현의 일은 저절로 풀릴 것이니 어찌 일등의 방책이 아니겠습니까. ……

엎드려 전하께 원하오니 무주군민의 소원에 따라 부근 속현을 합병하여 무주지방을 보장(保障)의 요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이처럼 무주군민은 무주가 원래 척박한 땅인데 적상산사고 설치 후 각종 부역으로 더욱 살기 어려워졌다 하고 그 해결책으로 금산의 안성면과 옥천(沃川)의 양산면(陽山面)을 무주에 합병 시켜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2차 상소문은, 안성면을 떼어 무주에 붙이자는 논의에 대해 금산현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이에 대해 무주군민이 그 부당성을 논한 소이다. 2차 상소는 참봉(參奉) 박문욱(朴文郁)을 우두머리로 '청안성면환속본부소(請安城面還屬本府疏)'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2차 상소에서도 먼저 무주현의 곤궁한 형편을 말하고 있다. 즉 "걱정되는 것은 본현의 형편이 너무 어렵고 토지는 메말랐으며 주민 수도 적어서 물역(物役)이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데 매년 사객(使客)의 출입과 양각(兩閣) 사신의 행차, 춘추로 행하는 습조(習操)에 비용이 과다하고 부역이 과중함이 다른 고을의 만배나 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지탱하기 어려워 몰락해서 유민으로 전락함이 아침이 아니면 저녁에 이루어 질 형편입니다"라 는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현종 14년 금산군 안성면을 편입시켜 그 지역이 넓어지고 또 현에서 도호부로 승격되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금산 사람들이 안성을 되돌려달라 상소를 올렸다 하니, 이는 부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그 부당함을 논하고 있다.

①“무릇 안성은 금산에 속하나 멀리 떨어져서 아무런 연관이 없고 오히려 무주를 넘어서 50리 밖에 무주 남쪽경계에 있으며, 서쪽은 용담과 경계하고, 남쪽은 장수 와 경계하고, 북쪽은 곧 무주이며, 거리의 원근을 말하면 안성과 금산은 백여 리이고 무주와는 겨우 30리이다. 그러므로 비록 동서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무주의 안성 이라 하고 금산 안성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②“주민의 파리하고 견디기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면 무주는 안성과 합쳐도 겨우 150결에 불과하며 호수도 2천 호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름은 비록 도호부이나 실은 아주 적은 현에 불과합니다”

③“감사, 도사, 병사의 삼대빈(三大賓)이 순행하는 예는 춘추로 있는데 무주는 전라 도의 한 구석에 위치하여 순행시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산성을 설립한 이후로는 산성의 순시를 위하여 무주에서 하루를 유숙하고 또 산성으로 들어가서 2~3일씩 유숙합니다. 한 분에 따르는 부하가 적어도 50인 이상이 되므로 역졸 또한 50인, 말 역시 50필, 군물을 운반하는 자가 60 여인, 운반하는 말 역시 60여 필이 됩니다. 그동안 상하 사람에게 제공하는 잡물, 마초, 마료 등의 운반 등에 남자는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하여 한 고을의 백성이 총동원되지 않음이 없으니 이를 어찌 협소한 무주 주민이 단독으로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④“선원록과 왕조실록을 포쇄하는 행차는 감사의 행차와 달라 봉행차사(奉安差使) 에는 일시에 많은 수가 배행 함으로 수행자 수가 사객(使客)의 수보다 수백 배 많습니다. 또 춘추로 습조할 때에는 그 폐단이 이 행차에 못지 않으니 도로의 수리 또한 빈번한 즉 1년 중 무주 주민들은 농사지을 시간도 없이 추위와 더위, 낮과 밤도 없이 길거리에서 분주할 뿐입니다. 그러하오니 어느 틈에 농사를 지으며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게 하오리까. 이것이 신들이 올린바 부역의 막중함이 타읍의 만배가 된다하는 까닭입니다”

⑤“특히 지탱하기 어려운 것은 산성 군량미와 상평창 진휼청 의 각종 미조(米租)를 합해보면 몇만 섬(石)에 이르는데, 한 장정이 받는 것은 1백여 곡(斛)이요, 한 사람이 먹는 것은 많은 자가 20~30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을에 환곡을 징수할 때는 비록 재산을 통털어 파산을 한다 하여도 그 절반도 갚지 못하여 매질이 낭자하

고 족쇄를 차는 일이 계속되며 작년에 팔지 않았던 노비를 금년이면 팔아야 하고 금년에 팔지 않았던 전답은 명년에는 다 팔아야 합니다. 전답은 없어지고 환곡도 갚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후에는 이와 같이 종도 없고 전답도 없게 되니 그런 사람은 장차 무엇을 팔아 무슨 곡식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 감옥에서 뼈가 부러지도록 맞아 곤장 아래 죽는다해도 상환할 길이 없으니 장차 떠돌아 다니다가 태반이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인정이 이에 이르면 근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를 당하여 안성(安城)이 있을 것 같으면 동고동락을 무주와 같이 하여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여 다소 소생하는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이어 2차 소에서 별장들의 폐단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즉 "성중의 참봉과 별장 및 승장(僧將)을 어느 땅에 배치하여 무엇을 지키게 하려 하나이까. 참봉은 선사양각(璿史兩閣) 수호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요, 별장은 성을 수호하려고 설치한 것이며, 승장은 전성(全城)의 승려와 의승(義僧)을 통솔하려고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역을 기피하려는 부류가 예조나 감사를 통하여 아침에 왔다가 저녁이면 돌아가서 내왕이 무상하니 일은 하지 않고 허술하여 임지(任地)만 얻고 봉급만 받아갈 뿐입니다. 국가의 요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여 적상산성 관리들의 삭체의 병폐를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더불어 "옥천군 양산면은 무주의 북쪽에 접해 있고 옥천의 구석에 위치하여 별 쓸모가 없는 면입니다. 양산면에서 무주까지의 거리는 실로 안성과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양산을 무주에 편입 시켜 줄 것은 다시 건의하고 있다. 무주군민의 상소가 있은 후인 1673년(현종 14) 12월 21일 전라감사 이동직(李東稷)이 사고 설치로 인한 과중한 무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책으로 안성면을 편입시켜 무주현을 승격시켜 줄 것을 치계 하였다.

무주현(茂朱縣)의 적상산성(赤裳山城)은 천 길이나 되는 견고한 벽이 깍아지른 듯이 사면에 서 있으니 진실로 천연의 요새라고 할 만합니다. 더구나 호서·호남·영남의 세 도가 접하는 곳에 자리잡고 있으니, 만약 양곡을 비축하고 병사를 훈련하여 큰 진(鎭)을 만들면 혹시 위급한 일이 있더라도 산군(山郡) 일대는 거의 적에게 함락당하는 환란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현은 금산(錦山)의 안성면과 경계가 서로 접해 있고 길도 가까우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이곳을 떼어 붙여 현(縣)을 승격시켜 부(府)로 만들고, 현감을 승진시

켜 부사로 만들어 명위(名位)를 중하게 하여 큰 진(鎭)을 이루면 두메 산골의 백성들이 여기에 의지하고 방어도 매우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크게 개혁하는 일과 관련되니 비록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으나, 본현의 임무는 무겁지만 지위가 가벼워 호령이 속읍에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요사이 장성(長城)의 예에 따라 부사(府使)로 승격시키면 체면이 절로 각별해져서 일도 마땅함을 얻을 듯싶습니다.

하였다. 이에 대해 김수흥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무주는 영호남에 위치한 요충지이니 마땅히 유의할 곳입니다. 금산의 안성면은 산성에서 가장 가까우니 떼어주는 것이 편리합니다. 무주를 부로 승격시키고 안성면을 거기에 떼어주소서."하자 임금이 이를 받아들였다.[63]

그리하여 현종 15년(1674) 2월 무주현이 도호부로 승격되었다.[64] 이 때 금산군의 안성면과 횡천면이 무주군에 편입되었다. 전라감사 이동직이 안성면과 함께 편입을 요구했던 옥천군의 양산면은 타도라고 해서 제외되었다. 무주도호부사는 종3품으로 적상산성의 수성장을 겸하였으며, 숙종 28년(1702)에는 토포사(討捕使)를 겸임하였다. 그리하여 비록 남원의 진관체제에 속했으나 실제적으로는 독진관(獨鎭管)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였다. 무주부사는 종3품직으로, 18세기에는 문관(文官)과 음관(蔭官) 수령이 교차 임용되는 읍이었으나, 19세기에는 문관·음관과 함께 무관(武官) 수령이 교차 임용되는 읍으로 바뀌었다.[65]

다음은 도호부로 승격되면서 내려진 '승부사목(陞府事目)'이다.

1. 본부가 승격되어 수성장(守城將)으로서 여러 읍을 호령하니, 산성에 관한 일을 소속읍이 서목(書目)을 갖추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해 체통을 지키도록 하라. 만일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벼운 자는 아전이 즉시 체포하여 곤장 50대로 다스리고, 무거운 자는 수령(守令)이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여 처치하라.
1. 소속 각 읍 병사들의 봄·가을 훈련과 시험 등은 수성장이 몸소 순역하면서 거행하고 그 근태상황을 감사에게 보고하라. 유사시에는 각 읍 수령들이 그 아속(衙屬)과 군사들을 인솔하고 산성에 들어가 수직하라.

63) 『현종실록』 21, 현종 14년 12월 병진조.
64) 『현종실록』 22, 현종 15년 2월 무신조.
65) 『輿地圖書』 관직조 및 『赤城誌』 건치연혁조.

1. 본성은 산길이 매우 험난하여 소속 3읍이 군량미를 모두 성 아래 창고에 납부하는데 유사시에 문제가 있으니, 이제부터 환곡시 3읍의 백성들이 2년마다 교대로 성안에다 납부하여 예상밖의 사태에 대비하라
1. 산성을 수호하는데 승려만한 이가 없으나, 본 성의 생리(生理)가 어려워 몇 안되는 수직승들이 편하지 않으니 지금 이후로는 수직을 원하는 승려들을 널리 모집하여 그들의 신역을 면제하고 오로지 산성 수호에만 전념하도록 하라.
1. 혹 성첩(城堞)이 무너지는 일이 있으면 본부와 소속 각 읍에서 일제히 동원시켜 맡은 지역을 즉시 보수토록 하라.
1. 난을 당하여 산성 수호의 명령을 어기는 수령과 장관(將官)이 발생할 시 순찰사에게 보고할 겨를이 없으니 수성장이 즉시 군법에 따라 경중을 가려 처단하라.
1. 수성장은 편비(偏裨)가 없어서는 안되니 군관 2명을 두고 그의 군량과 급료는 장성(長城)의 예에 따라 원곡(元穀)으로 회감(會減)하라.
1. 본성의 별장(別將)은 감영(監營)에서 차정(差定)하되 온전한 사람을 선택하지 못하여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번번히 교체되니, 지금 이후로는 각별히 택차하여 반드시 30개 월을 근무토록 하라.

3. 무주지방의 통치조직

1) 무주의 행정구역

무풍과 주계가 합병된 직후 ≪세종실록지리지≫에 등재된 조선초 무주현의 지리를 보면, 치소(治所)에서 동쪽으로 경상도 지례현(知禮縣) 경계까지 57리, 북쪽으로 충청도 옥천(沃川)에 이르기까지 8리였다. 서·남쪽으로는 금산에 이르는데 서쪽으로 10리, 남쪽으로 28리로 나타나 있다.

이후 중종대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치소에서 동으로 경상도 지례현 경계까지 49리, 남으로 경상도 거창군(居昌郡) 경계까지 62리, 서쪽으로 금산군 경계까지 13리, 북쪽으로 충청도 옥천군 경계까지 10리, 서울과의 거리는 488리로 되어 있다. 조선후기 금산군의 안성면이 편입됨에 따라 변화가 초래되었는데, 19세기말 ≪적성지≫에 의하면, 동쪽은 지례현으로 그 경계까지 69리, 동남쪽은 거창군 80리, 남쪽은 안의현(安義縣) 60리, 장수현 60리, 서쪽은 금산군 13리, 서남쪽은 용담현 57리, 북쪽은 옥천군 10리,

동북쪽은 영동현 30리, 황간현 경계까지 63리이다. 한편 무주군 영역의 동서길이는 92리, 남북 길이는 95리였다. 또한 무주부에서 서울과의 거리는 480리로 5일 반나절 거리, 전주 전라감영까지는 200리로 2일 반나절 거리, 강진 병영까지는 500리로 6일거리, 해남 우수영까지는 700리로 8일 거리, 여수 좌수영까지는 400리로 4일 반나절 거리, 통영(統營)까지는 430리로 5일이 걸렸다. 18세기에도 이와 거의 다름이 없었다.[66)]

군현 아래 면 조직에 대해서는 18세기 자료들에서 처음 보이는데, 1790년경의 ≪호남읍지≫에 의하면 부내면(府內面) 신동면(身東面) 풍동면(豊東面) 풍서면(豊西面) 풍남면(豊南面) 횡천면(橫川面) 상곡면(裳谷面) 유가면(柳加面) 이안면(二安面) 일안면(一安面) 서북면(西北面) 총 11개 면이었다. 그런가하면 19세기말에 편찬된 ≪적성지≫에는 서북면이 서면과 북면으로 나뉘어 12개 면으로 되어있고. 또 면의 이름에 있어서도 신동면이 신풍면으로 바뀌어 있다. 19세기에 들어와 면 조직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무주의 관서(官署)와 조직

조선 건국 후 태종 14년(14114) 무주현이 설치되면서 종 6품의 현감이 임용되다가, 조선후기 현종 15년(1674) 무주도호부로 승격된 후에는 종3품의 도호부사가 수령으로 임용되어 무주지역을 통괄하였다.

도호부로 승격된 후 무주부 통치조직은 부사(종3품) 아래에, 18세기 경우 좌수(座首) 1명, 별감(別監) 2명, 군관(軍官) 2명, 토포군관(討捕軍官) 70명, 아전(衙前) 37명, 지인(知印) 16명, 사령(使令) 17명, 관노(官奴) 50명, 관비(官婢) 30명, 적상산성에는 천총(千摠) 1명, 파총(把摠) 1명, 초관(哨官) 4명, 지구관(知殼官) 1명, 기고관(旗鼓官) 1명, 기패관(旗牌官) 37명, 군뢰(軍牢) 10명으로 편제되었다. 19세기말에 간행된 무주읍지에도, 관노가 20명, 관비가 10명으로 감소된 것 외에는 18세기 조직과 큰 차이가 없다. 통치 조직상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객사(客舍)

객사는 내방한 관원의 숙소로서도 사용되지만 이는 익헌에서 이루어지고, 중앙 정전에서는 전패를 안치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지방관들이 망궐례를 행하는 건물이다. 그래서 객사는

66)『호남읍지』(1790년경), 무주부.

도시건축의 중심이 된다. 무주의 객사는 적성관(赤城館)이라 하였는데, 정전이 3간, 동서무가 각각 4간 씩이다. 이밖에 마루 9간, 내외문·외삼문 각각 3간, 헐소(歇所) 9간이다. 1593년 (선조 25) 임진왜란 중 소실된 것을 그 해 현감 김공희(金公喜)가 재건하였다.[67] 무주객사는 이후 고종17년(1880) 부사 이철재(李喆在)가 다시 중수하였다.

(2) 동헌(東軒)

동헌은 정청(政廳)으로 지방의 일반행정과 재판 등이 이루어지는 수령의 집무처이다.

수령의 생활 공간인 내아(內衙)와 구분되어 보통 그 동편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동헌이라 했다. 무주부 동헌은 현 군청자리에 있었다. 동헌은 각 군현마다 그 건물의 당호가 있는데 무주는 '와선당(臥仙堂)'이라 하였다. '산수는 청명하고 인심은 순박하여 정사(政事)에 힘들 것이 없고 마치 신선이 누어서 잠자는 것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무주동헌이 언제 처음 건립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동헌이 수령의 집무처인 만큼 현 군청자리로 옮겨오던 중종대에는 이미 건립되어 있었다 할 수 있다. 기록에는 임난 이후부터 나온다.

≪적성지≫(1898)에 등재된 채팽윤(蔡彭胤)의 와선당기(臥仙堂記)에 의하면, 인조 12년(1634) 5월 현감 김수창(金壽昌)이 아사(衙舍)를 세웠으며, 현종 9년(1668)에 현감 심철(沈澈)이 동헌을 세웠다. 세월이 흘러 동헌이 낡고 오래되자 영조 3년(1727) 부사 채팽윤이 내아와 동헌을 재건하였다. 채부사는 승정원 승지로 있다가 영조 1년(1725) 6월 무주부사로 부임해 동왕 3년(1727) 8월에 임기를 채우고 이임했던 인물로 동헌을 재건하고 '와선당기'를 남겼다. 이에 의하면 채부사가 사재를 털어 영조 3년(1727) 80일 만에 동헌을 건립하였는데, 여기에 소요된 인원이 총 2,600명, 철이 230근 쓰였으며, 크기가 이전 건물보다 두 배나 컸다. 영조 6년(1730) 이언상(李彦祥) 부사가 다시 중수하였으며, 헌종 13년(1847) 최원(崔瑗) 부사가 동헌을 이전했고, 고종17년(1880) 이철재(李喆在) 부사가 중건하였다.

고종대 중건된 동헌의 규모는 상방(上房) 3간, 협방(挾房) 3간, 대청(大廳) 3간, 통방(通房) 1간, 앞마루 6간, 뒷마루 4간, 명금루(鳴琴樓) 2간, 도합 20간이다. 명금루는 동헌 앞 문의 명칭이다. 동헌은 일제 때 무주군청으로 사용하다가 새로 군청사를 건립하고 구 건물은 철거하였다.

---

67) 『김공희는 宣祖 23년(1590) 2월에 부임하여 선조 26년(1593) 10월에 모친상을 당해 이임하였다.

(3) 내동헌(內衙)

인조 12년 현감 김수창이 건립하였다. 이후 헌종 13년(1847) 부사 최원(崔瑗)이 이전의 내아를 헐고 다시 지었다. 총 18간이며, 행랑 5간, 중문 1간이다. 최원이 지은 내아는 조선 몰락 후 개인소유로 있다가 1968년 11월 무주 구천동 백련사(白蓮寺)로 옮겨졌다. 문향헌(聞香軒)이 그것이다. 백련사로 이전하기 위해 내아를 해체했을 때 최원 부사가 지은 상량문이 나왔다. 다음은 그 상량문의 내용이다.

> 공관을 짓는데도 동서를 나누고 궁실을 짓는데도 내외를 구별한다. 그 해가 거듭 돌아오니 마치 오늘을 기다린 것 같다.(채팽윤 부사가 동헌을 지을 때도 정미년이고 최원 부사 자신이 동헌을 건립할 때도 같은 정미년이라는 뜻이다)
>
> 우리나라 법에 수령들이 식구를 거느리고 부임하는 것은 한나라 법에 관리들에게 자손을 거느리게 한 것과 같다. 어찌 외관이 집이 없을 것이냐. 그래서 임지에 가솔을 위한 실당(室堂)을 두게 한 것이니 주나라 제도에 부인들을 위한 여사(旅舍)와 같다.
>
> 어헌(魚軒, 부사 부인이 타는 수레)과 가마를 나누어 타고 처자와 같이 부임하여 중문연침(中門燕寢)에서 지내다가 만기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어찌 적상명구(赤裳名區)에 오랫동안 내아가 폐허로 방치되어야 하겠는가.
>
> 내당이 비게 된 것은 오래 전부터 도깨비불이 나오고 낮에도 사슴과 여우, 이리 등이 횡행한다 하여 민가를 빌려 부인을 살게 한데서 비롯되었으니, 어찌 심궁고문(深宮固門)이라 하겠는가. 태수는 환수정(喚睡亭)에 이거하여 집무하니 이 또한 정식 공관이라 하겠는가. 천일문내(千日門內, 환수정문)에 매 치는 소리가 낭자하고 한풍루에서는 풍악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오니 내가 부임한지 3개월 가까이 되도록 침식을 한번도 편안하게 하지 못했다.
>
> 관사는 있어도 헐어서 8식구와 서로 떨어져 지내니 일신이 외롭다. 여염집이라도 몸체와 행랑채가 있거늘 하물며 웅부거진(雄府巨鎭)에 변변한 실당이 없어서 되겠는가. 이에 먼저 동헌을 지어 이사하고 다시 내동헌을 헐고 옮겨 건립하는 것이다.
>
> 땅이 적당치 않아 새 터를 잡았고, 기와와 재목은 썩고 낡아 바꾸었다. 흥망성쇠가 흐르는 물과 같아 정미년 해가 똑같고 좌향(坐向)도 같다. 주춧돌도 옛 것을 그대로 썼다. 공사비는 궁한 백성들에게 징집하지 않았고 경영도 알맞게 하여 어정잡이들에게 역사를 맡겼다.
>
> 이에 새와 쥐가 다 물러가고 제비와 참새가 큰집을 지었다고 하례 한다. 결구는 전과 같으나 도장을 새로 하니 환한 모습이다. 수문(繡門)을 여니 산은 병풍 같이 둘러 있고 주렴을 걷으니 대천이 띠를 두른 것 같다. 앞에는 탄금각이 있어 인(印) 끈을 끌러 놓고

담소하고 왼편에 독서재(讀書齋)가 있어 청소년들과 놀기도 한다. 부모를 모셔다 받들 고 처자와도 즐긴다. 장노의 칭송과 명공의 노래도 이 집을 복되게 한다.(이하 생략)

(4) 향청(鄕廳)

향청은 향사당이라고 하여 좌수와 별감이 근무하는 곳으로 향약이 행해졌다. 적성관 동쪽에 위치하고 동방 1간, 서방 2간, 대청 2간, 마루 5간이다. 읍취루(揖翠樓)가 그 정문인데, 고종 17년(1880)에 불탔다.

(5) 책실(冊室)

부사의 비서인 책방(冊房)이 근무하던 곳으로 동헌과 내동헌 사이에 있었다. 여기에서 부사의 자제 교육도 했기 때문에 일종의 교실이다. 이 책실을 의청헌(疑淸軒)이라고도 하는 데 규모는 12간, 협문이 1간으로 되어 있다.

(6) 작청(作廳)

이방, 예방, 병방, 공방 등 4방의 집무처이다. 규모는 이방방(吏房房) 2간, 예방방 2간, 병방방 2간, 공방방 2간, 대청 3간, 마루 3간, 대문 2간, 합계 16간으로 되었으며 위치는 종각 앞이다.

(7) 서청(書廳)

호방(호장)의 집무처로 작청 남쪽에 있다.

(8) 대동청(大同廳)

대동양(大同良, 補役色)의 집무처로 국세 조사와 군량 및 군용품의 조달을 하는 기관이며 객의 뒤편에 있다.

(9) 형청(刑廳)

형방과 옥형방(獄刑房)의 집무처로 아전들의 자제 교육도 여기서 하였다. 그 위치는 동헌 과 객사의 사이에 있다.

(10) 장청(將廳)

현재의 경찰서와 같은 기관으로 위치는 한풍루의 동쪽이고 규모는 14간이다.

(11) 관노청(官奴廳)

관노의 집무청으로 당시 36명의 관노가 있었다. 위치는 동헌 내에 있다.

(12) 통인청(通引廳)

관인을 날인하는 통인들의 집무청으로 형청 앞에 위치 한다.

(13) 사령청(使令廳)

사환(使喚) 또는 죄인 체포를 담당하는 사령들의 집무청으로 동헌 내에 있다.

(14) 관청(官廳)

부사의 식사, 연회를 담당하는 관청 색리(色吏)의 집무청으로 동헌 뒤에 있다.

4. 무주지방의 군사체제

조선 건국 후 중앙군은 고려 때의 2군 6위(二軍 六衛)를 바탕으로 하여 십위(十衛) → 십사(十司) → 십이사(十二司)제도로 변혁이 반복되다가, 1451년(문종 1) 오사(五司)로 개편된 뒤 1457년(세조 3) 5위제(五衛制)로 확립되었다. 그리하여 중앙군은 의흥위(義興衛,中衛), 용양위(龍驤衛, 左衛), 호분위(虎賁衛, 右衛), 충좌위(忠佐衛, 前衛), 충무위(忠武衛, 後衛) 등 5위로 편제되었으며, 각 위는 중(中)·좌(左)·우(右)·전(前)·후(後) 5부(五部)로 조직되었다.

이 5위에는 중앙군 뿐만 아니라 지방군도 분속되었다. 전라도는 5위 중 충좌위(전위)에 속하였으며, 전주진관 군사가 중부, 순천진관 군사가 좌부, 나주진관 군사가 우부, 장흥·제 주진관 군사가 전부, 남원진관 군사가 후부를 이루었다. 무주지방은 남원진관 소속으로 충좌위(전위) 후부에 속하였다.

그러나 지방군의 지휘권은 각 지방의 절도사에게 있었다. 따라서 지방군의 분속은 그들이

직접 번상하여 수도방어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대열 등에 대비하여 전국의 번상군사를 거주지의 진관별로 파악하고 5위에 분속시킨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군은 건국 직후 육수군(陸守軍)과 기선군(騎船軍)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다. 기선군은 뒤에 선군(船軍), 다시 수군(水軍)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면 지방군의 편제는 어떠했으며, 무주 지방의 사정은 어떠했을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조선 건국 직후에는 고려말의 제도를 이어받아 각 도에 전임(專任) 도절제사(都節制使)를 파견하여 일도의 군사를 총괄하게 하였다. 그러나 전임 도절제사라고는 하지만 그 휘하에 병마사(兵馬使, 1인)·지병마사(知兵馬使, 1인)·병마부사(兵馬副使, 1인)·판관(判官, 3인), 반당(伴黨, 3인) 등 총 9명의 기간요원이 있었을 뿐 휘하에 직접 부릴 수 있는 직할 병력은 없었다. 도절제사는 그 도의 어느 군현에 적침이 있으면, 그 군현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웠다.

그러다가 1397년(태조 6년)에 이르러 군사단위로서의 도를 폐지하고, 대신에 각 도에 2개 내지 4개의 진(鎭)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각 진에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어, 도관찰사의 감독 하에 인근에 있는 군사를 통괄하게 하였다. 이들 진은 연해안에 설치되었는데, 이는 연해안의 방어를 목적으로 진이 설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때 전라도에는 목포(木浦)·조양(兆陽)·옥구(沃溝)·흥덕(興德) 등 4 곳에 진이 설치되었다. 즉 태조 6년에 이르러 전라도는 전임 도절제사제가 혁파되고, 4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져 각 진의 첨절제사들이 각 권역의 군사를 관장하였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태조 7년 전임 도절제사제가 다시 부활되었다. 그러나 이 때의 도절제사는 이전과는 위상을 달리하였다. 휘하에 직할 병력을 거느리고, 도절제사영이 따로 마련되었다. 고려말에 설치되었던 전임 도절제사제가 이 때에 와서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진의 위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전임 도절제사제의 복치는 단지 각 진의 첨절제사에 대한 통할권이 도관찰출척사(감사)에서 전임 도절제사로 넘어간 것 뿐이었다.

이후 태종대에 이르러 지역에 따라 진의 개폐가 이루어졌다. 전라도의 경우 4개의 진을 둔 점은 그 이전과 같았지만, 진의 위치에 변화가 있었다. 목포진과 흥덕진이 폐해졌는가 하면 부안진과 무장진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보성현의 조양진과 함께 옥구진은 그대로 존속 되었다.

1455년(세조 1년) 병조의 건의로 지방군사체제에 일대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군익도체제(軍翼道體制)로의 개편이 그것이다. 평안도·함경도 등 북방에서 이루어지던 군익도체제가 전국으로 확장된 것이다. 종전의 진은 주로 연해안 지역에 설치되어, 내지의 방어에는 소홀한 면이 있었다. 이에 내륙지방에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주변의 여러 고을을 분속시켰던 것이다. 즉 전국의 각도를 몇 개의 군익도로 나누고, 각 군익도는 중·좌·우익 3익으로 나누어 여러 고을을 여기에 배속시켰다.

군익도체제하에서 각 익의 지휘관은 수령이 겸하였으며, 중익수령의 경우 모도모진중익 병마절제사(某道某鎭中翼兵馬節制使), 좌·우익 수령의 경우는 모도모진좌우익병마단련사(某道某鎭左右翼兵馬團鍊使)·부사(副使)·판관 등으로 지칭하였다. 또한 갑사(甲士)· 별시위(別侍衛) 등 모든 군사는 익에 속하여 번상·습진·취재도 중익을 중심으로 각 익에서 관할하고, 군적은 중익과 도절제사 병조에 비치하였다. 군령은 도절제사 → 중익절제사 → 제익으로 이루어졌다.

전라도의 군익편성은 다음과 같다.

전주도(全州道) : 중익(전주·여산·익산·금구), 좌익(금산·진산·무주·용담·고 산), 우익(김제·만경·태인·정읍)

남원도(南原道) : 중익(남원·임실·구례·곡성), 좌익(진안·운봉·장수), 우익(순창)

순천도(順天鎭) : 중익(순천), 좌익(광양), 우익(낙안)

나주도(羅州道) : 중익(나주·광주·남평·능성·영암), 좌익(담양·창평·화순·진 원), 우익(고창·장성)

흥양진(興陽鎭) : 중익(흥양), 좌익(보성), 우익(장흥·해남·강진)

옥구진(沃溝鎭) : 중익(옥구), 좌익(함열·용안), 우익(임피)

부안진(扶安鎭) : 중익(부안), 좌익(고부), 우익(흥덕)

무장진(茂長鎭) : 중익(무장), 좌익(무안), 우익(영광·함평)

독진(獨鎭) : 진도

제주도(濟州道) : 중익(제주), 좌익(정의), 우익(대정)

군익도체제하에서 전라도는 전주도·남원도·순천진·나주도·흥양진·옥구진·부안 진·무장진·제주도 등 9개의 거진과 독진 진도로 편제되었다. 그리고 각 거진은 인근의

고을들을 중익·좌익·우익 등 3개의 군익으로 편입하여 하나의 군사단위를 이루었다. 무주는 이런 군익도체제하에서 전주도의 좌익에 편제되었다.

세조 1년의 획기적인 군사체제의 대개혁이 있은 지 2년이 지난 1457년(세조 3년) 10월 군익도체제는 진관체제(鎭管體制)로 개편되었다. 즉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좌·우익으로 편성되었던 종래의 체제를 지양하고, 주요한 지역을 거진으로 하여 나머지 주변지역의 제진을 그 휘하에 속하게 한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변화는 군익도체제하에서 道라는 명칭을 없애고 대신에 鎭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도에는 여러 의미가 있고 고려시대 이후 지방군의 파악단위로 도란 명칭이 사용되었던 것이며, 북방의 익군체제 정비에 따라 역시 도를 단위로 삼았던 것인데, 이 때 진으로 바꾼 것이다. 행정구역상의 도와 혼동되는 복잡성을 피한다는 이유가 있겠지만, 종래 지방군사상의 요새지였던 진의 계열과 연결시켜서 요새 지 군사기지로서의 거점적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렇게 바꾼 것이다. 예컨대 전주도라고 할 때 주는 지역적 인상보다도 전주진이라고 할 때의 거점적 인상이 새로운 편성에 더욱 부합되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중·좌·우익의 체제가 지양되고, 거진을 중심으로 제진이 이에 속하도록 한 것은 제진 각자에게 독자성을 부여하고, 일원적 군사체제를 더욱 분명히 한 조치였다. 중요한 지역을 중익으로 하고, 그 주변의 단위지역을 위치에 따라 좌우익으로 설정한 체제는 익이라는 단위가 더 있어서 세분된 상태를 보여주지만 필요 이상으로 중첩된 체제는 오히려 기동성을 제한하고 각 단위지역의 독자성에 제약을 가하는 점이 많으므로 이 같은 개편을 한 것 같다. 또한 지휘계통으로 보더라도 군익도체제하에서는 중익병마절제사에게 명령권이 있다고 규정했지만 중익에 속하는 단위지역이 여럿 있는 경우도 많아 혼란이 개재되는 바 있으므로, 거진을 따로 떼내어 다른 제진과의 상하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세조 1년 군익도 편성 때에 보이던 독진이 진관편성을 통해 보이지 않게 되는 것 또한 주목된다. 즉 이 독진들이 진관편성 때 거진을 이루거나 제진으로 전담 편입되는 것이다. 이는 세종 1년 이후의 군제개편방향과 일치되는 것이며 전역을 망라하는 진관체제가 보다 완벽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진관체제는 1458년(세조 4)에 재정비되었다. 그리하여 진관체제로의 개편은 전국을 군사지대화하는 조직체로 묶는 데 성공하였다. 세조 12년에는 각도와 각 진관의 병마 책임자의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각 관의 수령이 절제사 이하를 겸임하는 원칙은 그대로 지켜졌

다. 당시 개칭된 병마책임자들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도절제사(都節制使) → 절도사(節度使), 도절제사진무(都節制使鎭撫) → 우후(虞侯), 단련사(團鍊使) → 첨절제사(僉節制使), 단련부사(團鍊副使) →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단련판관(團鍊判官) → 절제도위(節制都尉)

그리하여 각 도에는 병마절도사(병사)가 도내의 육수군(陸守軍)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주진이 있고, 그 아래에는 목사(정3품) 등이 예겸하는 경우가 많은 첨절제사(부윤은 절제사)가 거진을 단위로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말단 제진은 군수 이하가 동첨절제사 이하의 직함을 갖고 있었다.

경기와 강원도는 병사 자리가 하나라 관찰사가 예겸하였지만, 다른 지역은 관찰사가 예겸하는 병사직 외에 전임 병사가 또 하나 있었고, 경상도와 평안도는 국방상 중요성에 비추어 관찰사가 예겸하는 병사 외에 전임 병사가 2명 더 있었다. 관찰사(감사)는 한 도의 행정책임자로서 군사관계 행정을 관장한다는 뜻에서 병사를 겸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군사 지휘관계는 주진의 각도 절도사로부터 거진의 첨절제사로, 또 그로부터 제진의 동첨절제사로 연결되는 일원적 계통이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행정권을 전장하는 관찰사는 여러진의 병마관을 겸하는 수령들의 직속 상관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 하였다.

다음은 ≪경국대전≫에 등재된 전라도 육수군의 진관편제 내용이다.

관찰사(감사) : 병사와 수사를 겸함 (감영 : 전주)

전임 병사(1인)·우후 (병영 : 강진)

전주진관(전주부윤 : 병마절제사) :	익산·김제·고부·금산·진산·여산군수(이상 동 첨절제사), 전주판관, 정읍·흥덕·부안·옥구·용 안·함열·고산·태인현감, 만경·임피·금구현령 (이상 절제도위)
나주진관(나주목사 : 첨절제사) :	광주목사, 영암·영광군수(이상 동첨절제사), 나 주·광주판관, 함평·고창·장성·진원·무장·남 평·무안현감(이상 절제도위)

남원진관(남원부사 : 첨절제사) : 담양부사, 순창군수(이상 동첨절제사), 남원판관,임실·무주·곡성·진안·옥과·장수현감, 용담·창평현령(이상 절제도위)

장흥진관(장흥부사 : 첨절제사) : 진도군수(동첨절제사), 강진·해남현감(이상 절제 도위)

순천진관(순천부사 : 첨절제사) : 낙안·보성군수(동첨절제사), 광양·구례·흥양·동복·화순현감, 능성현령(이상 절제도위)

전라도는 감사가 겸하는 병사 외에 전임병사가 1인 있었으며, 그 병영은 강진에 있었다.[68] 제진은 전주진관·나주진관·남원진관·장흥진관·순천진관 등 5개의 거진으로 나뉘어 편제되었다.

무주현은 남원진관에 속하여, 무주현감은 절제도위로서 첨절제사 남원부사의 지휘를 받았다.

이러한 진관체제는 각 진관을 중심으로 자전자수하는 체제로, 군사 확보 등 군비마련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이후 제승방략체제(制勝方略體制)로 개편되었다. 즉 각 진관별로 자전 자수(自戰自守)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 각 읍의 수령이 소속 군사를 이끌고 지정된 방어지역으로 집결하여 공동으로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제승방략체제로 바뀌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제승방략체제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조선후기에는 진관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영장제도(營將制度)로 다시 재편되었다. 즉 1627년(인조 5) 후금을 대비하기 위한 속오군 강화책으로서 지방군은 영장제로 재편되었다. 영장제하의 전라도 군사편제는 다음과 같다.

---

68) 임난 후 강진이 평평한 언덕과 황폐한 들에 위치하고 있어 병영지로 적합하지 못하니, 병영을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장흥에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강진과 장흥 사이의 거리가 10여리로 서로 형세가 다르지 않다는 주장과 장흥사람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또 내지인 담양으로 옮기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호남지방에서 방비해야 할 곳은 연해이며, 병영을 연해지방인 강진에 설치한 것은 그런 연유가 있는 것이니 함부로 바꿀 수 없다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다. 정조대에도 병영을 장흥이나 장성의 입암, 혹은 순창의 복흥으로 옮기자는 논의가 있었다(『선조실록』 135, 34년 3월 기미조 ; 『정조실록』 6, 2년 7월 정미조).

전영(순천) : 순천·장흥·진도·낙안·보성·강진·흥양·동복·광양·해남
좌영(운봉) : 남원·곡성·장수·창평·옥과·구례·운봉·무주
중영(전주) : 전주·김제·고부·진안·임실·금구·만경·부안
우영(나주) : 나주·광주·능주·영암·영광·화순·남평·무안·함평·무장
후영(여산) : 여산·익산·고산·금산·진산·용안·함열·임피·옥구·용담

이러한 영장제도하에서 무주는 좌영에 속하였다.

제2절 무주지방의 사회경제

1. 무주지방의 인구

조선은 토지를 대상으로 조(租), 사람을 대상으로 용(庸), 그리고 호(戶)를 대상으로 조(調)를 각각 부과하여 징수하였다. 전세(田稅)·신역(身役)·호공(戶貢) 등이 각각 그것이다. 신역과 호공의 경우, 각각 신공과 호역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이는 호(戶)와 구(口)를 대상으로 역역(力役)을 부과하는가 또는 공물(貢物)을 부과하는가의 차이이다. 즉 역역을 부과할 때에는 역(役)이라 하고 공물을 부과 할 때 공(貢)이라 하였다.

이같이 호구에 부세 또는 역역을 부과 징수하는 제도는 토지에 부과되는 전세와 함께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중국에서는 주나라 때에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한사군시대부터 그런 징수제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호구에 역역과 부세 부과를 위해 작성된 것이 호적대장이다.

조선시대에는 역역과 부세를 부과하기 위해, 각 군현별로 매 3년에 한 번씩 호구를 조사하여 호적대장을 작성하였다. 즉 매 3년인 식년(式年 : 子·卯·午·酉)에 이정(里正)·풍헌(風憲)·약정(約正) 등의 면임(面任)과 호방(戶房)·호적색리(戶籍色吏) 등의 주관 아래 각 가호(家戶)로부터 가내 거주인구와 소유노비에 관한 호구단자를 신고 받아 각 군현에서 작성하였다. 호구단자에는 가구의 소재지, 호주의 신분(직역·성명·연령·본관), 4조(四祖)의 신분 및 성명, 호주 처의 신분(성명·연령·본관), 처의 4조의 신분 및 성명, 동거인의 호주와의 관계(신분·성명·연령), 소유노비 및 고공(雇工)의 신분(성명·연령·부모) 등

을 기재하였다. 수집된 관내주민의 호구기록은 가좌순에 따라 5가구마다 1개 통으로 조직한 오가작통에 따라 호적대장을 작성하였다. 각 호주가 제출한 호적은 확인작업을 거쳐 돌려주고, 2부를 더 정사하여 1부는 감영에, 1부는 호조에 각각 상송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호적대장을 통해, 호구 수와 그 동태가 파악되었는데, 조선시대 이러한 호구수를 집대성한 책으로는 정조대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호구총수≫가 있다. 이 외에 ≪세종실록지리지≫를 비롯한 조선왕조실록에도 각 시대의 호구수가 기재되어 있으며, 읍지 등에도 당시의 호구수가 실려 있다.

물론 조선시대에 실시된 호구조사가, 오늘날과 같이 당시의 인구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로는 조선시대에 이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예컨대, 구한말의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비율을 책정해 조선시대의 실재 인구수를 추정해 볼 때, 1543년(중종 38)의 경우 조선시대 작성된 것에는 416만 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재인구는 1,072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 조선개국 당시인 1392년의 경우, 같은 비율로 추정해 볼 때 실재인구는 991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선시대 조사해 놓은 인구수치를 통해, 한 지방의 인구집단의 규모와 사회경제적 상황, 그리고 그 추이 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먼저 ≪세종실록지리지≫에 등재된 세종대의 호구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통계는 당대의 전체 호구수라기 보다는 유역자(有役者)의 호구수로 생각된다.

<표 2-4-1> ≪세종실록지리지≫에 등재된 각 도별 호구 통계

도 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함길도	합계
호 수	20,882	24,170	42,227	24,073	23,511	11,084	42,167	14,739	201,853
인 구 수	50,352	100,790	173,897	94,248	71,897	29,009	105,444	66,976	692,477

* 한성부 : 18,794호
* 개성유후사 : 5,663호, 10,393명

<표 2-4-1>에서 보듯이 한양·개성 등을 제외한 8도의 세종대 전체 호수는 201,853호였고, 가장 많은 호수를 가진 데가 경상도로 42,227호였다. 전라도는 총호수가 24,073호로, 경상도·평안도·충청도 다음이었다. 한양 등을 제외한 8도의 인구수는 692,477명이었고,

도별로는 호수와 마찬가지로 경상도가 가장 많아 173,897명이었고, 전라도는 94,248명으로 경상도·평안도·충청도 다음이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등재된 무주현은, 종6품의 현감고을로 호수는 172호이고, 인구는 715명이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세종실록지리지≫에 등재된 이 호구수는 전체 호구가 아니라 유역자 호구로 보인다. 그러면 조선후기에는 어떠하였을까? 1789년(정조 13)의 호구수가 등재되어 있는 ≪호구총수≫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실재인구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표 2-4-2> 1789년(정조 13)의 각 도별 호구 통계

도명	호수	인구수	도명	호수	인구수	도명	호수	인구수
한성부	43,929	189,153	충청도	221,625	868,219	함경도	123,882	696,275
경기도	159,160	642,069	전라도	319,160	1,220,804			
강원도	81,876	332,256	경상도	365,220	1,590,973	총계	1,752,837	7,403,606
황해도	137,041	567,813	평안도	300,944	1,296,044			

* 자료 : ≪호구총수≫(규장각)

<표 2-4-2>에서 보듯이 1789년(정조 13)의 전체 호수는 1,752,837호이고, 인구수는 7,403,606명이다. 도별로 보면 경상도가 가장 많아 호수가 365,220호이고, 인구는 1,590,973명이다. 전라도는 경상도 다음으로 많아 호수가 319,160호이고, 인구수는 1,220,804명이다. 세종대에는 전라도가 호수와 인구면에서 4위였는데, 18세기에는 경상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라도가 차지한 비율을 보면, 호구수는 전체의 18.2%, 인구수는 전체의 16.5%이다.

≪호구총수≫에는 또 정조 13년의 각 군현별 호구수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18세기 무주부의 호구수를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무주부는 11개면에 88개의 리가 있었다.

<표 2-4-3> 1789년(정조 13) 무주도호부의 호구

면(面)	호(戶)	인구			면(面)	호(戶)	인구		
		남	여	계			남	여	계
부내면	860	1,114	934	2,048	풍남면	395	533	505	1,038
적상면	560	852	709	1,561	풍서면	347	442	403	845
유가면	645	778	811	1,589	일안면	602	697	655	1,350
서 면	407	621	626	1,247	이안면	556	657	682	1,339
신동면	329	461	528	989	횡천면	390	442	438	880
풍동면	399	718	426	1,144	계	5,446	7,315	6,717	14,032

* 자료 : ≪호구총수≫(규장각)

<표 2-4-3>에서 보듯이 18세기 후반 무주의 전체 호수는 5,446호이고, 인구는 14,032명 이었다. 이들 중 남자는 7,315명이고, 여자가 6,717명으로, 남자가 더 많았다. 이런 무주 호수는 전라도 전체 호수의 1.7%, 인구는 1.2%에 해당된다.

각 면별로 보면, 부내면 860호 2,048명, 적상면 560호 1,561명, 유가면 645호 1,589명, 서면 407호 1,247명, 신동면 329호 989명, 풍동면 399호 1,144명, 풍남면 395호 1,038명, 풍서면 347호 845명, 일안면 602호 1,350명, 이안면 556호 1,339명, 횡천면 390호 880명이다. 읍성이 있던 부내면의 호구가 가장 많다.

19세기 후반 무주 호구수는 1871년경에 간행된 ≪호남읍지≫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데, 호수는 5,405호, 인구는 13,175명이다. 남자는 7,309명, 여자는 5,866명이다. 18세기보다 호구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유랑 질병 등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단지 무주 지방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1898년에 간행된 ≪적성지≫에 등재된 호구수는 1871년경의 ≪호남읍지≫에 등재된 호구수보다 더 줄어 호수는 3,957호, 인구는 15,352명이다. 남자가 8,812명, 여자가 6,540명이다. 이는 1894년 갑오농민전쟁을 거치는 등 조선말로 갈수록 사회경제적 상황이 더 어려워졌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적성지≫(1898)를 통해 19세기말 호구수를 면별로 보면 부내면 469호 1,776명, 신풍면(신동면) 221호 992명, 풍서면 237호 957명, 풍동면 254호 1,420명, 풍남면 291호 1,612명, 횡천면 274호 911명, 상곡면 431호 1,384명, 유가면 560호 2,105명, 이안면 394호 1,282명, 일안면 486호 1,609명, 서면 249호 769명, 북면 91호 360명이다. 18세기와 달리 유가면이 호구수가 가장 많은 읍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1871년경까지 11개 면인데, 19세기 말에 와서 12개 면으로 1개 면이 늘었다.

2. 무주지방의 토지

조선 건국 후 토지제도는 고려말에 제정된 과전법체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과전이 고갈되어 감에 따라 1466년(세조 12)에는 직전법을 실시하여, 현직 관료들에게만 수조지를 분급 하였다. 직전법 실시로 불안을 느낀 관료들이 재직 중에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혹 한 수탈을 자행하게 됨에 따라, 1470년(성종 1)에는 관수관급제로 개편하였다. 즉 관에서 경작자에게 직접 수납하여 관료나 공신에게 해당 액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1556년(명종 11)경에는 사실상 폐지되어 이후 관료들은 원래부터 병행하여 오던 녹봉(米穀·細布)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렇게 과전법체제가 무너짐에 따라, 공전·사전이나 조·세[69]의 구별도 없어지고, 토지의 사유화와 병작반수의 소작제가 일반화 되었다.

이러한 토지제도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것은 궁방전(宮房田)·둔전(屯田)·진황전(陳荒田) 등의 면세지가 확대되고, 토지를 은닉한 은결(隱結) 등이 증가해 갔다는 것이다. 궁방전은 왕실의 일부인 궁실과 왕실에서 분가한 궁가에 지급하던 토지를 이름이고, 둔전은 관아에게 경비마련을 위해 지급한 토지로 영문둔전(營門屯田)과 아문둔전(衙門屯田)이 있다. 진황전은 오랫동안 황폐되었던 곳으로 그 개간을 촉진하기 위해 3년 간세를 면해주는 토지를 말한다. 조선후기 이런 토지들이 증가 확대되어 갔다는 사실은 곧 국가재정이 그만큼 어려워져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조선정부는 매 20년마다 한 번씩 토지조사사업, 즉 양전(量田)을 실시하였는데, 그 단위는 결부제였다. 결부제는 삼국시대부터 양전의 단위로 사용되었는데, 조선의 결부제는 토지의 면적과 그 토지에서의 수확량을 2중으로 표시하는 독특한 계량법을 사용했다. 즉 곡화(穀禾) 1악(握, 한 움큼)을 1파(把, 한 줌)라 하고, 10파를 1속(束, 한 단), 10단을 1부(負, 한 짐) 또는 1복(卜)이라 하고 100부를 1결(結)이라 하여, 곡화의 수확량을 표시하는 단위인 동시에 그 수확량을 산출할 수 있는 토지면적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 결부제에 대립되는 중국의 경무제는 고정된 면적 표시의 계량법이다.

그러면 무주지방의 토지는 어떠했을까? 먼저 조선전기 각 도의 결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69) 租는 경작자가 收租者에게 내는 것을 말하고, 稅는 수조자가 국가에 바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과전법체제하에서는 엄격히 구분되었다.

<표 2-4-4> 조선전기 각 도의 결수

구분	태종 4년	『세종실록지리지』	연산군 7년 경	구분	태종 4년	『세종실록지리지』	연산군 7년 경
한성부		1,415		황해도	90,922	104,772	101,600
개성부		5,357		강원도	59,989	65,916	34,814
경기도	149,300	200,347		평안도	3,271	308,751	
충청도	223,090	236,300	231,995	함경도	6,648	130,413	
경상도	224,625	301,147	295,440	합계	931,835	1,632,006	1,032,070
전라도	173,990	277,588	368,221				

* 자료 : 李載龔, '조세' ≪한국사≫ 24, 1994, pp.455~456에서 재인용.

<표 2-4-4>에서 보듯이, 전라도의 토지는 태종대 173,990결, 세종대 277,588결, 연산군대 368,221결이었다. 태종대만 하더라도 충청 경상도에 비해 작게 나타나 있지만, 연산군대 에는 가장 많은 결수를 보이고 있다. 무주 지방은 ≪세종실록지리지≫를 통해 그 전결을 알아 볼 수 있는데, 무주의 총결수는 1,501결이며, 이 중 논이 2/9 이다. 다음으로 조선후기 하삼도의 시기전(時起田, 給災田+實結) 결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5> 조선후기 하삼도의 시기전 결수

년 대	충 청 도	전 라 도	경 상 도	계
인조 13(1635)	131,008	202,329	207,525	540,862
경종즉위(1720)	160,300	245,500	262,000	667,800
영조 2(1726)	141,131	199,518	208,296	548,945
영조 45(1769)	123,861	199,240	199,725	522,826
순조 7(1807)	126,333	216,600	205,304	548,237

* 자료 : ≪인조실록≫ ; ≪경종실록≫ ; 영조대는 ≪증보문헌비고≫ 田賦考 ; 순조대는 ≪만기요람≫ 財用篇 2, 田結 ; 金鎭鳳, <전세제의 개편> ≪한국사≫13, 1984, p.122에서 재인용

<표 2-4-5>에서 보듯이, 전라도의 시기전은 대략 2십여 만 결로, 19세기에 와서는 시기전이 경상도보다 더 크게 잡혀 있다. 총면적에 있어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큰 차이가 있는데도 경상 전라의 시기전의 결수가 엇비슷하게 나타나고, 순조대에는 전라도가 더 넓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전라도가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전라도는 적어도 19세기에 있어서 왕실 소유지인 궁방전이 가장 많이 분포했던 지역이기도 하다.[70] 이는 또 전라도가 그만큼 수탈이 심했던 곳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선후기 무주지방의 전답결수는 ≪읍지≫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먼저 1790년 경에 간행된 ≪호남읍지≫를 통해 18세기말 무주 원장부의 총결수는 3,065결로, 논이 1,346결, 밭이 1,780결이다. 한편 19세기말의 경우 세금을 내는 시기전은 총 2.001결이었다.

3. 무주지방의 조세

조선 건국 후 전세제(田稅制)는 고려말에 제정된 과전법과, 태종 1년에 개정된 답험손실법 체제로 운영되었다. 그리하여 수확량의 10분의 1을 전세로 내었으며, 조세를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손(損 : 흉작)에 준하여 조세를 감면하여 주되, 농작의 실황을 일일이 답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전세를 부과하였다.

답험손실법이 조사관의 농간 등 여러 폐단이 일자, 1444(세종 26)년에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으로 개선되었다. 즉 토지의 비척에 따라 토지의 등급을 6등전으로, 그리고 매년의 풍흉을 보아 이를 9등급으로 나누되 전분에 따라 수조율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 1결의 면적을 달리하는 수등이척제(隨等異尺制)의 원칙을 채용하였다. 다시 말해 전분에 따라 1결의 면적을 측정하는 양척의 길이를 달리하였다. 그러므로 전분에 따라 1결의 면적은 달랐으나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확량과 그에 적용되는 수조율은 동일하였다. 다만 연분에 따라 1결에 대한 전조율이 달랐을 뿐이다. 또한 1결당 수확고를 400두로 높이고, 세율을 1/20로 낮추었다. 그 결과 1결당 세액이 최고 상상년 20두로부터 시작하여 최하하하년 4두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이 점차 무너져, 16세기에 이르면 세액이 1결당 6두내지 4두로 고정되어 갔다.

그리하여 조선후기 세제를 대폭 개편하였다. 1635년(인조 13)부터 실시된 영정법(永定法)이 바로 그것이다. 영정법은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의 비척도에 따라 전답을 9등급으로 구분하여, 경상도는 최고가 상지하전(上之下田)으로 미(米) 16두(斗), 전라·충청도는 최고가 중지중전(中之中田)으로 미 12두, 그 밖의 5도는 모두 하지하전(下之下田) 미 4두로 고정되었다. 그러나 경상·전라·충청도에서도 대체적으로는 4~6두를 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양전방식도 개량되어 공법하의 전분 6등법에서는 각각 양전척을 달리하여 같은

70)金鎭鳳, <전세제의 개편> ≪한국사≫13, 1984, p.127.

1결이라도 그 면적에 차등을 두었는데, 이제는 같은 양전척을 사용하여 1등전 1결(실면적 1만척)을 기준으로 삼고 그 이하의 토지는 결부수를 체감하였다. 가령 1등전 1결(100부)에 대하여 같은 면적의 2등전은 85부 1파, 3등전은 70부 1속 1파의 비례로 하였다.[71)]

그러나 영정법은 흉년을 당하거나 토지가 척박한 때에도 고정된 전세를 내야 되므로, 이를 피해 토지를 이탈하는 농민이 증가하는 등 국가 세입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조선정부는 국가 재정 확보책으로, 1760년(영조 36)부터는 수세총액을 나누어 각 도에 할당하고, 도는 각 군현에 할당하는 총액제 형태의 비총법(比摠法)을 실시하였다. 이런 비총법의 실시는 수령의 조세권을 강화시켜, 전정이 더욱 문란해지는 구조적 요인이 되었다.

한편 양난 전부터 공물 방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 공물을 미곡으로 대신 거두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는 징수된 공납미를 정부가 지정한 공납청부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 금 왕실 관아의 수요물을 조달하게 함으로써 종래 불법적으로 관행되어 오던 방납을 합법화 시켜 정부의 통제하에 두고, 이를 통하여 재정확충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는 또 한편에서 15세기 후반이후 유통경제의 발달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이런 논의는 당장에는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양란 후에 다시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1608년(광해군 즉위) 이원익의 주장에 따라 우선 경기도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었으며, 1623년(인조 1)에는 강원도에, 그리고 17세기 중엽에는 충청·전라·경상도의 순으로 확대되었고, 1708년(숙종 34)에는 황해도까지 실시됨으로 해서, 평안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었다.

그리하여 공물대신 1결당 미 12두를 납부하였으며, 미를 내기 어려운 산간지방 등에서는 포(布, 베)·목(木, 솜)·전(錢, 돈) 등으로 대신 내도록 하였다. 특히 충청 전라 경상 황해도의 4도에서는 연해읍과 산간을 구분하여 각각 미 혹은 포·전으로 상납하도록 하였다.

조선후기 이러한 공물제의 개편과 함께 군역제도 크게 개편되었다. 병농일치의 군역제는 16세기에 들어와 직접 군역을 지는 대신 포를 수납하는 방군수포로 전환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541년(중종 36)에는 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를 정식화하였는데, 이는 지방 수령이 관할 안의 군역 부담자로부터 포를 징수해 중앙에 올리면, 병조에서 다시 군사력

71) 조선후기부터는 또 전통적인 결부제 외에 斗落인 '마지기'가 사용되었다. 한 마지기는 한 말(斗)의 씨앗을 뿌릴만 하다는 뜻으로, 한되(升)지기, 한섬(石)지기 등이 있었으며 한 마지기의 실면적은 곳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0평이 보통이었다. 또한 노동량을 기준으로 하루갈이(一日耕), 한참갈이(一息耕) 등이 특히 밭에 사용되고, 구획에 의한 단위로 '배미'가 쓰여졌다.

이 필요한 각 지방에 보내어 군인을 고용하게 하는 제도였다. 군역이 군포제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양난 이후 5군영의 설립으로 모병제가 제도화되자 양인 장정들의 대부분은 1년에 2필의 군포를 내는 납포군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관리들의 탐학, 납세자의 격감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그 이상의 군포를 내야만 되는 등 군포의 폐단이 극심해졌다.

그 결과 양역 변통론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1720년(영조 26) 균역법으로 확립되었다. 그리하여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로 감해주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작(結作, 米2斗 혹은 5錢)·어염선세(魚鹽船稅)· 은결(隱結)·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등을 징수해 보충하였다.

그러면 무주지방에서 납부한 세액은 얼마나 될까? 1794년(정조 18)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역실총≫을 통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6> ≪부역실총≫에 등재된 1794년(정조 18) 무주부의 부세액

區分	米	太	錢	木	計(兩)	總計(兩)
경사상납질 京司上納秩	988석		3849냥 2전	85동 176필	38,409냥	44,276냥
영읍진봉용질 營邑鎭捧用秩	4두		742냥 6전	1동 78필	5,867냥	

* 자료 : ≪賦役實總≫(여강출판사 영인본, 1984).

무주지방의 중앙관아 납세액(京司上納秩)이 錢(돈) 3849냥 2전, 木(포) 85동 176필로, 이것들을 모두 돈으로 환산하면 총 38,409냥이다. 반면 무주부의 지방관아 납세액(營邑鎭捧用秩)은 쌀 988석 4두, 전 742냥 6전, 목 1동 78필, 이것들을 모두 돈으로 환산하면 총 5,867냥전이다. 중앙관아 납세액과 지방관아 납세액을 합해 보면, 무주군이 부담했던 총세액은 44,276냥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전라북도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27개 군현의 총세액 1,319,530량의 3.4%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무주 세액을 전북의 다른 읍 세액과 비교해 보면, 현재의 전북도에 해당되는 조선시대의 27개 군현 중 무주가 12번째로 많은 조세를 부담한 읍으로, 그 순서는 ①전주 ②남원 ③태인 ④김제 ⑤무장 ⑥고부 ⑦부안 ⑧임피 ⑨순창 ⑩금구 ⑪임실이다.

제3절 무주지방의 수령 명단

番號	姓名	出身資格	在任期間 및 交替事由	
■ 縣監				
001	柳仲敬		*세종 7년 12월 재임 중	
002	文九宗		*세종 9년 12월 재임 중	
003	白汝明		*세종 17년 1월 재임 중	
004	李桂遂		*세종 25년 3월 재임 중	
005	李분		*연산군 12년 1월 재임 중	
006	尹士元		*중종 5년 6월 재임 * 이상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보완한 명단임.	
007	柳世華		明宗 3년(1548, 戊申) 2월~ 5년(1550, 庚戌)	4월 繡罷
008	蔡無敵		明宗 5년(1550, 庚戌) 5월~ 5년(1550, 庚戌)	7월 彈去
009	金春		明宗 5년(1550, 庚戌) 8월~ 6년(1551, 辛亥)	12월 喪出
010	李藝		明宗 7년(1552, 壬子) 2월~12년(1557, 丁巳)	2월 瓜滿
011	韓景禧		明宗 12년(1557, 丁巳) 2월~17년(1562, 壬戌)	1월 瓜滿
012	朴仁豪		明宗 17년(1562, 壬戌) 2월~22년(1567, 丁卯)	1월 瓜滿
013	許鉉		明宗 22년(1567, 丁卯) 2월~宣祖 5년(壬申)	1월 瓜滿
014	李沼		宣祖 5년(1572, 壬申) 2월~ 7년(1574, 甲戌)	11월 啓罷
015	金光啓		宣祖 7년(1574, 甲戌) 11월~12년(1579, 己卯)	10월 瓜滿
016	鄭詳		宣祖 12년(1579, 己卯) 12월~14년(1581, 辛巳)	9월 啓罷
017	申瀷		宣祖 14년(1581, 辛巳) 10월~19년(1586, 丙戌)	10월 瓜滿
018	李基卨		宣祖 19년(1586, 丙戌)72)12월~21년(1588, 戊子)	3월 辭職
019	羅級文		宣祖 21년(1588, 戊子) 4월~23년(1590, 庚寅)	1월 辭職
020	金公喜		宣祖 23년(1590, 庚寅) 2월~26년(1593, 癸巳)	10월 母喪歸
021	李挺生	武	宣祖 26년(1593, 癸巳) 11월~同年	12월 遞歸
022	李天文	武	宣祖 26년(1593, 癸巳) 12월~27년(1594, 甲午)	3월 遞歸

72) 『赤城誌』(1898)의 丙子는 誤記이다.

023	尹趧	文	宣祖 27년(1594, 甲午) 3월~29년(1596, 丙申)	4월 啓罷
024	李璨		宣祖 29년(1596, 丙申) 5월~同年	11월 喪出
025	金百秋	武	宣祖 29년(丙申)12월-31년(戊戌)1월 丁酉倭亂以遠逃他境 戊戌拿去	
026	梁諡	武	宣祖 31년(1598, 戊戌) 春 ~ 任拿	聞倭敵充滿不赴
027	趙德秀	武	宣祖 31년(1598, 戊戌) 4월~同年	6월 遞
028	朴崙	武	宣祖 31년(1598, 戊戌) 6월~同年	11월 母喪歸
029	林懽		宣祖 32년(1599, 己亥) 1월~同年	9월 辭職
030	南復始		宣祖 32년(1599, 己亥)[73]11월~34년(1601, 辛丑)	2월 被論遞
031	成準		宣祖 34년(1601, 辛丑) 3월~35년(1602, 壬寅)	6월 繡罷
032	李遭春		宣祖 35년(1602, 壬寅) 6월~37년(1604, 甲辰)	12월 瓜滿
033	趙大得		宣祖 37년(1604, 甲辰) 12월~38년(1605, 乙巳)	7월 喪出
034	李宜兄		宣祖 38년(1605, 乙巳) 9월~39년(1606, 丙午)	10월 罷歸
035	成浹		宣祖 39년(1606, 丙午) 12월~41년(1608, 戊申)	5월 遞
036	沈廷和		宣祖 41년(1608, 戊申) 6월~同年	9월 遞
037	李有慶		光海君 卽位(1608, 戊申) 11월~5년(1613, 癸丑)	11월 遞
038	沈綩		光海君 6년(1614, 甲寅) 1월~10년(1618, 戊午)	12월 瓜滿
039	南宮格		光海君11년(1619, 己未) 2월~15년(1623, 癸亥)	1월 相換
040	李景崔		仁祖 1년(1623, 癸亥) 3월~同年	5월 罷
041	李光先		仁祖 1년(1623, 癸亥) 7월~ 6년(1628, 戊辰)	10월 瓜滿
042	南烋		仁祖 6년(1628, 戊辰) 11월~ 7년(1629, 己巳)	12월 遞
043	李德溥		仁祖 8년(1630, 庚午) 2월~同年	6월 被論
044	金壽昌		仁祖 8년(1630, 庚午) 6월~13년(1635, 乙亥)	5월 瓜滿
045	李叔鎭		仁祖 13년(1635, 乙亥) 8월~16년(1638, 戊寅)	10월 遞
046	金得宗		仁祖 16년(1638, 戊寅) 11월~17년(1639, 己卯)	12월 遞
047	朴大華		仁祖 18년(1640, 庚辰) 1월~19년(1641, 辛巳)	1월 拿去
048	沈櫃		仁祖 19년(1641, 辛巳) 2월~24년(1646, 丙戌)	2월 瓜滿
049	李徽祚		仁祖 24년(1646, 丙戌) 3월~孝宗 2년(辛卯)	1월 瓜滿

73)『赤城誌』(1898)의 己巳는 誤記이다.

050	李靖賢		孝宗 2년(1651, 辛卯) 2월~ 3년(1652, 壬辰)	6월 遞
051	南重晦	文	孝宗 3년(1652, 壬辰) 8월~同年	9월 啓罷
052	元植	文	孝宗 3년(1652, 壬辰) 12월~ 7년(1656, 丙申)	5월 父喪歸
053	李穐		孝宗 7년(1656, 丙申) 5월~10년(1659, 己亥)	7월 繡罷
054	洪處靖		顯宗 卽位(1659, 己亥) 8월~ 4년(1663, 癸卯)	4월 罷
055	南得朋		顯宗 4년(1663, 癸卯) 5월~ 6년(1665, 乙巳)	12월 移拜
056	沈轍		顯宗 7년(1666, 丙午) 2월~10년(1669, 己酉)	12월 罷
057	尹松		顯宗 11년(1670, 庚戌) 2월~13년(1672, 壬子)	6월 罷
058	金壽賓		顯宗 13년(1672, 壬子) 10월~14년(1673, 癸丑)	8월 罷
059	金必振		顯宗 14년(1673, 癸丑) 9월~15년(1674, 甲寅)	1월 遞

■ 府使[74]

060	趙昌期	文	顯宗 15년(1674, 甲寅) 2월~肅宗 1년 (乙卯)	4월 病罷
061	趙世煥	文	肅宗 1년(1675, 乙卯) 5월~同年	9월 拿去
062	卞梘	文	肅宗 1년(1675, 乙卯) 10월~ 2년(1676, 丙辰)	2월 罷
063	許珽	文	肅宗 2년(1676, 丙辰) 3월~ 3년(1677, 丁巳)	1월 啓罷
064	兪櫃	文	肅宗 3년(1677, 丁巳) 2월~同年	12월 病罷
065	安縝	文	肅宗 3년(1677, 丁巳) 12월~ 4년(1678, 戊午)	10월 見罷於敬差
066	姜碩耆	文	肅宗 4년(1678, 戊午) 12월~ 7년(1681, 辛酉)	8월 啓罷
067	宋時杰		肅宗 7년(1681, 辛酉) 9월~ 8년(1682, 壬戌)	9월 病罷[75]
068	金世鼎	文	肅宗 8년(1682, 壬戌) 10월~ 9년(1683, 癸亥)	11월 移拜
069	慶𡍮	文(嘉善)	肅宗 9년(1683, 癸亥) 12월~10년(1684, 甲子)	6월 罷
070	李國憲		肅宗 10년(1684, 甲子) 7월~11년(1685, 乙丑)	1월 移拜
071	李最晩[76]		肅宗 11년(1685, 乙丑) 2월~同年	8월 喪出
072	李寅煥	文(通政)	肅宗 11년(1685, 乙丑) 10월- 12년(1686, 丙寅)	6월 母喪歸
073	趙泰來		肅宗 12년(1686, 丙寅) 8월~15년(1689, 己巳)	2월 瓜滿

74) 현종 15년(1674) 縣監에서 府使로 승격되었다.
75)『赤城誌』(1898)에는 '罷'로만 되어 있다.
76)『湖南邑誌』(1790)에는 이름 가운데 자가 '𡍮'로 되어 있다.

074	閔鎭周	文(通政)	肅宗 15년(1689, 己巳) 2월~同年	5월 辭去
075	金夢臣	文	肅宗15년(1689, 己巳) 8월~19년(1693, 癸酉)	7월 遞
076	李震休[77]	文(通政)	肅宗 19년(1693, 癸酉) 9월~22년(1696, 丙子)	3월 繡羅
077	申懹	文(通政)	肅宗 22년(1696, 丙子) 4월~23년(1697, 丁丑)	3월 棄
078	李泰龜	文(通政)	肅宗 23년(1697, 丁丑) 4월~25년(1699, 己卯)	8월 瓜滿
079	李德成	文(通政)	肅宗 25년(1699, 己卯) 9월~27년(辛巳)	2월 際江原百司
080	洪萬恢		肅宗 27년(1701, 辛巳) 4월~29년(1703, 癸未)	12월 病去
081	金洵		肅宗 30년(1704, 甲申) 1월~同年	11월 遞
082	李觀命	文(應敎)	肅宗 30년(1704, 甲申) 12월~31년(1705, 乙酉)	10월 遞
083	權持	(銀臺)	肅宗 31년(1705, 乙酉) 11월~32년(1706, 丙戌)	11월 遞
084	趙泰老	(前參議)	肅宗 33년(1707, 丁亥) 3월~同年	5월 遞去
085	趙龜祥		肅宗 33년(1707, 丁亥) 7월~37년(1711, 辛卯)	11월 遞
086	韓配夏	(監司)	肅宗 38년(1712, 壬辰) 1월~39년(1713, 癸巳)	5월 彈去
087	洪重衍		肅宗 39년(1713, 癸巳) 5월~40년(1714, 甲午)	8월 遞
088	李德英		肅宗 40년(1714, 甲午) 9월~43년(1717, 丁酉)	1월 瓜滿
089	權燧	(前參議)	肅宗 43년(1717, 丁酉) 2월~44년(1718, 戊戌)	2월 遞
090	李徵夏		肅宗 44년(1718, 戊戌) 5월~同年	2월 移拜
091	沈壽賢	(前參議)	肅宗 45년(1719, 己亥) 1월~同年	9월 移拜
092	鄭覺先		肅宗 45년(1719, 己亥) 10월~景宗 1년(辛丑)	4월 移拜
093	李光朝		景宗 1년(1721, 辛丑) 6월~ 2년(1722, 壬寅)	5월 病遞
094	申轂		景宗 2년(1722, 壬寅) 7월~ 4년(1724, 甲辰)	7월 喪去
095	鄭健一		景宗 4년(1724, 甲辰) 7월~英祖 1년(乙巳)	3월 喪去
096	蔡彭胤	(前承旨)	英祖 1년(1725, 乙巳) 6월~3년(1727, 丁未)	8월 瓜滿
097	趙裕壽		英祖 3년(1727, 丁未) 9월~ 4년(1728, 戊申)	4월 遞
098	李彦祥	武(水使)	英祖 4년(1728, 戊申) 4월~ 6년(1730, 庚戌)	8월 瓜滿
099	尹沆		英祖 6년(1730, 庚戌) 9월~ 7년(1731, 辛亥)	2월 貶遞
100	金東鼎		英祖 7년(1731, 辛亥) 5월~ 9년(1733, 癸丑)	8월 貶遞

77) 『赤城誌』(1898)에는 이름 끝자가 '林'으로 되어 있는데, 誤字로 생각된다.

101	洪聖輔	(前承旨)	英祖 9년(1733, 癸丑) 9월~11년(1735, 乙卯)	3월 罷
102	崔昌億		英祖 11년(1735, 乙卯)閏4월~12년(1736, 丙辰)	12월 移拜
103	曹夏望	(前承旨)	英祖 13년(1737, 丁巳) 1월~15년(1739, 己未)	2월 瓜滿
104	洪重耉		英祖 15년(1739, 己未) 3월~同年	4월 在官 喪出
105	權爀		英祖 15년(1739, 己未) 5월~同年	6월 前任事啓去
106	趙榮國		英祖 15년(1739, 己未) 8월- 16년(1740, 庚申) 監司	閏6월 移拜公洪
107	南泰良	(前承旨)	英祖 16년(1740, 庚申) 8월~18년(1742, 壬戌)	2월 罷
108	朴師漢		英祖 18년(1742, 壬戌) 4월~21년(1745, 乙丑)	5월 在官喪出
109	金應福	(兵曹參議)	英祖 21년(1745, 乙丑) 6월~同年	同月 罷
110	李重庚	(兵曹參判)	英祖 21년(1745, 乙丑) 6월~23년(1747, 丁卯)	10월 瓜滿
111	朴弼謨		英祖 23년(1747, 丁卯) 10월~26년(1750, 庚午)	6월 辭去
112	李權中		英祖 26년(1750, 庚午) 9월~28년(1752, 壬申)	8월 喪出
113	趙泰彦	(前承旨)	英祖 28년(1752, 壬申) 12월~31년(1755, 乙亥)	1월 瓜滿
114	金述魯		英祖 31년(1755, 乙亥) 2월~33년(1757, 丁丑)	6월 喪出
115	沈銓		英祖 33년(1757, 丁丑) 8월~34년(1758, 戊寅)	4월 喪出
116	金漢房		英祖 34년(1758, 戊寅) 6월~35년(1759, 己卯)	12월 相避遞
117	鄭錫敎		英祖 36년(1760, 庚辰) 2월~38년(1762, 壬午)	7월 移拜
118	徐魯修		英祖 38년(1762, 壬午) 8월~40년(1764, 甲申)	2월 獄事罷
119	李翼鎭		英祖 40년(1764, 甲申) 3월~42년(1766, 丙戌)	5월 遞
120	趙祉命		英祖 42년(1766, 丙戌) 6월~45년(1769, 己丑)	1월 喪出
121	徐覺修	(漢城庶尹)	英祖 45년(1769, 己丑) 1월~同年	9월 因京兆事罷
122	尹東晳[78]		英祖 45년(1769, 己丑) 10월~47년(1771, 辛卯)	2월 相避遞
123	鄭晩淳		英祖 47년(1771, 辛卯) 3월~48년(1772, 壬辰)	8월 曾經侍從事遞
124	李文燮	武	英祖 48년(1772, 壬辰) 8월~49년(1773, 癸巳)	2월 遭喪遞
125	洪益喆		英祖 49년(1773, 癸巳) 3월~51년(1775, 乙未)	2월 貶遞
126	金純澤		英祖 52년(1776, 丙申) 1월~正祖 4년 (庚子)	12월 瓜滿
127	兪漢葛		正祖 5년(1781, 辛丑) 1월~ 7년(1783, 癸卯)	6월 移拜

78) 『赤城誌』(1898)에는 이름 끝 자가 '哲'로 되어 있는데, 誤字로 보인다.

128	林重遠		正祖 7년(1783, 癸卯) 7월~ 9년(1785, 乙巳)	4월 移拜
129	李宜耆		正祖 9년(1785, 乙巳) 5월~10년(1786, 丙午)	2월 移拜
130	鄭若淳		正祖 10년(1786, 丙午) 3월~同年	6월 辭去
131	徐侃修		正祖 10년(1786, 丙午) 6월~11년(1787, 丁未)	11월 遞
132	李德鉉		正祖 11년(1787, 丁未) 11월~13년(1789, 己酉)	12월 遞
133	蔡弘履	(都承旨)	正祖 13년(1789, 己酉) 12월~14년(1790, 庚戌)	遞
134	趙時淳		正祖 14년(1790, 庚戌) ~17년(1793, 癸丑)	移拜
135	李在沆		正祖 17년(1793, 癸丑) ~21년(1797, 丁巳)	瓜滿
136	徐弘輔		正祖 21년(1797, 丁巳) ~23년(1799, 己未)	貶遞
137	尹文東		正祖 23년(1799, 己未) ~24년(1800, 庚申)	陞拜
138	金晩淳		純祖 1년(1801, 辛酉) ~ 3년(1803, 癸亥)	喪出
139	李英紹		純祖 3년(1803, 癸亥) ~ 7년(1807, 丁卯)	遞
140	李英秀		純祖 7년(1807, 丁卯) 5월~ 8년(1808, 戊辰)	繡罷
141	南周獻		純祖 8년(1808, 戊辰) 8월~ 9년(1809, 己巳)	相換
142	李敎源		純祖 9년(1809, 己巳) 7월~11년(1811, 辛未)	遭喪出
143	朴宗珩		純祖 11년(1811, 辛未) 9월~12년(1812, 壬申)	移拜
144	沈能述		純祖 12년(1812, 壬申) 12월~13년(1813, 癸酉)[79]	相換
145	金載瑗		純祖 17년(1817, 丁丑) 12월~20년(1820, 庚辰)	遞
146	韓百衍		純祖 20년(1820, 庚辰) 4월~22년(1822, 壬午)	移拜
147	朴宗恒		純祖 22년(1822, 壬午) 閏 ~25년(1825, 乙酉)	貶罷
148	李羲碩		純祖 25년(1825, 乙酉) 7월~30년(1830, 庚寅)	遞
149	金鎔		純祖 30년(1830, 庚寅) 7월~同年	喪出未赴任[80]
150	金箕增[81]		純祖 30년(1830, 庚寅) 7월~同年	在任喪出[82]
151	李憲承		純祖 30년(1830, 庚寅) 9월~32년(1832, 壬辰)	在任喪出[83]

79) 癸酉에서 丁丑年間이 공백기로 되어 있다.
80)『縉紳外任案』에는 교체사유가 '逝'로 되어 있다. 같은 의미이다.
81)『靑雲譜』와『縉紳外任案』에는 이름 끝 자가 '曾'으로 되어 있다.
82)『縉紳外任案』에는 교체사유가 '逝'로 되어 있다. 같은 의미이다.
83)『縉紳外任案』에는 교체사유가 '逝'로 되어 있다. 같은 의미이다.

152	李光承	純祖 32년(1832, 壬辰) 12월~憲宗 1년(乙未)	移拜
153	朴宗有	憲宗 1년(1835, 乙未) 6월~ 4년(1838, 戊戌)	貶罷
154	李羲升	憲宗 4년(1838, 戊戌) 6월~ 6년(1840, 庚子)	移拜
155	鄭始容	憲宗 6년(1840, 庚子) 至 ~ 7년(1841, 辛丑)	遭喪出
156	金龍根	憲宗 7년(1841, 辛丑) 5월~10년(1844, 甲辰)	移拜
157	趙揆永	憲宗 10년(1844, 甲辰) 7월~同年	喪出
158	宋啓柏[84]	憲宗 10년(1844, 甲辰) 12월~12년(1846, 丙午)	移拜
159	崔瑗	憲宗 12년(1846, 丙午) 11월- 15년(1849, 己酉)	喪出
160	徐兢輔	哲宗 卽位(1849, 己酉) 7월~ 1년(1850, 庚戌)	移拜
161	洪配厚[85]	哲宗 1년(1850, 庚戌) 12월~ 3년(1852, 壬子)	移拜
162	李根天	哲宗 3년(1852, 壬子) 7월~ 4년(1853, 癸丑)	喪出
163	趙命夏	哲宗 4년(1853, 癸丑) 7월~同年	移拜
164	洪鍾華	哲宗 4년(1853, 癸丑) 12월~ 5년(1854 甲寅)[86]	移拜
165	黃裕秀	哲宗 7년(1856, 丙辰) 12월~ 8년(1857, 丁巳)	遞
166	鄭基三	哲宗 9년(1858, 戊午) 1월~10년(1859, 己未)	移拜
167	金炳皐	哲宗 10년(1859, 己未) 1월~11년(1860, 庚申)	喪出
168	兪廷煥	哲宗 11년(1860, 庚申) 3월~同年	喪出
169	金在鶴	哲宗 11년(1860, 庚申) 11월~12년(1861, 辛酉)	貶遞
170	金在獻	哲宗 12년(1861, 辛酉) 6월~13년(1862, 壬戌)	移拜
171	金禹鉉	哲宗 13년(1862, 壬戌)閏8월~14년(1863, 癸亥)	在京喪出
172	李壎	哲宗 14년(1863, 癸亥) 8월~高宗 1년(甲子)	遞
173	尹性善	高宗 2년(1865, 乙丑) 7월~ 4년(1867, 丁卯)	移拜
174	金奭根	高宗 4년(1867, 丁卯) 6월~ 7년(1870, 庚午)	移拜
175	鄭翼永	高宗 7년(1870, 庚午) 6월~ 9년(1872, 壬申)	移拜
176	金善根	高宗 9년(1872, 壬申) 2월~10년(1873, 癸酉)	移拜
177	成大永	高宗 10년(1873, 癸酉)閏6월~11년(1874, 甲戌)	移拜

84) 癸酉에서 丁丑年間이 공백기로 되어 있다.
85)『縉紳外任案』에는 교체사유가 '逝'로 되어 있다. 같은 의미이다.
86)『靑雲譜』와『縉紳外任案』에는 이름 끝 자가 '曾'으로 되어 있다.

178	李膺愚		高宗 11년(1874, 甲戌) 7월~14년(1877, 丁丑)	移拜
179	金益成		高宗 14년(1877, 丁丑) 6월~15년(1878, 戊寅)	移拜
180	洪鼎裕		高宗 15년(1878, 戊寅) 10월~16년(1879, 己卯)	喪出
181	李喆在		高宗 16년(1879, 己卯) 10월~19년(1882, 壬午)	移拜
182	沈琦澤		高宗 19년(1882, 壬午) 3월~同年	相換
183	趙駿鎬		高宗 19년(1882, 壬午) 6월~20년(1883, 癸未)	移拜
184	朴齊近		高宗 20년(1883, 癸未) 8월~21년(1884, 甲申)	移拜
185	洪岐周		高宗 21년(1884, 甲申) 6월~22년(1885, 乙酉)	移拜
186	金右根		高宗 22년(1885, 乙酉) 3월~25년(1888, 戊子)	移拜
187	李聖烈		高宗 25년(1888, 戊子) 9월~26년(1889, 己丑)	相換
188	趙弼永		高宗 26년(1889, 己丑) 12월~同年	移拜
189	徐完淳		高宗 26년(1889, 己丑) 6월~28년(1891, 辛卯)	移拜
190	閔致純		高宗 28년(1891, 辛卯) 4월~29년(1892, 壬辰)	移拜
191	申慶均		高宗 29년(1892, 壬辰) ~31년(1894, 甲午)	移拜
192	趙性憙		高宗 31년(1894, 甲午) ~同年	東亂辭職
193	尹泌求		高宗 31년(1894, 甲午) ~同年	東亂棄去
194	李倬	文(應敎)	高宗 31년(1894, 甲午)~32년(1895, 乙未)	遞

■ 郡守

195	趙秉瑜	高宗 33년(1896, 丙申) ~34년(1897, 丁酉)	陞除
196	閔述鎬	高宗 34년(1897, 丁酉) ~	陞除
197	李夏燮		
198	閔永福		
199	李益鎬		
200	金善圭		
201	趙命根		
202	朴泰永	* 日帝 강점(1910년)	

■ 범 례

1.李英秀(純祖 7년) 이하는 赴任年月이 아니라, ≪靑雲譜≫와 ≪縉紳外任案≫에 나타난 除授年月이다. 따라서 실제 도임시기는 이보다 늦다고 할 수 있다.
2.郡守 李夏燮 이하 6명은 ≪茂朱郡誌≫(1990)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 참고자료

1.≪湖南邑誌≫(全北大 圖書館 : 동 951.98, 1790年頃) : 柳世華(明宗 3년)로부터 蔡弘履(正祖 13년)까지 수록되어 있다. 姓名, 在任期間, 交替事由 등이 기재되어 있다.
2.≪靑雲譜≫ (奎章閣 : 奎古 4652-20, 1880年頃) : 李英秀(純祖 7년)로부터 趙駿鎬(高宗 19년)까지 수록 되어 있다. 姓名, 除授年月이 기재되어 있다.
3.≪縉紳外任案≫ (奎章閣 : 奎 12132, 1890年頃) : 李英秀(純祖 7년)로부터 閔致純(高宗 28년)까지 수록 되어 있다. 姓名, 除授年月이 기재되어 있다.
4.≪赤城誌≫ (奎章閣 : 奎 1708, 1898年) : 柳世華(明宗 3년)로부터 閔述鎬(高宗 34년)까지 수록되어 있다. 姓名, 出身資格, 在任期間, 交替事由 등이 기재되어 있다.
5.≪赤城誌≫ (1958年) : 위의 『赤城誌』(奎 1708)와 수록기간, 기재항목이 같음.

[집필 : 이동희]

제4절 조선후기의 무주

1. 임진왜란과 무주

선조 25년(1592) 4월 13일 일본군이 경상도 동래부의 부산진 앞바다를 통하여 조선을 침략하였다. 그 후 7년 동안 조선은 일본과 전쟁을 하였는데 이 전쟁을 통칭(通稱) '임진왜란'이라 부른다. 이 전쟁이 일어난 해가 임진년 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일본군은 4월 13일 부산진에 도착한 이후 파죽지세로 북진하여 5월 3일 한성을 함락 시켰다. 이와 같이 일본군의 전략은 속전속결이었고, 수도인 한성만 함락 시키면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한성을 함락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의주로 피난을 하여 항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자연히 전황이 점차 불리해졌다. 우선 전라도가 온존하여 이곳에서 의병과 군량이 계속해서 공급되었기 때문에 전략을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본군은

군대를 나누어 전국을 분할 통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라도를 담당할 장수는 소조천륭경(小早川隆景)과 그의 휘하에 있던 안국사혜경(安國寺惠瓊)이었다. 소조천이 이끄는 일본군은 5월 25일 임진강을 건넜으며 6월 초에 충청도를 경유하여 전라도로 진격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당시 상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왜적이 전라도와 충청도의 군현(郡縣)을 침범하였다. 이 일이 있기 전에 (근왕병으로 출전하였던) 호남지역의 군사가 패하여 돌아오니 여러 고을의 인심이 흉흉하여 보전할 수 없었는데, 오직 광주목사 권율(權慄)만이 자기 고을의 군사를 단속하고 이웃 고을에 격문을 보내어 방어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전라감사) 이광(李洸)이 (이 사실을) 즉시 (왕에게) 첩보하여 권율을 도절제사로 임명하여 호남과 영남의 경계에 나아가 수비하게 하였다.… 이때 왜병이 성주(星州) 무계현(茂溪縣)으로부터 금산(金山)·지례(知禮)를 경유하여 무주(茂朱)·용담현(龍潭縣)으로 들어와 금산(錦山)에 진을 치고 있다가 충청도 옥천(沃川)·영동(永同)의 여러 고을로 들어가 청주(淸州)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사방으로 나가 방화하며 노략하였다.[87]

일본군이 무주를 함락 시킨 것은 7월 1일이었다. 물론 일본군이 무주 접경 지역에 출현한 것은 그 이전이다. 즉 6월 17일에 일본군은 지례를 거쳐 부항령(釜項嶺)을 넘어 무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지방 출신 장의현(張義賢) 등이 이들을 물리쳤으며 6월 23일에는 진격로를 탐색하러 나온 척후병들을 밤수골[栗峴]에서 물리쳤다. 그러자 일본군은 옥천을 경유하여 금산을 점령하였다. 7월 1일 일본군은 용담을 거쳐 무주를 재차 침범하여 마침내 점령하고 말았다.

오희문이 지은 『쇄미록』에는 임진왜란 당시 무주와 그 인근 고을의 전투 상황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오희문은 해주오씨로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처남인 이빈이 전라도의 장수현감으로 부임하자 장수에서 멀지 않은 황간의 외가를 방문하고 또 자신 소유의 전라도 노비들에게서 신공(身貢)도 걷을 겸 해서 장수현에 들렀다. 그런데 마침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서울로 가지 못하고 이곳 장수에 머물면서 일종의 '피난일기'를 썼다. 그는 매일매일 듣고 본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일본군과 관군 및 의병간의 전투상황이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중 무주군과 관련된 기록들을 발췌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8]

---

87) 『조선왕조실록』 25책 621쪽. 선수 25년 6월 1일 기축일조.

06/22 무주 밤고개[栗峴]에 적 5~6명이 몰래 넘어와서 허실(虛實)을 탐지했다.

06/23 (적들이) 옥천(沃川) 땅에서 금산(錦山)으로 진격하여 금산태수와 싸웠다. 그러나 (아군의) 수가 (너무) 적어서 대적(對敵)하지 못했다. 금산태수가 세 번 싸워 세 번 다 패한데다 말에서 떨어졌다니 생사를 알 수 없다.

07/01 적은 이미 용담과 무주를 함락 시켰다 한다. 오늘이나 내일 틀림없이 장수현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07/05 저녁에… 춘학 등이 와서 보고하기를, 적은 아직 장수현에 들어오지 않았고 무주의 적은 용담으로 와서 관사를 헐어버리고 냇가 위에 임시막사[假家]를 길게 지어놓고 창구멍으로 사방을 바라다본다고 한다. 이는 반드시 나누어 진안 장수를 범할 것이다.

07/08 저녁에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제께 적은 이미 진안에 들어가서 근처 산림을 불태우고 관인(官人)과 촌민(村民)을 잡아갔다는 것이다.

07/12 현감의 편지 속에 초 7일에 적이 곰티재[熊嶺]를 넘을 때 나주판관, 김제군수, 의병장 황염(黃焰) 등이 싸워서 백여 명을 쏘아 죽였고, 적은 전주 안두원(安斗院)에 진을 쳤다고 한다.… 대개 적의 형세가 번져서 전일에 진안에 있던 적은 이미 곰티재를 넘어서 전주 땅에 진을 쳤고 영남의 적은 이미 무주 경계에 이르렀으니 반드시 합세해서 전주성을 삼키려는 것이다.

07/13 영남의 적이 지례(智禮)로부터 3일을 계속하여 무주로 넘어와서 장차 전주로 향한다고 한다.

07/20 저녁에 정탐나간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완산 진안 용담의 적이 모두 무주로 향했다고 한다.

07/23 저녁에 현감의 글을 보니 적은 아직 금산에 머물러 있고 무주에 있던 짐은 모두 영남으로 실어갔다고 한다.

07/26 저녁에 현감의 글을 보니 적은 아직 금산에 머물러 있고 무주에 있던 짐은 모두 영남으로 실어갔다고 한다.

07/27 저녁에 들으니 무주의 적이 그 고을 민가 곳곳마다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였다고 한다.

---

88) 『쇄미록(상)』, (해주오씨추탄공파종중, 1990), 35~103쪽 참조.

07/28 저녁에 들으니 금산(錦山)의 적은 옥천(沃川) 땅 양산현으로 옮겼고 무주의 적은 그대로 있는지 확실히 모른다고 한다.

07/30 장수현의 복병소(伏兵所)에서 사로잡은 아이를 문초했더니, 그는 곧 무주 사람으로서 이곳의 허실을 엿보는 자 여서 즉시 머리를 베어 효시(梟示)했다 한다. 그 아이의 말에 금산(錦山) 무주에 주둔한 적들이 수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밤에 갔다 낮에 돌아와서 그치지 않고 돌아다녔다고 한다. … 금산 무주 두 고을에 주둔하고 있는 적은 3백여 명에 지나지 않는데, 한 도의 여러 장수가 두려워하고 겁을 내어 움츠리고 사면의 경계만 지키면서 아무도 감히 먼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적들은 두 고을 사이를 횡행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인가(人家)를 불태우고 백성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면서 오래 머물고 가지 않으며 제 맘대로 흉한 일을 하고 있으니 미워하고 탄식한 들 무엇하랴? … 또 들으니 무주의 아속(衙屬)이 적상산(赤裳山)으로 (난을) 피해 들어갔는데 적이 이를 탐지하고 그 산으로 들어가자 여러 사람이 바위 밑으로 떨어져 혹은 죽고 혹은 상했다고 한다.

08/04 어제 들으니 왜적이 와서 안성창의 민가에 불을 놓았다고 했는데… 지금 들으니 다만 안성창 건너편 사전리(沙田里) 뒤를 불태우고 도로 무주로 갔다고 한다.

08/05 저녁에 현감의 글을 보니 순창(淳昌)의 사수(射手) 10 여명이 직접 무주의 적세를 탐지하려고 떠났다. 적이 촌가(村家)에 불을 놓고 약탈하다가 돌아가는 것을 중도에 만나 (사수가) 앞에 있던 적 한 사람을 쏘니 즉시 자빠지므로 머리를 베자 나머지 적이 모여들어 포위했다. 이때 우리 군사 한 명이 산에 올라가 입으로 호각을 불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여러 고을 군사가 공격해 온다고 하자 적은 이 말을 듣고 달아났다. 사수 9명이 이긴 기세를 타고 쫓아가면서 쏘니 화살에 맞은 자가 거의 수 십 명에 이른다.

08/09 여러 군사들이 금산의 적을 초 7일에 토벌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한다. … 그런데 여러 장수들은 무주의 적이 와서 구원할까 의심하기 때문에 보성군수로 하여금 무주에서부터 이르는 길목의 요해처(要害處)에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지키게 하였다.

08/11 이호연(李浩然) 등은 전일에 무주로 비밀히 들어가서 적의 형세를 정탐하다가 틈을 보아 활을 쏘려 했었다. 마침 적의 무리 수 십 명이 풀을 베려고 소와 말을

끌고 나온 것을 만났다. 이에 그들이 돌아갈 때 지나는 길에 가시철망을 많이 깔아 놓고 길가 풀 속에 비밀히 엎드려 있는 한편, 또 한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적이 돌아가는 것을 보거든 입으로 새소리를 내어 신호 하기로 약속한 다음, 그 소리를 듣고 일시에 모두 일어나 먼저 말 타고 달려가는 자를 쏘니 화살 두 개를 맞고 땅에 떨어진다. 이에 장수현의 정병 백응희(正兵白應希)가 먼저 들어가 머리를 베었고 그 나머지 사람은 앞으로 나갔다 물러섰다 하면서 활을 쏘니 적중에는 가시철망을 밟은 자가 많았고 또 화살에 맞는 자가 매우 많아 자빠지면서 저희들의 소굴로 달려 돌아갔다. 화살에 맞지 않은 자는 겨우 2~3인 뿐이었다. 화살에 맞은 자는 비록 살아서 돌아갔어도 한 사람이 두 세 개의 화살을 맞았으니 반드시 죽는 자가 많을 것이다. 소 두 필, 말 두 필을 빼앗아 왔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 쾌하다.

08/13 금산과 무주의 적이 아직도 두 고을을 점령하고 있어서 한 도의 병력으로는 오래도록 토벌해 멸하지 못하고 있으니 만일 서울로부터 도망해 오던 적이 들어가서 합세한다면 어찌 우리 군사들이 패하지 않을 것인가?

08/22 아침에 현감과 순창군수는 무주 경계 각치(角峙)에 복병한 곳으로 가서 소를 잡아 군사들에게 먹인 다음 다시 의병 여러 군사와 약속하고 활 쏘는 군사들에게 먹인 다음 다시 의병 여러 군사와 약속하고 활쏘는 군사를 정밀이 뽑아서 요긴한 길에 매복토록 했다. 한 식경 쯤 지나자 각처에서 정탐하던 군사가 달려와서 보고하기를 왜적이 무수히 나와서 각각 붉은 기와 흰 기를 세운다고 한다. 이에 즉시 여러 곳의 정탐군으로 하여금 일시에 각(角)을 불게 하니 적들이 즉시 물러가 한 곳에 모여… 진격할 계획을 세웠다. 우리 군사가 여기 저기서 각을 불면서 소리치고 함께 나가니 적들은 물러가 돌아가려 하였다. 이때 전일에 순창·장수두 고을로 들여보냈던 정병이 적의 돌아가는 길에 먼저 가시철을 깔아 놓고 흩어져서 매복하고 적이 돌아가기를 기다리다가 일시에 활을 쏘고 또한 화포(火砲)도 쏘아 나가고 물러가면서 싸우니 화살에 맞아 죽는 자가 심히 많고, 탔던 말과 환도를 버리고 당황하여 북쪽으로 달아나다가 어지러이 가시철을 밟아 피가 흘러 길에 가득하다. 순창 사람은 두 명의 목을 베이고 그 말 세 필과 환도 세 자루를 빼앗아 가지고 왔다.… 이 날 만일 두 군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지 않았던들 각처의 복병이 반드시 굳게 지키지 못하고 물러났을 것이니 (적들이)

와서 안성창을 반드시 불태웠을 것이다.

08/23 우도 의병대장 최경회와 부장 고득귀 및 종사관 군관 상하 250명이 장수현에 들어왔는데 군사는 수가 없다. 또 이호연이 사수(射手) 50명을 거느리고 다시 무주 요긴한 곳으로 들어가 매복하고 적이 나오기를 기다려 쏘아 죽일 계획을 한다. … 또 들으니 어제 무주의 적과 서로 싸우다가 끝내고 돌아온 뒤에 남원 사람이 낙상하여 산 위에 숨어 엎드려서 엿보니 적의 상하지 않은 자 몇 명이 저들의 소굴로 달려들어가 군사 수 백 명을 청해 가지고 와서 싸움터를 보더니 길 위에 있는 적의 시체 11명을 실어 가고 상처 입은 자를 부축해 간 사람도 또한 많다고 한다.

08/25 순창의 사수(射手) 50여 명은 무주로 들어가서 복병으로 매복하고 적이 오면 활을 쏘려 하고, 그 고을의 중 4명도 또한 따라 가서 그 적의 소굴의 모양을 본 뒤에 밤중에 비밀히 들어가 불을 놓을 계획이다. 또 의병 종사관 훈련봉사 곽천성 (訓練奉事 郭天成)은 군사 160여 명을 거느리고 여기에 와서 안성창에 나가서 군사를 주둔한다 한다. 대장은 지금 이 고을에 있고 상하 260여 명의 음식을 공급한 나머지 현은 장차 지탱하지 못해서 오늘 이후로는 모두 그 공급을 못하고 다만 상청(上廳) 24명과 말 50여 필만 먹인다고 한다.

08/29 장수현감은 장의현령공(張義賢令公)이 안성창(安城倉)에 와 있다는 것을 듣고 순창군수와 함께 이른 아침에 안성창으로 가서 함께 약속하고 무주의 적을 협공 하기로 했다 한다. 저녁에 (현감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장영공의 말에 의하며 충청좌도 청주 이하 여러 고을은 아직 적의 주둔한 것이 없고 지례에도 역시 머문 적이 없다고 한다. 서울에서 내려온 적은 곧은 길로 조령(鳥嶺)을 넘어와서 김산(金山), 개령(開寧) 등지에 무수히 주둔하고 있다 한다. 또 전일에 무주로 들여보냈던 현리(縣吏) 이호연(李浩然)과 순창 사람 김경석(金景碩) 등이 지난밤에 순창의 중 사묵(士默) 등 9명으로 하여금 밤을 타고 비밀히 들어가서 적의 소굴에 불을 놓기로 계획했었으나, 흉적이 거처하고 있는 관사에 목책을 마련하고 목판 네 모퉁이에 높게 망대(望臺)를 만들어 놓고 밤새도록 순경(巡警)하기 때문에 형세가 넘어 들어가지 못했고, 책판 밖에 있는 관청과 사사로운 집 세 곳에 적의 무리가 많이 모여 있으므로 갑자기 불을 질렀더니 적의 무리가 놀라고 당황하여 큰 소리로 외치면서 목책 안으로 달려들어가서 끝내 나오지 않기 때문

에 활을 쏘고 베이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이튿날 날이 밝자 이호연, 김경석 및 의병(義兵) 김홍정(金弘鼎), 김수부(金壽富)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와서 먼저 말 탄 사람 7인으로 하여금 좌우로 나누어 달려나가서 용맹함을 뵈어 적을 유인했더니, 적의 선봉 백여 명이 칼을 휘두르면서 쫓아 나오고 또 수 백여 명이 냇가로 건너와서 깃대를 세우고 진을 친다. 이 때 여러 군사들이 혹은 산 위에서 돌을 굴리고 혹은 포를 쏘고 어지러이 활을 쏘면서 나가고 물러나며 싸우니, 탄환에 맞아 죽는 자가 몹시 많고 화살에 맞는 자도 몇인지 그 수를 알지 못하겠다.
이리하여 적이 이기지 못하고 물러갈 무렵에 의병 김홍정과 정종남(鄭終男) 2인이 말을 타고 달려들어가서 활을 어지러이 쏘다가 적에게 포위되었는데, 정종남의 말 앞에 왜병 셋이 숨어 엎드려 있다가 일시에 탄환을 쏘아서 오른쪽 어깨에 맞았으나 즉시 돌아가서 총을 쏜 왜병을 활로 쏘아 바로 가슴에 맞히니 칼을 던지고 쓰러져 죽으므로 여러 왜병들이 끌고 가서 숨어 버린다. 이에 정종남은 용맹하게 말을 달려 본진으로 돌아오니 사람들이 모두 탄복했다. 접전을 할 때 포로로 잡혀갔던 여자 백여 명이 적의 무리가 모두 나간 것을 엿보고 도망하여 향교 뒷산 영동 길로 흩어지자 적들이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잡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니, 반드시 다시 포로가 될 걱정을 면했을 테니 가히 쾌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접전할 때 비밀히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들어와 싸운 자는 많지 않으니 적이 만일 다시 충돌(衝突)해서 유현(柚峴)으로 넘어들어온다면 형세가 지탱할 수 없을 것이라 한다.

09/09 이언홍의 보고를 보니 이 달 초 6일에 금산(錦山)의 적 백여 명이 홍백기(紅白旗)를 세우고 무주현(茂朱縣)으로 들어오자 두 고을의 정병과 의병 및 남원과 진안에서 모집한 군사 등이 유현(柚峴)과 소탄(召灘)에 매복하고 기다렸더니 적들은 미시(未時)에 도로 금산으로 향하여 소탄을 건너게 되었다. 이때 의병 30여 명이 먼저 이들을 쫓아 조금 후에 접전이 시작되어 양쪽에서 포를 쏘고 우리 군사는 비오듯이 활을 쏘아 화살을 맞아 상한 자가 많았다. 이때 여러 고을의 정병이 또한 계속해 나가서 금산 가정자원까지 쫓아가니 적의 무리 중에 죽은 자는 끌고 달아났기 때문에 머리를 베이지 못했고 우리 군사는 별로 상한 자가 없었다. 또 초 7일 사시(巳時)에 의병군관 김홍정, 강희열 등이 장의현과 약속하고 무주의

적을 유인하다가 한참동안 접전하는데, 두 고을 정병과 여러 고을에서 모집한 군사들이 일시에 달려들어 오니, 적의 무리는 이미 물러갔다. 그 관사(官舍) 근처에 흩어져 있던 복병(伏兵) 중에 여인 수 십 여명이 왜복(倭服)을 입고 집 모퉁이로 올라가 우리 군사가 충돌하는 것을 바라보고, 복병한 왜군과 진중(陣中)에 있던 왜병이 일시에 모두 일어나 어지러이 탄환을 쏘니, 우리 군사는 혹 활을 쏘고 혹 물러서기도 했다. 이때 의병군관(義兵軍官) 송위룡(宋渭龍)이 앞에 오는 왜군 하나를 쏘아 맞히고 말을 달려 산으로 올라가니, 순창 사람 김경석, 김대복등이 홀로 많은 적을 만나게 되어 도망해 피할 겨를이 없이 죽기에 이르도록 힘껏 활을 쏘았다. 그 중에 한 왜인이 붉은 옷에 금관을 쓰고 다만 환도만 차고 준마를 탔는데, 따르는 왜병 30여 명이 뒤에서 옹호하고 오는데 빨리 쫓아오지도 않고 부채를 부치면서 빙그레 웃는다. 서로의 거리가 5~6보 밖에 되지 않아 자세히 그 면목을 보니 수염이 길고 또 많으며 얼굴이 살찌고 빛이 희어서 조금도 왜인의 기상이 없으니 필시 우리나라 사람일 것이다.

김경석이 처음에는 쏜 것이 맞지 않았고 두 번째 쏘아서 말안장을 맞혀 꿰뚫으니, 여러 왜병이 일시에 달려와 구원하여 방패를 세우고 옹호해서 도로 들어갔다. 김대복은 선봉의 가슴을 맞히니 여러 적들이 기운이 꺾이어 물러가 저들의 소굴로 들어갔다. 이 이틀 동안의 접전에 우리 군사는 두 사람이 탄환에 맞아 죽었다 한다. 먼저 번 네 차례의 교전에서는 적의 무리를 많이 죽였고 우리 군사는 한 사람도 상한 자가 없었는데, 이번 싸움에는 영을 어기고 경솔히 나가서 두 사람이 나 죽는데 이르렀으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히 여겼다.

09/10 저녁에 들으니 황간 영동의 적 300여 명이 금산으로 들어온다 하고, 전에 들으니 충청좌도 여러 고을에는 아직 적이 주둔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들으니 황간 영동의 적이 300여명에 이른다고 하니, 그간 전한 말의 허실을 믿을 수가 없다. 다만 금산과 무주의 적은 그 수가 많지 않은데 아직도 머물러 있고 물러가지 않으니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감히 두 고을을 점령하고 죽기에 이르기까지 가지 않는 것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적을 기다려서 다시 전주를 침범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장수들이 물러가 움츠리고 시일만 보낼 뿐, 토벌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으니 뒤에 가서 후회할까 걱정된다.

09/11 영남 연로(沿路)의 여러 고을에는 왜적이 모두 차 있다 하니 필시 서울에서 내려

오는 적일 것이다. 또 두 고을에서 모집한 이호연, 김경석 및 의병과 남원 진안에서 모집한 군사 370여 명이 그저께 다시 무주 땅으로 들어가 소식을 탐지하여 적을 맞아 활을 쏠 것이라고 한다.

09/13 장수현리(縣吏) 이호연(李浩然)이 보고하기를, 어제 사시(巳時)에 금산의 적이 붉은 기를 세우고 말을 타고 소에 짐을 실었는데 대략 천여명이 무주로 들어갔다 한다. 전에는 여러 번 무주에 왔어도 즉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머물러 자고 나오지 않으니 적의 꾀를 헤아리기가 어려우므로 각별히 신칙해서 변을 기다린다고 한다. 이는 반드시 힘을 합하여 안성창을 침범하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남 길로 도망하려는 것일 것이다.

전에 의병 한 사람이 밤에 무주의 적 소굴로 들어가서 진 밖의 망대에서 숙직하는 왜병을 쏘아 죽이고 머리를 베어다 바쳤다 한다. 그런데 지금 다시 들으니 사실은 왜병이 아니고 무주 백성이 목화를 따고 있다가 적에게 죽어서 버려 두고 거두어 가지 않았던 시체를 그 머리털을 깎아버리고 머리를 베어 가지고 왔는데, 의병장은 그런 줄도 알지 못하고 진짜 왜병이라고 하여 순찰사(巡察使)에게 바쳤다고 하니 진실로 우스운 일이다.

09/14 어제 금산의 적이 무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주둔하고 있던 적을 모두 거느리고 도로 금산으로 돌아갔다 한다. 전일 무주의 여인이 적에게 포로로 잡혀서 그 속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에 적의 무리가 나갈 적에 그 집으로 돌려보낸 것을 복병들이 잡아 조사했더니, 그 여인의 말에 의하면, 초 7일에 접전할 때 적장이 화살에 맞아 3일 안에 죽어서 그저께 시체를 불태운 후 적의 무리끼리 약속하기를, 금산으로 합세하여 모아서 전주로 진공했다가 만일 이기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자고 했다고 한다. 이에 무주의 객사와 창고 누각을 일시에 불태우고 다 타지 않은 곳은 우리 군사가 들어가 보고 모두 불을 놓아 다 타 없어지고 남은 것이 없이 했으니 이는 적들이 다시 와서 머무를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관가 근처의 불에 붙지 않은 인가도 역시 모두 불을 놓았다고 한다. … 다만 금산의 적이 무주로 왔으면 바로 영남으로 돌아갔을 것인데 이제 무주의 적을 모두 이끌고 금산 소굴로 돌아간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금산으로부터 양산현(良山縣)을 넘으려면 황간, 영동을 거쳐서 김산(金山)으로 돌아갈 계획인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 그 무리가 오기를 기다려 전주를 범하려는 것이다. 그러

나 하도(下道)의 여러 군사와 좌우 의병들이 고리 모양으로 요해처(要害處)를 지키고 있으니 반드시 쉽게 공격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장수와 군사가 모두 두려워하고 겁내어 적의 칼날을 바라보기만 하면 먼저 스스로 무너지니 이것이 걱정이다.

09/15 무주의 적이 금산(錦山) 초현(綃峴)의 수(戍)자리로 옮기니 반드시 딴 곳으로 옮기려는 것이다.… 영남에서 전한 글에 의하면 위로부터 내려온 적이 혹 천 여명씩 혹은 백 여명씩 날마다 내려온다고 한다.

09/17 무주의 적이 금계로 옮겨갔기 때문에 현감은 수(戍)자리를 장수현과 용담현의 경계인 고양이고개[猫古介]로 옮기고, 순창군수는 금산 경계의 숯고개[炭古介]로 진을 옮기라는 순찰사 권률의 글이 도착했으므로 내일 마땅히 군사를 이끌고 나누어 나가 지켜야 한다.

09/21 장수현감이 다시 딴 곳으로 옮겼다 한다. 아침 식사 후에 곰티재[熊峴]에 진을 친 곳으로 갔다. 또 다시 들으니 금산의 적이 그저께 도망해 가서 도로 옥천 양산현 길을 넘어 영동 황간을 거쳐 김산(金山)으로 향했다 한다. 이 도는 아무 걱정이 없겠으니 그 기쁨을 알 수 있다. 다만 흉한 무리가 6월부터 이제 넉 달에 이르도록 오랫동안 금산 무주 두 고을에 있었으니, 한 사람의 그림자도 돌아가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끝내 좋게 돌아갔으니 통분한 일이다. 그러나 무주의 적은 순창·장수 두 고을의 정병이 비단 몹시 견고하게 막고 지킬 뿐만 아니라 각각 스스로 모집한 정예한 군사 100여 명을 적의 경계로 들여보내 혹 요해처(要害處)에 복병을 하고서 다섯 번이나 교전해서 비록 많이 베이지는 못했지만 화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은 자가 수없이 많고, 한번도 패한 일이 없으며 적도 또한 두려워하고 겁내어 감히 안성 길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서 금산으로 돌아간 자는 겨우 1/5이라고 한다. 금산의 적은 방어사와 좌우 여러 장수가 여러 고을의 큰 군사를 거느리고 네 번이나 접전했으나 모두 패해 무너져서 장사들을 많이 죽이고 마침내 한번도 이기지 못했으니 원통해 하면 어찌하겠는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군은 7월 1일 무주를 함락 시킨 후 9월 14일까지 이곳에 머물며 약탈과 방화 등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다. 또 이곳을 근거로 하여 인근 고을인 장수와 용담 및 금산 등을 공략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중 어느 고을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일본군으로부터 무주가 함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방어하고 또 함락한 후에는 이를 탈환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관군과 의병이었다. 그 중 특히 의병은 일본군의 잔인한 만행을 보고 자발적으로 일어난 사람들이었다. 무주출신의 의병이 많지만 그 중 장의현과 장지현의 활약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의현은 그의 동생 장지현(張智賢) 등과 함께 부항령과 황간의 추풍령 등지에서 일본군을 방어하여 이들이 무주에 침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결국 우수한 전력을 앞세워 침략하는 일본군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장의현 형제의 충성심과 이들이 올린 혁혁한 전공에 대해서는 『국역 적성지(상)』의 인물조(人物條)와 충신조(忠臣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장의현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위 일지 8월 29일조의 기사도 참조)

장의현(張義賢) : 자(字)는 의숙(宜叔), 호(號)는 오류정(五柳亭)으로 백야 장필무(柏冶張弼武)의 큰 아들이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왜적이 침입하니 조정에서 공을 화열장군(火烈將軍) 겸 조방장(助防將)으로 삼고 부항령(釜項嶺)으로 보내어 을 치게 하였는데 이곳은 곧 지례(知禮)와 무주의 경계지역이었다. 공은 병사들보다 앞장서서 진군하면서 활을 쏘면 쏘는 대로 허방없이 모두 맞추니 적들이 감히 두려워하며 가까이 다가오지를 못하였다. 이때 공의 동생 감찰(監察) 장지현도 창의하여 황간의 추풍령에서 적군을 맞아 싸우다가 적군에게 패하여 죽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공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도 항상 충의로서 나라에 보답하고 청백을 가훈으로 삼았는데 내동생이 오늘에야 아우 노릇을 하였으니과연 나라를 위해 순국하여 위로는 임금을 저버리지 않았고 아래로는 어버이를 욕되게 하지 않았으니,



장지현 충신각

죽은들 무엇이 유감이겠느냐? 내 마땅히 적을 섬멸하고 이 원한을 갚으리라"고 하였다.[89]

장지현(張智賢) : 자는 명숙(明叔), 호는 삼괴(三槐). 백야 장필무의 둘째 아들이다. 임진왜란 당시 왜적이 침입하자 장지현은 의

89) 『국역 적성지(천)』, 225쪽.

병을 일으켜 황간(黃澗) 추풍령(秋風嶺)에다 의병을 매복시켰다. 적군이 갑자기 공격하여 일진(一陣)이 모두 패하자 공은 몸을 떨쳐 홀로 일어나서 많은 적을 사살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화살이 다 떨어진데다가 활마저 부려졌다. (어찌 활을 많이 쏘았는지) 엄지손가락의 살이 벗겨져 있었다. 적을 칼로 베려고 하였는데 하늘이 돕지 않아 칼마저 또 부러졌다. 종제 장호현(張好賢)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다.[90]

2. 산성 수축과 사고의 신축 및 부(府) 승격

1) 산성 수축

조선후기 무주의 역사를 말하려 할 때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은 바로 적상산성 개축과 사고의 신축 및 부(府)로의 승격일 것이다. 얼핏보면 이 세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 나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우선 무주가 요해처로서 조정에서 논의된 것은 임진왜란 도중이었다. 요해처란 지세가 적에게는 불리하고 아군에게는 유리한 곳을 말하는데, 왜적을 피하여 웅거할 만한 곳이 어디인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무주가 논의되었다.[91]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판윤(判尹) 김수(金睟)가 경상도감사에서 체직되어 행재소로 와 입조(入朝)…하였다. 임금이… 김수에게 "호남에는 웅거할 만한 험한 곳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수가 아뢰기를, "무주(茂朱)에는 아지발도(阿只拔都)조차 들어오지 못했던 험한 곳이 있습니다만 인심이 흩어지면 금성탕지(金城湯池)라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92]

당시에 선조는 파죽지세로 북진하던 왜군에게 쫓겨 피난생활을 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마침 경상감사였던 김수가 판윤으로 임명되어 행재소(行在所)로 찾아왔다. 그러자 선조는 김수에게 왜적을 피하여 웅거할 만한 곳이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김수가 비록 경상감사를

90)『국역적성지(천)』 247쪽.

91)무주와 적상산이 요해처로서 처음 거론된 것은 최영에 의해서 였다고 알려져 있다. 최영(崔瑩)은 공민왕 23년에 삼도도통사(三道都痛使)로서 탐라(耽羅; 濟州)를 평정하고 개선하는 도중 당시의 무주인 주계현(朱溪縣)을 지나다 적상산 아래에 이르러 산세를 둘러보고 왕에게 이곳에 성을 쌓을 것을 건의하였다고 한다.(『국역 적성지 (천)』, 301쪽 참조)

92)『조선왕조실록』, 21책 574쪽. 선조 25년 11월 25일 신사조.



적산산성

역임하긴 했지만 호남에 대해서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선조가 그와 같이 물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김수는 무주가 비록 아지발도 조차 들어오지 못한 험한 곳이긴 하지만 민심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무주로 피난 시킨다 해도 결코 안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결국 왜군을 피하여 백성들을 어디로 대피시키느냐 보다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느냐가 더욱 시급하다는 말이었다.

조정에서 무주가 다시 거론된 것은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였다. 인성부원군(寅城府院君) 정철(鄭澈)이 무주의 적상산성을 쌓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정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자 건의했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 진주(晉州)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의 부름을 받아 왕을 의주(義州)까지 호종(扈從)하고 경기·충청·전라체찰사(體察使)를 역임한 후 행재소로 돌아와 곧바로 적상산성 수축을 건의하였다.

> 인성부원군 정철이 아뢰었다.
> "제가 양호(兩湖)에 있을 때 산천의 도리(道里)와 적진(賊陣)의 원근 및 방수(防守)의 형세를 알아보기 위하여 방어사(防禦使) 곽영(郭嶸)과 순찰사 허욱(許頊)으로 하여 금 그림으로 그려서 바치게 하였습니다. 또 무주(茂朱)의 상성산(裳城山)과 장성(長城)의 입암(笠巖)에 종사관(從事官) 및 일을 잘 아는 수령을 나누어 보내 조사해 와서 곧 지도를 그리게 했습니다.… 상성과 입암 이외에 또 담양(潭陽)의 금성(金城)과 동복(同福)의 옹암(翁巖)이 있습니다. 신은 일찍이 이들 산성은 천연의 요새로서 만약 미리 수축하고 군사와 군량을 비축하며 설비를 두루 갖춘다면 성이 없는 여러 고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위급한 때 난리를 피하고 적을 막기에도 충분하니, 민심이 이를 믿고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이므로 도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신은 급히 한 관원을 정하여 수축을 전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창황 중이라 미처 여기에까지 힘이 미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뜻을 아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93]

93) 『조선왕조실록』, 21책 647쪽. 선조 26년 2월 26일 신해조.

정철이 '양호(兩湖)'에 있을 때라고 한 것은 양호 즉 호남과 호서의 체찰사로 있을 때를 가리키며, 또 무주의 상성산은 곧 적상산을 일컫는다. 정철은 무주의 적상산, 장성의 입암산, 담양의 금성산, 동복의 옹암산이 천연 요새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니 이곳에 산성을 쌓아 군량과 군비 등을 갖추어 둔다면, 한편으로는 적을 대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심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무주와 적상산은 임진왜란 기간 내내 요해처로서 주목을 받았으나,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여러 형편상 산성을 수축하는 일은 진척될 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적상산성 수축에 대한 논의는 일본과의 전쟁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것 같다. 광해 2년(1610)에 순안어사(巡按御史) 최현(崔晛)이 상소하여 산성 수축을 건의하자 조정에서는 관리를 파견하여 산성 수축의 타당성 등을 조사하였다.94) 또 2년 후인 같은 왕 4년(1612) 11월, 왕은 무주 적상산성의 도형(圖形)을 살펴보고 전교(傳敎)를 내려 산성이 언제 수축되었는지를 유신(儒臣)들에게 알아보도록 하였다.95) 유신들은 전고(典故) 즉 옛 일에 밝은 신하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시를 하였던 것이다.

적상산성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건의를 통하여 수축되었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 산성이 수축되었는지 알 수 없다. 『국역 적성지』에 의하면, 이곳 적상산성 안에 실록청이 창건된 것은 광해 6년(1614)이다.96) 따라서 적상산성은 실록청이 창건되기 이전에 수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사고(史庫)의 신축과 실록 봉안(奉安)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군은 조선을 침략한 후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문화재 등이 소실되었다.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치적을 기록한 실록도 병란의 피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다. 전주사고(全州史庫)에 보존되어 있던 실록은 천만다행으로 병란의 참혹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 조선초기부터 조정에서는 실록의 보존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실록을 4부씩 인쇄하여 4대 사고에 보존하였다. 4대 사고란 중앙의 춘추관(春秋館)과 지방의 충주(忠州), 전주 및 성주(星州)에 있던 사고를 가리키는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였다. 아무튼 전주사고에 보관되어

94) 『국역적성지(천)』 298~301쪽 참조.
95) 『조선왕조실록』, 32책 131쪽. 광해 4년 11월 12일 임인조 참조.
96) 『국역적성지(천)』, 301~2쪽 참조.

있던 실록을 제외한 모든 실록이 소실되자 선조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전주 사고에 보관된 실록을 근거로 3부를 새로 인쇄하여 춘추관과 태백산 및 묘향산에 보존하도록 했다. 그리고 전주사고에 보관되어 오던 실록은 강화도 마니산으로 옮겨 보존토록 했다.[97)]

그런데, 새로 인쇄하여 묘향산에 보존하던 실록을 무주의 적상산성으로 옮겨 보존토록 하자는 건의가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강석기가 인조 6년(1628) 7월에 처음으로 묘향산 사고에 있던 실록을 무주의 적상산으로 옮기자는 건의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 강석기(姜碩期)가 나아가 아뢰었다. "향산(香山)의 사고(史庫)에는 병란 이후로 단지 승려 한 사람이 수직(守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적변(賊變)이 없더라도 분실되기 쉬우니, 무주(茂朱)의 적상산(赤裳山)으로 옮겨 보관토록 하소서" 왕은 이에 대해 "옮기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답하였다.[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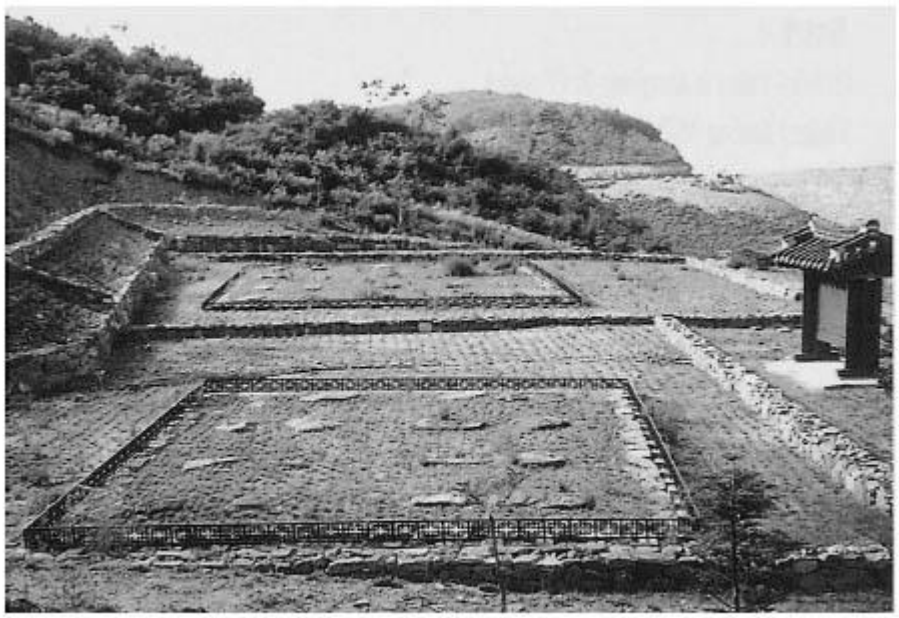
강석기는 묘향산 사고를 지키는 승려가 한 명뿐이어서 설령 적변이 없더라도 분실되기가 쉬우니 실록을 무주 적상산으로 옮기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록을 옮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동시에 어려운 일이었다. 사고를 지키는 승려가 한 명뿐이어서 보존하기가 어렵다면 수직(守直)하는 승려의 수를 늘려주면 될 일이었다. 차라리 실록을 옮기는 것보다 승려를 늘려주는 것이 훨씬 손쉬운 일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강석기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록을 옮기자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인조 9년 (1631) 11월에 영경연사(領經筵事) 윤방(尹昉)이 아뢴 다음의 기사가 참고가 된다.

> 윤방이 나아가 아뢰었다.
> "선왕조(先王朝)의 실록도 향산(香山)에 보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평안도는 믿을 만한 곳이 못 된다고 여겨 적상산(赤裳山)으로 옮겨 두었으니, 이는 본래 향산의 실록을 합하여 보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의 실록은 국초부터 선왕조에 이르기까지 모두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으나, 이곳의 실록만은 완전하지 못하니, 향산에 보관된 실록을 서울로 받들고 와서 적상산에다 합하여 보관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왕이 이에 대해 대답하였다. "지금은 서로(西路)가 피폐 되었으니, 내년에 의논하라."[99)]

---

97)이희권, 『역사로 보는 전라도』(신아출판사, 2001), 161~177쪽 참조.
98)『조선왕조실록』, 34책 280쪽. 인조 6년 7월 18일 정축조.
99)『조선왕조실록』, 34책 454쪽. 인조 9년 11월 1일 경오조.

윤방의 이야기에 따르면 묘향산 사고에 있던 실록을 무주 적상산으로 옮긴 것은 평안도가 믿을 만한 곳이 못되었기 때문이었다. 윤방이나 강석기 등이 묘향산 사고에 있던 실록을 적상산으로 옮기자고 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평안도에서 자주 반란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이 지방에 대한 일종의 편견이 있었다. 특히 인조가 즉위한 초기에 이괄(李适)의 난이 이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평안도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었다.따라서 이곳에 실록을 둘 경우 뜻하지 않은 변고를 당할 염려가 있었다. 그래서 강석기와 윤방은 묘향산 사고에 있던 역대 왕들의 실록을 빨리 무주의 적상산으로 옮기자고 제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왕은 평안도의 사정이 좋지 않으니 다음 해에 논의하자며 이 제안을 거부하였다.



복원 이전의 적상산사고지

묘향산 사고에 있던 실록이 무주의 적상산으로 옮겨진 것은 인조 11년(1633)년 정월로서 윤방의 제안이 있은지 만 1년이 조금 지난 후였다.[100)]

춘추관(春秋館)에서 사관(史官)을 파견하여 향산(香山)의 실록(實綠)을 적상산성(赤裳山城)으로 옮길 것을 청하니, 왕이 이에 따랐다.[101)]

그러나 여기에 유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적상산성 내에 실록이 봉안된 것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적상산성 내에 실록전이 창건된 것은,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광해 6년(1614)이며, 실록전에 실록이 최초로 봉안된 것은 광해 10년(1618)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역 적성지』에 나오는데, 이 중 적상산성에 실록이 최초로 봉안된 때가 광해 10년이라는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의 다음 기사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 왕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를 만나보았다. 이 때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었다. "전라감사 민유중이 적상산성에 관해 변통(變通)해야 할 일로 계품(啓稟)하였습니다. 적상산성은 형세가 지극히 험하여 여러 번 병란을 겪었으나 한번도

100)그러나 형지안에 따르면, 실질적인 이안(移安)은 다음해 이루어졌다.
101)『조선왕조실록』,34책 511쪽. 인조 11년 1월 23일 을묘조.

> 병화(兵禍)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오년(광해 10년; 1618-인용자주)에 비로소 실록을 보관…한 후에 참봉(參奉) 2명, 수복(守僕) 24명, 사부(射夫) 84명을 두고 또 좌우에 사찰을 두어 승도(僧徒)들을 모집해 들여 수호하는 바탕으로 삼았습니다.[102]

따라서 묘향산 사고에 있던 실록들이 적상산성으로 옮겨지기 훨씬 이전부터 적상산성에 는 이미 실록이 봉안되어 있었다. 다만 인조 11년 이전에 보존된 실록은 선조(宣祖)의 실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윤방이 왕에게 묘향산 사고에 있던 실록을 적상산성으로 옮기자 고 제안한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윤방이 '선왕조(先王朝)의 실록도 향산(香山)에 보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평안도는 믿을 만한 곳이 못 된다고 여겨 적상산(赤裳山)으로 옮겨 두었으니' 라고 하였을 때의 '선왕조'는 바로 선조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선조의 실록은 춘추관에서 광해 원년(1609) 7월 12일에 왕명을 받들어 편찬을 시작하여 같은 왕 8년(1616) 11월에 편찬을 마쳤다.103) 그리고 이를 인쇄하여 4대 사고에 봉안한 것은 같은 왕 10년 (1618) 7월이었다.

> 실록청에서 아뢰었다. [선조대왕실록(宣祖大王實錄)]을 4도(道)에 분장하는 일을 7월 보름 후로 택일(擇日)하여 계하(啓下)하였으니, 봉안사(奉安使) 한 사람씩 마땅히 나누어 보내야 합니다. 실록청 당상관(堂上官) 네 사람 가운데 지사(知事) 한 사람이 아직 차출되지 않았고 동지사(同知事) 이경전(李慶全)은 사신으로 나갔고 다만 지사 이이첨(李爾瞻), 동지사 유경종(柳慶宗)이 있으나, 이첨은 약방제조(藥房提調)로서 외 지로 나갈 수 없습니다. 혹 겸관(兼官)을 파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왕이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궐원(闕員)은 이 뒤의 정사에서 차출하라"고 하였다.[104]

광해 10년에 인쇄를 마친 선조의 실록은 4대 사고에 각기 보내어 보관토록 하였다. 그런데 묘향산의 사고에 비치해 두어야 할 실록은 무주의 적상산으로 옮겨 보존토록 하였다. 평안도가 반역향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때 묘향산 사고에 있던 역대 왕들의 실록도 장차 적상산성 내 실록전으로 옮겨 보존하기로 논의가 되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

102) 『조선왕조실록』, 37책 488쪽. 현개 7년 2월 23일 갑술조.
103) 『조선왕조실록』, 25책 398쪽 참조.
104) 『조선왕조실록』, 33책 127쪽. 광해 10년 7월 6일 임진조.

광해 10년에 이미 적상산성 내 실록 전에는 실록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묘향산 사고에 있 는 역대 왕들의 실록도 적상산성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역대 왕들의 실록을 적상산으로 옮기지 못하자 강 석기와 윤방이 이를 거듭 촉구하였던 것이다. 결국 적상산에 선조의 실록이 봉안된 지 무려 15년이 지난 인조 12년에야 나머지 역대 왕들의 실록들이 겨우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선원각을 이건해서 건립한 안국사 천불전

한편 인조 19년(1641)에는 적상산성안에 선원전(璿源殿)을 창건하여 선원록(璿源錄)을 봉안하였다. 원래 선원전은 서울 창덕궁 북서쪽에 있으며 조선 역대 임금의 어진(御眞)을 봉안하였다. 그러나 적상산성 안에 창건된 선원전에는 선원록을 봉안하였다. 선원록은 '선원 보첩(璿源譜牒)'이라고도 하였는데 왕실과 그 일가의 보첩이다. 일종의 왕실 족보였다.

3) 산성 관리와 실록 보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해 6년(1614) 적상산성 내에 실록전이 창건되고 4년 후인 같은 왕 10년(1618)에 처음으로 선조의 실록을 봉안하였다. 그 후 인조 12년(1634)에 묘향산 사고에 있던 역대 왕들의 실록이 이곳 실록전으로 옮겨졌다. 적상산성과 실록전 및 선원각의 규모 등은 시기에 따라 달랐을 것이나 『국역 적성지』에 나온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상산성의 둘레는 16,920척, 샘은 33곳, 그리고 연못은 4곳이 있었다.[105] 이 산성 안에 실록전 즉 사고(史庫) 12칸, 수사당(守史堂)과 선원각(璿源閣) 및 승장청(僧將廳) 각기 6칸, 군기고(軍器庫) 7칸 및 화약고(火藥庫) 1칸의 건물이 있었다.[10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성을 수호하고 이 산성 내에 있던 각종 건물 등을 관리하며 역대 왕들의 실록과 선원록 등을 온전히 보존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우선

105) 『국역 적성지 (천)』. 299쪽.
106) 위 책, 307쪽.

여러 고을의 지방군(地方軍)을 산성에 배치하여 실록전과 선원전을 수호하고 승도(僧徒)들 을 모집하여 실록전과 선원전의 수직(守直)을 담당하도록 해야 했다.

> 비국(備局)에서 왕에게 아뢰어 요청하였다. "무주현의 적상산성을 수리한 다음, 본고을 및 금산(錦山)·용담(龍潭)·진안(鎭安)·장수(長水)·운봉(雲峰)·진산(珍山) 등 7읍을 본 산성에 분속(分屬)시키고… 승려 각성(覺性)에게 도총섭(都摠攝)의 칭호를 주어 항상 성내에 거주하면서 일이 없을 때에는 수호하고 유사시에는 협수(協守)하게 하소서" 왕이 이에 따랐는데, 이 건의는 순검사(巡檢使) 박황(朴潢)이 한 것이었다.[107]



안국사

적상산성을 수리한 후 무주와 인근 6개 고을의 군인들을 산성에 분속시켜 산성과 실록전 및 선원전을 수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승려 각성을 도총섭으로 임명하여 승도들을 지휘, 산성 안에 거주하면서 실록전과 선원전 수직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적상산성과 실록전을 수호하기 위한 인원은 시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현종 7년(1666) 전라감사 민유중(閔維重)이 왕에게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수가 상당하였다.

> "대개 적상산성은 형세가 지극히 험하여 여러 번 병란을 겪었으나 한번도 병화(兵禍)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오년(광해 10년; 1618-인용자주)에 비로소 실록을 보관하고 신사년(인조 19년; 1641-인용자주)에 또 선원록을 보관한 후에 참봉(參奉) 2명, 수복(守僕) 24명, 사부(射夫) 84명을 두고 또 좌우에 사찰을 두어 승도들을 모집해 들여 수호하는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 호남과 영남 사이에 있어서 도둑들의 소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주·용담·금산 이 세 읍(邑)의 군인을 전적으로 산성에 속하게 하고 진안(鎭安)의 군인 39명과 진산(珍山)의 군인 30명, 장수(長水)의 군인 96명을 떼어내어 여기에 소속시켰습니다.…"[108]

107) 『조선왕조실록』, 35책 72쪽. 인조 17년 10월 8일 신묘조.

적상산성을 수호하고 실록전을 수직하는 인원은 참봉을 비롯하여 수복과 사부 등 110명, 그리고 숫자를 알 수 없으나 실록전 수직을 담당하는 승도들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도적들이 창궐하자 이들을 막기 위해 진안 등지의 군인 165명과 무주, 용담 및 금산의 군인 전부가 적상산성에 소속되어 있었다. 적상산성이 도적의 소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곳이 험준하기 때문에 관군(官軍)의 추적을 용이하게 피할 수 있어서 이지만, 성안에 군량(軍糧)으로 쓸 곡식이 비축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산성 안에 곡식을 비축한 이유는 전쟁이 일어날 때와 같은 유사시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실록의 기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 무주·용담·금산 등 고을의 내년 전세(田稅)를 적상산성에 실어다 두어 긴급한 때의 쓰임에 대비하게 했는데, 이는 이시해(李時楷)의 청에 따른 것이다.[109]

이와 같이 적상산성이 험준하여 관군의 추적을 피하기 쉽고 또 군량미로 쓰일 곡식이 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상산성이 실제로 도적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현종 12년(1671)에 금산(錦山)의 도적들이 용담현(龍潭縣)의 군기고(軍器庫)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하고 산성에 비축되어 있는 곡식을 빼앗으려고 한 일이 있었다.

> 금산(錦山)의 도적 이광성(李光星)을 경상(境上)에서 처형하여 뭇사람을 경계하였다. 이광성은 금산의 좌수(座首)였는데 그의 아우 문성(文星)·두성(斗星) 및 교생(校生) 우명침(禹明侵) 장관(將官) 김영일(金英逸) 등과 함께 도둑질을 하기로 모의하고 50여 인의 무리를 모아 여러 곳에서 겁탈하였다. 이광성이 '인명을 살상하는 것은 무리를 모으는 도리가 아니다'고 하여 그의 무리들에게 일체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경계하고, 드디어 용담현의 군기(軍器)와 무주 적상산성 서창(西倉)의 향곡(餉穀)을 겁탈하고자 덕유산 깊은 골짜기 속에다 진을 치고 웅거하면서 근처의 사냥하는 포수 및 중들과 결탁하여 그 세력을 폈다.[110]

따라서 산성을 수호하고 실록전을 수직하기 위해서는 적상산성 안에 많은 군인과 승려들이 머물러야 했다. 그런데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그 경비가 여간

---

108) 『조선왕조실록』, 37책 488쪽. 현개 7년 2월 23일 갑술조.

109) 『조선왕조실록』, 35책 320쪽. 인조 26년 3월 26일 신유일조.

110) 『조선왕조실록』, 37책 1쪽. 현종 12년 11월 12일 기미일조.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또 산성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이들 이외에도 인근 고을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산성을 수축해야만 했다. 그러나 무주는 크기가 매우 작고 인구가 적었으며 재정이 극히 좋지 않은 고을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처를 취해야 했는데 이때 거론된 방법은 대략 3가지였다.

그 중 하나는 산성에 머무는 군인과 승려의 수를 최소한으로 감축하는 방안이었다. 만일 왕조실록 보존을 위해 실록전만을 수직(守直)할 경우에는 인력과 경비가 크게 절감될 수 있었다. 또 이러할 경우, 금산의 도적처럼, 산성 안에 비축되어 있는 군량을 탐내어 산성을 침범하는 일도 없을 것이었다. 사실 태백산과 오대산 사고의 경우 최소의 인원이 실록전만을 수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방법도 현실적으로는 가장 채택하기 쉬운 방법 중의 하나였다.

다음으로는 산성에 인접한 인근 고을 중의 몇 개 면(面)을 떼어내어 무주현에 편입시켜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과 진안현 등에 소속된 군사의 일부를 적상산성에 소속시켜 수직을 돕는 방법이 있었다.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당시 전라감사였던 민유중의 다음과 같은 상소에 잘 나타나 있다.

> 만약 이 성에 단지 사책(史冊)만 보관한다면 창고를 설치하고 기계를 갖추어 놓고 군병(軍兵)을 배치하여 도둑들을 불러들이는 화근으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겸 하여 보장(保障)하는 터전으로 삼는다면, 소속 군병은 성첩(城堞)에 배치하기에 부족하고 현재 보관된 군량으로는 2달을 버티기에도 부족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군병과 군량과 기계 등을 모두 없애어서 도적들이 엿보는 단서를 끊어버리고 단지 참봉(參奉)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되 한결같이 태백산과 오대산의 예와 같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주의 안성면과 옥천의 양산면을 떼어 내어 소속시켜서 단독으로 진 (鎭)을 만들게 하고 한 읍의 민정을 성적(城籍)에 편입한다면 보장(保障)하는 도리에 흠이 없게 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면, 진안현에 소속된 군인 310명을 전적으로 산성에 소속시키되 금산과 용담의 규례와 같이 하고, 장수·진산 양읍 군병으로 좌우의 본영에 소속시킨다면 산성의 군액이 전에 비하여 더해지고 양읍의 경우에도 나뉘는 폐단이 없을 것이다.[111]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 대부분은 임시방편에 불과하였으며 시행하기에는 각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적상산성은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할 수는

111) 『조선왕조실록』, 37책, 488쪽. 현개 7년 2월 23일 갑술일조.

없었다.

그래서 마련된 방안이 산성에서 가까운 인근 고을의 몇 개 마을을 이곳에 배속시켜 그들이 내는 세금으로 군인과 승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산성 수축을 위한 인력을 제공받는 방법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상산성에서 가까운 금산(錦山)의 안성(安城)과 옥천(沃川)의 양산(陽山) 및 영동(永同)의 용화(龍化)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산성에 배속시켜 산성을 수축하고 산성과 관련하여 각종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주현감이 무주와 그 인근 고을의 군인과 백성들을 지휘·통솔하려면 자연히 종 6품인 현감의 지위로는 어려움이 많았다. 무주현감이 수성장(守城將)으로서 비록 산성과 관련된 모든 행정권과 군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의 다른 고을의 수령들과 품계(品階)가 같았기 때문에 지휘와 통솔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무주를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키고 아울러 수령을 종 3품의 부사(府使)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 전라감사 윤명은(尹鳴殷)이 급히 아뢰었다. "봉교(奉敎) 이태연(李泰淵)이 적상산성의 현안(懸案)에 대해 논의하자 조정에서는 저보고 살펴서 조처하라고 하였습니다. … 저의 생각으로는 금산(錦山)의 안성(安城)과 옥천(沃川)의 양산(陽山) 및 영동(永同)의 용화(龍化) 세 곳을 산성에 할속(割屬)시키고 또 읍호(邑號)를 승격시킨 후 반드시 재능을 두루 갖춘 문관(文官)을 지방관으로 임명하여 고을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주는 산중 고을이라 쇠잔하고 척박하여 군사가 적고 군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고을의 특정지역을 떼 내어서 산성에 소속시키자는 논의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장점을 많이 말하였는데 아직껏 시행되지 못했으니, 이태연의 제안대로 시행하소서"[112]

전라감사 윤명은은 적상산성 관리 방안에 대해서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대책을 건의하였다. 먼저 무주가 쇠잔하고 군사도 적기 때문에 실록을 보존하고 있는 산성을 수호하려면 아무래도 인근 고을의 몇몇 지역을 떼어내어 무주로 이관시키자고 하였다. 이 지역에서 걷어지는 세금을 이용하여 산성 수호를 하는 군인과 승려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아울러 그들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산성을 수축하자는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인근 고을을 지휘·통

112) 『조선왕조실록』, 35책 231쪽. 인조 23년 6월 5일 을유조.

솔할 수 있도록 무주를 도호부로 승격시키고 문관 출신의 부사를 파견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묘당(廟堂)에 그의 건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건의는 끝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한다.



석실비장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적상산성을 수호하는 군사와 승려들에 대한 처우가 대단히 열악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적상산성과 실록전 및 선원전 수 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인조 26년(1648) 6월에는 도적이 선원전에 들어가 봉한 자물쇠를 열고 궤속에 복대 (袱帒)를 모두 훔쳐가기도 하였다.[113] 현종 11년(1670) 경에는 수직하던 승려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시의 상황이 전라감사 이동직(李東稷)이 올린 계(啓)에 잘 나타나 있다.

> 본래 군량(軍量)이 적은데다 (산성까지는) 멀어서 운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성 아래에다 창고를 지어 이곳에 보관하였습니다. … 그러나 산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성 안에는 한 되의 곡식도 없을 때도 있는데 어찌 이런 이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 성 안에서 수직(守直)하는 승려들은 경술년(庚戌年: 1670)과 신해년(辛亥年: 1671) 두 해에 거의 모두 흩어졌습니다. 산이 깊고 길이 험하여 식량 운반도 극히 어렵기 때문에 이곳에 다시 살기를 원하는 승려가 없어서 성안의 사찰은 태반 이상이 텅 비었습니다. 막중한 사고(史庫)와 더불어 선원록(璿源錄)을 봉안(奉安)하는 곳을 외환(外患)으로부터 막는 일의 소홀함이 이와 같으니 진실로 한스러운 일입니다.[114]

무주현의 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조선왕조실록과 선원록를 봉안하고 있는 사고(史庫)를 언제까지나 이와 같이 방치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특별한 조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조처란 바로 무주현을 무주부로 승격시키고 문관 출신의 부사를 임명하여 인근 속현들을 통솔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방안은 일찍이 전라감사 윤명은이 아뢴 것이었다.

113) 『조선왕조실록』, 35책 326쪽. 인조 26년 6월 18일 신해조.
114) 『국역 적성지(천)』, 302쪽.

4) 부(府)로의 승격

전라감사 이동직(李東稷)이 올린 계(啓)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적상산성에 수직 하는 승려가 한 명도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전라감사 이동직은 산성을 수호하고 실록전 등을 수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전에 윤명은이 제안한 것과 같았다.

> 적상산성은 천 길이나 되는 견고한 벽이 깎아지른 듯이 사면에 서 있으니 진실로 천연의 요새라 할 만 합니다. 더구나 호서·호남·영남의 세 도가 접하는 곳에 자리잡고 있으니, 만약 양곡을 비축하고 병사를 훈련하여 큰 진(鎭)을 만들면 혹시 위급한 일이 있더라도 산군(山郡) 일대는 거의 적에게 함락당하는 환란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주현은 금산의 안성면과 경계가 서로 접해 있고 길도 가까우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이곳을 떼어 붙여 현(縣)을 승격시켜 부(府)로 만들고, 현감을 승진시켜 부사로 만들어 명위(名位)를 중하게 하여 큰 진(鎭)을 이루면 두메 산골의 백성들이 여기에 의지하고 방어도 매우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크게 개혁하는 일과 관련되니 비록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으나, 무주현의 임무는 무겁지만 지위가 가벼워 호령이 속읍에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요사이 장성(長城)의 예에 따라 부사(府使)로 승격시키면 체면이 절로 각별해져서 일도 마땅함을 얻을 듯합니다.[115]

이동직이 계를 통하여 금산의 안성면을 떼어 무주현으로 이속시키고 무주현을 부로 승격 시키자고 제안하자 우의정 김수흥이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즉 그는 "무주는 영호남에 위치한 요충지이니 마땅히 유의할 곳인데, 금산의 안성면은 산성에서 가장 가까우니 떼어주는 것이 편리할 듯하며 무주를 부(府)로 승격시키소서" 라고 이동직의 제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자 왕도 이를 따라 무주현을 부(府)로 승격시키고, 장성 수성장(守城將)의 예에 따라 사목(事目)을 내려보내 각 고을을 통제하게 하였다.[116]

---

115) 『조선왕조실록』, 37책 56쪽. 현종 14년 12월 21일 병진일조.

116) 『조선왕조실록』, 37책 60쪽. 현종 15년 2월 13일 무신일조.
이때 금산군 횡천면(橫川面)을 분할하여 예속시켰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역 적성지(천)』 29쪽 참조.

3. 이인좌의 난과 무주

영조 4년(1728) 3월에 박필현(朴弼賢)과 이인좌(李麟佐) 및 정희량(鄭希亮)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무신년(戊申年)에 일어났기 때문에 무신난(戊申亂)이라 불리기도 하고, 또 이인좌가 주동이 되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인좌의 난이라고도 한다.

박필현 등은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소론(少論)과 남인(南人)으로서 영조를 왕위에서 몰아 내고 노론 정권을 타도한 후 소론과 남인 공동의 연합정권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이들이 영조를 왕위에서 몰아내려고 한 것은 영조가 숙종의 아들이 아니며 형인 경종을 몰래 독살하였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경종은 재위 4년째인 1724년 8월 20일에 게장과 생감을 먹고 복통과 설사를 거듭하다 5일 후인 8월 25일에 사망하였다. 그러자 항간에는 동궁인 영조가 들여보낸 게장을 먹고 경종이 사망하였는데, 그 게장 속에는 독이 들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 소문은 구전을 통하여 점차 퍼져나가다가 급기야 괘서(掛書)의 형태로 시장 등지에 나붙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이를 기회로 정권에 불만을 품었던 소론과 남인들이 영조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노론을 타도하려고 하였다.

이인좌가 군사를 동원하여 거병하였기 때문에 이 반란이 이인좌의 난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반란을 초기에 주도한 사람은 박필현이었다. 그는 8도의 명망있는 인사를 널리 모으기 위해 여러 차례 삼남 지방을 순회하며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그는 남인인 이인좌를 포섭하였으며 이인좌는 그와 세교(世交)가 있던 정희량을 포섭하였다. 사실 이들 세 명이 무신란에서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던 주역들이었다. 이외에도 서울 출신으로는 평안감사 이사성과 포도 대장 남태징 및 민관효 등이, 그리고 지방 출신으로는 정세윤과 나숭대 등이 뜻을 같이 했는데, 이들은 모두 남인과 소론의 명가(名家) 자제(子弟)들이었다.

그런데 영조 3년(1727)에 정미환국(丁未換局)이 일어나자 반란 세력들은 커다란 어려움에 부딪혔다. 정미환국이란 정미년에 일어난 환국을 말하며 환국이란 정권이 하루 아침에 어느 한 당에서 다른 당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환국은 조선시대 당쟁사의 한 특징인데 당쟁에서 왕이 최종적으로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집권당이 결정되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집권당이 변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정치적 혼란이 매우 심하였다.

아무튼 노론이 물러나고 소론이 집권하자 소론인 박필현 등은 반란을 일으키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하였다. 더군다나 그가 전라도 태인 현감으로 임명되자 소론들은 대부분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박필현은 태인현감으로 부임한 뒤에도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동지를 모으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정미환국 이후 소론들이 관망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반란에 소극적이었던데 반하여 남인인 이인좌 등은 거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소론들처럼 관망하고 머뭇거리기만 하다가는 오히려 거사도 못하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 이인좌는 영조 4년(1728) 3월 15일, 전격적으로 청주를 점령하였다.

이로서 이인좌의 난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인좌는 먼저 충청병사 이봉상(李鳳祥)을 살해하고 사방에 격문(檄文)을 보내 반란에 참가하도록 호소하였다. 뒤 이어 영남의 정희량 등은 3월 20일 안음(安陰)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안음과 거창 및 합천 등을 함락 시켰다. 반란군은 순식간에 7만 여명으로 불어나자 기세가 하늘을 찔렀다. 그러자 이들은 이인좌의 반란군과 합세하기 위해 북진을 서둘렀다.

안음이나 거창 등지에 있던 영남의 반란군들이 북진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를 거쳐야 했다. 당시 무주부사는 조유수(趙裕壽)였는데 그는 반란군의 북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만번(李晩蕃)을 천부장(千部將), 그리고 최봉래(崔鳳來)를 중군장(中軍將)으로 삼았다. 결국 이만번과 최봉래의 눈부신 활약으로 반란군은 무주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적성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이만번은… 담력과 도량이 크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했으며 관찰력이 있어서 기회 포착을 잘하였다. 영남의 역적 정희량이 이만번의 풍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정성을 다하여 복종할 것을 약속할 터이니 이번 일에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만번이 정색을 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과연 무신년 3월에 역적 정희량이 안음 고현(古縣)에서 반란군을 일으켜 장차 대궐을 침범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만번은 이 소식을 듣고 심하게 꾸짖으며 "이 도적이 의혹을 품은 지 오래되었다. 이제 과연 변란을 일으키려 하는구나"라고 말하고 동생 이만경(李晩景)과 함께 모의하여 의병(義兵)을 일으켰다. 집안의 살림을 털어 군량과 무기를 스스로 장만하고 집안 하인들과 고을의 용맹한 사람들을 일시에 모집하여 난(難)을 평정하려 할 무렵, 부사 조유수가 이만번을 본진(本陣)의 천부장으로 삼고 최봉래를 중군장으로 삼았다. 부사 조유수가 이만번과 최봉래에게 말하기를 "적상산성(赤裳山城)의 선원각(璿源閣)과 사각(史閣)은 내가 친병(親兵)을 거느리고 가서 죽음으로 지킬 것이니, 그대들은 내 대신 본부(本府)의 관군을 거느리고 성초령(省草嶺)으로 가서 적을 막아 적들이 감히 고개를 넘지 못하게 하라"

> 고 하였다. 이만번은 즉시 자신이 모았던 의병과 관군을 거느리고 충성과 의리로서 격려 하여… 성초령으로 나아가 주둔하였다. 그리고서 마치 군사가 매우 많은 것처럼 군세(軍勢)를 크게 펼쳐 보여 적을 현혹하고 정탐하던 적 5명을 사살하니 도적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고개를 넘지 못하고 기세가 꺾이어 도망가고 말았다.[117]

이러한 사실 즉, 정희량이 이끄는 영남의 반란군들이 성초령을 통하여 무주로 진군하려 하였으나, 전라도의 군사가 고갯길을 지켜 적들이 두려워 감히 고개를 넘지 못했다는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 역적 이웅보(李熊輔)와 정희량 등이 함양에서 거창으로 돌아와 군사를 나누어 둘로 만들었다. 이웅보는 우지령(牛旨嶺) 밑에 진을 쳐서 장차 지례(知禮)로 향하려 하고, 정희량은 성초역(省草驛)에 진을 쳐서 장차 무주로 향하려 하였다. 그런데 선산부사 박필건(朴弼健)이 금오진(金烏鎭)의 군사를 거느리고 우지령의 험한 곳을 먼저 점거하고, 무주의 고갯길에도 또한 전라도의 군사가 주둔하여 길목을 지키고 있으니 적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나아가지 못하였다.[118]

한편 여러 정황으로 보면 당시의 무주부사인 조유수는 선원각과 사각을 지키려 적상산성 으로 간 직후 병이 나서 군인들을 통솔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적성지』에 수록된 최봉래의 전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약간 소개되어 있다.

> 영조 무신년에 영남의 역적 정희량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본군의 수령인 조유수는 산성을 수호하러 들어가 병이 나서 군인들을 독려할 수 없었다. 부사가 군인들을 통솔하지 못하고 역적들이 장차 고개를 넘으려고 하자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이 때 최봉래가 정의를 위해 분발하고 자진하여 적들을 막았다. 창의사(倡義士) 이만번과 함께 의병과 관군을 거느리고 성초령으로 나아가 길목을 막고 마치 군사가 많은 것처럼 적을 현혹하니, 적의 괴수가 성초령에 들어왔다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이 곤경에 빠지고 말았다.[119]

---

117) 『국역 적성지(상)』, 248~250쪽.
118) 『조선왕조실록』, 42책 35쪽. 영조 4년 4월 1일 신사조.
119) 『국역 적성지(상)』, 250~251쪽.

부사 조유수가 갑자기 병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부에서는 곧바로 병사(兵使)를 역임했던 이언상(李彦祥)으로 교체하였다.[120] 조정에서는 아무래도 병사를 역임한 인물이 부사가 되어야 군사를 능숙하게 통솔하여 반란군의 북진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12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남에서 무주를 거쳐 북진하려는 반란군을 저지하기는 하였지만, 무주는 산세가 험하여 숨을 곳이 많았기 때문에 반란군들이 무주 내 곳곳에 숨어 있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 전라감사 이광덕(李匡德)이 장계(狀啓)하였다. "금산군수 이덕린(李德隣)이 도적의 군사 이원휘(李元暉)·정돌시(鄭突屎) 등을 잡았습니다. 이원휘가 공초하기를 '청주의 도적이 봉서(封書)를 내어주면서 무주의 적진(賊陣)에 전달하라고 하기에 무주로 갔더니 적괴(賊魁)는 부(府)의 동서쪽 50리 되는 태산(泰山) 장곡(長谷) 속에 있고 모인 적당(賊黨)이 거의 수십 초(哨)에 가까웠습니다. 청주의 적장(賊將)이 병사를 요청하자 수삼 초(哨)의 군병이 연달아 계속해서 올라갔으나 후에 청주에서 관군에게 패했다는 보고를 듣고는 무주의 도적들이 차츰 뿔뿔이 도망쳐서 남아 있는 적은 3·4초뿐이었습니다. 무주의 도당은 바로 청주의 후진(後陣)이었는데 이들은 가옥이 없는 빈 산에서 밤낮으로 한데에 거처[露處]…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122]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듣자 영조는 매우 신속하고 과단성 있는 조처들을 취하였다. 먼저 서울에서 대응할 만한 세력들을 파악하여 이들을 모두 투옥시키고 오명항(吳命恒)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반란군들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관군은 북상하는 반란군을 진위에서 맞아 대파하였다. 이인좌가 패잔병을 이끌고 죽산으로 향하자 관군들을 즉시 추격에 나섰다. 이인좌는 곧바로 죽산에서 체포당하여 서울로 압송되었다. 박필현이 이끄는 호남의 반란군은 전주로 진격하였으나 대응하기로 약속했던 전라감사 정사효가 성문을 걸어 닫은 채 호응하지 않았다. 사태가 이와 같이 어렵게 되자 박필현은 도주하고 말았다. 정희량

---

120) 『국역 적성지 (상)』에는 이언상이 무과(武科)에 합격하였으며 수사(水使)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1쪽 참조)

121) 『조선왕조실록』, 42책 35쪽. 영조 4년 4월 1일 신사조 참조.

122) 『조선왕조실록』, 42책 38쪽. 영조 4년 4월 7일 정해조.

이 이끄는 영남의 반란군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초령을 넘지 못하여 퇴각했다가 거창의 천총(千摠) 정빈주(鄭彬周) 등에게 체포되고 말았다.[123] 이인좌가 거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반란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은 모두 도망하거나 체포되고 말았다.

이인좌의 난은 비록 신속하게 진압되었으나 반란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영조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반대세력을 철저히 가려내어 통치 기반을 굳건히 하려 했다. 반란에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감영이나 의금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 아래 조사를 받았다. 다행히 무주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반란군들이 거쳐가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이인좌의 난은 이후 정치사에 많은 영향을 남겼다. 영조는 이 난을 통하여 당쟁의 폐단을 통감했다. 소론과 남인이 모의하여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들이 반란을 하기까지는 노론의 역할도 컸기 때문이다. 영조는 이 난을 통하여 한 당파만 전적으로 등용해서는 안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터득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탕평(蕩平)을 향한 결심을 더욱 굳혔다.

4. 향교와 시술재(時述齋)

1) 향교의 증축과 이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국교(國敎)가 유교(儒敎)였다. 조선의 건국자들은 국교를 불교(佛敎)에서 유교로 바꾸고서 그 이념을 빠른 시일 내에 향촌사회에까지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각 고을마다 국립학교인 향교(鄕校)를 세웠으며 교관(敎官)을 파견하여 백성의 자제들을 교육시켰다. 아울러 많은 토지와 노비를 지급하여 백성들의 자제가 향교에 기거(起居)하면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각종 유교 경전(經典) 등을 간행하여 교재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부터 조정에서는 유교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성과는 고을에 따라 각기 달랐다. 무주의 경우에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대단히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순조 34년(1834)에 김속(金涑)이 쓴 다음과 같은 「향교이건기(鄕校移建記)」를 통해 알 수 있다.

---

123) 『조선왕조실록』, 42책 43쪽. 영조 4년 4월 14일 갑오조.

> 무주는 궁벽한 산골짜기로 서울에서 무려 500여 리나 떨어져 있다. 백성들 가운데 농사짓는 사람은 열에 아홉인데 사대부는 한 둘에 불과하다. 또한 마을과 촌락에는 서재 나 서당이 없다. 백성들이 향교에서 예절을 익히고 학문을 연마하지 못하는 것은 고을에 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향교가 중수 된 지 100여 년 사이에 도(道)가 이미 퇴폐해졌고 학교 역시 퇴락하여 기둥과 서까래가 부러지고 단청(丹靑)의 색이 모두 바래었으니 보는 사람들 중 슬퍼하고 애석해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124]

무주는 도읍인 서울에서 무려 500여 리나 떨어져 있어 서울에서 무주까지 오려면 대략 닷새 반나절이나 걸렸다. 또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에서는 200여 리나 떨어져 있어서 감영에서 이곳에 오려면 대략 이틀 반나절이 걸렸다.

이와 같이 무주가 서울이나 전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래서 자연히 사대부들이 이곳에 와서 거주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무주에는 사대부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았으며 거주 인구의 대부분은 농부들이었다. 따라서 고을에 사대부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마을이나 촌락에 서재나 서당이 없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백성들이 예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아가 과거시험이나 인격 함양을 위한 학문 연마는 아예 꿈조차 꾸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므로 조선후기 무주의 백성들은 유교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자연히 도(道)가 무너지고 또 향교 건물도 퇴락한 채 마냥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학에 조예가 깊은 수령이 부임할 경우에는 향교를 중수하고 유학 진흥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예컨대 한포재(寒圃齋) 이건명(李健命)의 현손(玄孫)인 이헌승(李憲承)은 순조 30년(1830)에 부사로 부임하자 곧바로 향교를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고을 내의 선비들과 상의하여 재물을 모았으며, 향교 이전 부지로 관아 동쪽의 길지(吉地)를 선정하고서 이건을 서둘렀다.

먼저 대성전(大成殿)과 동서무(東西廡)를 짓고 이어서 명륜당(明倫堂)을 건축하던 중 갑자기 이헌승은 사망하고 말았다. 후임으로 부임한 이광승(李光承)은 한천(寒泉) 이동욱(李東郁)의 증손이었는데 그는 향교 이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더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125] 아울러 그는 고을의 풍속이 점차 세속화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문식(文識)이 있는

124) 『국역 적성지 (천)』 109쪽 참조.
125) 위 책, 108~110쪽 참조.

선비들을 선정하여 명륜당에 모아놓고 사서(四書)를 강의하고 향음주례(鄕飮酒禮)를 시행 하였다.[126]

또 헌종 12년(1846)에 부임한 최원(崔瑗)은 순시차 향교에 들렀다가 유교경전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완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는 인재양성을 위해 시술재(時術齋)를 건립하였다. 그가 향교에 유교 경전을 갖추도록 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그가 쓴 다음과 같은 「장서기(藏 書記)」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장서기」는 비록 장문이기는 하지만 조선 후기 무주부의 여러 모습들이 생생하게 잘 보여주므로 우선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 내가 무주에 부임하여 향교에서 서적을 조사하였더니, 경서는 [주역(周易)], [상서(尙書)], [논어(論語)]가 있으나 모두 몇 권씩 빠져 있고, 사서(史書)도 [강목(綱目)]은 있으나 역시 몇 권씩 빠져 있었다. 또 현재 남아 있는 책의 경우에도 책장이 많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마을에서 경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민가에서 칠경(七經)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은 겨우 두 세 집뿐이었고, 사서(史書)를 소장하고있는 경우는 기껏해야 소미(少微)의 [통감(通鑑)] 뿐이었는데 그나마 전질(全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상황이 이와 같으니 무주의 선비들이 과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내가 부사로 3년 동안 재임하면서 시술재(時術齋)를 건립하여 선비들을 양성했는데, 선비들을 기르려고 하면서 그들이 읽어야 할 서적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활쏘기를 가르치면서 활을 내던지고 말타기를 가르치면서 채찍을 버리는 것과 어찌 다르겠는가?
>
> 이에 향교의 예산 중에서 여유가 있는 10,000여 전(錢)으로 종이 8,000매(枚)를 구하고 아전(衙前)을 전주에 보내어 언해(諺解)가 갖추어진 칠경(七經) 80권과 [예기(禮記)] 13권, [춘추좌전(春秋左傳)] 10권, [사기(史記)] 33권을 인쇄하였고, 연남의 달성(達城)으로 가서 [팔대가문초(八大家文抄)] 40권을 인쇄하였다. 또 전주에서 간행된 [강목(綱目)] 중에 빠진 것 6권 4판을 이서(吏胥)로 하여금 베끼게 하여 175매를 보충하였다.
>
> 필사와 인쇄를 마치고 황색으로 서갑(書匣)을 만들었다. 새로 인쇄한 것이 181권이며 이전에 인쇄를 했으나, 이번에 새로 서갑을 만든 것 68권을 예전에 낙질(落帙)인 채 보관하고 있던 책들과 함께 향교에 소장해 두도록 했다.… 지금 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서책의 수가 이전에 비해 많다. 경서로는 구경(九經)을 갖추고 사서(史書)로는 편년(編

126) 위 책, 110~111쪽 참조.

年)과 전기(傳記)를 망라하였으며, 문집으로는 당송(唐宋)의 글을 구비하였다. 옛부터 책을 경·사·자·집(經·史·子·集) 4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오직 집(集)에 관련된 책들만 없는 셈이다.…

이제 학교에 경서가 갖추어져 있으니 만일 여러 유생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면… (모두) 문장가(文章家)가 될 수 있고 아울러 경술(經術)도 크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127]

위 『장서기』에 의하면 헌종 무렵에 무주부 향교에서 갖추고 있는 경서로는 『주역』과 『성서』 및 『논어』가 있었으며 사서로는 『강목』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 책수(冊數)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결본 상태였다고 한다. 또 민간에도 칠경(七經)이 갖추어진 경우가 겨우 두세 집에 불과하였으며, 사서로는 겨우 『통감』이 전하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선비들이 과거시험을 준비하고 유학에 대해 공부하려고 해도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무주에 부임한 수령들은 부임 직후부터 유학을 진작시키기 위해 향교를 확장 이건하거나 건물을 중수하였다. 때로는 사서를 강의하고 향음주례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 경서와 사서 및 문집 등을 갖추어서 유생(儒生)과 선비들이 언제든지 이 서적들을 빌려 학문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2) 시술재(時術齋)의 건립

조선시대에는 고을마다 모두 국립지방학교라고 할 수 있는 향교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선비들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양사재(養士齋)가 있었다. 이곳 무주에는 전학재(典學齋)라는 기관이 있었다. 그러나 이 전학재가 언제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또 언제부터 활동이 중단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앞에서 잠시 서술한 바와 같이, 헌종 12년(1846)에 부사로 부임한 최원은 고을 선비들과 상의하여 같은 왕 15년(1849)에 관아의 뒷편 아래에 시술재를 창건하였다. 그러나 시술재가 민가(民家)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학문 연마의 장소로는 적당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철종 6년(1855)에 부사 홍종화(洪鍾華)가 송정(松亭) 아래로 이건하였다. 이 송정의 위치는 향로봉(香爐峰) 아래, 적탄(赤灘) 위에 있었다고 한다. 이 시술재는 이후에 또 한

127) 『국역 적성지 (상)』 114~116쪽

차례 이전을 하였다. 즉 고종 7년(1870)에 부사 김석근(金奭根)은 선비들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술재를 향교의 동쪽으로 확장 이전하였다.

조선시대에 각 지방에는 국립 지방학교인 향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별도로 선비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을 왜 설립해야 했는지, 그리고 시술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창건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최원이 쓴 『시술재기(時術齋記)』에 잘 나타나 있다.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상서(庠序)와 학교를 설립한 취지는 성인과 스승을 존경하고 많은 선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향교에서 선비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그만둔 이후 향교는 오로지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선비들이 학업을 익힐 수 있는 곳이 없게 되었으며, 그래서 만일 선비들을 가르치려면 반드시 선비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건물을 설립…해야 한다. 또 숙식을 제공하여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토록 하는 것은 양사(養士)의 흥패와 문풍(文風)의 성쇠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
> 병오년(헌종 12년; 1846)에 내가 무주에 부임해 와서 보니 무주는 영남과 호남 사이에 끼여 있다. 영남과 호남은 제로(齊魯)인데 오직 무주만은 미개하여 궁벽하고 고루하기가 촉(蜀)과 같아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건물이 없어 내가 이것을 마음 속으로 매우 부끄럽게 여겼다.
>
> 그런데 마침 하재문(河在文)이 내 집무실을 방문하였는데, 그는 무주의 석학(碩學)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 고장은 어찌 재사(齋舍)를 세워 선비를 기르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하재문이 "이는 진실로 온 고을 사람들이 수 백년 동안 부끄럽게 생각해 온 바입니다. 예전에 선조들이 건물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일이 있어서) 비용을 다른 곳에다 써버려 결국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부사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시니 다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물러났다. 그는 여러 동지들과 모의하여 600여 냥을 갹출하여 가지고 나에게 왔다. 그래서 관에서 약간의 돈을 보태어 3만전(錢)으로 땅을 사서 도조(賭租)로 매년 20곡(斛)을 받도록 하고 2만전으로 돈놀이를 하여 이자로 8천 전을 받아 선비를 기르는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
> … 이 시술재를 건립하자고 건의한 사람은 하재문이요, 경비를 모은 사람은 최승항(崔承恒), 박춘병(朴春炳), 박제봉(朴齊鳳)이며, 공사를 감독한 사람은 하맹조(河孟朝), 이재근(李在根)이다.[128]

128) 『국역 적성지 (상)』 159~161쪽.

국립 지방학교인 향교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였다. 조정에서는 임진왜란 이후에 궁핍한 재정을 이유로 교관(敎官) 즉 훈도(訓導) 파견을 중단하고 말았다. 훈도가 파견되지 않자 그나마 근근히 겨우 유지되어오던 공교육이 이후로는 아예 폐지되고 말았다. 향교는 이제 정규수업을 통한 교육적 기능을 대부분 상실한 채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고 간혹 선비들이 모여 향음주례(鄕飮酒禮)를 실시하거나 관민(官民)이 모두 모여 향약 등을 실시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매년 봄과 가을에 실시되는 공자에 대한 제사와 향음주례 및 향약 등이 향촌민을 교화시키는 기능을 일부 갖고 있었지만, 훈도의 파견이 중단된 이후에 향교는 교육적 기능이 거의 중단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민에 대한 교육은 중앙정부나 지방 수령 모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통치 이념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치민(治民)이 곧 교민(敎民)이었다. 즉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곧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백성을 가르치지 않고 다스리기만 하는 것은 백성들을 호랑이 굴로 몰아넣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였다. 백성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친 이후에 그래도 백성이 잘못을 범하면 처벌하여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유학자들은 주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수령의 업적을 평가 할 때에도 '흥학교(興學校)'가 평가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다. 즉 학교를 몇 개나 세우고 학풍을 얼마만큼 진작시켰는지가 수령의 업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항목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수령들은 고을에 부임하자마자 향교를 둘러보고 서원 등 각종 교육 시설들을 순방 하였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각종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학풍을 진작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주부사로 부임한 이헌승과 이광승 및 최원 등은 유학 진흥을 위해 커다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고을 선비들을 방문하여 유학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물었다. 그런 후 고을의 형편에 따라 관 주도로 혹은 선비들과 공동으로 양사재 등을 설립하고 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헌종 12년(1846)에 무주부사로 부임한 최원은 영남과 호남이 모두 유학의 본고장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유독 무주만은 미개하여 궁벽하고 고루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마침 이 고을의 석학(碩學)인 하재문의 내방을 받고서 그와 상의하여 마침내 시술재라는 양사재를 건립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였다.

시술재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설립되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운영은 어떻게 하였을까? 이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에 대해서는 고종 28년(1891)에 권대형(權大衡)이 쓴

시술재 『흥학문(興學文)』에 자세히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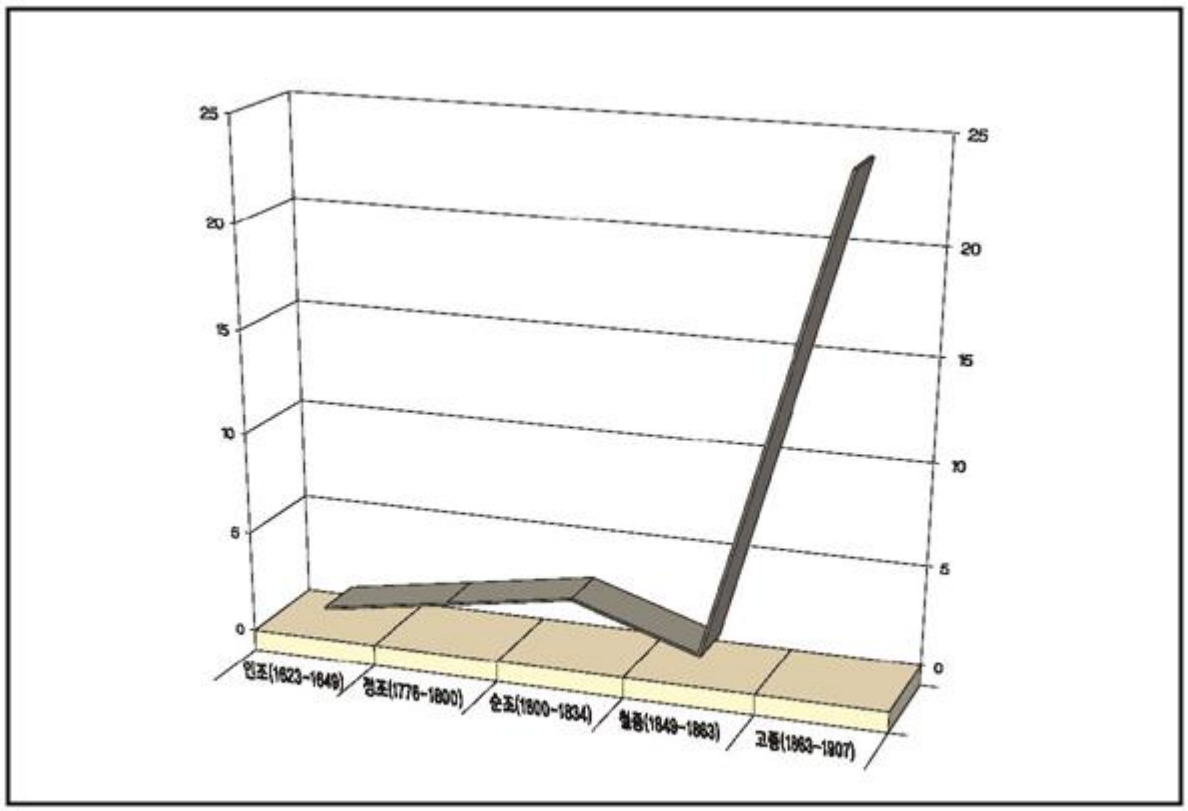
> 고을 내의 여러 자제들을 불러들여 때때로 숙식을 하며 공부하도록 하고 날마다 시험을 실시하였다. 또 함께 어울리도록 하여 서로 막힌 곳은 뚫어주고 서로 격려하여 고질적인 병폐를 떨쳐버리도록 했다. 또 수령이 월급을 덜어내어 종이와 붓을 상(賞)으로 내려주고 때때로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하자 선비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시술재에서 이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다.[129)]

이와 같이 시술재에서는 선비들이 모두 거접(居接) 수학(修學)할 수 있었다. 공교육기관인 향교와 사교육기관인 서원이 조선 후기에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이곳에 와서 수학하려는 선비들의 숙식이 큰 문제였는데, 시술재에서는 수학하려는 선비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성적에 따라 상을 주고 아울러 별미도 제공하여 선비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다. 그래서 수학하려는 선비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시술재에서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유학에 조예가 깊은 수령들은 부임한 후 유학을 진작시키기 위해 향교를 이건하거나 건물을 중수하고 때로는 사서를 강의하고 향음주례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 경서와 사서 및 문집 등을 갖추어 주어 유생들이 언제든지 이들 서적을 빌려 학문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아울러서 선비들이 유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건물을 지어 주었다. 그 결과 조선말기에 무주에서도 유학이 크게 진작되어 무주 출신의 과거 합격자들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습을 소과(小科) 합격자 즉 생원·진사(生員·進士) 합격자를 통하여 살펴보자. 이제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시험 당시 자신의 거주지가 무주라고 밝힌 생원진사 합격자는 총 31명으로서 모두 조선후기에 생존했던 인물들이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그림 1]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무주부에서는 몇 십년 만에 겨우 하나나 둘 정도가 소과에 합격하였다. 즉 인조대(1623~1649)에 1명, 정조대(1777~1800)에 2명, 순조대(1801~1834)에 3명, 그리고 철종대(1850~1863)에 1명의 소과합격자가 배출되었다. 그러다가 고종대(1864~1896)에는 거의 '폭발적'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소과합격자가

129) 『국역 적성지 (상)』 169~171쪽.



〈그림 2-4-1〉 무주부 출신 소과 합격자

크게 늘어났다. 즉 고종대에만 무려 24명의 합격자가 무주부에서 배출되었다. 이와 같이 고종대에 소과합격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학진흥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수령들, 예컨대 이헌승과 이광승 및 최원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유학 진흥을 위해 커다란 관심과 지원을 가졌기 때문에 고종대에 이와 같이 많은 합격자가 배출되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5. 천재(天災)와 무주

요즈음에 비하여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날씨나 기온 등이 백성들의 삶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비록 조그마한 지방자치 단체의 역사라 하여도 당시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려면 이 부분에 관한 언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날씨나 기후는 무주의 지리적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 그러한 지리적 환경은 아직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또 이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도 넉넉한 편은 못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무주 관련 기사 중 천재지이(天災地異) 즉 천재지변에 관한 기사만을 발췌하여 그 경향성만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치려고 한다.

1) 수재(水災)

조선전기도 마찬가지이지만 조선후기에도 무주에 수재가 자주 발생하고 우박과 눈이 많이 내렸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조선후기 무주현의 수재에 관련된 기록은 선조 36년(1603)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당시 전라도 관찰사 한준겸(韓浚謙)은 계를 올려 전라도 일대의 수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7월 3일 술시(戌時)부터 4일 묘시(卯時)까지 광풍과 폭우가 한꺼번에 몰아쳐 크고 작은 나무가 모두 뿌리 채 뽑혔고 관사와 민가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부(府)의 동남쪽 문 밖 냇가의 민가와 남쪽의 해농창평(海農倉坪) 1만여 섬지기 큰 들에 물이 넘쳐 마치 바다처럼 되었고, 높은 곳에 있는 메마른 논밭의 화곡(禾穀)도 사나운 바람에 부러져 상하였습니다. 재해가 이에 이르러 추수할 가망이 전혀 없어서 백성들이 모두 통곡하고 있으니, 보기에 애처롭습니다.… 천재(天災)의 변이 근래에 없었는데… 무주 등의 고을에서 보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곡과 사람이 모두 손상되고 죽었으니 농사가 절망적입니다.[130]

이후에도 수재에 관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두 번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현종 5년(1664) 7월의 일로 큰비가 내려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바람에 무주현 사람 3명이 일시에 익사하였다고 한다.[131] 다른 하나는 경종 3년(1723) 7월의 일로 삼남지방에 홍수가 났는데, 그 중에서도 전라도 무주 등 고을은 물에 떠내려 간 것이 수천 호나 되었고, 익사한 자가 또한 그 수의 반이었다고 한다.[132] 무주고을의 백성들에게 아주 커다란 피해를 가져 다 준 수재였음을 알 수 있다.

2) 우박

조선후기의 왕조실록에 나타난 우박에 관한 기사는 모두 5건이다. 물론 우박이 내린 사실이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것은 우박이 제 때 내리지 않고 봄이나 여름에 내렸기 때문에 즉, 당시의 집정자들이 '이상기후'의 하나로 간주했기 때문에 실린 것이다. 따라서 겨울에 내린 우박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조선후기 무주현에 우박이 내린 기록을 알기 쉽게 도표로

130) 『조선왕조실록』, 24책 507쪽. 선조 36년 7월 24일 무인일조.
131) 『조선왕조실록』 36책 426쪽. 현종 5년 7월 26일 을묘일조. 이에 대한 기록은 『현종개수실록』에도 똑 같이 나온다.
132) 『조선왕조실록』,41책 298쪽. 경종 3년 7월 20일 정유일조.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7>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무주현 관련 우박에 관한 기사

번호	시 기	내 용	근 거
1	1664/08/23	무주와 진산(珍山) 등의 고을에 우박이 내림.	『실록』 36, 427쪽
2	1671/05/14	무주 등 고을에 우박이 내림.	『실록』 36, 696쪽
3	1708/03/22	무주 등 고을에 우박이 내렸으며 추위가 엄동과 같았음.	『실록』 40, 291쪽
4	1733/03/27	전주·진안·무주에 우박이 내렸음.	『실록』 42, 343쪽
5	1733/05/23	무주에 우박이 내렸음.	『실록』 42, 353쪽

3) 눈과 서리

조선후기 무주현에서 여름에 눈이나 서리가 내린 기사가 『조선왕조실록』에는 11건이나 실려있는데, 모두 숙종(1674~1720) 재임기간에 일어난 점이 주목된다. 이를 알기 쉽게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4-8>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무주현 관련 눈과 서리에 관한 기사

번호	시 기	내 용	근 거
1	1675/04/15	무주 덕유산에 눈이 와서 4·5촌이나 쌓였음.	『실록』 38, 264쪽
2	1675/04/27	무주와 전주 등지에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렸음.	『실록』 38, 270쪽
3	1676/04/03	무주 등지에 눈이 내렸음.	『실록』 38, 326쪽
4	1677/04/07	무주에 눈이 내렸음.	『실록』 38, 354쪽
5	1681/08/29	무주에 눈이 내려 한 치쯤 쌓였음.	『실록』 38, 548쪽
6	1684/04/06	3월 25일에 무주에 대설이 내렸음.	『실록』 38, 687쪽
7	1685/05/23	무주 덕유산에 눈이 내려 거의 2·3촌이 되었고 엄한 서리가 내려 보리이삭이 말라 떨어졌음.	『실록』 39, 33쪽
8	1687/04/22	무주에 눈이 내렸음.	『실록』 39, 101쪽
9	1694/04/11	무주에 눈이 내렸음.	『실록』 39, 299쪽
10	1700/04/11	무주 등 5 고을에 서리가 내렸음.	『실록』 39, 562쪽
11	1717/03/17	무주 덕유산에 눈이 내려 한 치쯤 쌓였음.	『실록』 40, 642쪽

4) 지진

조선후기 무주현에서 지진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된 것은 모두 2건으로, 숙종대(1674~1720)에 일어난 것이 주목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5-9>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무주현 관련 지진에 관한 기사

번호	시 기	내 용	근 거
1	1683/01/18	무주·금산·용담 등 3고을에 지진이 있었음.	『실록』 38, 621쪽
2	1711/05/24	무주에 지진이 일어났음.	『실록』 40, 397쪽

6. 유배지로서의 무주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유배자들은 대부분 정치적 대립이나 정책 대결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집권층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세의 변화에 따라 다시 정권을 재집권할 수 있었다. 그들은 유배지에서 자유롭게 살며 유배지의 유림이나 사림들과 교우를 하기도 하고 고을의 자제들을 교육시켜 사제관계를 맺기도 했다. 그 결과 후대에 제자들이 그를 추모하여 고을에 서원을 설립하기도 하였다.[133)]

따라서 조선후기 향촌사에서 유배자들과 그 지역 사림들간의 교우관계도 주목하여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못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주로 어떠한 사람들이 유배되어 왔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그치려고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4-10> 조선후기 무주로 유배당한 사람들

번호	시 기	성 명	직 위	죄 목	근거
1	1737/10/17	김취로(金取魯)	前예조판서	어승마(御乘馬)와 관련하여 언행을 조심하고 삼가지 않은 죄.	42/577
2	1758/ ?/ ?	조혁(趙焃)	미상	종통(宗統) 탈취.	47/603
3	1807/03/20	홍수만(洪秀晩)	참의(參議)	기성 궐직(騎省 闕直).	47/576
4	1808/04/13	윤광안(尹光顔)	前경상감사	서당 훼철(書堂 毁撤).	47/600

133)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참조.

번호	시 기	성 명	직 위	죄 목	근거
5	1810/12/13	정만석(鄭晩錫)	총관(摠管)	총부 변통 초기(摠府 變通 草記).	47/672
6	1828/10/26	이광재(李光載)	지평(持平)	조강(朝講) 불참.	48/316
7	1848/11/15	이목연(李穆淵)	미상	미상.	48/534
8	1854/01/09	신관호(申觀浩)	미상	미상.	48/585

7. 현감과 부사의 치적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된 수령들은 지방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지방민의 생활양식과 수준이 곧 수령에게 달려있었다. 원칙적으로는 수령들은 부임하자마자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에 들러 선현(先賢)들에게 참배하고 그 고을의 원로 사림들을 만나 현안의 문제에 대해 경청하였다.

그들은 백성들이 부지런히 농사를 짓도록 장려하였으며 또 향교나 서원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자제들을 교육시켰다. 노인을 우대하고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경비들을 절감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였다. 그래서 수령들을 단순히 중앙에서 파견된 관원 중의 하나로 보지 않고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보살피는 목민관(牧民官) 또는 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백성을 친아들처럼 돌보는 부모지관(父母之官)이라 불렀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조선시대 내내 중앙정부나 지방민은 수령에 대해 이와 같이 각별하게 대우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무주에 부임하였던 수령들 중 선정을 베푼 사람과 실정을 한 수령에 대한 기록이 실려있다. 대개 선정보다 실정에 대한 것이 많이 실려 있는데 그것은 왕조실록이 통치 자료였기 때문이다. 선정과 실정을 한 수령들에 대한 소개는 우선 조금 뒤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먼저 그들의 집무소인 동헌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동헌(東軒) 건립

수령들은 동헌에서 집무하였는데, 그래서 동헌의 당호(堂號)에는 통치 이념이나 통치 철학을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무주 동헌의 당호는 와선당(臥仙堂)이었다. 우선 고을이 조용하고 백성들이 순박하여 수령들이 누워서도 다스릴 만하였으며, 거기다가 산수

까지 빼어나 무주에서 수령 노릇하는 것이 마치 신선과 같다는 뜻에서 그렇게 붙여졌다고 한다.[134)]

어느 고을에서나 동헌은 수령들의 집무 장소였기 때문에 수령이 파견될 즈음부터 동헌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무주에 현감이 파견된 것은 태종 14년(1414)이다.

그러나 현재 문헌상에 기록되어 있는 무주 동헌의 역사를 살펴보면 겨우 인조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뿐이다. 인조 12년(1634) 5월에 현감 김수창(金壽昌)이 아사(衙舍)를 건립하고 이로부터 35년이 지난 현종 9년(1668) 2월에 현감 심철(沈澈)이 동헌(東軒)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현종 10년(1669) 이후 한동안 현감들이 아사를 비워놓고 어염집에서 지냈다. 이때 아사를 비운 이유는 정확하진 않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사에 전염병이 돌고 귀신이 출현한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또 풍수지리설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수령이 어염집에서 사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많은 폐단이 일어났으며, 그 피해를 일반 백성과 아전들이 고스란히 당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수령들은 동헌의 개보수(改補修)나 이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 이유는 동헌의 개보수나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기 때문인데 쇠잔한 고을일수록 그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령들은 자신의 임기 동안만 무사히 마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무리하면서 까지 동헌을 개보수하려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동헌은 점차 퇴락하게 되었으며, 심한 경우에는 수령이나 아전들이 동헌을 아예 비워놓고 민가로 옮겨가 집무를 하였기 때문에 많은 폐단을 일으키기도 하였다고 한다.

영조 원년(1725)에 무주의 수령으로 부임한 채팽윤(蔡彭胤)은 이러한 폐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자(亭子)인 환수정(喚睡亭)을 약간 고쳐서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 집무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불편한 점들이 많자 2년 후인 영조 3년(1727)에 마침내 아사와 동헌을 신축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아사와 동헌 신축을 위한 공사 기간이 80여 일이었으며 동원된 연인원은 2,600여명이었다고 한다. 이들 인부들의 식비(食費)가 무려 300냥이나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재로는 철이 230근이 들었으며 재목과 기와는 물자를 절약하는 취지에서 옛 것을 사용하되 부족한 것은 보충하였다고 한다.

---

134) 『국역 적성지 (상)』, 59쪽.

규모를 살펴보면 아사는 정당(正堂) 6칸, 부엌 2칸이며 부대시설이 20여 칸이나 되었다. 동헌의 방(房)은 세로가 16자[尺], 가로가 5.3자이며 당(堂)의 세로는 24자, 가로는 16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35] 그 후 고종 17년(1880)에 이철재가 동헌을 한 차례 중수하였다.[136]

2) 선정을 베푼 수령들

여기에서는 무주의 수령으로서 『조선왕조실록』에 선정을 베풀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수령들을 소개하겠다.

■ 쌀을 비축하여 승진한 현감 이유경

광해 8년(1616) 4월 10일에 호조(戶曹)에서 전 무주현감 이유경(李有慶)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쌀 700석을 마련하여 조정에 바쳤으니 상을 주자고 건의하였다. 왕은 이 건의를 받고 그에게 품계(品階)를 높여 주었다.[137]

■ 흉년에 백성을 구제한 현감 남득붕

조선후기에는 흉년이 자주 들었다. 현종 6년(1665)에도 전국적으로 크게 기근이 들었는데, 당시의 무주현감 남득붕은 조정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성심으로 백성을 진구하여 구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안 송준길(宋浚吉)은 왕에게 포상을 건의하였다.[138]

3) 실정을 한 수령들

■ 졸곡(卒哭) 전에 고기를 먹어 파면된 현감 남복시

선조 34년(1601)에 사헌부에서 졸곡[139]이 지나기 전 고기와 술을 한 무주현감 남복시(南復始) 등을 파면하자고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 국휼(國恤)에 있어 졸곡이 지나기 전에는 감히 고기를 쓰지 않는 것이 정례(情禮)에

135) 『국역 적성지 (상)』, 56~57쪽 참조.
136) 위 책, 58~59쪽 참조.
137) 『조선왕조실록』, 32책 466쪽. 광해 8년 4월 10일 기유일조.
138) 『조선왕조실록』, 37책 444쪽. 현개 6년 5월 1일 병술일조.
139) 상례(喪禮)에서 삼우(三虞)가 지난 뒤 3개월 안에 강일(剛日)에 지내는 제사.

당연할 뿐 아니라 지켜야 할 도의로서 어겨선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주현감 남복시(南復始)는 바로 능소(陵所)의 여럿이 모인 곳에서 제멋대로 술과 고기를 차리고서 부끄러워할 줄 몰랐으니 그 의리에 어긋나고 행동이 무례하기 그지없습니다. …남복시를 파직하고 불서(不敍)하도록 명하소서.[140]

■ 현감 조창기 파면

숙종 원년(1675) 2월 23일에 전라도 암행어사 박태상(朴泰尙)이 염문(廉問)하고 돌아와서 무주부사 조창기(趙昌期) 등을 파직시킬것을 서계(書啓)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다.[141]

■ 부사 조태래 장배(杖配)

숙종 15년(1689) 5월 21일에 장령(掌令) 김원섭(金元燮) 등이 전무주부사 조태래(趙泰來)의 탐장(貪贓)을 논하고 나문(拿問)하여 죄를 정하되 어사를 보내어 핵실(覈實)할 것을 청하자 왕이 그대로 따랐다. 뒤에 목내선(睦來善)의 차자(箚子)에 어사를 보낼 필요가 없고 본도로 하여금 핵실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여 이를 핵실하여 보았더니, 실제로는 백탈(白脫)이 많았고 그 가운데 한 가지 일에만 연좌되어 있어 죄가 장배(杖配)에 그쳤다.[142]

■ 부사 한배하의 실행(失行)

숙종 39년(1713) 지평 권엽(權熀)이 다음과 같이 논핵하였다.

무주부사 한배하(韓配夏)는 일찍이 호백(湖伯)을 맡아 불법한 일이 많았고, 본부에 부임하고 나서는 고을 기생들을 많이 데리고 금지된 육류를 가득 싣고서 멀리 속리산으로 유람하는 행차를 하였습니다. 선생(先生)을 빙자해 역마(驛馬)를 조발(調發)시키고는 음악과 여색을 싣고서 산방(山房)에 오랫동안 체류하며 음식과 거마(車馬)를 열읍(列邑)에 요구하였습니다. 방자하여 기탄하는 바가 없었으니, 마땅히 논벌의 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143]

140) 『조선왕조실록』, 24책 187쪽. 선조 34년 1월 24일 계해일조.
141) 『조선왕조실록』, 38책 246쪽. 숙종 1년 2월 23일 신해일조.
142) 『조선왕조실록』, 39책 189쪽. 숙종 15년 5월 21일 병진일조.
143) 『조선왕조실록』, 40책 500쪽. 숙종 39년 5월 26일 임인일조.

■ 부사 김시보의 파직 건의

숙종 44년(1718) 3월 7일에 사간원에서 계달하여 무주부사 김시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탄핵하였다.

> 무주부사 김시보(金時保)는 이재(吏才)가 모자라고 귀가 먹어 정사를 다스리지 못하니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

그러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144]

■ 부사 이영수의 실정

순조 8년(1808) 8월 6일에 전라좌도 암행어사 이면승(李勉昇)이 서계(書啓)하여 무주부사 이영수(李英秀) 등의 잘 다스리지 못한 실상을 논하고 아울러 경중에 따라 감죄(勘罪)하게 하였다.[145] 그러나 실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다.

■ 부사 김재완의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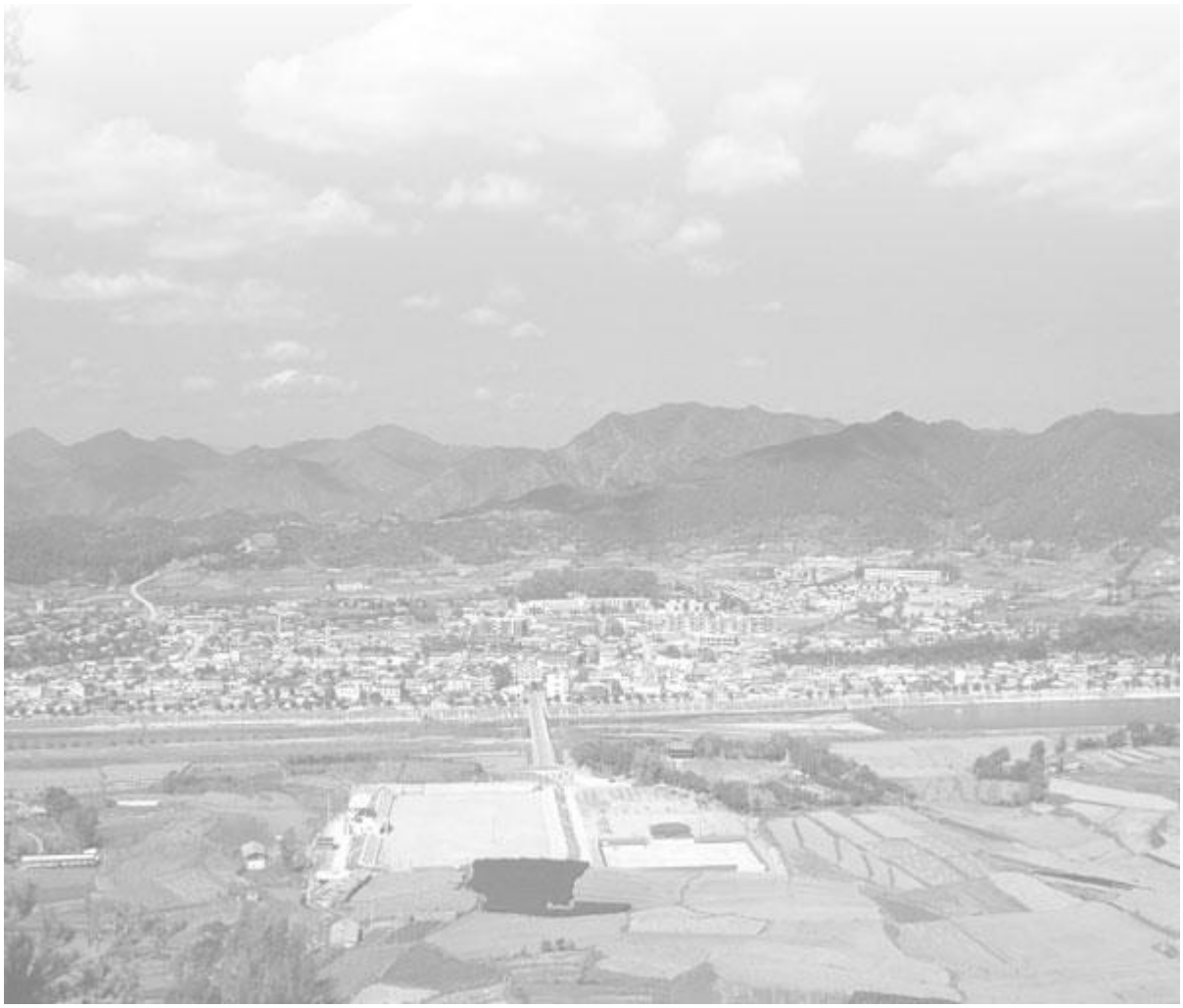
순조 22년(1822) 7월 21일에 전라좌도 암행어사 심영석(沈英錫)이 서계를 올려 무주전부사 김재완(金載琓)의 다스리지 못한 정상을 논하니, 모두 경중에 따라 처벌하게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정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146]

■ 부사 황유수의 실정

철종 9년(1858) 4월 25일에 전라좌도 암행어사 민달용(閔達鏞)을 소견(召見)하니 전무주부사 황유수(黃裕秀)를 죄줄 것을 서계(書啓)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정하여 죄줄 것을 요청하였는지 알 수 없다.[147]

[집필 : 전경목]

144) 『조선왕조실록』, 41책 25쪽. 숙보 44년 3월 7일 병진일조.
145) 『조선왕조실록』, 47책 608쪽. 순조 8년 8월 6일 기해일조.
146) 『조선왕조실록』, 48책 205쪽. 순조 22년 7월 21일 계사일조.
147) 『조선왕조실록』, 48책 626쪽. 철종 9년 4월 25일 경오일조.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제1절 동학농민혁명과 무주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사회가 안고 있던 반봉건 반외세 즉 자주 근대화의 과제를 실현하려 한 농민 대중의 일대 항쟁이었으며, 우리 근대사의 성패(成敗)를 가르는 사건이었다. 이 대사건은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하여 3월에 전라도 전역으로, 그리고 6월 일본군의 경복궁 강제점령을 계기로 조선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전라도는 농민전쟁의 중심지였던 만큼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격렬한 농민항쟁이 펼쳐졌으나 항쟁의 강도는 지역에 따라 다소의 편차를 보였다. 농민혁명의 발원지인 고부, 정읍, 고창, 무장 등을 포함한 전라우도 일대는 농민군 세력이 대단히 강성했다. 이에 비해 전라좌도 일대는 농민군의 세력과 활동이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그 가운데 무주지역은 진안, 장수등과 함께 농민군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못했던 곳으로 분류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 무주지역 농민군의 구체적인 활동 양상과 향촌의 실상은 그간 본격적으로 정리된 적이 없다. 다만 1957년에 간행된 『적성지속지(赤城誌續誌)』 이래로 무주군지에서 1894년 무주지역의 상황을 간략하게 전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를 제외하면 무주지역의 농민혁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편의 연구논문도 없을 뿐 아니라 자료발굴, 후손들의 증언채록 등과 같은 학술조사, 기념비 건립 등의 기념행위가 이루어진 일도 없다. 무주지역은 전라도에 속해 있으면서도 농민혁명의 현장으로서 한번도 주목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농민혁명과 관련하여 무주지역이 관심을 끌지 못한 이유는, 이곳이 농민혁명의 핵심 무대가 아닌데다 이 지역에서 농민군 최고지도자가 배출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월봉기의 시작과 함께 이곳에서도 봉기에 참여한 이들이 있었고, 7월에는 무주 농민군이 무주관아를 점령하고 '농민군 통치기구'로 평가되는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한 바 있다. 또한 10월에는 무주의 농민군과 수성군의 격돌이 있었으며, 11월에는 무주 농민군이 인근 군현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들은 무주지역 역시 농민혁명이 전개되는 동안 줄곧 농민항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이 글에서는 동학농민혁

명의 전개과정에 맞추어 무주지역 농민혁명의 전개양상을 단계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동학공인운동과 무주의 동학교인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 무주지역에서 농민항쟁과 관련하여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없다. 동학이 무주지역에 언제, 어떤 경로로 들어왔고 동학조직의 규모는 어떠했는지, 중심인물은 누구였는지, 농민봉기의 움직임은 있었는지 등 농민혁명 이전의 역사를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동학 또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관련하여 무주군민이나 무주지역의 동향이 기록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되는 것은 1893년 초 충청도 보은집회 때이다. 보은집회의 전말을 담은 어윤중의 「취어(聚語)」를 보면, 일단의 무주군민이 보은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보은)군 장내리에 모여있던 수만 명이 (4월) 초2일부터 모두 해산했는데, (이는 보은집회를 주도한 동학교단의) 두령 등이 밤을 틈타 도주한데 말미암은 것임은 초3일에 이미 보고한바 있거니와 해산하여 돌아가는 자들이 어느 지방으로 향하고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각처의 장리(將吏)로 하여금 일일이 살피고 와서 다시 써서 보고하라 한바 … 일(一). 동면(東面) 관리(官里)의 장리 보고에 이르기를 초2일에 물러나 돌아가는 자가 전라도 함평·남원·순창·무산(茂山: 무주의 옛이름 - 필자주)·태인·영광등지의 사람 200여명이라 합니다.[148]

여기에도 보은집회에 참여한 무주군민의 실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지만, 위 기록은 농민혁명 직전의 무주지역 동향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무주군민의 보은집회 참여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짚어보기 위해 보은집회의 성격과 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149]

1892년 10월 공주집회, 11월 삼례집회, 1893년 2월 복합상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동학의 공인운동을 전개한 동학교단의 지도부는 1893년 3월 보은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열었다. 최시형은 통문을 내려 '팔도의 모든 동학교인들은 보은 장내리로 모이라'고 명했고, 동학지도부는 "지금 일본과 서양오랑캐가 나라 한가운데 들어와 큰 난리를 칠 지경이다. 진실로

148)어윤중,「취어」, 『동학란기록』상, 124-125면, 국사편찬위원회, 1959.
149)보은집회에 대해서는 신순철·이진영,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1998, 35-40면 참조.

지금 서울의 형편을 보건대 끝내 오랑캐의 소굴이 되는지라 … 우리들 수만이 죽기로서 힘을 합하여 일본과 서양오랑캐를 쓸어 대보(大報)의 의리를 본받고자 한다"는 통고문을 써 붙였다. 보은집회는 이렇듯 척왜양(斥倭洋)의 기치를 내걸며 시작되었다.

교단의 명에 따라 전국의 동학교인이 보은으로 모여들었고 3월말까지는 2만여명이 집결했다. 보은군수는 거듭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창의함은 오직 척왜양에 있으니, 비록 관(官)의 명령이라도 그칠 수 없다. 또 동학은 처음부터 사술(邪術)이 아니며, 설사 사술이라 일러도 임금이 욕당하고 신하가 죽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충의(忠義) 하나 뿐이니, 각처 유생이 한마음 한뜻으로 죽음을 맹세하고 충성을 다하고자 한다'며 척왜양의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보은집회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4월 1일 선무사(宣撫使) 어윤중이 찾아와 '탐학한 관리들을 엄히 징벌할 것이니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만약 이후에도 흩어지지 않으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는 임금의 윤음을 전달하고 해산을 명했다. 이에 이르자 동학 지도부는 "각하께서 친히 임금의 말씀을 포고하시니 어찌 감히 받들지 않겠습니까. 뜻을 밝히 받들어 향리로 해산하겠습니다"고 답하며 3일 안에 해산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최시형·서병학 등 동학지도부는 그 날밤 보은을 빠져나갔고, 이튿날부터 보은에 모인 군중도 하나씩 해산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보은집회를 이끈 동학지도부는 사회변화를 갈망하며 전국에서 모여든 2만 여명의 세력을 뚜렷한 성과없이 쉽사리 흩어보내고 말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은집회는, "우리의 이 집회는 조그마한 무기도 지니지 않았으니 이는 민회(民會)입니다. 일찍이 듣건대 각 나라에는 민회가 있어 조정의 정령이 백성에게 불편한 것이 있으면 모여 의논해서 바로잡는다고 합니다. 이런 가까운 사실로 볼 때 어찌 우리를 비류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 하며 집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등 크게 진전된 민권(民權)의식을 보였고, 또 정치적 성격까지 띠어갔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시대정신에 부합된 면모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보은집회에는 충청도는 물론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일대의 동학교인들이 참여했다. 『취어』에 따르면 전라도에서는 무주를 비롯해서 전주, 함평, 남원, 순창, 태인, 영광, 장수, 영암, 나주, 무안, 순천 등지의 교인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유감스럽게도 집회에 참여한 무주 동학교인의 구체적인 실체나 보은에서 돌아온 직후의 활동양상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무주 동학교인이 보은집회에 참여했던 사실 자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은집회

의 참여는 해당지역에 일정한 규모의 동학조직과 이를 이끄는 지도부가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지 않고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무주 동학교인의 보은집회 참여는 농민혁명 이전에 이미 무주지역에 동학세력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들이 개혁활동에 적극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이듬해 3월 농민혁명이 일어나자 무주의 농민군도 곧바로 이 대열에 동참했는데, 이는 이전부터 개혁활동에 관심을 둔 세력이 존재했기에 가능한 것으로서 그 뿌리를 보은집회에 참여했던 이들로부터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직접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보은집회에 참여한 무주 동학교인들이 농민혁명기 무주 농민군의 모체를 이루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3월봉기와 무주지역의 동향

1894년 3월 무장현에서 포고문을 낸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농민군 지도부는 고부군 백산에 모여 지휘체계를 편성하고 농민혁명이라는 대장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동학교단이 남긴 기록을 보면 이때 무주 농민군도 이 봉기의 대열에 동참했다. 이런 사실은 다음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월에 전봉준이 또한 제폭구민(除暴救民)의 책(策)으로써 고부군 마항리에서 기포하야 고부읍을 함락하고 다음날 백산에 퇴거하얏더니, 전주관군이 추격함으로 황토현에 퇴진하얏다가 다음날 무장에 행진하야 손화중포로 더불어 합하야 무장읍을 함락하다. 이 때에 정종혁, 송대화, 송주옥 … 윤상홍은 고부에서 … 이응백(李應白), 윤민(尹玟), 갈성순(葛成淳)은 무주에서 기포하다.[150]

> 동학군이 고부성을 함락한 후 백산에 돌아와 진을 치고 재도(再度)의 격문을 발한 후로 호남일대는 물론이오 전 조선강산이 고부백산을 중심으로 하고 흔들흔들 하였었다. 이 때 전후로 모여든 장령급으로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써 검열하여 보면 대장 전봉준과 기타 장령격(將領格)으로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최경선… 등을 중심으로 기타 장령격으로 온 사람은 이러하다. …무주에 이응백, 윤민, 갈성순 등이오…[151]

---

150)『천도교회사초고』, 『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455-456면.
151)오지영, 『동학사』, 『동학사상자료집』 2, 468-470면.

이 기록만으로 무주군민의 조직적인 봉기 여부나 규모 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응백을 비롯하여 윤민, 갈성순 등 무주의 농민군 지도자들이 '장령격'으로 불린 점을 고려하면, 무주 농민군의 규모가 작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무주 농민군을 이끈 지도자는 위에서 보듯이 이응백, 윤민, 갈성순 등이었는데, 이 가운데 주목되는 인물은 이응백이다.[152] 이응백은 3월봉기부터 9월재봉기까지 무주지역의 농민군 활동을 선두에서 이끈 인물로, 무주지역 농민혁명의 전체상은 그의 활동을 통해 대체적인 윤곽을 이해할 수 있다.

이응백(이형택)이 농민군 지도자로 나선 배경과 그의 봉기에 대해서 『적성지속지』는 다음 과 같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 이형택은 (무주군) 적상면(赤裳面) 사람이다. 당시 서울에서 내려와 살게 된 사람들이 사대부를 빙자하여 권위를 믿고 이 고장 주민들을 능멸하면서 함부로 죄를 만들어 형벌을 가하며 빈번한 토색질로 주민들에게 주는 폐단이 너무나 심했었다. 이형택의 아버지 이내습(李乃習)이 토호에게 선산을 빼앗기고도 도리어 혹독한 형벌을 받았다. 이에 이형택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원통하고 분한 것을 기탄없이 들추어내어 설욕해 달라고 하였다. 이형택은 그의 아버지에게 꼭 원수를 갚겠다는 맹세를 고하고 마침내 같은 형제들과 상의하여 사방에다 통문을 보냈다.
>
> 그 통문에 이르기를 '오늘날 탐관오리나 양반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모두 자신을 살찌게 하는 데만 뜻을 품고 백성들의 고혈만 착취하여 주민들은 도탄에서 허덕임이 이보다 심함이 없다. 이에 본인이 마땅히 선두가 되어 그 괴수들을 숙청하고 괴롭고 어려움에서 헤매는 민족을 구출하고자 하니 내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은 즉시 궐기 하라' 하였다.[153]

그런데 이처럼 무주군민의 봉기를 촉구하는 이형택의 통문이 작성된 시점은 언제일까. 『적성지속지』에 따르면 이형택은 통문을 보낸 '다음 날' 바로 무주관아를 점령하고 무주군민에게 세 가지 약법(約法)을 제시했다고 한다. 봉기를 촉구하는 통문, 농민의 합류, 관아 점령, 3약법의 시행이 연달아 일어난 것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주관아 점령과 집강소 강령에 비견되는 3약법의 시행은 뒤에 보듯이 7월중순경에 이루어진 활동이다. 따라

152)이응백(1859-1895)은 무주 적상면 출신으로, 본관은 여주, 본명은 형택(馨澤)이고 응백은 자(字)다(동학농민군 후손 증언록 『다시피는 녹두꽃』, 역사비평사, 1994, 216-220면).

153)『적성지속지』, '일사(逸史)' 편, 1957(번역문은 김경석 편저, 『국역 적성지(지)』, 무주문화원, 2000 참조).

서 『적성지속지』의 문구대로라면 이형택의 통문은 7월에 쓰여진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통문이 7월에 쓰여졌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남는다. 『적성지속지』는 이형택의 봉기 - 통문발송 - 관아점령 - 3약법 시행 등의 행적을 시기별로 단락짓지 않고 한 순간에 일어난 것처럼 쓰고 있으나, 이 모든 행위가 단 이틀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의 활동들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단계별로 이루어졌다. 이형택을 중심으로 한 무주에서의 봉기가 3월봉기로부터 여러 단계에 걸쳐 전개된 상황이나 통문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이 통문은 3월봉기 단계에 작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백산대회 이후 남진을 거듭하던 주력 농민군은 고부 황토재에서 전라감영군을, 장성 황룡촌에서 경군을 잇따라 격파한 끝에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농민군의 전주성 점령은 농민혁명의 전투에서 거둔 최대의 승리였다. 전주성 점령은 농민군이 사실상 전라도 전체를 장악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항쟁 선언과 다름없었다.

그러면 이 기간에 무주지역의 동향은 어떠했고 무주 농민군은 어떤 활동을 전개했을까. 이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전하는 사실이 거의 없다. 다만 몇 가지 정황을 통해 당시의 양상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우선 무주는 농민군의 진격로와 반대 위치에 있었기에 3월봉기 기간에 격전지에서 비껴 서 있었다. 또 이 기간에 무주지역 안에서 농민항쟁이 전개되었거나 무주 농민군이 독자적인 활동을 펼친 흔적을 무주관아에서 작성한 『수록(隋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이 무렵에는 "(무주부사가 잇따라 부임하지 않자) 이시춘(李時春)이 관인을 보관하고 마침내는 군내(郡內)의 지략이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관아를 점거하여 동학군을 방어"했다고 한다.[154] 이런 점에 비추어 무주의 농민군은 봉기 이후 무주지역 장악에 나섰다기보다는 전봉준 등이 이끄는 주력 농민군과 움직임을 같이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54) 『적성지속지』, '일사' 편. 이에 대해 1968년에 최낙철이 저술한 『무주군사(茂朱郡史)』에서는 "동학란이 일어나자 본군의 벼슬아치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부사 신경균은 사표를 내던지고 가버리고, 후임으로 조성희 부사가 부임하였으나 곧 사표를 냈고, 그 후임인 윤필구 부사도 부임 즉시 사임하고 말았다. 한 고을에 수령이 없어졌으니 행정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따라서 자치적으로 무풍 이시춘이 관인을 보관하고 군내 의용군을 모집 하여 무주부청사를 수비하고 동학란을 방어하기에 이르렀다"(225면)고 쓰고 있다.

3. 무주집강소의 설치와 수성군(守城軍)의 결성

1) 무주집강소의 설치와 활동

전주성 점령으로 농민항쟁사에 큰 획을 그은 농민혁명은 5월 청·일 두 나라 군대의 개입을 계기로 국면이 크게 바뀌었다. 전주성 함락에 충격을 받은 정부는 이튿날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했고, 조선진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은 이 때를 틈타 재빠르게 군대를 파견했다. 전주성에서 폐정개혁을 요구하며 홍계훈이 이끄는 경군(京軍)과 몇 차례 전투를 벌이던 농민군은 외세의 개입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지자 5월초 홍계훈과 타협을 맺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전주화약(全州和約)이 그것인데, 그 요체는 '농민군은 전주성에서 철수하고 홍계훈은 농민군의 신변을 보장하고 폐정개혁안을 임금께 올린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주성에서 물러난 농민군은 전라도 각 지역으로 무리를 지어 흩어졌다. 그러나 강대한 세력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였고, 그런 가운데 폐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사태 수습에 나선 전라감사 김학진은 6월 7일 수습방안의 하나로 집강안(執綱案)을 제시했다. 그것은 농민군의 무장해제와 귀가를 전제로, 면 단위 이하의 행정실무자인 집강을 해당 지역의 농민이 직접 뽑도록 하는 것이었다. 농민군은 처음에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다시 한번 변화를 맞게 된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소식을 접한 김학진이 민족적 위기를 내세워 농민군 지도부에 회담을 제의했고, 전봉준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양자는 7월 6일 전주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양자는 관민상화(官民相和)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농민군이 협력하여 전라도내의 안정과 치안질서를 바로잡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서 각 군현에 집강소를 전면적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곧 김학진은 농민군의 지배력을 합법적인 수준에서 인정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치안권과 자치권을 전봉준에게 위임하여 이를 통해 전라도내의 안정을 꾀하고자 한 것이며, 전봉준은 관과 농민군이 협력하여 치안질서를 바로 잡고 도내의 안정을 추구하는 타협적인 집강소체제를 추진한 것이다.[155]

김학진과의 합의에 따라 전주성안에 전라좌우도 대도소(大都所)를 설치한 전봉준은 송희옥을 도집강(都執綱)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각 군현에 통문을 보내 군현마다 집강을 두게

155)집강소 설치과정에 대해서는 김양식, 『근대 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신서원, 1996 참조.

하고 평민 침탈 금지와 치안유지를 지시했다. 한편 감사 김학진도 감결(甘結)을 내려 이 사실을 도내 각 군현에 알렸다. 집강소 설치 경위를 담은 김학진의 감결은 7월 8일 무주에도 이르렀는데, 무주에 도착한 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에 무뢰한 무리들이 횡행하는 것을 금하였던 일은, 전봉준 등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으로써 공문으로 내렸을 뿐 아니라 반복하여 알렸는데, 이어지는 여러 읍의 보고 내용에는 이 무리들이 돈과 곡식을 강제로 빼앗고 약탈을 자행하는 일이 여러 고을에 만연해 있어 그 폐단이 더욱 심하여 지고 있다고 한다. 각 읍에서는 무슨 까닭에 감영의 지시를 무시하고 있는가.
>
> 지난 날 금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총소리가 한 번 울리면 관리들은 모두 달아나 편안히 숨어 있으며 그들이 설쳐대는 것을 방임하였고, 심지어 인명을 손상하고 무덤을 파헤쳐도 관리들은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진짜 동학인들에게 누를 끼치게 되어, 이들로 하여금 집강을 만들어 금지하는 행동을 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한 지방의 수령이라는 것들이 도리어 수수방관하고 있다. 말이 이 지경에 이르면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
> 이번 달 6일에 전봉준 등은 그들의 무리를 이끌고 감영에 와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다음, "각 읍의 집강에게 이러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통지문을 살펴보니, 말은 진심에서 비롯되었고 조치한 일은 모두 사리에 적합하였으며, 또 간절하고 자세하여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다. 이제 그 줄거리를 왼편에 적어 다시 문서를 발송하니 도착하는 즉시 방방곡곡에 붙여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라. 이후로 만약 이러한 무리 중에 전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자들이 있으면, 비록 진짜 동학도라 하더라도 보는 즉시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해당 마을에서 힘을 합하여 붙잡아 관에다 넘기는데 추호도 용서하지 말고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조처하도록 하라. 이것을 시행하는데는 어떤 고을이라도 예외가 없으며 만약 잘못을 방관함으로써 당장의 편한 것을 추구한다면, 그 고을 관리는 못된 무리를 부추기며 백성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니, 저 전봉준 등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리를 분별하는 점과 비교하면 부끄러움이 있지 않는가. 일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대로 둘 수 없고 마땅히 임금께 파면해야 된다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런 점을 마음에 새겨두어 공문이 도착하면 즉시 상황을 보고토록 하라.[156]

156) 『수록』 7월조; 황현, 『오하기문(梧下紀聞)』 7월조(번역문은 김종익, 『국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199-210 면 참조)

이 감결의 뒷면에는 전봉준이 각 군현의 농민군에게 보낸 통문 내용이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 각 읍 집강에게 전봉준이 통지한 글이 있는데 대략 이르기를, “지금 우리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오로지 백성들을 위하여 폐해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므로 저 교묘하게 속이고 못된 짓을 하는 무리들이 함부로 설치며 백성들을 괴롭히고 마을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비록 하찮은 의혹이나 잘못이라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라. 이들은 바로 덕을 배반하고 선을 해치는 무리일 뿐이니 각 읍의 집강들은 명확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
> 글의 뒤편에 적은 내용에 대략 이르기를,
>
> 1. 이미 수거한 총· 창·칼·말과 이미 관청에 반납한 것은 각 접주에 통보하여, 총·창·칼·말의 수효와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두개의 책으로 엮어 순영의 관인을 받은 다음 하나는 감영에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각 집강소에 돌려보내 보관토록 하여 나중에 뒤에 참고토록 할 것.
> 1. 역참에서 쓰는 말과 상인들의 말은 각각 본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줄 것.
> 1. 지금부터 총과 말을 거두어들이는 일은 일체 금하고, 돈과 곡식을 강제로 요구하는 자들은 이름을 적어 감영에 보고하여 군율에 따라 조치토록 할 것.
> 1.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일과 사적 채무를 받아내는 일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일체 행하지 말 것.
>
> 만약 여기에 열거한 것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감영에 보고하여 법대로 처리하도록 한다.[157]

이 감결이 내려지던 무렵 무주지역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이형택이 통문을 보낸) 그 다음날 날도 밝기도 전에 수천명의 군중들이 호응하고 모여들어 마침내 관아를 점령”158)했다는 기록이 주목된다. 여기에도 관아점령 시기가 정확히 나타나 있지않다. 그러나 관아점령 기사에 이어 무주 집강소 통치에 관한 사실이 기록된 점이나 이 즈음에 무주 수성군이 결성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무주 농민군의 관아점령은 위 감결이 내려지던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157) 위와 같음.
158) 『적성지속지』, ‘일사’ 편.

무주관아를 점령한 농민군은 집강소를 설치했다. 집강소 설치 사실은 7월 17일 농민군 최고지도부가 무주의 농민군에게 보낸 다음의 통문을 통해 확인된다.

> ■ 무주집강소(茂朱執綱所)
> 방금 일본 오랑캐가 궁궐을 침범하여 국왕을 욕보였으니 우리들은 모두 마땅히 목숨을 걸고 의(義)로써 달려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들 오랑캐가 바야흐로 청나라의 군대와 교전 중인데 그 예봉이 심히 날카로워 지금 만일 (우리가) 나가 싸운다면 그 화(禍)의 예측할 수 없음이 거의 종사(宗社)에 미칠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은) 물러나 몸을 숨기고 시세를 살핀 연후에 우리의 기운을 북돋워 계책을 취하여 만전지책(萬全之策)으로 삼는 것만 같지 못하다.
> 바라건대 모름지기 (이런 뜻으로) 통문을 발하니 경내의 각 접주는 얼굴을 맞대고 의논하여 각자 안업(安業)하고 경내의 인심을 선동하는 무리들이 민가를 횡행하며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엄금하라. 간절히 바라건대 이와같이 신칙(申飭)한 후에도 폐단이 고쳐지지 않으면 해당 집강은 감영에 보고하여 엄중히 처단하여 용서치 말 것이며, 금함을 어긴 접인(接人)은 마땅히 용서치 못할 죄로 다스릴 것이니 가벼이 생각하지 말라.
> 갑오7월 17일 감영에 있는 (전라)좌우도 도집강(都執綱)[159]

이처럼 관아를 점령하고 집강소를 설치한 후, 무주 농민군은 집강소를 통한 민정(民政)을 시행했다고 한다. 무주집강소의 활동에 대해 『적성지속지』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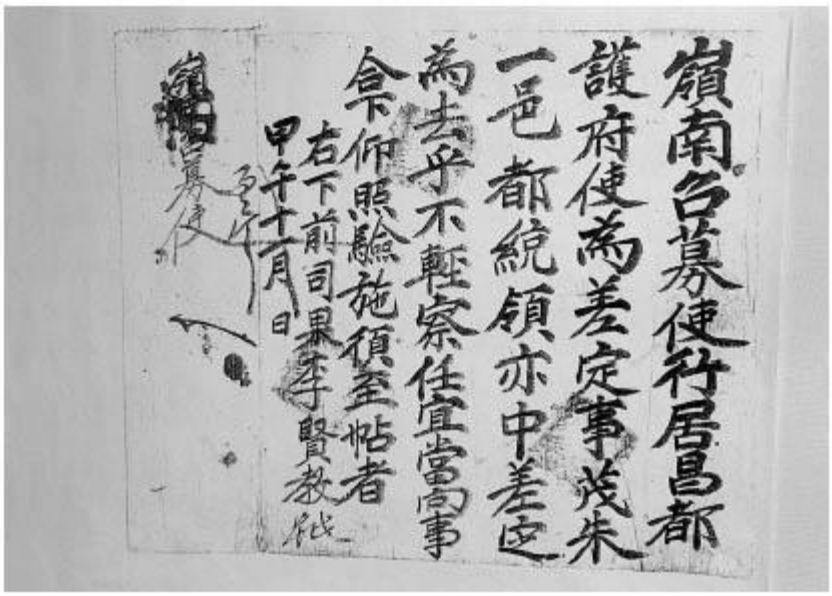
> (관아를 점령한 이형택은) 전날의 토호 수십 명을 잡아다가 악형으로 응징하여 관내에서 쫓아내면서 선언하기를 '지금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어 국가의 존망이 조석에 달려있는데, 이른바 사대부라는 자들은 국가에서 대대로 녹을 받고 있는 신하로써 마땅히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맡은 바의 직분을 다하는 일에 두려워하고 조심 하여야 하며, 편안한 일이나 근심 걱정되는 일도 모두 함께 하여야 하는데도, 지금 저들은 잔인무도하게 태양을 가리고 나약한 백성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오로지 사리사욕만 일삼고 있으니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 이제 못난 내가 무도한 무리들을 소탕하고 우리 동지들을 구할 것이니, 지역 내 일반 백성들은 각자 마음을 놓고 살 수 있도록 약법(約法)

159) 『수록』 7월조. 이 통문은 무주집강소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해줄 뿐 아니라, 집강소 설치·운영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되고 있다.

3장을 공포하노니, 첫째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둘째는 계급을 타파하고, 셋째는 올바른 도리를 따르는 자는 보호하고 도리를 거역하는 자는 벌에 처한다'라 하였다. 이 연설을 들은 청중들은 기뻐하면서 동학도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심히 많았다.[160]

1968년 당시 98세였던 황일성 옹의 증언에 따르면, 이응백은 무주군내 제1권세사가(權勢士家) 세 집을 부수어 버렸다고 한다.[161] 토호를 징치한 사례나 '계급타파'를 선언한 약법 3장의 내용 등에 비추어 무주집강소는 상당히 강경한 활동을 펼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더 이상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이나 활동의 강도 등은 확인할 수 없다.[162]

2) 무주 수성군의 결성



이현교를 도통령으로 임명한다는
영남소모겸 거창부사의 수결

무주 농민군이 관아를 점령하고 집강소를 설치한 7월 중순, 때를 같이 하여 무주 지역 유림들은 수성군 결성에 나섰다. 무주 수성군의 결성 움직임은 경상도 하동과 전라도 운봉에 수성군이 결성되어 농민군에 맞서 싸운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매천 황현은 "진안, 장수, 무주, 용담, 금산의 다섯 읍 또한 창의하여 민포(民砲)가 적(농민군)에 맞섰는데, 이는 하동과 운봉의 사례를 따른 것이다"고 기록하고 있다.[163] 이 기록은 7월 12일과 16일자 기사 사이에 쓰여 있는데, 이 점을 생각할 때 무주 유림들은 늦어도 7월 16일전에는 수성군 결성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160) 『적성지속지』, '일사' 편.
161) 『무주군사』, 1968, 226면.
162) 집강소의 설치·운영은 전라도에 국한되었고 일시적이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집강소는 농민들이 자신의 힘과 의지로 지방 단위에서나마 행정력을 장악하고 이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또한 사회개혁의 조건을 농민들 스스로가 형성해간 것이었다. 비록 불완전한 형태였다고 할지라도, 집강소를 통한 농민의 권력 참여는 한국 근대사의 새 장을 연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집강소의 운영은 농민혁명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163) 황현, 『오하기문』 7월조.

그러나 이때는 농민군 세력에 밀려 무주 수성군의 활동은 겉으로 드러나지 못했다. 무주 수성군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것은 10월부터였다. 『무주군사』에서 무주 수성군이 10월에 조직되었다[164]고 한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무주 수성군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내용 역시 무주군지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을 파악해볼 수 있다. 무주군지[165]에 따르면 무주 수성군은 무풍면(茂豊面)과 안성면(安城面) 두 곳에 결성되었다. 무풍면에서는 하태홍(河泰洪)이 정의도통수(正義都統首), 이현교(李賢敎)가 도통령(都統領)이 되어 영남소모사 겸 거창부사 정관섭(丁觀燮), 도통수(都統首) 하성준등과 더불어 협력했다. 안성면에서는 이희일(李喜壹; 또는 李古心)이 도통장(都統長), 김하현(金夏鉉)·김직현(金直鉉)[166]이 부통장(副統長), 강지형(姜芝馨)이 공사원(公司員)이 되어 금산과 용담의 의소(義所: 수성군)와 서로 협력하기로 했고, 뒤에는 이승원(李承遠)이 통장(統長)으로 추대되었다. 이밖에 황화연(黃鏵淵) 등이 수성군에 참여했다.[167] 안성면 수성군의 경우 그 이름을 수의회(守義會)라 했다고 한다.

두 곳 수성군 사이의 협력여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무주지 역의 대표적인 유림들로 서로 친교가 깊은 인물들이었다. 예를 들어 안성의 김직현과 무풍의 하태홍은 1895년 을미사변 직후 함께 궁궐로 나아가 척왜(斥倭)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168] 이로 볼 때 무주에서 농민군 활동이 활발해지자, 무주지역 유림들이 모여 결의한 후 각자 자기 면에서 수성군을 조직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이들의 구성, 면을 단위로 한 규모 등으로 미루어 이들 수성군이 농민군을 능가할만한 위협적인 세력이었을 것으로 생각 되지는 않는다.

4. 9월 재봉기와 무주 농민군의 활동

9월 들어 전봉준 등 농민군이 일본군을 축출하기 위해 재차 봉기하자 무주지역도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무주에서는 우선 이응백이 호응하고 나섰다.[169] 그는 당시 '3천명의

164)『무주군사』, 225면.

165)『적성지속지』, '일사' 편; 『무주군사』, 225면 참조.

166)김직현은 '이조판서를 지낸 김상현의 문하에서 공부한 인물로, 고종 31년 갑오동란 때는 신하로써 도리를 지키자 는 수의회(守義會)를 만들어 면민들을 안정시켰다'고 한다(『적성지속지』, '인물' 편).

167)황화연은 '매산 홍직필의 문하에서 수학한 인물로, 우당 강지형, 유당 김직현과 더불어 의리를 굳게 지켜 동학도 를 배척'했다고 한다(『적성지속지』, '인물' 편).

168)『적성지속지』, '인물' 편, 김직현 조·하태홍 조 참조.

포군(砲軍)을 통제하여 외적을 방어했으니 위엄에 찬 명령은 크게 떨쳤다'고 한다.[170] 이밖에 무주 무풍면에서 문성술(文成述)이 봉기했다. 그는 무주에 인접한 경상도 김산군 지례(知禮) 출신인데, 이전에 이미 김산에서 봉기하여 무풍으로 진입한 것인지, 이때 무풍에서 봉기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유가면(柳加面)에서도 봉기가 있었다.[171] 문성술이나 유가면의 농민군은 이응백 휘하의 농민군으로 보이는데, 이들간의 정확한 관계는 파악되지 않는다.

재봉기 이후 무주지역의 동향과 무주 농민군의 활동을 살펴보자. 재봉기 직후 무주 일대의 농민군은 무주 수성군과 여러 차례에 걸쳐 격돌했다. 안성면에서는 유가면 농민군과 안성 수성군이 충돌했는데, 여기에서 승리한 농민군은 수성군 김하현의 집을 헐고 도통장 이희일을 제거하고자 했다. 뒤이어 10월 11일에는 이응백이 안성을 공격하여 점령했고 안성의 수성군 지도자들은 모두 금산과 용담으로 도피했다.[172] 무풍면에서는 문성술이 이끄는 농민 군과 무풍 수성군이 싸움을 벌였는데, 이 싸움은 수성군의 승리로 돌아갔고 문성술은 처형 되었다. 이와 같은 활동 직후인 11월 무풍의 이현교는 영남소모사로부터 첩지를 받아 무주 일읍의 도통령에 정식으로 임명되었다.[173] 무풍 수성군으로 활동으로 인해 무주 농민군은 끝내 무풍일대를 장악하지 못하였다.

다음의 기록을 보자.

> 무풍은 원래 산세가 험악하여 남으로는 영남에 통하여 거창·안의의 위에 접하고 북으로는 호서에 통하여 영동·옥천의 아래에 붙은 바, (이곳에서) 작년 동학도의 소요는 한나라 때 황건적보다 심하였습니다. 백성은 모두 오염되고 군읍은 넘어지고 문드러져 위기가 눈앞에 있었으니 그 위험한 상황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나라에서는 어진 신하를 선발하여 거창의 현명한 태수를 소모사로 임명하고,

---

169)오지영, 『동학사』, 496면.

170)『적성지속지』, 일사' 편.

171)문성술과 유가면 농민군에 대해서는 『무주군사』, 225-226면 참조.

172)무주 농민군과 수성군의 격돌에 대해서는 『적성지속지』, '일사' 편; 『무주군사』, 225-226면 참조.

173)교첩은 이현교의 고손자(高孫子) 이동신(李東臣)씨(1954년생, 서울시 거주)를 통해 접할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남소모사행거창도호부사의 차정사(差定事)
무주 일읍 도통령에 임명하니 가벼이 보지 말고 임무에 마땅히 힘쓸 일이니, 이 첩을 밝게 살펴 시행할 것.
오른쪽(위 - 필자주)의 사실을 전사과(前司果) 이현교에게 내리니 이를 따르라.
갑오11월 일 차정
영남소모사(수결)"

읍에서는 용감한 장부를 선발하여 무풍의 이현교를 특별히 도총장으로 임명하여 양호의 도적무리를 막게 하였습니다. 장합니다. 전사과(前司果) 이현교는 그 임을 받은 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정벌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계책을 세우고 특별한 기책을 내어서 병졸들을 운영하였으며 자신도 싸움에 뛰어들어 몸을 던져 싸워서 적괴의 머리 수십 급을 베고 힘을 다해 병사를 써서 적의 소굴 6, 7곳을 초멸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치욕을 씻고 군읍의 위기를 수습하였으니 이 어찌 나라와 읍의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이같은 사람이 알려지지 않고 쓰이지 않는다면 사림의 공의(公義)에 큰 손실을 입는 까닭에 한 목소리로 하소연하니, 밝게 살피신 후 이 실적으로 감영에 보고하여 널리 드러나 쓰이게 하고 향리의 충심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공 세운 정도를 알게 하시옵소서.[174]

이 글은 이듬해인 1895년 1월에 이시목, 최영찬, 서수견, 박치인, 하태익 등 무풍의 유생들이 영남소모사에게 올린 소지문이다. 189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무풍 수성군의 활동상을 전하고 있는 이 기록은 수성군이 득세했던 무풍면의 정황을 잘 보여준다.[175]

한편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은 10월 10일경 북상을 시작하여 12일 논산에 이르렀고, 최시형으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은 손병희가 이끄는 농민군도 15일경 논산에 합류했다. 김개남은 남원 일대의 농민군을 이끌고 16일 전주에 도착했고, 손화중은 일본군이 바닷길을 이용해서 협공할 것에 대비하여 광주·나주로 갔다. 이렇듯 10월 중순에는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의 농민군이 총동원되어 총력전의 형태를 갖추었고, 본격적인 북상과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무주 농민군은 주력농민군의 북상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무주 농민군의 움직임은 다음 기록을 통해 추적해볼 수 있다.

지난 26일(음10월 30일) 황간·무주 및 금산지방으로 보낸 밀정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조선군과 황간·무주지방으로부터 이 곳 감사(경상감사)에게 보내오는 보고

174)이에 대해 영남소모사는 13일에 “이현교가 몸을 던져 힘을 다한 일은 극히 가상하니 삼가 글로써 감영에 보고할 일”이라는 제음을 내려 주었다. 하지만 이현교는 아무런 포상도 받지 못했다. 그리하여 김구영, 최학성 등 무주의 유생들은 1897년 9월에 같은 내용의 소지문을 영남관찰사에게 올려 이현교의 포상을 추천하였으나, 이때는 “관할이 달라 우리부에서 소관할 일이 아니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이상 이동신씨를 통해 접한 고문서 참조).

175)이와 관련하여 “무주 동학란은 진안군에 인접한 안성, 적상면이 우심하였고 무풍이 비교적 평온하였다”고 한 무주군지의 기록도 참고된다(『무주군사』, 225면).

가 빗발친다. 모두 동학도가 대거 대구를 습격하려는 상황에 있다고 하며, 만일 조선군으로 이를 방지하지 못할 때는 정말 대구는 위험하다.[176]

위 기록은 11월 3일(음)에 한 일본군 장교가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대리에게 보낸 전보인데, 이 전보는 무주 농민군이 10월말 현재 북상대열에 참여하지 않고 무주에 남아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 가운데 이들은 경상감영이 있는 대구쪽으로 진출을 도모했으며, 이를 위해 황간을 비롯하여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의 농민군과 움직임을 같이 했다. 무주 농민군의 이 같은 동향은 다음 기록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지례 방수초관(防守哨官)의 보고를 받아보니, 금산에 있는 적도들은 이미 안의의 60령을 넘어오므로 그 읍내에 있는 군대들은 서로 저항을 하고 있고, 황간과 영동에 있는 적도들은 금산과 지례를 향하고 있으며 무주 적들은 거창지방을 향하고 있습니다.(12월 2일(음11월 6일)에 대구감사가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대리에게 보낸 전보)

(12월 2일에) 이곳 항구사령관에게 보내온 전보에는 "먼저 번에 금산지방에 내보냈던 밀정이 지금 돌아와서 말하기를, … 둘째 무주 촌민은 과반수가 동학당에 가입, 그 수는 5백 여명이고, 모두 창과 도검, 화승통을 갖고 있다. 그 우두머리(장)는 김모라고 한다. 이들이 나아갈 방향은 알 수 없다. … 지금부터 금산과 지례부근에 정찰병을 내보낼 것으로 생각되나 상황에 따라서는 더 나아가서 무주에 집합(이곳의 내용은 불명) 동학도를 공격하면 어떠할지"라고 전보로 물어왔다. 그래서 이곳 항구사령관으로부터 무주에도 정찰병을 내보내고 과연 그 곳에 적도가 집합해 있으면 공격하는 것도 무방하기는 하나, 이럴 때 소수병력을 쪼개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으로 회전하였다.(12월 2일(양)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대리가 일본공사관에 보낸 보고)[177]

이처럼 무주 농민군은 11월초순경 대구쪽으로 진출하려던 농민군 세력의 일부를 형성했으며, 더구나 그 세력의 거점지로 의심 받을 만큼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무주 농민군은 대구쪽으로 진출하지 않았고, 11월 8일 전라도 용담현 공격에 나섰다. 다음을 보자.

176)『주한일본공사관기록』 권1, 188면.
177)이상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권1, 189-190면.

> 지난 달(11월) 초8일 진안·고산·진산·한산 등지의 각포 동학도 수만 여명이 북쪽으로 돌입하기에 진을 치고 접전하였는데, 무주접주 이응백 삼부자(三父子)가 그 무리 수천여명을 거느리고 동쪽으로부터 침입하여 우리의 후방을 공격하였습니다. 양쪽 적의 세력이 모두 호대하여 대적할 방도가 없더니 초9일 오시쯤 결국 패배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12월 14일자 용담현령의 보고)[178]

용담현의 점령은 무주 농민군의 타 지역 진출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그 강성했던 세력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사례여서 관심을 끈다. 하지만 황간 등지의 농민군과 협력하여 경상도쪽으로 진출하려던 무주 농민군이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어 전라도 용담현을 점령한 배경이 무엇인지는 잘 파악되지 않는다.[179]

이상에서 보듯이 무주 농민군은 인근 군현을 점령하는 등 11월 초순까지 기세를 올렸지만, 이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전봉준·손병희의 주력농민군이 우금치전투에서 패한 후 후퇴했고, 11월 13일 청주를 공격하던 김개남의 농민군도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주 농민군이 또 다른 지역으로 진출을 도모하거나 세력을 확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곧 무주로 되돌아오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무주지역을 무대로 한 최후의 격전은 주력농민군이 해산하는 과정에 이루어졌다.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후 전봉준 등과 함께 후퇴하던 손병희는 11월 27일 태인전투 직후에 임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는 11월 초순부터 임실 새목티에 머물러 있던 최시형을 만나 북쪽으로 도피길에 올랐다. 이들은 장수 장계로 가던 도중에 관군·민보군과 여러 차례 접전한 뒤 금산을 거쳐 무주로 향했다. 이 때 손병희의 농민군은 1만여명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12월 5일 새벽 무주읍으로 돌입하였고,[180] 이 과정에 무주읍 장백리(長白里)에서 민보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두었다. 이때의 광경에 대해 동학교단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178)『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635면.

179)이처럼 무주와 그밖에 전라·경상 양도의 경계에 출몰하던 농민군을 일본군은 공주전투의 패잔병으로 추측한 바 있다. 다음의 기록이 그것이다. "생각컨대 (일본군) 중·서 2대는 혹시 공주부근에서 합치고 그리고 적은 패하여 남원지방으로 궤주한 것 같습니다. 또 별신에서 말한 것 같이 무주 기타 전라·경상 양도의 경계에 출몰하고 있는 적도는 공주패병의 일부일 것으로 추측합니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 권2, 92면). 그러나 무주 농민군은 주력농민군이 공주부근에서 전초전을 펼치던 10월말 여전히 무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더욱이 무주 농민군이 용담을 점령한 11월 9일은 전봉준의 주력농민군이 전력을 기울여 우금치전투를 치룰 때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무주 농민군은 9월 재봉기 기간에 무주일대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180)김석중, 『토비대략(討匪大略)』, 갑오 12월 5일조.

손병희가 신사를 모시고 금산군에서 무주군에 이르니, 이응백이라는 자가 민보군을 거느리고 진격하거늘 손병희가 도중(道衆)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깃발을 드는 것을 보고 동지(動止)하라'하고 이에 깃발을 듦에 도중이 대성돌격한대 민보군이 대궤(大潰)하다.[181]

이에 무주로 향하여 장백리에서 의병 이응백을 만나 일야대전(一夜大戰)하여 크게 승첩하고 영동 용산으로 향하였다.[182]

한편 위 기록은 농민군의 길을 막아선 인물이 무주의 농민군 지도자로 활약해온 이응백으로 지목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기록대로라면 농민군이 패주하는 단계에 이르자, 이응백은 목숨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보군으로 변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뒤에 이응백이 관군에게 체포·처형된 점을 감안하면, 그의 '변절'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의 '변절'을 사실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근거나 정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무주에서 며칠을 머문 손병희의 농민군은 12월 8일 무주를 떠났다. 이들 농민군이 무주를 떠날 때의 모습과 이후 행로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기록들이 참고 된다.

12월 8일 청산의 이교(吏校)가 와서 말하기를 "적도 수만 명이 무주에서 영동에 이르면서 설천과 월전의 의병을 격파하였는데, 일컫기를 12만이라 하며 청산과 상주를 함락 하겠다"고 하였다.[183]

(농민군) 안성포와 관동포가 한 달여 전에 호남에서 (민보군 등과) 여러 차례 싸워 그 수가 17차에 이르렀다. 12월 6일에 무주로 들어와 설천과 월전 두 곳의 의병을 격파하고 영동을 함락하더니 황간의 군기를 빼앗아 영동의 용산시장에 웅거하였다.[184]

1월 3일(음 12월 8일) 오전 3시쯤 황간현감으로부터 통보해 오기를 동학도 약 1만여 명을 최법헌이 이끌고 전라도 무주로부터 행진해와, 이미 황간 부근 옛 근거지인 서수원에 머물고, 바야흐로 황간을 습격하려 한다고 하였다.[185]

181) 『천도교회사 초고』, 468-469면.
182) 『천도교창건사』, 『동학사상자료집』 2, 67면.
183) 『감영보고문』(『보은 종곡 동학유적』,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보은군, 1993, 104면에서 재인용).
184) 『감영보고문』(위의 책, 107-108면에서 재인용).

위에서 보듯이 손병희의 농민군은 12월 8일 무주읍을 출발해서, 이날 무주군 설천면(雪川面)에서 또다시 민보군을 격파하고 충청도 영동으로 도피길을 재촉했다. 이렇게 손병희의 농민군이 무주를 떠난 것을 끝으로 무주에서는 더 이상 농민군 활동이 전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듬해 1월초 무주에 관군이 들어왔다. 이들은 무주일대를 수색하여 농민군 지도자 이응백을 체포했고, 1월 10일 장터에서 그를 처형했다.[186] 다음의 관군 진압기록은 무주 농민군 지도자의 최후를 잘 보여준다.

> (1월) 초8일 대관 조병완과 금영(錦營)의 지로인(知路人) 현광일이 병정 1소대를 이끌고 무주로 떠났습니다. …무주거괴 자칭 대장 이응백은 이른바 포군 500-600명을 이끈 난민의 우두머리로 무주읍을 쓸어 해치고 비적(匪賊) 괴수들과 의기투합하여 세 개의 군을 함락한 자인데, 계책을 내어 체포하였습니다. 초10일 군민이 모인 가운데 장시에서 처형한 후 그 집을 수색하여 조총 1자루, 환도 5자루, 깃발 1면, 철갑 1건, 인궤(印櫃) 1좌, 목인(木印) 1건, 소 2마리를 거두어왔습니다.[187]

3월봉기 때부터 무주지역의 농민군을 이끌어온 이응백이 관군에 의해 공개 처형됨으로써, 무주에서의 농민혁명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제2절 무주인의 민족·애국운동

동학농민혁명 이후 일제는 명성황후 시해라는 만행을 저지르며 친일정권을 수립하였을 뿐 아니라 단발령까지 단행하며 조선 침탈을 노골화하였다. 이에 전국적으로 유림을 중심으로 한 의병활동이 전개되었다. 이를 '을미의병'이라 부르는데, 그 당시 무주인의 움직임에 대한 자료 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의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95(을미)년 무주의 유림들이 모여 국왕에게 무너져 가는 국권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乙未斥倭疏)를 하였고, 1904년에는 지방관의 학정에 저항하여 일어난 농민봉기가 있었으며, 친일 단체인 일진회 무주지부를 몰아낸 활동이 있었다.

---

185)『주한일본공사관기록』 권6, 68면.
186)무주군지는 '이형택(이응백)이 일본군에게 잡혀 살해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적성지속지』, '일사' 편).
187)『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684-685면.

1. 무주유림척왜소(茂朱儒林斥倭訴)

무주 유림들이 작성한 을미척왜소는 ≪적성지속지≫에 수록되어 있는데, 소를 작성하게 된 동기와 목적 그리고 을미(1895)년의 어느 시기에 작성되었느냐 등이 뚜렷하게 소개되지 않아 문맥으로 진의를 파악할 수밖에 없어 정확한 내막을 알아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1895년에는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있었고, 친일내각에 의해 단발령이 내려졌다. 이에 전국에서는 국모 시해라는 민족의 치욕을 씻고 단발령의 철폐와 국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병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명성 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내용을 보면, 임진왜란의 상기와 함께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표출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및 서양 상품의 범람과 함께 궁궐의 사치 등으로 민심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운이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통상조약을 파기하고 궁궐을 비롯한 조정에서부터 우리 상품의 애용을 통해 국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틀 안에 갇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려는 의지 역시 부족해 보인다. 더욱이 백성의 애타는 호소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정부의 태도와 자세를 볼 때, 구한말의 위기상황을 그대로 목격하는 듯 하다.

■ 을미척왜소

엎드려 생각건대, 우리 역대 왕조는 왕업을 일으켜 학교를 세우고 예의를 숭상하며, 인륜을 밝히어 바르지 못한 논설을 없애고, 삼강(三綱)과 구법(九法)을 갖추어 찬연히 빛나도록 하였습니다.

위로는 군신이 토론과 심의를 하면서 백성을 다스리고, 아래로는 백성의 맑고 밝은 풍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자와 맹자를 종조(宗祖)로 삼고 정자와 주자를 스승으로 삼아 명행과 염치를 갈고 닦았습니다.

일찍이 임진왜란을 당하여 임금님의 수레가 난을 피해 평안도 의주로 떠나게 되었고, 능이 파헤쳐져 금으로 만든 술잔이 도굴되었을 뿐 아니라 종묘와 궁궐이 불타버렸으니, 천지가 다 끝났다고 하여 만고에 사무치는 원한을 깊이 품은 충신과 의사들은 죽기를 맹세하고 의병을 일으켜 떳떳한 윤리로 국가를 회복하려고 왜적들을 소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오히려 흉악한 왜적과 교린(交隣)을 청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극히 넓어져서 둘러싸고 있는 정도에 따라 국방의 설비를 하도록 허락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는 군사가 겨우 300명에 지나지 않는 데다 그들의 수비 범위는 10리에 지나지 않으니 감히 한 발자국이라도 성밖으로 나가지 못한 지가 지금까지 300년이나 되었습니다.

동쪽과 변경을 둘러 볼 근심과 걱정할 일이 없으며, 전국 팔도가 금구(金甌)처럼 완전해지고 궁궐이 반석처럼 견고하고 태평해질 것이나 근래에 와서 법강이 해이해져 왜선들이 까닭 없이 왕래하며 크게 위협하는 소리가 더욱 심하게 들려 비상시국 임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의 나라 형세를 보면, 물가가 폭등하고 여론이 들끓어 밤과 낮으로 보존하지 못할 것 같이 위태로운데도, 조정에 가득한 신하들은 한갓 허송세월만 일삼아 문무백관이 서로 즐기기만 좋아하여 세상의 혼란을 깨끗이 몰아내자는 건의를 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녹봉을 먹는 신하로서 나라와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중국 전한(前漢)의 문인 가의(賈誼)가 말한 바와 같이 저희들도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바입니다.

동래 일대는 이미 일본인들에게 의해 점거되었고, 덕원과 인천도 역시 저들의 소굴이 되었으며 궁궐까지도 저들과 밀통하는 장소가 되었으니, 머지 않아 방비가 매우 튼튼한 성 서울 땅도 왜적의 풍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중국 북송 '정강의 화'때 금군(金軍)이 남하하여 변경(汴京)이 함락당했던 변란과 인조 때 남한산성의 치욕을 듣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는 모두 강화(講和)로 인하여 끝내 빚어지게 된 것이오니, 앞일을 밝게 밝히시고 뒷일을 철두철미하게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항을 한번 개항한 후로 폐해의 근원이 거듭 생기고 무서운 독이 점점 자라게 된다면, 수년 내에 이르러 그 폐해를 받을 것인데, 원산과 인천마저도 모두 개항한다는 허락을 해주신다면 삼천리 강토는 점차 저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이른바 국서를 보내면서 감히 황(皇)자와 짐(朕)자 두 글자를 쓰는 것은 방자 하게 자신을 높이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이른바 손과 발을 뒤바꾸고 관과 치마를 바꾸어 놓은 것이며, 교린의 도를 끊어버리고 대의명분까지도 업신여겨 버렸는데, 어찌 이웃이 되어 도리를 끊어버리고 의를 업신여기는 나라와 화친을 하겠습니까.

또한 시가를 돌아보면 간직하고 있는 물건들이 모두 요괴스러운 서양상품이나 일본상 품이 아닌 것이 없으니, 이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괴상한 것을 좋아한다면 국력이

소모되고 끝내는 적국이 넘보는 구실이 될 것이온데, 어찌 전하께서는 이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편리한 것만 도모하시나이까. 바야흐로 지금의 급선무는 강화(講和) 를 배척하고 일본 사신을 내쫓으며 사치를 엄금하는 일에 있습니다.

먼저 전하께서 입으시는 어의(御衣)를 우리나라 토산물인 세포(細布)로 하시고, 외국에서 들여온 잡스런 물건들은 어전 앞에 내놓지 못하게 하면 조정에서는 사치스러움이 없어지고, 시중에는 일본 물건이 없어질 것이어서 부산관(釜山關)과 원산항에도 저 기괴한 물건을 팔아서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니, 그들을 물리치지 않아도 스스로 물러가게 되고 배척하지 않아도 스스로 배척될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나라가 번영되어 든든한 반석처럼 편안하게 안정을 누릴 것이며, 백성들은 자리를 보전하여 사람마다 윗사람을 섬기게 되고 어른을 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면, 인의를 위한 장병이 될 것이며, 싸우면 이기게 되는 충성스런 병사가 될 것인즉, 무엇이 두렵겠나이까.

남쪽의 일본을 어찌 두려워하시며, 북쪽의 오랑캐를 어찌 의지하려 하시면서 법을 다스리겠나이까. 신들은 간절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전하의 답을 기다리겠나이다.

소수(疏首)[188] 박중호(朴重浩)
사소(寫疏)[189] 김직현(金直鉉)
제소(製疏)[190] 하태홍(河泰洪)

■ 비답(批答)[191]

임금이 전하여 이르기를 “유생들이 올린 소(疏)에 대한 일의 전후를 엄중히 따져 훈계해야 할 터인데, 과연 어찌할꼬. 임금의 명을 거역하고도 오히려 두려워할 줄 모르니, 이를 어찌 다스려서 어찌해야만 도리를 깨닿겠는가. 비록 농사를 지으며 글 읽는 데 마음을 두고 지조를 지키면서 몸을 삼가한다면 어찌 이와 같은 상소를 하였겠는가. 너희들의 뜻을 잘 알았으니 물러가라”고 하였다.

188)상소문을 올릴 때 연명의 첫머리에 이름을 쓴 우두머리.
189)상소문을 올릴 때 글씨를 쓴 사람.
190)상소문을 올릴 때 글을 지은 사람.
191)상소에 대한 임금의 하답.

2. 갑진년 봉기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제는 친일정권을 세우고, 양력의 사용과 단발령을 강요하였다. 나아가 일본인들은 시골구석까지 내려와 갖은 수단을 다해 이득을 취했다. 이에 일본 상인과 관리들에 대한 지방민의 불만이 높아만 갔다. 더욱이 1900년에는 신화폐조령(新貨幣條令)을 제정하여 그 동안 사용해 오던 엽전 대신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통용 시키도록 하였다. 이 때 새로운 화폐 1량 당 환율을 엽전 100매 씩으로 규정했는데, 지방의 수령들은 농민에게 결전(結錢)을 부과하면서 새 화폐 1량을 엽전 200매로 계산하여 징수하는 등의 착취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와 같은 학정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누적된 불만을 풀기 위해 군민을 규합해 관아를 점령하고 탐관오리인 군수를 몰아내기 위해 봉기하였다.

무주군에서의 첫 번째 봉기는 1904년 안성면 출신의 허경민(許景敏) 등이 농민을 규합하여 한풍루에 진을 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관군의 포격으로 부상자가 생기고 주동자였던 장두(狀頭) 허경민과 참가자 수 명이 붙잡히자 모두 흩어지고 말았다.

그 후 다시 봉기할 것을 결심한 농민들은 허경민의 형 허군오(許君五)를 장두로 삼고 거사를 준비하였다. 집결 장소는 남대천 남안(南岸)이었는데, 거사일에 모인 군중의 수가 대단하여 위세가 컸다고 한다.

이에 관아에서는 수많은 군중의 위세에 눌려 대적할 생각을 포기하고 농민의 요구에 응할 것을 서약하였다. 당시 무주군수 김선규(金善圭)가 서약한 내용을 보면, 앞서 봉기 때 체포한 사람들을 석방하고, 그 동안 군민에게서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을 환불 또는 면제해 주며, 이후부터는 엽전의 환율에 대한 규정을 어기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위와 같은 결과물을 획득한 군중은 해산하였다. 이 때의 농민봉기를 ≪적성지≫에서는 '갑진민요(甲辰民擾)'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당시 봉기의 주역이었던 허경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192)]

> 허경민은 안성사람이다. 그 당시 학정에 시달리던 군민이 허경민을 장두로 삼아 민란을 일으키고 관아를 막 습격하려 했는데, 관군의 발포로 해산하게 되었다. 군민이 다시 허경민의 형 허군오를 장두로 삼고 맹렬한 기세로 다시 관아를 습격하였다. 이 때 군수

192)이상의 내용은 무주군지편찬위원회, ≪무주군지≫, 무주군, 1990, 338쪽. ≪적성지≫, 324쪽.

김선규가 나와 사과하면서 앞으로 모든 폐단을 없애고 잘못을 시정하겠다는 서약을 하자 군중이 해산하였다.

1967년 당시 98세였던 황일성옹에 따르면,[193] "그 당시 1,000여 명이 무주부 장대(茂朱府將臺. 현 무주시장) 앞에 집결하여 무주부사[194]에게 항의를 시작했는데, 그 때 관군이 발포하자 모두 해산되었고, 해산 과정에서 앞 냇물에 빠진 익사자(溺死者) 2명이 나왔다"고 한다.

3. 일진회 타도

일진회(一進會)은 대한제국 말에 일본의 한국 병탄정책(倂呑政策)에 적극 호응하여 그 실현에 앞장서며 1904년부터 1910년까지 활동한 친일단체이다.

한국 병탄을 목적으로 한 일제는 아래로부터의 친일적 요구를 조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송병준(宋秉畯)과 구(舊)독립협회의 윤시병(尹始炳)·유학주(兪鶴柱) 등이 1904년 8월 18일 유신회(維新會)를 조직했다가 8월 20일 일진회로 고치고 회장 윤시병, 부회장 유학주를 추대하여 발족하였다. 이들은 머리를 깎고 양복차림으로 부일(附日)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서울 지역만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에는 그 세력을 뻗치지 못하였으나 지방의 친일세력인 이용구(李容九)의 진보회(進步會)와 같은 해 12월 26일에 합동하여 13도총회장에 이용구, 평의원장(評議員長)에 송병준이 각각 취임하였다.

일진회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 체결을 10여 일 앞두고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위임함으로써 국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내용의 선언서를 발표하는 등 일제의 대한제국 병탄을 노골적으로 추종하였다. 이와 같은 일진회의 친일적 행위가 구체화되자, 1907년 고종의 양위와 한국군대의 해산을 계기로 봉기한 의병들은 일진회원들을 토살(討殺)시키고 일진회 지부 및 그 기관지인 국민신보사를 습격 파괴하였다.

한편 1906년 지광국(池光國)을 중심으로 한 일진회 세력이 '일진회 무주군지부'를 결성하고, 민간의 풍속을 바로잡는다는 핑계로 민심을 현혹하면서 군정을 간섭하였다. 그러나 지광국 등이 일본의 앞잡이임을 알게 된 군민은 분노하게 되었다.

193)≪무주군사≫, 223쪽.
194)당시는 부사가 아니라 군수.

읍내에 거주하고 있던 초군(樵軍=나무꾼)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일진회 사무실을 점거하여 건물을 부수고 일진 회원들을 타 지역으로 몰아내고 다시는 본군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였다.[195)]

제3절 무주인의 항일 투쟁

1876년 강화도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일제의 조선 침탈 야욕은 단계적으로 구체성을 띠며 진행되었는데, 조선은 이러한 일제의 침략을 예견하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종국에는 강제로 병탄당하는 비극을 맞게 되었다.

1894년 농민군의 반봉건·반외세 운동이 실패로 끝난 후 일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광분했는데, 그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 명성황후 시해사건이었다. 국모의 시해라는 초유의 비극적 사건을 맞이한 조선에서는 유림을 중심으로 구국항일전선을 형성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기도 전에 해산되고 말았다.

그 이후 일제의 식민지화 정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결국에는 1904년 '러·일전쟁'과 동년 2월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체결을 시작으로 주권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일제는 동년 7월 '군사경찰훈령(軍事警察訓令)'을 만들어 치안권(治安權)을 빼앗고, 8월 22 일에는 '한·일외국인고문용빙(韓日外國人顧問傭聘)'에 관한 협정서로 재정권을 빼앗았으며, 1905년 11월 17일에는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강탈하고 곧이어 얼마 되지 않는 군대마저 해산시켰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민족의 강렬한 대일항전이 전개되었지만 결국에는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병합조약'이 강제 체결되는 '경술국치'를 당함으로써 나라마저 상실하고 말았다.

위와 같은 민족의 시련기를 무주인들이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단편적으로 전해지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나마 있는 자료들마저 정확성에 문제가 더러 나타나기도 한다.[196)]

---

195)국역 ≪적성지≫(地), 324쪽. ≪무주군지≫, 338쪽.

196)글은 무주군에서 발간한 ≪적성지≫, ≪무주군사≫, ≪무주군지≫, ≪무주인물지≫ 등과 국가보훈처에서 발간한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독립운동사자료집≫ 등을 주로 참고하였는데, 일일이 각주처리를 하 지 않고 해당 인물의 끝에 참고문헌으로 한데 묶어 정리하였다. 참고문헌이 첨부되지 않는 인물은 주로 ≪무주군 지≫나 ≪무주인물지≫에만 수록된 경우이다.

민족의 시련기에 나타나는 무주인의 움직임은 매우 다양했으리라 여겨지나, 여기에서는 국내에서의 활동이 여의치 않자 만주로 나가 활동했던 애국지사들의 움직임과 의병을 조직해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던 의병장과 의병의 활동, 그리고 망국의 한을 머금은 채 뿔뿔이 흩어져 간 이 지역 관원들의 움직임이라는 큰 틀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1. 애국지사

애국지사(愛國志士)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위하여 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공헌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무주지역에 살거나 연고가 있으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일관 되게 한 길을 걸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주군에 연고가 있는 애국지사에 관한 자료는 극히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여기에서는 백범 김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활동하다가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전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도 전에 안타깝게 서거한 유완무(柳完茂), 본군에서 태어나 생을 마치는 날까지 구국의 일념으로 한 평생을 살았던 이시발(李時發), 국내보다는 간도에서 독립활동을 했던 이종갑(李鍾甲) 등을 소개한다.

1) 유완무와 백범 김구

유완무의 본관은 진주(晉州), 호는 백초(白樵)이며 인무(仁茂)라고도 불리웠다. 1894년경 일제의 국권침탈 야욕을 예견하고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무풍면 현내리 지동(池洞)에 거주하였다. 그 후 이시발(李時發)에게 가사(家事)를 부탁하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뜻 있는 선비들을 찾아 사귀면서 구국의 방책을 찾고자 하였는데, 만나는 선비들은 그의 의리에 모두 탄복하며 그를 선봉으로 삼았다고 한다.

을미사변 이듬해인 1896년 백범 김구가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겠다며 일본군 장교를 살해 한 후 인천감옥에 투옥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완무는 백범을 구하기 위해 변소(辯訴)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승소(勝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백범 구출 작전을 세우고 13명의 동지들을 규합하여 인천에 가서 파옥(破獄)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에 앞서 백범이 형무소를 탈출하였다. 얼마 후 백범이 유완무를 찾아와 상봉하였고, 이를 인연으로 하여 백범은 그 후 무주를 두 차례나 방문하게 되었다. 백범이 무주를 방문했을

때 유완무는 백범의 이름을 구(龜)로 하고 호를 연하(蓮下) 자를 연상(蓮上)으로 바꾸도록 하였다.

1905년 통한의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유완무는 북간도(北間島)로 건너갔다. 그는 이 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여 의병을 규합한 후 두만강을 건너 국내로 진공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동포의 횡탄에 시해를 당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197)]

서거 후 오재영(吳在永)[198)]·이윤복(李允馥)·이종갑(李鍾甲) 등이 시신을 수습하여 북간도의 금당촌 뒷산에 장사(葬事)하였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이 묘를 가리켜 '대한의사 유공지묘(大韓義士柳公之墓)'라 불렀다.

■ 참고문헌

≪무주군지≫, ≪무주인물지≫, ≪백범일지≫, ≪적성지≫(地)

2) 이시발(李時發)

이시발의 본관은 흥양(興陽)이며 호는 간설(艮雪)로 무풍면 현내리 지동에서 살았다.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영리했으며 효행이 뛰어났다고 한다.

1894년 교우하던 유완무가 나라를 걱정하며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활동할 때 그와 뜻을 같이하면서 그의 처자식을 친히 돌보았다. 구한말 백범 김구가 무주를 방문했을 때에는 상봉하여 구국의 방책 등에 대해서 장시간 토론하였다.[199)]

다른 한편으로 어버이를 잃고 의탁할 곳이 없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았으며, 1898년에는 무주군수 이하섭(李夏燮)과 함께 문묘(文廟)를 보수하고 양사재(養士齋)를 이건했으며, 상주 옥성서원과 금산 학암서원의 원장을 역임하였다. 영호남 사림(士林)들과 유계(儒契)를 설립하고 대덕산방(大德山房)이라 이름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유완무·오재영 등과 함께 간도로 가서 육진(六鎭)[200)]을

197)정재우 <연해주 이범윤 의병> ≪한인강제이주 60주년 기념 러시아에서의 한인독립운동≫제11집,

198)1990년 편찬된 ≪무주군지≫에는 오왕영(吳枉永)으로 되어 있고, 1968년 간행된 ≪무주군사≫에는 오기영(吳杞 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2000년 발간된 ≪국역 적성지≫(地)에서는 오재영(吳在永)으로 각 자료마다 틀리게 되어 있다. 가장 최근에 작성된 ≪국역 적성지≫(지)를 우선으로 하였다.

199)백범이 처음 무주를 방문했을 때, 이시발은 읍내에서 삼포업(蔘圃業)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백범일지 참조)

두루 돌아다니면서 일제를 무찌른 계책을 세우기도 하였다. 또 고종을 위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도남(道南)·병산(屛山)·도산(陶山)서원에 발문(跋文)을 띄우며 준비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실패로 돌아가자 '단기고국 회갈유민(檀箕古國懷葛遺民)'이라는 귀거래사(歸去 來辭)를 짓기도 하였다. 나라 잃은 울분으로 생을 살았던 그는 1934년 유명을 달리하였다.

■ 참고문헌

≪무주군지≫, ≪무주인물지≫, ≪백범일지≫, ≪적성지≫(地)

3) 이종갑(李鍾甲)

이시발의 아들로 호는 척산(尺山). 어버이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던 그는 30세 때인 1907년 10월 27일 아버지의 명으로 면우(俛宇) 곽종석(郭鍾錫)·한계(韓溪) 이석희(李錫熙)의 밀서(密書)[201]를 청나라에 전하고자 배편으로 바다를 건넜다. 영구(營口)와 천진(天津)을 거 쳐 북경에 들어가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도로 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유완무를 만나 여러 곳에서 동포에게 충의에 대한 연설을 하고 다녔다. 유정구(柳亭口)와 봉밀(蜂蜜) 등지 에서는 학교를 세우고 정병을 양성하였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유완무가 시해를 당하게 되자 주위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에 이종갑은 이윤복(李允複)과 함께 러시아의 해삼위(海三威·우라디보스톡)로가 4~5년을 지냈다. 다시 간도로 돌아와 유완무의 시신을 수습하여 간도의 금당촌(金塘村) 뒷산에 장사 지냈다.

■ 참고문헌

≪무주군지≫, ≪무주인물지≫, ≪적성지≫(地)

4) 유붕증

부남면 삼유리 하류마을에 살았으며, 자는 운익(雲翼). 고종 때 생원으로 행선공감역(行繕工監役)[202]을 지냈는데 일찍부터 자선사업으로 명망이 높았고, 문태서가 창의하자 군수용

200)조선 세종 때 김종서가 개척한 여섯 진. 경원·경흥·부령·온성·종성·회령.
201)밀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하는 바가 없다. 단지 구국의 일념을 담은 내용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202)조선 중기 이후 선공감(繕工監)에 두었던 종 9품 관직. 감역관(監役官)이라고도 한다. 궁궐과 관청의 건축·수리·공사·감독을 주로 맡았다.

포목과 양곡을 매년 제공하였다. 또 삼유리 중류마을에 살던 유원증(柳元增)은 자는 인서(仁 瑞)인데, 군수용 양곡을 매년 다량으로 제공해 주었다고 한다.[203)]

2. 의병활동

구한말 의병전쟁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고 더불어 낡은 지배체제를 극복하려는 민족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 민족운동은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 전후 과정에서 이미 표출되었고, 반침략·반외세의 표적인 일제 축출 역시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의 주장이었다.

위와 같은 반일(反日) 정서는 1876년 개항을 전후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초기에는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일제의 경제적 침탈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1895년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와 친일정권이 주도한 단발령(斷髮令)을 계기로 유생(儒生) 중심의 의병활동이 전개되었다. 이를 '을미의병'이라 부른다. 그리고 1905년 이른바 '을사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전쟁이 전개되는데 이를 '을사의병'이라 하며,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된 이후의 의병전쟁은 '정미의병'이라 부른다.

무주군에는 영남과 호남을 양쪽에 두고 위치한 덕유산이 있어서 영호남의 의병활동이 용이했던 곳으로 강무경(姜武景)·문태서(文泰瑞)·김동신(金東臣)·박춘실(朴春實)·신명선(申明善) 등 수많은 의병부대가 활동하였다.

무주에서 의병들이 일본군과 구체적으로 접전을 벌인 맨 처음 공식 기록은 1907년 12월 8일 약 300여 명의 의병이 전북 무주에서 접전을 벌였다는 것이다.[204)] 이어서 12월 17일 일본군 보병 제14연대 일부 병력이 '대토벌계획'을 개시하면서 무주군 일원을 포위하고 작전을 벌였으나 의병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한 사실이다.[205)]

이듬해인 1908년 1월 27일 김찬여(金贊汝)·정선일(鄭先日)·이화보(李化甫) 등이 귀순 하여 출원(出願)하는 일이 발생했으나,[206)] 같은 날 무주의 동남지역에 있는 비야당(飛野塘) 부근에서 의병 약 50여 명이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다.[207)] 이후 무주에서는 크고 작은 전투가

---

203)김성진著, ≪항일의병대장 문태서 연구≫, 함양문화원, 1999.
204)원호처, ≪독립운동사≫ 제1권, 717쪽.
205)박성수, ≪한국독립운동사≫, 176쪽.
206)≪한국독립운동사 자료≫, 9권, 12쪽.
207)<황성신문> 1908. 2. 6

수 차례 벌어졌는데, 1908년 2월 15일에는 금산 경찰 분서장이 무주군 일대에 징세통지서 교부에도 불구하고 납세거부운동이 활발 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208)]

그런데 1909년 6월 7일에는 13도 창의대장 이인영(李麟榮)이 무주군 도동(桃洞)에서 대전헌병대 소속 일본군에게 피체되는 사건이 벌어졌으며,[209)] 1909년 일제의 '남한대토벌작전'이 전개되면서 무주군에서의 구국항일의병활동은 수그러들었으나 1913년까지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다.



의병장 강무경 순국비

무주군 출신이거나 덕유산을 중심으로 하여 무주군과 관련된 지역에서 활동했던 의병들은 단일부대 중심의 활동을 위주로 하였지만 때로는 연합전선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단위부대 의병장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210)] 그리고 순서는 편의상 가나다 순으로 기술하였다.

1) 강무경(姜武景, 1878 ~ 1909)

강무경은 1878년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에서 태어났다.[211)] 키는 6척(尺)[212)]이 넘었고 몸 무게가 140근[213)]이 넘는 장사였다고 한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일제의 대한제국 병탄이 머지 않았음을 예감하고 비분강개하면서 국권회복의 뜻을 키웠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불가항력이라 판단하고 필묵상(筆墨商)을 하면서 뜻에 맞는 사람을

208)≪한국독립운동사≫ 자료 9, 239쪽.
209)≪고종시대사≫ 6. 그러나 충북 황간에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었다고도 함.
210)그러나 자료의 부족과 자료들간의 차이점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관계로 미비한 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자세한 내용은 2003년 발간 예정인 ≪무주군지≫ 중권에서 보충·보완하고자 한다.
211)국가보훈처,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제1권, 국가보훈처, 1986, 440~441쪽에서는 전북 무장군(茂長郡) 풍면(豊面) 설천(雪川)으로 기록하고 있다.
212)1척은 30,303㎝이므로 6척은 181.818㎝이다.
213)1근은 600그램이므로 140근은 84㎏.

찾아 삼남(三南)을 돌아 다녔다. 전남 함평에 이르러 심남일(沈南一)을 알게 되었고, 결의형제를 맺고 함께 김율의진(金聿義陳)에 소속되어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1907년 김율이 사망하자 심남일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그의 선봉장이 되었다. 그 이후 의병생활은 심남일과 일체가 되어 시종(始終)을 같이하게 되었다.

1908년 심남일을 전군장(前軍將)으로 하여 전라남도 강진면과 영암(靈巖)·장흥(長興)·함평(咸平)·보성(寶城), 전라북도 남원(南原) 등지에서 일본군과 수십 차례 교전을 벌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1909년에는 작전과 전술을 바꾸어 낮에는 산 속에서 전투준비를 하고 남평(南平)·영암·보성 등지에서 일본군을 야습하여 전공을 세웠다. 그 후 전남북지역 의병간의 연합전선을 구축하던 중 의병을 해산하라는 황제의 조칙을 접하고, 1909년 7월 21일 영암군 금마면 고인동에서 자진 해산하게 되었다.

의병 해산 후 강무경은 심남일과 함께 능주로 잠행하여 전에 전투지였던 풍치의 바위굴 안에서 신병을 치료하였다. 그러던 중 적병에게 발각되어 8월 26일 함께 체포되었고, 9월 2일 광주로 이송되었다가 12월 15일 대구 감옥소로 이감되었다. 이곳에는 의병장 박영근(朴永根)·오성술(吳成述)·전해산(全海山一名垂鏞)도 수감되어 있었다. 결국 이곳에서 교수형에[214] 처해져 32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고, 현재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묘역 124호에 안장되어 있다.

■ 참고문헌

대한독립유공자유족중앙회, ≪독립운동대사전≫, 도서출판 동아, 1990.
국가보훈처,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제1권, 국가보훈처, 1986, 440~441쪽.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2권·3권.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1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권. 매천야록. 독립운동대사전. 항일의병장열전(김의환)

2) 김동신(金東臣. 1872. 12. 26 ~ 1933. 1. 3)

자는 원표(元表), 호는 청암(淸菴)이며 충남 회덕(懷德)에서 출생하였는데, 의병활동 기간

214)국가보훈처, ≪大韓民國獨立有功者功勳錄≫ 第1卷, 國家報勳處, 1986, 440~441쪽. 그러나 ≪무주군지≫ 340쪽에서는 총살형으로 기록.

동안 김승지로 불렸다. 한의사로 1906년 민종식(閔宗植)과 기병할 것을 약속한 후 약 30명의 의병을 이끌고 덕유산에 있는 자원암(紫原庵)으로 내려와 유진하면서 거사 준비를 하였다. 그 후 의병을 이끌고 홍주(洪州)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으나 크게 패배한 후 의병들이 사방으로 분산되고, 더욱이 일본군이 김동신의 본가를 침범하여 가산을 강탈해 가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낙담하지 않고, 영남과 호남을 다니며 뜻 있는 지사를 만나 의병을 다시 조직하기 위해 분투하였다.

1907년 음력 8월 기우만(奇宇萬)과 함께 정읍(井邑)에서 다시 의거(義擧), 창의소도원수(倡義所都元帥)로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활약하였다. 1908년 2월 약 100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전북 용담군 구랑(九郞) 일대에서 일병과 교전하여 이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무주군 횡천면 삼공리에서 일본군과 다시 교전하였다. 3월 6일 스스로 삼남의병도대장(三南義兵都大將)이라 칭하고 800여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경남 거창군 매학(梅鶴)일대에서 일병 70여명과 교전하였다. 3월 25일에는 휘하 의병 60여명과 무주군 횡천면 삼공리에서 일본군 영동 수비대와 2시간 동안 교전을 벌였다. 또한 공주·회덕·진산·금산·용담 등지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김동신 의병부대의 수는 30여 명 또는 70명 또는 100여 명인 때도 있었으나 일정하지 않았고, 최고로 많을 때는 1,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신병이 발병하여 고향인 충남 회덕군 탄동면 덕진동에서 치료하다가 일경에게 탐지되어 체포되었다. 그가 체포될 때 그간의 활약상을 담은 일체의 기록문서가 일경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

그의 체포 후에도 그를 따르던 의병들은 무주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활약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그와 함께 거의하여 선봉장으로 활약하던 유종환(柳鍾煥)·문태익(文泰翊)·최정근(崔正根)·성문길(成文吉)·차은표(車恩表)·오대근(吳大根)·국인묵(鞠仁默)·임병주(林秉柱)·이장춘 등을 들 수 있다. 8월 1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내란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다년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77년에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을 추서 하였다.

■ 참고문헌

국가보훈처,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제1권,
국가보훈처, 1986, 515~516쪽. 기려수필. 대전분서의 체포 및 청취서(1980. 6).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권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3권

박성수, <정미의병> ≪한국사≫ 43, 국사편찬위원회, 1999.
오병무, <덕유산지역 의병활동>≪전북지역독립운동사≫,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건립추진위원회, 1994,

3) 김동학(金東鶴. 1888 ~ 미상)

적상면 삼유리 출신이다.

일제는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기화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丁未7條約)'를 강제로 체결하며 군대까지 해산 시켰다. 이에 민족의 무력이 상실된 것을 통분해 하던 대한제국의 병사들은 스스로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구국항일전선에 나서기도 하고, 기존의 의병부대에 투신하여 일제에 항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시기에 고정길(高正吉)이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대일 투쟁을 전개하였는데, 김동학은 1909년 경 고정길 의병부대에 가담하여 의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고정길 의병장의 지휘 아래 동료 의병 4명과 함께 무장을 하고, 전북 용담군 일동면 능길리의 친일 이장을 찾아가 군자금과 군수품 헌납을 권유하다가 일본군 용담헌병대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그 후 1910년 1월 26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5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공로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참고문헌

국가보훈처,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제12권, 국가보훈처, 1996, 203쪽.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4) 김원일(金元日)

김원일은 적상면 방이리 사람으로 1867년생이다. 신명선 의병장 휘하 의병으로 1908년 1월 3일 배골(梨洞)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교전하다가 전사하였다.

■ 참고문헌

무주군지

5) '덕유산 호랑이' 문태서(文泰瑞, 1889. 3. 16 ~ 1913. 2. 4)

문태서에 대한 족보의 기록을 보면, 이름은 태진(泰珍)이며 자는 태서(泰瑞), 호는 의재(義齊)이다. 그러나 의병활동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토해 보면 태수(泰洙) 등 무려 16개의 별명(別名)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평민 출신으로 경남 안의현 서상면 장구지(藏龜池洞)에서 생장하였다. 원래 기골이 장대하고 재주가 탁월하여 일찍부터 글을 배워 문리에 통달했으며, 금강산에 들어가 병서(兵書)를 익히기도 하였다.

문태서의 거병 시기는 사료에 따라 여러가지 설이 있다. 즉, 1905년과 1906년 그리고 1907년과 1908년이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1906년 거병이 타당한 듯 하다. 그리고 을사조약 체결 이후 거병했다는 사실과 거병 전에 최익현을 만났었다는 점등은 분명한 듯 싶다. 거병 장소는 덕유산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이 확실한 듯 한데, 고향인 안의에서 시작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문태서는 1906년 고향인 안의에서 거병하고 원통사(圓通寺)를 거점으로 하여 덕유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문헌에 나오는 문태서의 첫 번째 싸움은 안성면에서 벌어졌다. 1906년 일본군 5명이 용담에서부터 안성을 경유하여 무주읍내로 향하고 있었는데, 문태서는 뛰어난 지략으로 이들을 사로잡은 후 사살하였다. 그 뒤 9월 경, 장수군 계내면 양악에서 계북면 백암리 출신의 박춘실(朴春實) 의병부대와 합군하게 되면서 상당수의 의병부대를 조직하게 되었다. 문태서는 의병진용의 확대와 함께 활동지역을 넓혀 나갔으며 유격전과 기습작전을 주로 하여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또한 1906년 9월 17일에는 장수읍에있는 일본군수비대를 기습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며, 계북면으로 퇴각하는 길에 일본군을 유인하여 계북면 농소·어전·문성리 등지에서 적군 사살 30여 명을 비롯하여 50여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40여 정의 총기를 노획하였다.

문태서 의병부대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의병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출신 박수문(朴守文)이 찾아왔으며, 연말에는 무주 안성면 오동리[215] 출신 전성범(全聖範) 등이 의병을 모집하여 합류하였다.

문태서는 자신의 의병진을 '호남의병단(湖南義兵團)'이라 정하고 의병장이 되었다.

---

215)박성수의 <정미의병>(≪한국사≫ 43, 국사편찬위원회, 1999)에서는 무주 안성면 오동리으로, 오병무의 <덕유산 지역 의병활동>(≪전북지역독립운동사≫,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건립추진위원회, 1994)에서는 무주군 유가면 오동리로 기록하고 있어 마치 다른 지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안성면에 편입되었다.

진용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대장　문태서
비서　박수문
선봉장　박춘실
중군장　전성범(전성보)
후군장　신탁광(申託光)

문태서는 1907년 1월 적상면 삼유리에 살고 있는 감역(監役)을 지낸 유봉증(柳鵬增)의 집에서 주민의 환대를 받으며 지냈다고 한다. 이 곳을 시발로 하여 유명한 고창곡 전투가 벌어지게 된다.


의병장 문태서 순국비

유봉증과 주민들의 환대를 받은 문태서는 이들이 일본군의 보복을 당할까 염려되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의병대가 침입하여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머지 않아 일본군 수비대를 급습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리게 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정월 대보름날을 기해 삼유리로 진격해 왔다. 문태서 의병부대는 이들을 부남면 고창리의 고창곡으로 유인하였다. 신명선 의병부대와 합세한 문태서 의병부대는 미리 고창곡의 양쪽 언덕에 잠복하고 있다가 기습을 감행하였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 43명을 사살하고 총기류 50점을 빼앗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를 보복하기 위해 일본군은 문태서 의병부대가 근거지로 삼고있는 덕유산 일대를 완전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혔다. 그러나 문태서 의병부대는 지리에 밝은 점을 십분 활용하여 험준한 골짜기를 이용, 일본군을 완전 섬멸하는 전과를 올렸다.

1907년 11월 문태서는 호남의병단의 통솔을 박춘실과 전성범에게 맡기고, 정예군 100여 명을 이끌고 전국 13도 의병대가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하는데 동참하여 전라유진소(全羅留陣所) 전라창의대장(全羅倡義大將)을 맡았다. 그러나 이 작전은 실패

로 끝나고 말았다.

낙향한 문태서는 '행우창의소(行右倡義所) 문태서 격문'을 보내어 의병을 모집하고 군비를 확충하였다. 1908년 2월 28일 이종성을 선봉으로 삼고 의병 약 60명을 이끌고, 황대연 포대와 연합하여 무주 주재소를 습격하여 적병 12명을 사살하고 체포되었으나 극적으로 탈출하였고, 3월 17일에는 적상면에서 징세중인 면장을 구타했으며, 4월 10일에는 신명선과 이병렬 의병부대와 연합하여 장수를 습격하고 주재소와 군청 등을 방화하고 무기와 기물을 탈취하였다.

이처럼 문태서 의병부대가 전과를 올리자 그를 찾아오는 의병의 수가 늘어나면서 유격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대부대가 되었다. 이에 박문영·전성범·신택광·박춘실을 의병장으로 하여 장수군 계북면 토옥동(土沃洞), 구천동, 무주군 안성면 칠연계곡, 덕유산 남쪽 경남 거창 지역에 주둔하도록 하면서 유격전을 벌였다.

1909년 4월 무주군민들은 이러한 문태서의 항일전공을 기리기 위해 송덕비[216]를 세웠으나 일본경찰에 의해 철거되고 말았다. 5월 8일에는 박춘실 등 100여 명과 함께 장수 계북면 덕유산정과 남원군 이문성 동북방에서 일본 헌병대와 약 30시간 교전을 벌였다.

일본군과의 교전에서 승승장구하던 문태서 의병부태는 서울에 있는 일본 통감부를 직접 습격하고 이토오 히로부미를 암살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문태서는 1대에 30명씩 3대를 편성하고 순차로 출발시켰다. 북진중 충북 옥천군 이원역을 지나려 할 때, 마침 일본인들이 경부선 철도를 이용해 한국에서 생산된 중요한 물자를 수송하려고 기차에 싣고 있음을 보고 습격하여 일본 경비병과 일본인들을 사살하고 이원역사와 화물차를 방화 소각시켰다. 이것이 유명한 이원역소각전(伊院驛燒却戰)이다.[217]

이원역 습격 후 문태서 의병부대는 덕유산으로 회군한 뒤 무주·장수·거창·함양·안의등 각 지역에 분산되어 유격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편성하였다. 또한 문태서 의병부대는 덕유산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전투 500여 회에서 최소한 일본군 1천 여명 이상을 사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11년 여름, 문태서 의병부대는 장수읍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헌병대를 습격, 성공적인

---

216)忠報國下濟萬民各振四海盡忠其德爲國義兵大將文泰瑞之碑戊申4月日. 일본 경찰은 건립자를 취조하는 등 갖은 악행을 저질렀다.

217)그러나 정황으로 보아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돌아오는 길에 이원역을 습격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김성진저, ≪항일의병대장 문태서 연구≫, 함양문화원, 1999. 317쪽]

작전수행 후 원통사로 회군하는 도중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후 문태서 의병부대는 결집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문태서는 1912년 8월 17일 일제의 밀정에게 속아 포박당하고 말았다. 문태서는 동행하던 박수문과 함께 안의에서 진주로 다시 대구로 옮겨졌는데, 최후에는 경성으로 이송되었다. 문태서는 모진 고문을 받다가 1913년 2월 4일 피를 토하면서 옥사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추서 하였으며, 그 후 지역 민들은 무주 구천동과 경남 안의, 그리고 장수군 계북면에 기념비를 세워 고인의 뜻을 기리고 있다.

■ 참고문헌

문태서 포고문.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권.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1권
폭도사료집(27호). 폭도편책(33-1·42·38·54·19·28·40호)
폭도통계자료(160호). 매천야록. 한국독립운동사. 폭도토벌지. 대한계년사
무장독립운동비사. 장수군지.
박성수, <정미의병> ≪한국사≫ 43, 국사편찬위원회, 1999.
오병무, <덕유산지역 의병활동>≪전북지역독립운동사≫,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건립추진위원회, 1994,
김성진著, ≪항일의병대장 문태서 연구≫, 함양문화원, 1999.

6) 박수문(朴守文)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출신으로 1906년 문태서 의병장의 활동을 듣고 찾아가 의병이 되었으며 비서(秘書)를 맡았다. 이후 박수문의 행적은 문태서와 함께 하였다. 1912년 8월 17일 문태서가 일제의 밀정에게 속아 포박당할 때 함께 체포당했으며, 안의에서 대구로 이송되었다. 대구감옥에서 10년형을 마치고 풀려 나왔다.

석방 후 고향으로 돌아와 생활하였는데, 동향면주재소 수석 이시가와(石川) 순사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심한 감시를 하기 때문에 단도(短刀)로 쳤었다. 그로 인해 살인미수의 죄목으로 끌려가 다시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옥중고혼이 되어 순국하였다.

■ 참고문헌

김성진著, ≪항일의병대장 문태서 연구≫, 함양문화원, 1999.

7) 박춘실(朴春實, 1875. 10. 13 ~ 1914. 6. 3)

박춘실의 본 이름은 동식(東植)이고 춘실은 호이다. 진안군 안천면 와정리 중구실에서 출생하였으나 곧바로 장수군 계북면 백암리로 이거 성장하였다.[218)]

1906년 최익현의 의병부대에 참여했고, 이후에는 무주와 장수, 진안과 용담 등지를 근거로 의병을 모집하여 항전하였으며, 50여 명의 의병과 함께 1906년 9월 문태서 의병부대에 합류하여 선봉장으로 무주와 장수 등지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이후 일본군과의 전쟁은 문태서 의병장과 맥을 같이 하는데, 특히 1907년 1월 무주군 부남면 고창곡(高昌谷)에서 일본군과 교전, 43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는데 이 전투에서 선봉장인 그와 중군장 전성범의 수훈이 컸다. 1908년 4월에는 무주의 일본군 수비대와 구천사(九泉寺)에서 교전하였으며, 5월에는 김성용(金誠龍)·이병열(李秉烈) 부대와 연합전선을 펴기도 하였다. 동년 8월에는 100여 명의 의병과 함께 장수 장계장에서 일본군을 저격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웠다.

1912년 문태서 의병장의 체포 등으로 위기를 겪었으나, 동년에 있었던 무주 적상산 전투, 1913년 무주 구천동 전투 등 덕유산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전투에서 일군을 격파했으며, 장계의 일본 헌병분견대 습격 등 지속적인 작전 전개를 통해 일군의 간담을 써늘하게 하였다.

1913년 일본군은 소위 덕유산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이 때 박춘실은 완강하게 저항하다가 육탄전을 치르던 중 부상한 몸으로 일본군에 체포되었다.[219)] 장계를 거쳐 전주형무소로 압송된 박춘실은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초심에서 사형언도를 받았다. 그 후 복심법원이 있는 대구로 압송되어 수감 중 탈출을 시도하다가 1914년 6월 3일 벽돌담에 스스로 머리를 찧고 자결하였다.

현재 박춘실의 시신은 대전국립묘지 애국지사묘역(제1묘역 7번)에 안장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는 1977년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을 추서 하였다.

218)장수군지편찬위원회, ≪장수군지≫, 장수군, 1997, 1349쪽. 이하 ≪무주군지≫, ≪무주인물지≫ 참조.
219)1909년 5월 8일 장수 양악의 토옥동(土沃洞)에서 일본군 수비대에게 생포당했다는 기록도 있다. 김성진 위의 책, 288~290쪽.

■ 참고문헌

무주군지. 장수군지
오병무, <덕유산지역 의병활동>≪전북지역독립운동사≫,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건립추진위원회, 1994,
김성진著, ≪항일의병대장 문태서 연구≫, 함양문화원, 1999.

8) 신명선(申明善·明先. 미상 ~ 1908)

1907년 정미7조약(한일신협약)이 체결되고 이어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 당하자, 시위대 출신 군인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의병대를 조직하였다.

무주 출신으로 시위대에 소속했던 신명선 역시 덕유산을 거점으로 동지를 규합하고 스스로 의병장이 되었는데, 창의 준비를 위해 황이만·황덕화·문봉호·홍병철·정석마 등과 함께 1907년 11월 30일경 금산군에 사는 음대보와 김내삼의 집에 들어가 금 23냥을 모금하였다. 이 해 겨울에는 김동신 의병대, 이석용 의병대와 연합하여 진안과 임실·순창 등지에서 격전을 치뤘다.

이듬해인 1908년 덕유산으로 돌아온 그는 정월 초 무주 적상면 배골 접전 모퉁이에서 일본군 수비대를 격퇴하였다. 이어 정월 대보름날에는 문태서의 호남의병대와 합세하여 부남면 고창곡 옥녀봉 골짜기에서 일본군 수비대 43명을 사살하고 총기 50자루를 노획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220] 이후 진안·거창·함양 등지에서 격전을 치르면서 장수를 거쳐 칠연계곡으로 진군하다가 통안리 함지 방앗간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교전하였다.

1908년 4월 10일 문태서와 함께 장수를 습격하였다. 그러나 마침 주재소의 일경들은 모두 의병 토벌작전에 동원되어 나가고 한국인 순사 1명만 있을 따름이었다. 따라서 별다른 저항 없이 주재소의 기물을 취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어서 학교·군청 등의 부속물의 건물, 그리고 일인(日人)가옥 13동을 불태우고 유유히 무주 쪽으로 퇴거하였고, 동월 13일에는 안성에서 진안수비대와 교전을 벌였다.

그러나 토벌대의 추격을 받아 무주의 칠연계곡에서 유진(留陣) 중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의병 100여명이 모두 이곳에서 옥쇄했는데, 시신마저 수습하지 못하였다. 신명선의 이 때 나이는 30세 전후였으며, 연설에 능하고 체구는 거구였다고 한다.[221]

220)그러나 문태서 의병장에 관한 자료에는 1907년 1월로 기록되어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신명선은 구한국군 출신으로 군대 해산 후 의병에 가담하여 활동했으므로 문태서 의병부대와 연합하여 고창곡 전투를 치루었다면, 1908년 1월이 맞다. 그렇지 않고 1907년 1월 보름이라면, 신명선 의병장의 활동시기와 어긋난다.

221)1969년 계곡 근처에 묻혀 있던 유해를 주민들이 수습하여 묘역을 만들고 칠연의총(七淵義塚)이라 이름하였다. 1976년 4월 2일 전라북도기념물 제27호로 지정되었다.

신명선이 순국한 후 그의 아우가 계속 의진을 이끌고 활약하였다. 즉 1908년 4월 말에 장수읍을 습격하여 많은 전과를 남긴 것 등이 아우의 활약상이었다. 그러나 아우에 대한 기록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77년에 건국포장을,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하였다.



의병장 신명선 등 100여 명의 의병이 묻힌 칠연의총

■ 참고문헌

국가보훈처,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제1권, 국가보훈처, 1986, 683~684쪽.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권. 독립운동사 자료집(국가보훈처) 3권.
독립운동사 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1권. 무주의 인물
오병무, <덕유산지역 의병활동>≪전북지역독립운동사≫,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건립추진위원회, 1994,
김성진著, ≪항일의병대장 문태서 연구≫, 함양문화원, 1999.

9) 유종환

유종환에 대해 정리된 기록을 보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무주군지≫에서는 劉鍾煥으로, 오병무가 집필한 <덕유산지역 의병활동>에서는 兪宗煥으로, ≪한국독립운동사자료≫에는 柳鍾煥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간행한 ≪大韓民國獨立有功者功勳錄≫에는 柳宗完으로 기록하는 등 일치하지 않으며, 출신지 역시 거창 또는 진주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최후의 격전 시기와 장소 그리고 전사한 곳도 1908년 무풍면 금평리 마실(≪무주군지≫)이라는 설과 1909년 4월 거창읍 방의소(오병무, 위의 글)라는 설 등이 혼재되어 있다. 동명이인으로 여기고 추적해 보았지만, 일치되는 부분이 같이 나옴으로 해서 오히려 더욱 혼란스러웠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의병 활동에 대해서 각기 다른 기록이 혼재하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들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기록하고, 각기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차후 ≪무주군지≫ 중권에서 다루고자 한다.

한자로 어떻게 표기하던 한글로 유종환임에는 틀림이 없는 듯 하다. 문태서 의병부대와 합세하여 무주 주재소 습격에 참여했으며, 황대연 의병부대와 합세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대덕산 기슭의 무풍면 금평리 마실재에서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격전을 치뤘다는 점 등은 서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무풍면 금평리 마실재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기록(≪무주군지≫)과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아 흩어진 의병의 대오를 정비하여 의병활동을 계속하다가 1909년 4월 25일 거창읍 방의소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격전을 벌이다가 총상을 입고 일본군 수비대에 체포되었으나 곧 순국하였다[222]는 기록은 일치하지 않는다.

■ 참고문헌

무주군지 박성수, <정미의병> ≪한국사≫ 43, 국사편찬위원회, 1999.
오병무, <덕유산지역 의병활동>≪전북지역독립운동사≫,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건립추진위원회, 1994,

10) 이병렬(李炳烈, 1875. 2. 13 ~ 1909)

무풍면 은산리 속간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또 다른 이름은 장춘(壯春)이다. 어릴 때부터 남달리 기골이 장대하고 담력이 컸으며, 청년기에는 언제나 정의감에 불탔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투철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덕유산에 들어가 의병대를 조직 한 것은 1906년이었으나 일본군과 접전을 치른 것은 이듬해부터로 여겨진다. 초기에는 무 주·진안·장수의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1908년 4월 10일 문태서·신명선 의병부대와 연합하여 장수 주재소를 습격하고 주재소와 군청에 방화한 뒤 이어 무주 주재소를 습격 많은 무기를 노획하였다. 이후 이병렬 부대는 경북 안의에 머물다가 이듬해 1월 남원 이문리로 옮겨 일본 헌병대와 혈전을 벌였으며, 8월에는 문태서 의병부대와 합세하

222)오병무, 위의 글, 305쪽.

여 영동과 옥천 등지에서 일군을 무찔렀다.

약 2년 여 동안 덕유산을 거점으로 3도에 거쳐 활동하던 이병렬 부대는 1909년 11월 무풍면 현내리 거문들 마을에서 일본군 대병과 부딪혔다. 이 때 이병렬 부대는 화력과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최후까지 혈전을 치렀지만 끝내 패배하고 말았고, 이병렬 역시 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223] 그 당시 선봉장이었던 이대화(李大和)는 무풍면 증산리에서 불우한 생활을 하다가 1966년 유명을 달리하였다.



의병장 황대연, 이병열, 이종성 순국비

정부에서는 1977년 12월 건국포장을, 1990년에는 건국공로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으며, 묘소는 무풍면 문평 후록에 위치하고 있고 창의비가 무풍면 철목리 풍호정에 있다.

■ 참고문헌

적성지(지). 무주군사, 무주군지.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1권 567면.
오병무, <덕유산지역 의병활동>

11) 이용이(李用伊, 1868 ~ 미상)

부남면 대유리에서 태어났으며, 1909년 문태서 의병부대에 들어가 화약제조와 총기수리를 맡으며 일제에 항거하였는데, 일본군에 체포되어 15년 형을 받았다.

■ 참고문헌

무주군지. 무주인물지.

223)≪무주군지≫ 345쪽에서는 1907년.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1, 88쪽에서는 “1908년 5월 16일, 의병장 이장춘 등 30여 명이 무주군 무풍장 및 흑석에서 토벌대와 교전, 의병 이장춘과 정원준(鄭元俊) 등 16명이 전사하였다” 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글은 오병무의 글을 우선으로 하였다.

12) 이종복(李鍾卜, 1886 ~ 미상)

무풍면 출신으로 22세 때 의병장 이병렬 부대에 들어가 20명의 의병과 함께 무주 등지에서 항일투쟁을 벌이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10년형을 받았다.

■ 참고문헌

무주군지. 무주인물지.

13) 이종성(李鍾誠. 1871 ~ 1909)[224)]

이종성은 무풍면 철목리에서 흥양 이씨의 종손으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담력이 컸으며, 불의를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 잡으려 했다고 한다.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을 접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가 덕유산에 있는 의병대장 문태서 부대에 합세하여 선봉장이 되었다.

1908년 2월 28일 60여명의 의병을 인솔하고 그 선봉장이 되어 무주 주재소를 습격하였으며, 동년 4월에는 150명의 병력을 이끌고 장수를 공략, 일본군을 사살하고 관공서를 불태웠다.

1909년 5월 8일 남원군 이문성(里文城)의 동북쪽에서 100여 명의 의병과 함께 일본 헌병과 교전하였으며, 8월 중순에는 의병장 문태서와 함께 충북 영동(永同)·청산(靑山)·옥천(沃川)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10월 30일에는 경부선(京釜線) 이원역(伊院驛)을 습격·방화하고, 일본인 3명을 납치하였다. 그 후 무주를 근거로 하여 영동·옥천·청산·금산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1909년 11월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문평마을 흑석산(黑石山) 계곡에서 소수의 의병과 함께 암중 매복하고 있다가 적을 습격하였으나 역부족으로 접전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77년에 건국포장을,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하였다.

■ 참고문헌

국가보훈처,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제1권, 국가보훈처, 1986, 855쪽.

224)김성진 위의 책 등에는 1880년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흥양이씨 족보에는 1871년으로 나와 있다.

적성지(지).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무주인물지. 흥양이씨족보(全)
김성진著, ≪항일의병대장 문태서 연구≫, 함양문화원, 1999.

14) 이팔문(李八文, 1885 ~ 미상)

무풍면 금평리 출신으로 1907년 23세의 젊은 나이에 의병장 이병렬(일명 이장춘) 부대에 들어가 무주지역에서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투쟁을 하다가 체포되어 8년형을 받았다.

■ 참고문헌

무주군지. 무주인물지

15) 임익상(林翊相, 1887 ~ 1910)

안성면 장기리 출신으로 1909년 의병장 문태서 부대에 들어가 장수·안의 등지를 활동무대로 항일투쟁을 하였다.

1909년 음력 7월 19일 박화윤(朴化允)외 5명과 함께 전북 장수 등지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였다. 동년 10월 10일에는 박화윤·이사필(李士必)·이달서(李達西)·이문재(李文在)·서학삼(徐學三) 등과 함께 경남 안의군(安義郡) 일대에서 일본인 벌목공 궁곡진오랑(宮谷辰五郞)외 수 명이 거주하는 판자촌을 습격하여 1명을 처단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그 후 1910년 3월 11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소위 강도·모살죄로 교수형을 언도 받아 항소하였으나 1910년 5월 1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참고문헌

국가보훈처,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제9권, 국가보훈처, 1991, 711쪽.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무주인물지. 무주군지.

16) 장광옥(張光玉, 1888. 3. 23 ~ 1966. 2. 23)

설천면 두길리 출신이며, 1908년 의병장 유종환 부대에 입진하였다. 1909년 3월 초순, 유종환 외 7명과 함께 총기를 휴대하고 경남 안의군(安義郡) 당삼촌(堂三村) 박모(朴某)에게서 엽전 100냥을 모집하였다. 또한 3월 하순에는 무주군 횡천면 마전리(麻田里) 양성순(梁成順)의 집에서 지폐 10원, 탁주 1독, 돼지 1두를 모집했고, 상두리(上斗里) 김모(金某)에게서 백목 1필, 엽전 10냥을 모집했다. 또한 무주군 풍서면 이남리(伊南里) 이모(李某)에게서 군자금으로 25냥을 모집하고 체포되었다. 1910년 1월 21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10년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86년에 건국포장을,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하였다.

■ 참고문헌

국가보훈처,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제8권, 국가보훈처, 1990, 498쪽.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1권/ 무주군지. 무주인물지.

17) 장군선(張君先, 1876 ~ 미상)[225)]

적상면 괴목리 출신으로 문태서 의병부대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김부개(金富介)·장한갑(張漢甲) 등과 함께 각자 곤봉과 총을 휴대하고 총 35정을 휴대한 다음 동료 의병 50명과 함께 1909년 음력 3월 25일 밤 충북 영동군 양남면 필력촌(筆力村) 용산리의 홍관서(洪寬西) 집에 들어가 군용자금으로 금(金) 30원을 모금하고, 28일에는 전북 금산군 부북면 가마곡리 육석여(陸石汝)의 집에 들어가 130량을 모금했으며, 30일 밤에는 동군 부동면 어재리 장재관(張在寬) 집에 들어가 엽전 30량을 모금하였다. 그리고 5월 5일 밤에는 같은 곳의 장사문과 장군범의 집에 들어가 엽전 185량을 모금하여 의병전쟁 수행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34세 때인 1909년 의병 15명과 함께 무주지방에서 체포되어 15년형을 받았다.

225)[判決. 明治42年刑第163號. 光州地方裁判所全州支部]에서는 장선군으로 기록. 김성진저, ≪항일의병대장 문태서연구≫, 함양문화원, 1999. 292쪽에서 재인용.

■ 참고문헌

≪무주군지≫ 김성진著, ≪항일의병대장 문태서 연구≫, 함양문화원, 1999.

18) 전성범(全聖範, 1870 ~ 1911. 3. 7)[226)]

안성면 오동리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출신이다. 1906년 최익현 의병진에 가담했으나 최익현 부대의 해산 후 독자적으로 기병하여 활동하였다. 1906 년 문태서 의병부대와 합군한 후 중군장을 맡아 수 차례의 전투를 치루었다. 특히 1907년 12월에 있었던 부남면 고창곡 전투에서는 일본군 43명을 사살하고 50여 정의 총기를 빼앗는 전과를 거두었는데, 이 전투에서 선봉장 박춘실과 함께 수훈이 컸다.

그 후 삼남을 두루 다니며 활동하다가 1911년 1월 장수군 계북면 양악의 골짜기에 있는 토옥동계곡의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체포 당했다. 대구감옥에서 극적으로 탈옥한 후 합천에서 피신 중 다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견디며 7일간 단식을 하다가 1911년 3월 7일 끝내 대구감옥에서 순국하였다.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에 그의 무덤과 비문이 있다.

■ 참고문헌

김성진著, ≪항일의병대장 문태서 연구≫, 함양문화원, 1999.

19) 최충길(崔忠吉, 1892 ~ 미상)

적상면 삼유리 출신으로 1909년 의병장 문태서 부대에 들어가 18세의 젊은 나이에 의병 30명과 함께 무주와 진안 지역을 중심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20) 한진수(韓鎭壽, 1879 ~ 미상)

적상면 괴목리 치목마을 출신으로 1907년 의병장 문태서 부대에 들어가 29세의 나이에 20여 명의 의병들과 함께 무주와 진안 등지에서 항일투쟁을 하다가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15년형을 받았다.

226)전성보(全誠輔)와 동일인.

21) 황대연(黃大淵. 1876. 10. 1 ~ 1908. 3. 27)

무풍면 증산리 출신으로 자는 진연(鎭淵), 호는 석정(石亭), 본관은 창원. 어릴 적부터 천품이 늠름하고 의협심이 강하였다.

일찍이 유학을 배웠으며 궁술과 조총술에 능했는데, 특히 사격의 명수로 널리 알려졌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일제의 국권침탈이 가속화되자 사재(私財)를 털어 총기를 구입하고 의병을 모집하여 의병장이 되었으며, 무풍의 대덕산을 근거지로 일본군 수비대와 수차에 걸쳐 교전하였다.

그 뒤 1907년 2월 무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유종환 의병장과 합세하고 포대장(砲大將)이 되어 덕유산과 대덕산 일대를 중심으로 끈질긴 혈전을 치루었다. 1908년 2월 28일에는 문태서가 이끄는 호남의병대와 합세하여 무주 주재소를 급격하여 일본군 12명을 사살하였다. 같은 해 3월 23일 무풍면 지성리 뒤 불래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고, 3월 27일에는 금평리 마실재에서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혈전을 벌이다가 유종환과 함께 전사 순국하였다. 이 곳에 가매장되었던 그의 시신은 1955년 현재의 증산리 사동으로 옮겨져 안장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하였다.

■ 참고문헌

국가보훈처,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제9권, 국가보훈처, 1991, 532쪽.

전북유림록(1964. 6. 5 발행)인편. 무주군사. 무주인물지

오병무, <덕유산지역 의병활동>≪전북지역독립운동사≫,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건립추진위원회, 1994,

22) 황덕화(黃德化, 1876 ~ 미상)

충북 영동(永同) 사람이나, 신명선(申明善) 의진에 가담하여 충남 금산과 전북 무주, 장수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신명선 의병장의 지휘 아래 1907년 11월 30일 황이만(黃二萬) 등 동료 의병 8, 9명과 함께 총기를 휴대하고 충남 금산군에 사는 음대보(陰大甫)와 김내삼(金來三) 집에서 군자금을 징수하였다. 이듬해 1908년 4월 10일에는 신명선 의진의 일원으로 문태서 의진과 합세하여 장수읍을 습격하고 주재소에서 군수품을 노획하는데 참여하는 등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 하였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1908년 11월 30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1909년 1월 19일 대구공소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하였다.

■ 참고문헌

국가보훈처,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제13권, 국가보훈처, 1996, 780쪽.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23) 황이만(黃二萬) (1882 ~ 미상)

적상면 방이리 출신으로 의병장 신명선 부대에 가담하여 충남 금산, 전북 장수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황이만은 1907년 11월 30일 황덕화(黃德化) 등 동료 의병 8, 9명과 함께 총기를 휴대하고 충남 금산군에서 군자금을 징수하였다. 이듬해 4월 10일에는 신명선 부대의 일원으로 문태서 부대와 합세하여 장수를 습격하고 주재소에서 군수품을 노획하는데 참여하였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1908년 11월 30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1909년 1월 19일 대구공소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공로훈장 애국장을 추서 하였다.

■ 참고문헌

국가보훈처,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제13권, 국가보훈처, 1996, 788~789쪽.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351면

3. 망국과 선생안기념비[227)]

대한제국은 일제의 침략적 야욕을 분쇄하지 못하고 종국에는 망국이라는 통한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 나라 잃은 군민의 비애는 말할 것도 없었지만, 명색이 벼슬하던 사람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이들은 관원명부(先生案)을 땅에 묻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현 무주읍 읍내리 상리(上里)에는 그 당시 사령들의 선생안기념비(先生案紀念碑)가 남아

227)이 내용은 1990년 발간된 무주군지에 실린 내용이다. 그러나 필자가 확인한 결과 그 흔적을 찾을 길이 없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990년 발간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

있었는데, 마치 기(基)처럼 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 비석을 세워 놓았다고 한다. 꼭 무덤과 같이 보이나 비석을 보면 무덤이 아니었고, 선생안기념비로 되어 있어 그 속에 사령들의 명부가 묻혀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목격담에 의하면, 사령들이 선생안을 유지(油脂)에 싸서 묻고 술을 따르며 헤어졌다고 한다. 또 아전(衙前)의 선생안은 무주초등학교 뒷산에 묻었다고 하나 찾지 못하였다. 이 작은 비석을 바라보노라면 망국의 비애를 말해 주는 듯 했다고 한다.[228)]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229)]

一大房李漢容
次大房金貴男
長軍房先生案紀念碑
隆熙[230)] 三年己酉二月

[집필 : 이진영]

---

228)≪무주군지≫, 350~351쪽.

229)≪무주군사≫, 247쪽.

230)융희 3년은 1909년을 가리킨다. 따라서 선생안기념비는 망국이 확인되는 1910년 이후에 건립된 것이 아니며, 1907년 정미칠조약의 체결로 군대가 해산당한 이후 실질적인 지방통치 역시 일본제국주의에 넘어갔음을 의미 한다.

제6장 일제 강점기의 무주

제1절 식민지 지배체제

1. 일제의 지방지배정책

일제가 한국의 국권을 침탈하면서 취한 지방지배정책은 급격한 변혁을 피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1910년 국권침탈 당시 지방행정조직은 도·부·군 및 면의 행정 구획은 그대로 두고, 도관찰사를 장관으로 개칭했을 뿐 부윤·군수 및 면장의 호칭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행정구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국을 13도로 구획하고 그 밑에 부·군·도(島)를 두었으며, 말단행정단위로 邑·面을 둔 3단계 조직이었다. 조선총독부 설치에 따라 병합 전의 지방 제도인 13도·11부·317군과 이밖에 이사청(理事廳), 재무감독국(財務監督局) 및 재무서(財務署) 등을 지방 일반 관청에 통합 개폐하였고, 중앙의 직원을 감축하여 지방기관에 이동 배치하고, 중앙과 지방행정체계의 통합을 꾀하였다. 즉 도·부·군·읍·면제는 구(舊)제도를 답습하는 동시에, 이들 일반 지방행정기관과 분립되었던 기관들을 모두 일반지 방행정기관에 통합하고 행정구역을 정리한 것이다.

도에는 서무와 회계를 담당하고 장관을 보좌하는 장관관방(官房)과 지방·권업·학무를 담당하는 내무부, 세무·이재(理財)를 담당하는 재무부로 조직되었으며, 도사무관인 부장을 두었다. 특히 지방경찰을 도장관에 부속시키지 않고 경무총장에 직속시켜 독립시킨 것이 특징인데, 이는 이미 병합 전 경찰권이 일본에 넘어가 헌병경찰조직이 지방행정기구와 별도로 경무총장에게 직속되어 지방치안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장관은 안녕과 질서를 위해 병력이 필요할 때, 조선총독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하나, 상황이 비상급변한 경우에는 즉시 당해 지방주재 군대사령관에게 출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편법을 강구하고 있다. 중앙기관 문관의 권한이 사무적인 일에 국한된 것과 같이 도장관도 조선 총독의 예속하에 법령을 집행하고 관내의 행정사무를 관리하고 소속관리를 지휘 감독

한다(관제 제5조)는 정도의 극히 사무적인 기능만이 부여되었다. 더욱이 정치권력이 극도로 중앙에 집권되어 한국의 도장관은 총독부의 충실한 관리에 불과하고, 상급 지방자치단체 수장의 권한은 극히 제한되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부에는 부윤, 군에는 군수, 도에는 도사(島司)가 도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시정하였다. 12개소가 설치된 부는 모두 개항장이었던 관계로 주로 일본인이 집단 거주하는 특수 행정구역 이었다. 따라서 부윤은 대개 일본인이 임명되고 자치적인 특권을 누렸다. 면은 최하급 행정구획으로 국권침탈 후에도 친일 한국인을 면장으로 충원하여 감독하였으며, 그 지위를 높여 판임(判任) 대우로 하고 동시에 종래의 공과 징수사무 이외에 권업·교육·위생·토목 등의 사무까지 관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대민 접촉의 일선기관장으로서 그 지도·훈련에 세심한 감시를 하였다.

이렇게 일제는 국권침탈 당시 구한국의 지방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한국 지배를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1914년 조선총독 예하 도·부·군을 거쳐 면·동·리에 이르기 까지 물샐틈없는 집권적 행정조직으로 정비하였다. 이는 국권침탈 후에도 한민족의 반일항거와 항일감정이 완강하게 지속되어 지방치안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 비로소 일본인 거류민단제도를 폐지하고 부·군·면을 신설·폐합하여 겨우 행정구역이 정비되었다.

그러나 구획재편이나 지명변경 및 청사이전 등에 대한 지역민의 저항도 완강하였다. 이렇듯 저항이 여전한 지방까지를 일본인이 직접 통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부득이 한국인을 다수 지방관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친일 한국관료를 지방관으로 등용하는 것은 저들의 지방통치의 난점을 해결하고 친일적 중산층을 회유하는 동시에 민족 분열정책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리하여 국권침탈 당시, 13도 장관 중 6인과 군수 전원을 한국인으로 임명하고, 자문직인 한국인 참여관 및 참사제를 두어 각도에 참여관 1인, 참사 3인, 각부·군에 참사 2인을 각기 배치하였으며, 아울러 1914년 4월 부제 실시와 함께 부협의회에는 한국인을 일부 그 회원으로 참여 시켰다.

그런데 지방행정기관에 한국인 관리가 등용되었다고 해서 정무에 직접 참여했던 것은 아니다. 한국인 도 장관이나 군수 밑에는 반드시 일본인 관리가 배치되었고 실권은 그들이 장악하였던 것이다.

1920년대 들어서 일제가 한국식민지배정책에 있어 가장 고민한 것은 한국인에 대한 참정

권 부여 문제였다. 3·1운동 후 민족해방운동의 열기를 식히고 더 많은 친일파를 양성한 조선총독부는 민족분열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족 부르조아의 일부를 문화운동, 자치운동 등 개량주의운동으로 이끌려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인에게도 참정권이나 자치권을 허용할 것처럼 선전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의 독립은 물론 어떤 계급에도 참정권이나 자치를 부여할 의도는 없었다. 3·1운동으로 고양된 조선인들을 회유하기 위한 방책에 불과했던 것이다. 한 때 소위 관제(官製)의 '참정권 부여청원운동'을 전개 시키고 또는 자치부여를 유혹하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일본지배층이 정책적으로 이용한 공수표에 불과하였다.

식민지배 아래서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방법은 조선의회를 따로 만드는 방법과 일본 의회에 조선 대표를 참가 시키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어느 쪽도 허용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 다만 지방행정의 자문기관을 두어 참정권 부여를 선전하고 그것을 통해 친일파의 폭을 넓혀감으로써 완전독립, 절대독립 노선을 고수하는 조선인들을 혼란 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조선총독부에서 참정권 문제가 발설되자 일부 친일파들은 그것에 호응하여 소위 참정권 청원운동을 벌이면서 민중의 반일감정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였다. 그러나 그 주동인물 중 민원식이 살해되었을 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지방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거기에 자문기관을 두어 지방자치에 대한 훈련을 한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결말을 보지 못한 채 끝을 맺었다. 그리고 한국인을 회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용한 것이 하등의 권한도 없는 행정참여 확대를 표방한 자문기관의 설치였다.

1920년 말에 실시된 자문기관 설치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지방제도의 개정은 단순한 지방행정개혁에 그친 것이 아니고, 민족운동에 대응하여 치안유지에 최대 중점을 두는 동시에 친일 매판세력의 육성과 민족주의 우파의 타협적 부분을 친일 경향으로 포섭하고 일제의 식민지배체제의 강화를 기도한 기만적인 정책이었다.

1929년 초 3개월간 투쟁이 벌어진 원산총파업과 같은 해 11월 발생한 항일광주학생운동 등 지방의 정세가 험악해지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총독부는 회유책으로 다시 참정권 문제를 정책적으로 이용하였다. 1930년 12월 지방행정개정의 대강을 발표했는데, 요지는 그 동안 지방행정기관의 자문기관이었던 것을 의결기관으로 개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일제는 자문기관을 의결기관으로 개변하는 것을 위험시하였다. 따라서 한국인 당선

자의 경우, 그가 친일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본인 의원수를 우위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결국 일제는 식민지 지배가 끝날 때까지 한국인에 대한 정치, 행정 참여의 길을 봉쇄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의결기관이건 자문기관이건 한국인 참가자는 친일파나 이에 준하는 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총독부는 언제나 지방의회 내에서의 민족적 대립을 예상하고 일본인의 우위 확보만을 염두에 두고 대비한 것이다. 일본 당국은 민중으로부터 백안시당한 친일파까지도 불신하여 경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한편 친일파도 민중을 의식해서 민족적인 존재로서 外皮나마 가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방제도의 개편만으로 민족해방운동의 격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일제도 알고 있었다.

2. 토지조사와 산업구조

1) 토지조사사업과 일제의 농업정책

개항 초기부터 조선의 토지침탈에 광분하던 일본은 국권침탈 이후 본격적으로 토지침탈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토지제도로는 그들의 토지소유는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총독부의 입장에서는 토지를 장악하지 않으면 식민지 지배를 위한 재원확보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조선 전체를 측량하여 토지를 철저히 조사·파악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다. 조선인의 절대 다수가 토지에 매달려 생활하는 농민이었기 때문에 토지와 농민을 파악하면 조선 경제의 명맥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국권침탈 직후 토지조사사업을 위하여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였다. 이 사업은 1910년 3월부터 시작, 1918년 11월에 완료되었는데,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소유권과 가격 그리고 지적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신고주의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에게 토지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본관청에 신고한 사람에게만 인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때까지 민간에서 광범위하게 인정 받아 온 토지소유문기(文記)는 인정 받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교육이 넓게 보급되고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그 당시 농민의 대부분이 문맹으로 그러한 근대법에 익숙하지 못했고, 법적 수속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물론 없었고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도 극히

드물었다. 따라서 신고주의는 농민의 법 지식이 부족하고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정보 또한 부족한 점 등을 이용한 수법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를 내포하고 있었다. 설혹 절차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실시하는 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기피하는 농민도 있었다.

또한 국유지나 동중(洞中), 문중(門中)의 공유지는 신고주가 없어 총독부 혹은 유력한 인사들에게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 결국 근대적인 토지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미명하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은 총독부와 일본 국가자본에 의한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植株式會社) 그리고 소수 대지주의 토지 점탈로 귀결되었다. 동척(東拓)은 '한국 농업의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막대한 일본 국가자본으로 한국의 국유지, 민유지를 매수·약탈하여 일본 농업이 민을 유치하고 한국침략의 전초적 역할을 수행한 기관이었다.

지주들의 대부분은 이 사업으로 토지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자작농이나 자작 겸 소작농의 대부분은 몰락하여 소작농과 농업노동자로 전락하거나 화전민 혹은 만주 등지로 떠나가는 사례가 많았다. 전 농가호수의 3.3%, 호수로 보면 대략 9만호 정도가 전농지 면적의 반 이상을 소유하게 있었다. 물론 이 3.3%에는 일본인, 한국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대략적인 경향을 보면 중소지주일 경우에는 한국인 지주의 비율이 높고 일본인 지주의 경우는 농장 형태를 소유한 대지주가 많은 편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은 결국 오래전부터 일본인 자본가와 고리대업자가 강제적 또는 반강제적으로 탈취한 토지에 대해, 그들의 기득권을 사적으로 확인하여 주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종래의 봉건적인 수조권자에게 근대적인 토지소유권을 인정해 준 것이었다. 봉건적인 착취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새로운 지주로서 일본인과 일부 한국인 신흥지주가 가세 한 것이었다. 더구나 소작료는 원칙적으로는 50%였지만 실제로는 70%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경지의 반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50~70%가 전체 농가의 3.3%에 지나지 않는 지주에게 집중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작조건의 악화였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일어난 소작쟁의는 소작료가 너무 높아 이를 낮추려 하거나 빚을 면제 받기 위해 일으키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작쟁의를 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지주에 의한 소작권의 이동이었다. 지주는 소작농가가 마음에 들지않으면 언제라도 소작권을 빼앗아 다른사람에게 넘겨버렸다. 따라서 소작료의 높고 낮음을 논하기 이전에 소작권 확보가 문제였다. 토지에 매달리는 것 이외에는 생활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가을이 되면

소작농은 소작료를 모범적으로 납부해야 했다.

또 하나 문제로 지세(地稅)를 들 수 있다. 이는 당연히 토지소유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소작농민이 지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결국은 지세 및 공과금의 지주부담이 1920년대 소작쟁의에서 하나의 쟁점이 되었다.

2) 일제의 산미증산계획

토지조사사업을 끝낸 일본 제국주의는 1920년대로 접어들면서 '산미증식계획'이라는 새로운 식민지 농업정책을 실시했다. 산미증식계획은 조선을 항구적 식량공급지로 묶어두려는 본래의 식민지 경제정책이 토지조사사업에 이어 구체화된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의 독점 자본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중생활은 크게 궁핍해졌고, 특히 농촌의 희생이 강요되었다. 이 때문에 농업생산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전쟁 중에는 대규모의 식량폭동이 일어났다. 이에 일본은 조선에서의 식량증산을 강행하여 식량의 안정된 공급로를 확보 해야 할 사정에 처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토지조사사업이 이미 끝나 식량공급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192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은 식량확보와 저임금 유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조선인 지주층을 적극적으로 동화시켜 식민지 지배체제의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으로 급성장한 일본의 과잉자본을 아직 기초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조선의 공업부문보다 대규모 관개시설과 경지정리를 중심으로 한 농업부문에 침투시켜 수리조합·금융조합 등을 통한 고리대로 더 높은 이윤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미증식계획은 조선 쌀의 일본 수출을 증가시키는 한편 일본인과 일부 조선인 지주에 의한 토지겸병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조선의 중소지주와 자영농 그리고 빈농층은 몰락해 갔다. 산미증식계획의 중심 사업인 수리조합의 경우, 2%에 불과한 10정보 이상의 지주가 경작지 총면적의 53% 이상을 점유하였는데, 다수의 빈농과 소농층의 이익은 무시되고 대지 주의 결정에 따라 운영되었다. 그 결과 중소지주와 자영농 및 빈농층은 과중한 수리조합비 부담 때문에 혹은 조합측의 계획적인 압박으로 토지를 잃어갔다. 1920년부터 1931년까지 전라북도 내 5개 수리조합 안에서의 토지이동 실정을 보면, 이 기간에 일본인 지주의 수는 2배로 그 면적은 약 2.5배로 증가한데 반해, 자작농을 포함한 조선인 토지소유자는 5.8%,

조선인 소유지는 15.2%가 줄어들었다.

그럴즈음 1930년 전후의 세계공황은 일본에도 파급되어 매우 심각한 사태에 빠졌다. 특히 농업공황은 심각하여 일본 농촌에서의 소작쟁의를 더욱 심화 시켰다. 그런 세계공황에 의한 타격이 조선을 비껴 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심각성은 일본 본토보다 더한 것이었다.

그 당시 조선 총인구의 80%가 농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지면적의 50% 이상을 전 농가의 3.3%에 불과한 10만호 미만의 지주가 독점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농가호수의 37.6%가 소작농, 39.3%가 자작겸 소작농이었다. 즉, 전 농가의 80% 가까이가 전혀 토지가 없거나 토지가 부족한 농민이었다. 이에 더하여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에 의해 일본 본토의 식량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미곡 중심의 단작형 농업이 강제되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일본에서의 쌀값 폭락과 조선 쌀 이입반대운동에 의해 1934년부터 중단되었다. 자연히 일본의 농업공황은 조선의 농촌에 악영향을 미쳐 소작쟁의가 첨예화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총독부는 공황이 휩쓸고 간 조선에서의 농업문제를 타개하고, 나아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운동을 폈다. 또 사법기관의 조정을 통해 소작쟁의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조선소작조정령(朝鮮小作調整令)을 발표했다. 이것은 농업생산력을 높일 뿐 아니라 소작권의 안정을 추구하여 대륙침략의 기회를 확대하고 농민에 대한 회유와 농촌 통제의 효과를 얻으려는 조치였다. 농업공황을 거친 1930년대의 조선 농촌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이때문에 식민지배체제가 위협 받게 되자 식민지 지주제와 함께 농촌사회에 대한 안정책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침략전쟁이 확대되면서 일본은 조선 농민에 대한 농산물 수탈을 한층 더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출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중일전쟁으로 전시체제에 들어간 일본은 증가하는 식량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해(旱害)가 극심했던 1939년부터 다시 미곡증산계획을 실시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한층 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조선증미계획, 조선증미갱신계획 등을 실시하여 식량 증산을 꾀했다. 또 임시농지관리령을 제정하여 농지의 절대량을 확보하고 식량증산을 도모 하고자 했다. 이에 더해서 조선총독부는 본격적인 식량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1940년도부터 생산되는 미곡은 공정가격에 의해 각 농가로부터 미곡을 강제수매하는 방법, 즉 공출제도를 실시했고 식량배급조합을 설립하고 식량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였다.

초기의 공출제도는 과잉지역의 과잉수량을 공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가격에 의해 자발적 공출을 장려한다는 명분하에 지주층의 소작료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의 도발로 전장이 확대되고 재정 및 식량 사정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1942년부터는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전량이 강제로 공출되었고, 잡곡에 대한 공출까지 실시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세운 기본적인 농업정책은 조선을 일본의 항구적인 식량공급지로 만드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 식민지 지주제를 재편·강화하는 것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이나 산미증식계획도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의미가 크다. 농촌진흥운동이나 농지령 등도 겉으로는 농민생활, 특히 소작농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선전했으나 사실은 조선 농촌을 안전한 식량공급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활성화되어가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했다.

3) 일제의 수탈과 무주

무주군은 고산준령에 둘러싸인 지형 때문에 평야가 적다. 다만 읍내 부근 및 무풍과 안성 등에서 평탄한 경지를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무주군내에 100정보 이상의 경지를 소유한 지주 오성근(吳盛根)과 김영곤(金榮坤) 등은 소작지 관리 사음을 6명이나 둘 정도로 경지가 소수 지주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일본인들까지 무주에 진출하여 토지를 집적하고 있어서 1927년 당시 무주군 전체 소작농가 7,631호 중 일본인 지주에 예속된 농가가 675호로 8.8%를 점유하고 있었다. 물론 평야부에 비한다면 대지주에게 편향된 경지나 일본인 지주에 예속된 농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33년 전북일보사 발행 『전북안내』에 따르면, 1933년 말 무주군에 있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호수는 전업 8,049호와 겸업자 364호로 합계 8,413호에 이르러 총호수 9,610호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무주군 농민의 형편을 짐작할 수 있다. 경지는 1모작답 2,410정(町) 9단(段), 2모작답 1,573정(町), 밭 3,448정(町) 2단(段), 합계 7,432정(町) 1단(段)으로 농가 1호당 평균경지면적은 8段 8묘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주군내에서 농업에 종사한 대부분의 농민들은 절대빈곤에 시달려야만 했다. 더구나 소작관습에 따라 농민은 지주에게 수확물의 50% 이상의 소작료를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과부담에다 지주에게 수시로 무상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했다.

이에 무주군내에서도 농민이 모여 단체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평야부 논농사 지역의

농민은 1920년대부터 이미 자신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지만 무주군은 이보다 조금 늦게 나타난다. 또한 평야부만큼 치열하지는 않았지만 대지주들의 횡포에 대한 무주군 농민의 투쟁은 계속되었다.[231)]

그 중에서 1931년 12월 6일경 무주군 부남면 10여 개 마을의 소작인 천 여명이 동맹 결의하여, 종래 소작인들이 부담하던 지세를 지주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여 면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며 단체행동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농민의 태도는 매우 강경하여 면장이 만일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군 당국에 제출할 것이며, 군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도 당국에 제출할 것이라 하였다.

본래 부남면에서는 수전(水田·논) 약 200평에 대한 소작료가 1석(石)이었다. 그런데, 원래 토지도 별로 비옥하지 못한데다가 더욱이 그 해에는 수확마저 적어 이 같은 일이 발생 하였던 것이다. 지세는 원래 지주들이 부담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지만, 재래적 습관에 의하여 지주측의 태도도 역시 강경하여 농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면에서는 지세를 거두지 못해 곤란을 겪게 되었다.[232)]

4) 산업구조

본래 조선은 농업국가 였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조선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토지약탈을 위해 농업부문에 대부분을 투자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였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직 중요한 투자부문은 아니었지만 서서히 광산 및 가공공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특히 농산물 약탈을 목적으로 한 정미업과 방직공업 등이 발전하고, 지하자원개발을 목적으로 광산 등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공업의 비중은 아직 농업생산액의 20%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생산액 중에서도 수공업적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1920년대로 들어서면서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성장한 일본 독점자본이 본격적으로 조선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조선에 진출한 대표적인 일본 독점자본은 미쯔이(三井) 재벌을 비롯하여 미쯔비시(三菱), 노구찌(野口) 재벌 등이었다. 이렇게 일본자 본의 침투가 급격히 이루어졌지만, 이 시기의 공업은 여전히 경공업, 특히 식료품 가공업이 압도적이어서 전체 공업생산액의 63.5%를 차지했고 기계공업은 1.3%에 지나지 않았다.

---

231)무주 지역에서의 소작쟁의 건수의 추이를 보면 1935년 63건, 1936년 134건, 1937년 9건, 1938년 35건, 1939년 34건 등이다.

232)매일신보, 1931년 12월 29일자, 무주 부남면 소작쟁의

193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경제공황에 쫓긴 일본 독점자본의 조선 침투가 한층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더구나 일제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이 병참기지로 규정됨에 따라 공업구조 전체가 군수공업 체제로 바뀌어갔다. 1920년대 후반기의 경제공황으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강화시킨 일본의 독점자본은 그 돌파구의 하나를 풍부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이 있는 식민지 조선에서 찾았다. 일본에서는 기업운영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데 비해, 조선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노동운동을 적극 탄압하여 일본 독점자본의 조선 진출을 도왔던 것이다.

한편, 만주 및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조선의 공업분야에 투자하기 시작한 일본 독점자 본은 조선의 수자원(水資源)을 이용한 전력 개발을 뒷받침으로 하여 시멘트, 화학, 비료 등 중화학공업과 만주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사, 방적업 분야에 대규모 진출했다. 1937년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으로 전쟁이 확대되자 일제 독점자본은 조선의 군수지하자원의 개발과 조선의 입지조건을 이용한 군수공업의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전쟁의 확대, 군수산업의 확충계획에 따라 조선의 지하자원에 대한 일본의 기대는 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1938년 3월에는 중요 광물증산령을 발표하고 군수산업에 필요한 지하자원을 개발 하였다.

전쟁이 확대되고 전시경제통제가 강화되면서 원료자재, 노동력이 군수공장에 강제적으로 집중됨에 따라 중소공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식민지 공업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 조선의 공업은 일본 독점자본의 지배도가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져서 공업생산의 모든 부분에서 일본자본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이다. 민족산업자본은 대부분 중소공업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침략전쟁 중에 발달한 중공업은 일본 독점자본에 의해 고도로 집중되어 조선인의 경제생활과는 거의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경공업 역시 조선인의 수요를 위하여 발달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초과이윤 획득을 위해 유리한 부문만 발달하였다.

일본 군수자본이 대량으로 진출함에 따라 식민지 노동자의 광범한 층에 전시 강제노동이 강행되었다. 군수광물의 적극적 개발과 군수공장의 대량적 건설에 따라 광공업 노동자수는 급격히 증대되어 1943년 6월에는 55만 명, 광산노동자는 8만3천명으로 증가하였다. 급증 된 군수산업의 노동력 수요는 부녀자 및 유소년 노동력의 동원과 농촌 및 도시에서 모집 또는 징용한 노동자로 충당했다. 이러한 노동력은 아주 저렴했고 노동시간도 일본에 비해 훨씬 길어서 조선의 공장, 광산의 노동시간은 보통 1일 12시간에서 13시간에 달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도 조선 농촌은 여전히 그 생활필수품의 상당한 부분을 가내수공업적 생산품에 의존하고 있었다. 농촌에서 사용되는 재래의 농구는 대부분이 근대적 공업에서 제공되지 못하고 대장간에서 생산되었다. 부분적으로 도입된 개량농구 및 동력작업기 역시 매우 적은 양으로 조선의 공업에서 공급되었다. 발동기 전부와 기타 개량 농기구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수입되고 조선의 공업생산물로 농촌에 들어가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화학공업의 비료생산도 일제의 식량약탈과 결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화학비료도 농촌의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거리가 있어서 농촌 소비비료의 대부분은 여전히 자급자족 상태에 있었다. 또한 농촌에서 소비한 화학비료도 전면적으로 조선공업에서 공급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원료의 대부분은 일본이나 만주에서 수입되었던 것이다.

조선의 농촌은 일제의 식민지 약탈과 결부되어 있고 공업에 각종의 농산물을 제공해야만 했다. 이것은 물론 조선 농민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농산물 가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제의 농산물 약탈의 필요에서 생긴 가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농촌은 각종 곡물, 축산물, 면화, 견 등을 공급했다.

식민지 시대 조선의 공업시설 배치는 조선경제 전체의 발전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통치목적과 원료 약탈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식민지 공업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났다. 우선 일제는 조선 내에서 원료를 약탈, 반출하고 또는 자기 상품을 수출하기 편리한 지역에 공업을 배치하였다. 인천, 군산 등 쌀 생산지를 배경으로 한 항구에는 도정업이 집중적으로 발달했고 금속공업, 화학공업 등은 원료와 전력이 편중되어 있는 북쪽지역에 집중되었다. 경인지방에 기계공업, 방직공업이 집중된 것은 원료 및 동력 문제보다는 그곳이 정치, 교통, 소비 중심지라는 배려 때문이었다.

일제에 의한 공업건설이 주로 원료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공업배치에서도 완성품 생산을 위한 일관작업 공장은 필요하지 않았고, 일정 지역에서 일관성 있는 작업을 추진 할 필요도 없었다. 따라서 부분적 공정만을 담당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여타 부문과 분리하는 배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금속공업은 청진, 성진, 송림 등에 집중되어 있지만 기계기구공업은 멀리 떨어진 경인지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 두 부문의 생산적 연계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배치 또한 편중되어 있었다.

이렇듯 일제에 의한 공장설치로 지방의 경제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다. 거기에는 지방의 경제적 낙후와 대도시로의 집중이 나타난다. 일제에 의한 공장 설치는 전체적으로도, 부문별로도, 심지어는 지역적으로도 편중되어 있었다.

전라북도의 공업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산업을 제외하고는 매우 지체되어서 전래의 농가부업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식료품공업 특히 정미업을 제외하면 주로 제지(製紙), 요업(窯業), 선자(扇子), 양조업(釀造業) 등이 전라북도 공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무주군의 산업구조

무주군의 경우는 삼림지대를 배경으로 한 인쇄, 제지업이나 목재업 등이 주로 이루어졌던 것 같다. 그러나 이들 산업은 대부분 원료를 가공하는 정도의 원시산업 내지는 1차 산업부문 이 차지하였고 공업생산액도 전체적으로 보아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다.

다만 주목되는 것은 1934년 무주산 호척지(胡尺紙)를 만주에서 대량으로 주문하여 전북 생산품목으로는 처음으로 만주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233] 또 무주, 무풍, 적상, 안성면 등 10여개소에 금, 은, 동광이 있었다고 하는데 생산량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사회생활의 변화

문호개방 이전의 조선 시대에 어느 정도의 농민 분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농촌에서 경작지를 잃고 농업노동자로 전락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한편,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문호 개방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었지만, 이 시기에 는 아직 도시와 농촌 지역을 막론하고 토지에서 이탈된 인구가 빈민화하고 그것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문호 개방 이후부터 식민지화하는 시기까지는 아직도 농지소유형태상의 획기적인 변화없이 지주·전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속에서나마 농민층의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소작 조건은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었고 농민적 토지 소유도 대단히 제약된 조건속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어가고 있었다. 농민층의 토지이탈을 불러올 만한 도시의 자본주의적 발달도 두드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그 인구를 밀어낼 만한 조건도 아직은 크게 나타나 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직후 일제에 의해 강행된 토지조사사업은 농민의 토지 이탈을 촉진하는

233)매일신보 1934년 2월 17일자 茂朱産 胡尺紙를 滿洲國서 大量 注文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농민은 이른바 농장형 지주경영의 등장으로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경작면적은 감소되어갔다. 여기에 일본인 이민 의 증가와 토지경영을 통해 자본주의적 영리를 추구하는 식민지형 지주경영의 결과로 소작료는 급격히 고율화 되었으며, 종래의 영구소작제가 계약소작제로 변함으로써 농민들의 소작권은 극도로 불안해졌다.

그리하여 소작농민은 좁은 소작지로 적자 영농에 시달리는 반실업자적인, 조선총독부가 말한 세궁민(細窮民)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심한 경우는 소작지를 완전히 잃은 완전 실업자가 되어 농촌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식민지형 지주경영의 초과 이윤 획득과정에서 노동량의 상대적 감소 결과로 생겨난 이른바 상대적 과잉인구로서의 농민실업자는 농촌을 떠나 그 생활 방편을 다른 곳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반적으로 농촌에서의 자본가적 경영의 발달이 농민분해를 촉진시켜 일부 농민을 쫓아 내는 한편 도시지역에서의 자본주의적 성장이 농촌에서 분출된 인구를 그 값싼 노동력으로 수용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의 조선은 농촌에서 분출되는 인구를 수용할만한 조건에 있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산간지대로 들어가 원시적인 생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192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화전민과 도시지역의 토막민(土幕民), 그리고 전국 각 지방 토목 공사장의 날품팔이 노동자 등은 모두 농촌빈민 출신의 자기소유가 없는 노동자적 존재 들이었다. 또 많은 이농민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남부여대(男負女戴)하여 만주, 시베리아, 일본 등지로 이민을 떠났다.[234] 1930년대에는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일본으로 갔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직장을 얻지 못해 되돌아왔는데도 일본 노동시장에서 값싼 조선인 노동자는 계속 증가해갔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으로 도항한 한국 농민의 수는 약 100만명에 달하였다.

이들의 임금 수준은 일본인보다 대단히 낮았다. 1928년 오사카(大阪)의 통계에 의하면, 광부의 겨우 일본인 최고임금이 하루 3원 이었던데 비해 조선인은 2원 30전이었다. 방직공의 경우 일본인 직공의 최고임금이 2원 80전이었고 조선인 직공은 2원이었다. 일본으로 간 조선인의 대부분은 육체노동에 종사하면서 극심한 민족적 차별대우 속에서 연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

234)매일신보 1936년 4월 29, 30일 눈물로 보내는 무주 육십명 이민 기사를 보면 무주지역에서도 수십명이 한꺼번에 만주로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주와 연해주 지방에는 이미 식민지 이전부터 유리민이 들어갔고 식민지로 접어들면서 그 수가 증가했다. 1930년대에는 대체로 만주지방에 1백만, 연해주 지방에 5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들은 90%가 소작농민이었다.

일제 강점기 농촌빈민의 이농(離農) 현상은 도시지역에서의 노동시장 형성에 의한 노동력 흡인의 결과가 아니라 농촌 내부에서 생산수단을 잃고 노동자적 처지에 빠진 농민의 실업· 빈민화·파산에 의한 이른바 밀어내기식 이농이었다. 따라서 농촌을 떠난 인구를 도시에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고, 그 상당한 부분이 다시 농민으로 주저앉되, 이번에는 일반 농토가 아닌 깊은 산 속의 화전민이 되었다.

1920년대를 통해서 1년에 15만 명 이상의 농촌빈민이 농촌을 떠났지만 공장 노동자 수는 1930년대 초에도 10만 명을 밑돌고 있었으므로 이농민이 공장노동자로 수용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었다. 운이 좋아서 공장노동자가 되었다고 해도 한국인 임금은 일본인의 절반도 되지 못하였으며, 한국인 성인의 임금이 일본인 성인 여자임금보다도 못할 정도였다. 또 전쟁이 시작된 후에는 비상시국을 빙자하여 무리하게 노동시간을 강요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해마다 분출되는 이농인구를 비교적 대량으로 흡수하는 길은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벌이는 일이었으며, 그것은 값싼 노동력으로 식민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시설을 마련하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1930년대 후반까지도 공장노동자 수가 15만 명을 밑돌던 상황에서 양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노동자는 토목 공사장 막일꾼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상을 보면, 전국 각지에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토목 공사장을 철새처럼 따라다니면서 싼값으로 날품을 팔아 연명해 가는 하나의 빈민에 지나지 않았다.

1920년대 초엽부터 전국의 대도시와 중소도시 주변에 나타난 토막민은 우리 역사 위에 처음으로 형성된 이른바 근대적 빈민의 일종이었다. 식민통치의 또 하나의 치부인 토막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제의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이 길어 짐에 따라 토막민의 수는 계속 증가하였고 빈민굴의 그들 생활은 계속 곤궁해져만 갔다. 더욱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급속히 진행되었고,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대중의 궁핍화와 독점자본에 의한 수탈을 더욱 가중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식민지의 인플레이션 발전은 대중에 대한 수탈이 그만큼 더 강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전시 중 조선인들이 부담해야 할 조세는 더욱 증가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전비 보충과 군수산업시설의 확충, 전시행정에 따라 늘어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세율 인상과 각종 과세를 신설하였다. 조선인의 부담으로 각종 군사시설과 군수산업시설을

하고 군수산업자본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충당하였던 것이다.

군용물자 확보를 위한 강제적 소비절약, 물자의 강제공출, 징용 및 근로봉사 등에 의한 무상노동의 강제 등은 각종의 수탈과 함께 전시수탈정책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러한 전쟁의 무거운 부담을 조선인에게 전가 시켰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이 계속되면 될수록 조선인의 궁핍화를 급속도로 진전시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선인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강점기 말기인 1940년에 이른바 불량주택 거주자를 합쳐 전국에 16만명정도로 증가한 이들 도시지역 빈민문제 역시 식민지 지배체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전쟁노동력의 일부로 이용되었으나 해방과 함께 그대로 도시빈민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일제의 지배정책 하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필연적인 산물이었고 결국 해방 후의 문제로 넘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2절 항일민족운동

1. 3·1운동과 무주

1910년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총독부를 설치하여 통치하였다. 총독은 군인 출신이 임명되었고 일본의 내각총리대신과 동격으로 우리나라 입법·사법·행정 및 군대통솔권을 장악하였다. 초대총독으로 임명된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한국인의 저항이 워낙 강한 것을 알고 헌병이 경찰 업무를 맡도록 하는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헌병경찰에게는 치안 뿐 아니라 사법·행정에도 관여할 수 있는 광범한 권한을 부여하여 한국인의 생사여탈권을 행사하였다. 이밖에 일본은 2개 사단의 병력을 서울의 용산, 평양 등지와 지방에 배치하여 무력통치 조직을 구축하였다.

총독부는 항일민족운동의 뿌리를 뽑겠다는 생각으로 애국인사들을 대량으로 체포·구금 하였다. 또 모든 정치 결사단체를 해체시키고 민족 언론지들을 폐간시켰다. 그리고 민족교육을 금지시키기 위해 학교의 설치와 교육내용을 총독부가 통제하였다. 또한 한국인을 억압하기 위해 일반관리나 교원에게도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고 다니게 하였다.

이러한 야만적인 무단통치를 겪으면서 분노와 각성이 한층 커지면서 민족의 역량이 하나

로 결집되어 갔다. 드디어 1919년 3월 1일 평화적 만세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으니, 이는 일제에 의해 침탈된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독립을 되찾기 위한 일대 시위운동 이었다.

3·1운동을 국내에 점화 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동경유학생의 궐기였다. 1918년 말부터 다음해 1월에 걸쳐 유학생 단체인 학우회의 회장 최팔용 등이 중심이 되어 동경에서 비밀회의를 계속하였다. 그들은 이광수를 상해로, 송계백을 국내로 각각 파견하여 동경유학생들의 궐기계획을 전하고, 이에 대한 호응을 요청하였다. 1919년 2월 8일 오후 2시부터 동경의 조선YMCA회관에 학우회 임원선거 명목으로 모인 약 600명의 유학생은 조선청년독립단의 명의로 독립선언서, 민족대회소집청원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를 각 국 대사관, 공사관, 일본 정부의 각 대신, 귀족원, 중의원, 조선총독부, 각 신문, 잡지사, 여러 학자들에게 발송하였다.

유학생들은 독립선언 후 시위를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과 충돌하여 대표 10명을 비롯하여 60여명이 체포되고, 그 중 십 수명이 부상당하였다. 그 후에도 잔류학생은 시위와 항의를 계속하여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3월 19일에는 염상섭 등이 오사카에서 독립선언집회를 계획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국내에서는 1919년 1월 21일 발생한 고종의 급사가 일본에 의한 독살이라는 설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3월 3일 국장일을 기해 국내의 독립운동이 계획되기에 이르렀다. 손병희 등 천도교 인사, 이승훈 등 기독교계 인사, 한용운 등 불교계 인사들이 연합하여 대외적으로 우리의 독립을 청원하고 대내적으로는 대중화·일원화·비폭력의 3대 원칙에 따라 운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거사시기는 고종의 장례일인 3월 3일의 이틀전인 3월 1일 정오로 정하였다.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서명한 독립선언서도 이종일에 의해 비밀리에 준비되어 전국에 미리 배포되었다.

서울의 민족대표들은 원래 군중이 많이 모이는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예정이었으나 폭력사태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음식점인 태화관으로 옮겨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제 관헌에 이 사실을 알려 자진 투옥되었다. 그 대신 탑골공원에서는 민족대표를 대신하여 김원벽(연희전문), 강기덕(보성전문), 한위건(경성의전) 등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다음 군중시위를 주도하였다.

군중들은 세 무리로 나누어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밤 11시경까지 시위행진을 벌였다. 당일 평안북도 선천, 평안남도 평양, 진남포, 함경남도 원산 등지에서도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3월 10일경까지의 만세운동은 천도교, 기독교 조직이 강한 이북 지방에 집중되었다. 이어서 체포된 지도자들을 탈환하기 위한 시위군중과 군경의 충돌이 있었고, 이에 따라 유혈사건도 빈발하였다. 이 때부터 운동은 점차 남부지방으로 파급되었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되었다.

민족대표들이 최고 3년형을 받았다가 일본의 회유정책으로 형기 전에 모두 풀려난 데 반해 시위에 참여했던 민중의 피해는 컸다. 시위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작되었으나 일본이 무력으로 탄압함으로써 폭동화 되었고 희생도 그 만큼 컸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의하면, 5월말까지 지속된 이 운동으로 전국 211개 군에서 2백여만 명의 국민이 1,500여 회의 시위에 참가하여 사망자 7천5백여명, 부상자 1만5천 여명, 체포된 자 4만7천 여명, 훼손 교당수(敎堂數) 47, 훼손 민호수(民戶數) 715호로 그야말로 거족적인 독립의지를 유감 없이 보여주었다.[235] 3·1운동은 비록 민족 해방을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일제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사에 여러 가지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남겼다.

독립선언서가 전라북도에 전해진 것은 두 경로에 의해서 였다. 하나는 천도교의 인태익(印 泰益)이 갖고 내려와 이리에서 이중달(李仲達)에게 일부분을 전하고 그 나머지를 전주에 가지고 와서 전라북도 천도교 조직망을 통하여 강경, 김제, 이리, 금마, 용안, 여산, 함열 등 10여 개 지방에 고루 배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독교 교회망을 통한 것으로 세브란스 의전 학생인 김병수(金炳洙)가 군산으로 가지고 와서 기독교계 사립학교인 영명학교(永明 學敎) 교사 이두열(李斗悅), 박연세(朴淵世), 송헌정(宋憲正), 고석주(高錫柱), 김수영(金洙 榮) 등에게 전한 것이다.

이렇게 독립선언서가 일반에게 배포되기는 하였으나 일제 관리들의 삼엄한 감시와 철저한 수색으로 만세시위운동은 곧바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전북지방에서 제일 먼저 만세시위 운동을 벌인 곳은 군산으로 영명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3월 5일을 기해 펼친 것이었다. 그 뒤를 이어 임실, 전주, 김제 등 만세 시위가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전북지방 14개군 모두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무주의 3·1운동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다지 주목할만한 것은 아니었다. 도시와 멀리 떨어진 산간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징 때문에 만세운동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

235)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서울신문사, 1946. p.90.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한 달이나 늦은 4월 1일이 되어서야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무주 지역의 만세운 동을 주도한 인물은 전일봉(全日奉) 이었다.

무주군 적상면 사람인 전일봉은 1896년에 태어났다. 그는 일찍이 신 학문을 접하고 민족자결을 통해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독립 정신을 갖게 되었다. 때마침 서울에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받아본 전일봉은 동지들을 규합하여 거사계획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동생 전기봉, 한태선, 서재순 등과 만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매일 심야에 모여 태극기를 그리



무주지역 3 · 1운동을 주도한 전일봉 애국지사 재판문서

면서 때를 기다렸다. 드디어 3월 30일 밤을 이용하여 여울교회에 보관해 두었던 태극기를 각기 나누어 분산시켰다.

4월 1일은 무주읍 장날이었다. 전일봉은 시장이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인 오후 2시, 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연설을 시작하였다. 연설이 절정에 이르자 송희중과 김재순이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고 뒤이어 무주보통학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장에 모인 군중들이 이에 호응하였으나 일경의 제압으로 해산되고 전일봉은 체포되었다. 그 후 전일봉은 금산지청으로 압송되어 보안법 제22조 위반으로 구속되었는데, 이에 불복하여 대구 고등법원에 항고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전일봉 지사 동상

그 외에도 무주시장의 만세사건 당시 무주보 통학교 생도 50명이 중심이 되어 시위를 하다가 2명이 죽고 4명이 검거되었다고 하고, 이후 5월 까지 7회에 걸쳐 3,500명이 참가했으며, 그 중에서 일제에 의한 부상이 21명, 검거된 애국지사는 18명이었다고 한다. 무주지역의 3·1운동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다른 지역과 달리 신흥종 교단체인 증산교(일명 흠치교)나 공도회 등이

중심이 되어 시위운동이 전개된 점이다.

적상면의 신종범은 증산교인들에게 “교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민족은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살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겪었다. 또한 무주읍내의 이두현은 무주와 금산 등지에서 “공도회는 우리 민족 정신과 사상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니 공도회에 가입하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두현 역시 체포되어 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겪어야 했다.

2. 무주의 민족운동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강인한 독립의지를 알게 된 일제는 ‘문화의 창달과 민력의 충실’을 시정방침으로 하는 이른바 문화통치를 표방하였다. 총독부는 무단통치에서 유화적인 문화통치로 전환하면서 몇 가지 개량적인 조치를 취했다.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꾸고 관리나 교원의 제복과 칼차기를 폐지하였으며, 언론·출판·집회·결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러나 헌병경찰제도를 폐지하는 등 유화정책을 쓰는 체 하면서 실제는 무단통치기의 헌병이 문화정치의 경찰로 옮겨 앉았고, 보통경찰의 수를 대폭 증가시켜 식민통치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헌병경찰을 폐지하는 법령에 의하면, 헌병의 장을 총독부의 경무총감에 임명하고 조선헌병대 소속의 헌병이 조선총독부의 경찰관에 임명되는 경우 복무연한에 관계없이 예비역에 편입시켰다. 또 조선인 헌병보조원을 대량으로 양성하여 헌병대와 경찰서에 배치하였다. 실질적으로 헌병경찰제도가 그대로 연장되는 길을 열어놓았던 것이다.

또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사상통제와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을 오히려 강화하였다. 이 시기에 고조되어가던 반일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국체(國體)를 변혁하고 또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한 결사를 조직하거나 그 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는 조항으로 시작되는 치안유지법을 만들고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와 기타 운동자’를 단속한다는 이유로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였다.

교원이나 문관이 칼을 풀고 헌병의 경찰행위는 일단 없어졌으나 모든 경찰기구가 불과 1~2년 사이에 3배로 증가하여 1군(郡) 1경찰서, 1면(面) 1주재소 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리하여 치안유지법에 의한 특고형사와 사복형사, 밀정들의 독립운동 요원 및 지식인, 학생에 대한 감시와 체포가 크게 강화되었다.

3·1운동 후 문화통치를 통해 기도한 민족분열정책은 새로운 친일파 양성정책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국권침탈 전 일본 유학생, 정치망명자, 고급관리의 일부를 협박 매수해서 친일파로 만들고 이들을 침탈과정에서 적절히 이용했다. 그러나 침탈 후에는 이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식민지 통치에 참여 시키고, 그 밖의 대부분은 실권없이 우대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3·1운동이 폭발하자 당황한 일본은 친일파를 앞장세워 사태수습에 이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이 전혀 효과를 거둘 수 없었을 뿐 아니라 3·1운동의 열기 속에서 오히려 그 일부가 친일대열에서 이탈하여 친일세력이 약화되었다. 침탈때 이용한 친일세력 만으로는 3·1운동 후 식민통치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된 일본은 새로운 친일세력을 양성하여 식민지 통치에 이용하고 민족세력을 분열시킬 정책을 세운 것이다.

3·1운동 후 사회주의사상이 들어오면서 조선인 사회에도 지주·자산가 계급과 소작인· 노동자 사이의 이해관계와 대립이 첨예화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이를 기회로 사회주의노선과 소작농민 및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지주와 자산가 계급을 보호하여 그들을 개량주의자 혹은 친일세력으로 만들면서 우리 민족을 분열·약화시켰다. 결국 일제의 문화 통치는 우리 민족을 기만하면서 민족분열을 부추기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식민지 통치체제는 문화정치의 기만정책마저 끝내고 파시즘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 시기는 일본의 정국도 파시즘체제로 전환되는 때 였다. 또한 세계공황의 여파로 궁지에 몰린 일본 독점자본주의가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륙침략을 본격화해 가던 시기였다.

만주침략으로 본격적인 대륙침략의 계기를 연 일본은 이후 다시 중일전쟁으로, 마침내는 태평양전쟁으로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철저한 군국주의 파쇼체제로 바뀌어갔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은 일본보다 더욱 심한 파쇼 통치체제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식민지 파쇼체제의 강화는 먼저 군사력과 경찰력의 증강에서 시작되었다. 중일전쟁기를 거쳐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약 23만 명의 일본군이 조선에 배치되어 전 국토를 완전 장악하였다. 파쇼체제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철저한 사상통제로 나타났다. 조선사상범보호관 찰령을 만들어 독립운동가들을 철저히 감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통제는 전쟁이 확대 될수록 한층 더 강화되었다.

파쇼 체제 강화의 또 다른 방법은 전시체제를 강조하면서 국민생활 전반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었다. 중일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일본에만 적용되던 국가총동원법이 조선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그리고 침략전쟁이 궁지로 몰리면서 파쇼체제는 조선민족 말살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일본어 상용을 강제하고, 창씨개명과 일본 신사(神社)에 대한 정기적인 참배를 강요하였으며,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강조 하였다. 그러나 침략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에는 그것을 내선일체 및 동조동근론(同祖同根論)으로 바꾸어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잠재우고 일본정신을 주입하는데 이용하였다.

광적으로 진행된 민족말살정책은 침략전쟁에 뛰어든 일본이 조선민족의 저항을 막고 마지막까지 전쟁협력을 강요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통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또 일본이 이 땅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그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3·1운동 이후 거세게 밀려온 사회주의사상으로 노동자, 농민들의 사회의식, 민족의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다음은 무주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이다.

1) 金判斗

1892년 무주군 적상면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9년 3·1운동 때 무주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만주로 망명하였다. 1920년 만주에서 독립군에 입대하여 일본군과 싸우다가 부상당해 체포되어 3년형을 받고 복역하였다. 1925년 석방되었으나 고문의 여독으로 폐인이 되어 병고 끝에 작고하였다. 정부에서는 1968년 대통령 표창을,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 金煥泰

1909년 무주에서 태어난 그는 1922년 전주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였다. 김환태가 3학년이 되던 1924년 5월, 일제는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면서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면 벌을 가하는 등 억압하였다. 이에 김환태는 불만을 품고 중간고사를 거부하였고 무자격 교사와 일본인 교사를 쫓아내기 위한 동맹휴학을 주동하였다. 이에 김환태는 이 사건의 주모자로 연루되어 정학처분을 받았는데, 무기한 해제조치를 하지 않고 해를 넘겨서 자동적으로 학적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보성고등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했다.

그 후 일본으로 건너가 문학도의 꿈을 키우며 경도동지사대학(京都同志社大學), 구주제국 대학교(九州帝國大學校)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1938년부터 문학생활을 하면서 교편

을 잡았다. 그런데 그가 무학여고 교사로 있을 당시 조선어 말살 정책으로 우리나라 글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김환태는 붓을 꺾고 고향으로 돌아와 침묵으로 항거하다가 1944년 요절하였다.

3) 崔洛哲

최낙철은 1919년 무주군 무풍면에서 태어났다. 그는 대구사범학교에 재학 중이던 1941년 1월 이무영, 임굉, 이태길, 장세파, 김영복 등과 함께 모여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협의하고 조선독립을 위한 실력을 양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로 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연구회의 운영방침은 다음과 같았다.

1. 회원은 비밀을 엄수할 것.
2. 회원은 매월 10일쯤 회동하여 각자 부문의 연구사항을 발표할 것.
3. 각 부문의 책임자는 맡은 부문을 운행하여 하급생을 지도 교양하고 이를 통하여 동지획득에 노력할 것.

그들은 활동을 보다 전문화하기 위해서 연구회 부서를 정하였는데, 최낙철은 지리부 책임을 맡게 되었다. 연구회 구성원들은 1941년 2월부터 3월까지 6회에 걸쳐서 비밀회합을 갖고 그들의 결의사항을 추진하였다. 그들은 장기사업으로 회원이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근무하게 되면, 우수한 아동들에게 수재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조선독립에 유익한 인재를 양성해낼 것을 구상하였다. 이렇듯 연구회원들은 학교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강한 민족의식을 보여주었다.

사범학교를 졸업한 그는 함경북도 나진의 약초공립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동지를 규합하고 학생과 학부형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며 문화를 통한 민족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1941년 8월 대전에서 일경에게 검거되었다. 그는 1944년 2월 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언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광복으로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수여하였다.

이외 무주 지역민의 활동을 몇 가지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925년 8월 17일 무주읍내에서 천여 명의 농민들이 '금주(禁酒)'라고 쓴 깃발을 들고 군과 주조합(酒組合)에 대한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8월 14일 군청에서 주조합원(酒組合員) 이

외는 양주(釀酒)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한 군 당국의 조치에 분개하여 금주시위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236)]

1927년 10월부터 무주 구천동에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야학이 설립되어 백오십 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하던 중, 1928년 9월 9일 돌연 당국으로부터 야학 중지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학생들이 분개하여 당국에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였다.[237)]

1928년에는 영동·무주간 도로를 대대적으로 수리하기 위해 군민이 동원되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군민이 시위를 하였다고 한다.[238)]

■ 무주촌 사람들

백두산 자락에는 지금도 일제 식민지 당시, 강제로 이주되어 타국에서 향수에 젖은 채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뿌리가 있다.

'무주촌(茂朱村)'은 백두산 북쪽 중국 길림성 안도현 소사하향에 위치한 조선족 마을로 해발 1천미터가 넘는 산속 오지에 자리하고 있다. 이들이 이곳에 정착하게 된 것은 1937년경 일제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였다.

그 당시 일제는 만주에 중국진출의 전진기지를 확보하고, 만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일운동의 거점을 붕괴하기 위해 조선인 이민정책을 추진하였다. 현재, 연변지역에는 그 당시 이주민들에 의해 형성된 조선족 마을이 우리 이름 그대로 남아 있다. 전라남도 사람들이 정착한 남도촌, 북도 사람들의 북도촌, 정읍촌,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의 신풍촌과 충청도 사람들의 서산촌 등이 모두 그 때 만들어진 이름이다. '무주촌'이라는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무주촌은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집단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마을이다. 이민 2, 3세대로 이어지면서 공동체 문화가 희미해진 다른 마을에 비해 무주촌은 마을 공동 체 문화가 면면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고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무주촌의 초창기 이민사는 노동과 착취의 역사였다.

일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넓은 땅, 좋은 집, 굶주림이 없는 생활을 꿈꾸며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산림이 우거진 밀림의 낯선 나라, 낯선 땅이었다. 땅을 개간하고 마을

236)동아일보 1925년 8월 23일자 천여 명 농민 금주시위운동
237)동아일보 1928년 9월 24일자 노동야학금지
238)매일신보 1928년 3월 26일자 영동 무주간 도로 대수리

을 형성하기 위해 그 때부터 지독한 노동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한족에게 벼농사를 보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낮에는 온종일 논밭을 일구고, 밤에는 곰이나 늑대 같은 산짐승에게서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어느 해에는 풍토병으로 집집마다 줄초상이 나기도 하였다. 이 때부터 '죽이고 싶을 만큼 마누라가 미우면 무주촌으로 보내라'는 우스개 소리가 생겼다고 한다.

이들은 아직도 고향문화를 지켜내고 있다. 이들은 고집스럽게 온돌을 깔고 굴뚝을 세우고, 한국적 집터 구조를 지키면서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고 있다. 이들의 애절한 사향가(思鄕歌)는 KBS-TV 전주총국과 한국화가 김학곤 등에 의해 소개되었다.

[집필 : 임혜영]

제7장 현대사회의 무주

제1절 해방과 분단

1. 일제의 패망과 해방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역사상 유래가 없는 감격의 날이었다. 그 날은 온 국민이 하나되어 해방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저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대한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 불렀다. 전국 방방곡곡은 온통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의 강점으로 국권을 빼앗긴 후, 우리 민족은 잔악한 일제의 학정에 수난을 당하면서도 오로지 나라를 잃지 않겠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민족해방과 독립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다가 숨져간 수많은 애국선열의 고귀한 피의 대가로 해방을 맞이했으니, 그 감격이야말로 어떠했으랴.

독립을 염원하는 선열의 애국충정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 1943년 11월 27일, 이집트의 카이로(Cairo)에서 열린 미·영·중 삼국(三國)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리고 1945년 7월 7일부터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연합국 영수회담은 카이로회담을 재확인하였고, 다시 한번 한국의 독립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해방은 곧 독립국가의 탄생을 의미하였다.

그러기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염원하며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었던 것이다. 그 당시 무주군민 역시 해방과 더불어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확인하며 목이 터져라 '만세'의 함성을 질렀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맞이한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안개 속을 헤매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그 당시 무주군민의 생생한 모습을 기록한 문헌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현재 무주군 관내에 거류하고 있던 일본인과 그들이 소유했던 토지 및 임야 현황이 남아 있어 여기에 수록한다.[239]

---

239)金喆洙 著, ≪적성지(赤城誌)≫(人), 1957, 42쪽.

<표 2-7-1> 무주군 관내 거류 일본인 직업 및 소유 토지 현황

(1945. 8 현재)

읍면별	세대수(호)	인구수(인)	직업별						토지(평)			임야(정보)
			계	공무원	지주	상업	지주겸상업	기타	계	전	답	
계	42	147	45	23	3	6	9	4	400.115	121.081	279.034	2.319
무주	21	75	24	11	2	3	6	2	28.935	18.368	10.567	198
무풍	5	17	5	2	·	1	2	·	64.275	23.353	40.922	124
설천	7	25	7	4	1	·	·	2	61.428	11.598	49.830	809
적상	2	9	2	2	·	·	·	·	24.157	9.909	14.248	164
안성	7	21	7	4	·	2	1	·	133.884	21.133	112.751	405
부남	·	·	·	·	·	·	·	·	87.436	36.720	50.716	619

2. 해방정국과 좌·우익 대립

1) 군정의 출범

해방을 맞은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부터 국내 정세는 민주주의자에서부터 공산주의자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주장이 난무하였다. 그리고 갖가지 정당과 단체가 만들어지고 난립 하더니, 결국엔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이 거듭되었다.

이처럼 어수선한 정국속에 포츠담에서 개최된 연합국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38°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진주하였다. 이들은 각각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행정권을 접수함과 아울러 일본인을 귀환시키면서 군정(軍政) 실시를 선포하였다. 이에 38°선 이북은 8월 22일 소련군 제25군단 치스챠코프(Ivan M. Chistiakov) 대장 지휘하의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하였고, 38°선 이남은 9월 8일 미군 제24군단 하지(John R. Hodge) 중장 휘하의 미군이 인천에 상륙한 후 서울로 진주하였다.

이로써 38°선을 경계로 미·소 양국이 한반도를 점령하였고,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나뉘는 민족의 분열과 함께 종래에는 미증유(未曾有)의 민족상잔(民族相殘)이라는 비극의 시발점이 되었다.

한편 정가에서는 해방 첫 날부터 과도기의 국내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목표 아래 여운형 (呂運亨)을 주축으로 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朝鮮建國準備委員會, 이하 건준)'가 조직 되었

다. 이들은 전국의 도(道)와 군 단위까지 지부를 설치하여 해방 후 첫 정치단체를 결성하고, 치안대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등 국내 유일의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다.

건준 전국지부가 구성되던 9월 초, 무주군에서는 이와 뜻을 같이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종전의 일본인 소유인 적산가옥(敵産家屋)을 점령하고, 군지부 간판을 건 후 활동하였다.[240] 동년 9월 6일, 건준은 서울에서 전국 인민대표자대회를 열어 나라 이름을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으로 결정하면서 이승만(李承晩)을 주석(主席)으로 하는 정부각료까지 발표하는 등 형식상 민족·민주정권의 자주독립국가 수립을 기도하였다. 이에 따라 곧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될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렇지만 건준은 초기부터 임시정부의 귀국을 기다리던 김성수(金性洙)·송진우(宋鎭禹) 등 우익진영에게서 맹렬한 비난을 당하였다. 그리고 자주독립국가 수립과 거리가 먼 미군정(美軍政)이 시행됨에 따라 해체될 운명을 맞게 된다.

서울에 진주한 미군이 9월 9일 조선총독 아베노부유끼(阿部信行)에게서 항복문서를 받고 일장기(日章旗)를 내림으로써 일본의 한국통치는 완전한 막을 내리게 된다. 동년 9월 11일, 미육군 제7사단장 아취볼드 비 아놀드 (Archbald B. Arnold) 소장이 군정장관(軍政長官)으로 임명됨에 따라 남한의 미군정(美軍政)이 출범하였다.

같은 날 박헌영(朴憲永)을 중심으로 한 좌익진영이 서울에서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을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한편 우익진영은 9월 16일 김성수·송진우 등을 중심으로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을 결성하였는데, 이들은 미군정 시기 좌익계열의 반대편 중심세력의 역할을 담당한다. 9월 24일에는 한 때 건준에 가담했던 안재홍(安在鴻)이 국민당(國民黨)을 창당하였다.

반면, 1945년 8월 26일 소련군 사령부가 평양에 설치되고, 로마넨코(A. A. Romanenko) 소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한 민정관리총국이 설치되어 북한 전역에 대한 소련군의 군정이 시작되었다. 그 며칠 후인 8월 28일 남북을 가로막는 38°선이 설정되었으며, 그 해 10월 10일 평양에서는 김일성(金日成)에 의해 이른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조직되어 훗날 조선 노동당의 전신으로 활약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남·북한은 미군과 소련군에 의한 군정시대에 접어들었다. 군정은 1948년 8월 15일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같은 해 9월 9일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40)건국준비위원회 무주군지부 사무실은 일본인 소유였던 무주여관 자리로 현 무주구청 바로 아래(서편)에 위치하 고 있었다.

수립될 때까지 약 3년간 계속되었다. 바로 이 시기 우리나라 정세는 좌·우익의 사상적 대립과 경제적 혼란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남한 전역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 미군정 담당자들은 정치경험이 없는 데다가 일제말기의 총독부 조직기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정서에 맞지 않는 구미식(歐美式) 민주행정을 도입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와 그에 따른 사회혼란이 뒤따랐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동안 억눌렸던 민심이 해방과 더불어 폭발, 데모와 파업 등이 난무하고 산업이 마비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 때 스스로 살길을 찾아서 떠났던 사람들을 위시하여 강제로 일본이나 만주 등지로 떠나야만 했던 동포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안착하기 위해 수없이 밀려왔다.

그 당시 해외에서 귀국한 동포는 전라북도만 57,535세대 226,893명에 달하였고, 그 중 무주군으로 귀환한 동포가 2,131세대 8,074명이었다.[241] 이를 놓고 볼 때 그 당시 미군정에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 중의 하나가 전재민(戰災民) 구호사업이었다.

1990년 전라북도에서 발행한 ≪전라북도지≫ 제2권 <행정편>를 보면, 1946년 3월 25일 무주군에 이재민구호소를 설치하고 공공구호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당시 귀환 전재민 중에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한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에 많은 수가 유랑민 신세가 되어 이곳 저곳을 전전하다가 발 닿는 곳에 정착하였다. 또한 이들 외에도 토착 영세실업자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1949년 말 현재, 무주군의 이재민 요구호자 수는 3,649세대 15,296명에 이르렀으며, 무주택 세대도 219세대나 되었다.

또한 한국전쟁 이전, 월남동포 가운데 186세대 682명이 무주군에 안착하였으며,[242] 이들 중 요구호자가 55세대 204명이었다고 하니 당시의 어려웠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2) 좌·우익 대립

한편 모스크바 협정에 따라 구성된 미·소공동위원회의 소련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한 1945년 9월 23일, 미군정장관 아놀드는 남한의 정당과 사회단체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언명하였으나 혼란은 연속되었다. 그 후 남한의 행정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한 미군정은 10월 초순부터 일본인 고문들을 퇴임시키고, 그 자리에 김성수 등 남한의 지도급 인사들로

241)전라북도 발행 ≪전라북도지≫ 제2권, <귀환 이재민 각시군분주상황표>, 1990, 237쪽.
242)각 읍면에 정착촌(무주 2개소, 각 면 1개소)을 개설하여 재민을 분산 수용하였다.

대체하였다.

그러던 10월 16일, 미국 등 해외에서 항일투쟁과 외교활동을 하던 이승만(李承晩)이 귀국하여 10월 25일 우익진영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11월 23일에는 중국에 있던 임시정부요인과 함께 김구(金九)가 귀국하는 등 해외에서 활동하던 지도급 인사들이 속속 귀국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정치판도에 변화의 바람이 일었고, 군소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면서 좌익과 우익, 좌우합작파 등으로 사분오열 되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정치 지도자들이 암살당하는 등의 사태로 이어져 정가는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그 당시 전라북도에서는 10월 중순부터 좌익단체들에게 간판을 철거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자 11월 중순 남원의 좌익군중이 군청에 인민위원회 간판을 걸고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으며, 11월 17일에는 '조선독립촉성회'를 결성하던 전주에서 좌·우익 충돌사건이 발생하였고, 11월 30일에는 군산 경마장 폭발사건이 일어나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런 가운데에도 정치일정은 진행되어, 그 해 12월 아놀드 군정장관 후임으로 러어취 장관이 취임하면서 군정청 행정기구에 미국인과 한국인을 함께 기용하는 제도가 채택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남조선과도정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런 한편 그 해 연말, 모스코바 삼상회의에서 한국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국내는 온통 반탁의 목소리로 들끓다가 해를 넘긴 1946년 새해 벽두부터는 그 동안 우익진영과 함께 신탁통치를 반대하던 좌익이 돌연 찬탁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따라서 좌· 우익간의 충돌이 심화되었다.

1946년 들어 협상을 서둔 미·소공동위원회는 2월 6일 서울에 자리를 잡고 간판을 걸었다. 그리고 미 군정청은 2월 14일 이승만을 의장으로 하는 우익진영 지도자 28명으로 민주의원(民主議院)을 구성하여 미 주둔군 사령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한편 3월 20일 제1차 본 회담을 개막한 이후 미·소공동위원회는 각 정당 및 사회단체의 참가 문제로 의견이 대립되어 결국 5월 6일 무기휴회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인 5월 7일 '정판사(精版社)위조지폐사건'의 주동자들이 체포되었다. 이에 따라 좌익가담자 거의 모두가 지하로 숨어 들었고, 4개월 뒤인 9월 7일에는 미군정청에서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박헌영(朴憲永)을 비롯한 핵심간부 이주하(李舟河)·김삼룡(金三龍)·이강국(李康國) 등을 지명수배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좌익은 지하조직을 총동원하여 조직적인 파괴활동을 벌였다. 9월 17일부터 1주일간 대구에서 철도노조 파업을 단행하였고, 뒤이어 10월 1일에는 전국노동자평의회가 주도한 시위가 벌어져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사태는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그 여파로 10월 5일 전국노조가 파업을 단행하여 폭동사태로 번졌다. 이와 같은 상황과 맞물려 11월 11일, 전주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좌익인사 413명이 탈출을 시도하여 120명이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날에는 전라남도에서 큰 소요가 일어나는 등 정국이 불안정하였다. 11월 23일에는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박헌영을 비롯한 조선인민당의 여운형과 조선신민당의 백남운(白南雲) 등이 합당, '남조선노동당'을 결성하였다.

그런 반면, 우익진영에서는 7월 31일 이철승(李哲承) 등 우익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학생총연맹'을 결성하고 좌익학생단체와 맞섰다. 10월 11일에는 이범석(李範奭) 등이 '조선민족청년단'을 조직하여 좌익청년단체와 대립하며 사회질서유지와 반공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12월 12일, 미군정청은 한국의 법령은 한국인이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남조선과도 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을 개원하였다. 이 때 구성된 의원은 90명인데, 1946년 10월 28일 선출된 민선의원 45명과 11월 미군정청에서 선정한 관선의원 45명이었다. 그리고 미군정청은 이듬해 2월 5일 미 군정장관 밑에 한국인 민정장관(民政長官)제도를 두고 안재홍(安在鴻)을 초대장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럴 즈음, 전라북도에서는 좌익에 의한 폭동이 빈발하였다. 2월 하순 부안군 줄포, 임실군 성수, 완주군 삼례 등지에서 경찰지서를 습격하여 인명피해를 냈고, 3월 24일에는 남한 전역에 걸친 24시간 총파업에 동참하는 등 1947년도에도 연초부터 조용할 날이 없었다. 1947년 6월 3일, 미군정청은 한국인 기관을 '남조선과도정부(南朝鮮過渡政府)'로 명칭을 바꾸고 정식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미·소 공동위원회는 10월 21일 서울의 소련대표부가 철수함으로써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여운형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8월 20일에는 수도청장(首都廳長) 장택상(張擇相)이 내린 좌익분자 검거령으로 전국적인 검거열풍에 휩싸였다. 그리고 9월 17일 유엔총회는 한국을 신탁 통치없이 독립시킬 방안을 강구한다는 의제를 채택하였다. 한편 북한에서는 공산당 단독정권 수립이 진행되었고 남한에서는 좌·우 합작운동이 시들해지면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대세가 기울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를 유엔관리하의 정부수립 방침으로 변경함으로써 한국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때 우익진영의 대표적 인사인

장덕수(張德秀)가 12월 2일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948년 1월 8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일행이 입국하였다. 그런데 1월 23일 소련군 임시위원단이 북한지역 입경을 거부함에 따라 남한지역만의 단독 총선거가 기정 사실화 되었다. 이에 당황한 공산주의자들은 남한 총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2월 7일을 기해 남로당 세포조직을 동원하여 파업을 선동하면서 경찰관서와 관공서 등을 습격하며 방화와 파괴활동을 하는 등 전국 규모의 폭동인 이른바 '2·7구국투쟁'을 일으키자 2월 14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한국을 떠났고, 2월 25일 유엔 소총회에서 유엔 감시하의 총선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북한지역 총선이 불가능해지자 3월 12일 유엔 한국위원회에서 총선 가능지역인 남한만의 선거가 가결되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게 되자, 남로당은 제주도 남로당 조직책 김달삼(金達三)과 제주주둔 국방경비대 제9연대 내 남로당 세포조직 들에게 무장폭동의 지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제주도 4·3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훗날 여·순사건으로 확대되어갔다.

이와 같은 정국의 혼미 중에도 미군정청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을 실시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공포함으로써 1945년 8·15해방 이후 3년여에 걸친 미군정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제2절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빨치산 준동

1.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5년 12월 15일부터 23일 사이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영·소 3개국 외상회담은 한국의 민주주의적 임시정부 수립과 최장 5개 년간 미국·영국·소련·중국 등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 양국은 2주일 이내에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를 두고 국내의 우익은 처음부터 신탁통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반면에 좌익은 처음엔 반대하다가 곧 태도를 바꾸어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46년 초, 미·소 주둔군 사령부 대표들은 서울에서 예비회담을 열고 공동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본부를 서울에 설치할 것을 결정한 다음, 같은해 2월 20일 서울 덕수궁에서 제1차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 때 소련측은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정당과 사회단체에 대해서 장차 수립될 임시정부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미국측은 찬반을 막론하고 모두 다 참가 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합의를 보지도 못하고 5월 6일 마침내 소련대표단이 평양으로 철수해 버렸다. 그 후 1년이 지난 1947년 5월 21일, 다시 서울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었으나 그 때 역시 참가단체 문제로 의견이 대립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미국정부는 한국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고, 10월 8일 미·소공동위원회 미국측 대표단이 유엔에서 한국문제 토의가 끝날 때까지 공동위원회를 휴회할 것을 제의하였다. 10월 19일부터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가 토의되는 상황에 이르자, 10월 21일 서울에 주재하고 있던 미·소공동위원회 소련측 대표단은 평양으로 철수하였다.

그런 한편, 유엔총회는 11월 14일 한국의 독립정부 구성을 돕기 위한 '임시한국위원단'을 설치하기로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1948년 1월 8일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1월 23일 소련군에 의해 유엔 한국위원회단의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월경이 거부되었다. 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위원단 일행은 2월 14일 한국을 떠나고 말았다.

그 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서 한국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 실시를 가결하였다. 그러나 소련측은 이를 보이콧하였고, 남한 내 좌익은 살인·방화·파괴 등을 자행하며 방해공작을 일삼았다.

1948년 5월 10일, 유엔의 결의에 따라 38°선 이남지역에서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로써 198명의 제헌국회가 구성되었고, 5월 31일 의회를 개원하고 이승만을 초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그 때 무주군에서는 의사출신이며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 신현돈(申鉉燉)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는 동년 10월 전라북도 초대지사로 임명되어 취임하게 된다. 따라서 이듬해 1월 13일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대동청년단 소속 김교중(金敎中)이 당선 되어 임기를 마쳤다.

이처럼 천신만고 끝에 치루어진 5·10총선을 통해 정부수립의 기틀이 마련되어 다음과 같은 정치일정이 진행되었다.

1948년 당시 진행된 정치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6월 10일 제헌국회에서 국회법 통과.
○ 7월 1일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가결.
○ 7월 12일 국회 대한민국 헌법 통과.
○ 7월 12일 국회 정부 조직법 통과.
○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 조직법 공포식 거행.
○ 7월 20일 국회에서 정·부통령 선출,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통령 이시영
○ 7월 24일 대한민국 초대 정·부통령 취임식 거행.
○ 8월 4일 국회의장 선출, 초대의장 신익희 당선.
○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내외에 선포.
미 군정장관 하지(John R. Hadge) 중장 8월 15일 0시를 기해 군정폐지 선언.

이로써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이에 따라 9월 13일 정오를 기해 일체의 행정사무가 새 정부로 인수되었고, 12월 9일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였으며, 1949년 봄부터 철수를 시작한 주한 미군은 동년 6월 철수를 완료하였다. 또한 제헌국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1950년 5월 30일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무주군에서는 무소속의 김상현(金相鉉) 후보가 당선되었고, 동년 6월 19일 제2대 국회가 개회되었다.

2. 덕유산과 빨치산

1) 빨치산(파르티잔)

빨치산은 유격전을 수행하는 비정규군 요원의 별칭이다. 본래 프랑스어의 '파르티(parti)' 에서 비롯되었으나 '파르티잔(partisan)'으로 불리며, 당원·동지·당파 등을 뜻하는 말이지만 유격대원·편의대원(便衣隊員)을 가리킨다. 따라서 에스파냐에서 나온 게릴라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빨치산은 정규군과는 별도로 적의 배후에서 그들의 통신·교통 수단 을 파괴하거나 무기와 물자를 탈취 또는 파괴하고 인원을 살상한다. 빨치산은 일반주민의 협조나 지원 없이는 수행할 수 없고, 그 지방의 지리나 지형에 밝아야 하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 되므로 아무곳에서나 실행할 수 있는 전투가 아니다.[243)]

그러나 한국에서의 빨치산은 이와 다르다. 남한의 빨치산은 해방을 전후하여 우익과 대립

하다 체포령으로 활동무대를 잃고 지하로 숨어버린 좌익,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공산당의 지령으로 폭동에 가담했다가 토벌군에 쫓겨 산 속에 숨어서 활동하던 무장대와 그 동조자들 을 가리켜 통상적으로 부른다.

이 외에 이들은 야산대(野山隊)·반란군(叛亂軍)·산(山)사람·밤손님·공비(共匪) 등으로 불리웠다. 경찰의 수배를 받던 좌익동조자들이 몸을 피해 마을 주변의 산악에 숨어서 활동한다 하여 야산대라 하였고, 대한민국 국군에서 반란을 일으킨 후 실패하고 산 속으로 도주해 간 반란군과 그들의 동조자들을 반란군 또는 산(山)사람이라 불렀다. 이들은 대개 낮에는 산 속에서 은신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보급투쟁' 등의 활동을 위해 마을로 내려온다 고 하여 밤손님이라 불렀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이들을 '공산당 유격대'라 하여 비적(匪賊)으로 간주하고 '공비(共匪)'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무주는 한 때 남한 빨치산의 활동 루트로 유명한 덕유산(德裕山)이 위치한 고장이다. 그러기에 이와 관련한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빨치산과 관련하여 경찰 또는 국군 및 양민에 얽힌 애환이 함께 한다. 그 한서림은 전쟁 후 5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몽(惡夢)으로 남아 있고, 그 당시를 기억하는 촌로들 다수는 거론하는 것조차 꺼린다. 50여 년을 가슴에 안고 온 민족상잔의 비극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피맺힌 한과 절규를 해원(解寃)의 굿으로 씻어낼 그 날을 기대한다.[244)]

2) 남한 빨치산의 태동

해방 이후 미군정 하에서 정치투쟁을 하던 좌익은 1946년 5월, 이른바 '조선정판사위조지폐사건' 이후 지하로 숨어 들었다. 그리고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 지하활동을 하면서 선동·태업·파업행위 등을 기도하였다. 그 해 9월 24일 대구에서 미군정 반대 철도노조 파업이 있었고, 10월 1일에는 좌익이 주도하는 전국노동자평의회의 지휘로 대대적인 데모를 벌여 군정경찰과 충돌을 일으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그 여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으로 번져 나갔는데, 이를 가리켜 '10월 폭동'이라 일컫는다.

그 당시 시위에 가담하였으나 체포되지 않은 좌익 동조자들은 경찰의 눈을 피해 주변 산악으로 숨어 들었다. 그리고 이른바 '야산대'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를 곧 '남한 빨치산'의

243)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244)빨치산에 대해서는 이태 ≪남부군≫[(상), <남한 빨치산의 약사>, 1988]과 국방군사연구소에서 간행한 ≪한국 전쟁≫[(상), <공산주의자들의 폭력투쟁>, 1995]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시작이라 볼 수 있다.[245] 그 때까지만 해도 좌익의 게릴라 활동은 겨우 경찰의 눈을 피해 다닐 정도였으며, 밤이 되면 가족이 있는 자신들의 집을 다녀오는 등 지극히 초보적인 활동이었다.

그런데, 1947년 10월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로 소련대표단이 평양으로 철수하고, 이듬해 1월초에는 유엔 감시하의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기정사실화 되었다. 이에 당황한 북한 공산당은 남한의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서 2월 7일을 기해 총파업을 지령하였다.[246]

이를 접수한 좌익은 생산공장·교통기관·탄광·각급 학교 등에 세부조직을 잠입시키고 파업선동과 공공시설 파괴 등을 자행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은 조직적으로 전개되어 전국으로 파급되었는데, 폭동 전개 2주후 군정경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 때 검거된 숫자가 전국적으로 8,500여명에 이르렀다.

그 당시 경찰의 체포를 피해 도주한 상당수의 청년들이 야산대에 합류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로당에서는 군사적 경험을 가진 청년당원들을 야산대에 투입, 유격활동을 지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라·경상 각도를 2~3개의 야산대 블럭으로 나누고, 블럭마다 지구사령부를 두는 등 조직을 체계화하였다. 그러나 그 때만 해도 본격적인 폭력투쟁 단계로 들어선 것은 아니었다.

2·7폭동에 이어 1948년 4월 3일 '제주 4·3사건'이 터졌다. 그 당시 27만 명이던 제주도민의 30%가 목숨을 잃었고, 가옥의 75%가 불에 타버린 사상 유례없는 참극으로 얼룩진 사건이었다.

해방 이후 '제주인민해방군'은 일본군이 숨겨놓은 무기와 화약을 찾아 무장을 하고 유격전 훈련을 하였다. 한편 제주도의 좌익은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는데, 경찰 및 우익단체의 무차별 테러가 극심하여 제주도민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북청년 출신의 경찰관들이 제주도에 파견되었다. 이를 계기로 좌익은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 남한 단독정부수립 반대, 반미·반경찰·반서북청년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봉기를 주도하면서 유격전을 시작하였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미군정청은 경찰병력을 제주도에 투입하였으나 사태가 더욱 악화

245)이태, ≪남부군≫상, <남한 빨치산 약사>, 1988, 245쪽. 이때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된 좌익동조자들이 태백·소백산 맥 주변의 산악에 숨어 들어 이른바 야산대(野山隊) 활동을 시작하였다.

246)좌익에서는 이를 '2·7투쟁'이라 한다.

되었고, 결국에는 정부 수립 후 정식으로 출범한 군을 투입하여 제주도 전체를 초토화시켰다. 그 사이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 와중에 제주폭동 진압 지원 명령을 받은 여수 주둔군 제14연대 소속 1개 대대가 출동준비 중에 출동을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밤을 기해 연대내의 조직책 지창수(池昌洙) 상사를 비롯한 대전차포 중대장 김지회(金智會) 중위, 선임중대장 홍순석(洪淳錫) 중위 등이 부대 내에 침투한 남로당 세포원 40여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들은 여수와 순천을 장악하고 뒤이어 광양·벌교·구례·곡성까지 점령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10월 21일 반란군 토벌을 위한 전투사령부를 광주에 설치하였다. 작전전개 후 1주일 만에 진압을 마쳤고, 점령지역 내의 치안도 점차 회복되었다. 그러나 토벌군에게 쫓기던 반란군 패잔병 약 1,000여명은 광양 백운산·지리산의 화엄사골과 웅석봉 등 산악지대로 잠입, 무장공비가 되어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이들에 대한 토벌작전은 15개월 이상 지속되었는데, 1950년 1월 25일 계엄령 해제와 함께 토벌군은 철수하였다.

여수·순천사건에 이어 1948년 11월 대구 주둔 국군 제6연대에서도 또 다른 군부대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연대의 주력(主力) 3개 대대병력이 제주도와 여수·순천사건에 투입 되었고, 일부 경계병력만 남긴 채 2개 중대병력 또한 김천·영천·포항 등지로 파견되는 등 병력이 분산되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남로당 조직책인 곽종진(郭鐘振) 특무상사가 11월 2일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들은 반대자 10여명을 살해하고 대구경찰서를 공격한 후 시내 진출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실패하자 동조자 40명과 함께 팔공산으로 도주하였다. 여수·순천 토벌작전에 나갔던 제1대대도 원대복귀 명령을 받고 귀대하던 도중, 부대 내 좌익분자들이 인솔 장교들을 살해하고 전대원에게 반란에 가담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출동한 군경에 의해 거사가 실패로 끝나자 팔공산으로 도주하였다. 또한 1949년 1월 초순에는 포항 근교 비행장에 근무 중이던 제6연대 예하 제4중대 내의 좌익분자들이 소대장과 선임하사를 살해하고 부대원에게 거사에 가담할 것을 선동하였다. 그러나 대원들의 불응으로 실패하고 인근 산악으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대구지방에 주둔하던 군부대에서도 몇 차례의 반란사건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제주도와 여수·순천, 그리고 대구지방 군부대 반란사건은 남한 빨치산에게 무장화의 계기가 되었고, 따라서 좌익의 본격적인 무력투쟁 시대로 접어들게 하였다.

한편 해방 후 남한에서의 공산당 활동이 비합법화 되자 월북했던 이현상(李鉉相)[247]이

'여·순사건' 직후인 1948년 11월 초순 남한으로 다시 내려왔다. 그는 지리산으로 들어가 여·순사건에 가담했던 반란군 잔여세력을 기간으로 하고, 주변 산악의 야산대를 규합하여 지리산과 덕유산지구 유격대를 새롭게 정비·조직, 활동을 시작하였다.

3) 한국전쟁 이전 빨치산의 움직임

정부 수립 후 사회질서 회복을 위해 정부는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청년단체의 난립을 막고 파당적인 색채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그 당시 20여개가 넘는 청년단체를 규합, 이승만 대통령을 총재로 하는 '대한청년단'을 조직하였다. 이와 함께 각 지역마다 계몽사업과 향토방위를 위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그 해 유난히 추웠던 겨울, 여·순사건의 주동자 김지회는 '지리산공비 토벌작전'에 쫓겨 경남과 전남 산악지대를 전전하다가 1949년에 접어들면서 반란군 약 300여명을 이끌고 덕유산으로 들어와 토옥동(土玉洞)[248] 골짜기에 거점을 마련하고 보급투쟁에 나섰다. 이 정보를 입수한 무주경찰은 군·경 합동 토벌대를 구성하고 3월 28일을 기해 토벌작전을 전개, 적의 주력을 패주시켰다. 그 동안 반란군을 주도하며 유격활동을 하던 김지회와 홍순석이 4월 9일 지리산 뱀사골 반선(伴仙)마을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김지회가 죽은 후에도 그 부대는 괴멸되어 없어질 때까지 '김지회 부대'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였다.

덕유산에 신록이 한창 피어나던 1949년 5월 5일, 무주경찰은 토옥동 공비 소탕작전 때 미처 도망가지 못한 김지회 부대의 패잔병이 덕유산 냉천곡(冷泉谷)[249]에 잔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다. 이에 송석조(宋錫祚) 서장의 지휘에 따라 안성지서(安城支署) 서종석(徐鍾錫) 주임이 유격대를 조직하여 작전을 전개, 공비를 패주 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덕유산에 숲이 짙어지기 시작하자, 지난 겨울 지리산으로 입산한 이현상은 종전의 김지회·홍순석 부대로 불리던 여·순사건 잔여세력과 부근 야산대, 그리고 반란에 동조했다가 경찰에 쫓겨 다니던 민간인들을 규합하여 세칭 '지리산 유격대'를 조직하고 유격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북한 공산당은 적화통일을 위한 전쟁준비를 하면서 한편으로 후방의 교란작전

---

247)1906년 전라도 금산군(현 충남 금산군)에서 태어났다. 1925년 조선공산당 창설에 참여하면서 공산당 활동과 항일투쟁을 병행하였는데, 출생지인 금산과 이웃하고 있는 무주군과는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48)장수군 계북면 양악(원촌) 동쪽 남덕유산(1,507m) 북사면 계곡.

249)무주군 안성면 덕산(덕곡) 동쪽 덕유산 향적봉(1,614m) 서사면 계곡으로 일명 황골이라고도 부름.

과 제2전선 구축을 목표로 한 유격대를 양성하여 남파하였다. 그들은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한 직후부터 월북한 자들을 공작요원으로 훈련시킨 후, 남한의 내부분열과 혼란·폭동·반 란 등을 전개토록 하여 국가전복활동에 나서도록 하였다.

1948년 2월, 북한 공산당은 평안남도 강동(江東)에 정치학원을 설치하고 무장유격대원을 양성하였다. 그 해 6월 30일, 남조선노동당과 북조선노동당을 합당하여 조선노동당으로 체제를 바꾸면서 남로당계의 박헌영(朴憲永)·이승엽(李承燁) 등이 대남정치공작과 유격 투쟁을 전담하였다. 그 때 이승엽은 유격대를 지구별 3개 병단으로 통합 편성하였다. 1949년 10월 회령(會寧)의 제3군관학교를 비롯하여 경기도 장풍(長豊)의 인민유격훈련소, 강원도 양양(襄陽) 유격대훈련소 등에서 무장유격대원 3,000여명을 양성하였다. 그리고 1948년 11월부터 1950년 3월까지 10회에 걸쳐 2,400명을 침투시켰으나 국군과 경찰의 끈질긴 토벌 작전에 2,000여명이 사상 또는 생포되면서 서서히 소멸되었다.

그 당시 3개 병단으로 편성된 유격대 가운데 제1병단 오대산(五臺山)지구 인민유격대는 강동학원 출신 5개 중대 360명을 기간으로 편제 되었는데, 이들은 1949년 9월 태백산맥을 타고 남하하여 지방 야산대를 흡수 유격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 해 12월 태백산에서 군·경합동으로 전개된 토벌작전에 견디지 못하고 병력의 대부분을 잃었다. 그 중 일부는 이북으로 도주했으며 나머지 100여명은 계속 남하하여 제3병단에 합류함으로써 제1병단은 소멸되었다. 그 당시 제1병단을 지휘했던 사령관은 남조선민청위원장과 강동학원원장을 역임한 이호제(李昊濟)였다.

인민유격대 제2병단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지리산지구 유격대로 순수 남한 출신 빨치산들로 조직된 이현상 부대를 말한다. 이 부대의 사령관 이현상은 무주와는 이웃인 금산군(錦山 郡) 군북(郡北) 출신으로 1925년 조선공산당 창당에 참여하였으며, 항일투쟁을 전개한 인사 였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 말기에는 일본경찰의 눈을 피해 지리산에 은신하면서 덕유산과 인연을 맺어온 터라 무주지역과 인연이 있었다. 이 부대에 '조선인민유격대 제2병단'이라는 공식명칭이 붙여진 것은 1949년 7월부터이고, 본격적인 유격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그 해 8월이었다. 훗날 이 부대는 '남부군단(南部軍團)' 혹은 '이현상 부대' 또는 '나팔부대' 등으로 불렸고, 정식 호칭은 '독립 제4지대'였는데, 1948년 여·순 사건 이후 1954년 남한에 서의 재산공비가 궤멸될 때까지 남한 빨치산의 핵을 이루었다. 제2병단은 한국전쟁을 전후 하여 무주지역에 자주 출몰했던 게릴라 부대였다. 그들의 편제는 다음과 같았다.[250]

250)이태, ≪남부군(南部軍)≫(상), <남한 빨치산 약사>에서 발췌.

■ 제2병단 [단장 이현상(李鉉相)] 병력 500명·예하 5개 연대 통솔.

[예하부대]

○ 제5연대 [연대장 이영회(李永檜)] 동부 지리산지구 관활.
○ 제6연대 [연대장 이현상(李鉉相)] 지리산 전역 관활·병단장 겸임.
○ 제7연대 [연대장 박종하(朴鍾夏)] 광양 백운산지구 관할.
○ 제8연대 [연대장 맹 모(孟 某)] 조계산지구 관할.
○ 제9연대 [연대장 장금모(蔣琴摸)] 덕유산지구 관할.

인민유격대 제3병단은 태백산지구 유격대로 강동학원 출신의 정예부대이며,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도 유격대 사령관이던 김달삼(金達三)이 사령관이고, 남도부(南道富)와 나훈(羅勳) 등이 부사령관이었다. 이들은 1949년 8월, 3개 대대병력 300여명을 이끌고 안동·영덕지방으로 침투한 이른바 '동해여단'을 지칭한다. 이 부대는 경북지방의 야산대와 대구지방에 주둔했던 군부대 탈주 반란군들을 규합하였고, 12월 군·경합동 작전으로 패주하던 제1 병단 잔존병력 약 100여명을 합류시켜 600여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은 거듭된 교전으로 많은 병력을 잃은 데다가 1950년 3월 국군의 총공세에 밀려 부대를 이끌고 월북하려다 거의 궤멸되고, 김달삼·남도부 등 간부급 수십 명만 월북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동해 여단 제3병단도 소멸되었다.

이른바 '조국통일'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남한의 후방을 교란시키고, '조국통일전쟁' 때에는 제2전선을 구축하려던 계획은 이처럼 실패로 돌아갔다. 훗날 북한공산당은 남로당 계열에게 그 책임을 물어 숙청의 빌미로 삼았다.

4) 무주지역 빨치산 출몰 사건들

1949년 8월 조직체계를 재정비한 제2병단은 앞서 3월과 5월에 있었던 덕유산전투에서의 패전에 절치부심 하였다. 남로당의 9월 공세 지령을 받은 이들은 8월 하순경 '인민유격대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라는 거창한 이름과 함께 대부대를 이끌고 덕유산으로 들어와 기회를 노렸다. 그러면서 산아래 마을로 출몰하여 양식과 소·돼지 등을 약탈하였다.

그 때 무주에서는 다가올 12월에 조직 개편될 한청단원들이 향토방위를 위한 군사훈련을

받고는 있었으나 총 한 자루 없이 죽창만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전장에 나아가기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따라서 한용명(韓用命) 경찰서장이 조직한 별동대(別動隊·일명 '독립유격대'라 칭함)와 군부대 기동대가 합동작전으로 토벌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당시 '인민유격대'의 병력이 너무 많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덕유산지구 공비토벌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군부대 파견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육군 제5사단 제3연대 소속 홍성준(洪性俊) 독립부대를 안성면에 주둔시켰다.

그 이후 무주경찰서 유격대는 군부대와 함께 연일 덕유산 토벌작전에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그 해 10월 6일(추석) 오후 2시경, 적상산에 출몰한 공비토벌작전 중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 호국사(護國寺)가 경찰에 의해 소실되었다. 그것은 여·순사건의 김지회 부대 300여명이 덕유산에 모여 무주읍내 습격을 계획한 후 적상산에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에서 비롯되었다. 이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추석 전날인 10월 5일, 경찰관 40명과 적상면 청년들 400여명을 동원하여 토벌대를 편성하고 적상산을 포위한 다음 토벌작전에 임했다.



무주 한청훈련소 제3기생

그러나 반란군의 그림자 하나도 찾지 못한 채 회군하였다. 그런데 하산한 대원들을 점검하던 중 경찰관 1명이 행방불명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경찰은 그 다음날, 면민 1,000여명을 대거 동원하여 다시 산으로 올라가 수색작전을 벌였는데, 호국사 부근 샘주골에서 경찰관 배동진(裵東鎭)의 시신을 발견하였다. 그 때 무주경찰서 사찰주임 최창진(崔昌鎭)이 호국사가 반란군의 은신처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호국사 법당에 불을 놓아 태워버린 것이다.[251]

1949년 추석날 밤, 무풍면 소재지에서는 동네사람들끼리 모여서 소인극(素人劇)과 민속놀이로 명절을 즐기고 있었다. 그 때 김지회 부대가 민가에 침입하여 곡식을 약탈해가면서

251)최낙철, ≪무주군사≫, 무주군, 1968, 123~124쪽.

무풍면사무소를 비롯한 무풍경찰지서와 금융조합무풍지소 등 주요기관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11월 초순에는 안성면 죽천리 명천마을에서 덕유산으로 오르는 원통사 계곡에 은신하고 있던 반란군을 토벌하던 중, 신라 때 창건된 고찰 원통사가 소실되었다.

지리산과 덕유산을 오가며 가을을 지낸 반란군은 겨울이 다가오자 더욱 대범하게 보급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산아래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수시로 출몰하는 이들의 만행에 견디지 못하고 집을 비운 채 나와야만 했다. 그 당시 경찰은 얼마 되지 않는 병력으로 민생치안과 시국치안 등 겹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의용경찰(義勇警察)을 모집하여 업무를 분담하였다.[252)]

이런 상황 속에서 좌익은 지하활동에 분주하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은 사찰과 토벌작전으로 정신이 없었다. 무기 하나도 없이 지역방위 임무를 맡고 있던 대한청년단은 죽창과 몽둥이를 들고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11월 초순, 덕유산에 거점을 두고 있던 반란군은 무주읍내 습격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요로에 병력을 매복 시켰다. 11월 5일,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대병력을 갖춘 '김지회 부대'가 무주읍내를 향해 이동하였다. 자정(子正) 무렵, 무주읍내 전역을 완전히 포위하고 무주초등학교 뒷산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6일 새벽 2시, 적막을 깨트리는 한발의 총성을 신호로 온 천지가 뒤흔들리는 듯한 반란군의 총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졌다. 뒤이어 무주경찰서 사이렌대에서 울려 퍼지는 비상 사이렌 소리가 뒤섞이며 온 시가지는 삽시간에 수라장으로 변해 버렸다.

이 사건을 이 고장에서는 바로 '무주 기축(己丑) 십일오사건(十一五事件)'이라 부른다. 덕유산에 거점을 둔 김지회 부대가 무주경찰서와 대한청년단 청사를 습격한 사건이었다. 그 당시 무주경찰서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하던 안성 주둔군 제3연대 대원들이 오도재(吾道峙)를 넘다가 매복하고 있던 반란군의 기습을 받고 13명이 전사하였다.

한편 무주읍내 시가지에서는 경찰서 망루대에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쏘아대는 기관총 소리와 반란군의 자수를 권유하며 주민의 안전대피를 계도하는 한용명(韓用命) 서장의 육성이 담긴 스피커 소리가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어둠이 걷히면서 반란군 부대는 부상자들을 이끌고 산속으로 패주하였다.

이날 사건으로 무주경찰서 뒤편에 있던 대한청년단 사무실과 청년단 숙소로 사용되던

252)한국전쟁 중 후방의 치안확보를 위해 모집, 공비토벌작전 등에 활용하는 한편, 군 입대를 보류해 주었다.

잠사(蠶舍)가 모두 불에 타버렸고, 대한청년단원 최익춘(崔翼春)·박정택(朴正澤)·유해범(柳海範) 등과 무주읍내의 오대성(吳大成) 등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사살당한 반란군 10여 명이 무주경찰서 뒷마당 망루대 옆에 시신으로 누어 있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인근 마을 주변에는 수상한 기미가 있었다. 사건 3일전인 11월 2일 밤 10시경, 반란군으로 보이는 괴한 수명이 안성 효자촌(孝子村)에 출몰하여 11시경 사전교(沙田橋)를 통과했으며, 다음날 새벽 2시경 사교(沙郊)마을을 거쳐 덕유산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사건 당일 밤에는 수십명이 오도재(吾道峙)에 출몰하여 도로와 지형을 탐색하고 매복하였다. 이들은 무주읍내 습격 후 안성주둔 군부대가 경찰의 지원 요청으로 출동할 때를 기다렸다가 기습하여 아군에게 타격을 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당시 반란군들에게 기습을 당했던 현장에는 '3연대 13용사 전사지'[253]라는 표식이 있었다.

그 후 12월 4일 밤, 부남면 대유리(大柳里) 대티(大峙)마을에 반란군이 출몰, 마을에 거주하는 대한청년단원 김상오·김계원 등 11명을 학살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소식을 들은 무주경찰은 그 다음날 사찰유격대를 출동시켜 도주하는 적을 쫓아 지장산에서 전투를 벌여 패주 시켰다. 이 대티마을 사건은 무주읍내의 경찰관서 및 청년단 사무실을 습격한 사건과는 달리 마을의 일반 민가에 출몰하여 청년단원을 분쇄하려던 사건으로 훗날 좌·우익의 보복과 보복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 사건의 순국비가 대티마을 어귀에 있다.[254]

이렇듯 무주지방은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던 공산주의자의 은신처로 이용되던 지리산과 연계된 덕유산이 있었기에, 지역민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 여·순사건 이후 반란군의 거점이 되어버린 덕유산은 한국전쟁 후 이른바 '남한 유격대'라는 남한 빨치산의 아지트가 되었다. 그리하여 오래도록 전투에 시달리면서 피아(彼我)가 서로를 죽이고 죽어야 하는 비극의 현장이 되었다.

---

253)김철수 저, 위의 책, 45쪽.
254)현 부남면 대유리 대티마을 동구(순국반공청년순국비).

제3절 한국전쟁과 무주

1. 개전과 유엔군 참전

1950년 새해 벽두부터 덕유산을 중심으로 한 무주지역은 공비토벌작전에 파견된 군부대와 경찰병력을 싣고 다니는 차량들이 간간이 오가는 가운데 좌익분자를 색출하려는 경찰당국의 사찰로 더욱 어수선해진 가운데 그 해 5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준비가 한창이던 4월 1일, 치안당국에서 남로당의 간부 김삼용(金三龍)과 이주하(李舟夏) 등을 체포했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 후 국회가 개원되기 3일전인 6월 16일, 북한의 공산정권은 지난 4월에 체포된 김삼용·이주하 일당을 평양에 연금 중인 조만식(曺晩植)과 교환하자는 요구를 하였다. 그런 한편, 6월 23일에는 10개 보병사단과 1개 전차사단 그리고 3개 경비여단 등의 병력을 총동원, 38°선에 전진 배치시켰다.

그 당시 무주지역도 평온하지만은 않았다. 그간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에서 한국전쟁을 목전에 두고 유격활동을 해오던 남로당의 이현상 빨치산부대가 인근 산악에 집결하여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덕유산 공비의 잦은 준동에 심각함을 느끼고, 6월 24일 광주에 주둔하고 있는 제5사단 병력의 투입을 결정하고 작전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지축을 뒤흔드는 폭음과 섬광이 새벽의 고요를 깨뜨리며 인민군이 38°선을 넘었다. 불법 남침을 감행한 북한 공산당에 의해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한국전쟁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자유 양대 진영으로 대립된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써 냉전인 동시에 실전이며, 국부전(局部戰)인 동시에 전면전(全面戰)이라는 복잡한 성격을 가진 전쟁이고 또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 중에 하나였다'고 말한다.

그 당시 남한은 혼란기였으며, 더욱이 군비와 병력마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미약한 전투력으로 공산군의 침략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이에 북한 공산당의 전쟁도발 후 불과 이틀 만에 대한민국은 수도 서울을 비우고 대전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고, 그 다음날은 인민군에게 서울을 점령당하는 쓰라림을 겪었다.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과 함께 6월 30일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은 제8군 사령관 워커(Richard L, Walker)

중장에게 일본 규슈(九州)에 주둔 중인 주일미군 제24사단을 파견토록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미 육군 제24사단장 딘(William F, Dean) 소장은 스미스(Charles B, Smith) 중령이 이끄는 제21연대 제1대대를 선견대(先遣隊)로 지명하였다. 이들은 7월 1일 부산에, 그 다음 날 대전에 도착한 후 경기도 오산(烏山)에 방어선을 폈다. 그러나 7월 5일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남쪽으로 후퇴, 7월 10일부터 다시 금강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그렇지만 인민군이 금강을 도강(渡江)하려는 위세를 보이자 7월 15일부터 다시 후퇴했는데, 대전에 임시로 머무르던 정부는 다시 대구로 옮겨갔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행정당국도 피난 길에 올랐는데, 당시 충청남도 경찰국이 무주로 옮겨와 무주경찰서가 한 동안 충청남도 경찰국이 되었다. 한편 미 제24사단장 딘 소장은 신임 뷰챔프(Charles E, Beauchamp) 대령이 이끄는 제34 연대를 대전에 투입하였다. 이들은 인민군을 막으려 최선을 다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7월 20일 결국 대전마저 적에게 내주게 되었다. 그것은 경부선에서의 마지막 지연작전이 되고 말았다.

이날 대전을 점령한 공산군은 조선인민군 제1군단(군단장 김웅 중장) 소속 제3사단(단장 이영호 소장)과 제4사단(단장 이권무 소장) 그리고 제105전차사단(단장 유경수 소장)이었다. 이들은 대전에서 대오를 정비한 다음 제3사단은 22일 경부국도를 따라 대구를 목표로 동남진 하였고, 제4사단은 23일 금산도로를 따라 무주·거창 방면으로 기동하여 낙동강 서부지역으로 향했다. 천안에서 서쪽방향으로 전환한 제6사단(단장 방호산 소장)은 호남일대를 휩쓸고 진주 마산방면으로 갔다.

2. 인민군의 무주 점령

대전 함락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함께 무주지방에 피난령이 내려졌다. 7월 17일 최동섭(崔東燮) 군수를 비롯한 모든 행정관서의 공무원과 향토방위 임무를 맡고 있던 대한청년단 단원들이 피난 길에 올랐다. 또한 대전이 함락되던 7월 20일에는 허재창(許在昶) 서장을 비롯한 관내 경찰관 전원이 무주로 후퇴해 있던 충청남도 경찰 일행과 함께 후퇴하였다. 그 때 무주경찰은 훗날 닥쳐올지 모를 정국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한국전쟁 이전에 검거하여 수감 중이던 좌익과 경찰에서 순화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던 보도연맹(保導聯盟) 가입자 등을 연행한 뒤 후퇴 직전에 즉결처분 하였다.

그 당시 무주경찰은 관내에서 근무하던 모든 경찰관과 의용경찰·의용소방대원 등 200여명을 트럭 9대에 나누어 타고 설천·무풍을 경유하고 거창을 거쳐 함양군 서상면 소재지에 도착하였다. 그 곳 초등학교 교정에서 2박3일간 숙영하며 부대를 편성하고 다시 함양으로 이동하였는데, 7월 26일부터 무주를 거쳐 남원·함양으로 남진하던 인민군 제4사단(사단장 이권무 소장) 수천의 병력을 만나 격전을 벌였다. 이 전투에서 허재창 서장이 전사하는 등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피해를 입었다.

그 후 같은 대열에서 전투에 임했던 전라북도 경찰국 소속의 한 간부가 무주·진안·장수 지역이 수복되었다는 첩보가 있으니, 무주경찰은 원대복귀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무주경찰은 다시 서상면으로 이동하여 대오를 정비하고 육십령의 험한 고개를 넘어 무주와 지척에 있는 장수군 장계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안성지역으로 척후병을 보내 적정을 살피게 했는데, 무주지역은 이미 인공치하가 되었으며 인민군 후위부대가 병참선을 펴고 있어 들어갈 형편이 아니었다. 이처럼 허위첩보를 믿고 북상했던 무주경찰은 장계초등학교에서 2박3일간 숙영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때 진안을 거쳐 안의로 향하던 인민군 제4사단의 또 다른 병력의 공격을 받았다. 대적할 겨를도 없이 쫓겨야 하는 형편에 이르게 되자 지휘본부는 할 수 없이 전체 해산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전대원은 어디로든지 각자의 살길을 찾아 흩어져야만 했다.

이 때부터 무주군은 모든 행정의 공백기에 접어들게 된다. 그 당시 지리산에 제2전선을 구축해 놓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조선인민 유격대 제2병단 사령관 이현상이 지휘하던 빨치산부대가 덕유산에 숨어 있다가 7월 21일 안성으로 내려와 경찰지서와 면사무소를 장악하고 붉은 기를 꽂았다.

이로써 그들은 오랜 산 생활을 청산하고 몽매에도 그리던 지상으로 나오는 감격을 맛보게 되었다. 이들은 22일 무주읍내로 행군하여 모든 행정관서와 주요 건물들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지방출신 빨치산들을 앞세워 우익인사들을 비롯한 경찰가족 및 공무원 출신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정부양곡창고의 식량을 수탈하는 한편 대전을 점령하고 금산을 경유, 무주로 들어오는 점령군을 환영하기 위한 행사준비에 열을 올렸다.

한편 금강방어선이 붕괴되자 미군 총사령부에서는 장차 상륙부대로 응용하려던 제1기병사단장 게이(Hobart R, Gay) 소장에게 영동 방어 임무를 부여하였다. 7월 22일 제1기병사단 휘하의 팔머(Raymond D, Palmer) 대령이 이끄는 제8기병연대 소속 제1대대를 경부국도에 배치하고, 제2대대를 무주도로에 배치하여 방어작전을 펼쳤다. 그런데 이 날은 빨치산

이현상 부대에 의해 무주시가지가 점령당한 바로 그 날이었다.

그 날 무주 가도상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미 제8기병대 소속 제2대대 병사들은 금산·무주로 우회하며 남진하던 인민군 제3사단 제7연대와 제9연대로부터 공격을 받고 혈전을 전개하였는데, 23일부터 퇴로까지 차단당하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크롬베즈(Marcol B, Cromdez) 대령이 이끄는 제5기병연대 소속 1개 대대의 지원으로 병력을 보강하고 25일이 되어서 포위망을 뚫고 지례·김천방면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후위 부대의 2개 중대와 전차소대는 철수하지 못하고 전차 7대를 포함한 공용화기를 유기한 채 분산 탈출하였다. 그런데 제5기병연대 소속 1개 중대가 적진으로 잘못 들어간 관계로 많은 인명피해와 장비손실을 입었다. 그 당시 유기된 전차와 공용화기 들은 오랫동안 무주관내의 도로변이나 하천 등에 버려진 채 방치되었었다.[255)]

무주읍내가 인민군 정규군에게 점령당한 것은 7월 24일 새벽 2시였다. 인민군에 의해 무주가 점령당한 다음날, 즉 7월 25일은 무주도로상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던 미군 기병 연대가 필사의 탈출을 시도하였다. 이 때를 맞추어 무주읍내 상공에 미군 전폭기가 나타나 폭탄을 투하하였다. 삽시간에 전 시가지가 검은 연기로 휩싸였고, 3일간이나 계속된 불길로 중요 기관을 제외한 80%의 건물이 불에 타버렸다.

그런 와중에 인민군 제4사단은 금산을 지나 지리산 골짜기로 이동하여 안의·거창방면으로 향했다. 무주시내를 폭격하던 그 날, 대전과 금산에서 2,000여명의 병력을 강제로 보충한 인민군 제4사단은 다음날인 7월 26일, 전 차량을 동원하여 무주를 거쳐 진안·안의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일부 병력은 남원·함양방면으로 우회하며 남진하였다. 7월 22일 무주읍내에 입성했던 이현상의 빨치산부대도 숨돌릴 겨를도 없이 새로운 과업을 부여 받고 낙동강 전선으로 배치되었다. 이와 함께 해방군 이라고 일컫던 점령군도 정치·공작 등 소위 점거지역의 필수요원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군관에게 과업을 남긴 채 낙동강지역으로 떠났다.

이렇듯 한국전쟁 개전 후 만 1개월 만에 무주군은 공산군에게 유린되었고, 피난을 떠나지 못한 군민들은 공산치하에서 2개여 월을 버터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

255)무주면 용포리 잠두마을 부근 하천, 설천면 장덕리 수한마을 부근 하천 등지에 방치되어 있었다.

3. 인민군 점령하의 무주

1) 인공 치하의 무주

북한 공산군의 불법 남침 후 1개여 월 후인 7월 22일, 지리산지구 빨치산 이현상 부대가 덕유산에서 내려와 안성을 유린하고 무주읍내에 입성하였다. 곧이어 금산을 거쳐 거창 방면으로 기동하며 낙동강 전선으로 향하던 인민군 제4사단이 7월 24일 새벽 2시, 무주읍내를 점령하고 붉은 기를 꽂았다. 그 때부터 유엔군의 반격으로 수복되던 날까지 2개여 월간 길고도 무더웠던 무주의 인공(人共)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에 앞서 금강방어선이 무너져 전세가 위급하던 7월 17일, 피난령에 따라 최동섭 무주군수를 비롯한 행정관서 및 주요기관 요원들이 피난길을 떠났다. 한편 대전이 함락되던 7월 20일, 인민군 소장 방호산(方虎山) 지휘하의 인민군 제6사단에 의해 전라북도 도청소재지 전주(全州)가 유린되자, 정부는 7월 21일 전라남·북도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전세가 이에 이르자 무주에서는 경찰가족을 비롯하여 군인·공무원 가족 그리고 우익 인사들과 그 가족들까지 피난길에 올랐다. 그러나 형편이 여의치 못해 피난을 떠나지 못한 일반 주민들은 전세가 어떻게 될 줄 몰라 불안해 하며 집을 비워둔 채 가족을 대동하고 친지나 친척이 살고 있는 인근 산골마을로 피난살이를 떠났다. 따라서 무주읍내는 잠시나마 주인 없는 빈집만이 을씨년스럽게 지키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7월 22일 이른 아침, 주민 수십 명이 행정관청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정부양곡 창고 문을 열고 쌀 가마니를 각자의 집으로 가져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나서서 주민을 위협하면서 강제로 해산 시키고 창고를 잠궜다. 그리고 장차 점령해 올 빨치산과 인민군의 군량미로 사용케 하였는데, 그 후 그 사람은 지방빨치산 대장이 되어 무주지역에서 활동하였다.[256]

7월 24일 새벽 2시, 미리 들어와 기다리고 있던 빨치산의 영접 속에 소련제 소형 경기관총을 어깨에 맨 인민군 제4사단 병사들이 깊은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무주읍내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일반 주민이 알게 된 것은 다음날이었다. 그 당시 무주를 점령한 인민군은 남조선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해 온 것이라 하며 '해방군'이라 부르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잠시 쉴 겨를도 없이 필수요원만 남겨둔 채 낙동강 전선을 향해 거창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

256)인공시대 내무서원으로 활동하다가 입산, 빨치산을 조직한 무주읍내 거주 김갑봉은 뒤에 무주군당 유격대장으로 활동하였다.

인민군에게 밀리다가 무주지역에 이르러 퇴로마저 차단당한 미군 제1기병사단 제2대대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출격한 미군기가 무주읍내를 폭격한 날은 7월 25일, 즉 인민군이 무주를 점령한 다음 날이었다. 그 날 무주읍내에는 주민 대부분이 집을 비우고 피난을 떠난 뒤여서 인명피해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군청·경찰서·학교 등 주요건물을 제외한 일반 주택 거의가 폭격을 당해 3일 동안 무주읍내는 검은 연기로 휩싸였다. 또한 건물의 80%가 잿더미로 변해버려 무주를 점령한 인민군도 며칠이 지난 후에야 겨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들은 무주군청 건물에 인민위원회 사무실을 차리고 경찰서 건물에는 내무서 간판을 걸은 다음 이른바 정치사업을 시작하였다. 먼저 북한 출신으로 구성된 정치공작대는 지하조직망을 통해 미리 짜놓은 군·면·리 단위 노동당과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행정기관 구실을 하도록 하는 한편,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공무원 출신이나 교원·금융조합 직원 등을 수배하여 강제로 복귀시키며 부역(附逆)에 종사 하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 정치 공작대원들을 각 면·리 단위까지 파견하고 "6·25동란은 남한이 도발하여 일으킨 전쟁이며", "인민군이 반격하여 남한을 점령한 것은 남한의 인민을 독재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선전하였다. 또한 주민을 회유하면서 농촌·학교·직장·가두 등에서 집회를 열고 토지개혁 문제와 노동법령을 선전하는 한편 공산정권의 남침도발 책임을 남한에 뒤집어씌우기 위해 이른바 '평화옹호세계위원회 호소문 지지서명'과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성명서에 대한 지지서명' 운동을 벌여 유엔에 발송하였다. 또한 노동당을 비롯한 인민위원회·노농동맹·여성동맹·청년동맹(민청)·소년동맹 등의 단체를 마을 단위까지 조직하였다. 이에 따라 마을마다 붉은 완장을 두른 사람들이 설치기 시작하였다. 다른 한편 정치공작대를 비롯한 내무서와 읍·면분주소, 정치보위부·조국보위부 등 주요기관 요원과 점거지역 보안사령부 예하의 치안대, 그리고 군숙청대 등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요소에 널려있어 지역민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만 했다. 또한 점령군은 정치보위부를 중심으로 내무서·여성동맹·청년동맹 등의 단체들을 동원하여 우익인사 체포와 '반동분자' 숙청사업을 벌였다. 무주읍과 가까운 대차리에 무주 관할 정치보위부를 설치하고 이른바 지방 빨갱이라 부르던 사람들의 제보에 따라 지방유지나 지주들을 연행하고 취조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반동분자'들을 가려내 여하 한 구실을 붙여 처형하였다.

무주지역이 인민군에게 점령 당한지 불과 며칠 만에 내무서 감방에는 수많은 우익계 반공 인사들이 수감되었다. 그 때 무주읍 당산마을에 사는 김낙구(金樂九)가 단신으로 내무서에 잠입하여 우익 인사들을 탈출 시킨 뒤 발각되어 총살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257)

김낙구가 내무서 감방문을 부수던 7월 29일은 고유 명절인 유월 유두(流頭)였는데, 이날 무주 상공에 미군 폭격기가 나타나 무주읍내를 폭격한 후 대차리(大車里) 서면마을까지 폭격하여 민가 100여 호가 불타는 일이 발생하였다. 폭격기는 다시 안성면 소재지 상공으로 날아가 장수방면으로 남진하는 인민군이 집결해 있던 신안성초등학교 교실을 폭격하였다.

미군기가 무주읍내를 폭격 할 때에는 읍내 중심지에 기름을 뿌린 후, 하리에서부터 상리방향으로 비행하며 폭격을 가했는데, 폭격 맞은 읍내는 삽시간에 검은 연기를 뿜으며 화염에 휩싸였다. 그런데 그 날 무주를 점령하고 있던 인민군과 내무서원들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에 연행해 온 우익인사들을 내무서 감방에 가두어 둔 채 무주교 건너, 속칭 재실 송림에서 폭격이 끝날 때까지 피신하였다. 이에 김낙구는 미군기가 무주읍내를 한창 폭격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내무서로 달려가 감방문을 부수고 우익인사들을 탈출 시킨 후 발각되어 체포된 후 갖은 고문을 당했고, 며칠 후 당묘산 옆 재실의 송림에서 인민군에게 형장의 이슬이 되어 생을 마감하였다.

2) 인공의 종말과 하늘바위 참상

정치보위부는 우익반공인사들을 체포하는 일 외에 매일 밤 마을회관에 주민들을 소집해 놓고 공산주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낮에는 군수물자 수송 등에 강제로 동원시켜 조금도 쉴 틈을 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치안대원으로 하여금 주민의 동태를 파악·감시케 하면서 비협조적인 사람들은 반동분자로 숙청한다고 협박하여 주민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그런가 하면 '조국보위후원회'를 앞세워 전쟁 중에 필요한 물자조달을 위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금품이나 물품을 모집하여 전선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소년연맹'에서는 인민소년단을 소집하여 마을회관 등을 순회하며 김일성을 찬양하는 연극이나 무용·노래 등을 공연하게하여 불신하는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는데 열을 올렸다.

한편, 낙동강까지 밀린 유엔군은 7월말에 이르러 지연작전을 마감하고 8월 초부터 '낙동강 방어작전'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한국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유엔군과 국군은

257)무주읍 당산리 숲거리 <반공투사 김낙구비>.

8월 1일 각 군단 및 사단으로 하여금 지정된 책임지역으로 부대를 이동하여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방어선 구축이 완료되기 전인 3일부터 인민군의 도하(渡河)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5일부터 국군 제1사단이 인민군의 총공세를 받게 되면서 낙동강 전투는 나날이 치열해졌다.

밀고 밀리는 전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구까지 밀고 온 인민군은 당초 남한의 해방을 목표로 한 8월 15일이 되자 총공세에 나섰다. 반면 유엔군 사령부는 대구전선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폭기의 출격명령을 내렸다. 그 때 왜관 서북쪽 낙동강변 일대에 출격한 B-29 폭격기 98대가 960톤의 폭탄으로 융단폭격을 가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폭격 기록을 세웠다. 8월 18일, 대구역 부근에 인민군이 쏘아 올린 박격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정부는 또다시 부산으로 옮겨야 하는 형편에 이르렀다.

이처럼 연일 계속된 전투속에 수없이 많은 병력손실을 입은 인민군사령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내린 '점령지역에서의 전시동원령'에 근거하여 의용군 모집을 본격화하였다. 당시 의용군은 18세 이상의 광범위한 청년층으로 하되 각 도별 시·군마다 징집수를 할당하고 빈농출신 청년들을 많이 끌어들이도록 하는 한편, 노동당원으로 변절한 자들도 의무적으로 징집하였다.

이에 18세 이상 학생이면 모두 '조선민주청년동맹'(민청)에 가입시키고 의용군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였다. 무주에서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 노동당 출신이나 읍·면 분주소장, 청년동맹·여성동맹·노농동맹 위원장 등에게 붉은 완장을 착용시켜 거리에 배치하거나 가정을 방문케 하여 온갖 감언이설로 청년들을 회유 끌어들이도록 하였다. 그 때 징집된 자들은 간단한 훈련을 마치고 일부는 낙동강 전선으로 배치되었고 일부는 북한으로 끌려갔다.[258)]

대한민국 정부가 부산으로 옮겨간 후 8월 하순부터 국군의 전황은 점차 호전되었다. 반면에, 8월 공세를 통해 부산을 점령하려던 인민군은 대구도 점령하지 못한 채 9월로 접어들었다. 유엔군과 국군은 날이 갈수록 병력과 화력을 증강시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며, 9월 15일에는 유엔군과 한국군 해병대가 맥아더 장군의 진두지휘로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였다.

초조해지기 시작한 인민군은 마침내 철수를 준비하면서 전선의 부족한 병력을 충당하기 위해 의용군 징모에 더욱 기승을 부렸다. 결국은 '학생 의용대'까지 조직, 인민군을 지원한다.

---

258)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대사전≫, <의용군 강제징집>, 1974, 825쪽.

는 명목하에 전선으로 끌고 갔다. 한편, 지리산과 인접한 전라남·북도에서는 청년·학생과 일반 주민에게까지 빨치산 투쟁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며 산악으로 내몰았다. 특히 부역자 (附逆者)와 일반 주민에게까지 '인민군은 곧 다시 내려와 남조선을 꼭 해방시킨다'라고 선동 하면서 강제로 입산시켜 빨치산을 조직케 하고, 다음 기회를 대비하는 '제2전선'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인천상륙작전 다음 날인 9월 16일,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고 반격 1주일만에 인민군 방어선을 돌파하였다. 이에 인민군 사령부는 9월 23일을 기해 모든 부대의 후퇴를 명령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의 추격에 쫓기던 인민군은 9월 25일 미군 제5연대 전투단에 의해 무주와 접경을 이루는 김천까지 밀려나, 무주지역 탈환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무주지역에서도 정치보위부·정치공작대 등 북한출신 요원들은 철수준비를 완료하고 밤을 이용하여 후퇴하였다. 이때 인공치하에서 부역했던 사람들 중 적극 가담자 수십 명은 후퇴하는 기관요원들을 따라 월북하였고, 나머지 사람들 중 더러는 인근 산으로 올라가 빨치산부대에 들어갔으며, 더러는 수복 후의 후환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목숨 을 끊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졌다.[259] 이처럼 어수선한 가운데 며칠이 지나고 9월 26일 즉,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게 되었다.

그 해의 추석을 맞은 주민에게는 조상에게 올릴 차례상을 차리기는커녕, 사람이 먹을 밥 한술 장만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날은 무주를 점령하고 있던 인민군 잔여 병력과 기관요원들이 완전히 철수하는 날이어서 더욱 어수선하였다. 그 날, 인민위원회 사무실은 텅 빈 상태였으나 내무서에는



반공혼탑과 하늘바위 골짜기

내무서장을 비롯하여 군관과 정치요원 몇 명, 그리고 후위로 남아있던 인민군 병사 몇 명이 남아 있었다.

이들은 점령기간 중 체포하여 수감했던 반공·우익인사 진수진 (陳壽鎭) 등 70여명을 줄지어 묶은 채 금산방향으로 끌고 갔다. 그

259)그 당시 이와 같은 상황은 도처에서 발생되었다고 한다.

리고 무주읍 용포리에서 적상면 배골로 가는 골짜기에 접어들어 속칭 '하늘바위'라는 곳에 이르러 줄지어 세워놓고 집단 총살을 감행하고는 금산방향으로 자취를 감추었다.[260] 그때 부남면 출신 주성조(朱聖祚), 안성면 출신 이태영(李泰永) 등 14명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나머지 모두는 인민군의 총탄에 맞아 숨을 거두었다. 이로써 무주지역은 7월 24일 인민군에 의해 점령당한 이후 2개 여 월간의 인공시대(人共時代)를 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민군 점령 하에서 열성당원으로 활약했던 지역출신 부녀자들은 패주하는 인민군을 따라 월북함으로써 가족과 기나긴 이별을 하게 되었고, 인민군에게 끌려가 의용군이나 빨치산이 된 젊은이들은 친구나 형제와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싸우다 흔적도 없이 죽어가는 비극을 맞았다. 그 외에 반공·우익인사 가운데에는 무주에서 내무서원이나 치안대원에게 체포되어 전주형무소로 이송되었다가 9월 26일(추석날 밤), 후퇴 길에 올랐던 인민군에게 무참히 처형당한 인사들이 많았다. 그 중에는 제헌국회의원 김교중(金敎中)을 비롯하여 대한청년단 단장을 지낸 오문환(吳文煥), 무주군수를 역임하고 정읍군수로 재직하던 유택열(柳澤烈), 당시 무주군수로 재임 중 피난길에 체포당한 최동섭(崔東燮), 무주군청 내무과장을 지낸 김영근(金榮瑾) 등이 있었다.

4. 딘 소장과 무주

인민군에 의해 대전이 함락되던 7월 20일, 미 제24사단장 딘 소장이 후퇴 중 행방 불명된 후 36일 만인 8월 25일 적의 포로가 되어 나타난 사건이 발생하였다. 딘 소장은 대전·금산의 미로에서 방황하며 포로가 되기 열흘 전에 무주지역으로 들어와 산 속을 헤매었다. 그리고 이웃 마을인 진안군 상전면 운산리 원송대마을 앞에서 한 밀고자에 의해 적의 포로가 되었다. 그에 관한 이야기를 1995년 국방군사연구소에서 펴낸 ≪한국전쟁≫ 상권과 2000년 아세아문화사에서 발행한 신호상(申虎相) 편저 ≪별은 잠들지 않는다≫를 참조하여 소개한다.

윌리암 에프 딘(William F. Dean) 소장은 1899년 생으로 미국 일리노이(Illinois)주 출신이다. 그는 1947년 10월 미군정장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1948년 5월 총선을 치를 때까지 근무한 인연이 있었다. 그 후 서울에 사령부를 둔 미군 제7사단장으로 취임했는데, 이듬해 일본으로 건너가 제8군 제24사단장으로 재직 중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

260)무주읍 용포리(추동) 하늘바위 <반공충혼탑>.

한국전쟁 개전 5일째인 6월 30일, 한강선(漢江線)에서 국군과 인민군 사이에 공방전이 한창 전개되었다. 그 때 일본 규슈(九州)에 있던 딘 소장은 8군사령관 리챠드 엘 워커(Richard L. Walker) 중장에게서 유엔 총사령관인 맥아더 대장의 한국전쟁 참전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딘 소장은 동년 7월 1일 스미스(Charles B. Smith) 중령이 이끄는 제21연대 소속 제1대대를 선견대로 하여 참전하였다.

그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은 인민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하였다. 그 결과 전선에서 계속 밀리다가 오산(烏山)에서 첫 전투를 개시한 이래 불과 며칠 사이에 금강방어선까지 밀리게 되었다. 7월 16일부터는 금강선도 무너지기 시작하여 대전에서 지연작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20일에는 파죽지세로 남진해 오는 인민군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대전마저 적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전황의 심각성을 느낀 딘 소장은 그 날 오후 5시 30분, 부연대장 와링턴(Robert L. Wadlington) 중령에게 지휘소를 폐쇄하고 옥천가도를 따라 부대를 철수토록 하였다. 그러나 불과 30분 후 딘 소장 일행은 옥천가도에서 금산도로로 잘못 들었다. 그리고 이미 도로를 차단하고 있던 인민군의 사격을 받고 분산되어 18명의 일행과 한께 보문산(普門山) 부근으로 은신하였다. 그 날 밤 딘 소장은 부상병에게 먹일 물을 찾아 헤매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실신하는 바람에 철수 대열에서 이탈되고 말았다.

7월 20일 밤, 일행과 헤어진 딘 소장은 다음 날 아침 어느 산속 바위 뒤에서 공교롭게 제19연대 소속 테이버(Stanly Tabor) 중위를 만난다. 그 후 사단본부가 있을 대구를 목표로 삼아 며칠 간의 행보를 함께 한다. 이들은 7월 25일경, 진산(珍山) 부근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이르러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어느 밀고자에 의해 인민군의 급습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도망쳐 나오다가 데이버 중위와 헤어져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주변의 산악을 헤매게 된다. 낙동강전투가 전개될 무렵인 8월 초순에서 중순에 이르기까지 대구를 향한 미로의 여정은 그칠 줄 몰랐다. 후일에 확인되었지만 낮에는 깊은 숲속이나 바위틈에 숨어 지내고, 밤에는 남쪽을 향해 발길을 옮겼는데도 겨우 금산(錦山) 부근만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 무렵, 진안군(鎭安郡) 용담(龍潭) 부근을 지나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유평(柳坪)마을 부근에서 한 여인의 눈에 뜨이게 되어 치안대의 기습으로 또 한차례 생사의 기로에서 헤맸다. 어둠 속을 헤치며 개울을 건너고 비탈진 산으로 기어올라 포위망을 뚫고

필사의 탈출로 목숨을 건진 것이다. 그 날이 바로 딘 소장 실종 26일째인 8월 15일로 인민군 점령하의 무주군 부남면에서 일어난 유명한 사건이다.

그 이후 딘 소장은 부남면과 적상면의 경계를 이루는 조항산(鳥項山) 능선을 배회하였다. 8월 19일 적산면 방이리 고방(古坊)마을 부근의 높은 산속에서 외딴집 한 채를 발견하고 찾아가던 도중 기진하여 잠시 앉아 쉬는 사이에 잠들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외딴집에 사는 박종구(朴鐘九)와 가족을 만나 밥·옥수수·감자·고기 등의 귀한 음식과 잠자리까지 제공받아 3일간 편하게 숨어 지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어쩌면 인민군에 들켜 불행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박종구 가족은 딘 소장을 빨리 보내기로 했고, 따라서 딘 소장은 8월 22일 밤, 그 동안 정들었던 박종구와 그의 처남 김주현의 도움을 받아 큰길과 가까운 생이봉이라는 등성이로 이동하여 혼자 하룻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찾아온 박종구 일행과 다시 만나 온종일 함께 있다가 어둡기 전에 신작로가 보이는 삼유리 구왕산(九王山) 부근에 닿아 무주와 진안방향, 그리고 대구방향으로 가는 길을 안내 받은 후, 서로 눈시울을 붉히며 작별의 악수를 나누었다.

산속에서 이슬을 맞으며 또 하룻밤을 홀로 지샌 딘 소장은 대구를 겨냥해서 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온종일 산등성이를 따라 걸었다. 그리고 어둠이 깔릴 무렵부터 큰길을 따라 밤새 걸었다. 그 다음 날인 8월 25일은 어찌 된 일인지 무주 관내를 벗어나 진안방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진안군 관내에 들어선 지 얼마 안되어 딘 소장은 어떤 밀고자에 의해 인민군의 포로가 되었다. 이로써 7월 20일 실종되어 36일간 미로에서 방황하다 포로가 된 딘 소장은 3년 만인 1953년 9월 4일 포로교환으로 풀려나 귀환하는 기막힌 사연의 일화를 남기게 되었던 것이다.

5. 덕유산 공방전과 휴전

1) 인민군 패잔병과 빨치산의 합류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유엔군은 낙동강전선에서 역사적인 반격작전을 전개하였다. 북한 김일성은 9월 18일 낙동강전선에서의 단계적 철수를 명령하면서 금강과 소백산맥에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인민군 주력부대가 9월 19일을 기해 철수를 시작하였는데, 9월 21일 유엔군의 인천상륙 소식이 전전선에 전파되면서 인민군의 사기가 떨어졌다. 9월 22일 미8군 사령관의

추격명령 하달로 전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한 김일성은 9월 23일을 기해 인민군의 총후퇴를 명령하였다. 이로써 유엔군과 국군은 낙동강전선에서의 반격개시 1주만에 인민군방어선을 완전 돌파하게 된다. 낙동강 돌파작전을 끝낸 유엔군은 9월 23일부터 인천상륙부대와 연결하기 위해 추격작전을 펴면서 패잔병 소탕전과 병참선 경계 등 후방지역 방어임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9월 25일. 미 제5연대 전투단이 제21연대와 협공으로 인민군 전선사령부인 제1군단 사령부가 위치한 김천을 탈환했고, 그 다음날 추석에는 후위 부대인 제19연대가 선두에 나서 무주와 인접한 영동까지 돌입하여 인민군을 패주시켰다. 이 날이 바로 무주의 인공시대가 막을 내린 바로 그 날이다.

그 무렵 미 제1군단 예비병력으로 편제되어 있던 국군 제1사단은 9월 25일 상주의 낙동리에서 강을 건너 추격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소백산맥 준령을 따라 월북하려는 인민군 패잔병력을 추격하여 퇴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소탕작전을 벌였다. 미 제2사단은 9월 24일 의령 신반리에서 김천으로 통하는 도로를 차단하고 적을 격멸시켰다. 그 때 인민군 제2사단 2,500여 병력이 차량과 장비를 버리고 후퇴하였다. 또한 퇴로를 차단당한 인민군 제1군단 예하 5개 사단 병력이 개별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 산악으로 잠입하였다. 이로써 훗날 이곳은 공비들의 게릴라전 기지가 되었다.

그 무렵, 인민군 패잔병 소탕작전에 돌입한 유엔군 후위부대의 미군은 무주를 점령하고 있던 인민군의 후퇴 후, 무주읍내로 진입하여 주변을 정찰한 후 잠시 무주초등학교 교정에 집결하였다가 다른 지역으로 철수하였다. 그 때 무주초등학교 옆 과수원에 미처 후퇴하지 못한 인민군 패잔병이 숨어 있다가 미군 철수와 함께 산속으로 도주하였다. 서울이 수복되던 9월 28일, 미 제24사단 제19연대가 대전을 탈환하였고, 미 제2사단 제38연대는 거창에서 소백산맥을 넘어 전주를 점령하였다.

그 당시 무주의 산악지역에는 낙동강전투에서 패전하고 쫓기는 인민군과 의용군 패잔병이 퇴로와 숨을 곳을 찾아 떼를 지어 몰려들었다. 다른 한편, 영남과 호남에서 후퇴한 적들이 대전에 집결하였는데, 퇴로가 차단되어 철수하지 못하자 훗날 태백산맥과 연결할 수 있는 덕유산과 지리산으로 모여들었다. 그 중 마산 서부지역에서 싸우다 후퇴한 인민군 제1군단 예하 제6사단 방호산 부대 2,000여명과 제7사단 박성식(朴成植) 부대 1,000여명, 그리고 영·호남에 걸친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약하던 빨치산 부대 및 남로당 출신 기관원 등 1,000여명을 합한 4,000여명이 덕유산에 운집하였다. 그 얼마 후, 제6사단 방호산은 예하 부대원

1,000여명을 이끌고 소백산맥을 벗어나 태백산맥을 타고 북한으로 탈출하였다.

한편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방에서는 인민군 패잔병력과 미처 북상하지 못한 도당간부급을 중심으로 한 각급 기관원·민청·여맹원 등 부역자 3,000여명이 조선노동당 전북도당 유격대사령부가 있는 순창군 구림면 여분산에 모여 부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도당사령부를 회문산(回文山)으로 옮겼는데, 도 인민위원회는 완주군 운장산(雲長山)으로 옮겨갔다. 이들은 훗날 지리산과 덕유산을 넘나들면서 유격전을 전개하였는데, 그 때 전북도당 위원장 겸 유격대 사령관은 방준표였고 부위원장겸 부사령관은 조병하였다.

무주에서는 인민군 철수와 더불어 인공치하 내무서에서 열성적으로 부역한 김갑봉이 치안대·민청·여맹원, 그리고 인민군 낙오병 등 40여명을 규합하여 적상면 방이리 안골이라는 골짜기로 들어가 빨치산을 조직하였다. 이 부대가 곧 무주군당 유격대로 세칭 김갑봉 부대이며, 그 때부터 무주지역을 중심으로 유격활동을 전개하였다.

2) 무주의 청년방위대·방위군

그런 반면, 피난하지 못하고 인근 산악이나 동굴 등지로 숨어 인공치하가 끝나기 만을 기다리고 있던 김영희·박영식·이상용 등 반공청년 10여명은 인민군이 철수하자 무주읍내 소재 장춘여관(長春旅館)에 모여 몇 차례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안형래·신정균·정태원 등 30여명의 동지를 규합하여 '반공투쟁단'을 조직한 후 낙동강전투에서 패전하고 후퇴하는 인민군 패잔병에게 밥과 술을 사주며 무기를 확보하여 치안활동을 시작하였다.[261]

그런 가운데 낙동강 이남으로 남하했던 대한청년단(단장 김동헌) 청년방위대 일행은 경산(慶山) 방위군 신병교육대에서 낙동강전선에서 유엔군이 승리하여 북진할 때까지 모병과 신병훈련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유엔군의 북진개시와 함께 귀향 길에 올랐다. 그 때 대한청년단 청년방위대 일행은 한국전쟁 개전 때 부산 방면으로 피난을 떠난 송재황·김종석·박용득·김동묵 등 무주지역 인사 20여명과 함께 북진하는 유엔군과 국군의 진군대열을 따라 영동까지 북상하였다. 그 후 무주를 향해 행군하였는데, 중간까지 마중 나온 반공투쟁단과 청년학도의 선도를 받으며 야간행군을 감행,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무사히 귀향하였다. 그 때가 10월 초순경이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남하했다가 현지에서 현역 사병이나 장교 등으로 입대한 진경진 등

261)무주군지편찬위원회, ≪무주군지≫, 1990, 542쪽.

십수명은 전선으로 배치되어 적과 싸우다가 더러는 전사하고, 더러는 부상을 당해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함께 귀향할 수 없었다.

그 당시 귀향한 청년방위대 출신 방위군 명단은 다음과 같다.[262)]

■ 방위군 장교 (11명)
○ 대위 김창신 (모병관겸 정보관)
○ 대위 허희경 (피난민 관리관겸 정보관)
○ 중위 김준희 (부관)
○ 중위 이승익 (작전기획관)
○ 중위 진승준 (모병관겸 통역관)
○ 중위 김겸중 (모병관)
○ 중위 이만년 (본부 중대장)
○ 중위 이희태 (무주 소대장)
○ 소위 한장석 (안성 소대장)
○ 소위 김덕표 (설천 소대장)
○ 소위 박희성 (수송관)

■ 호국군 사병 (4명)
○ 중사 김창수 (정보하사관)
○ 병장 양은철 (행정요원)
○ 병장 박은식 (취사반장)
○ 일병 김용길 (취사병)

이들이 귀향할 때, 무주읍내는 인민군이 후퇴한 후 여서 군청과 경찰서 등 주요기관에 무혈 입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내의 산악지대와 마을 외곽에는 인민군 패잔병을 비롯한 빨치산이 은신하고 있었으며, 특히 야간에는 4~50명씩 떼를 지어 수시로 출몰하였다.

10월 2일, 유엔군사령관의 북진명령이 있었고, 제9군단으로 편제된 제2사단과 제25사단

262)한국전쟁 당시 대한청년단 감찰로 활동하다가 남하하여 경산방위군 신병교육대에서 정보하사관으로 근무했던 무주읍내 출신 김창수(1932년생)의 증언에 의한 명단임.

에게는 부산과 서울간의 병참선 경계임무가 부여되었다. 이들은 한국경찰과 합동으로 남한에 산재한 인민군 패잔병과 빨치산 유격대 소탕작전에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 제9군단에는 10월 5일 남원에서 창설된 국군 제11사단이 배속되었는데, 이들은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에 투입되었다.

그럴 즈음에 귀향한 대한청년단 청년방위대는 무주읍에 거주하는 김영희를 대장으로 삼아 활동하던 반공투쟁단과 무주중학교 4학년 생도 김진규·엄태섭·박수하·백순기·이서균·김인수 등을 주축으로 구성된 대한청년단 학도대를 규합하고, 김창신을 편대장으로 하는 전투편대로 조직을 개편하였다.[263)]

그리고 11월 10일 전투경찰대에 의해 무주읍을 비롯한 관내 일부지역이 수복될 때까지, 무주청년방위대로 1개월 보름여간 주변의 빨치산과 대치하였다. 이들은 경찰서장 관사를 본부로 삼고 군청·경찰서 등 주요기관을 지키면서 덕유산 주변의 구천동과 토옥동을 비롯한 괴목리 일대에서 접전을 벌였다. 또한 희생을 당하며 오지마을을 수복하는 등 관내 치안 유지와 지역방위 활동에 많은 공헌을 남기고 본부를 무주여자중학교로 옮겼다.

그로부터 보름후인 11월 25일. 김두운(金斗云) 서장이 부임해 오면서 경찰병력과 공조하여 공비토벌 작전에 임하는 등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그 해 12월 21일, 정부에서 '국민방위군설치법'을 공포하여 만17세 이상 40세 미만의 장정을 제2국민병역으로 편제하면서 '국민방위군'을 창설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청년단을 해체하고 '국민방위군'으로 개편하였고 제2국민병 해당자 전원을 수용하여 정식으로 군사훈련에 치중토록 하였다.

이듬해인 1951년 1월 초순부터 향토 장정들을 제2국민병으로 입대 시켜 전선으로 배치하였다. 얼마 후, 1·4후퇴로 인한 전선의 변화에 따라 국민방위군도 제2국민병 장정들을 후방으로 이송토록 했다. 이때 방위군사령부 수뇌부들이 그 틈을 이용하여 제2국민병 장정에게 지급할 막대한 국고금과 보급물자를 횡령하여 수천명의 사망자와 무수한 병자를 내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 해 3월 중순부터 이미 입영했던 제2국민병 장정들은 참담한 모습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이처럼 문제가 된 국민방위군은 4월 30일 국회에서 해산이 결의되었고 5월 12일 해체되었다. 그 때 무주지역 방위군 기간요원들은 해산과 더불어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기도 했고 더러는 경찰간부나 현역장교 등으로 전직하여 계속 조국수호 임무에 종사하기도 했다.

---

263)한국전쟁 당시 무주중학교 전수과 생도로써 학도호국단 간부를 역임한 무주읍내 출신 김진규(1933년생)의 증언에 의함.

3) 무주 학도들의 반공투쟁

다른 한편, 1950년 9·28수복 후에도 무주지역은 후퇴하지 못한 잔비들의 잦은 출몰로 산간지역 주민들은 공비들의 만행에 의한 시달림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이에 애국심에 불타던 이 고장 출신 청년·학도들은 '내 고장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굳은 일념으로 무주중학교 2·3학년을 중심으로 하여 뜻 있는 선·후배 40여명을 규합하여 학도대를 조직하고 그 가운데에서 선배였던 장택진을 대장으로 김진수를 부대장으로 추대한 다음, 지역 치안유지와 미수복지구 수복을 위한 공비토벌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그 때 대한청년단 김동헌(金東憲) 단장이 11월 25일 무주경찰서장으로 부임해 온 김두운(金斗云) 서장과 만나, 이미 조직된 학도대를 전투대로 편제 하여 운용할 것을 논의하고 전기 학도대와 협의하여 2개 소대의 '학도의용대'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부대명칭을 '비호대(飛虎隊)'라 하였다. 이 학도의용대는 무주중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전주사범학교 생도 김수원을 비롯한 대전공업학교 생도 신영진, 대전사범학교 생도 이배원 등과 같이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더라도 무주가 고향인 학생들 다수가 참여하였다.[264)]

학도의용대는 경찰에게서 무기를 지급 받고 무주에 주둔하고 있던 전투경찰병력과 공조하여 주요지역 경계근무와 미수복지역 수복을 위한 공비토벌 작전에서 수많은 공적을 남겼다. 적상면 방이리 배골에 출동하여 빨치산과 첫 전투를 벌이면서 김일성 대학 출신 정치공작대 원(여성) 1명을 포함 3명의 빨치산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겨울철 보급투쟁을 위해 자주 출몰하는 공비들을 토벌하기 위해 경찰병력과 합동작전을 벌였고, 미수복지역인 부남면을 수복하는 등의 전과도 올렸다.

한편 1950년 10월 10일 유엔군과 국군은 원산을 점령하고, 10월 19일 평양에 태극기를 꽂았으며, 11월 25일에는 청진을 점령한 후 압록강에 닿아 그리도 갈망하던 통일을 바로 눈앞에 두었다. 그러나 11월 19일을 기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넌 중공군에 의해 유엔군과 국군은 다시 남쪽으로 밀리기 시작했고, 12월 4일에는 평양을 다시 적에게 내주고 철수하였다.

그 무렵 무주지역은 무주읍내를 비롯한 일부 지역이 수복되었지만, 안성면 일원과 구천동 일대의 덕유산 주변에는 인민군 패잔병과 빨치산 유격대 등 약 2,000여명의 공비가 운집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주변 마을은 그야말로 낮에는 태극기를 꽂으며 공비토벌군을 맞아들이

264)무주읍 당산리 한풍루공원내<무주학도 6·25참전기념비>.

고,밤에는 인공기를 꽂아놓고 공비들을 맞으며 사는 형편이었다. 그것은 무주가 인민군 패잔병의 유일한 퇴로로 태백산맥과 연결이 쉬운 소백산맥 중심부에 덕유산이 위치하고, 또한 한국전쟁 이전부터 반란군의 아지트로 이용되던 지리산과 회문산과의 연결이 용이한 곳이기에, 조여오는 포위망을 피해 이 곳으로 몰려들어 유격전을 기도한 까닭이었다.

12월로 접어들면서 무주경찰은 공비의 준동이 심해 미수복지구로 남아있던 안성지구 수복계획을 세웠다. 12월 3일 경찰병력 260명과 학도의용대 60명으로 전투대를 편성, 공비들이 점령하고 있는 안성면 장기리 단지봉으로 출동하였다. 이들은 적들이 구축해 놓은 진지를 공격, 공비들을 패주 시키고 단지봉 고지를 성공적으로 탈환하였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매복근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다음날인 12월 4일 새벽, 전초기지에서 매복근무 중이던 학도의용대와 경찰이 공비의 기습공격을 받아 이점용(무주중학교 2학년), 김봉덕(무주중학교 3학년), 이배원(대전사범 2학년) 등 학도대 10여명과 경찰관 수명이 전사하고 다수의 부상자를 내는 불행을 당하였다. 그런 와중에, 같은 조에서 근무하던 안성지역 학도대 대장 김수원(전주사범 2학년)이 구사일생으로 탈출에 성공하였다. 안성지역 수복을 위해 시작된 단지봉 전투는 12월 중순까지 2주간 밤·낮 없는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700여명에 달하는 대병력에 신식무기로 중무장을 갖추고 공격해 오는 공비들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265)]

이에 경찰은 학도의용대와 함께 안성지구 수복을 다음 기회로 미룬 채 안성면에 거주하는 공무원·청방대원·리장·지역유지 등 지역주민 약 300여명을 대동하고 진안군 동향면 방향으로 후퇴하였다. 그리고 안천면과 금산군의 부리면을 거쳐 12월 19일경 무주읍내로 귀대하였다. 그 때 안성 단지봉전투에서 경찰은 전사 3명과 부상 3명의 피해를 입었으나, 학도의용대는 전상자가 11명이나 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그 후 안성지역은 국군 제11사단 화랑부대가 들어와 본격적인 공비토벌 작전을 전개할 때까지 인공기가 다시 게양되었다. 이 단지봉 전투 후에도 학도의용대는 적상면과 부남면 등에 출동하여 경계근무에 임하면서 도 수 십 차례 공비들과 교전을 벌였으며, 적상면 괴목리에 출동하여 오지마을인 상조와 하조를 수복하는 등 수많은 전공을 세웠다. 그 후 학도의용대는 1951년 1월 중순경, 군부대 주둔으로 수복기미가 보이자 해산하면서 대부분은 학원으로 돌아가 학업에 정진했으나 더러는 일반경찰이나 전투경찰에 투신하기도 하였다.

---

265)안성면 장기리 단지봉<단지봉경찰전적비>.

그 당시 단지봉전투 외에도 다른 전투에서 김석만(안성중학교 2학년), 고무상(무주중학교 3학년), 이채형(무주중학교 3학년), 최만수(무주중학교 4학년) 등이 전사하였고, 장인갑(설천)과 강수완(안성) 등 수명의 대원이 전상을 입었다. 이들은 오로지 조국수호를 위해서 전장에 몸을 던져 공비와 교전을 벌이며 애국충정을 불태우다 조국의 수호신으로 산화한 것이다.

1950년 12월, 한 달 동안 무주군에서는 안성 단지봉 전투를 전후하여 수십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가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 12월 2일에서 5일까지 전개된 구천동 월곡마을 뒷산전투에서 유맹식(설천·심곡) 등 한청단원 5명이 전사했고, 12월 5일의 적상면 삼가리 중가마을 전투에서는 유봉열(적상·사천) 등 의경 3명이 전사했으며, 같은 날 안성면 금평리에서는 박찬문(안성·금평) 등 일반주민 6명이 피살을 당하는 등 한 달 동안에만 30여명의 꽃다운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4) 수복을 위한 무주인의 노력과 희생

한편, 1950년 12월 4일 단지봉 전투가 있던 날, 유엔군과 국군은 평양에서 철수한 후 적에게 계속 밀리더니 12월 31일 자정을 기해 38°선마저 내주었다. 그리고 평양철수 1개월 만인 1951년 1월 4일 서울까지 내주고 말았다. 정부는 또다시 부산으로 내려갔고, 서울 시민은 그 해의 길고도 추웠던 겨울을 공산치하에서 지내게 되었다.

수원까지 밀렸던 유엔군과 국군은 1월 19일부터 재반격에 나섰으나, 상당기간 공방전을 거친 3월 16일에야 서울을 다시 탈환하였고, 3월 24일 38°선 돌파작전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4월 30일 적들의 공세로 서울북방까지 다시 밀리다가 5월 30일 다시 강원도 고성까지 올라가는 등의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이 때 전세가 불리했던 공산측은 6월 23일 소련의 유엔대사로 하여금 정전을 제의토록 했고, 미국측은 이에 호응하여 7월 8일 개성에서 예비회담을 개최한 후 10월 25일 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겨 회담을 진행하였다.

한편 1951년 들어 무주지역에서는 1·4후퇴와 중공군 개입으로 재산공비의 기승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산악지대에 위치한 마을 주민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리산지구 전투경찰사령부(사령관 신상묵 경무관) 예하 전투경찰대와 육군 제11사 단(사단장 최덕신 준장)을 공비소탕작전에 투입하였다. 이들 군부대가 무주에 주둔하고 군·경합동작전이 시작된 것은 1월 중순, 안성면 소재지를 수복하면서부터 이다.

그러나 그 때는 1·4후퇴로 전병력을 전방에 집중해야 했으므로 후방에서의 공비소탕 작전은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덕유산 주변의 깊은 산골에서는 하루도 총성이 그칠 날이 없었고, 지방경찰과 지역출신 의용경찰, 또는 청방출신 특공대원과 사찰유격대원들은 하루도 쉴 날 없이 공비와의 접전으로 수없이 희생되었다.



구천동수호비

당시 구천동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1996년 11월 구천동수호동지 회에서 세워놓은 '구천동수호비'의비문을 소재로 소개하고자 한다.

"때는 1951년 1월 23일, 그 날은 음력으로 경인(庚寅. 1950)년 섣달 열엿세 날이었다. 그 날 덕유산지구 공비소탕작전 중이던 국군 제11사단(화랑부대) 장병들이 구천동 지역을 점령하다가 삼공마을로 숨어 들었던 인민군 패잔병들의 기습을 받고 부대를 지휘하던 소대장과 그 대원들이 총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흥분한 화랑부대 병사들이 주민들을 집결시켜 놓은 자리에서 '이 마을 주민들은 공비들과 내통하고 있으니, 모두 빨갱이이다'라며 양민 김정갑·김수권 등 2명을 총살하고 전주민들을 총살하려고 하였다. 이 때 이 지역에서 작정 중이던 방위군 소위 현두식이 간곡하게 만류하여 참상을 모면하게 되었다. 또한 인근마을 심곡리에서도 같은 이유로 전주민들이 국군 병사들에 의해 총살당할 뻔 했던 것을 방위군 소위 유해웅의 적극적인 만류로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이 지역이 공비들의 활동 근거지가 된다고 판단한 작전군들은 심곡리 깊은 골 마을에서부터 삼공리 전지역과 무풍면 삼거리 전지역에 이르기까지 전주민들을 모두 소개(疏開)시키고, 전마을에 불을 질러 구천동 일대 전민가를 소각해 버리는 비참한 사건을 자행하기도 했다."

그 이후 겨울 동안은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있었는데, 3월에 접어들면서 전라북도 산악 전역에 공비의 준동이 심해졌다. 이에 국군 제11사단 병력과 경찰전투대 2개 연대 병력으로

편제된 2만 여 토벌대는 전라북도당 인민유격대사령본부가 위치한 순창 회문산 공격을 시작으로 지리산지구 재산공비 대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회문산에 집결해 있던 700여명의 공비들은 토벌대 작전개시 전인 3월 2일 밤, 삼엄한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여 소백산맥과 변산반도로 나누어 숨어들었다. 그 때 소백산맥으로 탈출한 400여명의 공비들은 성수산(876m)에 도착하여 부대를 정비한 다음 장안산(1,236m)과 백운산(1,279m)을 거쳐 장수의 덕유산(1,508m) 북쪽으로 옮겨 유격대사령부 아지트를 마련하고 정착하였다. 무주 덕유산(1,614m) 주변에는 지방빨치산의 잦은 출몰로 3월에서 6월 사이에 지역출신 의용경찰을 비롯한 청방대원과 일반주민 중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 된 사람이 20여명이나 되었다.

5) 이현상과 남부군

1951년 5월 중순, 빨치산의 거두 이현상이 무주의 민주지산(1,242m)으로 들어와 정착하였다. 그는 낙동강 전투가 한창이던 시기에 거창·함양·합천·양산 등지로 깊숙이 침투하여 후방교란을 위한 유격활동을 전개하다가 그러나 9·28 서울수복이라는 전세역전을 맞아 후퇴하는 인민군을 따라 200여명의 대원을 이끌고 월북하였다. 그 후 11월 초순 북강원도 세포군 후평리에서 조선인민유격대 총사령관 이승엽을 만난 뒤 남한유격대 총책임을 맡게 되었고, 11월 중순 700여 대원과 함께 태백산맥을 타고 북진하는 유엔군 사이로 거슬러 내려왔다.

그 당시 부대의 공식명칭은 '조선인민유격대 독립 제4지대'였고 통칭은 '남반부 인민유격대'였으며, 부대의 편제는 승리사단(300명), 인민여단(약 150명), 혁명지대(약 100명), 그리고 사령부 직속 당정대(약 100명) 등 약 650명의 세력이었다. 1950년 겨울 북한의 후평을 떠난 이현상은 소백산(1,439m)과 속리산(1,053m) 등을 거치면서 수안보에서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으로 부대명칭을 바꾼 후 진달래꽃이 한창 필 무렵인 1951년 5월 중순, 충청·경상·전라 3도가 접경을 이루는 무주의 민주지산에 정착한 것이다. 그 때 무주지역은 덕유산 공비토벌작전에 의해 구천동지역이 1차 수복되고 있던 시절이었다.

그는 민주지산으로 내려오는 동안, 군·경합동 토벌대의 대공세와 전염병 등으로 수많은 병력손실을 입었다. 그리하여 처음 700여명이던 세력이 이 곳에서는 400여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민주지산에서 부대를 다시 정비한 이현상은 인민여단 약 100명과 혁명지대 약 70여명을 가야산(1,430m) 방면으로 진로를 바꾸어 보낸 다음, 여·순사건 출신 이진범이

사단장이던 승리사단(약 160명)을 서울부대·대구부대·전북부대·여수부대 등 4개 구분대(區分隊)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여·순사건 출신 김흥복을 사단장으로 임명한 다음 단독으로 남하하여 덕유산 정상과 안성 부근에 상주하면서 전투경찰대와 여러 차례의 격전을 벌였다.

그 뒤 이들은 무주 덕유산 정상(1,614m)에 이르러 '송치골'에 거점을 마련하였다. 이현상은 그 곳에서 남한6도 도당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남한 전역의 빨치산 조직체계 형성과 투쟁방안을 협의한 후 남한 빨치산의 공식적인 총수가 되었다. 이에 각 도당 유격대는 그 해 9월 말까지 조직을 개편하고 '남부군' 사령부 휘하로 들어갔다. 그 후 남부군은 전라북도 당 유격대에서 60명의 대원을 전속 받아 부대를 보강하고, 얼마 전 전투경찰대와 접전 중에 노획하여 무풍면 부근의 어느 능선에 매장해 두었던 무기와 탄약을 찾아 무장을 갖추게 하고, 다음 작전을 위해 부대를 이동시켰다.[266)]

1951년 7월, 구천동에 녹음이 한창 우거지기 시작한 틈을 타서 이현상의 남부군이 민주지산을 떠나 무풍면 철목리를 거쳐 벌한재를 넘어 구천동을 향해 부대를 이동하고 있었다. 이 때 구천동 청년들로 조직된 '구천동 부대'가 첩보를 접수한 무주경찰의 지휘 하에 벌한재로 출동하던 중에, 아군보다 먼저 도착하여 매복하고 있던 빨치산의 기습공격을 받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다가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물러 나왔다.[267)]

그 후 7월 중순에도 전투경찰대는 장수군 계남면 명덕리에서 남부군 승리사단과 대규모 접전을 벌였으나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그 때 공비들은 승리사단 사단장 김흥복의 지휘하에 전북도당 유격대 '720부대' 약 70명, 중공군 8로군 출신으로 구성된 인민군 제6사단(사단장 방호산) 패잔병 출신 '315부대' 약 40명, 충남도당 유격대인 '붉은 별 부대'와 '인(印)부대' 각각 60명, 그리고 무주군당 유격대 '김갑봉 부대' 약 50명, 장수군당 유격대 약 50명 등 모두 500여명을 동원한 연합부대였다.

장수군 명덕리 전투 이후 김갑봉 부대가 무주지역으로 돌아왔다는 정보를 입수한 김두운

---

266)이병주, ≪지리산≫ 6권, 281쪽. - 6월에 들어섰다. 보충병 등 30명이 전에 백운산에 왔던 연락원에게 인솔되어 무주 무풍장 근처에 매장해 둔 무기와 탄약을 가지러 갔다. [중략] 무주 구천동 어느 나지막한 능선과 풀밭에 백 여정의 소총과 탄알이 묻혀 있었다. - 이태, ≪남부군≫하, 20쪽. - 우리 신규 대원들은 백운산에 왔던 연락원 등에게 인솔되어 무주 덕유산에 비장해 둔 무기와 탄약을 가지러 갔다. 남덕유에서 북덕유까지 능선을 따라 16킬로 남짓 북덕유산 상봉 바로 아래 남면 골짜기 우거진 풀섶속에 백여 자루의 각종 총기와 탄약이 묻혀 있었다. 그 총기들은 얼마 전 상봉 전투에서 전투경찰 대대병력을 섬멸하다시피 했을 때 노획한 것이라며 [하략] -

267)구천동수호비문.

서장은 8월 10일경 무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전일권·김남국 등 사찰유격대원들을 앞세우고 김갑봉 부대를 무주읍 용포교로 유인하는 기민한 작전을 벌였다. 그 때 공비 정판식 등 빨치산 15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는데, 당시 빨치산 대장이던 김갑봉은 그 후 대원 34명과 함께 귀순하였다.[268)]

6) 수복과 빨치산의 최후

어느 정도 소강상태를 보이던 공비들은 9월로 접어들면서 또 다시 기승을 부렸다. 9월 6일 무풍면 덕지초등학교에서 수복 후 처음으로 추석맞이 가을운동회가 개최되던 날, 은산리의 경찰파견대를 급습한 것이다. 그 때 근무 중이던 이동진·이옥문·윤중국·현병희 순경 등 경찰관 4명을 살해하고, 같이 근무하던 박병윤을 납치해 뒷산으로 끌고 가 인민재판을 열어 사형선고를 내리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그 때 잡혀갔던 박병윤은 중도에서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여 목숨을 건졌으나 그 당시 파견대 사무실로 사용하던 정관재(靜觀齋) 선생의 사당 한천사(寒泉祠) 건물은 공비들에 의해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또한 9월 12일 밤에는 심곡리 배방마을에서 작전 중이던 전투경찰이 수백명의 병력을 이끌고 습격한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 부대와 사방봉 고지에서 접전을 벌였다. 육박전까지 전개하는 전투를 치루면서 적을 퇴각시켰으나 이 전투에서 75명의 아군 전사자를 냈고, 36명이 생포를 당하는 손실을 보았다. 특히 10월 초순부터는 구천동의 심곡리 배방고지를 중심으로 수십 차례의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그 당시 경찰관 최원필 경사 등 15명과 의경 권경섭 등 5명이 전사당하는 혈투를 벌였는데, 끝내는 구천동지역 주민들을 다시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야 하는 2차 소개작전을 전개해야만 하였다.

그 후 덕유산 공비들은 지방빨치산만 남겨둔 채 지리산 피아골로 옮겨 남부군 직속부대로 개편되었는데, 그 당시 무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남부군 '승리사단'은 '김지회 부대'로 명칭을 바꾸고 '81사단'이라 호칭하였다.

한편, 덕유산 공비소탕 작전을 위해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1사단은 겨울동안 공비의 은신처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산속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소개(疏開)시켰다. 그 때 민가를 소각하였는데, 덕유산 공비의 준동이 심했던 10월 중순에는 구천동의 유일한 고찰 백련암(白蓮庵)이 소실되었고, 11월경에는 괴목리 일대의 상조·하조·치목마을이 전소되었다.

---

268)1997년 4월, 무주경찰서에서 세운 <무주경찰서 공비토벌대장 전일권 경사 공적비> 비문에서 발췌.

11월 중순, 정부는 백선엽(白善燁) 장군이 지휘하던 국군 수도사단과 제7사단 등 2개 사단병력을 전방에서 남원으로 이동시킨 후 '서남지구 야전군 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후방지역에서 준동하는 공비의 소탕을 위해 충남·전남북·경남 등일부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투경찰대 5개 연대 병력을 지리산 지구에 투입하여 야전군 사령부대와 군·경합동으로 본격적인 소탕작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그 때 무주지역에서는 12월 중순부터 그 이듬해인 1952년 1월 초순까지 삼도봉을 중심으로 한 민주지산 일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였고, 1월 중순경에는 덕유산 방향으로 도주한 잔비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군·경합동작전 이후, 급격히 줄어든 세력에 비상이 걸린 공비들은 1월 하순경 종전의 남부군 직속부대인 '김지회 부대'와 '박종하 부대'를 합쳐 '남부군 제4지대'로 편성하였고, '경남부대'를 '제5지대'로 '전북부대'를 '제6지대'로 바꾸어 호칭하며 부대를 재정비하였다. 그러나 엄동설한에 은신처를 잃게된 공비들은 구천동지역에서 점차 벗어나 금산방향으로 이동하였다. 그 해 2월 중순, 무주경찰은 금산군 남이면의 600고지전투에 나아가 고지탈환 작전에 공을 세우고 귀대하였다.

군·경합동 입체작전으로 전개된 공비소탕 작전은 1952년 3월 중순, 재산공비 거의가 괴멸되어감에 따라 지리산지구에 포성이 그치면서 지리산 서남지구 야전군전투사령부도 해체되었다. 그리고 회문산에서 지리산과 덕유산을 오가며 유격활동을 전개하던 빨치산의 마지막 보루였던 이현상의 '남부군 제4지대'도 기십명의 패잔집단으로 전락됨과 아울러 그 이름도 마침내는 사라져 갔다.

1951년 12월 1일부터 1952년 3월 9일까지 100일간 공비토벌 전과에 대한 국방부 발표를 보면, 공비사살 또는 귀순자 수 19,845명 무기노획 3,761점이라고 한다. 1952년 3월 15일자로 해체된 '서남지구 야전군 전투사령부'는 '서남지구 경비사령부'(사령관 김용배 준장·부사령관 이성우 경무관)로 재편되어 잔비 토벌작전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 때 무주에는 국군 '제5사단' 병력과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제18전투대'(대장 차일혁)가 파견되어 작전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대한청년단 단장이던 김동헌을 비롯한 무주의 지방유지 김복태·조강용·조덕상 등은 공비토벌을 위해 파견 나온 군부대와 전투경찰에게 지급할 급식문제 등을 위시하여 당면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질서 회복과 시국안정을 위한 계몽운동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국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다.[269)]

269)당시 대한청년단 청년방위 대원으로 활동하던 무주읍내 출신 김종수(1929년생)의 증언에 의함.

그런 와중에도 국가의 정치일정은 진행되어 4월 25일 지방의원인 면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어 5월 10일 초대 도의원 선거, 6월 15일 읍·면장 간접선거에 이어 8월 5일 제2대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그 날 안성면 진도리에 공비가 출몰했다는 첩보에 따라 무주경찰기동대가 출동, 공비와 접전을 벌였다. 이날 적들을 패주시켰으나 백상현 등 의용경찰 4명이 목숨을 잃었다. 9월 10일 전투경찰대 제18전투대장으로 근무했던 차일혁 서장이 무주경찰서로 부임한 후 구천동 배방리 주변에 출몰한 전북도당 유격대 제6지대와 몇 차례의 교전을 치르며, 그 해를 보냈다.

1953년이 되면서 전세가 안정되었고 2월 23일부터 휴전회담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였으며, 3월 17일에는 서부전선에서는 중공군 4개 대대를 섬멸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는 동안 구천동에 공비의 자취가 뜸해져 어느 정도 수복의 기미가 보였고, 따라서 5월 21일 구천초등학교가 개학하였다.

정부에서는 지리산에 잔재한 공비를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 7월 17일 경남과 전·남북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다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판문점에서는 7월 27일 유엔군 대표와 공산군 대표에 의해 휴전협정이 조인되어 전선에서의 포성은 그쳤다. 그런 반면, 토벌작전이 한창 진행되던 9월 18일, 지리산 반야봉 동쪽 빙점골 어느 골짜기에서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제2연대 수색대 매복조에 의해 남한의 빨치산 총수 이현상이 수명의 빨치산과 함께 십여 발의 총탄을 맞은 채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처럼 계속된 공방전으로 공비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고 무너져 가면서 무주지역에도 그 출몰하는 횟수가 급격히 감소되었다.

그 무렵, 전북도경이 후원하고 차일혁 서장이 출연한 극영화 '애정산맥'이 전국 극장에서 상영되어 크게 성공하면서 승전의식을 고취시켰다.[270] 뒤이어 11월 25일, 경남유격대 사령관 이영회와 그 부하 60여명이 지리산 천황봉 동북방 어느 골짜기에서 전투경찰대 제5연대 수색대에게 발각되어 전원 사살되었다. 이 부대의 섬멸로 남한의 빨치산 편제부대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리고 남아있던 기십명의 파르티잔 출신 잔비들도 어디론 가 뿔뿔이 흩어졌다. 이듬해인 1954년 1월 중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던 제4지구당 군사부장 남도부(南道富)가 체포된 후로 남한 빨치산의 명칭이 사라졌다.

---

270)전라북도, ≪전라북도일지≫, 전라북도, 1993, 104쪽. 덕유산을 무대로 한 공비토벌작전을 소재로 촬영한 영화이다.

그러나 무주지방에는 봄이 되면서 괴한의 출몰이 간간이 있더니 3월 22일, 적상면 삼유리에서 일어난 산불을 끄기 위해 출동한 무주군청 산림계 직원들이 여원리 고개에서 공비의 급습을 받고 이진기(李鎭畿) 등 3명의 직원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였다.[271] 그 후에도 무주지역에서는 8월부터 11월까지 구천동과 적상·안성 일부지역에서 수 차례 간헐적인 교전이 있었다.[272] 그리고는 덕유산을 중심으로 한 무주지역에서의 공방전은 서서히 막을 내렸다.

1955년 10월, 무주군에서 발행한 ≪순국충영록(殉國忠靈錄)≫에 의하면, 무주지역 공비토벌 중 마지막으로 순국한 무풍면 현내리 출신 김상옥(金相玉) 경사의 전사날짜가 1954년 11월 16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놓고 볼 때, 무주인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악몽 속에서 시달렸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이로써 무주지역은 1954년도 연말에 이르러 비로소 완전한 치안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50년 9·28수복 후로는 4년 3개월 만이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후로는 1년 5개월 만에 총성이 멎어 전후복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무주수복을 위해 주둔하던 전투경찰대가 1955년 해체되면서 치안국 기동대가 편성되어 유사시를 대비토록 하였다.

6. 전선의 교착(膠着)과 휴전

1950년 9·28수복 이후 북진명령에 따라 38°선을 통과하고 평양(平壤)을 점령한 유엔군과 국군은 계속 진격하여 11월 21일 국군 제6사단 제7연대에 이어 미 제17연대 병력이 한·만국경선인 압록강(鴨綠江)가의 혜산진(惠山鎭)에 도달하여 조국통일이 목전에 다다르고 있을 때, 사전에 아무런 통고도 없던 중공군(中共軍)이 압록강을 건너 한국전쟁에 뛰어들었다.

이에 유엔군과 국군은 11월 30일을 기해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12월 4일 평양을 내준 후 12월 30일에는 38°선 이남까지 후퇴하였다. 그 이듬해인 1월 4일 서울마저 두 번째로 공산군에게 넘겨주었고, 1월 7일에는 수원(水原)에서 도 물러나게 되었다.

그 후 1월 9일부터 개시된 반격으로 1월 15일 오산(烏山)을 탈환하였고, 이후 계속된 공방전으로 10만여 병력을 잃은 북한공산군은 2월 2일 전선 사령관이던 김책(金策)마저 전

271)적상면 사산리 적상삼거리 <산림수호순직추모비>.
272)무주군 간행, ≪순국충영록≫, 1955.

사하자 2월 7일부터 전면 퇴각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전 전선에 참호를 견고하게 구축해 놓고 아군과 일진일퇴를 거듭하였다. 아군은 3월 2일에야 비로소 한강을 건넜고, 3월 15일 서울을 재탈환하였다.

그 후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명령으로 3월 27일 38°선을 다시 넘었고, 4월 5일에는 소양강(昭陽江)을 건너서 38°선 이북의 여러 고지(高地)들을 점령하였다. 그 때 공산군은 춘계 대공세를 감행하여 4월 23일 김화(金化) 남방의 아군 방위선 돌파를 시작으로 4월 28일에는 춘천(春川)을 짓밟았고, 4월 30일에는 서울의 북방 우이동(牛耳洞)까지 육박했는데, 아군의 결사항전으로 격퇴시켰다. 또한 공산군은 5월 16일 인제(麟蹄)지구로 남침하여 제2차 대공세를 감행하였는데, 동원병력 11만 명 중 5만 여명의 살상자를 내고 6일만에 패주하였다.

한편 아군은 6월 3일 서부전선에서 연천(蓮川)지구로 진격했으며, 동부 전선에서는 6월 6일 철(鐵)의 삼각지를 이루는 철원(鐵原)과 김화(金化)를 점령하였다. 동부전선에서는 5월 30일 고성(高成)까지 올라갔으며, 6월 13일 경에는 서부전선의 임진강(臨津江) 하구에서 중부전선의 철원과 금화, 그리고 동부전선의 거진(巨鎭)북방으로 이어지는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이에 전세의 불리함을 느낀 공산군은 6월 23일 소련측 유엔대사 마리크(Marik)로 하여금 한국전쟁의 정전을 제의하게 되었다. 6월 30일 유엔군 사령관 릿지웨이(Ridge way)가 이에 호응하여 북한군 사령관에게 휴전회담을 제의하자, 북한측은 그 다음날 휴전회담을 수락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반대성명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는 반대결의안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7월 8일 유엔군과 북한 공산군은 개성(開城)에서 예비회담을 개최한데 이어 7월 10일에는 휴전회담을 개막하였다.

그 무렵, 덕유산지역에서는 7월 17일부터 대대적인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이른바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었는데, 전방에서는 휴전회담을 계속 진행하여 7월 27일 제11차 정전회담을 열고 군사분계선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그 때 38°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정하자는 북한측 제안과 현 전선을 정전선으로 결정하자는 유엔군측 제안이 대립되어 결말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회담장소를 판문점(板門店)으로 옮겼고, 10월 25일 회담을 재개하였으며, 11월 28일 이르러 비로소 38°선이 아닌 현 전선을 군사분계선 즉, 휴전선으로 확정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 날부터 당시의 전선을 임시 휴전선

으로 정하여 한 때는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나 다시 치열한 선전전을 수반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날 이후 1952년 4월까지 정전회담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쌍방은 대치하면서 교착상태에 있었다.

한편,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후방에서는 1951년 8월 31일 산청(山淸)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벌여 공비를 궤멸시켰는가 했지만, 9월 15일 합천(陜川)에 출현한 공비가 경찰지서를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0월 13일에는 남원(南原)에 출몰한 공비가 열차를 습격하고 일반인 200여명을 납치하였으며, 10월 17일에는 500여명의 공비가 옥천(沃川)에 출몰하였다. 11월 14일에는 80여명의 공비가 영동역(永同驛)을 습격하는 등 일련의 사태들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12월 1일을 기해 후방의 공비 출몰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백선엽(白善燁) 야전군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서남지구 공비토벌 작전을 전개하였다. 12월 3일부터 시작된 이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은 한국 공군까지 동원하여 입체작전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임무를 완수한 다음인 1952년 3월 중순에 이르러 전투사령부를 해체하였다.

이처럼 전방과 후방을 가릴 것 없이 공방전으로 계속되던 한국전쟁은 전면전(全面戰)이면서 국지전(局地戰)을 치르는 세계 전사상(戰史上) 그 유례가 없는 전쟁으로 전개되었다. 휴전회담이 진행되면서 쌍방은 치열한 국지전으로 서로가 인력과 화력만 소모하게 되었다. 이에 당사국인 남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군과 공산군은 휴전성립을 희망하며 서로 관망하는 자세로 거의 고정된 전선에서 근거리 고지 쟁탈전만 벌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 능선, 한 고지에서 퇴각과 탈환을 20여 차례 이상 거듭하는 예가 보통이었다.

1953년으로 들어서면서 쌍방은 산발적이며 소극적인 공격으로 일관하였다. 3월 5일 소련의 스탈린(Stalin Joseph) 사망 후 4월 6일 휴전회담이 재개되면서 휴전협정이 결정적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자 공산군은 5월 초순부터 전 전선에 공격태세를 취했으며, 5월 12일에 이르러서는 중동부전선에 4만5천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12시간 동안 이르는 최대규모의 공세를 취했다. 이에 아군은 적군의 심한 공세에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7월 16일부터 총공세를 개시, 휴전을 앞두고 전략상의 요지를 확보하려던 적들을 물리쳤다. 그리하여 며칠 사이에 앞서 잃었던 지역 대부분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7월 27일 오전 10시, 드디어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됨으로써 1950년 6월 25일 이후 3년 1개월에 걸쳐 같은 민족끼리 서로 피를 흘리며 전 국토를 초토화시킨 한국전쟁의 포성이 멈추고 종전(終戰)이 아닌 휴전(休戰)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 날 밤 10시 정각까지 쌍방이 대치했던 전선에서 공히 2km씩 후퇴하여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다. 이 휴전선은 서쪽으로 예성강(禮成江) 및 한강(漢江) 어귀의 낙도인 강화(江華)의 교동도(喬桐島)에서 부터 개성(開城) 남방의 판문점을 지나 중부의 철원·김화를 거쳐 동해안 고성의 명호리(明湖里)까지 600리 즉, 155마일이 한반도를 가로질러 국경 아닌 국경선으로 국토를 두 동강 냈다.

그러나 판문점의 휴전협정으로 전선에서의 총성은 그쳤지만 태백산맥으로 이어지는 소백산맥 중간 허리에 걸쳐있는 서남지방 산간부에는 그 이후에도 계속된 공비토벌의 전황 속에서 시달려야 했다. 더욱이 덕유산이 소재한 무주지역은 1950년 7월 공산군 점령 이후 공비토벌로 총성이 멈춘 1954년 11월까지 만4년 4개월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다. 특히 깊은 산중에 살고 있던 주민은 낮에는 태극기를 꽂고 밤에는 인공기를 꽂아야 했으며, 어떤 특정지역은 주민 소개(疏開)작전에 따라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정든 집마저 소각해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만 하는 뼈아픈 역경도 견뎌야 했다.

무주지역에서는 1948년의 제주폭동에 이어 일어난 여·순사건의 주모자 김지회 일당의 반란군 토벌작전을 비롯하여 1950년의 한국전쟁 발발로 인한 군부대 입대, 그리고 9·28수복 때 후퇴하지 못하고 산악지대로 숨어 든 인민군 패잔병과 남한의 후방교란 작전을 위해 남파된 소위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사령관 이현상과 그 일당인 빨치산의 토벌작전을 끝낸 1954년도까지 장장 7년 여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좌·우익양대 진영에서 활동하던 정당·단체 인사들 수백 명과 군인·경찰·의경·청방대원·학생 등 수백 명이 목숨을 잃어야 했고,

미군기의 인민군 점령지역 폭격과 아군에 의한 산중마을 주민소개 작전으로 파손·소실되어 버린 가옥이 5,000여 호나 되는 피해를 입었다.

7. 전쟁 피해상황과 전쟁기념물

1) 전쟁피해 상황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동족상잔의 비극이며, 공산과 자유민주라는 양대세력의 세계적 전쟁이라 일컫는 한국전쟁에서 유엔측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전비(戰費)에 해당하는 150억불을 지출했다고 한다. 전쟁 중 사상자 수는 한국을 포함한 유엔측이 33만 명 이었고, 공산측은 180만 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만 3년간에 걸친 혈전으로 국토가 초토화되면서 60만 채의 가옥이 파괴되었는가

하면, 20만 명의 전쟁미망인과 10만 명의 전쟁고아가 생겼다.

그 중 전라북도는 민간인 사상자만 91,861명이었고, 43,791호의 일반주택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도청을 비롯한 시·군청 읍·면사무소 등 관공서 건물 607동과 초·중·고·대학교 건물 320동, 그리고 사찰을 포함한 종교단체 건물 163동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무주군은 당시 전쟁피해에 대한 기록이 부실하여 상세히 소개 할 수는 없으나, 1955년 무주군에서 발행한 ≪순국충영록≫에 기재된 순국자의 명단이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순국충영록≫에는 전선에 나가 교전 중 전사한 군인·학도병·제2국민병·노무자 등이 기록되어 있고, 인근 산악에서 빨치산과 교전하다 전사한 경찰관·의용경찰·특공대·학도대·청년방위대, 그리고 반공대열에서 투쟁하다 납치되어 피살이나 학살당한 우국지사, 대한청년단 단원·우익단체요원·국회의원·공무원·마을이장 등 민간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록 가운데는 한국전쟁과 상관없는 구한말시대 의병출신과 일제강점기 노무자로 나갔던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 기록은 제외시켰다. 또한 순국자의 전사한 연도와 날짜가 사건이 일어난 연도와 날짜가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즉, 어떤 곳에는 양력으로, 그리고 어떤 곳은 음력으로 표기되어 일관성이 없는 관계로 연도와 날짜에 대해서는 자료로 삼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필자는 읍·면별, 직업별 인명피해 상황만 발췌하여 기록에 남기고자 한다.

그리고 1990년 전라북도에서 발행한 전라북도지(제2권) 행정편에 의하면, 한국전쟁으로 인한 무주군 피해상황 중에 일반주택이 4,085가 파손되었는데, 그 가운데 소파(小破) 492호, 반파(半破) 582호, 전파(全破) 3,011호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오지마을 주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소개(疏開)한 주택이 1,800호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874호는 공비의 은신처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모두 소각해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2> 한국전쟁 중 무주군 인명피해 현황

(1955년 10월 현재)

읍면별	계	무주	무풍	설천	적상	안성	부남	비고
계	498	102	61	89	76	128	42	
군인	208	55	32	32	30	59	-	제2국민병포함
경찰	88	21	10	24	9	6	18	
의경	64	2	5	14	13	30	-	
방위군	10	2	-	-	3	4	1	
청년단	33	6	-	5	1	2	19	
학생	3	-	-	-	1	2	-	
학도병	2	-	1	-	-	1	-	
학도대	5	4	-	-	-	1	-	
노무자	9	3	3	-	2	1	-	
공무원	12	5	1	1	1	3	1	
지사	64	4	9	13	16	19	3	일반인

* 1948년 여 순사건 이후 1954년 공비토벌작전 완료까지

2) 전적(戰跡)기념물

한국전쟁과 관련된 무주군 지역의 전적기념물은 무풍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 산재 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서 매년 현충일에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다가 숨진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충혼·충령·위령탑과 비가 무주읍을 비롯한 설천·안성·부남면에 1개 소씩 4개소가 건립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기념물이 7개소, 그리고 6·25참전 단체 또는 관계기관 등에서 세운 4개소, 기타 1개소 등 모두 16개소에 이른다.



충혼탑(무주읍 당산리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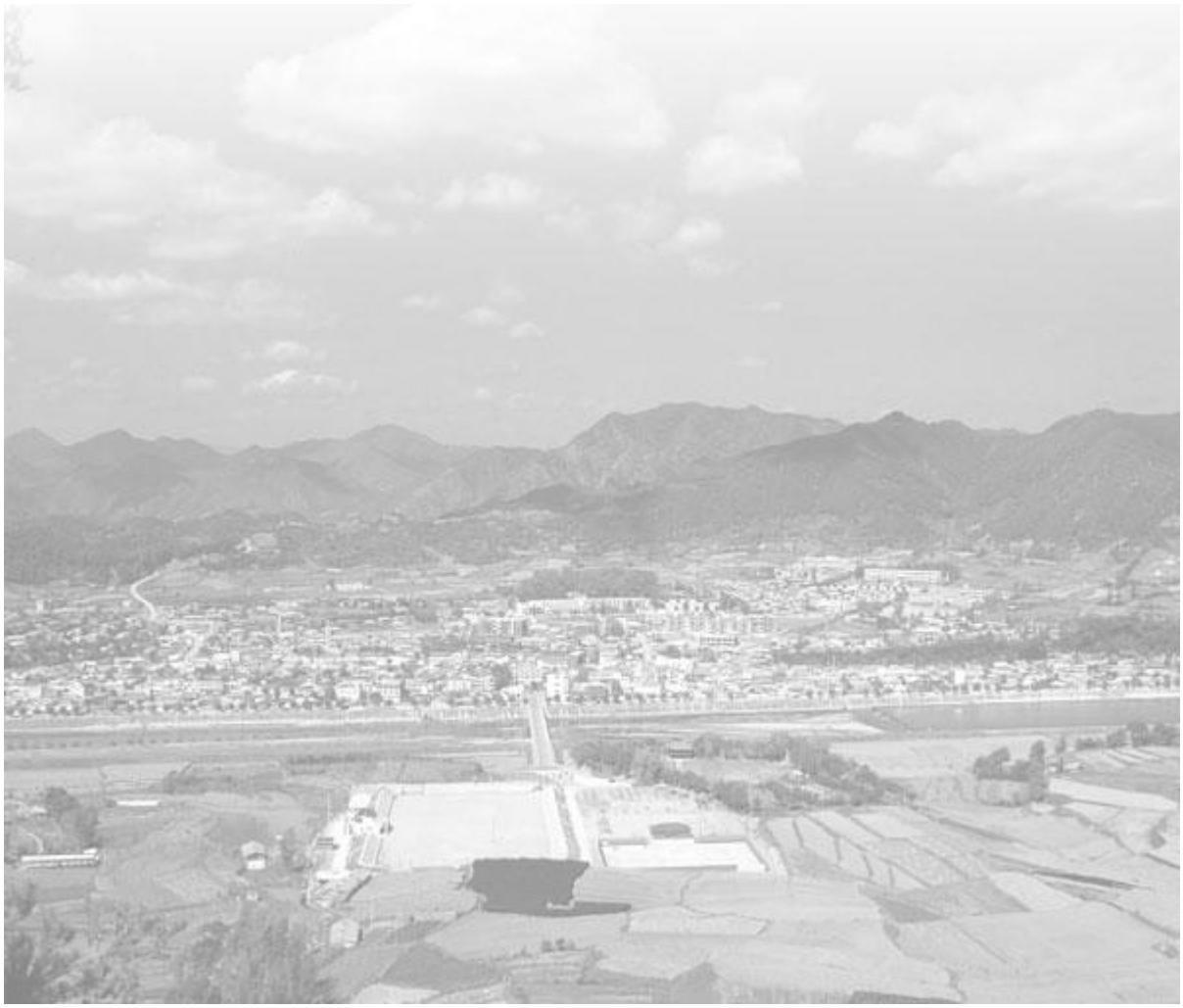
<표 2-7-3> 무주군 관내 한국전쟁 관련 전적기념물 현황

읍면별	명 칭	소 재 지	건립년월일	비 고
무주읍	충혼탑	당산리(한풍루)	1965. 6. 3	무주군수
	6·25참전 기념비	”	2000. 6. 6	한국전쟁참전자회무주군지부
	국민방위군 6·25무주수복공적비	”	2000. 6. 6	추진위원회
	무주학도 6·25참전기념비	”	2002. 6. 6	추진위원회
설천면	반공혼탑	용포리(하늘바위)	1983. 6. 18	한국반공연맹무주군지부
	반공투사 김낙구비	당산리(숲거리)	1974. 6. 25	무주군방위협의회
	충혼비	소천리(면소재지)	1963. 9. 28	향토전우회
	구천동수호비	삼공리(구천동)	1996. 11.	구천동수호동지회
적상면	산림수호순직추모비	사산리(적상삼거리)	1990. 3. 22	무주군행정동우회 무주임우회
	경찰충령비	북창리(적상산)	1997. 4.	추진위원회
	전일권 경사 공적비	”	1997. 4.	무주경찰서서장
안성면	위령탑	장기리(면소재지)	1962. 6. 25	안성면 전우회
	단지봉 경찰전적비	장기리(단지봉)	1994. 6. 1	추진위원회
부남면	괴문기념비	금평리(두문동구)	1971. 1.	괴문친목계
	순국충혼비	대소리(면소재지)	1998. 12.19	추진위원회
	순국반공청년추모비	대유리(대티동구)	1972. 4. 10	전라북도지사
계	16개소			

[집필 : 김경석]



제3편 정치·행정



제3편 정치·행정

제1장 정당과 지구당

정당은 나라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당은 특히 이념이나 정책을 중심으로 결성된 정당이 아니라 정당지도자와 지연·학연 등의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초기에는 '간부정당'이라 불릴 정도로 수뇌부의 활동과 역할이 강조되었다.

해방 후 각 단체들은 저마다 정당을 표방하고 나섰는데, 해외파니 국내파니 인물 본위적 정파니 또는 지역 본위적 정파정당으로 분열되었고, 정당은 우후죽순(雨後竹筍)격으로 난립하였다.

이 가운데 몇몇 정당이 이념과 정체성을 가지고 해방정국을 주도하였으나, 모두가 중앙정치권에서의 활동에 그쳐 전국적인 정당으로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정당조직이 아닌 국민회(國民會) 등과 그 산하에서 활동하던 청년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무주군의 경우는 미군정기와 8·15해방 직후 어느 정파도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그나마 그 당시 가장 유력한 정당인 한민당(韓民黨)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람이 2~3명 있을 정도였다. 주민 대다수는 반공세력으로 국민회 또는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 이하 한청)에 속하여 활동하였으며, 좌익활동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무주군의 정당 시초는 자유당(自由黨)에서 비롯되지만, 이후 3공화국 때까지 정당으로서 존재가 뚜렷했던 것은 1·2공화국 때의 민주당(民主黨)이었다.

3공화국 이후에는 선거구가 타군과 병합되어 자주적인 정당활동의 핵심적 위치에서 벗어나 여당성향의 정당세에 압도되었다. 이러한 여당 일변도의 정당세는 제5공화국말기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후 지역감정의 악화로 인해 나뉘어진 영호남의 분할정당정치는 6공화국과 김영삼(金永三) '문민정부'를 거쳐 김대중(金大中) '국민의 정부'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제1절 미군정기

1. 조선건국준비위원회(朝鮮建國準備委員會)

해방정국에서 가장 먼저 정치단체로 등장한 것은 여운형(呂運亨)이 주도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였다. 여운형은 해방 1년 전 비밀결사단체인 조선건국동맹을 중심으로 좌익과 민족주의 세력까지 포괄하여 1945년 8월 17일 조직을 완료하였다. 위원장은 여운형 이, 부위원장은 안재홍이 맡았다. 이때부터 건준은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8월말 경에는 전국 45개소에 지부를 설치하는 등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게 되었다.

해방 직후의 정국에서 최초의 정국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건준은 선언문에서 “조선 전 민족의 총의를 대표하는 새 국가건설의 산파역할”을 천명하였다.

건준의 중심세력은 건국동맹 이었지만 진보적 민족주의 세력, 장안파 공산주의 세력, 재건파 공산주의 세력까지 참여하여 민족세력과 좌익세력의 연합적 성격이 강하였다.

건준은 1945년 9월 6일, 서울 제동 경기고녀에서 여운형계 세력과 박헌영을 중심으로한 좌익계열이 중심이 되어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 이하 인공) 임시조직법을 상정하여 통과시키고 중앙인민위원 55명, 후보위원 20명, 고문 12명을 선출하고 선언과 강령을 발표함으로써 이른바 건준의 활동은 발전적인 해체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준의 각지방 지부는 인민위원회로 개칭되었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박헌영(朴憲永)을 중심으로 한 좌익중심의 인공은 그 정당성을 인정 받지 못했으며,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신한 나머지 좌익과 연합한 여운형의 정치적 입지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하지만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건준의 탄생과 활동은 해방정국에서 각종 정치 단체들의 태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

한국민주당(이하 한민당)은 인공수립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정당으로,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출범한 고려민주당, 반건준세력인 조선민족당, 한국국민당, 국민대회준비회(國民大會準備會), 중경임시정부 및 연합군 환영준비대회 등을 준비하던 우익진영의 여러 정당

들이 건준의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에 자극을 받아 모여 1945년 9월 16일 만든 최대 정당이다.

한민당 지도층 대부분은 일제 때 친일한 대지주, 기업인, 조선총독부의 관리나 사회 유지들로 친일 부르주아 세력이었으며, 보수우익세력의 결집체였다. 특히, 이들은 인공배격과 동시에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과도정부 수립과 건국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미군정이 인공은 물론 임정의 정통성도 인정하지 않자 태도를 바꾸어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일제나 일인이 남긴 적산재산을 불하 받는 등 각종 특혜를 누렸다. 그러나 미군정 후반에 좌우갈등이 격화되자 이번에는 이승만의 단독정부노선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1948년 정부수립과 이승만의 대통령 추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기회포착과 굴절에 능한 한국의 보수세력이었다.

그러나 이후 이들은 이승만에게 소외당하면서 반(反)이승만 노선을 걷게 되었고, 남한 내에서 이른바 전통야당의 단초가 되었다. 다른 한편 한민당은 정부수립 후 국회 내에서 유일하게 정당의 이름으로 조직화 된 정치세력으로써 최초의 원내 정당이며, 정권을 잡은 이승만과 잠시나마 정권수립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보면 최초의 여당이었다. 그리고 정부수립 후 이승만 정권의 정책방향에 시시비비를 가린 점에서는 최초의 야당이었다.

한민당은 이승만 정권기간동안 유일하게 야당의 역할을 했으며, 제2공화국에서 반분되어 구성원들 중 일부가 여당의 위치에 머물다가 5·16군사쿠데타로 다시 야당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 맥은 한국 야당의 뿌리가 되었다.

3.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극우노선의 한민당과 극좌의 남조선노동당(南朝鮮勞動黨. 이하 남노당)의 대립적 위치와 갈등 사이에서 순수한 민족세력으로 위상을 견지했던 정치세력이 한국독립당(이하 한독당)이다.

한독당은 1930년 중국 상하이에서 조소앙(趙素昻)·김구(金九)·이동녕(李東寧)·안창호(安昌浩)·이시영(李始榮)·김두봉(金枓奉) 등에 의하여 창당되었으나, 두드러진 활동을 할 수 없었다. 해방 후 귀국한 이들은 오랜 항일 투쟁과정에서 반외세와 자주정신이 강하였고, 미군정이 임정의 법통을 부인하자 반외세 지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한독당은 이갑성 중심의 정당통일기성회(政堂統一期成會)와 김여식 중심의 정당합동준비위원회가 함께 결

성한 신한민족당(新韓民族黨)을 1946년 4월 18일 통합하기도 하였다.
한독당은 미·소간의 격랑 속에서도 어느 한쪽에 편승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민당 등의 우익과 연합하여 신탁통치에 반대했으며, 그 후 이승만 등의 우익이 단독정부 수립을 벌일때에는 좌익과 연합하여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미군정 말기에는 김구 등 한독당의 지도자들이 남북분단의 고착화를 막고 남북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단정 수립 후 정치활동 공간이 협소화 되면서 내부의 혼란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빈번한 탈당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소앙이 탈당하여 사회당을 결성하면서 군소 정당으로 전락하였고, 김구가 남북연석회의 참석하고 돌아온 이후에는 이승만 정권의 탄압이 가중되고 마침내 지도자인 김구가 암살 당하자 정계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이념도 수용할 수 있으며, 이념적 장벽은 높은 민족적 열망이나 민족주의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4. 조선공산당·남조선노동당

조선공산당은 1925년 4월 창립이래 치열하게 반제항일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1927년에는 국내에서 민족진영과 함께 신간회를 결성하고 활동하였으나, 일제의 극심한 탄압을 받아 1928년 조선공산당이 해산된 후 해방 때까지 통일적인 당을 결성하지 못했다. 해방 후 박헌영(朴憲永)을 중심으로 당 재건을 결의하고 1945년 9월 12일 재결성되었다.

이들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의 정치·경제·사회적 이익을 위한 급진개혁을 표방하며 공산정권의 수립을 주창하였다. 이후 박헌영은 1946년 7월 29일 북한에 북조선노동당이 결성되자 11월 23일 온건좌파로 여운형의 조선인민당과 백남운의 남조선신민당을 포함하여 남조선노동당(南朝鮮勞動黨)을 발족하였다.

이후 남노당이 미군정과 우익노선에 반대하며, 폭동과 파업을 조장하고 교란하며, 정국을 혼란케 하고 정부수립에 최대의 방해공작을 전개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미군정에 의해 당 간부 등이 체포당하고, 종국에는 1949년 10월 19일 정당등록이 취소됨으로써 비합법정당으로 전락하였다. 미군정 말기에는 지하투쟁이 더 이상 어렵게 되자 박헌영·이강국(李康國) 등 일부 간부들이 북한으로 도피하여 북조선노동당에 합류하였다.

5. 조선인민당(朝鮮人民黨)

조선인민당은 여운형이 주도한 건준이 미군정에 의해 정통성을 인정 받지 못하고 해체되자, 1945년 11월 12일 여운형의 직계 세력인 건국동맹을 주축으로 하여 고려국민동맹·인민동지회·일오회 등을 흡수하여 결성되었다. 이들은 노동자·농민·소시민·자본가·지주까지도 포함한 인민을 대표하는 대중정당 일 뿐 아니라 좌우익의 중간정당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1946년 여름, 당내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적인 반란으로 남조선신민당과 조선공산당 및 조선인민당이 3당 합당을 결의하자, 여운형은 자파 세력을 다시 규합하여 같은 해 11월 12일 사회노동당을 결성함으로써 조선인민당은 창당 1년 만에 해체되었다. 사회노동당 역시 1947년 2월 27일 스스로 해체하였고 여운형의 직계들은 5월 24일 여운형을 당수로 하는 근로인민당을 창당하였다. 당시 여운형은 남쪽의 조선공산당과는 다르게 민족통일전선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정치노선을 견지하고 있었다.

특히 여운형은 자신이 주도한 건준과 인공이 미군정에 의해 배척 당했지만 미군정과 극단적인 대립관계를 조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포용력을 가지고 경직된 공산주의자까지도 당내에 받아들일 정도의 정치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6. 근로인민당(勤勞人民黨)

여운형을 중심으로 발족한 좌우합작의 정치노선을 표방한 정당으로 1947년 5월 24일 창당되었다. 이들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건설, 계획경제 제도의 확립을 통한 전 민족의 완전한 해방, 진보적 민족문화의 건설과 전인류의 문화 향상에 공헌 할 것 등의 강령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근로인민당은 여운형이 1947년 7월 19일 김규식과 좌우합작운동을 벌이다 우익테러리스트에게 암살 당한 후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7. 민족자주연맹(民族自主聯盟)·국민당·대한독립촉성국민회

민족자주연맹은 김규식(金奎植)을 추종하던 중간우파의 정치 세력이었다. 이들은 미군정 후반기에 주요 정치세력의 역할을 했으며, 진보적인 각종 정당과 사회단체의 연합체였다.

주요세력은 민중동맹, 민주독립당, 건민회, 한독당의 민주파, 근로인민당의 우파 등의 연합

체였는데, 다른 정당과는 다르게 문인·학자 등 많은 지식인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민족자주연맹은 좌우익을 떠나 독자적인 제3의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던 중간파적 성격의 정치집단의 결집을 의미하였다. 이들의 일부는 남북연석회의 후에 북한에 남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일부는 남한에서 반(反)이승만 세력을 형성하여 민족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중간우파를 지향하며 건준을 탈퇴한 안재홍(安在鴻)은 1945년 9월 1일 조선국민당을 주축으로 공화당, 사회민주당, 자유당, 근우동맹 등의 군소정당을 통합하여 국민당을 결성하였다.

미군정기 우파세력의 연합격인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민족자주연맹과는 달리 기득권을 지향하는 이승만의 추종세력들로 만들어진 정치세력으로, 우익 정당 사회단체만으로 조직 된 결사체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일상적인 정당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정치적인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이승만의 노선을 지지하는 동원체제 기능을 하였다. 산하에 서북청년회, 대동청년단, 전국학생연맹 등의 조직이 있어 반공활동의 첨병역할을 하는 등 미군정기에 정당이 아닌 비정당적 정치세력으로서 상당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2절 제1·2공화국

1.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

이승만과 결별한 한민당은 보다 효과적인 권력투쟁을 위해 신익희의 대한국민회[1]와 이청천(李淸天·일명 池淸天)의 대동청년단이 통합하여 1949년 2월 10일 민주국민당(이하 민국당)으로 신설 통합되었다.

민국당은 신익희를 대표최고위원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로 출발하였다. 이것은 국회 내에 조직적인 이승만 정권의 반대세력이 탄생한 것을 의미하며, 자유당 정권 하에서의 반 이승만 투쟁의 선봉에 섰던 야당지도자로 신익희(申翼熙), 조병옥(趙炳玉), 윤보선(尹潽善), 장면(張勉),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으로 이어지는 한국야당사의 출발이기도 했다.

---

1) 일부에서는 대한국민당으로 호칭하기도 하나 당시에는 실질적인 원내교섭단체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정당이름을 가진 파벌이었다. 따라서 1949년 11월 12일, 윤치영·배은희 등이 교섭단체 등록한 대한국민당과는 다르다.

이러한 민국당의 출범으로 반 이승만 투쟁의 전열은 다시 정비되었다. 하지만 이승만과 민국당의 갈등은 권력배분을 둘러싼 갈등이었으며, 보다 더 큰 공동의 적이 있을 때는 협력의 틀을 유지하는 공생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1949년에 들어서면서 친일파 청산과 통일문제를 두고 김구를 비롯한 임정계와 소장파 의원들이 공세를 펴자, 이에 공동대처하는 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들은 반민특위에 이승만과 공동대처 하면서 경찰과 우익청년단, 원조자금과 정부예산의 집행 및 적산기업에 대한 이익을 독점하였다. 또한 반민특위에 대한 공격과 국회프락치 사건 그리고 김구의 암살로 이어지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기반을 축적하였다. 그러나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한민당 출신의 각료들은 모두 해임 당하고 내각제개헌안 공방을 두고 다시 치열한 힘 겨루기를 하게 된다. 이후 이승만은 야당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 온갖 비민주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반공청년단의 협박과 압력·관제 데모·경찰 물리력의 동원·부정선거 등을 자행하게 된다.

자유당의 등장으로 당세가 위축된 민국당은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 직접선거에서 후보문제를 놓고, 당내에 대립의 구도가 형성되고 불화가 누적되었는데, 선거결과 참패를 당하면서 내분이 표면화되었다. 급기야 민국당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김성수가 수습에 나서 무마하였다.

그 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5명만이 당선되어 원내교섭단체구성에도 실패하게 된다. 이로써 민국당은 독자적인 원내기능을 상실하여 군소 정당으로 전락하였고,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신당창당을 위한 범야적(凡野的) 결집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한 기존의 수구적 체제를 청산하고 재야연합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대한국민당(大韓國民黨)

1949년 11월, 당시 원내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민국당이 반(反)이승만운동을 전개하고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기 위해 개헌안을 제출·통과시키려 하자,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모여 급조한 것이 대한국민당이다. 대한국민당은 1949년 11월 12일 신정회와 대한노동당 및 일민구락부 소속 의원들 중 일부를 포섭하여 71석을 확보, 국회내의 제1당이 되었다.

이들은 1950년 3월 9일, 국회에 상정한 내각제 개헌안을 부결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

다. 그 후 5월에 있은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4석을 차지했으나, 소속 의원들의 이탈로 교섭단체마저 구성하지 못하고 1958년 해산하였다.

3. 자유당(自由黨)

자유당은 건국 이후 처음으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출발하여 19년 동안 이승만 정권과 생사를 함께 한 최초의 여당이다. 정당의 배경이 아닌 독립운동과정에서의 권위를 통해 미군정과 손을 잡고 집권했던 이승만은 권력의 안정과 재집권을 위한 배경으로 정당의 조직 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여기에서 탄생 된 것이 바로 자유당이다.

자유당은 권력의 필요에 의하여 권력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실질적 여당으로 이승만에게는 권력의 발판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야당의 변천사를 가져온 정치적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정당을 무시하고 외면하던 이승만이 정당을 창당하게 된 것은 결국 자신의 권력유지와 강화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이승만이 제헌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협조자는 한민당 이었다. 그러나 한민당은 초대내각구성에서 소외당하자 크게 반발하였고, 이후 이승만과 정치노선을 달리 하기 시작하였다.

민국당은 이승만이 요청한 여섯 번의 국무총리 인준 안 중 네 번을 거부하였고, 이 외에 1950년 1월 27일에는 이승만이 반대하는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승만의 의도를 번번이 좌절시켰다.

그리고 1951년 5월 19일, 부통령 이시영은 이승만의 독선적 경향을 비난하고 정국의 비민주화를 개탄하는 성명과 함께 사퇴했다. 이어 국회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는 이승만이 지목한 이갑성(李甲成)이 낙선하고 민국당의 실질적인 지도자 김성수가 당선되었다.

더구나 7월에는 이승만의 실정과 관련, 이승만의 국회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안이 가결되는 등 이승만은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나아가 민국당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제2대 대통령도 자신들의 의도대로 하려고 하였다. 이에 맞추어 여권 일부에서 장면을 이승만의 후임으로 옹립하려는 의도 하에 민국당과 연합전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승만은 크나큰 위험신호를 감지하게 되었다.

이승만은 이러한 국회의 움직임을 보고, 재선의 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여기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종래의 정당무용론을 주장하던 것을 바꾸어 자신을 지지하

는 전국적인 대중조직의 결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1) 이승만의 신당 필요성 제기

1951년 8월 15일에 있는 8·15 광복기념사에서 이승만은 대중적인 정당이 생겨야 할 시기가 됐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25일 신당조직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2)]

이 담화를 계기로 이승만의 신당조직 의도가 명백해지자 원내외에서 신당창당 준비가 진행되었다. 원내에서는 신당준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였고, 원외에서는 1951년 9월 30일 이승만을 총재로 추대한 독립촉성국민회, 대한농민조합총연맹, 대한노동조합총연맹, 대한부인회, 대한청년단 등 5대 사회단체 대표들이 적극 호응하였다. 대한국민당은 거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처럼 원내외에서 창당을 서두르고 있을 무렵인 1951년 11월, 정부는 대통령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양자의 입장차이가 갈등을 겪으면서 각자 따로 창당작업을 진행시키게 되었는데, 종국에는 12월 23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원내와 원외의 동명이체(同名異體)의 자유당이 탄생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원외자유당은 관변의 후원을 받으면서 조직의 확대강화에 주력하여 창당한지 3개월 만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당원수가 이미 260만 명이 넘었다고 했다. 이들은 개헌안 부결을 반대하는 여론을 주도하였으며, 한청 등 사회단체와 합류하여 개헌안부결반대민중대회를 열어 민의배반국회의원소환(民意背反國會議員召還)이란 해괴한 운동을 전개하는데 앞장섰다.

2) 부산정치파동

이승만의 최대 정치적 과제는 대통령 재선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반(反)이승만 기류로 볼 때 국회에서의 간접선거로는 대통령에 재선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

2) 내용은 “내가 그 동안 정당조직이 시기상조라 한 것은 우리에게는 사색당파의 역사와 습관이 있어서 정당이 구성되면 국민에 큰 위협을 주는 까닭에 편당주의(偏黨主義)를 타파하기 위해서 였다. 이제 민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치를 알만큼 되었으므로 대중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정당을 세워서 만세복리(萬歲福利)의 전도를 발전시키는데 협력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 기회에 대동단결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게 됐다. … 중략 … 신당조직에 대하여 국회의원 동지와 민간 지도자들이 내게 요청한바 있어 이를 후원하기로 허락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이승만은 1951년 11월 28일 국민직선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2월 1일자로 부산과 대구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 개헌안을 1952년 1월 18일 부결시키고, 오히려 4월 17일에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여 이승만과 정면으로 대결했다.

자신의 목표가 빗나가자 이승만은 2월 6일 비난성명과 함께 관제단체를 통해 국회의원을 압박했다. 이승만은 2월 15일 이른바 애국단체를 자처하는 단체들이 국회의원을 소환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자, 정당하다는 담화를 통해 대중을 선동하고 이들의 폭력적 태도를 고무시켰다.

나아가 정부는 5월 25일, 부산지구를 포함한 경남·전남 등지의 23개 시·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6일에는 국회 통근버스로 등원하던 국회의원 47명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견인차로 헌병대까지 압송하였다. 이것이 '5·26부산정치파동'이다. 헌병대에 끌려간 국회의원 가운데 10명을 국제공산당 비밀정치공작과 관련하여 구속시켜버렸다.

이에 대해 부통령 김성수는 정국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이승만에게 돌리며 항의·사퇴하였고, 국회도 구속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대통령은 6월 30일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국회가 이를 거부하면 국회를 해산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발췌개헌안은 장택상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내놓은 안이었다. 결국 구속의원들이 석방되고 일부 야당의원 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국회로 끌려오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7월 4일 밤 야간 국회를 열어 발췌개헌안을 기립투표로 통과시켰다. 이처럼 헌정사에 오욕과 얼룩을 남긴 부산정치파동은 우리 정치에 백골단·땃벌떼·민중자결단 등의 무시무시한 단체가 횡행하였고 정치깡패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 정치파동으로 인한 개헌안의 통과는 이승만의 재집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유당이 집권하는 것은 확실시되었다. 또한 대통령 직선제는 원외 자유당에게 큰 힘을 실어 주었으며, 세력강화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여 원내자유당을 흡수 통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 원내와 원외 두 자유당은 1952년 7월 72명의 의원이 모여 자유당이란 교섭단체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1953년 3월 당수에 이승만 부당수에 이범석으로 하는 통합자유당이 출범하였다.

3) 사사오입 개헌과 이기붕 체제

자유당은 1953년 3월 제5차 전당대회를 개최, 기구를 개편하여 중앙위원회를 폐지하고 부장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때 이승만은 중앙당의 각 부장을 자신이 직접 임명하였다. 당시 당 재건의 전권을 위임 받은 총무부장에 이기붕(李起鵬)이 임명하였다.

이 때는 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자유당은 1954년 5월 2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신집권을 목표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 통과를 계획하고 있었다.

제3대 국회 총선 결과 자유당은 203명의 의원정수 가운데 114명이 당선되어 과반수는 확보했지만 개헌선인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승만은 무소속 의원 중 23명을 확보해 개헌선인 136명에서 1명이 넘는 137명을 확보했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1954년 9월 6일, 초대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와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 투표제의 채택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 합의에 부쳐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이승만의 담화발표가 있었다. 이 담화가 나오자마자 조작된 민의가 거리를 휩쓸게 되었다. '개헌반대자는 역적이다'라고 한 벽보가 도처에 나붙고, 삐라가 연일 살포됐으며 '국민 전체가 갈망하는 개헌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는 각 지방의회의 결의문이 국회로 날아들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간의 심각한 대립이 있었으며, 야당의 지연작전이 있었으나 여당의 속결주의에 의해 8일만에 제독회(諸讀會)조차 생략된 채 1954년 11월 27일 국회표결에 들어갔다. 그 결과 재적 203명 가운데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표로 부결되었다. 이것은 개헌정족수 136표보다 1표가 모자라는 것이었다. 이날 사회봉을 잡은 최순주(崔淳周) 부의장은 개헌안이 1표차로 부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자유당은 서울대 교수까지 동원하여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정확히 135.333…이므로 자연인을 소수점 이하까지 나눌 수 없어 4사5입의 수학적 원리를 도입해서 135명이 된다는 기상천외한 결론을 내렸다. 이를 28일 자유당의 의원총회에서 당의 결정으로 확정하고, 29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맹렬한 반대 속에 다시 가결로 선포되었다. 부결선포 이틀 만에 다시 가결되는 헌정사에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사사오입 개헌이다. 이 개헌에 반대하는 민국당은 국민적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무소속동지회 등 의원 60명이 중심이 되어 11월 30일 호헌동지회(護憲同志會)를 발족시키고 강력한 대여투

쟁에 들어갔다.

1956년 3대 정·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은 이승만과 이기붕을 후보로 내세워 관권동원 및 모든 수단을 다하여 총력전을 펴나갔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신익희와 장면 후보를 성원하는 기세가 높았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자유당을 압도하는 양상이 벌어져 예측불허의 판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신익희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호남유세를 위해 이리(裡理)로 가는 도중 급서(急逝)함으로서 이승만이 무난히 당선되었으나, 부통령에는 이기붕이 패하고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었다. 이 때 진보당(進步黨)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조봉암(趙奉岩)이 얻은 216만3천808표라는 의외의 선전은, 신익희의 급사로 갈 곳 잃은 표의 영향도 있지만, 자유당정권에 대한 민심의 이반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유당은 1958년 11월 18일,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1959년 제4대 정·부통령 후보로 이승만과 이기붕을 결정하여 다음 해 선거를 준비하였다.

1960년 3·15선거는 부통령을 놓고 이기붕과 장면이 격돌하는 상황이었다. 철저하게 부정으로 얼룩졌던 3·15선거는 결국 대중과 학생 등 온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여 자유당 정권은 4·19혁명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4) 자유당 무주군당(自由黨茂州郡黨)

자유당 무주군당은 1953년 초에 독립촉성국민회(獨立促成國民會)에 소속되었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준비에 들어가 같은 해 5월에 발족되었다. 하지만 지도자 부재로 조직이나 활동 면에서는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이기붕이 자유당의 2인자로 등장하여 각급 조직을 정비하던 시기에 개편대회를 통하여 새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자유당 무주군당이 출발되었다.

이 때부터 무주군당은 당세 확장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정비에 들어갔으며,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대한청년단을 흡수하며 각 면과 리까지 조직을 확대하는 등 무주군의 자유당시대를 열었다. 그 후 자유당 무주군당은 이승만 정권이 몰락할 때까지 어느 지방보다 막강한 조직을 자랑하며 위세를 떨쳤다.

무주군당은 이기붕이 각별한 연고가 있어 그의 후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내외의 주목을

받기도 했으며, 한 때 그가 무주에서 출마준비를 하기도 했으나 지역연고출마를 지시한 이승만에 의하여 타지로 옮겼다는 설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당 무주군당의 당세가 타지에 비해 강했던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무주군당의 초기에서 중엽까지는 조필상(趙弼相)이 위원장으로 있었다. 그 후에 김진원 (金鎭元)으로 교체되었다. 김진원은 무주군당 재발족 당시 무주면장이었으나 당시 정부에서 읍·면장 중에서 덕망이 높고 행정수행능력이 탁월한 자를 군수로 등용한다는 새로운 인사 조치에 따라 군수로 등용된 케이스였다. 김진원의 무주군수 발탁은 당시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김진원은 표면상 당 외에 있으면서도 당조직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여 실질적으로 무주 군당을 움직이는 지도자였다. 그는 1956년 위원장에 취임하였고, 1958년 5월 2일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에 진출했으나 4·19혁명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5) 자유당무주군당 임원

○ 위 원 장 : 조필상(1954~1956)·김진원(1956~1960)
○ 부 위 원 장 : 김흥윤(金興尹)·허희경(許希慶)·진홍기(陳鴻基)
○ 각면당위원장 무주면 : 김학조(金學詔). 설천면 : 백낙은(白樂殷 도의원)·장판준(張判俊 백낙은 사망으로 후임). 안성면 : 박세서(朴洗緖)·김종록(金鍾綠 박세서 사퇴로 후임). 적상면 : 한태선(韓泰先). 부남면 : 김용근(金容根)

4. 민주당(民主黨)

이승만은 1954년 11월 사사오입 개헌으로 노골적인 장기집권 획책에 나섰다. 그러자 제2대 국회에서 24석을 차지한 민국당은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했던 무소속 의원들과 결합하여 60여 명의 의원들을 모아 동년 11월 30일 호헌동지회라는 원내교섭단체를 결성하였다.

결집된 야권세력은 강력하게 자유당정권을 위협하였다. 그 때 야권세력의 활동을 둔화 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불온문서 조작사건이 만들어졌다. 즉, 북한의 지령에 의하여 간첩이 투입된 것처럼 조작한 불온문서를 호헌동지회의 중진, 전의원, 정치사회단체와 문화언론계 등에 300여 통을 보내 사회를 뒤흔든 것이다.

호헌동지회와 야권 등에는 이러한 자유당의 공작정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신당의 출현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호헌동지회의 신당 추진파는 국회를 중심으로 한 신당발기준비를 위해 9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조병옥을 중심으로 신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원칙기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신당발기를 위한 9인 위원회는 1955년 초, 그 수를 18인으로 확대하여 신당조직촉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신당 성격에 관한 4대 원칙을 담은 신당취지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반공 반독재·대의정치 및 책임정치 확립·사회주의에 입각한 수탈 없는 국민경제체제의 확립·민주우방과의 협조 제휴를 통한 평화적 국제질서의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신당조직 추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맡은 신당조직촉진위원회의 당면과제는 150명 정도의 신당발기준비위원을 지명하는 것이었는데, 여러 정파의 당면 목표는 공통되었으나 당시 "좌익전향자와 독재행위와 부패행위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은 신당발기준비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발기준비위원 조직요강에 포함되어 일부 참여인사에 대한 시비문제가 발생하였다.

갈등의 원인은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범야권의 보수세력의 결합만을 주장하는 민국당계가 신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무리수를 두어 발생한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조봉암의 참여를 적극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일제하에서 이렇다 할 투쟁경력이 없는 일부 인사들에게 있어서 조봉암은 위협적인 정치적 상대로 등장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신당운동은 결국 보수세력인 신익희·조병옥·김도연·장면·곽상훈·윤병호 등 신당 발기준비위원 168명이 참석한 가운데 1955년 7월 17일 서울 천도교 강당에서 열렸다. 이로써 한국의 전통야당은 보수적 성격으로 고착되는 한계를 낳고 말았다. 그 후 진보당의 몰락과 장면 정권시절 혁신계의 참패, 5·16이후의 혁신세력에 가해지는 철퇴는 이런 정치상황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한편 발기준비위원회에는 33명 민의원과 전(前)의원 34명, 일반인 101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9월 18일 민국당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찬반의 대립 속에 기립표결에 의하여 당의 해체와 민주당 참가를 결정하게 되었다.

1) 신익희와 장면을 정·부통령후보로 지명

민주당은 1955년 9월 19일, 서울시 공관에서 발기인대회 및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정강정책을 통과시키고, 400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하였다. 이어서 중앙위원회는 대표최고위원에 신익희를 선출하고, 최고위원에 조병옥·장면·곽상훈·백남훈 등 4인을 선출함으로써 당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하고 창당작업을 완료하였다.

민주당 창당 10일 후부터는 서울특별시 및 각 도당을 결성하였으며, 1956년 들어서는 각시·군의 하부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1956년 3월 29일 민주당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에 신익희, 부통령 후보에 장면을 지명하였다. 한편 민주당 창당과정에서 제외된 조봉암은 진보당을 창당하여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되었다.

창당 7개월 만에 선거를 맞은 민주당은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자유당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공격의 초점을 맞추며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선전해 나갔다. 그리고 당내 거물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여 도시를 중점적으로 순회하는 릴레이 유세를 감행하며 자유당의 부정부패를 폭로하였다.(당시 무주에는 조병옥·유진산·이철승·박봉애 등이 다녀갔다)

이에 맞선 자유당은 '갈아봤자 별 수 없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공무원과 경찰을 동원한 관권선거와 선거방해 등 온갖 부정과 비리를 자행하였다.

민주당의 정권교체를 위한 선거투쟁은 도시지역 유권자의 열렬한 호응으로 자유당의 선거분위기를 압도하였다. 이런 분위기는 농촌지역에까지 파급되어 자유당에 억눌렸던 농촌의 반(反)자유당 세력의 기세도 높아져 선거종반에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투표 10여 일을 앞두고 신익희 후보가 호남지방 유세 도중 이리로 향하던 기차 안에서 급서(急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선거는 부통령 당선에 집중되어 장면과 이기붕의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다.

이 때문에 선거분위기는 험악하였고, 전국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투표 및 개표중단사태가 속출하는 등 관권과 비리로 얼룩진 혼탁스러운 사태가 나타났으나, 부통령 선거는 민주당 장면 후보의 승리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창당한지 불과 1개월 남짓한 진보당의 조봉암 대통령 후보가 200만표 이상을 득표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자유당에 대한 민심이반과 함께 자유당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하려는 국민의 견제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통령 선거 후 뒤이은 지방의원 선거(8월 도·시·읍회의 및 읍·면장 선거)를 앞두고 야당후보 예상자를 연행하거나 등록방해를 꾀하는 등의 일들이 전국 도처에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헌정사상 처음으로 의원데모사태까지 발생하였으며, 아직 호헌동지회에 남아있던 의원들까지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민주당은 반독재민권운동(反獨裁民權運動)의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1956년 8월에 실시 된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선전하여 대도시에서는 대승을 거두었다. 서울특별시 의원은 민주당 40석에 자유당은 단 1석에 불과하였으며 경기도는 전원 민주당이 당선되었다.

2) 신파(新派)와 구파(舊派)의 갈등

이러한 여세를 몰아 민주당은 1957년 9월 28일 서울시 공관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당 체제를 완비하였다. 그런데 장면 부통령의 저격사건이 일어나고, 야당탄압을 목적으로 국회경위권을 발동하여 야당의원들을 지하실에 감금 시켰으며, 1958년 12월 24일 국가보안법을 강제로 통과시켜 여야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더구나 민주당의 신파와 구파간의 정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1960년의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병옥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려는 구파와 장면을 옹립하려는 신파의 갈등이 증폭되어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었다.

1960년 3월 15일, 실시 된 정·부통령 선거는 자유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경찰을 선봉에 세우고, 공무원과 교사·관변단체 그리고 정치깡패 들까지 동원하는 사전각본에 의한 부정 선거가 되었다. 더구나 선거를 앞둔 1월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미국에 갔는데, 병원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지난 선거처럼 또다시 부통령 후보 장면만 남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자유당은 사전계획대로 각종 부정선거를 감행하였고, 민주당은 선거를 포기하는 한편 3·15선거의 불법무효를 선언하였다.

3·15부정선거는 결국 4·19혁명을 불러 일으켰고, 마침내 이승만의 하야와 함께 자유당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후 과도정부를 거쳐 민주당이 주장하던 내각책임제 하의 민주당 정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제2공화국의 수립에 앞서 실시된 7·29선거에서는 의원 정수 233명 중 민주당 후보가 175명(75.1%)이 당선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는 4·19혁명의 분위기 속에서 장기간 반독

재 투쟁으로 일관했던 민주당이 4·19이념을 살려 민주정치를 실현해 주기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권과 더불어 고질적인 신구파 정쟁이 더욱 노골화되었고, 끝내는 구파가 신민당(新民黨)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민주당은 분당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도 장면 정권은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워 국토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등 제2공화국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쿠데타'를 당해 민주당은 집권 9개월만에 퇴진하고 제2공화국과 함께 소멸되었다.

3) 민주당 무주군당(民主黨茂州郡黨)

민주당 무주군당은 1956년 4월 중순 9명의 유지들로 군당결성준비위원회(郡黨結成準備委員會)를 구성했으나, 당시 무주군내 자유당 세력의 막강한 위세로 보아 민주당이 뿌리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1956년 5월 15일 제3대 정·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선거전의 열기가 도시로부터 파급됨에 따라, 군내에 산재해 있던 반자유당 인사들의 호응도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에 힘입어 비록 소수지만 선거전에 나서 신익희와 장면에 대한 지지열기를 확산시키고 가두선전 등을 하며 그 기세를 올렸다. 선거결과는 보잘 것 없는 것이었지만 자유당세에 눌렸던 무주군에 민주당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보강된 준비위원은 그 동안 무주군에서 청년연맹, 대동청년단, 대한청년단 등의 단장으로 활동하며 지지세를 넓혀온 의사출신의 신현돈(申鉉燉)을 영입하고, 8·13 도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기간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이후 기간당원을 확보한 다음 1956년 10월 21일 노천(露天)에서 무주군당 결성대회를 가졌다.

무주군당은 각 면 단위까지 조직을 했으나 주민의 여론을 움직일 정도의 당원 수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일부 비밀당원을 제외하고 노출된 공식당원의 수는 200명을 넘지 못했다. 그나마도 3·15부정선거 때에는 자유당에 의하여 강제탈당을 당하여 30여명만이 남아 군당이란 명목만을 지키다가 4·19 이후에는 자유당의 억압에서 풀려난 민심으로 인해 조직이 급성장하여 각 리동(理洞)당부까지 갖추는 등 당원수가 6,000명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당세의 변화도 그 기간이 별로 길지 않았으며, 민주당 무주군당의 존속기간은 4년 여에 불과했다.

4) 민주당 무주군당 임원

○ 위 원 장 : 신현돈
○ 부 위 원 장 : 박상식(朴祥植 1956. 1. 21~1960.3), 박승조(朴勝錯), 최강득(崔强得), 김용환(金用煥 1960. 10 ~), 최성만(崔盛萬 1960. 10 ~)
○ 각면당위원장 : 무주면당 위원장 : 김용환(金用煥). 부위원장 : 장헌달(張憲達)
적상면당부위원장 : 최성만(崔盛萬)
안성면당부위원장 : 박승조(朴勝錯)
부남면당부위원장 : 주성조(朱聖祚)

5. 진보당(進步黨)

1955년 야당통합을 둘러싸고 자유민주파와 민주대동파가 대립하면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자, 대립의 당사자인 조봉암은 독자적으로 혁신정당을 결성하게 된다. 1956년 1월 26일 조봉암은 서상일·박기출·신숙 등과 진보정당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동년 5월 정·부통령 선거후보에 박기출과 함께 출마하게 된다. 선거를 앞두고 신익희가 급사하자 그는 216만3천808표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선거 후 민주혁신당을 결성한 서상일과 결별하고, 11월 10일 진보당을 창당하였다. 창당대회에서 “책임있는 혁신정치·수탈없는 계획경제·민주적 평화통일”의 3대 정강을 채택하였고, 위원장에 조봉암, 간사장에 윤길중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1958년 1월 12일, 진보당 간부들이 북한의 간첩과 내통혐의 사건에 연루되었다 하여 조봉암·윤길중·김기철 등 모든 간부가 검거 당했다. 7월 2일 조봉암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나,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사형이 확정되었다. 나머지 간부들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조봉암의 재심청구도 7월 30일 기각되었고, 다음날인 7월 31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진보당사건과 조봉암의 사형은 이승만 정권의 연장을 위한 정적 살해의 의미가 크고 이는 정치테러와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송진우·장덕수·여운형·김구의 살해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었다. 진보당은 1958년 2월 25일 등록이 취소되어 소멸되었다.

6. 기타 정당

자유당정권의 반공정책으로 인해 혁신세력은 무자비한 탄압을 받아 활동을 하지 못하다 가 4·19혁명 이후 사회전면에 나섰다. 그 가운데 사회대중당(社會大衆黨·위원장 : 김달호)은 구진보계·민주계·근민계 등 광범위한 혁신세력을 규합하여 1960년 7월 29일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으나 패배하고 이합집산을 거듭하였다. 이후 혁신계는 자주통일을 주장하는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와 중립화통일 방안을 가진 우파로 나누어졌다.

제3절 제3·4공화국

1. 민주공화당(民主共和黨)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군부는 1962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당 등 모든 정당을 해산 시켰다. 그리고 그 해 3월 16일 소급입법인 정치활동정화법(政治活動淨化法)을 제정하여 기존 정치인들의 정치활동마저 금지하였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세력은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를 설치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1962년 12월 군정세력은 헌법개정을 통해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갖추었다.

군부세력은 1963년 10월 15일의 제5대 대통령선거와 10월 26일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하여 재야정치인들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자신들은 비밀리에 정치재개시기에 맞춘 기본조직과 이에 필요한 인물선정 등 준비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신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까지의 준비를 사실상 1963년 1월 1일 이전에 모두 끝내고 있었다.

이처럼 막강한 군정의 위력과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법조·언론·교육·사회종교·공무원 등을 기반으로 하여, 차후 민정이양을 준비하면서 구 정치세력의 도전마저 준비하는 여유를 가졌다.

1963년 1월 1일, 정치활동이 재계되자, 윤일선·김종필 등 12명의 발기인이 1월 10일 첫 번째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임시의장에 윤일선, 대변인에 윤주영을 선출하고 가칭 '재건당'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1월 17일 제7차 발기인 대회에서 당명을 민주

공화당으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1월 18일, 김종필의 진행으로 발기인 79명이 신당발기선언과 함께 당명을 확정하였다. 공화당은 2월 2일 대표 4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갖고 김종필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군정에 적극 참여한 김동하·송요찬 등이 공화당의 조직에 대한 반대와 4대 의혹사건을 비롯하여 군정하의 실정을 폭로하고, 특히 송요찬은 군의 원대복귀와 중립 그리고 공화당의 전면해체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정희의 정치연극으로 일컬어지는 민정불참을 선언한 2·18 선언이 나왔고, 김종필은 2월 25일 "자의반 타의반"이란 말을 남기고 공화당의 모든 조직에서 물러나 외유 길에 올랐다.

박정희의 민정불참 선언은 공화당 창당주역 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지만, 2월 26일 창당대회를 갖고 박정희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제외하고는 총재에 정구영, 당의장에 김정열을 지명하였다.

또한 2월 27일에는 최고회의 주최로 정치지도자, 각군 책임자, 시국정치공동성명 등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조야 정객의 선서식이 있었으며, 오후에는 정치정화법 해당자 가운데 268명을 제외한 2천 322명의 정치인에 대한 정치활동금지가 해제되었다.

하지만 박정희는 3월 16일 돌연히 "4년간 군정을 연장"할 것을 국민투표로 확정하겠다고 발표하고, 같은 날짜로 모든 정당활동을 중단하는 동시에 기본권의 일부에 대해서 제한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재야에서는 3·16성명의 철회를 요구하게 되었고, 박정희는 "기성 정치인들이 자진해서 정계진출을 단념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결국 박정희는 4·8성명을 통하여 사실상 3·16성명을 철회하고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문제를 각 정당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박정희의 민정불참선언도 '구정치인들과의 공동참여제'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철회하게 되었다.

4·8성명에 대하여 공화당은 활로를 찾은 듯 크게 환영하였으나, 박정희는 "이 나라의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정국안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범민족적인 정당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박정희의 이러한 의도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춘(金在春)을 중심으로 한 범민족정당(汎民族政黨·自由民主黨)을 추진하게 되었고, 쿠데타 세력의 일부는 5월동지회(5月同志會)를 조직했다.

1) 박정희의 예편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

그러나 이미 1년 전부터 사전 준비를 해온 공화당에 그 조직과 규모는 미칠 수가 없었다. 공화당의 사전조직에 대해서는 당시 북에서 밀파된 거물간첩 황태성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설이 나돌아 박정희와 김종필을 곤경에 빠트리기도 했다. 또한 4대 의혹사건으로 불리는 새나라자동차사건·빠징고사건·증권파동·워커힐사건 등은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며 세간의 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공화당은 예정대로 창당되었고, 5월 27일 개최된 전당대회는 박정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으며, 박정희는 이틀 후 군복을 벗고 입당하여 대통령 지명을 수락함으로써 공화당시대가 막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출발부터 내분을 극복하지 못했고, 각 파벌간의 대립도 전과 다를 바 없었다. 더구나 권력에 대한 집권욕이 군사쿠데타의 명분에 앞서며 군정기간 발생한 갖가지 의혹 사건들, 그리고 정치활동을 금지해 놓고 사전에 공화당을 조직하여 집권했다는 점에서 군정의 연장이나 다름없는 한계를 가지고 출범하였다.

1963년 10월 15일 실시된 재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되었다. 이것은 조직과 자금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선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정에 대한 국민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 선거후인 10월 22일 김종필이 귀국하여 공화당의 당의장이 되었고, 11월 26일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수 175명 가운데 110명으로 62.9%의 의석을 확보해 원내에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2) 6·3굴욕외교 반대시위 및 비상계엄선포

박정희는 대통령 취임 후 대일외교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였다. 그러자 원외에서 민정당(民政黨)을 비롯한 야당이 재야세력과 연합하여 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對日屈辱外交反對汎國民鬪爭委員會)를 결성하고 1964년 3월 15일부터 범국민투쟁에 들어갔다. 공화당 또한 대일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중집회를 개최하며 맞섰다.

같은 해 3월 24일부터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교에서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투쟁이 요원의 불길처럼 확대되었다. 6월 3일에는 서울시 일원에 있는 모든 대학과 수원·대

전 등지의 1만5천 여 학생들이 ‘박정권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세종로 일대를 메우면서 시위에 들어갔다.

이러한 학생들의 시위에 위기를 느낀 박정희 정권은 1964년 6월 3일 하오 9시 40분, 동일 하오 8시로 소급하여 서울시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각급 학교에 무기한 휴교령이 내려지고 언론의 사전검열과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었다. 박정희는 이와 같이 민심을 억압하면서 국제정세 및 경제개발을 명분으로 끝내 한일회담과 국교성상화를 성사시켰다.

1967년 5월과 6월 한 달 간격으로 실시 된 제6대 대통령 선거와 제7대 국회의원 선거는 박정희와 공화당이 더 안정적으로 정국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공화당의 박정희는 윤보선과의 대결에서 100만표 이상을 이겼다.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175명의 의원 정수 중 129명을 확보하여 73.7%로 3분의 2선을 넘겨 개헌정족수를 훨씬 넘어섰다.

이에 대하여 야당인 신민당(新民黨)은 6·8총선을 전면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박대통령의 전면부정선거 시인과 사과·전면 재선거 실시·부정 관련 책임자 인책·부정선거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장 등 4개항을 제시하며 의원 등록 거부와 등원거부에 들어갔다. 공화당은 야당의 치열한 부정선거 규탄을 받으며 13명의 의원을 제명하여, 당은 내분과 갈등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3) 3선 개헌

제7대 국회 후반인 1969년 1월 길재호 공화당 사무총장과 윤치영(尹致映) 당의장서리는 “조국근대화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강력한 리더십 유지”를 이유로 개헌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른바 영구집권을 위한 시나리오가 시작된 것이다.

개헌논의 초기, 공화당 내에서 박정희에 대한 항명으로 비쳐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김종필의 핵심 참모들로 개헌안을 반대하던 인사들이 일으킨, 이른바 ‘4·8항명파동’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이들에 대한 제명처분을 통해 영구집권을 향한 개헌의지와 추진의 단호함을 과시 하였다.

한편 공화당은 5월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개헌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 주기 바란다” 는 대국민성명을 발표했으며, 7월 29일 “헌법 제66조 3항의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라는 내용으로 바꾸는 개헌안을 의원총회에서 채택했다. 이 개헌안은 8월 8일 국회에 상정되었고, 13일 표결을 시도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15일로 연기되었다. 야당이 국회의사당에서 농성 중인 틈을

타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 28분 통행금지하의 심야에 공화당 소속 122명을 국회 제3별관에 불러 모은 후 불과 10분만에 3선 개헌안을 날치기통과 시켰다.

공화당의 박정희는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온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와 격돌하여 불과 94만7천 여표 차이로 승리하였다. 하지만 선거 후반 박정희와 김대중은 각자의 출신지인 지역감정에 호소하였고, 그 결과 박정희는 영남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호남에서는 김대중에게 상대적으로 큰 지지를 나타내어 영· 호남대결의 양상이 나타났다.

4) 10월유신과 공화당의 몰락

집권 3기에 접어든 박정희는 공화당의 부총재인 김종필을 총리로 기용해 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런데, 공화당의 4인 방인 백남억(白南憶) 당의장·길재호(吉在號) 정책위의장·김성곤(金成坤) 중앙위의장·김진만(金振晩) 재정위의장 등이 주도한 10·2항명파동이 일어났다. 이들은 1975년의 정권변동을 염두에 두고 당내에서 세력을 확대할 기회로 삼으려 했지만, 박정희는 이를 이용하여 친정체제를 확립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박정희의 장기집권에 따른 저항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기 시작하였고, 결국 5월 27일 서울대학교의 문리대·법대·상대 등에 무기한 휴업령이 내려졌다. 8월 들어 학원의 자율성보장·학원사찰금지·부정부패를 규탄하는 대학가의 시위가 확산되었고, 71년 10월 5일 고려대학교에 군병력이 투입되었다. 또한 10월 15일에는 서울특별시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여 대학 내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시위를 탄압했으며, 학생들에 대한 제적과 강제징집을 단행하며 반정부서클을 해체하였다.

박정희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후 8월 3일에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 했다. 그리고 10월 17일 '10·17특별선언'을 통해 영구집권을 위한 장치로 10월유신을 선포했다. 10월유신은 당일자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국회 및 정당의 해산·정치 활동의 금지·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와 현 국무회의를 비상국무회의로 대체하여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 수행·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 공고와 1개월 내 국민투표·확정된 헌법을 토대로 금년 말 이전 헌정질서 회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에게 정권도전 자체를 봉쇄하고 박정희와 공화당의 영구집권을 열어간 1973년 8월 유신체제의 출범 이후, 반정부활동과 유신반대운동이 조직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에 박정희는 1974년 1월 8일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제2호를 선포하고 개헌운동을 탄압 하였다.

1974년 김영삼을 중심으로 한 선명 야당을 표명한 신민당의 강력한 반유신활동, 동년 11월 27일 사회각계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민주회복국민회의 발족, 1975년 카톨릭의 민주화운동 등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6년 3월 1일 윤보선과 김대중을 비롯한 재야인사와 성직자들이 서울명동성당에 모여 ‘민주구국선언’과 함께 유신철폐와 박정희의 하야를 요구하는 ‘3·1구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반정부투쟁은 1979년 5월 김영삼이 신민당의 총재로 복귀하여 유신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서 박정희 정권은 김대중을 다시 연금하고 상이군인들로 하여금 신민당사를 습격토록 하는 등 온갖 탄압을 자행하였다. 특히, 김영삼의 정계축출을 기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총재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김영삼의 9월 16일자 뉴욕타임스지 회견내용이 국가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들어 국회의원직마저 박탈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박정희와 공화당의 무리수는 결국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고, 10월 16일 부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 인근 마산과 창원 등지로 확산되었다. 이에 유신정권은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26일에는 마산·창원에 위수령을 발동하였다.

이러한 강경책은 결국 박정희 자신이 가장 믿었던 김재규(金載圭)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안가에서의 주연(酒宴) 도중 권총으로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 박정희 정권 18년의 막이 내리게 되었다.

당총재를 잃어버린 공화당은 11월 12일 김종필을 당 총재로 선출했으며,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는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12월 12일 계엄사합동수사본부장인 보안사령관 전두환 세력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총격전 끝에 강제연행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1980년 5월 17일 밤 12시에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종필·김대중 등 26명을 사전연행하고 정치활동을 중지시켰으며 대학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이처럼 12·12와 5·17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군부세력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의 권한을 대신하게 하고, 10월 27일 공화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을 해산 시켰다.

단일정당으로는 가장 오랜 동안 한국을 지배했던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은 그가 살해되자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산되면서 사라졌다.

5) 민주공화당 무주군 조직

제3공화국에서는 자유당이나 민주당 때처럼 각 군에 군당부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두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무주·진안·장수의 3개 군을 합쳐서 1개 지구당이 결성되었고 무주군은 이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공화당 전북 제5지구당이 생겼고 무주군은 여기에 속해 정당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화당 전북 제5지구당은 인구가 많은 진안군에 위치하고 무주군은 연락소의 기능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변동으로 군세가 약한 무주군은 얼마동안 지구당에 대한 소속감이나 정치인의 배출 면에서도 전과 다른 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무주군의 공화당 조직은 짧은 시일 내에 확대되었고, 이미 창당 전에 사전 조직된 공화당의 지구당 사무국 요원을 중심으로 조직이 착수되었다. 편의상 창당에서부터 해체까지를 4기로 나누어 본다.

(1) 제1기 1963 ~ 1971년

1963년 5월 10일 공화당이 창당되고 제6대와 제7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전북 제5지구당의 위원장으로 4·5대 국회의원을 지낸 진안 출신의 전휴상(全烋相)이 임명되었고, 무주군의 부위원장에는 송재황(宋在晃)이 임명되었다. 또한 무주군 연락소장(連絡所長)으로 김현기(金顯驥)가 임명되어 군내의 당원조직과 사무를 관장하였는데, 일명 조직부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일선에서 조직을 담당하던 각 면의 책임자를 관리장(管理長)이라 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다.

무주면 : 박갑용(朴甲龍), 무풍면 : 이종선(李鍾琁),
설천면 : 김순석(金淳錫), 안성면 : 이태영(李泰永)·김경만(金敬萬. 후임),
적상면 : 김선성(金施星), 부남면 : 황익주(黃益周)

(2) 제2기 1971 ~ 1973년

1969년 3선 개헌으로 영구집권의 길을 튼 박정희와 공화당은 1971년 5월 25일 국회의원 선거구를 다시 변동하였다. 이에 따라 무진장 3군에서 진안군이 독립되어 무주와 장수 두 개 군을 합쳐 전북 제6지구당이 되었다.

새로 위원장이 된 사람은 약사로 전라북도 보건과장을 역임하고 공화당 전라북도당 사무국장 출신의 길병전(吉秉典)이었다. 길 위원장은 부위원장에 김환형(金煥馨)·박인범(朴仁範)을 임명하고, 연락소장에 김현기(金顯驥)·김용조(金容朝. 후임)를 임명하여 제8대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였다. 각 면의 관리장은 다음과 같다. 무주면(갑) : 이상용(李相龍)·(을) : 장일변(張日變),
적상면(갑) : 김광성(金廣成)·(을) : 백도석(白道錫),
설천면(갑) : 김순석(金淳錫)·(을) : 양승규(梁承圭),
무풍면 : 최인섭(崔仁燮), 안성면 : 신재섭(申在燮), 부남면 : 황익주(黃益周)

(3) 제3기 1973 ~ 1978년

1972년 영구집권을 위해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고, 국회의원의 3분의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른바 '유정회' 의원을 두는 것으로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다시 선거구가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무주군은 다시 무진장으로 복원되고 전북 제3지구당이 되었다. 1973년 2월 27일 제9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위원장에 전휴상이 선출되었다.

전휴상 위원장은 부위원장에 김진석(金鎭錫)·신재섭(申在燮. 무주군)을 선임하고, 연락소장에 김용조(金容朝)를 임명하였다. 각 면의 관리장은 다음과 같았다.
무주면(갑) : 황한수(黃漢水)·(을) : 김종수(金鍾洙),
적상면(갑) : 황태경(黃太慶)·(을) : 백도석(白道錫),
설천면(갑) : 김순석(金淳錫)·(을) : 양승규(梁承圭),
무풍면 : 최인섭(崔仁燮), 안성면 : 신재섭(申在燮), 부남면 : 황익주(黃益周)

(4) 제4기 1978 ~ 1980년

공화당의 4인방인 백남억·길재호·김성곤·김진만 등이 주도한 10·2항명파동으로 이들이 몰락하자 장기간 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전휴상 역시 그 세력을 잃었다. 또한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하고, 이어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무주군 출신의 김광수(金光洙)가 새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공화당에 새로 입당하여 위원장이 된 김광수는 기존의 조직에 새로운 인물들을 포함하여 조직을 구성하였다.

김광수 위원장은 부위원장에 김진석·신재섭·박인범·김순석을 선임하고, 연락소장에 김성기(金聖基)를 임명하여 특유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조직확충에 박차를 가했다. 각 면의 관리장은 다음과 같았다.

무주면(갑) : 이성만(李成萬)·(을) : 강종현(姜鍾鉉),
적상면(갑) : 황태경(黃太慶)·(을) : 백도석(白道錫),
설천면(갑) : 강호기(姜鎬驥)·(을) : 김동철(金東喆),
무풍면 : 이종선(李鍾琁), 안성면 : 강석기(姜錫起), 부남면 : 황익주(黃益周)

2. 민정당(民政黨)

민정당은 5·16이후 정치인들의 활동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자, 제2공화국 당시 집권당의 위치에 있던 구민주당에서 이탈하여 신민당을 결성했던 구민주당의 구파세력 중심으로 성립된 정당이다.

구민주당 구파였던 윤보선과 김병로·이인·전진한 등 4인은 1963년 1월 3일, 4자 회담을 갖고 " … 대동 단합하여 단일야당을 형성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최초로 재야정당의 성립 움직임을 보였다.

윤보선과 김병로를 중심으로 1월 29일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지도위원에 김병로, 지도위원에 윤보선·이인·전진한·김법린(金法麟)·서정귀(徐廷貴) 등을 선출하고 창당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5월 14일 서울 시민회관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대표 김병로, 대통령 후보 윤보선, 최고위원 김도연·백남훈·이인·전진한·김법린·서정귀 등을 선출하였다. 하지만 김병로는 대통령 후보 사전조절문제로 탈당하였다.

민정당은 윤보선을 제5대 대통령 후보로 하여 선거에 임하고 근소한 차로 패하였으나, 제6대 국회에서 제1야당이 되었다. 그 후 자유민주당과의 통합을 추진하여 1964년 11월 26일 흡수합당 하였으며, 1965년 5월 3일에는 민정당과 민주당의 통합선언대회를 개최하고 5월 8일 두 당을 통합하여 민중당(民衆黨) 창당을 선언하기로 하고, 민정당은 발전적으로 해체되었다.

한편 전북 제6선거구에 속한 무주군 지구의 민정당은 1963년 11월 26일 실시 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장수군 계남면 출신의 오치황(吳治惶)이 위원장을 맡아 출마하기도 하였다.

3. 국민의 당

재야통합원칙에 따라 민정당과 신정당 그리고 민우당 등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일야당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합의한 통합당 명이다.

오랜 협의와 우여곡절 끝에 1963년 8월 1일 통합신당발기인대회를 열어 난제 중의 하나인 지구당 조직책 선정을 마쳤다. 그 후 9월 5일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정강정책을 통과시켰으며, 최고위원에 김병로·김도연·이인·신정계의 허정(許政)·민우계의 이범석 등 5인을 선출 하였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 선출을 두고 윤보선과 허정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윤보선은 국민의 당에서 이탈해 민정당으로 복귀하였고, 민정당의 대표 최고위원이었던 김병로가 국민의 당의 대표최고위원이 되었다. 대표위원인 허정이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중도에 사퇴하였고, 1964년 10월 5일 민주당으로 흡수합당 되었다.

한편 무주군의 국민의 당은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장수군 장수면 출신의 최성석(崔成石)이 위원장이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인 허정의 중도 사퇴로 최성석은 민주당으로 옮겨 11월 26일 실시 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도 하였다.

4. 민주당(民主黨)

박순천(朴順天)을 중심으로 한 전민주당 인사들은 군부의 정권장악이 선거에 의한 합법적 방법이 아니었다는 점에 강한 결집력을 가지고 민주당 재건에 착수하였다. 1963년 2월 4일 137명의 발기인이 참석하여 전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순천과 이승만 정권 초기에 감찰위 원장을 지낸 노진설(盧鎭卨)을 선출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3개월 후인 4월 30일, 허정이 중심이 된 신정당(新政黨)이 발기되면서 민주당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던 최고위원 노진설 등 44명이 신정당에 합류해 버렸다. 민주당은 과도정부의 내각수반이던 허정을 대통령 후보로 옹립한다는 전제로 신정당과 합류를 모색하게 되는데, 고수파와 합류파로 의견이 양분되는 듯 했으나, 오히려 허정의 자유당 및 무소속 중심의 편파적인 당운영에 불만을 품고 신정당에 참여하였던 인사들마저 대부분 복귀하였다.

당의 와해를 극복한 민주당은 1963년 7월 18일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단일지도체제인

총재에 구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순천을 선출함으로써 5·16으로 강제해산 된지 2년 여만에 재건하였다.

한편 민주당 무주군지구는 국민의 당 위원장이었던 최성석이 조직책을 맡아 1963년 11월 26일 실시 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5. 민중당(民衆黨)

민정당과 민주당은 1965년 3월 25일 각기 전당대회에서 양당의 야당통합원칙의 결의에 따라 15인씩 통합추진전권대표를 선출하여 "야당통합 전권대표 30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양당 대표 30인은 4월 21일 '선 통합선언 후 조정'원칙을 결의함으로써 통합에 한발 다가섰다.

통합위원회는 12인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에서, 공동대표는 민정당의 대표인 윤보선과 민주당의 대표인 박순천으로 하고, 당명은 민중당으로 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지도체제는 최고위원제로 하는 집단지도체제로 하면서 대표최고위원이 당을 대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민중당은 1965년 6월 14일 국민의 기대 속에 시민회관에서 통합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단일야당으로 출범하였다. 자유당정권하의 민주당에 이어 두 번째 단일야당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민중당은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국회비준저지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 대응책을 둘러싸고 당내의 당론이 양분되면서, 민정당계가 민주당계와 결별하고 신한당(新韓黨)을 조직하여 분당의 길을 걸었다.

한편 전북 제6선거구에 속한 민중당 무주지구는 오랜 야당생활을 한 최성석이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6. 신한당(新韓黨)

1966년 1월 18일, 의원직 사퇴자 8인과 장택상 한일조약반대투쟁위원장·민장식(閔壯植)·윤택중·김성수(혁신계)·신태옥·조한백 등을 중심으로 발기추진위원을 구성하고 창당작업을 본격화하였다. 또한 2월 15일 시민회관에서 신한당 창당발기인 대회를 개최했으며, 창당준비위원회 수석대표에 윤보선, 대표위원에 김도연과 정일형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3월 30일 시민회관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강력한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하였으며, 윤보선을 총재 겸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이로써 단일야당의 총재와 대통령 후보를 원하며 야당통합을 추진했던 윤보선은 민중당 출범과정에서 당권을 상실한지 10여 개월 만에 신당을 창당하여 총재와 대통령 후보에 올랐다.

하지만 신한당은 1967년 5월 3일 제6대 대통령선거를 3개월 여 앞둔 2월 11일 민중당과 함께 신민당으로 신설합당 하였다.

7. 신민당(新民黨)

신민당은 1960년대의 3공화국에서부터 1980년대 초의 4공화국까지 정당의 생명력을 유지해온 20세기 한국야당사상 수명이 가장 긴 정당이다.

5·16후 첫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가 민정당의 윤보선과의 대결에서 당선 되었고, 제6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얻은 데 비해 야당은 다수가 난립하여 국민적 지지를 결집시키지 못했다. 즉, 민정당과 민주당이 통합되어 단일야당으로 출범한 민중당이 다시 민중당과 신한당으로 분열하는 등 이합집산(離合集散)을 거듭한 것이다.

그런데,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와 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다시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1967년 2월 7일, 마침내 통합선언대회에 이어 전당대회에서 신민당을 탄생시켰다. 이로써 자유당 시절 호헌과 반독재의 기치를 들고 성립된 한국정당사의 최초 단일야당 민주당은 한국민주주의 수난과 애환을 함께 하면서 분열과 해산, 재건·통합·분열 그리고 통합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당 즉, 신민당으로 변천하였다.

신민당 창당 3개월만인 1967년 5월 3일 실시된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윤보선은 두 번째로 정권에 도전했으나 실패하였고, 이어 치뤄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4석밖에 얻지 못한 반면, 공화당은 개헌선이 넘는 117석을 획득하였다.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단 1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고 참패를 당했다.

1) 5차례 전당대회

신민당은 1968년 5월 20일 창당 후, 첫 전당대회를 열어 유진오를 정점으로 당체제를 정비하였다. 이후 1972년 유신체제가 발동 될 때까지 5회의 전당대회가 열려 당 지도체제의 변천을 가져왔다.

(1) 1968년 5월 20일

단일과 집단을 절충한 지도체제로 당헌을 개정하여 총재에 유진오를 재 추대했으나, 3선 개헌 후 신병으로 사퇴하였다.

(2) 1970년 1월 26일

완전한 단일지도체제로 당헌을 개정하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경선을 통해 유진산(柳珍山)이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전당대회에 앞서 재야인사와 혁신계 인사 그리고 구 자유당 인사 중심의 자유당과 한국독립당을 합당하여 신민당은 명실상부한 유일 야당의 자리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유진산의 당권장악에 반대하여 윤보선이 선명신당의 발기를 천명하며 탈당하고, 제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유진산 파동'이 발생하여 유진산이 대표최고위원을 사퇴하여 김홍일(金弘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3) 1970년 9월 29일

유진산의 대통령 후보 경선 불참과 함께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온 인물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이 치루어 졌다. 당권을 계속해서 잡고자 한 유진산은 김영삼을 추천하였고, 9월 29일 열린 대통령후보 지명대회는 김영삼과 김대중의 경쟁으로 압축되었다. 결과는 극적인 역전드라마를 펼치며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4) 1971년 7월 20일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신민당은 진산계와 반진산계로 양분되었다. 결국 유진산이 사퇴서를 제출하고 전당대회 의장인 김홍일이 당수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그 후 1971년 7월 20일 대의원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집단지도체제로 당헌을 개정하고 2일간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속에 김홍일이 김대중을 누르고 대표최고위원에 선출되었다.

(5) 1972년 9월 26일

당권에 대한 미련 속에 여러 차례 걸쳐 전당대회의 연기를 거듭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 유진산계는 9월 26일 시민회관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유진산을 만장일치로 당수

에 추대하였다.

유진산계의 전당대회 강행에 맞서 반(反)유진산계는 하루 뒤인 9월 27일, 또 다른 전당대회를 열고 26일 시민회관 대회의 무효와 전당대회 12월 연기를 결의하는 등 끊임없는 갈등을 겪다가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 10월 유신으로 무의미하게 일단락 되었다.

이처럼 신민당은 전당대회 때마다 주류와 비주류가 대립하여 당권경쟁으로 인한 내분에 휩싸여 외부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대여투쟁은 끊임없이 전개하였다. 특히 3선 개헌 반대투쟁과 2차에 걸친 선거에서는 국민의 큰 호응을 얻어 부실한 지구당을 보강하고 전국적으로 당세가 확장되었다. 더구나 1971년 5월 25일 치루어진 제8대 총선에서는 공화당 113석에 27석이 모자라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신민당의 약진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2) 유신체제와 신민당

유신헌법(維新憲法)에 의하여 박정희가 다시 대통령이 된 후 정치활동이 허용되었다. 한 동안 침묵 속에 있었던 신민당은 유진산의 주도로 재편성한 후 당수권한대행을 정일형에게 맡기고 유진산은 일단 후퇴하였다. 그러나 1973년 1월 결국 반(反)유진산계의 대부분 은 민주통일당을 만들어 나가고, 당원들이 많이 이탈해 버려 유신전의 신민당으로 복원되지는 못했다.

제9대 총선거 후 유진산은 당수에 복귀하여 전당대회를 거쳐 당권을 강화하고 당체제를 자신의 측근으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참여 속의 부정이라는 지도노선을 설정하고 여당과 대화를 통한 동반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따라서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도 없었다. 한편 1973년 8월, 유신체제 출범 이후 일본 등지에서 반정부활동을 하던 김대중을 일본에서 납치하여 국내에 데려와 연금 시키자, 국내에서는 반(反)유신운동이 조직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학생 및 재야인사들을 중심으로 유신헌법 개정 청원운동이 일어났다. 1974년 들어 박정희는 개헌논의의 금지 등을 포함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분야를 통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하는 “대통령긴급조치”를 선포하며 국민을 억압하였으나 신민당은 별다른 대응책을 세우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유진산이 1974년 4월 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리고 8월에 선거를 통해 김영삼이 총재가 되었다. 김영삼은 유진산의 ‘肯定속의 否定’에서 ‘否定속의 否定’으로 당의 체질을 바꾸면서 유신헌법개정을 위한 대여공세를 펴나갔다.

그러나 2년 후인 1976년 5월 22일 열린 전당대회가 이른바 '각목대회'라는 난투극 속에 유예되고, 동년 9월 15일 개최된 수습대회에서 중도통합론(中道統合論)의 주창자인 이철승이 대표최고위원으로 등장하였다. 당권을 장악한 이철승은 집단지도체제로 대여 온건노선을 지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민당은 1978년 12월 실시된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유효득표수에 있어 여당인 공화당보다 1.1%앞서는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 후 1979년 5월 30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은 '민주회복과 야당성 회복'을 외치며 바람을 일으켰다. 이 때 김대중의 지지를 통해 당권을 장악한 김영삼은 민주회복의 기치를 내걸고 강경하게 반(反)유신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공작정치라는 시련을 겪게 된다. 즉, 지구당위원장 3명이 김영삼을 선출한 전당대회는 무자격대의원이 참가했으므로 총재당선은 무효라 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職務執行停止假處分申請)을 동년 8월 13일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정운갑(鄭雲甲)을 직무 대행자로 선임하는 정당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김영삼은 이에 불복하고 총재직무수행을 했으나, 공화당과 유정회는 그가 미국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3]을 문제삼아 10월 4일, 김영삼 의원 제명에 대한 징계 안을 변칙적으로 가결하였다. 김영삼 제명파동은 '부마(釜馬)항쟁'을 유발시켰고,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살해당하는 비운을 맞게 된다.

10·26이후 1인 독재정치의 아성을 지켜온 여당은 막강하던 그 위세를 잃을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비상계엄 상태였으나 신민당은 대권장악의 기회가 도래한 것으로 알고 당세 정비를 서둘러 1980년 초부터 서울지부 결성을 비롯하여 각 시·도당 및 지구당의 조직강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김영삼 총재의 당권파와 당내 김대중 지지 세력간의 대립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재야인사의 영입, 김대중의 입당여부와 관련하여 진통을 겪었다. 그러던 중 1980년 10월 27일 공포된 제5공화정 헌법에 의하여 다른 정당과 함께 자동해체 되었다.

따라서 1967년 창당이래 13년 8개월 동안 제1야당의 자리에 있으면서 공화당 정권과 맞섰던 신민당은 1980년 10월 17일 공포 된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해산되었다.

---

3) "미국 정부는 박정희에 대한 지지를 끊어라, 국민과 유리(流離)된 정권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

3) 신민당 무진장지구당(新民黨茂鎭長地區黨)

신민당 무진장지구당은 1967년 4월 4일 결성되었다. 당시 야당 단일화를 위하여 중앙에서 신민당이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진장 3개 군에서는 신민당지구당의 조직을 갖출만한 여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군의 최성석(崔成石)은 측근들을 중심으로 조직책을 신청하고 지구당 조직의 법적 요식 행위를 마쳤다.

그러나 1개월 후인 1967년 5월 3일 실시 된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구당(무주)활동이 극히 저조하고, 공화당의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득표(47%)에 육박하는 신민당의 지지표(42%)는 공화당의 집권에 대한 무주지역 유권자의 동향을 엿볼 수 있다.

반면에 대선 1개월 후인 1967년 6월 8일 실시 된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전국 최고득표를 하고 신민당은 겨우 1.0%득표에 그치는 참패를 하고 말았다. 이후 10월 유신이 선포되기까지 대선, 총선, 국민투표 등 수차의 선거와 정기지구대회(定期地區大會)를 겪으면서 점차 기간당원을 확보하고 당원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신민당의 지지세에 비해 표면화된 당원 수는 많지 않았다. 이승익(李承翼)을 중심으로 당세를 이끌어 왔으나 유신체제가 선포되자 거의 대부분 당원이 당을 떠났다. 거기에 유신선포에 대해서 최성석이 지지성명을 내는 바람에 극소수의 잔류당원만으로 명맥을 이어갔다. 그 후 최성석은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진출했는데, 이는 장수군 유권자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은 바가 컸다. 그러나 신민당 무진장지구당은 5·16과 함께 자연 소멸되고 말았다.

8. 민주통일당(民主統一黨)

제9대 국회의원선거(1973. 2. 27)를 앞두고 신민당내의 반(反)유진산계인 양일동(梁一東)·윤제술(尹濟述)·유청(柳靑) 등이 탈당하여 1973년 1월 8일 통일민주당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분가를 희망한 의원 수는 6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민주통일당은 1월 27일 양일동을 당수로 하여 창당하고, 전신민당 당수 김홍일을 비롯하여 사상계 편집인으로 지식인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명망이 높던 장준하 등을 합류 시켰다. 그렇지만 신민당에 밀려 당수인 양일동과 김홍일 등이 낙선하고, 당선자가 2명뿐인 군소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후 1978년 12월 12일 제1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양일

동 등 3명만이 국회에 진출하였다. 민주통일당은 1980년 들어서 재야인사의 사면복권을 당의 1차적 투쟁목표로 정하는 등 민주화운동에 매진하였으나, 1980년 10월 5공화국 헌법 부칙 제7조에 의하여 해산 당하고 말았다.

한편 무주군에서의 민주통일당은 진안군 출신의 이복동(李福同)이 제1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구당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세는 미미하여 유명무실하였다.

9. 기타 정당

제3·4공화국 당시의 무진장 지구에서 기타 정당의 지구당이 다수 명멸(明滅)하였으나 모두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일과성 등장에 불과하였다. 그나마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해 서류상 형식만으로 결성 된 것이 적지 않았다. 또한 김진원이 발기한 자민당(自民黨) 이외에는 무주군에서 발기되거나 무주군 출신자가 출석하여 된 것이 없었다. 대략 다음과 같은 당이 이름을 내걸었다.

1) 자민당(自民黨)

자유당 시절 무주군 당위원장을 지낸 김진원(金鎭元)이 위원장을 맡았다. 1958년 5월 2일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국회에 진출했으나 4·19혁명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1963년 11월 26일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자민당으로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하였다.

2) 보수당(保守黨)

김명윤 등이 주도한 보수당은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창당되었으나, 1966년 2월 18일 해산되었다. 무주군 지구는 장수 출신으로 서울에 살던 제헌의원인 김봉두(金奉斗)가 위원장을 맡아 출마하였다.

3)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끈 한국독립당 계열 인사 등이 재건한 정당으로 김홍일을 대표로

하여 1963년 10월 30일 창당등록을 했다. 무주지구에서는 1967년 5월 3일에 실시된 제6대 대통령선거와 1967년 6월 8일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안군 출신인 박수산(朴壽山)이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4) 민주당(民主黨)

조재천 등이 1967년 5월 6일 창당등록을 마친 정당으로, 무주지구에서는 1967년 6월 8일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안출신인 최팔용(崔八龍)이 출마하였다.

5) 대중당(大衆黨)

1967년 3월 22일 서민호가 창당하였다. 무주지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박정근(朴定根)이 위원장을 맡아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다.

제4절 제5·6공화국

1.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

민주정의당(이하 민정당)은 1981년 2월 15일 창당되어 제5공화국의 집권당으로 등장하였다.

1979년 10·26사태 이후 전두환(全斗煥) 보안사령관을 정점으로 한 12·12사태의 주도 세력은 군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이듬해 4월 4일에는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면서 권력장악의 기반을 더욱 다졌으며, 4월말에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전인선 작업까지 완료하였다. 그리고 5월 중순 들어 대학생들의 시위가 가열되자, 국가보위를 명분으로 5월 17일 전국으로 계엄을 확대하고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며 3김씨를 비롯한 구 정치인들과 재야인사 들을 체포·연금·연행 등으로 거세하였다.

이때 광주에서 계엄 확대와 김대중씨의 구속을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됐고, 신군부는 광주시민 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며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이어서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을 강제로 하야시키고, 8월 27일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을 대통령에 추대토록

하여 9월 1일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9월 29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되고 10월 22일 국민투표를 거쳐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확정 공포되었다. 그리고 12월 26일 국가보위 입법회의는 대통령 선거법·국회의원 선거법·정당법·국회법·언론기본법 등을 무더기로 통과시켜 제5공화국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신군부는 1980년 11월 정치활동 허용과 함께 신당창당에 나서 12월 28일 신당창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갖고, 1981년 1월 15일 전두환을 당 총재로 하는 민주정의당을 창당하였다.

1981년 2월 11일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인단이 구성되었고, 2월 25일 체육관선거가 실시되어 전두환 후보가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3월 3일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민정당은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대 다수의석을 차지하였으나, 1985년 2월 12일 선거에서 신민당이 부상하면서 직선제 개헌투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후 1987년 6월 항쟁의 요구인 직선제 개헌투쟁에 굴복한 민정당은 1987년 3월 25일 노태우를 후보자로 지명하였고, 6월 3일 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그를 대통령 후보로 결정하였다.

민정당은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분열로 승리하였으나, 1988 년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다수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어 정국의 주도권을 잃게 되었다.

1) 민정당 무주군연락소(民正黨 茂州郡連絡所)

민정당 무주·진안·장수지구당은 위원장으로 내정된 무주군 무풍면 출신의 황인성(黃寅性)에 의하여 조직이 진행되었다. 1981년 7월 1일, 민주정의당 전북 제4지구 무주군 연락 소장에 조한준(趙漢俊)이 임명되었고, 그 해 12월 16일 민주정의당 전북 제4지구당 무주군 연락소가 개설되었다.

민정당의 초대 지구당 위원장이 된 황인성은 전라북도지사, 교통부장관과 기타 요직을 역임하면서 지명도가 매우 높았으며 지지세력도 적지 않았다. 더구나 공화당의 조직이 거의 흡수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주군의 당 세는 짧은 시일 내에 정비되었다.

황인성은 제11대 국회에 민정당의 공천으로 진출하고 제12대에는 전국구 의원으로 입성

하였으며, 농수산부장관으로 입각하였는데, 제6공화국에서는 국무총리를 역임하였다.

황인성의 후임으로 무주와 진안군수 그리고 전라북도지사와 제11대 전국구 의원을 역임한 전병우(全炳宇)가 위원장이 되었다. 그는 제12대 때 민정당의 공천으로 국회에 진출하여 내무분과위원장을 지내는 등 활약을 하였지만, 제13대에는 진안 출신으로 평민당의 공천을 받은 이상옥(李相玉)에게 패하여 원외지구당 위원장으로 남게 되었다. 조직개편에 따른 민정당 무주군 연락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본다.

(1) 제1기 1981 ~ 1985년

지구당 위원장인 황인성은 동부위원장에 김용조(金容朝)·신현곤(申鉉坤)·김순석(金 淳錫)·박인범(朴仁範)을 선임하고, 조직부장(연락소장)에 김재환(金在煥)·조한준(趙漢 俊)을 임명하였다. 각 면의 지도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무주읍(갑) : 김기종(金基鍾)·(을) : 황정수(黃正秀)
설천면(갑) : 김영길(金永吉)·(을) : 김동철(金東喆)
적상면(갑) : 김인식(金仁植)·(을) : 박용배(朴用培),
무풍면 : 이종근(李鍾根), 안성면 : 강석기(姜錫起), 부남면 : 임종국(林鍾國)

(2) 제2기 1985 ~ 1988년

제12대 총선을 앞두고 지구당 위원장에 전병우가 임명되어, 동부위원장에 김용조(金容朝)·신현곤(申鉉坤)·박인범(朴仁範)을 선임하고, 조직부장(연락소장)에 조한준(趙漢俊)을 임명하였다. 각 면의 지도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무주읍(갑) : 김태규(金泰奎) → 라영식(羅英植)·(을) : 황정수(黃正秀) → 김병조(金柄曹)
설천면(갑) : 김영길(金永吉)·(을) : 김동철(金東喆)
적상면(갑) : 김인수(金寅洙)·(을) : 박용배(朴用培)
무풍면 : 이종근(李鍾根), 안성면 : 강석기(姜錫起), 부남면 : 임종국(林鍾國)

(3) 제3기 1988 ~ 1990년

제13대 총선에서 낙선, 원외위원장이 된 지구당 위원장 전병우는 동부위원장에 김용조(金容朝)·신현곤(申鉉坤)·양병구(梁炳九)·황무성(黃茂性)·정희철(鄭熙喆)을 선임하고,

연락소장에 조한준(趙漢俊)을 유임하였다. 또한 각 면에 협의회장을 두고 지도장을 총무로 개칭하였다.

무주읍(갑) : 최영봉(崔榮鳳) 홍남섭(洪南燮). 총무 : 라영식(羅榮植)
(을) : 박정규(朴正圭) 홍남섭(洪南燮). 총무 : 김병조(金柄曹)
설천면(갑) : 양재하(梁在河) 총무 : 김영길(金永吉)·김용국(金容國)
(을) : 양승규(梁承奎) 총무 : 김동철(金東喆)·현형태(玄炯泰)
적상면(갑) : 김인식(金仁植) 총무 : 김인수(金寅洙)·김병철(金炳喆)
(을) : 김동호(金東鎬) →김영주(金永柱)
총무 : 박용배(朴用培) →김형태(金炯泰)
무풍면 : 이근수(李根洙) → 이종근(李鍾根) → 이종계(李鍾季)
총무 : 이종근(李鍾根) → 서익희(徐翌熙)
안성면 : 강동기(姜東基) → 박동우(朴東雨) → 유근필(柳根弼)
총무 : 유근필(柳根弼) → 박태신(朴泰信)
부남면 : 김용화(金容華) → 신대철(申大澈) → 황익주(黃益周)
총무 : 임종국(林鍾國) → 양원규(梁元奎)

2. 민주한국당(民主韓國黨)

민주한국당(民主韓國黨·민한당)은 1980년 5·17 이후 11월 22일 정치활동이 재개되자, 1981년 1월 구 신민당 의원 출신 중 1차로 해금된 사람들이 유치송(柳致松)을 중심으로 보수야당의 전통을 살린다는 명분아래 창당하여 11월 25일 등록을 마친 정당이다.

그러나 정치규제의 해금과정에서부터 창당작업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보부 등 집권층의 작용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선명성을 인정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민정당의 2중대니 들러리 야당이니 하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공화국의 첫 번째 선거인 제11대 총선에서 57명의 의원을 배출하여 제1야당의 위치를 차지했으나, 여당과 큰 대결 없이 5공 체제에 순응하였다. 그러나 1984년 2차와 3차에 걸쳐 정치규제자가 거의 대부분 해금되자 그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했던 구 신민당 소속 및 민추협(民推協)이 주체가 된 신한민주당(新韓民主黨)의 출현으로 그 위치는 밀려나고 말았다.

특히 1985년 2월 12일 제12대 총선에서는 신한민주당의 76석이라는 돌풍에 밀려 43석

밖에 얻지 못해 열세를 면치 못했다. 그나마 당선 의원 중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신한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김으로써 사실상 몰락하고 말았다.

민한당 무진장지구당은 진안 출신의 오상현(吳上鉉)을 위원장으로 하여 1981년 2월에 결성되었다. 지구당 결성 당시는 오상현이 총선에 입후보하기 위한 요식을 갖추는데 바빴고 진안군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무주군에서의 참여자는 오상현이 제10대 총선에 출마 할 당시에 형성된 소수의 사조직과 극소수의 전 신민당원이었다. 오상현은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22%의 소수 투표에도 불구하고 1구 2인을 뽑는 선거법으로 민정당 후보와 동반 당선되었다. 제12대 총선에서는 민정당과 신한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하였고 지구당도 소멸되었다.

3.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

한국국민당은 1980년 11월말경 정치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1981년 1월 24일 김종철 등 구 공화당 출신들을 중심으로 창당되었다.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18명을 당선시켜 제2당의 위치를 확보하였으나,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신한민주당의 바람에 밀려 막을 내렸다.

제3공화국이래 각 정당의 무·진·장 지구당은 모두 무주 밖에서 주도되어 결성되었으나, 한국국민당 지구당은 처음으로 무주군을 모체로 하여 탄생되었다. 1984년 2월 정치규제자 2차 해금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하게 된 김광수(金光洙)에 의하여 1985년 2월 12일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구당이 창당된 것이다.

김광수는 무주군 무풍면 출신으로 대한교과서 사장으로 있으면서 1965년부터 무주지역에 지역개발협의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여 왔다. 이 조직을 바탕으로 꾸준히 지지세를 넓혀 간 결과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이어서 제10대에는 공화당 공천자 및 지구당 위원장으로 재선에 성공하였다.

국민당 무진장지구당은 이처럼 지역에 뿌리가 튼튼한 김광수에 의하여 1985년 1월 10일 장수에서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그의 기간 사조직과 공화당원 일부가 합류했다. 김광수는 1985년 2월 12일 실시 된 제12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되어 국민당 부총재로 추대되어 당의 중진을 지냈으나 제12대 대통령 선거 때 민정당에 입당함으로써 1987년 11월 19일 한국국민당 무진장 지구당도 자연 소멸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국민당 무진장 지구당 위원장인 김광수는 동부위원장에 김진석(金鎭錫)·신재섭(申載燮)·김준희(金駿熙)·박일용(朴一用)을 선임하였으며, 3군을 통할하는 사무장에는 김성기(金聖基)를 임명하였다. 무주군의 각 면 지도장은 다음과 같다.

무주읍(갑) : 김종수(金鍾洙)·(을)박영철(朴永哲), 무풍면 : 남경희(南京熙)

설천면 : 강호기(姜鎬麒), 안성면 : 신재섭(申載燮)·강호중(姜浩中)

적상면 : 황태경(黃太慶), 부남면 : 김호일(金鎬日)

4. 신한민주당(新韓民主黨)

신한민주당(신민당)은 신군부에 의하여 1980년 정치규제에 묶여있던 구(舊)신민당 인사들이 해금과 함께 1985년 1월 18일 창당하여 야당의 정통성을 계승한 당으로, 동년 2월 12일 제1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키며 제1야당이 되었다.

신민당의 모체는 민주화추진협의회(民主化推進協議會·이하 민추협)이다. 민추협은 광주항쟁 3주년이 되는 1984년 5월, 야당세력의 양대 진영인 김대중과 김영삼의 8·15공동선언 발표를 계기로 양 진영이 힘을 합해 조직하였다. 거기에 과거 공화당 출신인 김창권(金昌權)·박찬종(朴燦鍾)·김수(金守) 등도 합류하여 정치권의 민주화운동 그룹으로 나갔다.

그 해 12월 11일 민추협은 고문 김대중, 공동의장 김영삼과 공동의장 대행 김상현의 공동명의로 신당지원과 신당을 통한 선거투쟁을 선언하였다. 그 결과 1985년 1월 18일, 서울에서 신한민주당의 창당대회가 개최되었다. 총재는 이민우가 선출되었다. 이민우 총재는 김대중과 김영삼의 대리인 성격이 강하였다.

신민당은 2월 12일 선거에서 양김의 위력을 발휘하며 67석을 획득하여 민한당 35석을 누르고 제1야당이 되었다. 2·12총선 이후 제1야당으로 부상한 신민당은 재야정치세력과 함께 개헌투쟁을 전개하였고, 여기에 학생과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층민과 대학교수, 종교인 등과 문화예술인들까지 저항의 깃발에 가세하였다.

신민당은 1986년 3월 11일, '개헌추진위원회 서울지부 결성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도시에 개헌현판식을 추진하였으며, 3월에는 재야와 함께 개헌투쟁에 공동보조를 약속하였다. 연이은 개헌현판식을 통해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던 신민당은 5월 3일로 예정했던 인천대회가 무산되자 제도권 내에서 집권세력과 타협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6월 24일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신민당의 직선제개헌안과 민정당의 의원내

각제가 팽팽하게 대립하였다.

그런데, 1986년 12월 신한민주당이 민정당의 의원내각제를 수용한다는 이른바 '이민우 구상'이 터졌다. 양김은 이민우 총재를 사퇴시키려 했으나 잘되지 않자 신당창당을 구상하게 된다.

결국 신민당은 김영삼이 1987년 4월 8일 통일민주당 창당을 선언하고, 5월 1일 소속의원 74명과 함께 당을 출범시키자 당세가 약화되었고, 이민우의 정계은퇴와 함께 붕괴되었다. 신한민주당 전북 제4지구당 위원장인 이상옥(李相玉)은 무주군 연락소장에 김세웅(金世雄)을 선임하고 당세 확장을 꾀하였으나 1987년 6월 16일 자진 해산하였다.

5. 통일민주당(統一民主黨)

민정당의 의원내각제와 신민당의 직선제 개헌안논쟁이 한창일 때, 신민당의 총재 이민우가 의원내각제를 수용한다는 소위 '이민우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에 당권을 위임했던 실권자인 김대중과 김영삼은 1987년 4월 8일 신당창당을 선언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신한민주당 탈당 의원과 동조자 등 78명을 발기인으로 5월 1일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였다. 통일민주당은 김영삼을 총재로 선출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문민정치 구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강정책을 채택하였다. 또한 당시 전두환 정권이 선언한 '4·13호헌조치'에 대한 거부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표명하였다.

전두환 정권의 노골적인 장기집권 음모를 위한 '4·13 호헌조치'는 발표되자마자, 각계의 반박성명서와 시국성명서가 줄을 이었다. 또한 4·13호헌조치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맞물리면서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그 해 5월, 박종철 고문치사 조작사건 폭로는 전국민적인 항쟁에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민주세력의 연대가 급진전을 보게 되었으며, 5월 27일에는 향린교회에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民主憲法爭取國民運動本部·국민운동본부)'가 발족되었다.

국민운동본부에는 학생운동가와 종교단체 및 민통련 등 재야단체와 노동계 그리고 통일민주당 등 각계각층의 민주세력이 참가하였다. 개헌투쟁을 위한 국민대회를 거행하기로 한 국민운동본부는 6월 26일 통일민주당과 대회를 공동집행 함으로써, 전국에서 150만 명이 참여하는 '6월 항쟁'의 국민적 함성을 이끌어 냈으며, 결국 민정당 노태우 후보의 '6·29항복 선언'을 받아냈다.

그 후 통일민주당은 제13대 대통령 선거 후보지명을 둘러싼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로, 결국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평화민주당이 창당되면서 분당사태를 겪게 되었다. 통일민주당은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후에는 제2야당으로 전락하였으며, 1990년 2월 15일 민정당, 신민주공화당과 함께 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민주자유당으로 3당 합당하여 자진 해체되었다.

6. 평화민주당(平和民主黨)

1987년 '6·29선언'으로 7년간 박탈당했던 공민권을 회복한 김대중은 통일민주당에 입당하는 등 정치활동을 재개하였다.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후보의 단일화를 두고 김영삼과 경쟁관계에 있던 김대중은 1987년 10월 28일 대통령 출마선언과 함께 신당창당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한 22명의 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 같은 해 11월 12일 평화민주당의 창당대회를 열고 총재 및 대통령 후보로 김대중을 추대하였다.

그러나 평민당은 1987년 12월 16일 16년 만에 국민의 직접선거로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그 후 통일민주당과 평민당은 야권분열과 선거패배의 후유증에 시달리며 당 내외의 여론이 악화되자, 김영삼과 김대중은 2월 8일과 3월 17일 각각 총재직을 사퇴하였다.

하지만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민당은 서울과 전라도를 기반으로 54석의 의석을 확보하여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통일민주당은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46석, 공화당은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27석을 확보하여 전형적인 지역선거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 때 민정당은 87석을 얻어 이른바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국이 전개되어 여당인 민정당의 일방독주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1990년 1월 3당 합당 이후 평민당은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이듬해 1991년 재야세력의 일부를 포괄하여 신민주연합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그리고 9월 10일 민주당과 합당하여 정통 야당인 민주당으로 거듭 태어났다.

평화민주당 전북 제4지구당(무주·진안·장수)위원장인 이상옥은 1987년 11월 28일 무주군 연락소장에 김세웅을 선임하고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하여 무주군의 조직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1988년 4월 14일 연락소장을 이육선(李六善)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991년 1월 9일에는 그 해 3월 26일과 6월 20일 각각 실시되는 시·군 의원과 시·도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1992년 3월 24일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채비를 위해 지역 내 지지세력이 많은 김세웅으로 다시 연락소장을 변경하고 선거에 대비하였다. 무주군 연락소장 김세웅은 6월 20일 실시된 전라북도 도의원 선거에 신민주연합당(신민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하여 민자당의 김인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평화민주당 전북 제4지구당(무주·진안·장수) 무주군 연락소는 1991년 4월 15일 신민주 연합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1991년 9월 10일 민주당과의 합당으로 9월 16일 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말소등록 되었다.

7. 신민주공화당(新民主共和黨)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정치활동이 규제되었다가 해금된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유신정권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민족중흥동지회'를 결성하였는데, 1987년 회칙을 개정하고 당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 해 10월에 있은 창당대회 겸 대통령 후보지명대회에서 김종필이 당 총재 및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신민주공화당은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였으나,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35 석을 획득하여 제3야당이 되었으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쥐게 되었다. 그런데, 1990년 1월 22일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의 3당 합당으로 자동해체 되었다.

신민주공화당 전북 제4지구당(무주·진안·장수)은 최규홍(崔圭弘)이 위원장에 임명되어 1988년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법정지구당의 요식 행위만을 마친 상태였으며, 무주에서의 활동은 극히 미미하였다.

8.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

1988년 4월 제1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되자 민정당은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이에 민정당은 여소야대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보수연합구도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국민의 의사와 배치되는 정계개편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0년 1월 민정당의 노태우 대통령,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총재가 3당 합당을 선언함으로써 거대 보수 여당인 민주자유당(이하 민자당)이 탄생

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민자당은 국회에서 개헌선인 2/3를 넘는 218석을 확보하고, 지역에 기반한 4당 구조를 보수 대 혁신의 양당구조로 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 독주와 전횡이 시작되었고, 한 지붕 세 가족의 권력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그 와중에 여야 합의에 의하여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선거가 이루어지고, 6월 20일 광역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그러나 민자당은 계파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공천 및 당직배분으로 당내갈등이 지속되고, 인위적인 정계개편에 대한 국민의 비판으로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299석 중 149석을 얻는데 그쳐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였다.

그 해 5월 19일 민자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김영삼은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그렇지만 민자당은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박해했던 군사쿠데타 세력과 대권을 전제로 야합, 실질적으로는 5·6공화국 군사정권의 연장에서 출발하였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민자당의 태생적 한계는 민정계·민주계·공화계 3계파간의 갈등을 증폭시켰고, 전·현직 국회의장을 역임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민정계 일부의 탈당과 민주계의 배척을 받은 김종필의 탈당, 그리고 지방선거의 참패와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가 구속되면서 1996년 2월 7일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칭하였다.

한편 민주자유당 무주·진안·장수지구당 위원장에는 무주 출신인 황인성 전의원이 임명 되었고, 황인성 위원장은 민정당 시절의 무주군 연락소 조직을 대부분 유지하여 초기 연락소장에 조한준(趙漢俊)을 유임하였으나, 1991년 2월 4일자로 강호기(姜鎬驥)를 임명하여 조직을 정비하였다.

1992년 3월 24일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월 20일 권영준(權永俊)으로 연락소장을 개편하여 등록하고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황인성은 제14대 총선에서 민자당 간판으로 당선된 남원지역의 양창식과 함께 전북지역에서 승리하여 여의도에 입성하였다.

9. 민주당(民主黨)

1990년 민정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의 합당이 전격 발표되자, 이에 반발하여 통일민주당에 잔류를 선언한 8명의 의원들이 모여 2월 27일 정당결성을 위한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6월 15일 창당대회를 열고 이기택 창당준비위원장을 총재로

선출했다.

그러나 1991년 6월 시·도 지방의회 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하고 미니정당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야권 단일화를 모색하여 신민주연합당과 그 해 9월 16일 민주당으로 신설 합당 되었다.

민주당은 1992년 3월에 치루어 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97석을 얻어 제1야당이 되었다. 그리고 동년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선거 김대중 후보가 출마하였으나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에게 패하여 낙선하였다. 대선 패배 후 김대중 총재가 정계은퇴를 선언하여 이듬해 이기택이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그 후 김대중의 동교동계와 이기택 대표간의 갈등이 계속되었다. 주류와 비주류간의 당권경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김대중의 정계 복귀설과 맞물려 증폭되었다. 결국 정계복귀를 선언한 김대중이 자신의 계파를 이끌고 탈당, 민주당은 원내 제2야당으로 전락하였다.

그 후 민주당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재야 중심의 개혁신당과 합당, 통합민주당으로 당 명을 개칭하였다.

한편 민주당 무주군 연락소는 민주당의 신설합당과 함께 당시 전라북도 도의원으로 당선 되어 활발하게 활동하던 김세웅이 소장을 맡아 다음해에 치러질 제14대 총선과 대선 준비를 위한 조직확충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총선에 진안 출신의 오상현이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민자당으로 출마한 무주군 출신의 황인성 전의원에게 패하여 낙선하였다.

10. 통일국민당(統一國民黨)

통일국민당은 1992년 2월 10일 현대그룹의 신화를 창조한 정주영 명예회장이 중심이 되어 김동길(金東吉) 등과 함께 창당하였다. 통일국민당은 창당 1개월 여만인 3월 24일 실시 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24석과 전국구 7석을 포함하여 31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룩하며 원내 제3당으로 도약하였다.

하지만 그 해 12월 18일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주영 후보가 낙선하고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가 계속되자 당세는 크게 위축되었다. 1994년 7월 8일 박찬종(朴燦種)이 주도하는 신정치개혁당과 함께 신민당으로 신설합당 하였고, 1995년 자유민주연합과 합당

으로 소멸되었다. 한편 통일국민당 무주·진안·장수 위원장이 된 이상옥은 제13대 의원을 지냈으나, 민주당 공천이 무위로 돌아가자 통일국민당 공천으로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진장에서 출마하였는데, 결과는 낙선이었다.

그 후 12월 18일 대선을 위해 무주군 연락소를 설치하여 1992년 11월 2일 연락소장에 김원규(金元圭)를 선임하여 대선조직을 위해 활동하였으나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 이후 통일국민당 무주군 연락소는 중앙에서 신정치개혁당과 합당하여 신민당으로 바뀌자 1994년 7월 8일 신민당무주군 연락소로 등록하여 명맥을 유지하였고, 1995년 5월 31일 자유민주연합과 합당하자 다시 자유민주연합으로 등록하였다.

11. 민중당(民衆黨)

1980년대 후반 재야운동권에서는 기존의 장외투쟁과 병행하여 제도정치권 내부에서 기층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혁신정당을 건설하자는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80년 10월 '진보적 대중정당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야권통합에 대한 논의가 조정되지 않아 결국 독자적으로 민중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이들은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6공화국의 실정을 비판하고,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것을 약속하며 활발한 선거운동을 전개하였으나, 1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여 정당법에 따라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제5절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1. 새정치국민회의

새정치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1987년 11월 창당한 평화민주당의 구성원과 그 해 12월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후보에 대해 '비판적 지지'의 입장을 취했던 재야 지지세력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1995년 9월 5일 창당되었다.

즉,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패배를 계기로 정계를 은퇴했던 김대중이 1995년 7월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자신의 계파를 중심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 창당한 정당이다. 창당과 동시에 원내 의석 53석을 차지해 제1야당이 되었다.

정당의 이념은 대통령 직선제와 중소기업의 육성, 여성부 신설, 국가보안법의 민주질서보호법으로의 대체, 남북연합통일방안 등을 강령으로 삼고, 서민 대중을 위한 국민정당을 표방하면서, 보수 중산층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중도보수노선을 채택하였다.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과 후보단일화를 이룬 이른바 'DJP연합'에 힘입어 김대중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평적이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였고,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여당이 되었다. 그러나 집권이래 국민의 개혁욕구를 소화하는 데 실패하는 한편, 지역정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개혁정당'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한다는 차원에서 2000년 1월 2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정당 명칭을 바꾸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새정치국민회의의 무주·진안·장수지역의 조직책으로 선정된 기업인 출신 정세균(丁世均)은 1996년 1월 22일 무주군 연락소장에 김용강(金容康)을 등록하여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준비에 임하였다. 그리고 1996년 6·27지방선거에서 국민회의의 공천을 받은 군수 후보 김세웅과 도의원 후보인 김영기(무주·적상·부남)와 홍낙표(설천·무풍·안성)가 당선되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1996년 4월 11일, 정세균은 무진장 지역구에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상대 후보인 신한국당의 정장현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997년 3월 6일 무주군연락소장을 정용환(程龍煥)4)으로 새롭게 교체하여 제15대 대선 준비를 향한 조직확충에 나서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1998년 6·4 지방선거에서는 무주군수 후보에 홍낙표가 공천되었고, 도의원 후보로는 김홍기와 정용환이 선출되어 물갈이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군수 후보로 나선 홍낙표 후보가 무소속의 김세웅 후보에게 패하여 무소속이 당선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98년 8월 18일, 김혁태(金爀泰)를 연락소장으로 변경 등록하여 2000년 4·13총선에 대비하였다. 또한 정세균 위원장은 제15대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1996년 3월 19일 설천면과 안성면 그리고 무풍면에 연락소를 설치하고 연락소장에 강호규(姜浩奎)와 김준환(金俊

4) 정용환 연락소장은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 도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煥) 그리고 김원규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조직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각 읍면의 협의회장은 다음과 같다.

무주읍 : 이배형 갑 : 이배형 - - 백경태
을 : 윤경태·홍정섭 - 박남수 - 유송열
적상면 : 김대우 갑 : - 유지당
을(괴목리) - 박용배
부남면 : 구현수 - 최진만
설천면 : 강호규 갑 : - 장인팔 - 최재홍
을(구천동) - 이점수
무풍면 : 김원규 - 정춘화 - 윤해원
안성면 : 김준환 갑 : 김준환
을 : 박찬주

2. 신한국당(新韓國黨)

1990년 3당 합당으로 이루어진 민주자유당이 1995년 6·27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당내 민주계를 전면에 배치하고 대오를 정비하였다. 신한국 창조와 세계화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명분을 내걸고 1995년 12월 6일 당명을 개칭하고 출범한 것이 신한국당이다.

그 후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은 139석을 확보하였다. 과반의석 확보에는 실패하였지만 서울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승리한 전례를 남겼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총선 승리 이후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면서 문민정부 초기의 개혁은 소리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신한국당은 무소속을 흡수해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만들었고, 이를 무기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신한국당은 기습적인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 사건으로 야당은 국회농성에 들어갔고, 민주노총은 다음 날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날개 없는 추락의 과정에 접어들고 있었다.

또한 한보사건과 김현철 사건 등 이권과 뇌물 그리고 국정개입으로 인한 온갖 비리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정권재창출이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1997년 11월 21일 외환위기로 결정

적인 국가적 위기를 가져왔고, 온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IMF를 맞고 말았다.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신한국당은 이회창(李會昌)과 반(反)이회창 구도가 성립되었으나 당내 경선을 통해 이회창이 후보로 확정되었다. 이 때 경선에 출마했던 이인제가 탈당하여 대선에 출마를 함으로써 이회창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 후 신한국당은 1997년 11월 20일 민주당과 함께 한나라당으로 신설합당 하였고,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이회창 후보가 출마하였다. 그러나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 등이 부각되어 패배하였다.
한편 제15대 총선을 앞두고 신한국당 무주·진안·장수지구당의 위원장이 된 정장현은 기존의 민자당 조직을 유임시키는 한편 총선 후인 1997년 연락소장을 강석기(姜錫起)로 교체하였다. 또한 1996년 4월 8일 설천면과 부남면에 따로 연락소를 설치하여 연락소장에 김용국(金容國)과 김호일(金鎬日)을 임명하여 총선을 준비하였다.

3. 자유민주연합(自由民主聯合)

민자당내의 민주계를 중심으로 한 여권(與圈) 핵심부가 공화계(共和系)의 김종필 대표의 2선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을 1994년 말부터 본격화하자, 김종필은 1995년 2월 공화계의 동조세력을 이끌고 탈당하여 3월 30일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을 창당하였다.
동년 5월 31일 김복동(金復東) 대표체제하의 군소정당인 신민당(新民黨)과 합당하여 기존의 지지기반인 충청권(忠淸圈)에 대구·경북 지역을 추가하였다.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을 휩쓸고 강원도에서 도지사를 당선시켜 교두보(橋頭堡)를 확보하였으나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자민련은 민주자유당 내에서 동요하고 있던 민정계(民正系) 의원에 대한 영입공작(迎入工作)을 전개하고, 보수주의를 표방하며 중산층을 위주로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둔 10월 26일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는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
양당은 11월 3일 '야권후보단일화 합의문 서명식'을 갖고 김대중 총재를 단일후보로 추대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1월 4일 박태준 전 포철회장도 야권단일화에 동참하며 자민련에 입당하여 총재로 선출되었다. 이렇게 해서 김대중·김종필·박태준의 DJP연합이 이루어졌고, DJP연합은 1997년 12월 18일 대선에서 승리하여 공동정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당이

되었다. 자민련 무주연락소는 박찬종과 김동길이 창당한 신민당의 무주군연락소장으로 1994년 7월 8일 등록된 김원규(金元圭)가 1995년 5월 31일 신민당과 자유민주연합으로 신설합당과 동시에 연락소장으로 등록되었다.

4. 국민신당(國民新黨)

민자당 소속으로 1995년 6·27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인제가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도지사를 사퇴하고, 지지세력을 이끌고 신한국당을 탈당하여 창당한 정당이다.

이인제는 9월 13일 경기지사를 사퇴하고 9월 18일 신한국당 탈당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그리고 10월 14일 대구에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뒤 11월 5일 이만섭을 총재로, 장을병을 최고위원으로 하는 국민신당을 창당하고, 이인제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였다.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인제는 젊음과 참신성을 홍보하며 바람을 기대하였으나 패배하였고, 국민신당은 1998년 9월 24일 자진해산 하였다.

5. 새천년민주당

2000년 1월 20일, 기존의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를 확대 개편해 창당하여 1월 24일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정당으로, 2002년 현재 한국의 여당이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를 3대 이념으로,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개혁을 4대 개혁으로, 전면적 개혁의 완성과 지식정보화 촉진, 생산적 복지의 정착, 국민 대화합 실현, 남북 화해 협력, 민족 상생 구현을 5대 목표로 삼고 있다.

새천년민주당은 2002년 말에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후보 선출을 국민경선으로 실시하여 '주말정치 드라마'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낼 정도로 인기를 얻으며, 노무현을 후보로 선출하였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의 뇌물수수사건 및 각종 게이트로 얼룩진 '게이트정국'은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에게 참패를 안겨주었다. 또한 당내의 대선후보 교체요구 및 신당창당 등 내분에 휩싸여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편 새천년민주당 무주·진안·장수지구당 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무주군연락소의 조직을 유지하여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재선에 성공하였다.

정세균 의원은 원내수석부총무와 노사정위상무위원장 그리고 제2정조위원장을 지내는 등 두드러진 원내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정세균 의원은 2002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당내 경선에 참여하였으나 강현욱 후보에게 아쉽게 패배하였다. 또한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도의원 후보 2명이 모두 낙선하여 아픔을 더하기도 하였다.

초기 새천년민주당의 무주군연락소장에는 김혁태 새정치국민회의 연락소장을 유임하였으며, 2001년 2월 19일 김병조(金柄曹) 현 연락소장을 선임하였다. 또한 설천연락소와 안성연락소에는 강호규와 김준환을 2000년 1월 26일 각각 책임자로 등록 임명하였다. 각 읍면별 협의회장은 다음과 같다.

무주읍 : 이배형 갑 : 이배형 - - 백경태
을 : 윤경태·홍정섭 - 박남수 - 유송열
적상면 : 김대우 갑 : - 유지당
을(괴목리) - 박용배
부남면 : 구현수 - 최진만
설천면 : 강호규 갑 : - 장인팔 - 최재홍
을(구천동) - 이점수
무풍면 : 김원규 - 정춘화 - 윤해원
안성면 : 김준환 갑 : 김준환
을 : 박찬주

6. 한나라당

제15대 대선국면에 들어서자 군소 정당으로 입지가 좁아져 당의 존립이 위태롭던 민주당과 3김 청산과 정권재창출을 시도하던 신한국당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1997년 11월 21일 통합해 창립한 정당이다. 양당은 합당대회에서 당 명을 '한나라당'으로 정하고 대통령 후보에

이회창, 총재에 조순을 선출하고 24일 중앙선관위에 합당등록을 완료하였다. 이렇게 하여 제15대 대선전은 이회창과 김대중 그리고 이인제의 3자 구도가 정립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선전의 합종연횡은 DJP연합의 승리로 끝나고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패배하고 말았다.

이회창 후보는 와신상담하며 재기를 노리다 2002년 제16대 대선에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제15대 대선에 이어 다시 아들들의 병역문제가 제기되어 "兵風"을 둘러싼 여야간의 사활을 건 대치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무주군 연락소는 민주당과의 합당등록이 이루어진 1997년 11월 24일 강석기(姜錫起)를 소장으로 등록하고 대선 조직의 확충에 나섰다. 또한 같은 날 설천면 연락소와 부남면 연락소의 책임자를 김용국과 김호일 등 신한국당의 책임자들을 각각 유임하였다.

그 후 2000년 4월 13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직책에 임명된 이광국(李光國)은, 1999년 12월 8일 무주군 연락소장에 김기옥(金基玉)을 선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총선에 입후보하였으나 지역적 한계에 부딪치면서 낙선하였다.

7. 기타 정당

이밖에도 90년대 이후 많은 정당들이 창당과 소멸을 되풀이하였다. 총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를 앞두고 생성과 소멸을 거듭한 정당들을 살펴보면, 대한민주당·친민당·국민승리21·무당파전국연합·청년진보당 등이 있다. 또한 제16대 총선거가 실시된 2000년 4월 13일, 선거를 겨냥하여 김윤환 등이 민주국민당을 200년 3월 14일 창당하였으며, 무주군에서는 백완승이 민주국민당으로 출마하여 1천811표를 얻는데 그쳤다.

■ 참고문헌

<정당의 변천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2
<연합연감 97> 연합통신사. 1997
<새벽사의 현장-기자가 본 광복에서 제5공화국까지> 한국편집기자협회. 1982
<고쳐 쓴 한국현대사> 강만길. 창작과 비평사. 1994
<해방후 정치사 100장면> 김삼웅. 가람기획. 1994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 박현채. 소나무. 1992
<우리 역사이야기 3> 조성오. 돌베개. 1993

<한국 현대사 1·2> 한국역사연구회. 풀빛. 1991
<강좌 한국현대사> 역사학연구소. 풀빛. 1991
<한국 인물사> 신한국사연구회. 태을출판사. 1994
<한국 야당사> 이기택. 백산. 1984
<평역 백범일지> 도진술. 돌베개. 1997
<한국 현대민족운동연구> 서중석. 역사비평사. 1991
<한국전쟁의 기원> 브루스커밍스/김자동 역. 일월서각. 1997
<박정희 살해사건 비공개 진술 전녹음 최초정리 상·하> 김재홍. 동아일보사. 1994
<전환시대의 논리> 이영희. 창작과 비평사. 1999
<대한민국 50년사 1·2> 임영태. 들녘. 1998
<김대중 죽이기> 강준만. 개마고원. 1995
<야당 40년사> 이영석. 인간사. 1987
<한국정당정치변동> 최한수. 세명서관. 1999
<97 대선 완벽가이드 한국의 대통령선거> 월간조선. 1997
<한국정당정치론> 김민하. 교문사. 1978
<한국정치론> 김학준. 한길사. 1983
<현대선거론> 박승재. 법문사. 1977
<대한민국정당사 제2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1
<조선일보 1987. 12. 17자 13대 대선보도>
<조선일보 1992. 12. 18자 14대 대선보도>
<조선일보 1997. 12. 18자 15대 대선보도>
<익산시사> 익산시.
<남양주군지>. 남양주군.
그 외 조선일보. 동아일보. 월간조선. 역사비평 등

[집필 : 황일태]

제2장 선거와 투표

제1절 대통령·부통령선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된 이래 금년 말인 2002년 12월에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있기까지 우리의 헌법은 모두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가운데 대통령 선거문제로 인한 개정이 8번이나 된다. 즉, 헌법 제정을 포함하여 모두 10번의 헌법의 제정 및 개정 가운데 9번이 모두가 권력구조와 그에 따른 최고권력자의 선거에 관한 문제였다.

1차 개헌은 이승만이 국회의 간선으로는 대통령 선출이 불가능해지자 국민의 인기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개헌을 시도했고(1952. 7. 7 발췌개헌), 제2차 개헌도 권력의 연장을 위해 개정되었다(1954. 11. 29 사사오입개헌). 제3차 개헌은 4·19혁명으로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1960. 6. 15 민주당정권 출범), 제4차 개헌(1960. 11. 29 소급입법)과 제5차 개헌(1962. 12. 26 5·16군사쿠데타로 공화당정권 수립)은 내각책임제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바꾸었다.

제6차 개헌은 박정희의 집권연장을 위해(1969. 10. 27 3선개헌), 제7차 개헌은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1972. 12. 17 유신헌법)이며, 제8차 개헌은 전두환 등 신군부의 집권을 위한 대통령 간접선거(1980. 10. 27 7년 단임 5공 출범)로 개헌이 이루어졌다. 제9차 개헌은 군부독재정권의 '6·29 항복선언'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쟁취하고 여야합의로 개헌을 하였다.

이처럼 54년의 짧은 헌정사를 뒤돌아보면 권력구조를 두고 많은 진통을 겪어왔으며, 굴곡이 많은 정치과정의 변천사라 아니 할 수 없다. 다만 현재의 헌법이 1987년 6월 항쟁을 통한 온 국민의 민주의식을 통해 여야간 합의로 이루어졌다는데 큰 역사적 의의가 있다.

1. 제1대 대통령 선거와 제1·2대 부통령 선거

1) 초대 정·부통령 선거(1948. 7. 20 실시)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다. 한편 이에 앞서 동년 5월 10일 역사적인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5월 31일 개원하였고, 이어 6월 10일 국회법이 제정되고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어서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국회에서 7월 20일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한 간접선거를 실시하였다.

해방 후 3년간 온갖 진통을 겪은 후 마침내 단독이나마 남한만의 정부수립을 보게 되는 국민의 지대한 관심은, 보도매체가 흔하지 않은 당시에 군 소재지에 몇 대 안 되는 라디오가 있는 곳을 찾아다 닐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다.

대통령 후보로는 이승만과 김구·안재홍이 입후보하였는데 선거결과 이승만이 압도적인 표로 당선되었다. 부통령은 이시영과 김구·이귀수가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시영이 당선되었다.

<표 3-2-1> 초대 대통령 후보자별 득표상황

대통령 후보자	득표수	비 고
이승만(독촉성회)	180(當選)	재적 198명중 196명이 투표
김 구(한 독 당)	13	무효 1표(서재필 : 미국 국적), 기권 2표,
안재홍(국 민 당)	2	유효 195표(당선자 :이승만)

<표 3-2-2> 초대 부통령 후보자별 득표상황

부통령 후보자	득표수	비 고
이시영(李始榮)	113(當選)	
김 구(金 九)	65	
조만식(曺晩植)	10	재적 197명 중 197명이 투표 1차 투표에서 당선표수 미달하여 2차 투표 실시.
오세창(吳世昌)	5	유효 196표, 무효 1표(당선자 : 이시영)
장택상(張澤相)	3	
서상일(徐相日)	1	

2) 2대 부통령선거(1951. 5. 16 실시)

초대 부통령 이시영은 2대 국회가 들어선 1951년 5월 9일 이승만 정부의 독주와 권력전횡

에 항의하며 사임하였다. 이에 따라 5월 16일 국회는 이승만의 반대세력이던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의 김성수가 원내자유당의 이갑성과 3차까지 가는 접전 끝에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표 3-2-3> 제2대 부통령 후보자별 득표상황

부통령 후보자	1차 투표	2차 투표	3차 투표
김성수(金性洙)	66	68	
이갑성(李甲成)	53	65	
함태영(咸台永)	17	10	2차 투표에서 1위와 2위를 한 후보 사이에 결선투표가 이루어졌다. (당선자 : 김성수)
장택상(張澤相)	11	5	
지청천(池靑天)	2	2	
김창숙(金昌淑)	1	1	
무 표	1	0	

2. 제2대 대통령 선거와 제3대 부통령 선거(1952. 8. 5 실시)

제헌의회와 달리 1950년 5월 30일 선거가 실시되어 구성된 제2대 국회는 반(反)이승만계가 대거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간접선거를 통한 집권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승만측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 개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1951년 1월 부결되었고, 오히려 야당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그러자 이승만은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폭력배를 동원하여 직선제와 국회의 양원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을 일으키며 통과시킨 발췌개헌안이다.

1952년 8월 5일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원외자유당은 이승만과 이범석을 후보로 지명하였으나, 부통령 후보에 자유당 소속이 4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선거막바지에 이르러 이승만은 무소속의 함태영(咸泰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당의 총력동원과 함께 국무총리 장택상과 김태선 내무장관 등의 노골적인 관권개입에 힘입은 함태영이 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승만은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당시 무주군의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이승만이 1만8,195표를 얻어 유효투표수의 80.4%에 해당하는 득표를 하여 타 후보들을 압도하였다. 부통령 선거 역시 선거막바지에

무주경찰서 차일혁 서장 등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독려하는 등 함태영의 당선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표 3-2-4> 선거상황

구 분	전 국	전 북	무 주	비 고
유 권 자	8,259,428	854,424	24,583	
투 표 자	7,275,883	743,499	23,416	
유 효	7,020,684	710,202	22,631	
기 권	983,545	110,825	1,167	
무 효	255,199	33,297	785	
투 표 율	88%	87%	95%	

<표 3-2-5> 제2대 대통령 후보자별 득표상황

기 호	후보자성명	소 속	득 표 수			비 고
			전 국	전 북	무 주	
1	조 봉 암	무 소 속	796,504	109,490	1,710	
2	이 승 만	자 유 당	5,238,769	468,220	18,195	당선
3	이 시 영	무 소 속	764,715	96,271	1,907	
4	신 흥 우	무 소 속	219,696	36,221	819	
	계		7,020,684	710,202	22,631	

<표 3-2-6> 제3대 부통령 후보자별 득표상황

기 호	후보자성명	소 속	득 표 율			비 고
			전 국	전 북	무 주	
1	이 윤 영	한 민 당	458,843	63,729	1,520	
2	함 태 영	무 소 속	2,944,822	190,246	11,946	당선
3	이 갑 성	자 유 당	500,972	48,554	1,365	
4	조 병 옥	민 국 당	505,260	67,731	968	
5	임 영 신	자 유 당	190,211	37,024	549	
6	백 성 욱	자 유 당	181,388	24,985	440	
7	정 기 원	자 유 당	164,907	21,500	420	
8	전 진 한	대 한 노 총	302,471	34,750	846	
9	이 범 석	자 유 당	1,815,691	235,637	4,879	
	계		7,133,247	724,156	22,933	

3. 제3대 대통령 선거와 제4대 부통령 선거(1956. 5. 15 실시)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과 함께 집권당이 된 자유당은 3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승만의 종신연임제(終身連任制)와 국민투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1954년 9월 6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11월 27일 표결에 부쳐졌는데, 의결정족수에 1명이 부족하여 부결선포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과 자유당은 4사5입(四捨五入)이라는 희한한 논리를 들어 11월 29일 여야간 난투 끝에 야당의원이 전원 퇴장한 후에 번복 가결하여 통과시켜 버렸다.

그 후 자유당은 1955년 3월 5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5월 15일에 있을 제3대 대통령 선거와 제4대 부통령 선거에 출마할 대통령 후보에 이승만, 부통령 후보에 이기붕(李起鵬)을 각각 지명하였다. 민주당도 3월 28일 전당대회에서 신익희와 장면을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자유당에 비해 민주당의 조직기반은 약했으나, 이승만 정권의 비민주적인 정치행태와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의 혐오는 더해 가고 있었다. 이에 민주당은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선거 슬로건을 내걸었고, 이에 반하여 자유당은 "갈아봤자 별수 없다. 구관이 명관이다"로 맞섰으며, 진보당의 조봉암은 "이것저것 다 보았다. 혁신정치밖에 살 길 없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다.

신익희의 한강백사장 유세에는 30만이라는 군중이 운집하여 정권교체에 대한 그 열기를 짐작케 하였으나, 호남유세를 가는 도중 신익희가 기차 안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바람에 이승만은 수월하게 당선되었다. 하지만 부통령은 자유당의 이기붕이 낙선하고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었다.

<표 3-2-7> 선거상황

구 분	전 국	전 북	무 주	비고
유 권 자	9,606,870	910,566	25,431	
투 표 자	9,067,063	875,210	25,098	
유 효	7,210,245	706,742	21,943	
기 권	539,807	35,356	333	
무 효	1,856,818	169,468	3,155	
투 표 율	94.4%	96.2%	98.7%	

<표 3-2-8> 제3대 대통령 후보자별 득표상황

기 호	후보자성명	소 속	득 표 수			비 고
			전 국	전 북	무 주	
1	조 봉 암	진 보 당	2,163,808	281,068	2,357	
2	신 익 희	민 주 당	-	-	-	사망
3	이 승 만	자 유 당	5,046,437	424,674	19,586	당선
	계		7,210,245	705,742	21,943	

<표 3-2-9> 제4대 부통령 후보자별 득표상황

기 호	후보자성명	소 속	득 표 수			비 고
			전 국	전 북	무 주	
1	장 면	민 주 당	4,012,654	428,410	5,494	당선
2	이 기 붕	자 유 당	3,805,502	338,283	17,453	
3	윤 치 영	국 민 당	241,278	25,430	703	
4	이 윤 영	조 민 당	34,926	2,738	58	
5	백 성 욱	무 소 속	230,555	15,596	433	
6	이 범 석	무 소 속	317,579	28,954	361	
	계		8,642,494	839,411	24,502	

4.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 (1960. 3. 15 실시 - 무효, 재선거 1960. 8. 12실시)

1960년 치루어진 4대 대통령 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부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3·15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진 국민주권에 대한 강도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자유당과 내무부가 투표에서 개표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전담하였는데, 투표함에 사전에 투표하기·3인조 9인조 집단투표·개표시 무효투표 조작 등이 이루어졌고, 이승만과 이기붕의 득표율이 95~99% 정도까지 나온 지역이 속출하였다. 하지만 너무 높은 득표율에 놀란 자유당은 투표율을 하향 조정하라는 지시를 내려 이승만이 88.7%인 963만3376표로, 부통령에는 이기붕이 유효표의 79%인 833만7059표로 당선되었다.

무주군에서는 민주당원 30여 명만을 남기고 모두가 압력에 의하여 탈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나마 몇 군데 있었던 투표구 참관인도 축출되고 오르지 자유당의 뜻대로 투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3·15부정선거에 대한 온 국민의 저항은 4·19 민중항쟁으로 점화되어 이승만의 하야와 함께 12년 자유당 장기집권과 독재권력은 무너졌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선거의 무효를 결의하고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해산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 5월 2일 허정 과도정부가 출범하였고, 7월 29일 총선이 실시되어 참의원과 민의원이 선출되었다.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1960년 8월 12일 최초의 양원 합동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민주당 소속의 윤보선이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어 19일에는 민의원에서 민주당의 장면이 국무총리로 선출되었다.

<표 3-2-10> 제4대 대통령 선거 재선거 결과

재적 263명(민의원 220·참의원 43) 중
재석 259명(민의원 219·참의원 40) 투표. 유효 253표·무효 6표

후보자별 득표수 (당선자 – 윤보선)	윤보선 208·김창숙 29·변영태 3·백낙준 3·허 정 2·김도연 2·김병로 1·박순천 1·라용균 1·이철승 1·유옥우 1·김시현 1, 무효 6

5. 제5대 대통령 선거(1963. 10. 15 실시)

4·19혁명이후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으나 대통령은 국가원수일 뿐 내각책임제이기 때문에 국정의 책임은 장면 내각에 있었다. 그러나 장면 내각을 탄생시켰던 민주당이 신·구파로 갈려 분당이 되고 신민당이 새로 생겨났으며, 오랜 억압통치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욕구가 분출되는 상황에서 박정희(朴正熙) 소장 등이 주도한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장면 내각은 8개월 여만에 물러나고 군사쿠데타 세력은 '정치활동정화법'을 공포하여 대다수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결성하여 1962년 11월 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동년 12월 17일 최초의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시켰으며, 12월 26일 공포하였다. 1963년 1월 16일에는

국회의원 선거법이 제정·공포되고 같은 해 2월 1일에는 대통령 선거법이 제정·공포 되었다.

1963년 10월 15일 실시 된 제5대 대통령 선거에는 이미 민정이양 발표 전에 사전조직을 끝낸 민주공화당의 박정희와 민정당의 윤보선, 국민회의당의 허정, 자유민주당의 송요찬(宋堯讚), 추풍회의 오재영(吳在泳), 정민회의 변영태(卞榮泰), 신흥당의 장이석(張履奭) 등 7명이 입후보하였다. 그러나 선거도중 송요찬과 허정이 사퇴하였다.

선거결과는 박정희와 윤보선이 경합을 벌여 박정희가 윤보선을 15만여표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으나, 이는 순수한 민정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충남·북과 강원지역에서는 윤보선이 우세를 보였다.

무주군에서는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처음으로(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야당지지표가 나왔다.

<표 3-2-11> 선거상황

구 분	전 국	전 북	무 주	비고
유 권 자	12,985,015	1,076,248	32,172	
투 표 자	11,036,175	926,028	29,357	
유 효	10,081,198	826,473	25,566	
기 권	1,948,840	150,220	2,815	
무 효	954,977	99,555	3,791	
투 표 율	85%	86%	91.3%	

<표 3-2-12> 제5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기 호	후보자성명	소 속	득 표 수			비 고
			전 국	전 북	무 주	
1	장이석	신흥당	198,837	18,223	832	
2	송요찬	자민당	-	-	-	사퇴
3	박정희	공화당	4,702,640	408,556	13,493	당선
4	오재영	추풍당	408,664	37,906	3,020	
5	윤보선	민정당	4,546,614	343,171	9,020	

기 호	후보자성명	소 속	득표수			비 고
			전 국	전 북	무 주	
6	허 정	국민의당	-	-	-	사퇴
7	변영태	정민회	224,443	18,617	675	
	계		10,081,198	826,473	25,566	

*자료 : 1990년 발행 ≪무주군지≫ 401쪽

6. 제6대 대통령 선거(1967. 5. 3 실시)

1963년 말, 박정희 대통령 취임 후 제6대 국회가 열리면서 제3공화국이 출범하였으나, 한일회담을 둘러싸고 격렬한 반대시위가 일어나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등 정국이 경색되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여당에 대항하기 위해 야당통합 논의가 일어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민주당으로, 민정당과 자민당이 민정당으로 합당한데 이어 다시 양당이 합당하여 민중당을 창당하였다. 그 후 신한당의 분당이 있었으나, 제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후보 단일화를 위해 정계원로들이 모여 신민당을 출범시켰다.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로 윤보선이 선출되어 제5대에 이어 제6대에서도 박정희와 한판 승부를 벌였으나, 오히려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 선거 때보다 100여만표 이상을 더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서울·경기·충남·전남·전북에서는 윤보선이 앞선 반면, 경남·북에서 박정희에게 몰표를 주어 이후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박정희는 유효투표 총수의 51.4%인 568만8666표를 얻어 40.9%인 452만6541표를 차지한 윤보선을 116만2125표 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표 3-2-13> 선거상황

구 분	전 국	전 북	무 주	비고
유 권 자	13,935,093	1,126,393	37,773	
투 표 자	11,645,215	987,042	32,039	
유 효	11,058,721	926,388	29,924	
기 권	2,289,878	139,351	1,734	
무 효	586,494	60,654	2,118	
투 표 율	83.6%	87.6%	94.4%	

<표 3-2-14> 제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기 호	후보자성명	소 속	득 표 수			비 고
			전 국	전 북	무 주	
1	이 세 진	신 흥 당	98,433	8,325	364	
2	전 진 한	한국독립당	232,179	28,943	1,001	
3	윤 보 선	신 민 당	4,526,541	451,601	12,495	
4	서 민 호	대 중 당	-	-	-	사퇴
5	김 준 연	민 중 당	248,369	23,945	984	
6	박 정 희	민주공화당	5,688,666	392,037	14,154	당선
7	오 재 영	통 한 당	264,533	21,527	913	
	계		11,058,721	926,388	29,926	

7. 제7대 대통령 선거(1971. 4. 27 실시)

1969년 초부터 공화당은 자유당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한 헌법을 개정하여 3선 연임을 가능케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한 진행이 구체화 되자 야당의 반대 투쟁도 격렬해졌으나 9월 14일 새벽(일요일) 2시에 국회별관에서 25분만에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장기집권의 길을 텄다.

신민당은 3선 개헌에 항의하여 6개월간 국회 등원을 거부하기도 하였으나,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40대 기수론을 주창하며 김영삼·김대중·이철승 등 젊은 정치인들이 후보경선전에 뛰어들었다.

신민당은 대통령 후보지명대회를 열어 2차례에 걸친 투표를 통해 김대중을 후보로 선출하였다. 공화당도 선거를 한 달 앞둔 전당대회에서 예정대로 박정희를 지명하였다.

1971년 4월 27일 실시 된 대통령선거는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신민당의 김대중과 경제발전을 성과로 내세운 박정희의 2파전 양상을 보였으나, 박정희의 승리로 돌아갔다. 김대중은 서울과 호남에서 득표율이 높았으며, 특히 전북에서는 61%의 득표력을 보여 주목을 끌었으나 무주와 진안은 열세에 있었다.

<표 3-2-15> 선거상황

구 분	전 국	전 북	무 주	비고
유 권 자	15,522,236	1,139,066	31,881	
투 표 자	12,417,824	911,214	28,047	
유 효	11,923,218	870,344	26,072	
기 권	3,134,412	227,852	3,834	
무 효	494,606	40,870	1,975	
투 표 율	79.8%	80%	88%	

<표 3-2-16> 제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기 호	후보자성명	소 속	득 표 수			비 고
			전 국	전 북	무 주	
1	박 정 희	민주공화당	6,342,828	308,850	15,502	당선
2	김 대 중	신 민 당	5,395,900	535,519	9,949	
3	박 기 출	국 민 당	43,753	3,167	116	
4	함 보 경	민 중 당	-	-	-	사퇴
5	이 종 윤	자 민 당	17,823	1,646	52	
6	진 복 기	정 의 당	122,914	21,162	453	
7	김 철	통 사 당	-	-	-	사퇴
	계		11,923,218	870,344	26,072	

8. 제8대 대통령 선거(1972. 12. 23 실시)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0월유신'을 단행하였다. 유신 선포로 인해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은 중지되었으며 헌법의 일부기능이 정지되고, 그 기능을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도록 하는 비상조치였다.

비상국무회의는 유신헌법 안을 작성하여 11월 21일 국민투표의 형식을 밟아 확정 공포하였다.

유신헌법의 주요 골자는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를 설치하고,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선출하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국회해산권(國會解散權)과 긴급조치권(緊扱

措置權) 등의 절대권한을 갖는 것이었다. 통대회의에서 선출되는 대통령 선거는 미리 정해진 단일후보에 기표하는 행사에 불과하여 '체육관선거'로 전락하였고, 이로써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하여 실시된 1972년 12월 23일의 제8대 대통령 선거는 재적 2,359명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충체육관에서 실시되었다. 무효 2표를 제외한 전원이 박정희에게 기표하여 유신시대를 여는 체육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박정희는 1972년 12월 27일 임기 6년의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9. 제9대 대통령 선거(1978. 7. 6 실시)

유신체제에 들어선 후 야당을 비롯한 재야세력과 학생들의 유신반대투쟁이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박정희는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통제를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하였다.

또한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신임투표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도 하여 6년간의 유신 1기를 마치고 2기에 들어서 다시 1978년 7월 6일 체육관 선거로 제9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투표에 참석한 2,549명(3명 불참) 중 무효 1표를 제외한 전원이 박정희 후보를 찬성하였다.

10. 제10대 대통령 선거(1979. 12. 6 실시)

1978년 12월 27일 박정희가 취임하여 유신2기가 시작되었으나, 다음 해에 신민당 총재에 김영삼이 등장하면서 개헌투쟁이 국회까지 파급되었다. 이에 국회에서 김영삼 총재에 대한 의원직을 박탈 시켰는데, 이를 계기로 '부마항쟁'이 발생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정국이 혼미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 18년 반이나 끌어온 박정희의 철권통치가 막을 내렸다.

유신헌법에 의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규하 국무총리가 40일 만인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에 단일후보로 나와 선출되었다. 재적대의원 2,560명 중 11명이 불참, 2,549명이 투표하여 무효 84표를 제외한 2,465표를 얻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1. 제11대 대통령 선거(1980. 8. 27 실시)

1980년 봄을 세칭 '서울의 봄'이라 불렀다. 유신체제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지향하는 정가의 동향은 이를 봄으로 느끼기에 충분했으며, 오랜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나 민주시대의 도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는 자못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12·12하극상'으로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의 신군부(新軍部) 세력은 '5·17비상계엄'의 전국 확대와 함께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시키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이하 국보위)를 발족시켜 국정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결국 최규하 대통령은 신군부 세력의 압력에 밀려, 1980년 8월 16일 특별성명을 통해 대통령직 재임 8개월 만에 물러나고 말았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8월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재적대의원 2,535명 중 2,525명이 출석하여 전두환 후보를 선출하였으며, 9월 1일 전두환은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2. 제12대 대통령 선거(1981. 2. 25 실시)

1980년 9월 29일 전두환은 임시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개정안을 발의 공고하고 10월 22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 시켰다. 이어서 국보위는 대통령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이 선거법의 골자는, 유신헌법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던 것을 대통령선거인단(大統領選擧人團)이 선출하도록 바꾼 것이다. 먼저 각 선거구에서 정당명을 표시한 선거인을 뽑고 이들이 당에 집합하여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선출키로 하였는데, 내용 면에서 보면 통대에서의 선출방식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것이었다.

제12대 대통령 선거에 정당의 추천을 거쳐 입후보한 후보는 국보위가 주동이 되어 창당한 민주정의당의 전두환 이외에, 급조된 민주한국당의 유치송(柳致松), 국민당의 김종철(金鍾哲), 민권당의 김의택(金義澤) 등이 등록하였다.

1981년 2월 25일 선거결과는 선거인단 5,271명 중 민정당의 전두환이 90.2%인 4,755표라는 압도적인 표로 당선되었다. 전두환은 1981년 3월 3일 임기 7년 단임제(單任制)의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무주군의 선거인수는 12명이었으며, 민정당 11명과 무소속 1명으로 전원 투표에 참가하였다.

13. 제13대 대통령 선거(1987. 12. 16 실시)

제5공화국은 '12·12군부쿠데타'와 '5·18광주학살'을 통해 정권을 창출하였다. 그들은 정권유지를 위해 민주화세력에 대한 온갖 탄압과 억압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1987년 6월 온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정권의 '6·29항복선언'을 받아냈다.

이러한 민주화 세력의 투쟁 결실로 12대 국회말기에 개헌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고, 마침내 1987년 10월 27일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1987년 12월 16일 실시 된 제13대 대통령 선거에는 신군부 세력의 상속자인 민정당의 노태우(盧泰愚)와 후보단일화에 실패하고 각기 출마한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그리고 지지파를 이끌고 나가 평화민주당을 창당하여 출마한 김대중, 60년대와 70년대 보수세력의 대변자인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등과 무소속의 백기완(白基玩), 한주의통일한국당의 신정일(申正一), 일체민주당의 김선적(金善積) 그리고 사회민주당의 홍숙자(洪淑子) 등이 입후보하였다. 하지만 사회민주당의 홍숙자는 등록무효가 되었고, 백기완과 김선적은 도중에 사퇴하였다.

당시 노태우 후보는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를, 민주당의 김영삼은 '민주화냐 군정이냐'라는 슬로건으로, 그리고 김대중은 '국민화해와 정의 경제'에 역점을 두고 농가부채탕감 등을 주장하였다. 공화당의 김종필은 '국민과 함께 추구해야할 5대 약속'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준 것은 양 김씨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실패와 지역감정 조성이었다.

선거결과 노태우 후보가 828만3,000표를 얻어 36.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김대중과 김영삼의 득표율을 합하면 노태우보다 410만 여표를 상회하였다. 결국 양김씨의 단일화 실패가 정권교체의 호기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다. 또한 제13대 대선에서는 후보들의 출신지별로 지지의 편중현상이 심화되었다.

역대 선거에서 여(輿)촌의 표본으로까지 알려졌던 무주군에서도 평민당의 조직이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여당을 제압하는 다수표가 쏟아져 나왔다.

<표 3-2-17> 선거상황

구 분	전 국	전 북	무 주	비고
유 권 자	25,873,624	1,298,522	26,894	
투 표 자	23,066,419	1,172,867	24,972	
유 효	22,603,411	1,136,975	23,914	
기 권	2,807,205	125,655	1,922	
무 효	463,008	35,892	1,058	
투 표 율	89.2%	90.3%	92%	

<표 3-2-18> 제13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기 호	후보자성명	소 속	득 표 수			비 고
			전 국	전 북	무 주	
1	노 태 우	민주정의당	8,282,738	160,760	8,091	당선
2	김 영 삼	통일민주당	6,337,581	17,130	978	
3	김 대 중	평화민주당	6,113,375	948,955	14,372	
4	김 종 필	신민주공화당	1,823,067	8,629	263	
5	신 정 일	한주의통일한국당	46,650	1,501	210	
계			22,603,411	1,136,975	23,914	

14. 제14대 대통령 선거(1992. 12. 18 실시)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1992년 12월 18일 실시되었다. 후보자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민주당의 김대중, 통일국민당의 정주영(鄭周永), 신정당의 박찬종(朴燦種), 대한정의당 이병호(李丙昊), 새한국당 이종찬(李種贊), 무소속의 김옥선(金玉仙)과 백기완(白基玩) 등 8명이었다.

양 김씨를 비롯한 정주영 등 유력 3당의 후보들은 정치생명의 사활을 걸고 선거에 임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9단인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현대신화를 이룩한 재력가인 정주영 등은 선거개시부터 치열한 싸움을 예고하고 있었다.

“안정속의 개혁”을 앞세운 김영삼과 “대화합의 정치”를 내세운 김대중, 그리고 경제대통

령을 부르짖는 정주영, 기성정치의 청산을 외치는 박찬종, 통일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백기완 등 저마다 각기 장래 비젼을 제시하며 선거에 돌입하였다.

새한국당의 이종찬이 중도에 후보를 사퇴하여 7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그러나 결과는 '부산 초원복국집 사건'으로 지역패권구도가 더욱 굳어지고 경남지역의 민심이 결집하여 김영삼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결국 김영삼은 유효투표의 42.0%에 해당하는 997만 7332표를 얻어 1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표 3-2-19> 선거상황

구 분	전 국	전 북	무 주	비고
유 권 자	29,422,658	1,321,778	23,523	
투 표 자	24,095,170	1,126,597	19,766	
유 효	23,775,399	1,112,350	19,394	
기 권	5,327,488	195,181	3,757	
무 효	319,771	14,247	372	
투 표 율	81.9%	85.2%	84.0%	

<표 3-2-20> 제14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기 호	후보자성명	소 속	득 표 수			비 고
			전 국	전 북	무 주	
1	김 영 삼	민주자유당	9,977,332	63,175	3,114	당선
2	김 대 중	민 주 당	8,041,284	991,483	14,931	
3	정 주 영	통일국민당	3,880,067	35,923	699	
4	박 찬 종	신 정 당	1,516,047	9,320	256	
5	이 병 호	대한정의당	35,739	1,087	39	
6	김 옥 선	무 소 속	86,292	7,130	257	
7	백 기 완	무 소 속	238,638	4,232	98	
	계		23,775,399	1,112,350	19,394	

15. 제15대 대통령 선거(1997. 12. 18 실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김대중 후보는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첫 대권도전에 이어 87년과 92년 대선에서 잇따라 실패한 뒤 네 번째 도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그의 승리는 정부수립 이후 50년만의 여야간 정권교체라는 점에서 정치사적 의미를 갖는다.

김대중 후보가 승리 할 수 있었던 요인은 DJP연합에 의한 경쟁력 있는 야권후보의 단일화로 색깔론과 북풍시비를 차단하였고, 여권의 분열에 의하여 당내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제 후보가 국민신당을 창당하여 표를 분산시켰으며,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면제 시비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 등권론을 내세우며 충청도와의 연합을 추진한 점이나 '준비 된 대통령의 이미지 창출' 등도 성공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무주군에서도 제15대 대선에서 다시 한번 김대중 후보에 대한 지지와 함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투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제14대 대선에서 1만4,931표를 얻었으나 제15대 대선에서는 1만6,200표를 득표하여 지난 제14대 때보다 2,000여표를 더 얻은 것으로 나타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과 김대중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3-2-21> 선거상황

구 분	전 국	전 북	무 주	비고
유 권 자	32,290,416	1,391,537	22,974	
투 표 자	26,042,633	1,190,190	19,328	
유 효	25,642,438	1,169,189	18,745	
기 권	6,247,783	201,347	3,646	
무 효	400,195	21,001	583	
투 표 율	80.7%	85.5%	84.1%	

<표 3-2-22> 제15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기 호	후보자성명	소 속	득 표 수			비 고
			전 국	전 북	무 주	
1	이회창	한나라당	9,935,718	53,114	1,262	
2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10,326,275	1,078,957	16,200	당선
3	이인제	국민신당	4,925,591	25,037	885	
4	권영길	국민승리21	306,026	4,189	48	
5	허경영	공화당	39,055	943	39	
6	김한식	바른나라정치연합	48,717	4,981	186	
7	신정일	통일한국당	61,056	1,968	125	
	계		25,642,438	1,169,189	18,745	

제2절 국회의원 선거

1. 제헌국회의원 선거

1) 초대의원 선거(1948. 5. 10 실시)

1948년 조국의 광복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미군정이 계속되어 독립정부 수립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커져 갔다. 그러던 1947년 9월 17일, UN총회에 한국의 독립문제가 상정되어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는 동시에 국회가 정부를 수립케 하기 위하여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북한지역에 선거가 불가능하게 되자 유엔은 다시 “가능한 지역내의 선거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위원단에 부여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은 1948년 5월 10일 이내에 가능지역인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제헌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당시 유권자총수는 813만2,517명으로 이중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거인명부에 자진 등록한 사람이 유권자의 96.4%에 해당하는 784만871명이었다. 입후보자는 48개의 정당사회단체에서 948명이 출마하였는데, 무소속이 417명으로 4.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 결과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 55명, 한국민주당 29명, 대동청년단 12명, 민족청년단 6명, 기타단체 13명, 무소속 85명이 당선되었다.

전라북도의 선거구는 22개로 무주군에는 유엔 한국위원단에서 위촉된 감시단으로 박정숙(朴貞淑) 일행이 파견되었다. 당시 선거에서 무주군민의 기대와 호응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면서 해방 후 우후죽순격으로 생긴 정당사회단체가 난립하는 중에서도 그 어떤 정파도 무주군에서는 뚜렷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을 정도로 정치관념에 사로잡힌 일이 없었다. 따라서 오직 독립국가의 대표로 고장의 일꾼을 뽑는다는 의지가 강하였다.

이에 따라 그 당시 선거는 혼란이나 부정 등에 관한 시비가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 무주에서 지남의원을 경영하던 신현돈(申鉉燉)을 비롯하여 김용학(金容鶴), 그리고 군수출신의 김종남(金鍾南) 등이 출마하여 신현돈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입후보자들의 소속 정당과 경력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23> 초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후보자성명	연령	경 력	소속	득표수	비고
신 현 돈	43	무주면 읍내리. 의사. 경성의학전문졸업	국민회	15,691	당선
김 용 학	61	안성면 사전리. 농업	한민당	5,636	
김 종 남	62	무주면 읍내리. 전 군수. 무직	한민당	2,582	

2) 초대의원 보궐선거(1949. 1. 13 실시)

제헌국회의원인 신현돈이 정부 수립 후 전라북도 초대 도지사로 임명되어 부임함에 따라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신현돈의 아성이던 무주군에 그가 사퇴하자 많은 입후보자가 나왔다. 특히, 당시 한민당의 거목인 함상훈이 당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아무 연고가 없는 무주군에 원정 출마하여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력한 후보자는 김용환(金用煥)과 김교중(金敎中)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가 신현돈의 중진 참모였는데 입후보과정에서 지지자가 양분되어 내분이 격화되었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출마하였다.

두 사람의 각축전은 치열했으며 이 때의 분열은 오랜 동안 후유증으로 남아 무주의 정치풍토를 양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표 3-2-24> 초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후보자성명	연령	경 력	소속	득표수	비고
김 교 중	38	무주면 읍내리. 전주고등보통학교. 농업		6,875	당선
김 용 환	37	무주면 현내리. 양조업.		5,282	
함 상 훈	60	서울 거주. 정당인	한민당	4,893	
박 상 식	44	무주면 읍내리. 여관업	한민당		사퇴
장 기 홍	49	서울. 적상면 출신.	무소속	2,411	
김 상 현	45	무주면 오산리. 농업	무소속	3,587	

2. 제2대 국회의원 선거(1950. 5. 30 실시)

제헌의원의 임기 2년이 완료되고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실시하였다. 의원의 정수는 210명이었는데, 입후보자는 2,209명으로 제헌의회보다 극심한 난립상을 보였다. 참가한 정당사회단체만 39개였고, 무소속 입후보자가 전체 입후보자의 68.5%가 되는 1,513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제헌의회 당시 불참했던 남북협상파와 중간계열 일부도 참가하였다.

전북은 2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299명이 입후보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13.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결과 무소속이 126명이나 당선되어 의원정수의 60%를 차지하였고, 대한국민당과 민국당이 각각 24명을 확보하였다.

무주군에서는 입후보자 6명 전부 무소속이었으나 제헌의원으로 지명도가 높은 신현돈과 지역구에 오랜 토착민으로 가장 많은 성씨를 가진 김씨 종친을 기반으로 한 김상현이 선두를 놓고 우열을 가리기 힘든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

선거결과 700여 표 차이로 김상현이 신현돈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표 3-2-25> 제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후보자성명	연령	경 력	소속	득표수	비고
김 상 현	45	무주면 오산리. 수원고등농교졸업. 농업	무소속	8,839	당선
신 현 돈	45	무주면 읍내리. 의사. 전북도지사. 의원	무소속	8,018	
김 교 중	38	무주면 읍내리. 국회의원	무소속	4,401	

후보자성명	연령	경 력	소속	득표수	비고
최 병 택	54	안성면 이목리	무소속	1,375	
박 상 식	46	무주면 읍내리. 여관업	무소속	929	

3. 제3대 국회의원 선거(1954. 5. 20 실시)

1952년 부산정치파동에 의한 발췌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7월 1일 공포된 개정헌법 안에 의하면, 국회구성은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참의원은 구성하지 못하고 제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1954년 5월 20일 제3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는 집권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국당의 양당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났으며, 지방조직에 대한 중앙당의 통제가 공천권의 행사로 더욱 강해졌으며 후보난립이 다소 줄어들었다.

선거구는 210개에서 휴전협정에 따른 휴전선 이북의 개성·개풍·장단·연백군 갑과 을, 옹진군 갑과 을 등의 7개 선거구가 제외된 203개였다. 선거전은 자유당과 민국당의 대결로 압축되었고, 양당은 무소속의 진출을 막고 정당정치 의 확립을 호소하였는데, 대부분의 입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치노선을 강조하였다. 선거결과 자유당 114석, 민국당 15석, 무소속 67석, 기타 7석으로 나타났으며 여촌야도(與村野都)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무주군의 자유당 공천 후보는 김상현이었고, 그에 필적할만한 후보는 국민회 소속의 김종대였다. 그런데 김상현은 자유당 무주군당의 책임자도 아닐 뿐 아니라 실세도 아니었는데 당내 형편상 그가 공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한편 김종대 역시 반(反)자유당계의 후원을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반(反)자유당인이 아니었다. 이는 당시에 큰 산맥을 이루고 있던 김교중과 김용환의 세력간 대립의 일면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어쨌든 선거 분위기는 과열상태에 빠졌고,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관권개입이 차츰 노골화 된 것도 이 때부터이다. 이 선거에서 재선된 김상현은 사사오입 개헌파동이 끝난 후 야당의 실세에 밀려서 설 자리를 잃고 자유당을 떠나야 할 처지가 되었고, 결국 민주당에 입당하게 되었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신청을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재선 임기 8년을 마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표 3-2-26> 제3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후보자성명	연령	경 력	소속	득표수	비고
김 상 현	49	무주면 오산리. 국회의원	자유당	12,266	당선
김 종 대	45	서울. 목사	국민회	8,426	
이 홍 의	47	서울. 상업	무소속	2,386	

4. 제4대 국회의원 선거(1958. 5. 2 실시)

제4대 국회의원 선거는 자유당과 단일 야당인 민주당의 양당 대결이었다. 한국정치사상 이러한 양당대결은 처음있는 일로 정당정치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 선거에 앞서 야당은 1957년 5월 22일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여당인 자유당도 9월 24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여야는 협상을 거듭하여 민의원선거법과 참의원선거법으로 분리하여 법안을 완성하였다.

모두 841명이 출마하여 평균 3.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선거결과는 자유당이 의원정수의 54.1%에 해당하는 126명의 절대 다수의석을 획득하였고, 민주당이 79명, 무소속이 27명을 차지하였다.

무주군에서는 자유당과 민주당에서 공천된 2명이 입후보하였다. 창당이래 조직을 확충해 온 자유당에 비해 민주당은 여러모로 열세를 면치 못했다. 전국적으로 여촌야도(與村野都)의 현상이 두드러졌고, 특히 무주군의 경우는 그 대표적인 경우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표 3-2-27> 제4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후보자성명	연령	경 력	소속	득표수	비고
김 진 원	41	무주면 읍내리. 명치대전문부졸. 무주군수.	자유당	16,322	당선
신 현 돈	54	무주면 읍내리. 의사. 전북도지사	민주당	8,475	

5. 제5대 국회의원 선거(1960. 7. 29 실시)

1960년 3월 15일에 있었던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전대미문의 부정을 감행하여 4·19혁명을 일어나게 하였고, 마침내 이승만이 대통령직을 하야하고

자유당 정권은 무너졌다. 3·15선거는 무효화되었고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채택한 헌법개정이 있은 다음 국회는 해산되고 제5대 민의원과 초대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1) 민의원 선거(民議院選擧)

제5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구는 233개였는데, 선거결과 자유당의 당선자는 2명뿐이었고, 민주당은 의원정수의 75.1%에 해당하는 175석을 확보했으며, 사회대중당 4명 그리고 한국사회당 1명, 기타 1명, 무소속 49명이었다. 이로써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였다.

무주군 역시 민주당의 신현돈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타 후보들을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표 3-2-28> 제5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후보자성명	연령	경 력	소속	득표수	비고
신 현 돈	56	무주면 읍내리. 의사. 국회의원	민주당	12,596	당선
김 종 대	50	서울. 목사	무소속	3,579	
김 진 원	43	무주면 읍내리. 국회의원	자유당	7,046	
김 용 재	26	안성면 사전리. 농업	무소속	3,696	

2) 초대 참의원 선거(初代參議院選擧)

참의원 정수는 58명이었는데, 201명이 입후보하여 3.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구는 서울특별시와 도 단위로 하고 한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2~8명으로 하는 대선거구제였다. 또한 임기 6년의 1부와 3년의 2부로 나뉘어 다 득표 순으로 결정하였다. 선거결과 민주당 31명, 자유당 4명, 사회대중당 1명, 한국사회당 1명, 기타 1명, 무소속 20명이 당선되었다.

전북선거구에서는 6명 정원에 18명이 출마하였고, 당선자는 1부에서 소선규(蘇宣奎)·강택수(姜澤秀)·송방용(宋邦鏞)·2부에서는 엄병학(嚴秉學)·양춘근(梁春根)·엄민영(嚴敏永)이었다. 무주군에서 다득표자는 무주군수를 지낸 엄민영이었다. 이 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9개 도에서 기호 1번이 전원 당선되어 정치의식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표 3-2-29> 초대참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후보자성명	연령	경 력	소속	득표수	비고
양 춘 근	36	전주시. 청주법대졸. 전북병사구사령관	무소속	163,181	2부당선
강 택 수	53	전주시 전동. 일본동양대졸. 전주사범교장	민주당	197,071	1부당선
유 수 복	53	전주시 다가동. 전주고보졸. 도의원	민주당	133,392	
엄 민 영	45	서울정릉.일본구주고대법과. 경희대법대학장	민주당	133,459	2부당선
이 승 목	56	군산조촌동.일본명대전문부졸.동양수리조합장	무소속	53,734	
민 정 식	61	서울 돈암동.조계전대학졸.민주당중앙상위장	민주당		사퇴
송 방 용	47	서울 청파동. 연전문과졸. 2,3대 국회의원	무소속	165,206	1부당선
신 규 식	53	서울 충정로.조계전대학졸. 3,4대 국회의원	무소속	93,573	
박 동 근	47	전주시 고사동.일본외국어상고졸. 도의원	무소속	53,740	
이 우 식	58	전주시 경원동.경성법전졸.전주지방법원장	무소속	91,748	
김 기 옥	45	군산시 신창동. 변호사	민주당	124,514	
이 요 한	61	전주시 풍남동. 불전2년졸.전북지사. 제헌의원	무소속	78,984	
엄 병 학	42	임실군 임실면. 전주고등졸. 2대국회의원	민주당	139,983	2부당선
노 긍 식	56	옥구군 서수면. 고대법대졸. 서울고공국장	무소속	46,668	
소 선 규	56	서울 능농동.일본복도고상졸. 민주당정책위장	민주당	264,695	1부당선
김 수 학	64	서울 돈암동. 경도제대졸. 2대국회의원	무소속	67,259	
김 봉 두	54	서울정릉동. 일본명대졸. 제헌국회의원	무소속	70,883	
김 대 용	47	전주시 경원동. 구주제대졸. 판사. 변호사	무소속		사퇴

6. 제6대 국회의원 선거(1963. 11. 26 실시)

1961년 군사쿠데타로 헌정이 중단되고 군정이 실시되었다. 군정은 민정이양을 위하여 대통령 책임제와 정당정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헌법 안을 마련하고,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 지었다. 이어서 정치활동금지를 해제하고 개정된 국회의원 선거법을 1963년 1월 13일 공포하였다.

개정선거법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역구와 전국구로 나눠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고, 후보자는 정당추천 없이는 입후보 자체를 금지하여 무소속 출마를 봉쇄하였다. 선거구는 종래의 233개에서 131개로 축소되었으며, 전국구 의석은 44개로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 각 당에 배분하도록 하였다.

무주군은 무주·진안·장수 3개 군이 합쳐져 전북 제6지구에 속하게 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5·16세력들이 미리부터 준비하여 창당한 민주공화당의 후보 이외에 5명의 후보가 출마 하였으나, 모두가 뒤늦게 급조된 정당들이어서 실제로 정당조직활동은 없는 것과 같았다. 따라서 공화당만이 독주하는 형세였고, 무주군의 유권자들 역시 군 단위에서 1명을 선출하던 전의 선거와는 달리 관심도가 떨어지고 적극성도 없는 편이었다. 또한 홍보를 핑계로 관변측의 활동이 활발했던 것은 불공정선거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선거결과 진안군 출신으로 고려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양묘협회장을 역임한 공화당의 전휴상(全烋相)이 당선되었다. 무주 출신의 김진원은 후보들 중 무주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하기도 하였으나 진안과 장수에서의 열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표 3-2-30> 제6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후보자성명	연령	직업	주소	소속	득표수		비고
전 휴 상 (全烋相)	29	국회의원	진안군 진안읍	민주공화당	무주 진안 장수 계	6,941 15,194 9,997 32,132	당선
김 봉 두 (金奉斗)	57	사회사업	장수 출신 서울 정능동	보수당	무주 진안 장수 계	444 845 1,027 10,076	
최 성 석 (崔成石)	31	농업	장수군 장수면	민주당	무주 진안 장수 계	1,558 3,427 5,091 10,076	
이 옥 동 (李玉童)	41	회사원	진안군 출신 서울 거주	정민회	무주 진안 장수 계	1,437 6,536 1,979 9,952	
오 치 황 (吳治惶)	36	농업	장수군 계남면	민정당	무주 진안 장수 계	2,412 3,737 5,402 11,551	

후보자성명	연령	직업	주소	소속		득표수	비고
김 진 원 (金鎭元)	46	무직	무주군 무주면	자민당	무주 진안 장수 계	8,803 1,886 921 11,610	

7. 제7대 국회의원 선거(1967. 6. 8 실시)

제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66년 12월 14일 정당법과 선거관계법 중 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의원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선거법은 외국에 체류중인 부재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선거인명부사본을 후보자에게 교부하는 제도 등이 신설되었다.

연초부터 선거바람이 일기 시작하여 여야간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으며, 신민당과 민중당이 합당하여 2월에 신민당을 창당하였다.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참가한 정당은 10여 개였으나 사실상 공화당과 신민당의 양당 대결이었다. 선거결과 지역구 131석과 전국구 44석 중 민주공화당이 129석을 확보하여 재적의원의 3분의2를 넘는 압승을 하였고, 민주당이 45석을 차지하여 제1야당이 되었다.

한편 무주·진안·장수에서는 공화당의 당세가 6대 선거보다도 더욱 강대해졌고, 반면에 신민당은 초기 조직 단계였으며 더구나 자유당 때와 같은 관권개입이 곳곳에서 발생하기도 하였다. 선거결과 무진장의 공화당 후보가 전국 최고의 득표자가 되어 크게 주목을 받았으나, 개표과정에서 투표자수가 유권자보다 더 많이 집계되어 한 때 큰 소란을 야기하였고, 이른바 104%지구로 더욱 유명해졌다. 민주공화당의 전휴상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였다.

<표 3-2-31> 제7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후보자성명	연령	직업	주소	소속		득표수	비고
전 휴 상 (全烋相)	33	국회의원	진안군 진안읍	민주공화당	무주 진안 장수 계	19,460 32,706 22,219 74,385	당선

후보자성명	연령	직업	주소	소속	득표수	비고
김 진 원 (金鎭元)	50	회사원	무주출신 서울 거주	자유당	무주 3,401 진안 510 장수 86 계 4,002	
최 성 석 (崔成石)	35	농업	장수군 장수면	신민당	무주 3,152 진안 3,999 장수 5,936 계 13,092	
박 수 산 (朴壽山)	35	농업	진안군 출신	한독회	무주 692 진안 720 장수 577 계 1,887	
박 정 근 (朴定根)	69	농축업	서울 거주	대중당	무주 1,353 진안 4,348 장수 929 계 6,630	
최 팔 용 (崔八龍)	46	농업	진안군 출신	민주당	무주 271 진안 650 장수 414 계 1,171	

8. 제8대 국회의원 선거(1971. 5. 25 실시)

제7대 국회의원 선거 후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가 고조되어 이를 타개하고 원만한 국회운영을 꾀한다는 뜻에서 선거법 개정을 개정한다는 소위 “보장입법”에 의해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1969년 가을의 3선 개헌안 처리와 국민투표과정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태를 놓고 공전을 거듭한 여야는 선거제도의 개선논의를 거쳐 1970년 12월 22일 다시 협상선거법을 공포하였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친 선거법 개정에 의해 지역구가 131개에서 153개로 증가되었고, 전국구도 44개에서 53개로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무주·진안·장수지구는 진안이 단일 선거구로 분리되고 무주·장수 2개 군이 남아 전북 제6지구로 변동되었다. 이렇게 하여 1971년 5월 25일 실시 된 선거결과 민주공화당이 의원정수의 55.4%에 해당

하는 113석을 확보하였고, 신민당은 43.6%인 89명 국민당과 민중당은 각각 1명씩의 당선자를 내는데 그쳤다. 공화당은 이 선거에 앞서 4·27 대통령선거대책위원장을 153개 전 지구에 임명했는데 이는 사실상으로 국회의원 후보 공천자를 미리 정한 셈이었다.

무주·장수지구는 공화당과 신민당 양당의 대결이었는데, 신민당의 당 조직이 크게 확충 되어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양상을 보였다. 또한 선거분위기는 제7대 선거와 다름이 없었으나 공화당의 길병전(吉秉典) 후보는 무주군 출신이었고, 신민당 후보인 최성석(崔成石)은 장수군 출신이어서 양군간의 지역의식도 작용하여 시종일관 백중세를 보였다.

선거결과 두 후보간 당락의 차가 418표에 불과하여 낙선한 최성석의 제소로 법원에서 재 검표까지 하였다. 무주 출신으로 경성약전을 졸업하고 전북도의 보건과장을 역임한 약사 출신의 민주공화당 후보 길병전이 당선되었다.

<표 3-2-32> 제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후보자성명	연령	직업	주소	소속		득표수	비고
길 병 전 (吉秉典)	51	약사	무주 출신 전주시 거주	민주공화당	무주 장수 계	14,392 11,166 25,558	당선
최 성 석 (崔成石)	39	무직	장수군 장수면	신민당	무주 장수 계	10,141 14,996 25,137	

9. 제9대 국회의원 선거(1973. 2. 27 실시)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헌정을 중단하는 이른바 유신체제로 들어갔다.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활동은 중지되었으며 국회기능을 대행하는 비상국무회의가 설치되었다. 비상국무회의는 유신헌법을 내놓고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시켰으며, 12월 27일에는 제8대 대통령 취임식 거행과 동시에 유신헌법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12월 30일 새 국회의원 선거법과 시행령 및 개정된 정당법이 공포되었다.

개정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공영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의 3분의1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며, 전국의 선거구를 73개로 하여 1개 구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며 무소속의 입후보를 허용하였다. 또한 후보자의

기탁금제 부활과 투표방식에 있어서는 1명만 표기하는 단기무기명 투표제의 도입 등이었다. 이렇게 하여 지역선거구 선출 146명,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73명으로 의원총수는 219명이었다.

이처럼 개정선거법에 의하여 1973년 2월 27일 실시된 선거에는 339명(민주공화당 80명, 신민당 87명, 통일당 57명, 무소속 19명)이 입후보하여 민주공화당이 73석, 신민당 52석, 민주통일당 2석, 무소속 19석의 결과가 나왔다.

무주군이 속한 선거구는 무주·장수 양군에서 8대 때 단일지구가 되었던 진안이 다시 통합되어 전북 제3지구가 되었고, 입후보자는 5명이었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와 군내에서 단 3회의 합동연설회를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여당은 유리한 여건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종전과 같은 관권의 관여가 보이지 않아 공화당 후보가 낙선하고 특히 무주군에서는 참패하는 결과가 나왔다.

모두 6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으나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장수출신으로 전주농고와 우석대학을 수학한 신민당의 최성석이 1위로 당선되었고, 무주 출신으로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교과서사장을 역임한 김광수(金光洙)가 2위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표 3-2-33> 제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후보자성명	연령	직업	주소	소속		득표수	비고
전 휴 상 (全烋相)	37	국회의원	진안군 진안읍	민주공화당	무주 진안 장수 계	3,248 11,737 2,644 17,629	
최 성 석 (崔成石)	41	무직	장수군 장수면	신민당	무주 진안 장수 계	5,809 6,974 16,874 29,654	당선
김 광 수 (金光洙)	49	회사원	무주군 출신 서울 혜화동	무소속	무주 진안 장수 계	15,974 4,875 4,038 24,891	당선

후보자성명	연령	직업	주소	소속	득표수	비고
김 봉 관 (金奉官)	45		진안군 출신 전주시	무소속	무주 1,355 진안 13,000 장수 1,842 계 16,177	
김 현 모 (金現模)	45		장수군 출신 전주시	무소속	무주 494 진안 2,100 장수 2,154 계 3,752	

10. 제10대 국회의원 선거(1978. 12. 12 실시)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고조되고 야당의 공세가 가열되자 박정희 정권은 1975년 2월 국민의 신임을 묻는 형식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체제를 더욱 공고히하고, 체제에 대한 논쟁조차 할 수 없도록 긴급조치(緊扱措置)를 발동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1977년 말 정기국회에서 선거운동 방법의 일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선거법이 개정되었다.

1978년 12월 12일 실시된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이 복수공천을 지양하고 1선거구당 1명 당선을 목표로 77명을 공천하여 68명이 당선되었고, 신민당은 4개 선거구 의 복수공천을 비롯하여 모두 81명을 공천하여 61명이 당선되었다. 또한 민주통일당은 63명 공천에 3인이 당선되었고, 무소속은 253명이 출마하여 22명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야당인 신민당에 비하여 당선자는 7명이 더 많았지만 득표에서는 469만5,995표로 31.7%였고, 신민당은 486만1,204표로 유효득표의 32.8%를 획득하여 공화당보다 득표율에서 1.1%를 앞서는 이변을 연출하였다.

무주·진안·장수지구에서는 무려 9명이 입후보하였으나 결과는 9대 선거와 동일하였다. 다만 특기할 것은 공화당에 오랜 기간 동안 중용되었던 전휴상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던 김광수가 입당하여 공천을 받았으며, 선거결과 당선순위도 9대 때의 최성석이 차점 당선자로 2위가 되었고 김광수가 1등 당선을 하였다.

<표 3-2-34>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후보자성명	연령	직업	주소	소속	득표수		비고
김 광 수 (金光洙)	53	국회의원	무주군 출신 서울 혜화동	민주공화당	무주 진안 장수 계	14,344 10,384 8,299 33,026	당선
최 성 석 (崔成石)	47	국회의원	장수군 출신 서울 거주	신민당	무주 진안 장수 계	4,477 4,900 14,098 23,475	당선
이 복 동 (李福同)			진안군 출신	민주통일당	무주 진안 장수 계	155 468 118 737	
김 덕 규 (金德圭)			무주군 출신 서울 거주	무소속	무주 진안 장수 계	4,767 2,008 671 7,446	
김 봉 관 (金奉官)			진안군 출신 전주시 거주	무소속	무주 진안 장수 계	501 3,412 692 4,605	
오 상 현 (吳上鉉)	35		진안군 출신 서울 거주	무소속	무주 진안 장수 계	1,584 10,008 1,770 13,362	
이 상 옥 (李相玉)			진안군 백운면	무소속	무주 진안 장수 계	188 1,081 1,081 2,350	
이 상 옥 (李相玉)	27		진안군 진안면		무주 진안 장수 계	10,141 4,500 774 15,953	
허 재 송 (許在松)			진안군 출신 전주시 거주		무주 진안 장수 계	550 1,474 472 2,476	

11. 제11대 국회의원 선거(1981. 3. 25 실시)

유신체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피살됨에 따라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최규하가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으나, 12·12하극상과 5·17비상계엄확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실상의 국정을 장악하고 국회기능을 대행하였다.

최규하 대통령은 취임 후 8개월만인 1980년 8월 16일 하야하고 전두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거를 거쳐 대통령으로 등장하였다. 전두환의 취임 후 바로 헌법이 개정되었고 이어서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도 새로 마련되었다.

1981년 3월 25일 실시 된 제11대 국회의원 선거는 새로이 형성된 신군부 중심의 민주정의당이 반(反)군부적 기성 정당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창당과정에서 체제의 협조를 받은 민주한국당 등을 정권유지의 협력집단으로 삼았다.

선거결과 민주정의당이 제주와 호남, 진도 2개 구를 제외한 전 지구에서 당선되어 지역구 90석과 전국구 61석을 합한 151석을 얻었고, 민주한국당이 지역구 57석과 전국구 24석 등 81석, 한국국민당은 지역구 18석과 전국구 7석을 합쳐 25석을 얻었다. 그 외 신정당 2석, 민주사회당 2석, 민권당 2석, 안민당 1석, 민주농민당 1석, 무소속 11석 등이었다.

무주·진안·장수지구에서는 민주정의당 황인성(黃寅性) 후보가 3개 군에서 고루 다득표를 얻어 1위로 당선되었고, 2위 당선에는 진안 출신의 민주한국당 오상현(吳上鉉)이 근소한 표차로 민권당의 이상옥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표 3-2-35>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후보자성명	연령	직업	주소	소속		득표수	비고
황 인 성 (黃寅性)	54	회사사장	무주군 무풍면 출신 서울 거주	민주정의당	무주 진안 장수 계	19,070 14,804 15,816 49,690	당선
오 상 현 (吳上鉉)	41	회사이사	진안군 출신 서울 거주	민주한국당	무주 진안 장수 계	3,808 10,459 5,087 19,890	당선

후보자성명	연령	직업	주소	소속		득표수	비고
이 상 옥 (李相玉)	30		진안군 진안면	민권당	무주 진안 장수 계	2,766 11,459 4,168 18,393	

12. 제12대 국회의원 선거(1985, 2. 12 실시)

1985년 2월 12일 실시 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는 그 동안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던 구 정치인들이 세 차례에 걸쳐 해금되고, 이들이 김대중과 김영삼을 중심으로 신한민주당을 창당하고 야당의 선명성과 민주화를 부르짖자 야권은 물론 정치판도 자체에 변화를 가져왔다.

선거결과 민주정의당이 지역구 87석과 전국구 61석 등 148석을 확보하였고, 신한민주당이 지역구 50석과 전국구 17명 등 67석을, 민주한국당이 지역구 26석과 전국구 9명 등 35석을, 한국국민당이 지역구 15석과 전국구 5석 등 20석, 신정사회당이 지역구 1석, 신민당이 지역구 1석 그리고 무소속이 4석을 확보하였다.

2·12총선에서 일어난 신한민주당의 돌풍은 1984년 5월 김대중과 김영삼이 공동의장이 되어 발족시킨 재야인사와 야당세력의 연합체로 정치민주화와 개헌을 강력히 추진했던 '민주화추진협의회'의 역할이 컸다.

무주·진안·장수에서는 진안군에 연고가 있는 3명과 무주군 출신 1명으로 모두 4명이 출마하여 야권 후보의 분열상을 보여 결국 민정당이 유리하게 되었다. 선거결과 서울대를 졸업하고 무주와 진안군수를 역임하였으며, 전주시장과 부지사를 지낸 민정당의 전병우(全炳宇)와 9대 국회의원 출신인 한국국민당의 김광수가 당선되었다.

<표 3-2-36>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후보자성명	연령	직업	주소	소속		득표수	비고
전 병 우 (全炳宇)	54	국회의원		민주정의당	무주 진안 장수 계	10,159 16,746 10,720 37,625	당선

후보자성명	연령	직업	주소	소속		득표수	비고
이 상 옥 (李相玉)	34		진안군 진안면	신한민주당	무주 진안 장수 계	3,706 8,228 3,572 15,114	
오 상 현 (吳上鉉)	45	국회의원	진안군 출신 서울 거주	민주한국당	무주 진안 장수 계	3,706 7,796 5,243 16,745	
김 광 수 (金光洙)	60	회사사장		한국국민당	무주 진안 장수 계	7,675 4,695 4,993 17,363	당선

13. 제13대 국회의원 선거(1988. 4. 26 실시)

1988년 4월 26일 실시 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는 1987년의 6월 민중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에 이어, 국회의원 선거 역시 기존의 중선거구제가 폐지되고 소선거구제로 실시되었다.

제13대 총선의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2,619만8,205명 가운데 1,985만815명이 참여하여 75.8%를 기록하였다. 선거결과 지역구 224개 중 민정당 87명, 평민당 54명, 민주당 46명, 공화당 27명, 한겨레민주당 1명, 무소속 9명이 당선되었다.

4·26 총선 결과 집권당인 민정당이 한국의정사상 최초로 원내의석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여소야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방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각 당마다 당수의 출신지역에서 압승을 거두며 이후 선거에서도 망국적인 지역감정에 따른 투표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민정당은 대구·경북에서, 평화민주당은 광주·전남·북에서, 통일민주당은 부산·경남에서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충남에서 그 여세를 떨치며 압승하였다. 더구나 전라남·북도에서는 평화민주당이 황색돌풍을 일으키며 싹쓸이하여 타 정당은 단 한 석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특히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선자 224명 가운데 초선의원이 절반이 넘는 113명을 차지했고, 전국구까지 합치면 166명으로 전체 의원의 56%를 차지하여 세대교체 현상이

두드러졌다. 세대교체의 요인으로는 각 지역의 공천권을 쥐고있는 지역 보스들이 그들의 카리스마를 확립하기 위하여 옛 동료들을 배제하고 절대적 충성을 다하는 가신그룹이나 재야 신인들을 공천했기 때문이었다.

무주·진안·장수지역구에서도 젊은 야당정치인 출신의 이상옥이 민정당의 전병우 의원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표 3-2-37>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후보자성명	연령	직업	주소	소속		득표수	비고
전 병 우 (全炳宇)	58	국회의원		민주정의당	무주 진안 장수 계	10,187 12,567 7,147 29,901	
이 상 옥 (李相玉)	38		진안군 진안면	평화민주당	무주 진안 장수 계	12,122 17,375 14,282 43,779	당선
최 규 홍 (崔圭弘)				신민주공화당	무주 진안 장수 계	346 240 587 1,732	

(자료 : 1990년 발행 ≪무주군지≫ 432쪽)

14. 제14대 국회의원 선거(1992. 3. 24 실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는 노태우 정권의 말기인 1992년 3월 24일에 실시되었다. 따라서 노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었다. 노태우 정권은 여소야대의 정치적 상황을 반전시켜 정국의 주도권을 회복하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비밀리 3당 합당을 단행하고 “구국의 결단”이라고 주장하면서 13대 총선의 민의를 뒤집어 버렸다.

3당 합당 이후 국회는 여당이 완전히 장악하여 국민들을 농락하고 정국을 마음대로 조정하였다. 수서사건을 유야무야(有耶無耶)시켜 버리고 33초 만에 26개의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킬 정도로 인위적으로 만든 다수의 힘을 과시했다.

더구나 노태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일방적으로 연기해 버리기도 했으며, 국회나 국민과는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소련과의 북방외교 대가로 2조2천억원(3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방통행 식으로 독주한 국정운영에 대하여 국민적 평가의 장이 바로 1992년 3월 24일 실시 된 제14대 총선이었다.

3·24선거는 총선거인수 2,900만3,828명 중 2,084만3,482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71.9%로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결과 민주자유당 116명, 민주당 75명, 통일국민당 24명, 신정당 1명, 무소속 21명이 당선되었다. 전국구는 지역구의 의석분포에 따라 민주자유당 38석, 민주당 22석, 통일국민당 7석이 배분되었다. 민주자유당은 149명으로 의원정수 299명의 과반수에 1석이 모자랐다. 결국 3·24선거는 민주자유당의 패배였다.

거여 민자당의 이 같은 참패는 3계파간의 나눠먹기 식 공천에 따른 후보선정의 잘못과 총선 직전에 발생한 안기부 직원의 흑색 선전물 배포 및 군 부재자투표 부정시비 등이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주·진안·장수지역구에서는 1981년에 실시된 제11대 총선거에서 자웅을 겨룬바 있던 무주 출신의 황인성 후보와 진안 출신의 오상현과 이상옥이 다시 격돌하였다.

선거결과 민주자유당의 황인성 후보가 3만2,280표를 획득하여 2만4,989표를 얻은 민주당의 오상현 후보를 7,291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이는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전라북도에서 민주자유당이 남원의 양창식 후보와 함께 교두보를 마련하며 당선된 것으로 그 의미가 컸다. 황인성 후보의 인지도와 조직력이 주요 승인으로 3개 군에서 고른 득표했으며, 특히 무주군에서는 오상현 후보보다 2배가 넘는 득표를 하며 당선되었다.

<표 3-2-38>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후보자성명	연령	직업	주소	소속		득표수	비고
황 인 성	66	회사사장	무주군 무풍면 출신 서울 거주	민주자유당	무주 진안 장수 계	12,340 10,990 8,950 32,280	당선

후보자성명	연령	직업	주소	소속		득표수	비고
오 상 현	53	회사이사	진안군 출신 서울 거주	민주당	무주 진안 장수 계	6,090 10,640 8,259 24,989	
이 상 옥	42		진안군 진안면	통일국민당	무주 진안 장수 계	1,005 3,648 1,309 5,962	

15.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 4. 11 실시)

1996년 4월 11일에 실시 된 제15대 총선은 김영삼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니면서 1997년에 있을 대선의 향방을 가름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었다. 제15대 총선에서는 선거인수가 3,148만 8,294명으로 이중 63.9%가 투표에 참여하였다. 이는 제14대 총선의 71.9%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역대 총선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다. 선거결과 신한국당이 선전하여 139석을 얻었고, 국민회의 79석, 자민련이 50석, 민주당 15석, 무소속 16석이었다.

4·11 선거에서도 지역 분할 현상은 여전해 신한국당은 부산·경남, 국민회의는 광주와 전남·북, 자민련은 대전·충남 등에서 의석을 휩쓸었다. 신한국당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경북 등지에서도 과반수의 다수 의석을 차지했으며, 특히 서울에서 여당이 야당을 앞지른 것은 역대 총선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무주·진안·장수지역구에서는 신한국당의 정장현, 새정치국민회의 정세균, 통합민주당 최팔용, 무소속의 이상옥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하지만 제15대 총선에서도 지역의 정서가 그대로 반영되어 새정치국민회의의 정세균(丁世均) 후보가 3만6,176표를 획득하여 1만2,869표를 얻는데 그친 신한국당의 정장현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여의도에 입성하였다.

정세균 후보는 전주 신흥고등학교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페퍼다인대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쌍용그룹 상무이사를 지낸 경영인 출신으로 영입 된 케이스였다.

<표 3-2-39>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후보자성명	연령	직업	주소	소속		득표수	비고
정 장 현				신한국당	무주	3,754	
					진안	4,451	
					장수	4,664	
					계	12,869	
정 세 균 (丁世均)	53	쌍용그룹 상무이사	진안군 출신 서울 거주	새정치 국민회의	무주	11,024	당선
					진안	14,787	
					장수	10,365	
					계	36,176	
최 팔 용 (崔八龍)	59		진안군 출신	통합민주당	무주	522	
					진안	521	
					장수	419	
					계	1,462	
이 상 옥 (李相玉)	46		진안군 진안읍	무소속	무주	1,005	
					진안	3,648	
					장수	470	
					계	5,123	

16. 제16대 국회의원 선거(2000. 4. 13 실시)

제16대 총선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임기의 반에 이르러 실시되어 김대중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가 있었다. 선거결과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이 115석, 한나라당이 원내과반수 의석(137석)에 4석이 부족한 133석, 자민련은 교섭단체 구성에도 못 미치는 17석, 민국당 2석, 한국신당 1석, 무소속 5석을 차지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부산·경남·대구·경북·울산 등 영남권 65석 가운데 64석을 석권한데 이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97석 가운데 40석 정도를 얻었다. 민주당은 서울·경기·인천의 97석 중 50여 곳에서 승리하고, 전남·북, 광주의 29석 중 25석을 얻었으며, 자민련은 표밭인 충남·북과 대전에서 민주당에 8석과 한나라당에 4석씩을 뺏기고,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도 의석을 거의 얻지 못했다.

특히 제15대 총선에서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대상 명단에 오른

후보의 60% 정도가 낙선하고, 여야의 정계 중진 후보들이 정치신인에게 대거 고배를 들기도 했다.

무주·진안·장수지역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이광국 후보와 새천년민주당의 현역의 원인 정세균 후보 그리고 자유민주연합의 김광수 후보와 여성 후보인 민주국민당의 백완승 후보 등 4명이 입후보하였다.

선거결과 새천년민주당의 원내부총무를 지내고 재경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정세균 후보가 3만4,165표를 얻어 1만5,224표를 획득한 자유민주연합의 김광수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표 3-2-4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후보자성명	연령	직업	주소	소속		득표수	비고
이 광 국 (李光國)	45	정당인	진안군 출신	한나라당	무주 진안 장수 계	390 599 255 1,244	
정 세 균 (丁世均)	51	국회의원	진안군 출신 서울 거주	새천년 민주당	무주 진안 장수 계	9,874 13,611 10,680 34,165	당선
김 광 수 (金光洙)	76	국회의원	무주군 출신 서울 혜화동	통합민주당	무주 진안 장수 계	5,860 4,510 4,854 15,224	
백 완 승	46	출판사	무주군 출신	무소속	무주 진안 장수 계	911 410 490 1,811	

제3절 국민투표

1. 제1차 국민투표(1962. 12. 17 실시)

1960년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 정부가 수립되어 민주정치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지대하였으나, 8개월 만에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하여 헌정이 일시 중단되고 군사정부는 군가재건최고회의를 조직하여 국정전반을 운영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國家再建非常措置法)을 제정·공포하였고, 이 법은 헌법을 대신하는 기본법이 되었다. 1961년 8월 12일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민정이양을 공약함에 따라 헌법을 확정하기 위한 기본절차로서 국민투표법안이 1962년 10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같은 해 10월 12일 공포되었다. 정당제도의 신설과 복수정당제도보장 및 대통령책임제와 국회단원제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제, 무소속입후보금지와 국무총리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1962년 11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고되었다.

그리고 공고기간을 거쳐 1962년 12월 17일 최초로 국민투표(國民投票)가 실시되었다. 무주군에서는 이 투표에 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찬반에 대한 운동이 거의 없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다만 군정산하의 홍보활동만이 있었을 뿐이다. 무주군의 투표결과 찬반대비 73.3%대 26.7%로 나타났는데 7,000여 표에 이르는 반대표는 국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 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표 3-2-41> 제1차 국민투표 상황

구분 지역	유권자	투표자	유효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투표율 (%)	찬성율 (%)
			찬성	반대	계				
무주군	31,452	29,069	21,322	6,800	28,122	947	2,383	92.4	73.3
전 북	1,114,164	965,618	731,855	212,523	944,378	21,240	148,546	86.7	75.8
전 국	12,412,798	10,585,998	8,339,333	2,008,801	10,348,134	237,864	1,826,800	85.3	78.8

2. 제2차 국민투표(1969. 10. 27 실시)

1969년 초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안을 추진하였고, 박정희는 7월 25일 특별성명을 통하

여 개헌문제에 관한 7개항을 발표하였다.

그 7개항을 보면, “기왕에 거론되고 있는 개헌문제를 통해서 나와 이 정부에 대해서 신임을 묻는다. 개헌안이 통과 될 때에는 그것이 곧 나와 정부에 대한 신임으로 간주한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 될 때에는 나와 이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듯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와 이 정부는 즉각 물러난다. 이에 따라 여당은 빠른 시일 안에 개헌안을 발의해 줄 것을 바라며, 야당은 합법적으로 개헌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정부를 공격해 온 사실이 정녕 민의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을 국민투표결과에서 입증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헌에 대한 찬·반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할 것이며, 폭력과 불법은 배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중립을 지켜 공정한 국민투표의 관리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공화당은 이에 당내의 반발세력을 설득하고 야당에 대한 포섭공작을 병행하여 신민당의원 3명을 개헌찬성에 가담하게 하였다. 신민당은 이들 3명의 의원들이 개헌찬성에 가담하자 당을 임시 해체하여 이들에 대한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하지만 개헌안은 9월 19일 공화당에 의하여 국회에 상정되었고, 14일 새벽 국회별관에서 찬성의원 122명을 비밀리에 소집하여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날치기통과에 맞서 신민당이 중심이 된 3선개헌반대투쟁위원회(三選改憲反對鬪爭委員會)가 전국적으로 결성되어 반대투쟁을 전개하였으나, 결국 1969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하여 확정되고 말았다.

국민투표 결과 총유권자 1,504만8,925명의 77.1%에 해당하는 1,160만4,038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찬성 755만3,655표, 반대 363만6,369표 무효 41만4,014표, 기권 344만4,887표로 투표자의 65.1%가 찬성하여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무주군의 찬반비율은 77.4%대 22.6%였으나 기권표가 4,000표를 넘었다.

<표 3-2-42> 제2차 국민투표 상황

구분 지역	유권자	투표자	유효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투표율 (%)	찬성율 (%)
			찬성	반대	계				
무주군	33,975	29,960	23,188	4,944	28,132	1,828	4,015	88.2	77.4
전 북	1,165,078	901,743	568,077	288,816	856,893	44,850	263,335	77.4	63.0
전 국	15,048,925	11,604,038	7,553,655	3,636,369	11,190,024	414,014	3,444,887	77.1	65.1

3. 제3차 국민투표(1972. 11. 21 실시)

변칙적인 날치기로 개헌을 감행하여 3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영구집권을 획책하기 위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해산과 정치활동의 금지 및 헌법조항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서 수행한다고 하였다.

같은 해 10월 23일, 비상국무회의는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 등을 의결 공포하였고, 10월 27일에는 헌법개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였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의 직접선거권을 박탈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간접선거로 바꾼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는 1972년 11월 21일에 실시되었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유신헌법을 강조하는 선전이 전국을 강타하였고, 관변의 총력적 지지 유도로 투표결과 총유권자 1,567만6395명 중 총 투표자수는 1,441만714명으로 91.9%에 이르렀다. 총 투표자수의 91.5%에 해당하는 1,318만6,559명이 찬성하여 유신헌법은 확정되었다.

무주군의 찬성율은 93.8%로 전국 평균치인 91.5%를 웃도는 찬성율을 보였다.

<표 3-2-43> 제3차 국민투표 상황

구분 지역	유권자	투표자	유효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투표율 (%)	찬성율 (%)
			찬성	반대	계				
무주군	31,601	30,891	28,973	1,429	30,402	489	710	97.8	93.8
전 북	1,152,919	1,086,542	1,015,489	61,186	1,076,675	9,867	66,327	94.2	63.0
전 국	15,676,395	14,410,714	13,186,559	1,106,143	14,292,702	118,012	1,265,681	91.9	91.5

4. 제4차 국민투표(1975. 2. 12 실시)

10월유신으로 일사 분란한 정치체계가 구축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체육관 선거에서 만장일치의 득표로 대통령이 된 박정희의 영구집권은 그 가능성이 커 보였다. 하지만 정치활동이 재개되자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특히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취임을 계기로 국회 내에서 강력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또한 재야에서는 민주회복

국민회의(民主回復國民會議)를 결성하여 장기집권과 권력집중, 국민기본권 침해 등을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장기집권을 비난하는 등 정국이 불안해지자 박정희는 1973년 1월 22일 특별담화를 통하여, '북한정권이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겠다는 폭력노선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현행 헌법을 철폐할 수 없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유신헌법의 존속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며 이를 대통령의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는 이를 의결·공고하였고, 신민당은 거부의사를 밝혔다. 민주회복국민회의 또한 찬반토론을 금지한 국민투표는 무의미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국민투표는 예정대로 1975년 2월 12일 실시되었다.

투표결과 총유권자 1,678만8,839명 가운데 79.8%인 1,340만4,245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이 중 980만201명이 찬성하여 73.1%의 찬성율로 유신헌법이 유지되었다.

무주군은 유권자 3만2,134명 가운데 3만877명이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이 중 84%에 해당하는 2만5,833명이 찬성하여 전국 평균 찬성율 73.1%보다 11%정도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

<표 3-2-44> 제4차 국민투표 상황

구분 지역	유권자	투표자	유효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투표율 (%)	찬성율 (%)
			찬성	반대	계				
무주군	32,134	30,877	25,833	4,220	30,053	824	1,257	91.6	84.0
전 북	1,180,103	1,017,173	736,040	261,598	997,638	19,535	162,650	86.1	72.4
전 국	16,788,839	13,404,245	9,800,201	3,370,085	13,170,286	233,359	33,84,594	79.8	73.1

5. 제5차 국민투표(1980. 10. 22 실시)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재규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당함으로서 18년 통치는 막을 내리게 된다.

그의 사후에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최규하 국무총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나, 12·12 군부쿠데타와 5·17비상계엄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에 의하여 취임 8개월만인 1980년 8월 16일 물러났다.

5·17비상계엄확대로 국회가 해산되고 전두환이 국보위상임위원장으로 등장했던 초헌

법적 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9월말에 헌법개정안을 내놓고 국민투표에 부쳤다. 개정 헌법안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었다.

1980년 10월 22일 실시 된 국민투표는 총유권자 2,037만3,869명 중 95.5%에 해당하는 1,945만3,926명이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91.6%인 1,782만9,354명이 찬성하여 개헌안이 확정되었다.

<표 3-2-45> 제5차 국민투표 상황

구분 지역	유권자	투표자	유효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 수	투표율 (%)	찬성율 (%)
			찬성	반대	계				
무주군	29,527	29,266	27,862	986	28,848	418	261	99.1	95.2
전 북	1,187,895	1,161,271	1,081,368	63,554	1,144,922	16,349	26,624	97.8	93.1
전 국	20,373,869	19,453,926	17,829,354	1,357,673	19,187,027	266,899	919,943	95.5	91.6

6. 제6차 국민투표(1987. 10. 27 실시)

1987년 신한민주당 탈당의원 및 동조자 등과 통일민주당을 창당하고 총재로 선출된 김영삼은 대통령직선제 개헌과 문민정치 구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강정책을 채택하여 전두환 정권이 선언한 '4·13 호헌조치'에 대한 거부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표명하였다.

전두환 정권의 노골적인 장기집권 음모를 위한 '4·13 호헌조치'가 발표되자마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등 각계의 반박성명서가 줄을 이었다. "4·13조치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대를 표명했으며, 이어서 대학교수와 사회단체, 문화계 인사들이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4·13 호헌조치는 박종철 고문치사 및 진상을 조작하고 축소·은폐한 사실과 맞물리면서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발전했다. 학생들을 필두로 야권과 재야, 그리고 종교계 등 모든 민주세력들이 하나로 뭉쳐 5월 27일 서울의 향린교회에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民主憲法爭取國民運動本部·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개헌투쟁을 전개하였다.

개헌투쟁을 위한 국민대회를 거행하기로 한 국민운동본부는 6월 26일 통일민주당과 대회를 공동으로 집행함으로써, 전국 33개시와 각 시·군·면에서 150만 명이 참여하는 6월항쟁을 촉발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고자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주요골자로 하는 '6·29선언'을 발표하였다. 말이 선언이었지 독재와 장기집권 음모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무릎을 꿇은 항복 선언이었다.

이에 따라 직선제 개헌안이 마련되었고, 국민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1987년 10월 27일 실시 된 국민투표 결과 총유권자 2,561만9,648명 중 78.2%에 해당하는 2,002만 8,672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93.1%라는 찬성율을 기록하며 확정되었다.

무주군에서는 총유권자 2만7,135명 가운데 93.6%인 2만5,392명이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이중 2만3,192명이 찬성표를 던져 91.3%의 찬성율을 보였다. 그 당시 실시된 국민투표는 독재자의 장기집권 등을 위해서 정부 주도로 실시된 이전의 국민투표와는 달리 국민의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물이었기에 그 의의는 더욱 컸다.

<표 3-2-46> 제6차 국민투표 상황

구분 지역	유권자	투표자	유효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투표율 (%)	찬성율 (%)
			찬성	반대	계				
무주군	27,135	25,392	23,192	1,800	24,992	400	1,743	93.6	91.3
전 북	1,296,644	1,092,510	1,009,932	66,960	1,076,892	15,618	204,134	84.3	92.4
전 국	25,619,648	20,028,672	18,640,625	1,092,702	19,733,327	295,345	5,590,976	78.2	93.1

제4절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 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년 10월 17일 선포한 유신체제의 산물이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는 국민적 조직체를 표방하며, 통일정책의 심의 결정·대통령 선출·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선출·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의 심의결정 등 기능을 갖는 명목상 국회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통치기구의 최상위 기관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대의원들이 체육관에 모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주 기능이었다.

이 기관에 의하여 박정희는 2회에 걸쳐 단일 후보로 1, 2표의 무효를 제외하고는 만장일치로 당선되었고, 그가 죽은 후에는 전례에 따라 최규하와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결국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정권유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편으로 거수기에 불과한 제도였다.

1. 제1대 대의원 선거(1972, 12. 15 실시)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1972년 12월 15일에 실시되었다. 후보자 등록요건은 유권자 300명 이상의 추천과 선거구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30세 이상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이었다. 선거구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용하여 한 선거구에서 1~5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전국1,630개의 선거구에서 모두 2,359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지 이틀 만에 실시되었으며 그 당시까지의 모든 선거 가운데 최저투표율 속에 206개 선거구에서 225명의 대의원이 무투표로 당선되기도 하였다. 정당이 배제된 가운데 공영제로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실시되었으며,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무투표 선거구를 제외한 선거인수는 1,459만9,617명이었고, 이중 70.4%에 해당하는 1,028만3,793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무주군은 총유권자 3만1,888명 가운데 2만3,856명이 투표하여 74.8%의 투표율을 보였다. 한편 무주군의 정원은 6명으로 입후보자는 무투표지역을 제외하고 각 면당 2명씩 이었다. 그런데 사전에 관변측의 조정과 추천 내지 권고가 이루어졌다는 설도 있었다. 당선자는 무주면 신현곤, 무풍면 하태술, 설천면 양창모, 적상면 강영만, 안성면 원종옥, 부남면 김종성 등이었다. 선거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47>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별 선거상황

선거구명	후보자	년령	직업	주소	득표수	비고
무 주 면	신 현 곤(申鉉坤)	33	교사	무주면 읍내리	4,344	당선
	박 기 용(朴起龍)			무주면	2,543	
무 풍 면	하 태 술(河泰述)	35	농업	무풍면 현북리	무투표	당선
설 천 면	양 창 모(梁昌模)	42	농업	설천면 제곡리	2,740	당선
	강 창 달(姜昌達)			설천면	1,459	
적 상 면	강 영 만(姜永萬)	34	농업	적상면 사천리	2,628	당선
	김 윤 배(金允培)			적상면	1,342	
안 성 면	원 종 옥(元鍾玉)	40	농업	안성면 장기리	3,025	당선
	신 창 섭(申昌燮)			안성면	1,413	
부 남 면	김 종 성(金鍾聲)	49	농업	부남면 가당리	1,413	당선
	김 종 하(金鍾河)			부남면	1,139	

1. 제2대 대의원 선거(1978, 5. 18 실시)

1978년 실시된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현역 대의원들의 재출마 의사가 많았고, 정치 입문을 바라는 새로운 인사들과 지역 유지들이 많이 출마하여 당락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였다. 선거는 전국 1,665개중에서 무투표 당선지역 236개 선거구를 제외한 1,429개 선거구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일제히 실시되어 2,583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무주군에서는 총유권자 3만2,102명 가운데 2만5,172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78.4%의 투표율을 보였다. 또한 6명을 선출하는 선거에 17명이 입후보, 1대 때보다 6명이 더 출마하여 선거전이 과열되기도 하였으며, 일부 면에서는 심한 혼탁현상까지 벌어져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였다.

<표 3-2-48>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별 선거상황

선거구명	후보자	년령	직업	주소	득표수	비고
무 주 면	권호준(權鎬準)			무주면	752	
	신현곤(申鉉坤)	39		무주면 읍내리	3,353	
	정문상(鄭紋相)	36	정미업	무주면 읍내리	3,651	당선
무 풍 면	신동진(申東鎭)			무풍면	630	
	이광하(李珖河)			무풍면	762	
	양병구(梁炳九)			무풍면	999	
	하태술(河泰述)	41	농업	무풍면 현내리	1,122	당선
적 상 면	강영만(姜永萬)	40	축산업	적상면 사천리	무투표	당선
설 천 면	김석환(金碩煥)			설천면	319	
	양창모(梁昌模)	48	농업	설천면 제곡리	2,041	
	김영길(金永吉)	34	축산업	설천면 소천리	2,103	당선
안 성 면	신창섭(申昌燮)	40	제재업	안성면 장기리	2,965	당선
	김종호(金鍾淏)			안성면	2,276	
	김대성(金大聲)			안성면	685	
부 남 면	김종하(金鍾河)	46	농업	부남면	1,013	당선
	빈봉준(賓奉俊)			부남면	1,005	
	김종성(金鍾聲)			부남면	724	

제5절 대통령 선거인단(大統領選擧人團) 선거(1981. 2. 11 실시)

10·26으로 유신체제가 막을 내린 후 12·12와 5·17비상계엄확대를 통하여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기존의 직선제가 국론을 분열·소모 시킨다는 이유로 미국식 대통령 선거방법을 도입하였다.

1980년 12월 26일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입안 통과시킨 대통령선거법에 의하면, 국민의 직선으로 대통령 선거인을 뽑고 이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거인후보자는 정당인과 무소속이 허용되었으나 이 기관의 업무는 유신 때의 제도와 다를 바 없었다. 1981년 2월 11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는 전국적으로 5,278명의 정수 중 9,479명이 입후보하여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무투표 당선자 288명을 제외한 4,990명이 선출되었다. 선거결과는 민주정의당이 3,667명이 당선되어 전체의 69.5%를 차지하였고, 민주한국당 411명, 국민당 49명, 민권당 19명, 무소속 1,132명이 당선되었다.

무주군은 총유권자 2만6,471명중 2만5,914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97.9%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12명을 선출하는데 신군부가 창당한 민주정의당을 비롯하여 구신민당 출신이 많은 민주한국당과 무소속 등 23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였다. 선거결과 민주정의당 11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되어 민자당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표 3-2-49> 대통령 선거인단 후보자별 상황

선거구명	후보자	년령	직업	주소	득표수	비고
무 주 읍	박 종만 (朴鍾萬)	민정당	중대장	무주읍 읍내리	2,249	당선
	정 희철 (鄭熙喆)	민정당	농협	무주읍 읍내리	3,023	당선
	권 호준 (權鎬俊)	민한당		무주읍 오산리	2,085	
무 풍 면	신 동춘 (申東春)	무소속		무풍면 현내리	806	
	양 병구 (梁炳九)	민정당	양조업	무풍면 현내리	1,266	당선
	하 태술 (河泰述)	민정당	농협	무풍면 현내리	889	당선
설 천 면	박 희권 (朴喜權)	민한당		설천면 청양리	442	
	이 기철 (이기철)	무소속		설천면 소천리	182	
	강 창원 (姜昌遠)	민정당	상업	설천면 소천리	1,160	당선
	김 석환 (金碩煥)	무소속		설천면 삼공리	394	

선거구명	후보자	년령	직업	주소	득표수	비고
설 천 면	박 희옥 (朴喜沃)	무소속		설천면 삼공리	440	
	양 창모 (梁昌模)	민정당	농업	설천면 심곡리	1,317	당선
적 상 면	김 인배 (金仁培)	무소속		적상면 괴목리	414	
	강 영만 (姜永萬)	민정당	축산업	적상면 사천리	1,640	당선
	전 칠성 (全七星)	민한당		적상면 삼가리	432	
	박 용배 (朴用培)	무소속		적상면 북창리	508	
	김 영주 (金永柱)	민정당	농업	적상면 괴목리	852	당선
안 성 면	김 종호 (金鍾淏)	민정당	농업	안성면 소천리	2,242	당선
	김 용칠 (金容七)	민정당	농업	안성면 사전리	1,718	당선
	김 혁태 (金赫泰)	민한당		안성면 장기리	1,442	
부 남 면	황 의주 (黃義周)	무소속	농업	부남면 목유리	1,044	당선
	김 종하 (金鍾河)	민정당	농업	부남면 가당리	873	당선
	김 진녕 (金眞寧)	민한당		부남면 대소리	516	

제6절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茂朱郡選擧管理委員會)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사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1963년 1월 16일 법률 제 1255호로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1963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창설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 후 몇 차례에 걸친 규칙변경 등을 통하여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16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243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고려하여 읍·면·동별로 13,783개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읍·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에는 무주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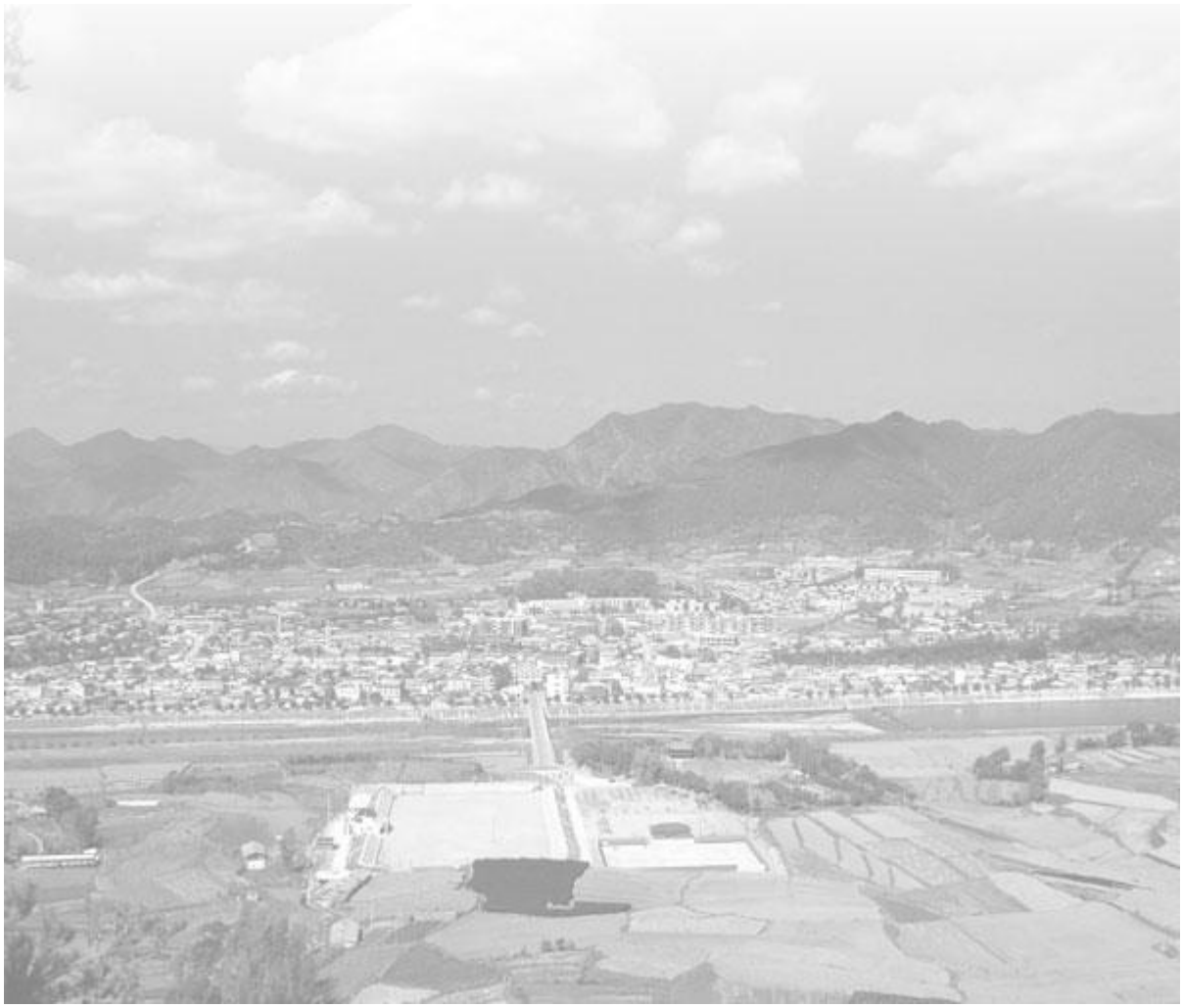
8투·무풍면 3투·설천면 4투·적상면 4투·안성면 6투·부남면에 3투가 설치되어 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제3편 제6장 유관기관 참조]

■ 참고문헌

<정당의 변천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2
<연합연감 97> 연합통신사. 1997
<새벽사의 현장-기자가 본 광복에서 제5공화국까지> 한국편집기자협회. 1982
<고쳐 쓴 한국현대사> 강만길. 창작과 비평사. 1994
<해방후 정치사 100장면> 김삼웅. 가람기획. 1994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 박현채. 소나무. 1992
<우리 역사이야기 3> 조성오. 돌베개. 1993
<한국 현대사 1·2> 한국역사연구회. 풀빛. 1991
<강좌 한국현대사> 역사학연구소. 풀빛. 1991
<한국 인물사> 신한국사연구회. 태을출판사. 1994
<한국야당사> 이기택. 백산. 1984
<박정희 살해사건 비공개 진술 전녹음 최초정리 상·하> 김재홍. 동아일보사. 1994
<전환시대의 논리> 이영희. 창작과 비평사. 1999
<대한민국 50년사 1·2> 임영태. 들녘. 1998
<김대중 죽이기> 강준만. 개마고원. 1995
<야당 40년사> 이영석. 인간사. 1987
<한국정당정치변동> 최한수. 세명서관. 1999
<97 대선 완벽가이드 한국의 대통령선거> 월간조선. 1997
<한국정당정치론> 김민하. 교문사. 1978
<한국정치론> 김학준. 한길사. 1983
<현대선거론> 박승재. 법문사. 1977
<대한민국정당사 제2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1
<조선일보 1987. 12. 17자 13대 대선보도>
<조선일보 1992. 12. 18자 14대 대선보도>
<조선일보 1997. 12. 18자 15대 대선보도>
<조선일보 1992. 3. 25자 14대 총선보도>
<조선일보 1996. 4. 12자 15대 총선보도>
<조선일보 2000. 4. 13자 16대 총선보도>

<전북일보 1992. 3. 25자 14대 총선보도>
<전북일보 1996. 4. 12자 15대 총선보도>
<전북일보 2000. 4. 13자 16대 총선보도>
<익산시사> 익산시.
<남양주군지>. 남양주군.
그 외 조선일보. 동아일보. 월간조선. 역사비평 등

[집필 : 황일태]



제3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제도

1. 지방지치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여 주민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지역내의 문제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원리와 제도, 과정, 내용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중앙정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 이를 단체자치라 하고, 지방자치를 자치단체 안의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민의 참여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때 이를 주민자치라고 한다.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지역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 받아 일정한 공공사무에 관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지방행정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민의 참여 속에서 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수행토록 하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자치단체(광역단체로 특별시, 광역시, 도와 기초단체로 시·군 자치구)가 설립되어 주민을 위한 자치를 하게 된다.주민은 자치단 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되도록 감시와 통제를 하게 되며 중앙정부도 자치단체를 지도 감독하게 된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구축, 주민에 대한 민주정치의 교육 훈련, 주민의 정치 및 행정에의 참여 보장, 지역별 실정에 맞는 행정을 통한 행정효율 증대, 주민 스스로의 행정에 의한 책임과 주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방의 경쟁력을 결집하여 세계화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증대 시키기 위한 방안이며, 자치단체나 지방기업 및 지역주민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력을 고취

시킴으로써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주민 입장에서 보자면,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가능성 때문이기도 하다.

2. 지방지치의 본질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는 무주군 입장에서 보자면, 무주 지역 주민들이 그들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자는 것이다.

무주 지역의 공동체 운영이나 발전에 대해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 체인 전라북도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무주군 당국자나 무주군민의 의사결정이나 참여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더구나 무한경쟁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여건에서 각 지역이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면,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결정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구조가 필수적이다.

3.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무주군이라는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무주군수를 정점으로 하는 집행기 관과 무주군의회의 두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집행기관과 지방 의회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자치단체 운영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 존립 목적이 되는 공공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기관은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구성되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 라 기관구성 유형은 크게 기관통합형과 기관분립형으로 분류된다.

기관통합형은 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의회에서 모두 담당하는 형태로 국가권력구조에 있어서 의원내각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며 권력통합주의에 입각해 있다. 기관통합형제도에서의 의회는 정책결정을 포함한 정책집행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의회가 지방정부가 된다. 기관통합형제도는 주민자치적 전통이 강한 영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호주, 위원

회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중소도시 일부에서 채택하고 있다.

기관분립형은 의사결정기능을 담당하는 의회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을 분리하는 형태로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수장 제 형태이다. 이 형은 집행기관의 선임형태에 따라 미국, 프랑스, 서독, 일본 등에서와 같은 선거형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기관통합형과 기관분립형은 각각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채택하는 국가 의 역사와 문화, 정치·사회적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 기관분립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두면서 외부적으로 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합관리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두고 있다.

무주군에서 보는 것처럼 지방의회와 단체장은 법령에 의해 각각의 권한을 부여 받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는 '권한의 분리와 배분원칙'에 입각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무주군수는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행정기관'으로서 외부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며, 자치단체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지위를 지니고 있다.

자치단체의 장은 외부에 대하여 당해 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여기서 대표란 단체장의 행위가 그 자치단체의 행위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의회의 주민 대표성이 정치적 의미의 대표로서 자치단체의 내부적인 의사의 형성을 위한 것인데 반하여, 자치단체 의 장이 가지는 대표권은 행정행위나 사법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법적 대표를 의미한다.

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행정전반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 고, 그의 일체성과 종합성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사무를 처리한다.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단체장과 행정기구, 소속행정기관 등을 설치하며, 단체장은 이들 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시하고 지휘·감독하는 등 최종적 권한과 책임 을 진다.

자치단체장이 보유하는 권한은 크게 사무의 관리집행권,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소속행정기관 및 하급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기관 및 시설의 설치권, 규칙제정권, 지방 의회에 대한 견제권한 등으로 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통제 및 감시기능 등이 있다. 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자치권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등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는 의결권, 조례제정 권, 예산심의 및 결산심의권, 조사 및 감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

1.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를 위해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1)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에 예시된 사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

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관리
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1급 하천, 지방2급 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화재예방 및 소방

2) 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가.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간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무가 서로 경합 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3)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

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 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권 을 보유한다. 자치권이란 자치단체가 그 존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능을 가지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제도적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그 소관업무를 자기의 창의와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능력을 말하기도 하는데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1)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능으로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립하는 기능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권과 규칙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1) 조례제정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의결하고 자치 단체장이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이다.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례제정권을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2) 규칙 제정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하는 법규이다. 따라서 규칙은 법령이나 조례 등 상위규범의 위임에 의하여 정립되는 위임규칙과, 위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위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립하는 직권규칙이 있다. 따라서 규칙은 조례의 하위 규범이고 규칙에 대하여 조례는 우위에 있는 것이다.

2) 자치조직권

지방자치단체에는 자기의 행정기구, 정원, 보수, 사무분장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권능이 있는 바 이를 자치조직권이라 한다. 영·미 국가에서는 자치조직권이 넓은 반면, 대륙계 국가에서는 비교적 폭넓은 제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조직권의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사항 중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과 그 폐치·분합,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및 그 폐치·분합, 행정동·리의 설치 또는 변경, 행정 동·리에 두는 하부조직은 이를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조직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설치,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집행기관의 행정조직 중에서 직속기관·사업소 및 출장소의 설치,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자문기관의 설치 등은 조례로, 부시장·부구청장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시·도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실·과 조직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실·과 조직은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자치재정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관리하는 권능을 말한다. 자치재정권은 재정적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과 재산 및 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을 징수하고 그들의 체납에 대하여 강

제집행권과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조세 등을 포탈한 자,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등에 대한 벌금·과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자치행정권

자치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사무를 가지고 원천적으로 국가의 관여를 받음이 없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 받고 있다.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즉, 같은 광역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특별시와 광역시·도가 다르고, 자치구와 시·군이 다르며, 시중에서도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일반 시 보다는 폭 넓은 자치행정권이 부여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은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권력행정작용과 관리행정작용을 구분 할 수 있다. 전자의 내용으로 자치단체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의 통제작용으로 행하고, 경제·사회의 질서를 위하여 각종의 규제와 부담을 과할 수 있는 것이다. 후자의 내용으로 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사회복지행정을 수행하며, 민간의 활동과 지 원·보조하는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

1) 선거·투표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와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다.

2)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

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3) 주민의 감사청구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4) 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4.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기관인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1) 지방의회의 의결 권한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외에도 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서류제출요구 권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자치단체 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4)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

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 변하여야 한다.

5) 의회규칙 제정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변천

1. 한국에서의 지방자치 흔적

한국에서도 일제의 침략이 있기 이전까지 나름대로의 고유한 지방자치의 전통이 계승되어 왔다. 지역의 향회 및 촌회제도로 이어졌던 전통이 바로 그것이다.

1) 조선시대의 지방분권

갑오개혁 이전까지 조선의 통치체제가 상당히 지방분권적 이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군현승강제도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에서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즉 군현승강제도는 충신이나 역신이 나왔을 경우에 해당 군·현의 품격을 올리고 내리는 일종의 집단 상벌제도인 것이다.
둘째, 상당수의 월경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선시대의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력 이 매우 취약했음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월경지는 특정 행정구역의 일부가 몇 개 군·현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15세기 초 월경지의 수는 130여 개에 이르렀으며 그 후 새로 형성되거나 소멸되면서 그 수효가 점차 줄어들었으나, 1906년 지방행정구역의 정비가 이루어질 때 까지도 상당수의 월경지가 존재하였다.
셋째, 인사행정의 지방분권적 운영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 중앙정부는 수령의 임용까지만 관여하였고, 수령 이하 향리나 아전의 임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단지, 중앙정부는 향리들의 정원만 일률적으로 정했을 뿐이다.
넷째, 조선시대는 향리들의 막강한 행정실무 권한이 지방관의 중앙집권적 역할을 크게 제약 시켰다. 무엇보다도 연고가 없는 지방관의 경우 당해 지방실정에 밝은 향리들의 행정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들의 권한을 강화시키게 만들었던 것이다.

다섯째, 조선시대의 면·리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지방 행정 단위였다. 중앙정부의 지시는 군·현의 수령까지만 전달되었고 면·리의 행정에는 단 지 수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었다.

여섯째,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는 도·군·현·면·리의 3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군·현과 면·리는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의 요건을 두루 갖춘 지방기관 들이었다. 이를테면, 군·현은 국왕이 임명한 수령이 지방세력을 대변하는 향회 또는 유향소의 일정한 통제를 받는 가운데 막강한 통치권을 행사하였지만 면·리는 주민의 의사가 일정 부분 반영되어 선임된 면·리장이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2) 갑오·광무개혁기의 주민자치 전통

이 시기의 대표적인 주민자치의 전통으로는 향회나 향장을 들 수 있다. 갑오개혁기의 향회제도는 당시 향촌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던 주민 자치의 전통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894년 7월 개화파 정권은 민원의 근원이 되어 온 조세행정의 부패를 줄이고 국가재정을 늘이기 위해 징세행정을 향회에서 선출된 향원들에게 맡기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일제의 반대에 따라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1895년 11월 개화파 정권은 기존의 향회를 지방정부의 공식기관으로 법제화하는 '향회조 규'와 '향약변무규정'을 공포하였다. '향회조규'는 군회, 면회, 리회 세 등급의 향회를 두도록 하였다. 군회는 군수와 각 면의 집강 및 각 면에서 공선한 2인으로, 면회는 집강과 각 리의 존위 및 각 리에서 공선한 2인으로, 그리고 30호 기준으로 설치되는 리회는 존위와 각 호 1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향회는 교육, 호적, 지적, 위생, 도로, 교량, 세목, 납세 등의 12가지 지방사무를 다루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단위 향회의 주재자인 존위, 집강, 군수는 향회의 회의 날짜와 장소를 정하되, 표결에는 참가하지 않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지며,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갑오개혁기에 제시된 향회제도의 시행이 중단되면서 1896년 8월 중앙정부는 이에 대신하여 향장제를 공포하였는데 중앙정부는 한성부를 제외한 각 부와 일부 군을 제외한 각 군에 향장 1명씩을 두도록 하였다. 향장은 해당 지역에서 7년 이상 거주하고 능력과 덕망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지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지도자로서 군수에 의해 임명되도록 하자는 것이

었다. 향장은 향청에 근무하면서 군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군수의 행정사무를 돕는 일종의 지방관리에 불과했지만 민의를 상달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수행토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처럼 근대 국가 이전의 지방자치적 요소는 향청과 향회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에서도 오늘날의 지방의회와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일종의 대의 제적 성격에 대한 관심은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3) 일제의 기만적인 지방자치제(1920년~1945년)

일제는 3·1 독립운동 이후 한국민의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을 약속 하였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지방자치의 기반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기에 그 전단계로 자문기관을 설치한다면서 부협의회와 면협의회, 도평의회를 내 놓았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제는 읍을 신설하고, 종래의 하급행정기관에 지나지 않았던 면, 도와 신설된 읍을 공법인으로 인정하여 도, 부, 읍, 면의 각급 지방 행정기관들을 적어도 법제상 지방자치단체들로 만들며, 이제까지 자문기관에 불과했던 부, 면협의회와 도평의회 대신에 의결기관인 부회, 읍회, 도회를 설치하는 등 일련의 지방제도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1930년대 초의 지방제도 개편은 외형상으로는 지방자치 제도 도입처럼 보였지만 그 내막은 문화통치 수단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었다.

4) 미군정기의 지방자치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으로 그 해 9월 한반도 이남을 통치하게 된 미국은 조선총독 부 통치체제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군의 직접 통치체제를 구축한 다음 점차 행정권을 한국인 관료들에게 이양하여 간접통치방식으로 나아가다가 군정 말기에 남조선 과도정부를 출범시켰다.

미군정은 그 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지방자치제도의 수립·육성을 표방하고 또 그 방향으로 지방행정제도의 개혁을 시도했지만 서류상으로 그치고 말았다. 미군정은 1946년 11월 실현되지 못한 지방자치법규인 “도 및 기타 지방의 관공리, 의회의원의 선거”를 공포하였다. 이 법은 도지사, 부윤, 군수, 읍·면장과 도회, 부회, 읍·면회의 의원들은 모두 일반, 보통, 비밀선거로 뽑는 것을 규정하는 등 매우 선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군정청의 지방의회 해산권과 지방의회의 의결취소권을 인정하는 등 군정의 본질적 한계를 드러냈었다.

5) 지방자치법의 제정 및 시행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지방대의제적 자치제도의 터전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에 지방자치 조항이 규정되면서부터 이다.

건국당시의 지방행정조직은 조선총독부의 지방관제에 의했던 것이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헌법규정에 따르는 지방자치법의 제정을 전제로 한 6개월 시한부 법이었다. 그러므로 정부 는 지방자치법의 제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안은 1948년 8월 20일 제1회 국회 제45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1949년 1월 31일 법사, 내무 중앙위원회에 제출되었고, 동년 2월 2일 제20차 본회의에 상정 되었다. 동 자치법안은 동년 3월 9일 제49차 본회의에서 수정·통과되었다. 그러나 동 법안 은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였고, 국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정부는 4월 26일자로 국토의 분단과 치안상태 및 제반 정세를 고려하여 동법을 공포한 후 1년 이내에 시행하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제의요청을 해 왔다. 그러나 제2회 국회의 폐회로 인하여 동 법안은 자동 폐안 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1949년 5월 30일에 개최된 제3회 국회 제7차 본회의는 내무, 법사, 양 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법안을 재입안 하여 제출하도록 결의하였다. 동년 6월 14일에 법안은 제출되었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공포되 어 동년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최초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 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임명제로 해야 한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그 이유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각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연혁을 보더라도 완전자치는 하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작하여 상급지방자치단체로 올라가는 것이 상례라는 것이었다.

또한 당시의 각국 추세는 지방자치로부터 중앙집권으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경찰권을 가진 도지사 외 서울특별시장까지를 선거한다면 치안상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는 것과, 산업정책, 양곡정책, 농지정책, 국토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인 행정을 해야 할 분야가 많고 긴요하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원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전부 지방의회에 선거하도록 제안한 이유는 지방행정을 민주화한다는 의도보다는 당시 정부의 졸렬한 지방인사를 배제 하

자는 것이었다.

반면,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주민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하 였다.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는 명예직으로 구성하고 의원의 수는 인구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특히 의원을 명예직으로 하였던 것은 당시 주민들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으로는 도에는 군을 두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며, 시, 읍면에는 리와 동을 두도록 하였다. 군수와 구청장은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리, 동장은 주민이 선출하도록 하였다. 국무총리 또는 도지사는 감독상 시, 읍면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지방의회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임투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때 찬성투표를 얻지 못할 때는 그 지방단체장은 당연 해직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지방의회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였으며, 시, 읍, 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하였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각각 21세와 25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의 회기는 매년 2회(정기회와 임시 회) 이상을 한 것 등이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법 제정 및 시행 후 4개월 만인 1949년 12월 15일에 법률 제73호로 지방자치법 제1차 개정을 단행하고 경과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는 내무부장관, 시·읍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시·읍·면장의 선임에 있어서는 시장은 대통령이 , 읍·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동 및 이장은 임명 또는 선거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이다. 도지사는 시, 읍, 면장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탄핵재판소에 그 파면의 소추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첨가하였다.

그러나 곧 이어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지방자치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에서 이르렀다. 따라서 1차 개정에 의해 지방의회에서 선출해야 하는 시·읍·면장도 도지사가 임명 한 채 지방의회의 구성을 미루어 왔다. 헌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제정된 법에 따라 지방자치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방자치의 실시를 단행하지 않았다.

당시의 실상은 분단된 상황에서 정부가 수립된 만큼 우선은 중앙정부차원에서의 통치체제를 갖추는 일 조차 힘에 벅찬 형편이었다. 그러니 지방차지를 통하여 지방마다 의회를 두고 자치정부를 수립해 자가는 일은 가능한 한 밀어보고자 한 것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표 3-3-1>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 변화

구분	제 도 내 용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자치단체장과 의회 관계	비고
지방자치법 제정 1949. 7. 4	· 주민직선제 · 의원임기 : 4년 · 명예직	· 특별시·도:대통령 임명 · 시·읍·면:의회간선	· 장에 대한 불신임권 및 의회해산권 인정	· 특별시, 도, 시, 읍 면
지방자치법 개정 1949. 12. 15	· 시·도는 내무부장관 · 시·읍·면은 도지사의 승인으로 의회의 결 대치	· 특별시·도지사는 대통령 · 시·읍·면장은 도지사가 임명		· 의회구성까지경과 조치 · 시읍면의원선거 (1952. 4. 25) · 시도의원선거 (1952. 5. 10)
1956. 2. 13	· 의원임기단축 : 4년→3년 · 회의일수제한	· 시·읍·면장 직선제 · 임기 : 4년→3년	· 시·읍·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 폐지	· 기초단체의원 및 장 선거 (1952. 8. 8) · 시도의원선거 (1956. 8. 13)
1956. 7. 8	· 의원정원 및 선거구 관계 부분 개정			
1958. 12. 26		· 시·읍·면장 임명제로 전환 · 장에 대한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 부활		
1960. 11. 1		· 모든 단체장 주민직선		· 의회, 단체 장 선거(1960. 12)
1961. 9. 1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시행 읍면자치를 군자치로 변경 자치단체의 장은 임명제로 함 지방의회 의결은 상급관청의 승인으로 대행			
1988. 4. 6 <전면개정>	· 시도와 시군구를 자치단체로 함 · 단체장 주민직선(한시적으로 임명제)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1989. 12. 30	· 지방의회에 행정감사권 인정 · 시도의 부단체장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임명 · 지방의원선거는 1990.6.30, 단체장 선거는 1991.6.30한 실시			· 최초 선출지사의 임기중은 종전대로 임용

구분	제 도 내 용	비고
1990. 12. 31	· 의원겸직금지 확대 · 지방의원선거 1991. 6. 30 · 단체장 선거 1992. 6. 30이내 실시	· 지방의원, 단체장 선거법 별도제정 (1990. 12. 30)
1991. 5. 23	· 의원겸직 금지규정 중 농업, 수산업, 축산업협동조합장 등 제외	· 서울특별시 행정 특례에 관한 법 제정 ('91.5. 31)
1991. 12. 31	· 회의참석의원 여비지급 · 지방의원 체포·구금시 통보제 · 시군·자치구 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둠	
1994. 3. 16	·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 조례로 정할 벌칙을 1,000만원이하 과태료로 제한 · 증언선서 조항 설치 · 단체장에 대한 이행명령제 도입 등	· 자치단체장 선거 1995. 6. 30이전으로 규정
1994. 12. 20	·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정 · 단체장 연임제한 등 · 자치단체 국가공무원 소속장관이 제청(1995. 1 단체장 제청으로 재개정)	
1995. 8. 4	·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기준 설정 등	· 도농 복합시 행정 특례법 규정 개정
1999. 8. 31	· 주민의 조례제안 감사 청구제 도입 · 중앙 및 지방 분쟁조정제도 강화 등	
2000. 1. 12	· 인구 800만 이상 단체 부단체장 3인 규정	

2. 지방선거의 실시

한국에서 지방자치 선거는 1공화국 기간인 1952년 4월 25일에 시・읍・면의회의원을 선출하는 형태로 처음 실시되었다. 그 후 1956년과 1960년에 각각 실시되었고, 31년이 지난 1991년 3월 26일에 시・군・구 등 기초의회 의원선거와, 6월 20일에 시의회 및 도의회의 광역의회 의원선거가 재개되었다. 1995년 6월 27일에는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선거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시장,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기초 단체장을 뽑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처음으로 동시에 실시되었다. 그리고 전국동시지방 선거는 지난 1998년 6・4지방선거로 계속 이어졌다.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1949년 7월에 제정,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선거가 6차례밖에 실시되지 않은 것은, 집권자나 집권세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3-3-2> 역대 지방선거 실시 현황

실시회수	내용	일시	비고
1차선거 (1952)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52. 4. 25(금)	- 1차 지방의원선거
	도의회의원선거	1952. 5. 10(토)	
2차선거 (1956)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56. 8. 8(수)	- 2차 지방의원선거 - 1차 기초단체장선거
	시읍면장선거	1956. 8. 8(수)	
	시도의회의원선거	1956. 8. 13(월)	
3차선거 (1960)	시도의회의원선거	1960. 12. 12(월)	- 3차 지방의원선거 - 2차 기초단체장선거 - 1차 광역단체장 선거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60. 12. 19(월)	
	시읍면장선거	1960. 12. 26(월)	
	서울시장,도지사선거	1960. 12. 29(목)	
4차선거 (1991)	구시군의회의원선거	1991. 3. 26(화)	- 4차 지방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1991. 6. 20(목)	
5차선거 (1995)	제1회동시지방선거	1995. 6. 27(화)	- 5차 지방의원선거 - 3차 기초단체장선거 - 2차 광역 단체장선거
6차선거 (1998)	제2회동시지방선거	1998. 6. 4(목)	- 6차 지방의원선거 - 4차 기초단체장선거 - 3차 광역단체장 선거

선거명	선거일	지방자치단체수 (선거구수)	선거실시 지방자치단체수 (선거구수)	정수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52. 4.25(금)	1,542	1,397	17,559
도의회의원선거	1952. 5.10(토)	9	7	306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56. 8. 8(수)	1,491	1,458	16,961
시읍의장선거	1956. 8. 8(수)	1,491	580	1,491
시도의회의원선거	1956. 8.13(월)	10	10	437
시도의회의원선거	1960.12.12 (월)	10	10	487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60.12.19 (월)	1,518	1,468	16,909
시읍면의장선거	1960.12.26 (월)	1,468	1,468	1,468
서울시장,도지사선거	1960.12.29 (목)	10	10	10
구시군의회의원선거	1991. 3.26(화)	3,562	3,562	4,304
시도의회의원선거	1991. 6.20(목)	866	866	866
제1회전국동시지방선거	1995. 6.27(화)	4,885	4,885	5,758
제2회전국동시지방선거	1998. 6. 4(목)	4,347	4,347	4,428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총람』(199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데이터베이스 참고.

역대 지방의원 선거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52년 1차 지방선거 : 1차 지방의원 선거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는 6.25 한국전쟁의 기간 중(1950. 6. 25 - 1953. 7. 27)이라 할 수 있는 1952년에 4월과 5월에 실시되었다. 한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2대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없어진 이승만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로의 헌법개정을 위한 여론 동원의 수단으로 지방선거를 실시하였고, 자유당을 통한 지방선거의 승리와 함께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내고 2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게 된다.

이 당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와 도가 기본 단위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시·읍·면이 기본 단위였다. 1952년 4월 25일에는 시·읍·면 의회의 의원선거가 먼저 실시되었고, 5월 10일에 는 도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전시 중이므로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 때는 정당추천이 가능하였고, 광역 및 기초의회 모두 중선거구제를 실시하였다. 당시 무주군 지역 선거에서 당선된 면의원과 도의원은 다음과 같다.

<표 3-3-4> 무주지역 1대 면의원 당선자(1952. 4. 25)

구 별	무 주 면	무 풍 면	설 천 면	적 상 면	안 성 면	부 남 면
당선자	김 각 균	김 동 섭	김 병 택	김 병 기	강 동 기	강 규 배
	김 동 헌	김 병 국	김 상 식	김 영 래	강 홍 구	김 대 곤
	김 복 태	김 철 권	김 상 열	김 재 경	김 용 선	김 진 석
	김 흥 구	박 학 로	김 태 성	김 정 기	김 용 원	김 형 순
	김 흥 이	성 기 식	백 기 창	김 종 한	김 종 록	송 희 봉
	박 문 식	송 봉 기	백 명 수	박 판 술	김 천 수	양 철 현
	신 동 기	이 규 철	이 현 상	유 지 양	김 철 수	이 병 형
	신 재 학	최 락 운	장 윤 달	임 학 봉	박 찬 구	주 낙 기
	이 병 량	최 원 열	장 헌 달	전 기 태	박 호 서	주 대 식
	이 채 옥	하 인 환	최 병 익	전 태 섭	석 용 균	황 녹 주
	장 두 업	하 헌 록		조 봉 기	심 우 섭	
	진 홍 기	현 영 희		최 병 욱	주 복 성	
	한 태 석				한 장 석	
	허 희 경					

<표 3-3-5> 무주지역 1대 도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1952. 5. 10)

후보자 성명	연 령	직 업	주 소	학력 및 경력	소 속	기 타
김 용 환	42	양조업	무풍면		한 청	당선
김 이 중		공무원	무주면		무소속	
최 병 택		농 업	안성면		국민회	
백 락 은	34	〃	설천면		한 청	

1952년 6월에 실시한 무주지역 면장선거는 면의회에 의해 간선제로 선출되었는데 당선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6> 무주지역 면장 당선자(1952. 6. 15 면의회 간선)

구 별	무 주 면	무 풍 면	설 천 면	적 상 면	안 성 면	부 남 면
당선자	김진원	하태석	김태옥	송재창	현규업	주성조
	송재황	☜ 김진원의 군수전임으로 후임으로 선출				

2) 1956년 2차 지방선거 : 2차 지방의원, 1차 단체장 선거

1956년 2월 13일에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있었다. 시·읍·면장에 대한 지방의회 간선과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임제도가 정국의 혼란을 가져오고 단체장의 권한이 제약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 제도에 수정이 가해졌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단체장의 의회 간선제가 주민 직선제로 바뀌어지고, 또한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임 제도도 폐지되었다(1956년 2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이러한 변화된 내용에 따라 두 번째 지방선거가 1956년 8월에 실시되었는데, 8월 8일에는 시·읍·면 의회 의원선거와 직선에 의한 시·읍·면장 선거가 있었고, 5일 후인 8월 13일에 는 서울특별시·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서울특별시장·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였고, 시·읍·면장의 경우 잔여 임기지역은 선거를 실시하지 않아 총 1,491개의 선거수 중에서 580개만 실시하였다.

이 선거에서도 정당추천이 가능하였고, 기초의회는 중선거구제를 그대로 실시하였으나, 광역의회는 소선구제로 선거구 획정 방식을 바꾸었다.

<표 3-3-7> 무주지역 2대 면의원 당선자(1956. 8. 8)

구 별	무 주 면	무 풍 면	설 천 면	적 상 면	안 성 면	부 남 면
당 선 자	김 복 태	김 병 국	김 병 택	김 영 래	강 원 석	김 대 곤
	김 종 훈	김 봉 규	김 정 석	김 하 기	김 봉 수	김 세 곤
	김 준 희	김 학 소	김 종 성	박 판 술	김 영 석	김 진 석
	김 한 형	박 익 서	박 용 성	최 군 희	김 용 득	김 형 순
	신 우 철	신 인 철	박 위 하	김 종 한	박 찬 기	김 호 곤
	안 병 근	신 재 수	박 희 찬	윤 창 학	이 문 석	유 종 필
	이 채 옥	이 두 화	배 재 옥	한 태 광	이 재 광	정 의 섭
	정 대 성	이 종 선	서 상 원	임 종 규	이 태 영	조 남 훈
	진 홍 기	최 낙 운	이 현 성	배 유 택	정 태 진	주 낙 기
	최 영 택	최 연 호	장 판 준	유 지 완	조 선 구	황 녹 주
	한 태 석	최 지 탁	조 용 만	박 종 관	주 복 성	황 용 주
	허 희 경	황 상 술			홍 종 희	

<표 3-3-8> 무주지역 면장 당선자(1956. 8. 8 주민 직선)

구 별	무 주 면	무 풍 면	설 천 면	적 상 면	안 성 면	부 남 면
당 선 자	송 재 황	하 태 석	성 봉 환	송 재 창	강 영 구	주 성 조
		하 천 수	☜ 하태석의 사임으로 보궐선거 통해 선출됨			

무주면의 경우 기득권 인정으로 선거 미 시행

<표 3-3-9> 무주지역 2대 도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1956. 8. 13)

후보자 성명	연 령	직 업	주 소	학력 및 경력	소 속	기 타
백락은	38	농 업	설천면		자유당	당선
김철수		〃	안성면		무소속	
김용환	46	양조업	무풍면		〃	

3) 1960년 3차 지방선거 : 3차 지방의원, 2차 단체장 선거

3.15 부정선거와 4.19 학생혁명으로 이승만의 자유당이 몰락하고 민주당이 집권한 1960년 12월에는 3차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제3차 지방선거는 4차례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서

울특별시·도의회의원(12월 12일), 시·읍·면 의회 의원(12월 19일), 시·읍·면장(12월 26일) 및 서울특별시장·도지사(12월 29일)를 모두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였다.

이 시기에도 정당추천이 가능하였고, 광역의회는 소선거구제, 기초의회는 중선거구로 하여 구성토록 하였다. 서울시장·도지사를 뽑는 최초의 광역단체장 선거가 이 시기에 실시되었다.

3대 도의원 선거에서는 무주, 적상, 부남면을 합쳐 1구로 했고, 무풍, 설천, 안성면을 합쳐 2구로 조정하여 무주군의 도의원 정원이 2명으로 늘어났다.

<표 3-3-10> 무주지역 3대 도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1960. 12. 12)

구별	후보자 성명	연 령	직 업	주 소	학력 및 경력	소 속	기 타
1	송 재 황	42	무	무주면	고 졸 무주면장	신민당	당 선
1	변 동 초	32	회사사장	〃	중 졸 천흥운수사장	민주당	
2	김 용 환	50	양조업	무풍면	전주고졸 초대 도 원	〃	당 선
2	김 견 수	32	농 업	안성면	중 졸 신문지국장	신민당	

<표 3-3-11> 무주지역 3대 면의원 당선자(1960. 12. 19)

구 별	무 주 면	무 풍 면	설 천 면	적 상 면	안 성 면	부 남 면
당 선 자	김 기 연	김 두 화	구 석 현	강 군 희	김 대 성	김 대 곤
	김 송 권	김 병 국	김 경 생	김 종 한	김 용 덕	김 병 수
	김 종 수	김 선 중	김 종 성	박 판 출	여 홍 철	김 진 석
	김 희 진	김 학 소	박 포 용	배 유 택	이 치 복	김 호 곤
	박 문 식	박 영 하	배 재 옥	유 지 완		송 희 봉
	박 봉 근	신 인 철	서 상 원	윤 창 학		유 종 필
	신 경 선	이 상 래	양 창 모	이 기 준		이 왕 열
	양 기 석	이 종 선	이 현 무	전 기 봉		이 재 국
	유 근 춘	최 락 운	조 판 규	정 용 봉		주 락 기
	이 장 우	최 연 호		최 성 만		황 용 주
	이 채 옥	최 지 탁				황 의 주
	한 복 열	하 벽 수				

<표 3-3-12> 무주지역 면장 당선자(1960. 12. 26 주민 직선)

구 별	무 주 면	무 풍 면	설 천 면	적 상 면	안 성 면	부 남 면
당 선 자	김 각 균	이 태 철	성 봉 환	박 승 석	하 명 구	김 용 근

4) 1991년 4차 지방선거 : 4차 지방의원 선거

자유당 정부의 붕괴로 민주당 정부에 의해 강화된 지방자치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중지되고 말았다. 당시 정권을 잡은 군부세력은 지방의회를 해산하면서 지방자치를 정지시켰고, 1972년 유신헌법 부칙 조항에서 지방자치는 통일 이후에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는 30여년간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고 신군부의 등장, 1980년 5.18광주민주화투쟁으로 이어지는 정치 상황에서 국민의 민주화 욕구가 폭발적으로 제기되었으며 1986년 당시 민정당 노태우 대표에 의해 이른바 6.29선언이 제기되었다. 6.29선언에는 지방자치의 실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후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다.

지방자치 부활 노력은 중앙정치권에서 야당 세력의 끈질긴 공세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러 한 연유로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반영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당들의 협상과 타협의 산물로 지방자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정당들이 그만큼 지방자치 과정을 정치적 충원 구조로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커진 셈이다.

이렇게 해서 5·16 쿠테타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는 1991년 부활하였다. 1991년 3월 26일 전국적으로 시·군·자치구 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6월 20일 특별 시·광역시·도의 광역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당시에는 의회만 구성하고 단체장은 여전히 임명함으로써 반쪽 짜리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수준이었다.

한편으로 과거에 지방자치를 실시하던 읍·면은 자치구역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기초단체로서 시·군·자치구, 광역단체로서 특별시·광역시·도를 새롭게 자치단체로 규정하였다.

광역·기초의회 모두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인구초과 당 인원수를 늘리는 중 선거구제를 병행하였다. 정당추천은 단체장, 광역의회에 한정되었고 기초의회에서는 배제 되었다.

1991년 3월 13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전국 시군구 기초의원선거에는 의원정수 4천3백4명에 총 1만1백20명이 후보 등록, 2.3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호남지역에서는 민자당 당적

후보가 4백69명 등록한데 반해 평민당 당적후보는 8백38명으로 두 배 가까웠으며, 민주, 민중 등 기타 정당 당적후보는 찾기 힘들 정도였다.

당시 전국 기초의원 후보자 등록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표 3-3-13> 전국 기초의원 후보자 등록 상황

지 역	후 보 자	경 쟁 률	비 고
서 울	1440명	(1.9대 1)	
부 산	605명	(2.0대 1)	
대 구	288명	(1.6대 1)	
인 천	280명	(1.8대 1)	
광 주	247명	(2.2대 1)	
대 전	191명	(2.1대 1)	
경 기	1431명	(2.7대 1)	
강 원	672명	(2.8대 1)	
충 북	414명	(2.4대 1)	
충 남	614명	(2.8대 1)	
전 북	749명	(2.7대 1)	
전 남	933명	(2.8대 1)	
경 북	1014명	(2.5대 1)	
경 남	1147명	(2.5대 1)	
제 주	95명	(1.9대 1)	
합 계	10120명	(2.35대 1)	

전북도내 기초의원 후보 경쟁률은 2.7대 1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7명 정원에 20명이 등록한 무주군의회 의원 후보 경쟁률은 2.8대 1을 기록하여 군의회에 대한 관심이 어느 곳보다도 높은 편이었다.

<표 3-3-14> 무주지역 군의원 후보 득표(1991. 3. 26)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주읍			무소속 이일석	무소속 권혁상	무소속 이성만	무소속 김영기	무소속 김재환			
	7,385	5,655	1,360	665	965	1,011	1,521	5,522	133	1,730
무풍면			무소속 김원수	무소속 김병현	무소속 이종근					
	2,588	2,083	571	545	899			2,015	68	505
설천면			무소속 양창모	무소속 김영길	무소속 최병용					
	3,853	3,074	953	1,313	728			2,994	80	779
적상면			무소속 김광성	무소속 박용배	무소속 강영만					
	3,363	2,663	1,242	482	854			2,578	85	700
안성면			무소속 김종호	무소속 김혁태	무소속 박창수					
	5,398	4,153	1,264	1,860	916			4,040	113	1,245
부남면			무소속 최해수	무소속 신현령	무소속 정용환					
	2,011	1,579	559	394	568			1,521	58	432

<표 3-3-15> 무주지역 군의원 당선자(1991. 3. 26)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주 소	학 력	경 력
무 주 읍	무소속	이일석(李日錫)	남	56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034	무주농고졸	평민당중앙위원
무 주 읍	무소속	김재환(金在煥)	남	66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57	무 주 공 립 보 통 학 교	무주면장
무 풍 면	무소속	이종근(李鍾根)	남	43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1967-1	영남상고졸	민정당무풍면지도장
설 천 면	무소속	김영길(金永吉)	남	46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1041-3	설 천 중 졸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적 상 면	무소속	김광성(金光成)	남	58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325-1	적상국교졸	적상농협장
안 성 면	무소속	김혁태(金赫泰)	남	42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511-37	안 성 고 졸	국회의원 비서관
부 남 면	무소속	정용환(程龍煥)	남	40	무주군 부남면 장안리 1514	안 성 고 졸	평민당 부남지부장

1991년 6월에 치러진 전국 시도 광역의원 선거에는 의원정수 8백66명에 2천8백77명의 후보가 등록, 평균 3.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북도의 경우에는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표 3-3-16> 전국 기초의원 후보자 등록 상황

지 역	후 보 자	경 쟁 률	비 고
서 울	520명	(3.9대 1)	
부 산	210명	(4.1대 1)	
대 구	97명	(3.5대 1)	
인 천	87명	(3.2대 1)	
광 주	82명	(3.6대 1)	
대 전	107명	(4.7대 1)	
경 기	381명	(3.3대 1)	
강 원	185명	(3.4대 1)	
충 북	123명	(3.2대 1)	
충 남	184명	(3.3대 1)	
전 북	145명	(2.8대 1)	
전 남	200명	(2.8대 1)	
경 남	278명	(3.1대 1)	
경 북	229명	(2.6대 1)	
제 주	49명	(2.9대 1)	
합 계	2,877명	(3.32대 1)	

<표 3-3-17> 무주지역 4대 도의원 당선자(1990. 6. 20)

구별	후보자 성명	연령	직업	주소	학력 및 경력	소속	기타
1	김세웅	38	정치인	무주읍내 249-5	방송대 졸	민주당	당선
2	홍낙표	37	자영업	무주 안성 진도 472	전북대 졸	민주당	당선

5) 1995년 5차 지방선거(1차 동시지방선거) : 5차 지방의원, 3차 단체장 선거

5차 지방선거는 1960년 장면의 민주당 정부 이후 지방선거 4가지를 모두 한 날짜에 실시 한 제1차 통합 지방선거, 즉 동시 지방선거였다.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씨가 14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기간내인 1995년 6월 27일 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모두 직접 선거하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5차 지방선거(1차 통합 지방선 거)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장 선거는 당시 여권 진영에서는 여전히 실시를 유보했던 사항이었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야당에 의해 석권 될 것이 명확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과의 정치적 약속을 시행치 않을 수 없는 정치 상황의 전개로 자치단체장 선거가 결정되었다.

1995년 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임기는 3년(1998년 이후 4년)으로 결정 하였는데 이는 국회의원 선거의 중간 시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소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역시 기초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정당추천을 배제하였다. 광역의회에는 비례대표제가 실시되었다.

1995년 선거가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점이었으며, 중앙정치권에서도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에서 얼마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많은 관심을 쏟았기 때문이다.

1995년의 동시 선거의 특징은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정서가 강력하게 반영되어 자치단체장 선거나 도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점이다. 무주군 지역 선거에서도 이러한 점은 예외가 아니어서 도의원 및 무주군수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공천자가 당선되었다.

<표 3-3-18> 무주지역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06. 27) 군의원 후보 등록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무주읍	1	무소속 길 병 무 (吉秉武)	남	59	무주읍 읍내리 818-2	상업 무주국졸	병무상회대표
무주읍	2	무소속 윤 완 병 (尹完炳)	남	39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982	광고업 무주고졸	무주군탁구협회장 무주읍청년회장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무주읍	3	무 소 속 신 경 선 (辛景先)	남	60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077	농업 무주농고졸	면의회의원 상이군경회 무주군지회장
무주읍	4	무 소 속 송 재 호 (宋在浩)	남	37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560-1	농업 무주고졸	무주군 농어민후계자회장 농어촌발전심의의원
무주읍	5	무 소 속 이 일 석 (李日錫)	남	60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034	상업 무주농고졸	무주군의회부의장 민주당대의원
무주읍	6	무 소 속 이 성 만 (李成萬)	남	46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50-1	건설업 무주고졸	무주JC회장 무주군방범자문위원장
무풍면	1	무 소 속 김 원 수 (金元洙)	남	39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764-2	농업 독학	법원공무원시험합격및근무 신민당지방자치대책위원
무풍면	2	무 소 속 이 종 근 (李鍾根)	남	47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1967	농업 영남상고졸	전북인삼협동조합수석이사 무주군의회부의장
무풍면	3	무 소 속 이 대 석 (李大錫)	남	37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650	상업 무풍종졸	U대회추진협의회부회장 무풍청년회장
설천면	1	무 소 속 현 형 원 (玄炯元)	남	39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366-3	건설업 설천고졸	설천고총동창회부회장 설천면 발전회이사
설천면	2	무 소 속 최 병 용 (崔炳勇)	남	51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904-44	상업 설천중중퇴	민주당무주군연락소부소장 아태 평화재단위원
설천면	3	무 소 속 송 병 섭 (宋秉燮)	남	42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373	운수업 설천중졸	무주군4-H 회장 설천중.고 육성회장
설천면	4	무 소 속 강 호 규 (姜鎬圭)	남	43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888-44	사업 설천중졸	민주당무주군운영위원 민주연합청년회무주군부회장
적상면	1	무 소 속 전 병 옥 (全炳玉)	남	41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701	농업 무주고졸	적상면청년회장 적상면자율방범대장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직업 학력	경력
적상면	2	무 소 속 김 대 우 (金大佑)	남	40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728-3	농업 한양공고중퇴	중리리장4년역임 괴목중대부중대장4년
안성면	1	무 소 속 김 종 호 (金鍾淏)	남	60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987	농업 서울대중퇴	평통자문회원 안성단위농협조합장
안성면	2	무 소 속 김 혁 태 (金赫泰)	남	46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511-37	상업 안성고졸	무주군의회의원 민주당중앙대의원
부남면	90	무 소 속 정 용 환 (程龍煥)	남	44	무주군 부남면 장안리 1514	정당인 안성고졸	무주군의회의원 민주당중앙대의원

<표 3-3-19> 무주지역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06. 27) 군의원 후보 득표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주읍			무소속 길병무	무소속 윤완병	무소속 신경선	무소속 송재호	무소속 이일석	무소속 이성만			
	7,521	6,064	393	1,367	994	1,243	433	1,393	5,823	241	1,457
무풍면			무소속 김원수	무소속 이종근	무소속 이대석						
	2,387	1,986	600	546	751				1,897	89	401
설천면			무소속 현형원	무소속 최병용	무소속 송병섭	무소속 강호규					
	3,839	3,273	1,127	600	675	756			3,158	115	566
적상면			무소속 전병옥	무소속 김대우							
	2,936	2,414	1,270	1,040					2,310	104	522
안성면			무소속 김종호	무소속 김혁태							
	4,987	4,073	1,413	2,500					3,913	160	914

<표 3-3-20> 무주지역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06. 27) 군의원 당선자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주 소	학 력	경 력	득표수 (득표율)
무주읍	무소속	윤완병 (尹完炳)	남	39	무주준 무주읍 읍내리 982	무주고졸	무주군탁구협회장 무주읍청년회장	1,367 (23.5)
무주읍	무소속	이성만 (李成萬)	남	46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50-1	무주고졸	무주JC회장 무주군방범자문위원장	1,393 (23.9)
무풍면	무소속	이대석 (李大錫)	남	37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650	무풍종졸	U대회추진협의회부회장 무풍청년회장	751 (39.6)
설천면	무소속	현형원 (玄炯元)	남	39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366-3	설천고졸	설천고총동창회부회장 설천면 발전회이사	1,127 (35.7)
적상면	무소속	전병옥 (全炳玉)	남	41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701	무주고졸	적상면청년회장 적상면자율방범대장	1,270 (55.0)
안성면	무소속	김혁태 (金赫泰)	남	46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511-37	안성고졸	무주군의회의원 민주당중앙대의원	2,500 (63.9)
부남면	무소속	정용환 (程龍煥)	남	44	무주군 부남면 장안리 1514	안성고졸	무주군의회의원 민주당중앙대의원	무투표 당선

<표 3-3-21> 무주지역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06. 27) 도의원 후보 등록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무주군 제1	1	민 자 당 정 희 철 (鄭熙喆)	남	60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1329	농업 단국대중퇴	무주농협조합장 제2대통일주체대의원
무주군 제1	2	민 주 당 김 영 기 (金永基)	남	53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774	운수업 무주중졸	전북발전협의회위원 전북검찰청상임선도위원
무주군 제2	1	민 자 당 김 영 길 (金永吉)	남	51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1043	상업 설천중졸	제2대통일주체대의원 군의회부의장
무주군 제2	2	민 주 당 홍 낙 표 (洪洛杓)	남	40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572	정당인 전북대졸	전라북도의회의원 민주당중앙위원
무주군 제2	3	무 소 속 유 근 남 (柳根南)	남	42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1552-1	농업 안성중중퇴	군정자문위원 무주군농민후계자연합회장
무주군 제2	4	무 소 속 양 선 모 (梁善模)	남	59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728-3	상업 설천중중퇴	구천동지역개발협의회장 U대회무주군추진위원

<표 3-3-22> 무주지역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06. 27) 도의원 후보 득표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주군 제1	12,122	9,769	민자당 정희철 4,511	민주당 김영기 4,775			9,286	483	2,353
무주군 제2	11,213	9,328	민자당 김영길 2,136	민주당 홍낙표 2,683	무소속 유근남 2,059	무소속 양선모 2,049	8,927	401	1,885

<표 3-3-23> 무주지역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06. 27) 도의원 당선자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주 소	학 력	경 력	득표수 (득표율)
무주군 제1	민주당	김영기 (金永基)	남	53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774	무주중졸	전북발전협의회위원 전북검찰청상임선도위원	4,775 (51.4)
무주군 제2	민주당	홍낙표 (洪洛杓)	남	40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572	전북대졸	전라북도의회의원 민주당중앙위원	2,683 (30.1)

<표 3-3-24> 무주지역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06. 27) 군수 후보 등록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직업 학력	경력
1	민 자 당 조 한 준 (趙漢俊)	남	56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004-2	상업 외국어대졸	무주군JC초대회장 민자당수석상무위원
2	민 주 당 김 세 웅 (金世雄)	남	41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49-5	정치인 방송대졸	전북도의회내무위원장 아.태평화재단중앙위원
3	무 소 속 박 재 하 (朴再夏)	남	64	무주군 설천면 길산리 450-1	사업 무주농고졸	전라북도청산업국 근무 무주군농촌지도소근무
4	무 소 속 이 기 철 (李基喆)	남	58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30-12	수의사 전북대졸	민주당지구당부위원장 민주당무주군운영위원회회장
5	무 소 속 이 흥 주 (李興周)	남	60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한불주택 가-102	무 성균관대중퇴	무주군부군수 남원시부시장
6	무 소 속 황 재 성 (黃在性)	남	54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854-3	무 서울대대학원졸	행정고시합격 재무부조세정책과장

<표 3-3-25> 무주지역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06. 27) 군수 후보 득표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민자당	민주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주군			조한준	김세웅	박재하	이기철	이흥주	황재성			
	23,335	19,098	3,899	6,428	2,208	3,161	1,059	1,711	18,466	632	4,237

<표 3-3-26> 무주지역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06. 27) 군수 당선자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주 소	학 력	경 력	득표수 (득표율)
무주군	민주당	김세웅 (金世雄)	남	41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49-5	방송대 졸	전북도의회내무위원장 아.태평화재단중앙위원	6,428 (34.8)

6) 1998년 6차 지방선거(2차 동시지방선거) : 6차 지방의원, 4차 단체장 선거

1997년 12월에는 1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김대중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1998년 6월 4일에는 6차 지방선거(제2차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6차 지방의회 의원, 4차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후 계속 매 4년마다 의원과 단체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통합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기본제도는 5차 선거와 동일하였다.

1998년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특정 정당이 우세한 가운데 무주군에서는 무주군수 선거 가 관심을 끌었는데 그것은 정권교체를 통해 여당으로 변신한 국민회의가 공천한 후보와 현역 군수의 대결이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홍낙표 후보를 공천하였지만 현역 군수였던 김세웅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지역정서에도 불구하고 현역의 기반을 잠식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김세웅 후보가 여유있는 표차로 재선되었다.

<표 3-3-27>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06. 04) 군의원 후보 등록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무주읍	90	무소속 송 재 호 (宋在浩)	남	40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560-1	농업 무주고졸업	무주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무주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
무주읍	91	무소속 윤 완 병 (尹完炳)	남	42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982-2	광고업 무주고 졸업	무주군연합청년회장 역임 무주군의원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무풍면	1	무 소 속 이 대 석 (李大錫)		40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650	상업 증산초교 졸업	무주군의회부의장 무풍교회장로
무풍면	2	무 소 속 김 원 수 (金元洙)		42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764-2	농업 무풍초교 졸업	제1대,2대무주군의회의원 출마 무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설천면	1	무 소 속 강 호 규 (姜鎬奎)		46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888-44	회사원 설천중학교 졸업	무주군 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역임 (현)새정치국민회의 무진장지구당상무위원
설천면	2	무 소 속 현 형 원 (玄炯元)		42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366-3	무주군의회의원 설천고 졸업	설천고 총 동창부회장 무주군의회의원
설천면	3	무 소 속 최 병 용 (崔炳勇)		54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904-44	상업 설천중학교 중퇴	평민당무주군연락소 부소장 ('87년) 설천면 육영재단 이사장 ('97년)
적상면	1	무 소 속 김 대 우 (金大佑)		43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728-3	농업 적상중학교 졸업	새정치국민회의 적상면 지부장 상곡청년회장
적상면	2	무 소 속 전 병 옥 (全炳玉)		44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701	농업 무주농업고 졸업	적상면 청년회장 무주군의회의원
안성면	1	무 소 속 김 혁 태 (金爀泰)		49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29-9	상업 안성고졸업	1대, 2대 무주군의회의원 역임 2대 무주군의회의원 후반기 의장
안성면	2	무 소 속 이 재 호 (李在鎬)		40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06-16	상업 대전 대신고 졸업	민주당 안성지부장 신협 부이사장
부남면	1	무 소 속 양 원 규 (梁元奎)		49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1743-22	농업 부당초교졸업	부남면 상평당 리장 부남면 상평당 새마을지도자
부남면	2	무 소 속 빈 봉 완 (賓奉完)		48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669	자영업 공주대 교육학과 졸업	초등교사 약26년 근무 국민회의 대전동(을)지구당 부위원장
부남면	3	무 소 속 구 현 수 (具鉉洙)		48	무주군 부남면 장안리 1571	농업 대전 상업고 졸업	새정치국민회의 부남면 지부장

<표 3-3-28>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06. 04) 군의원 후보 득표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풍면			무소속 이대석	무소속 김원수				
	2,294	1,890	865	970		1,835	55	404
설천면			무소속 강호규	무소속 현형원	무소속 최병용			
	3,859	3,157	1,181	1,573	305	3,059	98	702
적상면			무소속 김대우	무소속 전병옥				
	2,849	2,364	1,128	1,141		2,269	95	485
안성면			무소속 김혁태	무소속 이재호				
	4,896	4,000	1,915	1,969		3,884	116	896
부남면			무소속 양원규	무소속 빈봉완	무소속 구현수			
	1,566	1,280	484	295	444	1,223	57	286

<표 3-3-29>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06. 04) 군의원 당선자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주 소	학 력	경 력	득표수 (득표율)
무주읍	무소속	송재호 (宋在浩)	남	40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560-1	무주고 졸업	무주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장 무주군 농어촌발전 심의위원	무투표 당선
무주읍	무소속	윤완병 (尹完炳)	남	42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982-2	무주고 졸업	무주군연합청년회장 역임 무주군의원	무투표 당선
무풍면	무소속	김원수 (金元洙)	남	42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764-2	무풍초교 졸업	제1대, 2대 무주군의회의원 출마 무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970 (52.9)
설천면	무소속	현형원 (玄炯元)	남	42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366-3	설천고 졸업	설천고 총 동창부회장 무주군의회의원	1,573 (51.4)
적상면	무소속	전병옥 (全炳玉)	남	44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701	무주농업고 졸업	적상면 청년회장 무주군의회의원	1,141 (50.3)
안성면	무소속	이재호 (李在鎬)	남	40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06-16	대전 대신고 졸업	민주당 안성지부장 신협 부이사장	1,969 (50.7)
부남면	무소속	양원규 (梁元奎)	남	49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1743-22	부당초교졸업	부남면 상평당 리장 부남면 상평당 새마을지도자	484 (39.6)

<표 3-3-30>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06. 04) 도의원 후보 등록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무주군 제1	2	국민회의 정 용 환 (程龍煥)	남	47	전북 무주군 부남면 장안리 1514	정당인 안성고 졸업	제1, 2대 무주군의회의원 국민회의무주군연락소장
무주군 제1	4	무 소 속 김 영 기 (金永基)	남	56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774	택시회사 경영 무주중학교 졸업	5대 전라북도의회의원
무주군 제1	5	무 소 속 이 성 만 (李成萬)	남	49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50-1	건설업 무주고졸업	전 무주군의회의원 전 무주군의회의장
무주군 제2	2	국민회의 김 홍 기 (金弘基)	남	54	전북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600-2	무풍주유소 대표 한양공대 기계공학과 졸업	무주군문화원장 역임 국민회의전북도지부국민화합특위장
무주군 제2	4	무 소 속 류 근 남 (柳根南)	남	45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1552-1	농업 안성중학교 3년중퇴	농업경영인 중앙이사(90~91년) 현 무주군 농촌지도자 회장
무주군 제2	5	무 소 속 양 선 모 (梁善模)	남	62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728-3	상업 설천중학교 2년중퇴	구천동우체국분국장 영동여객 상무이사

<표 3-3-31>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06. 04) 도의원 후보 득표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주군제1			국민회의 정용환	무소속 김영기	무소속 이성만			
	11,971	9,608	3,512	2,451	3,193	9,156	452	2,363
무주군제2			국민회의 김홍기	무소속 류근남	무소속 양선모			
	11,049	9,047	4,604	3,837	0	8,441	606	2,002

<표 3-3-32>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06. 04) 도의원 당선자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주 소	학 력	경 력	득표수 (득표율)
무주군 제1	국민회의	정용환 (程龍煥)	남	47	무주군 부남면 장안리 1514	안성고 졸업	제1, 2대 무주군의회의원 국민회의무주군연락소장	3,512 (38.4)
무주군 제2	국민회의	김홍기 (金弘基)	남	54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600-2	한양공대 기계공학과 졸업	무주군문화원장 역임 국민회의전북도지부국민화합특위장	4,604 (54.5)

<표 3-3-33>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06. 04) 군수 후보 등록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직업 학력	경력
1	국민회의 홍낙표 (洪洛杓)	남	43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572	정당인 전북대 법학과 졸업	연청무주군지구회장 제4.5대 전라북도의회의원
2	무소속 김세웅 (金世雄)	남	44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49-5	공무원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재학	전라북도의회의원(내무위원장) 현 무주군수
3	무소속 백완승 (白完勝)	여	40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684-7	주유소경영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21C 청년 네트웍 바른정치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운영위원

<표 3-3-3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06. 04) 군수 후보 득표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주군			국민회의 홍낙표	무소속 김세웅	무소속 백완승			
	23,020	18,651	7,495	9,694	978	18,167	484	4,369

<표 3-3-35>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06. 04) 군수 당선자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주 소	학 력	경 력	득표수 (득표율)
무주군	무소속	김세웅 (金世雄)	남	44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49-5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재학	전라북도의회의원 (내무위원장) 현 무주군수	9,694 (53.4)

민주당 무주군수 선거가 관심을 끌었는데 그것은 정권교체를 통해 여당으로 변신한 국민회의가 공천한 후보와 현역 군수의 대결이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홍낙표 후보를 공천하였지만 현역 군수였던 김세웅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지역정서에도 불구하고 현역의 기반을 잠식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김세웅 후보가 여유있는 표차로 재선되었다.

<표 3-3-36>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06. 14) 군수 후보 등록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직업 학력	경력
1	국민회의 홍낙표 (洪洛杓)	남	43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572	정당인 전북대 법학과 졸업	연청무주군지구회장 제4.5대 전라북도의회의원
2	무소속 김세웅 (金世雄)	남	44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49-5	공무원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재학	전라북도의회의원(내무위원장) 현 무주군수
3	무소속 백완승 (白完勝)	여	40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684-7	주유소경영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21C 청년 네트웍 바른정치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운영위원

<표 3-3-37>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06. 14) 군수 후보 득표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주군			국민회의 홍낙표	무소속 김세웅	무소속 백완승			
	23,020	18,651	7,495	9,694	978	18,167	484	4,369

<표 3-3-38>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06. 14) 군수 당선자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주 소	학 력	경 력	득표수 (득표율)
무주군	무소속	김세웅 (金世雄)	남	44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49-5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재학	전라북도의회의원 (내무위원장) 현 무주군수	9,694 (53.4)

7) 2002년 7차 지방선거(3차 동시지방선거) : 7차 지방의원, 5차 단체장 선거

2002년 6월에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와 맞물려 선거일을 앞당기거나 늦추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선거는 예정대로 치루어졌다. 이에 따라 2002년 6월 14일 7차 지방선거(제 3차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7차 지방의회 의원, 5차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기본 제도는 5차 선거와 동일하였다.



민선차지시대 선거 벽보

2002년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특정 정당이 우세한 가운데 무주군에서는 민주당 도의원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완병 후보와 민주당 공천을 획득 한 현역의원인 정용환 후보와의 대결, 처음부터 무소속 후보로 출마 한 류근남 후보와 군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민주당 공천을 받은 현형원 후보와의 대결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민주당 공천을 받은 두 후보가 패함으로써 민주당의 공천 시비에 논란 거리를 제공하였다.

<표 3-3-39>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 06. 14) 군의원 후보 등록

선거구명	기호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무주읍	가	김 무 식 (金茂植)	남	56	무주읍 읍내리 339-15	무직 무주농업고등학교 졸	무주군청 내무과장 무주군의회 전문위원
무주읍	나	송 재 호 (宋在浩)	남	44	무주읍 용포리 560-1	농업 무주고등학교 졸	무주군 농업경영인연합회장 무주군의회의원
무주읍	다	추 인 엽 (秋仁燁)	남	45	무주읍 읍내리 466-9 한국빌라403	치공사 원광보건전문대학 졸	우암치과기공소장 무주경실련조직운영위원장
무주읍	라	유 송 열 (柳松烈)	남	40	무주읍 당산리 915	무주읍 진흥회 상임이사 부산해양고등학교졸업	정통속셈학원원장 무주청년회회장
무주읍	마	이 한 승 (李漢勝)	남	45	무주읍 오산리 769-2	무직 무주고등학교 졸	무주읍청년회장 무주읍진흥회부이사장
무주읍	바	신 길 철 (申佶澈)	남	59	무주읍 대차리 803	농업 무주초등학교 졸	부남면사무소개발계장 성광체육과유도회장
무주읍	사	오 세 득 (吳世得)	남	63	무주읍 읍내리 335-6	무주군체육회전무이사 무주농업고등학교 졸	무주읍장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선거구명	기호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무풍면	가	이 상 철 (李相澈)	남	45	무풍면 현내리 262	농업 경상공업고등학교 졸	무풍면농업경영인회장 무풍면자율방범대장(현)
무풍면	나	김 원 수 (金元洙)	남	47	무풍면 철목리 764-2	무주군의회 의원 독학	무주군제3대의회의원 무풍면발전협의회장
설천면	가	장 덕 정 (張德正)	남	58	설천면 소천리 513-1	농업 대구대성고등학교 졸	육군소령 예편 새마을지도자무주군협의회장
설천면	나	박 문 용 (朴文用)	남	56	설천면 소천리 654	농업 설천초등학교 졸	지방농업사무관 설천청년특우회장
설천면	다	강 호 규 (姜鎬奎)	남	50	설천면 소천리 888-44	회사원 설천중학교 졸업	무주군재향군인회사무국장 강호개발(주)대표이사
설천면	라	송 병 섭 (宋秉燮)	남	49	설천면 청량리 373	관광업 설천중학교 졸	민주당무주군지구당고문 미래농촌연구회무주군지회장
적상면	가	이 강 춘 (李康春)	남	46	적상면 사천리 303-10	농업 무주고등학교 졸	한농연무주군연합회장 적상면청년회장
적상면	나	이 해 연 (李海淵)	남	38	적상면 삼가리 2136-1	축산업 연암축산원예전문대 1년 휴학	(현)무주연청부회장 적상면농업경영인회장
안성면	가	이 재 호 (李在鎬)	남	45	안성면 장기리 1306-16	농업 대전대신고등학교 졸	연청무주군지회장 제3대무주군의회의원
안성면	나	김 준 환 (金俊煥)	남	50	안성면 금평리 1842-2	농축산업 한재중학교 2년 중퇴	무주군연청회장 새천년민주당안성면협의회장
안성면	다	박 찬 원 (朴贊元)	남	50	안성면 장기리 1298-2	무 중국심양공업대학 졸	무주군청방재계장
부남면	가	김 정 곤 (金正坤)	남	48	부남면 대소리 443	서비스 전북대학교 물리학과 졸	(주)진성레미콘 (현) 도서대여점 경영
부남면	나	양 원 규 (梁元奎)	남	48	부남면 가당리 1743-22	농업 부당초등학교 졸	부당초등학교진흥회장 무주군의회부의장
부남면	다	구 현 수 (具鉉洙)	남	53	부남면 장안리 1571	농업 대전상업고졸업	무주농협근무 무주농협감사

<표 3-3-40>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 06. 14) 군의원 후보 득표 및 당선자

(괄호안은 득표율)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주읍	7,556	5,639	김무식 1,033 (18.8)	송재호 843 (15.3)	추인엽 528 (9.62)	유송열 935 (17.0)	이한승 859 (16.6)	신길철 560 (10.2)	오세득 728 (13.2)	5,486	153	1,917
무풍면	2,224	1,766	이상철 786 (45.3)	김원수 946 (54.6)						1,732	34	458
설천면	3,773	2,943	장덕정 441 (15.2)	박문용 664 (22.9)	강호규 953 (32.9)	송병섭 837 (28.9)				2,895	48	830
적상면	2,682	2,165	이강춘 1,049 (49.8)	이해연 1,054 (50.1)						2,103	62	517
안성면	4,605	3,532	이재호 1,286 (37.2)	김준환 1,252 (36.2)	박찬원 917 (26.5)					3,455	77	1,073
부남면	1,538	1,214	김정곤 403 (34.3)	양원규 389 (33.1)	구현수 382 (32.5)					1,174	40	324

<표 3-3-41>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 06. 14) 도의원 후보 등록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무주군 제1	2	민주당 정용환 (程龍煥)	남	51	무주군 부남면 장안리 1514	전라북도의원 안성고 졸	무주군의회의장 (현)전라북도의회 의원
무주군 제1	3	무소속 윤완병 (尹完炳)	남	46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982-2	광고인쇄업 방통대1년재학중	무주군공무원 연청무주군지회장
무주군 제2	2	민주당 현형원 (玄炯元)	남	46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366-3	정당인 전주대학교 법정대학 2년 휴학	무주군의회의장 평통무주군협의회장
무주군 제2	3	무소속 유근남 (柳根南)	남	49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1552-1	농축산업 안성중학교 3학년 중퇴	한국농어민후계자무주군협의회장 무주군농촌지도자회장

<표 3-3-4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 06. 14) 도의원 후보 득표 당선자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주군제1	11,776	9,039	민주당 정용환 4,246 (49.0%)	무소속 윤완병 4,411 (51.0%)	8,657	382	2,737
무주군제2	10,602	8,241	민주당 현형원 3,889 (48.7%)	무소속 류근남 4,093 (51.3%)	7,982	259	2,361

<표 3-3-4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 06. 14) 군수 후보 등록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직업 학력	경력
2	민주당 김세웅 (金世雄)	남	49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422	정무직공무원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	전라북도의회내무위원장 민선 1·2기 무주군수
3	무소속 이성수 (李成壽)	남	36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171-7	선녀마을대표 충남대학교 법대법학과졸업	파워비젼21전북대표 무주경실련사무국장
4	무소속 홍낙표 (洪洛杓)	남	48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시장 1506-17	농업 전북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제4·5대전북도의회의원 새천년민주당무진장지구당 부위원장

<표 3-3-44>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 06. 14) 군수 후보 득표 및 당선자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주군	22,378	17,273	민주당 김세웅 8,474 (50.3%)	무소속 이성수 2,933 (17.4%)	무소속 홍낙표 5,425 (32.2%)	16,832	441	5,105

제4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기능 수행

1.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변화된 정치행정 환경에서 "개혁과 변화"에 대한 요구는 지방통치 권력의 정당성의 원천이자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3대 정책 영역인 지방정치, 지방경영, 정부간 관계 부문에서 개혁과 변화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로서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구와 산업 입지 여건이 열악했던 무주군 여건에서는 단순히 중앙정부 지시에 따른 자치 단체 운영은 더 이상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가 없는 현실이다. 과거에 자치단체장의 역할 이라고 하는 것이 관치 지방행정 차원에서 행정업무의 단순한 수행에 초점을 두어왔다고 한다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지방정치 차원에서 리더십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 사회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조정 기능과 중재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이 점에서 성공적인 자치단체장이 되기 위해서는 개혁과 변화지향형 리더십이 필수적이 다. 이를 위해 첫째,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치단체장은 지방주권과 분권에 대한 명확한 이념을 가지고 지역 지도자로서의 자신감과 의지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사업관청에서 정책관청으로의 발상 전환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관 리형 자치단체장에서 정치 혁신형 단체장으로의 변신이 필수적이다. 중앙집권 시대의 국가 정책에 의존하여 수행되던 단순한 사업집행 기능에서 탈피하여 시대의 조류에 따라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독자적인 정책을 형성·실천하고 전략적인 경영을 해나가는 정책관청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셋째, 지역발전과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익과 사적이익의 조화와 결합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의 공공적 이익과 민간부문(특히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이익)의 사적이익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치엘리트와 경제 엘리트간의 지역 협력기구의 신설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그 중심적 역할을 취해야 한다.

2.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기능 수행

1)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자치단체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가 하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2) 지방의회와의 관계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 할 수 있다.

제5절 무주군의회 의정활동

1. 연혁 및 운영

1) 무주군의회 현황



무주군의회 현판식

1대 무주군 의회는 1991년 4월 15 일 개원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으로 구성되었으며 필요에 따라서 수해 대책, 청원조사, 조례안 심사, 징계 자격 심사, 예산안과 결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다. 의원 정수는 1대 (1991년), 2대(1995년), 3대(1998년) 모두 7인이었으며, 상임위원회는 의원정수의 제한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1대, 2대, 3대 각각 14명으로 사무과장이 의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의회사무를 통할하였으며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1991년 10월 26일에는 무주군 의회를 완공한 바 있다.

2) 의회조직 및 구성의 변화

(1) 의장

연번	기 간	성 명	취임당시 연령	취임당시 의정경력	비 고
1	1991. 4. 15 - 1995. 4. 15	김광성	58	초선	
2	1995. 4. 16 - 1995. 6. 30	김재환	74	초선	
3	1995. 7. 12 - 1996. 12. 30	정용환	44	재선	
4	1997. 1. 11 - 1998. 4. 7	김혁태	48	재선	
5	1998. 4. 8 - 1998. 5. 4	이성만	50	초선	
6	1998. 7. 7 - 2000. 6. 30	현형원	42	재선	

연번	기 간	성 명	취임당시 연령	취임당시 의정경력	비 고
7	2000. 7. 7 - 2002. 6. 30	전병옥	46	재선	
8	2002. 7. 7 - 현재	김원수	47	재선	

(2) 부의장

연번	기 간	성 명	취임당시 연령	취임당시 의정경력	비 고
1	1991. 4. 15 - 1993. 4. 14	김영길	47	초선	
2	1993. 4. 15 - 1995. 4. 14	이종근	45	초선	
3	1995. 4. 16 - 1995. 6. 30	이일석	60	초선	
4	1995. 7. 12 - 1996. 12. 31	이대석	38	초선	
5	1997. 1. 11 - 1998. 6. 30	윤완병	41	초선	
6	1998. 7. 7 - 2000. 6. 30	양원규	49	초선	
7	2000. 7. 7 - 2002. 6. 30	김원수	45	초선	
8	2002. 7. 7 - 현재	이해연	39	초선	

(3) 특별위원회

위 원 회 명	활 동 기 간	위원장	취임당시 위원장의 의정경력	취임당시 의원장의 연 령	비 고
청 원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부 남 면 하 천 골 재 채 취 사 업 중 지 청 원)	1991. 6. 25 - 1991. 7. 5	김 재 환	초선	67	
행 정 사 무 감 사 특 별 위 원 회	1991. 12. 11 - 1991. 12. 13	김 영 길	부의장	47	
특정정당후보 지원진상조사 특 별 위 원 회	1992. 2. 26 - 1992. 3. 4	이 일 석	초선	57	
무주군장학재단 설립진상조사 특 별 위 원 회	1992. 9. 21 - 1992. 10. 16	김 혁 태	초선	43	
행 정 사 무 감 사 특 별 위 원 회	1992. 12. 8 - 1992. 12. 10	정 용 환	초선	41	
행 정 사 무 감 사 특 별 위 원 회	1993. 11. 30 - 1993. 12. 3	김 재 환	초선	69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1993. 11. 26 - 1993. 12. 21	이 종 근	초선	45	

위원회명	활동기간	위원장	취임당시 위원장의 의정경력	취임당시 의원장의 연령	비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4. 11. 29 - 1994. 12. 5	o 혁태	초선	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 11. 25 - 1994. 12. 21	이일석	초선	59	
예산결산검사위원회	1995. 8. 2 - 1995. 12. 22	현형원	초선	39	
남대천 탁류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1995. 9. 12 - 1995. 9. 30	이성만	초선	5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5. 11. 28 - 1995. 12. 27	o 혁태	재선	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 11. 29 - 1995. 12. 23	이성만	초선	58	
무주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1996. 8. 26 - 1996. 6. 10	전병옥	초선	42	
예산결산검사위원회	1996. 7. 16 - 1996. 12. 21	윤완병	초선	4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6. 12. 4 - 1996. 12. 26	윤완병	초선	4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 11. 30 - 1996. 12. 21	현형원	초선	40	
예산결산검사위원회	1997. 7. 22 - 1997. 11. 15	이대석	초선	4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 10. 22 - 1997. 12. 23	전병옥	초선	4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 11. 27 - 1997. 12. 29	현형원	초선	4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998. 1. 13 - 1998. 3. 10	전병옥	초선	44	
예산결산검사위원회	1998. 8. 3 - 1998. 8. 25	전병옥	재선	4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8. 11. 12 - 1998. 12. 28	전병옥	재선	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 11. 12 - 1998. 12. 21	윤완병	재선	42	
예산결산검사위원회	1999. 8. 2 - 1999. 8. 21	김원수	초선	4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9. 11. 12 - 1999. 12. 28	송재호	초선	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 11. 12 - 1999. 12. 22	이재호	초선	4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0. 5. 31 - 2000. 7. 21	양원규	초선	51	
예산결산검사위원회	2000. 6. 7 - 2000. 6. 26	송재호	초선	42	
무주군청사정비 조사특별위원회	2000. 6. 15 - 2000. 9. 30	김원수	초선	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 11. 14 - 2000. 12.	양원규	초선	51	
예산결산검사위원회	2001. 6. 7 - 2001. 6. 26	현형원	재선	45	
행정사무감사특위	2001. 11. 12 - 2001. 12. 15	김원수	초선	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 11. 12 - 2001. 12. 20	송재호	초선	43	
예산결산검사위원회	2002. 11. 5 - 2002. 12. 20	송재호	초선	44	
행정사무특별위원회	2002. 5. 8 - 2002. 5. 27	이재호	재선	45	

2. 의정활동(1991년 4월~2002년 8월 현재)

1) 본회의 운영 및 의안처리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은 평균 매년 95% 이상에 달하고 있어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표 3-3-45> 본희의 출석율과 방청객수

년 도	출 석 율	방 청 객 수	비 고
1991년	99	80	
1992년	99	100	
1993년	98	120	
1994년	98	110	
1995년 상반기	97	40	
1995년 하반기	99	70	
1996년	98	120	
1997년	97	150	
1998년 상반기	94	30	
1998년 하반기	99	60	
1999년	99	110	
2000년	96	120	
2001년 8월	97	100	
2002년	98	150	



무주군의회 의정 활동

무주군의회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처리한 의안은 예 산안, 결산안, 조례안(의원, 위원회, 군수), 재의안, 동의(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규칙안, 의견청취, 청원, 기타(중요동의, 안건)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았다.

<표 3-3-46> 의안처리 현황

종류 / 구분	처리내용								
	접수	처리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비고
			원안	수정					
총계(1991)	60	60	57	3					
총계(1992)	77	77	69	5	1	2			
총계(1993)	101	101	95	1	1	4			
총계(1994)	90	90	85	3	1	1			
총계(1995상반)	31	31	31						
총계(1995하반)	44	44	39	4	1				
총계(1996)	69	69	58	8	1		2		
총계(1997)	70	70	53	14	2	1			
총계(1998상반)	12	12	8	2	1	1			
총계(1998하반)	57	55	45	8	2			2	
총계(1999)	82	82	66	14			1		
총계(2000)	98	98	86	7	2	2	1		
총계(2001)	89	84	62	7	15			5	
총계(2002)	73	67	57	7	2	1		6	

2) 재의 요구 및 제소된 조례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1991년부터 2001년 8월까지 군수에 의해 재의가 요구된 사항은 총 6건이었으며, 상급기관에 의해 재의가 요구된 사항은 총 1건이었다. 이에 대해 무주군 의회는 1건을 재의결하고 6건은 부결처리 하였다.

<표 3-3-47> 재의 요구된 조례건수

년도	재의 요구 구분		재의 결과				기타
	당해 자치단체장 요구	상급기관지시	계	부결	재의결	기타	
1991년	-	-					
1992년	-	-					

년도	재의 요구 구분		재의 결과				기타
	당해 자치단체장 요구	상급기관지시	계	부결	재의결	기타	
1993년	-	-					
1994년	1	-	1	1			
1995년 상반기	-	-					
1995년 하반기	1	-	1	1			
1996년	1	1	2	1	1		
1997년	1	-	1	1			
1998년 상반기	-	-					
1998년 하반기	1	-	1	1			
1999년	-	-					
2000년	-	-					
2001년	1	-	1	1			
2002년~현재	0	-					

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주군수는 '무주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해 1996년 7월 30일 대법원에 제소하여 무주군수가 승소한 바 있다(1996. 12. 26). 당시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 제11조, 제156조 제2항, 제157조를 들어 "무주군 의회가 읍·면 위임조례를 개정해 군수가 읍·면장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지휘감독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한 감독권한은 배제시키려 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행정의 통일성을 위해 군수가 읍·면장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취지에 위배된 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3) 행정감사 및 조사활동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주군의회는 매년 정기회 시기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무주군 소관 감사 실시 부서를 확정, 감사일수에 맞추어 자료를 요구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며 건의를 하는 형태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무주군의회는 조사관련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992년 2월 26 일부터 3월 4일에 활동한 '특정정당후보지원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당시 임명직 단체장 시대에 공공기관이 199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당후보를 지원하는 상황의 전개에 대해 조사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이 경찰 자체 조사결과 무주경찰서 실무자가 작성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언론의 보도 내용을 시인한 사실을 토대로 1992년 3월 4일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간사가 위원장에게 활동결과 보고를 하였으며, 1992년 제1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하면서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1995년 9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남대천탁류발생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주리조트스키장건설 현장, 무주상수도 정수장을 대상으로 탁류발생 원인과 남대천 유입 원인을 조사하였고, 댐 유실 원인, 기타 무주리조트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4) 정책능력향상 및 대외활동 (1991년 4월~현재)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으로 공청회, 세미나, 연찬, 국제교류를 전개 할 수 있는데 무주군의회는 1993년, 1996년, 1998년에 의장 주관으로 연찬을 실시한 바 있으며,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 개최 등과 관련하여 국제교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표 3-3-48> 국제교류 활동

기간	방문국	방문자 수		방문내용
		의원	직원 등 기타	
1995. 2. 20 - 1. 16	영국 외 3	5	1	무주군의회 의원 연수
1996. 1. 25 - 2. 3	일본, 미국	2		전북시군의회의장단 연수
1996. 2. 3 - 2. 12	중국, 일본	4		동계아시안게임 참관
1996. 9. 8 - 9. 18	미국, 캐나다	7		무주군의회 의원 연수
1999. 8. 20 - 8. 30	필란드 외3	2		전북시군의회 의장단 연수
2000. 1. 9 - 1. 16	독일	1		국제교류협의
2000. 4. 23 - 4. 29	일본	2	2	국제교류협력자매결연
2001. 3. 6 - 3. 12	일본	6	2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2003. 2. 5 - 2. 14	일본	6	1	아오모리 동계AG 참관 및 눈꽃축제벤치마킹

[집필 : 신기현]

제4장 행정 개황

고려나 조선의 경우 지방사회의 행정적 편제는 군·현 단위로 이루어졌다. 물론 고려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부곡(部曲)이나 향(鄕)·소(所) 등이 있었지만 주된 편제는 군·현 단위였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군·현 단위도 그 내부에는 다시 군수가 파견되는 군과 현감·현령 이 파견되는 현(縣) 등 3등급으로 나뉘어졌다.

중앙정부는 이들 군·현에 수령이라 통칭되는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권한은 제한적이었고 왕권에 의해 임면(任免)되었으며, 임기는 1~2년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수령의 존재가 불완전했던 것과는 달리 군·현이라는 역사적 단위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사회적 통합성은 비교적 강하였다.

지방행정의 주된 흐름은 토착 지배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조선시대의 경우 양반과 향리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재지사족(在地士族)들은 향청 등을 조직하여 수령의 행정에 간여하였고, 향리층과 면리의 면리임(面里任) 등 평민층을 통제하였다. 또 이들은 향교와 서원 등을 중심으로 신분적·이데올로기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일반 평민층에게도 군·현 단위는 중요한 생활 단위였다. 농민이 자신의 촌락공동체를 벗어나 타 지역과 연결을 갖게 되는 계기는 주로 행정적 필요와 경제적 욕구에 기인하였다. 농민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부세(負稅)의 부과와 징수는 기본적으로 군·현을 단위로 이루어졌다. 또 농민의 정치적 저항이나 쟁송의 대상기관도 군·현이 되었다. 장시체계의 경우 군·현 내에 설치되는 몇 개의 장시가 읍내의 장시를 중심으로 하나의 시장권(市場權)을 형성하였고, 장꾼들이 이들 장시를 순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처럼 군·현은 중앙정부나, 지방의 토착 지배세력이나, 피지배 농민 등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 단위였다. 그러나 양반의 경우, 사승(師承)·교우 관계나 혼인관계는 군·현단위를 넘어서는 일이 많았다. 또 향리층의 경우에도 혼인 관계는 군·현 단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했다. 상인들의 경우에도 조선후기에는 보다 넓은 시장권을 상대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군·군현보다 작은 단위로 면과 리, 그리고 마을이 있다. 하지만 면은 조선말기까지는

거의 의미가 없는 단위였고, 리는 2~3개 마을과 일치하는 것이었으므로 사실상 마을단위가 군행정의 직접적 영향에서 가장 적절한 단위가 될 수 있다.

촌락(村落)이라 불리기도 하는 마을은 사람들이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상호부조의 공동 생활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지연집단이다. 마을 사람들은 생산과 생활유지를 위한 편의에서 강한 결속력과 사회관계를 갖는다. 또 다소간 지리적으로 고립성을 지니면서 마을 특유의 역사적 배경과 전통, 즉 문화적 개성을 지니며, 공유재산이나 목초지·저수지·보 등과 같은 공유생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 동제나 공동오락과 같은 상징을 공유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일정 지역의 토지에 밀착된 영주적 생활단위이기도 하다.

마을은 수많은 사회집단 가운데 거주를 특성으로 하는 사회집단의 하나라는 점에서 중요 하지만, 오랜 역사를 지닌 농경정착 생활의 전통 속에서 사회문화와 경제적 생활의 단위가 마을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이라는 혈연적 집단을 제외한다면 지연을 기반으로 하는 유일한 자율적 사회집단이 마을이었다. 그래서 마을에는 나름대로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동체적 생존전략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전승되어 왔다. 따라서 각 마을은 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무주군은 산악이 중심이 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모든 생활과 문화 역시 이에 기반 해 왔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앙이나 지방의 행정력 역시 이를 근간으로 계획되고 집행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무주군의 그간 행정을 개황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행정제도의 변천과정 을 살펴보고, 이어서 구역과 기구의 변천 그리고 일반행정 중에서 인사제도와 재정 부분을 중점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제1절 행정제도

1. 1910년 이전의 지방행정

조선말기까지의 지방행정제도는 이미 '역사'편에서 언급했으므로, 여기에서는 1894년 동학농민전쟁 전후시기부터 1910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지방편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계기로 하여 시행된 일련의

개혁조치로 크게 개편되었다. 특히 1895년 5월 24일 중앙관제의 개편에 이어 5월 26일 칙령 제101호에 의해 기존의 도·부·목·군·현제가 폐지되고 전국이 23부(府) 336군(郡)으로 편제 되었다.

이 때 지방관에게는 종래의 사법권과 군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단순한 행정관으로 그 권한 을 축소시켰으며,[5] 지방 장관인 관찰사는 부윤·군수를 지휘 감독하여 각기 법률과 명령을 관내에 집중하게 하고 행정사무를 관리하였다. 그리고 군수는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법령에 의하여 관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의 전라도는 전주·남 원·나주·제주 등의 4부로 나뉘게 되었고, 1674년 도호부로 승격된 이래 221년 만에 무주 도호부는 폐지되었으며 남원부에 속한 무주군이 되었다.

이 시기의 행정제도는 근대로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상태로 보아 무리가 없을 듯 하다. 일제의 침략정책을 합법적으로 가장하기 위한 타율성이 내재되어 있었지만, 조선 초기부터 지속되던 행정제도에 일대 변화가 온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시기 무주군의 행정사무에 관한 공식 혹은 정확한 문건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적용되었던 향회제도(鄕會制度)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1895년 11월 3일에 발표된 향회조규(鄕會條規) 및 향약판무규정(鄕約辦務規定)에 의하 면 향회에는 대회·중회·소회가 있었는데, 대회는 군회(郡會), 중회는 면회(面會), 소회는 리회(里會)이었다.[6] 향회의 조직을 보면 군회는 군수와 각 면의 집강(執綱) 및 각 면에서 공선(公選)된 2인씩으로 구성되었고, 면회는 집강과 면내 각 리의 존위(尊位) 및 리에서 공선된 2인씩으로 구성되었으며, 리회는 존위와 리내 매 호당 1인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징역 또는 조세체납의 처분을 받은 자는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향회에서 다루는 일은 교육, 호적 및 지적(地籍), 위생, 사창, 도로·교량, 식산(殖産)·흥 업(興業), 공공산림(公共山林)·항(港), 제반세관 및 납세, 흉년 때의 환난상휼(患難相恤), 공공복무, 제반계약, 신식령(新式令)의 정비 등 18항목에 달하였다.

집행기관인 면의 집강 및 리의 존위도 종래 관에서 임명해 온 방식을 폐지하고 1년을 임기로 하여 집강은 매년 정월에 면내 각 존위와 공선인이, 존위는 매년 정월에 리민총회(里 民總會)에서 각각 선출하였으며, 집강과 존위가 그 임무에 위배할 때에는 그를 선출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열어 그 임기에 불구하고 개선(改選)할 수 있었다.

---

5) 윤정애, <한말 지방제도 개혁의 연구>≪역사학보≫105호, 1985.

6) 한국지방행정사편찬위원회, ≪한국지방행정사≫(1948~1986) 上卷, 내무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7, 11쪽.

면(面)·방(坊)·사(社)의 장인 집강 밑에 서기(書記)·하유사(下有司)·면주인(面主人) 을 두어 서기는 면내장부(面內帳簿)·기록·보고 등에 관한 사무를, 하유사는 면사무사역 (面事務使役)을, 면주인은 본군 및 소속 각 리에 대한 공문발송사무(公文發送事務)를 각각 담당하였다. 또 리(里)·촌(村)·동(洞)의 장인 존위 밑에는 서기·두민(頭民)·하유사를 두었는데, 그 중 두민은 나이가 많고 사리에 밝은 자로 하여금 의정과 존위의 유고(有故) 시 그 사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1895년 행정개편은 정부의 시행착오로 말미암아 다음 해인 1896년 8월 23일 철회 되고, 다시 13도 7부 1목 331군으로 개편되었다. 이 때 전라도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로 분할되었으며, 전라북도에는 무주군을 포함한 26개 군이 소속되었다.

1905년 이른바 '을사조약'[7]을 계기로 조선 침탈을 노골화한 일제는 전국의 개항장(開港 場)을 비롯하여 구(舊)영사관 소재지에 '이사청(理事廳)'을 만들었다. 이사청은 외국의 거류 민 특히 일본인의 행정을 전담했던 지방기구로서 군산이사청 관내에는 전주와 공주지청이 있었는데, 무주군은 전주지청에 속하였다.[8]

2. 일제 강점기 지방행정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 후 일제는 식민지 통치체제의 강화, 즉 침략의 합법화와 정당 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식민지 통치를 위해 동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지방관제'를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지방관제를 실시하면서 전국을 13도 12부 317군 4,322면으로 재편하였다. 전라북도는 옥구군 일원이 군산부로 승격되어 1부 27군 378면 7,157동리로 확정되었다.

구한말 당시에는 외국거류민(外國居留民)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이사청(理事廳)과 일반행정기관과 분리·독립된 재무기관으로 재무감독국(財務監督局)과 재무서(財務署)가 있었다. 그런데 1910년 9월 이후 이사청의 사무는 도·부·군에 분장(分掌)시키고, 각 도에는 재무부를 설치하여 재무감독국의 사무를 부와 군에는 재무서의 사무를 각각 인계하였다.

또한 관찰사의 칭호를 도장관(道長官)으로 바꾸고 칙임관(勅任官)으로 임명하여 총독부에 예속시키고, 법령 집행과 도 산하의 부와 군의 관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였다. 부와

---

7) 을사보호조약·제2차한일협약·을사오조약(乙巳五條約)·을사늑약이라고도 한다.

8) 익산시사편찬위원회, ≪익산시사≫, 익산시, 2001, 745~746. 전주지청에는 만경, 부안, 정읍, 고부, 순창, 구례, 남원, 전주, 고산, 금구, 금산, 진산, 진안, 용담, 장수, 임실, 운봉의 각 군이었고, 공주지청에는 보령, 남포, 홍산, 정산, 공주, 부여, 비인, 오천, 진영의 각 군이 속하였다.

군은 호칭만을 달리할 뿐 지방행정단위로서의 성격은 동일하였다. 즉 부와 군은 모두 도장관의 감독하에 있는 지방행정구역이며 그 관내에 면(面)을 두었다. 군수는 주임관(奏任官)으로 부윤과 동격으로 도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내의 행정사무를 관리하고 군청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였다. 그 당시 군에는 군수 외에 명예직인 참사(參事)와 판임관(判任 官)으로 서기(書記)와 통역관(通譯官) 등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군의 장인 군수는 모두 조선인으로 임명했으나 부의 장인 부윤은 일본인이었다.[9)]

1910년 10월 1일자 총독부령 제8호 '면에 관한 규정'으로 최말단 지방행정기구인 면의 지위를 규정하였다. 종전에는 지역에 따라 면·사·방·부·단 등으로 달리 불리어 오던 것을 '면'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였으며, 도장관이 임명하는 면장(面長)을 두었고, 면사무소의 위치, 면의 처무규정(處務規程), 면사무의 지도감독, 면이나 동(洞) 소유의 재산에 관한 관리방법 등을 통일적으로 규제하였다.[10)]

구한말까지 면은 각 부·목·군·현의 사실상의 하부행정조직으로서 권농(勸農)과 제언 관리(堤堰管理) 및 재해답사(災害踏査) 등 농사에 관한 것과 호구(戶口)의 파악, 군역(軍役) 의 충정(充定) 등 호적에 관한 사무 외에 수령의 명령 전달, 면내의 제반 상황에 대한 보고 등을 주된 임무로 하였다.[11)] 그러나 지방에 따라 명칭도 통일되지 않았고, 그 장(長) 역시 권농관(勸農官)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지방에 따라 각각 권농·면임(面任)·감고(監考) 또는 상존위(上尊位) 등으로 불려 통일되지 않았으며, 면사무소라는 공간 역시 거의 없어 면내(面 內)의 재실(齋室)이나 사택(私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12)]

조선총독부는 식민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면'을 말단행정조직으로 통일하고 가장 친일적(親日的)인 인사를 그 장으로 앉혔으며, 기능에 대해서는 '면장은 부윤이나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면의 사무를 처리하고'[13)]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1917년 6월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의 면제(面制) 공포로 면사무소가 공식적으로 설치되고, 면장은

9) 당시 12개 부에는 거류일본인 자치기구인 거류민단(居留民團)이 있었고, 다수의 일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편의와 보호를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10) 1912년 10월 25일자 官通牒제106호 面·洞有財産管理에 관한 件, 1913년 3월 6일자 官通牒제60호 面事務規程準 則에 관한 件·官通諜제61호 面事務指導監督規程準則에 관한 件, 1913년 6월 12일자 總督府訓令제35호 面事務所 의 位置에 관한 件.

11) 김준형, <조선후기 面里制의 성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1982년도 석사논문, 43~61쪽.

12) 손정목, <日帝侵略初期地方行政制度와 行政區域에 관한 硏究>, ≪논문집≫, 서울시립대학교, 1983, 41쪽.

13) 1913년 3월 官通제60호 面處務規程準則제1조.

판임관 대우로 신분을 보장하여 부윤 또는 군수의 지휘 감독 아래 면내의 행정을 보조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면에는 면장 외에 면서기(面書記)·회계원(會計員)·구장(區長)을 두었는데, 구장은 명예직으로 종전의 동·리장을 개칭한 것으로 정(町)이나 동(洞), 리(里) 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임명되며 읍·면 사무 중 정과 동·리에 관한 것을 보조하였다.

1922년 개정된 조선총독부지방관제(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읍·면장의 신분은 읍·면 내에 행정사무를 보조·집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우관리(待遇官吏)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판임관대우로 하였는데, 그 중 50명에 한해서는 주임관대우로 하였다.

읍·면장은 국가의 행정구역인 읍·면의 행정기관으로서 그 성질상 국가에 의하여 임명 되고 국가사무를 처리해야 함을 특징으로 하는 대우관리였으나 1922년 이후부터는 면이라는 지방단체의 사무까지 처리하게 되었고, 특히 1930년 읍·면제 실시 이후부터 읍장은 의결기관인 읍회에 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지방단체인 읍·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읍·면장은 읍·면을 대표하고 사무를 관장하되 이원(吏員)을 지휘·감독하며 징계를 할 수 있었다.

또한 각기 달랐던 기관의 명칭에[14] 대해서는 도청(道廳)을 비롯하여 부청(府廳)·군청(郡 廳)·면사무소(面事務所)로 통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도에는 3인, 부와 군에는 2인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참사자문회(參事諮問會)을 두었으며, 일본거류민단이 설치된 곳에는 본정(本町) 또는 행정(幸町), 수정(壽町) 등의 일본식 동리명(洞里名)이 수없이 붙여졌다.

■ 1914년 전후 지방제도 개편

조선총독부는 1913년 12월 29일자 총독부령 제111호 '道의 단위·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의 부칙(附則)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제도개편을 단행하고, 1914년 3월 1일과 4월 1일을 기하여 기존의 12부 317군을 220군으로 축소하는 칙령 제354호 '조선 총독부 지방관관제'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군과 면의 대대적인 통폐합을 통하여 그 수를 대폭 축소하여 통제력을 강화하고 경비(經費)의 절감을 추구한 점이었다. 이어서 총독부는 각도장관(各道長官)을 시켜 4,322면 중 1,801면을 폐지하고 2,521개 면으로 개편했으며, 면의 명칭과 면사무소의 위치도 크게 바꿔 버리고, 같은 4월 1일자로 부와 면 관내의 동리 또한 대폭으로 통폐합시키고 감축 시켰다.

14) 도청은 종래 勸察府營·監司營·監營등으로 부·군·현의 경우는 官衙라는 이름으로 통칭된 외에 府司·府營· 郡衙·懸衙·縣司등으로 불리웠다.

어쨌든 이 때의 군·면에 대한 개편은 오늘날 지방행정구역의 기틀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무주군의 경우는 금산군의 부남면(富南面)과 부동면의 전도리를 흡수하고 종전의 12개 면을 통폐합하여 6개 면으로 편제 되었다. 또한 1917년 6월 9일에는 '면제' 및 동시행규칙이 공포되어 동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일제 강점기 지방제도가 확립되는 기초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1930년 '부령(府令) 제103호 읍·면 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과 동년에 있었던 부령 제105호 '읍·면제도 시행규칙'으로 구체화되었다.

1938년 6월의 지방청 사무분장에 관한 건과 정무총감(政務摠監)의 통첩(通牒)[15]에 의하 여 각 군에는 서무과(庶務課)·내무과(內務課)를 두었는데, 군의 사정에 따라 내무과 및 권업과(勸業課)의 2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내무과의 관장사무는 도 내무부와, 권업과의 관장사무는 도 산업부와 유사하였다.

1931년 9월 만주사변과 1937년 7월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한국을 침략정책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려 하였다. 따라서 일제는 경제착취를 비롯한 인적·물적 동원의 체제 확립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

결과적으로 일제 강점기의 행정제도는 식민지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8·15 이후의 지방행정

1) 미군정과 제1·2공화국

미군정은 1945년 11월 2일 법령 제21호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제외한 조선총독부 의 지방관제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도·부·군의 위치와 명칭 및 관할 구역
○ 조선총독부의 지방관제
○ 도(島)의 위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 도·부·읍·면제
○ 읍·면 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
○ 도·부·읍·면제 시행규칙

15)서면으로 통지함. 또는 그 문서.

그리고 이듬해인 1946년 3월 법령 제60호를 통해 도회·부회·읍회·면협의회[16] 등 지방의회를 해산시켰다. 이에 따라 도지사·부윤·군수·읍·면장은 국가의 지방행정 기관으로 지방 단체인 도·부·군·읍·면의 의사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으로 사무를 처리하였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이 때의 행정조직은 일제 강점기의 조선총독부 조직과 미군정하 행정조직의 개편을 바탕으로 선진 각국의 정부조직을 참고해서 개편되었다.

제1공화국이 출범된 1948년 11월 17일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8호)이 제정 되었으며, 다음날인 18일 이 법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34호)이 제정되어 1시 9도 14부 133군 1도(島) 8구 73읍 1,456면의 체제가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참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일제의 질곡에서 해방된 후 미군정을 거치면서 사회는 전래의 전통과 일제의 잔재 그리고 서양풍이 섞이고 사상은 좌우로 갈린 채 격렬하게 투쟁했으며, 귀환동포와 월남민 등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 치솟는 물가와 관리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였다. 특히 좌우익의 충돌로 36,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11,000명의 부상자, 가옥소실 5,000동의 파괴상황이 있었고, 432,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17]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를 도와 서울특별시, 시·읍·면의 2종으로 구분하고 도와 서울특별시는 정부직할하에 시·읍·면은 도의 관할하에 두며, 그 하부조직으로 도에 군을, 인구 50만 이상 시에 구를, 시·읍·면에는 동·리를 두도록 제정하였고, 울릉도를 군으로 개편하여 1특별시 9도 134군 9구 75읍 1,448 면이 되었다.

1952년 4월 25일 시·읍과 면의원 총선거가 시행되었는데, 초대 무주군 면의원 당선자는 총 71명(무주면 14, 무풍면 12, 설천면 10, 적상면 12, 안성면 13, 부남면 10)이었다. 1956년 8월 7일 시행된 제2대 면의회의원 선거 때에는 총 69명(무주면 12, 무풍면 12, 설천면 11, 적상면 11, 안성면 12, 부남면 11)이 당선되었으며, 1960년 12월 12일 실시된 제3대 면의회 의원 선거에는 총 58명(무주면 12, 적상면 12, 설천면 9, 적상면 10, 안성면 4, 부남면 11)이 당선되었다.

---

16) 면협의회(面協議會)는 면장의 자문기관으로 협의회를 두고, 면협의회원은 군수 또는 도사(島司)가 임명하였으나 이른바 지정면(指定面)협의회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였다.

17) 익산시사, 757쪽.

반면, 1952년 6월 15일 실시된 최초의 면장 선거는 간선제로 면의회에서 선출하였다.[18] 제2대는 법개정으로 1956년 8월 7일 면민직선제(面民直選制)로 선출했는데,[19]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1958년 잔여임기가 있는 자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선거에서 제외되었다. 지자법 3차 개정 때 면장 임기를 다시 4년으로 환원하였고 4차 개정(1958. 12. 16) 때에는 자유당의 강행으로 임명제로 바뀌었으나 4·19이후 다시 개정 전 제도로 시행되었다.

1960년 4·19이후 집권한 민주당정권은 제5차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행정의 자율화와 주민민주제를 지향하였다. 그것은 각급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참정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년 12월 19일에는 시·읍·면의회의원 선거를, 동년 12월 26일에는 시·읍·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20] 그리하여 동년 12월내에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구성되었다. 이어서 민주당정권은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하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과 '국토개발계획안'을 수립하는 등 의욕적인 출발을 시도했으나, 민주당내 분열로 인해 시행을 미루다 '5·16군사쿠테타'의 발발로 인해 실현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1년 여의 짧은 기간 동안 제2공화국은 지방자치에 근거한 주민 참여의 전면적인 선거를 통해 민주적인 기반을 표방하며 출발했으나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 확보하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만 아쉬움을 남겼다.

2) 제3·4·5·6공화국

이 시기의 행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군사정권'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5·16군사쿠테타'를 통해 집권한 제3공화국,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했으나 독재를 기반으로 한 1인 장기집권을 노렸던 제4공화국(유신공화국), '12·12군사반란'을 통해 집권 한 제5공화국과 이를 계승한 제6공화국은 모든 행정제도와 행정사무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를 가장했지만, 정통성 없는 정권의 안정적 집권과 연장이라는 데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

18)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무주면 金鎭元(1954. 5. 18. 군수 轉任으로 송재황을 재선출), 무풍면 河泰錫, 설천면 金泰玉, 적상면 宋在昶, 안성면 玄圭業, 부남면 朱聖祚등이다.

19) 당선자는 무주면 宋在晃(기득권 인정으로 선거불실시), 무풍면 河泰錫, 설천면 成鳳煥, 적상면 宋在昶, 안성면 姜永求, 부남면 朱聖祚등이다. 그러나 1956년 5월 23일 무풍면장 하태석의 사임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는데, 河千秀가 당선되었다.

20) 무주면 金珏均, 무풍면 李泰澈, 설천면 成鳳煥, 적상면 河明九, 안성면 朴勝錯, 부남면 金容根등이다.

이들은 집권하자마자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제를 부정하였다. 즉 1961년 5월 16일 '군사쿠테타' 이후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동년 7월 15일 지방공무원령을 개정한 것이다. 9월 1일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하여 읍·면자치제를 폐지하고 군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격하시켰으며, 행정동리제(行政洞里制)[21] 시행과 함께 군을 지방자치의 최소 단위로 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군사정권은 1961년 5월 16일부터 2년간 725건의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획기적인 제도상의 변혁을 가져왔으나, 이 중 지방행정제도에 관한 것은 21건으로 불과 2.89%에 그쳐 지방행정에 관한 열의가 극히 미비했음을 보여준다.[22] 군정 이후 제3공화국은 지방자치의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 등을 유보한 채 능률성(能率性)의 극대화만을 추구하였는데, 이는 그대로 지방행정에 적용되었다.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운 제4공화국은 제3공화국에서 시도된 능률의 극대화를 지향하였는데, 구체적 수단으로 '새마을운동'을 이용하였다. 정치적 자유를 희생하는 대신 선택한 경제발전을 위해 제4공화국은 국력의 조직화·국정능률의 극대화·한국적 민주주의 토착 화를 명분으로 새마을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꾀했는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방정부에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공산품의 부가가치가 전체 GNP의 25%에 가까웠던 당시의 농촌지역에 '개발'이라 는 새바람을 일으킨 획기적인 운동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주민참여나 자생적 지도자, 자율적 조직이 없는 관에서 주도하는 운동으로 주민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인 전시효과를 지향하고 업적에 급급한 졸속행정을 빚었다는 비판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제4공화국이 관주도의 행정을 일방적으로 시행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행정의 구현을 위한 시책수행통로의 역할만을 했다는 혹평을 받기도 한다. 달리 말해 통제를 통한 지방행정의 지역개발참여가 이 시기의 특색이라 하겠다.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은 이전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중앙집권화된 권위주의적 관료지배체제의 한계를 절감한 제5공화국 이 1980년 10월 25일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이후 제도적인 틀을 갖춘다는 명분을 갖고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미루어 온 데서 확인할 수 있다.

---

21)자치법 개정으로 1988년 읍·면의 하부기관 '리(里)'로 통일되었다.
22)내무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사≫(1948~1986)상권, 1987, 48쪽.

그러나 국민의 열망과 시대적 흐름에 밀려 1988년 5월 1일 제한적이나마 직할시의 '구'와 각 도의 시·군 자치제가 실시되었고, 1991년에는 광역의회 의원선거와 기초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23] 그렇지만 지방자치의 한 축을 이루는 단체장 선거는 다음 정권에서야 실시될 수 있었다.

3) 문민정부

1993년 2월 25일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비롯된 도덕성과 효율성의 위기를 '한국병'으로 규정하고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 한국 건설'을 국정이념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 '권위주의 잔재 청산 및 국가사회기강 확립', '경제체질 강화'의 3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행정분야에서는 정부조직의 개편, 행정쇄신,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그리고 부정부패 방지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수행해야 할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와 그에 따른 제반 제도적인 조건의 완비였다.

지방자치는 관치행정에서 주민자치 행정으로의 탈바꿈을 지향하는데, 이를 위해 문민정부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룸으로써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지방정부간의 갈등 심화, 지방의회의원의 자질문제,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과 행사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민정부의 개혁목표는 국민편의와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완화 추진, 삶의 질과 생활복지의 개선, 불합리한 행정관리제도의 개혁, 그리고 정부조직의 개편 추진이었다.(행정쇄신위원회, 1994 : 20-26) 이를 위하여 행정 규제 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 행태와 관행의 개선, 인허가사무 등 민원행정의 쇄신, 중앙과 지방 및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정부조직 및 행정수행체제의 합리적 개편 등이 추진되었다.

---

23) 동년 3월 26일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된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무주읍 : 김재환·이일석, 무풍면 : 이종근, 설천면 : 김영길, 적상면 : 김광성, 안성면 : 김혁태, 부남면 : 정용환 등이 선출되었다. 이어 동년 4월 15일 무주군민회관 1층에 사무실을 개원하고 무주군 지방의회가 출범했는데, 초대 의장은 김광성이었고, 부의장은 김영길이었다. 그 후 동년 6월 20일 광역의회(전라북도) 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김세웅(무주읍·적상면·부남면), 홍낙표(안 성·설천·무풍면) 2인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1997년 IMF경제체제가 시작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구조조정의 여파가 공직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가져오게 된다.

4) 국민의 정부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정치와 행정분야에서 깨끗한 정치와 국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 법과 질서 가 지켜지는 사회풍토 조성을 내세우며 국민에게 다가서는 정부와 정부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의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운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선진 지방자치의 토대 구축, 한 발 앞선 예방행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것 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외환부족에서 발생한 경제적 위기(IMF)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때문에 정치나 행정개혁에 전력을 쏟지 못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1~2월에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제1차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정부규모 축소와 부처개편에 초점에 맞추어졌다. 1999년 5월에는 제2차 행정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이 때는 관리과정과 행정운영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민의 정부가 표명하는 행정이념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등의 3가지 이념으로 요약되는데, 이를 토대로 작은 정부와 경쟁적인 시장경제에 신뢰성을 부여하면서 중앙정부의 축소와 기구, 예산, 인력운용의 유연성 및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2절 행정구역

1. 무주군 행정구역 변천 개요

무주군의 행정구역은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하나의 특징을 갖는다. 그것은 고대국가 때에는 현재의 관내에 백제와 신라의 경계를 이루는 국경이 존재했고, 이로 인해 양국간의 왕래는 물론 전쟁과 이에 따른 갈등 등이 혼재했었다는 점이다. 무주군은 삼국시대 말기에 이르러 비로소 단일국가 안에 속하게 되어 전쟁과 갈등의 요소를 덜어냈지만, 각기 다른 작은 현(縣)으로 경계를 이루었으며 그것은 고려를 거쳐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다.

조선 태종 14년(1414) 전국을 8도제로 개편할 당시, 무풍현(茂豊縣)과 주계현(朱溪縣)이

통폐합되어 '무주현'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이 탄생되어 무주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현종 15년(1674) 무주현이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되면서 그 당시 금산군에 속하던 안성(安城, 一安面·二安面)과 구천동(橫川面)이 무주에 편입되어 영역이 확장되었다.

그 후 일제 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금산군의 부남면과 부동면의 일부가 무주군에 편입되었고, 현재까지 별 다른 변화 없이 현재의 영역을 이루고 있다.

2. 1910년 이전

무주군의 행정구역을 면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무주부읍지(茂朱府 邑誌)'[24] 이다. 그 당시 무주군의 행정구역은 동쪽에 신동면(新東面)·풍동면(豊東面)·풍남면(豊南面)·풍서면(豊西面)·횡천면(橫川面) 등 5개 면이 있었고, 남쪽에는 상곡면(裳 谷面)·유가면(柳加面)·이안면(二安面)·일안면(一安面) 등 4개 면, 그리고 서쪽에는 서 북면(西北面)이 있었으며, 무주군 관내 중앙에는 읍내면(邑內面)이 있어 총 11개 면이 편제 되어 있었다. 그 당시 총호수는 5,405호이었으며 남자 7,309명, 여자 5,886명으로 모두 13,195명이었다.[25]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가구수	인구수			비고
			남자	여자	계	
동	신 동	333	450	364	814	70리
	풍 동	358	450	390	840	70리
	풍 남	393	602	479	1,081	70리
	풍 서	328	526	298	824	40리
	횡 천	421	508	416	924	70리
서	서 북	439	630	532	1,162	10리
남	상 곡	499	831	642	1,473	30리
	유 가	612	721	615	1,336	40리
	이 안	536	699	603	1,302	40리
	일 안	602	805	803	1,608	50리

24)영조 35년(1759) '을묘장적(乙卯帳籍)'을 기초로 하여 편찬되었다.
25 김경석 편저, 향토사료 제5집≪茂朱誌≫, 무주문화원, 2001, 115~117쪽.

구 분		가 구 수	인 구 수			비 고
			남 자	여 자	계	
중앙	부 내	884	1,087	724	1,811	
계	11	5,405	7,309	5,886	13,195	

그 후 고종 35(1898)년 간행된 ≪적성지(赤城誌)≫에 의하면, 무주군은 3개군[26] 6개현[27] 에 접하고, 종전의 서북면(西北面)이 서면과 북면으로 분리되어 모두 12개 면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전체 3,957호에 남자 8,812명과 여자 6,540명 총 15,352명이었다. 1759년과 비교해 볼 때, 전체 호수는 1,448호가 감소된 반면에, 전체 인구는 2,157명이 증가하였다. 이 때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28]

구 분			가구수	인 구 수			비 고
				남자	여자	계	
동	신풍면	상장·하장·기곡·신촌·지전·하엽·청량·비례·무주목·진평	221	564	428	992	관아에서 70리
	풍동면	원촌·서동·거문평·응방·지동·부등·지산·금척·탄방·마곡·계당·부평	254	800	620	1,420	〃 70리
	풍남면	철목·석항·사동·증산·속동·은고·한치·오산·지경	291	928	684	1,612	〃 70리
	풍서면	설천·나니·불대·북동·이남·덕곡·미천	237	538	419	957	〃 40리
	횡천면	상두·하두·벌한·와석·심곡·마전·배방·월곡·삼공·오정동·덕동	274	538	373	911	〃 70리
서	서 면	대촌·용포·가옥·주동·소이진·잠두	249	439	330	769	〃 10리
	북 면	후도·신의곡·내동·굴천	91	191	169	360	

26)거창군, 금산군, 옥천군.
27)지례·안의·장수·용담·영동·황간현.
28)김경석 편저, 국역 ≪적성지≫(天), 무주문화원, 2001, 31~33쪽.

구 분			가구수	인 구 수			비 고
				남자	여자	계	
남	상곡면	초리·북창·포내·중리·괴목정·치목·상조·하조·마산·사교·사전·구교	431	733	651	1,384	30리
	유가면	길왕·내사·외사·용담가·여울리·상가·중가·하가·이동·유등원·상류·하류·성지·오동·진원리·훌리·도치	560	1,230	875	2,105	40리
	이안면	구항·죽전·이목리·이화동·하산·중산·상산·정천·수락·덕곡·궁대·두문·안기·도촌	394	733	549	1,282	40리
	일안면	내외신당·용추·장내·사탄·통안·봉산·비아·무수·명천·갈마·평장·죽장·공진동·마암·주고·신월	486	914	695	1,609	50리
중앙	부내면	오산·왕정·당산·차산·율속동·유속동	469	1,020	756	1,776	
계	12	124	3,957	8,812	6,540	15,352	

※ 신풍면은 이전의 신동면

3. 일제 강점기

1910년 조선을 강제로 병탄(倂呑)한 일제는 그들이 원하는 식민통치를 위해 동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지방관제'(칙령 제357호)를 공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도의 하부행정구역으로 부·군·면을 재확인하였는데, 면에는 판임관(判任官) 대우의 면장을 두도록 규정하였다. 동년 10월 1일에는 '부·군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제7호를 공포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개편으로 초래된 부작용과 사전정지작업(예컨대 토지조사 등)을 위해 시행을 미루었는데, 그 당시 지방행정구역은 13도 12부 317군 4,322면이었다.

이와 함께 '면에 관한 규정'이 제8호로 공포되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 지방행정제도에서 보면, 면에는 지방관이 배치되지 않았다. 대신 면 단위 규모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관의 일정한 통제를 받는 면임 등이 존재했었다.[29)]

일제는 1913년 10월 부제(府制)를 공포하고 다음해인 1914년 3월과 4월에 걸쳐 부·군· 면을 통폐합하는 등 행정구역 개편을 시행하였다. 그 당시 무주군에는 금산군의 부남면 5개 리와 부동면의 전도리가 편입되고, 종전의 12개 면과 통폐합 6개 면으로 개편되었다. 그 후 1917년 6월에 공포된 면제(面制)와 동 시행규칙이 동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제 강점기하의 지방제도가 확립되었다.

1914년 당시 개편된 무주군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다.[30]

면별	개편전	동·리(개편 전)	리(개편 후)
무주면	부 내 면	오산, 왕정, 당산, 율곡동, 유속동	읍내리, 당산리, 오산리
	신 풍 면	상장, 하장	장백리
	서 면	대촌, 용포, 가옥, 주동, 소이진, 잠두	대차리, 용포리, 가옥리
	북 면	후도, 산의곡, 내동, 굴천	
	(금산군) 부 동 면	전도	내도리
무풍면	풍 동 면	원촌, 거문평, 고도, 응방, 지동, 조동, 부등, 지산, 금척, 탄방, 마곡, 계당, 부평	현내리, 지성리, 금평리
	풍 남 면	철목, 석항, 사동, 증산, 속동, 은고, 한치, 오산.	철목리, 증산리, 은산리
	횡 천 면	오정동, 덕동	거리, 덕지리
	신 풍 면	기곡, 신촌, 지전, 하엽, 청량, 비례, 무주목, 진평	기곡리, 길산리, 청량리
설천면	풍 서 면	설천(소천), 나리, 불대, 북동, 이남, 덕곡, 미천	소천리, 대불리, 장덕리,미천리
	횡 천 면	상두, 하두, 벌한, 와석, 심곡, 마전, 배방, 월곡, 삼공	두길리, 심곡리, 삼공리
적상면	상 곡 면	초리, 북창, 포내, 중리, 괴목정, 치목, 상조, 하조, 마산	북창리, 포내리, 괴목리
	유 가 면	길왕, 내사, 외사, 용담가, 여울, 상가, 중가, 하가, 이동, 유등원, 상류, 하류, 성지	사천리, 사산리, 삼가리, 삼유리, 방이리

29) 풍헌(風憲)·약정(約正)·집강(執綱)·방수(坊首)·방장(坊長)·사장(社長)·검독(檢督)·도평(都平)·이 정장(里正長)·관령(管領)·면사방(面社坊) 등 다양하게 불리웠다. 또한 조선시대의 향촌 자치규약인 향약 조직의 임원으로 약정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 호칭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면임(面任)을 뜻하는 경우는 부헌(副憲)이라고도 하여 풍헌(風憲) 다음의 직책을 말하고 때로는 교화를 담당하는 집강(執綱)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지방의 관아에서는 유능한 면집강에게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나중에는 향약운동까지 관할하게 되었다. 지방의 통치체제는 크게 행정과 풍교(風敎)로 구분되 는데, 17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면내의 행정업무는 풍헌 등의 면임이 담당하고 향약 임원의 업무는 풍교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었다. 약정은 주로 수령이 향약을 실시할 때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였으나 향약 실시의 실무면에서는 면내의 송사(訟事)를 재결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30) 무주군지편찬위원회, ≪무주군지≫, 무주군, 1990, 451~452쪽.

면별	개편전	동·리(개편 전)	리(개편 후)
안성면	이 안 면	구항, 죽전, 이목리, 이화동, 하산, 중산, 상산, 정산, 수락, 덕곡, 궁대, 두문, 안기, 도촌	장기리, 덕산리, 금평리
	일 안 면	내외신당, 용추, 장내, 사탄, 통안, 봉산, 비아, 무수, 명천, 갈마, 평장, 죽장, 공진, 마암, 주고, 신월	공정리, 항진리, 죽천리
	유 가 면	오동, 진원, 홀리, 도치	진도리
	상 곡 면	사교, 사전, 구교	사전리
부남면	(금산군) 부 남 면	평당, 대치, 대소, 도소, 대곡	굴암리, 가당리, 대유리, 대소리, 고창리, 장안리
6面			48개 里

4. 1945년 이후 행정구역

1914년 일제의 식민통치를 위한 지방행정제도의 개편 이후 무주군은 6개면 48리(里)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여타 지방자치단체가 변화를 겪은 반면, 무주군은 현재까지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편이다.

다만, 무주군이 평지와 달리 산악지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과거의 행정과는 달리 주민 편의의 행정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1961년 9월 1일자 법률 제707호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공포에 따라 동년 10월 1일 군단위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1963년 5월 1일 무주군조례 제43조 면출장소설치 조례가 공포되었고 동년 6월 12일 적상면 상곡출장소, 동년 6월 18일 설천면 구천동출장소가 개소 되었다. 그리고 1975년 2월 20일 동조례 제377호 면출장소 개정조례가 공포되어 동년 4월 1일 부남면 가정출장소가 설치되었다.[31)]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13호의 단서 규정이 공포되기 전에는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만 읍으로 승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공포·시행되면서 군청 소재지의 면이 읍으로 승격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가 시행되어 무주면 이 무주읍으로 승격되었다. 그리하여 무주군의 행정구역은 1998년까지 1읍, 5면, 3출장소, 48리로 구획되었다. 반면, 행정분리(行政分里)는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다. 1957년에 발간된 김철수저 ≪적성

31)3곳의 출장소는 1998년 폐지되었다.

지≫(人)에 따르면, 무주면 22리, 무풍면 14리, 설천면 17리, 적상면 12리, 안성면 17리, 부남면 15리 등 모두 97개의 분리로 나눈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1961년 10월 1일 제정 공포된 무주군 조례 제2호 무주군 이장정원조례(里長定員條例)에 의하면, 무주군의 행정분리는 106리로 늘어났다. 이 때부터 말단 행정 수요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행정분리의 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1972년 136리, 1981년 147리, 1986년 148리, 1989년 149리로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4년 12월 26일 장수군 계북면 일부가 무주군에 편입되고, 무주군 안성면 일부가 장수군에 편입되는 행정구역 조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 때의 조정은 워낙 적은 지역으로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이후 행정구역 은 고착상태에 이르면서 2001년 10월 현재 48개의 법정리에 149개 행정상 통·리, 그리고 515개 반에 267 자연마을이 있다.

※ 1957년 이후 2001년까지 읍·면별 행정구역 변천은 다음과 같다.(읍·면은 2001년 10월 현재 통계임)

읍면별	면적(㎢)	읍	면	출장소	리		자연마을	반	비 고
					법정리	행정리			
1957	629.15		6	3	48	97	189	629	적성지(인)1957년
1961	629.15		6	3	48	106	206	559	군조례 제2호(61. 10. 1)
1972	624.83		6	3	48	136	239	559	군조례 제284호(92. 1. 4)
1981	642.40	1	5	3	48	147	239	460	군조례 제640호(81. 1. 24)
1988	642.09	1	5	3	48	148	267	516	군조례 제957호(86. 4. 12)
1989	642.16	1	5	3	48	149	267	515	제35회 무주군 통계연보
1994	631.89	1	5	3	48	149	267	515	제35회 무주군 통계연보
1998	631.76	1	5	3	48	149	267	515	제41회 무주군 통계연보
1999	631.76	1	5		48	149	267	515	제42회 무주군 통계연보
2001	631.68	1	5	0	48	149	267	515	제41회 무주군 통계연보
무주읍	79.42	1			8	30	34	152	
무풍면	91.23		1		8	17	43	55	
설천면	157.88		1		10	25	52	75	
적상면	135.90		1		8	25	54	75	
안성면	97.27		1		8	36	61	115	
부남면	69.98		1		6	16	23	43	

5. 읍·면 행정구역의 변천

1) 무주읍

무주읍은 1414년 무풍과 주계가 통합 되어 무주현이 된 이래, 무주군 전역을 관할하는 관아(官衙)가 설치된 행정의 중심지역이었다.

그 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1914년에 이르러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즉 1914년 3월 군·면 통폐합시 종전의 부 내면 전역을 비롯하여 서면과 북면 전역, 그리고 신풍면의



무주읍사무소

상장과 하장이 통폐합된 것이다. 또한 금산군의 부동면에 속하던 전도리(前島里·앞섬)가 편입되어 총 면적 72.69 ㎢에 읍내리·당산리·오산리·장백리·내도리·대차리·용포리·가옥리 등 8개 리로 개편되었고, 무주군의 중심이자 소재지라 하여 무주면이라 하였다.

그리고 최말단 행정구역의 업무 수행을 위해 법정리에서 자연마을 단위로 취락의 형태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행정분리제를 편제하여 시행하였다. 이에 관한 기록은 1957년 김철수에 의해 작성된 ≪적성지≫(人)에 실려 있는데, 무주면을 22개 분리로 나누면서 210 개의 반으로 기록하고 있다.

1961년 10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행과 함께 군조례가 시행되었는데, 무주면 의 행정구역이 변화를 갖게 되었다. 6개 분리였던 읍내리가 1리(상리), 2리(중리) 3리(북리), 4리(하리) 등 4개의 분리로 조정되고, 2개 분리였던 가옥리는 1리(평촌), 2리(주동), 3리(가 림) 등 3개 분리로, 그리고 3개의 분리였던 대차리는 1리(대차)와 2리(다산)로 조정되었다. 이렇게 하여 무주면 관내는 모두 22분리에서 20분리가 되면서 157반으로 재정비되었다. 그 후 주민편의의 행정이 점차 증대되어 말단 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행정분리의 수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1972년 1월 1일부터는 8개 분리가 더 늘어나 28개 분리가 되었고, 법정리 명칭을 사용하던 분리의 명칭도 자연마을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32)]

---

32) 읍내리(사정·교동·다양·향산·운교·남천·죽산·대교), 당산리(원당산·유속), 오산리(원오산·왕정), 장 백리(상장·하장), 내도리(산의·내동·굴천·후도·전도), 대차리(서면·다산), 용포리(공정·추동·요대·

1975년 5월 1일 대통령령의 시행으로 전국의 군청 소재지의 면을 읍으로 승격하게 되면서 무주면은 무주읍이 되었고, 1981년 2월 1일 군조례의 개정으로 오산리 왕정을 율속과 분리 하여 1개 분리가 증가되었다.

리의 하부 조직인 반(班)은 1972년 157반에서 1975년 98반, 1981년 126반, 1982년 151반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1988년에는 8개의 법정리에 29개 분리 그리고 151반이 무주읍에 속하였다. 2001년 10월 현재 8개의 법정리에 30개 분리 그리고 34개 자연마을에 152개 반이 있다.

(2001년도 무주군 통계자료)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읍내	사정	상리	내도	산의	산의	용포	공정	원용포
	교동	〃			지내			공정
	다양	북리		내동	내동		추동	추동
	한수	〃			거리대			늘목
	향산	〃		굴천	굴천		요대	외요대
	운교	중리		후도	아랫담			내요대
	남천	〃			웃담		잠두	잠두
	죽산	하리		전도	전도			
	대교	〃						
당산	당산	원당산	장백	상장백	상장백	가옥	평촌	평촌
	유속	내유속		하장백	하장백		가림	가림
		외유속						산지촌
							주동	주도
오산	오산	원오산	대차	서면	서면			
	왕정	왕정			오리골			
	율속	율속		차산	차산			

2) 무풍면

본래 무풍면은 신라의 무산현(茂山縣)으로 치소(治所)였으나 경덕왕 때 무풍(茂豊)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고려 성종 때에는 강남도 남원부 진례현의 속현(屬縣)이 되었으며, 명종 때 실시된 감무제(監務制)에 따라 무풍현의 감무가 주계현의 행정까지 관할하였고 한 때는

잠두), 가옥리(평촌·가림·주동)

주계를 병합하기도 하였다.

1414년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무풍과 주계가 통폐합되어 '무주(茂朱)'라는 새로 운 지명이 생기면서 무풍은 무주현에 딸린 면(面)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풍동면(豊東面. 현재의 현내리, 지성리, 금평리)과 풍남면(豊南面. 현재의 철목리, 증산리, 은산리)으로 나뉘게 되었다.

조선 후기 참위설(讖緯說)과 풍수지리설을 신봉하던 술가(術家) 들의 말에 의하면, 무풍은 '십승지지(十勝之地)[33]'의 하나이다. 특히 남사고비결(南師古秘訣)은 임진왜란(壬辰倭亂) 이전에 나온 것으로, 임진왜란 때에는 많은 사람 들이 무풍으로 찾아와 난리를 피하고 정착하였다. 즉 무풍은 술가(術家)들이 복지(卜地)로 선망(羨望)하던 곳이었다.



무풍면사무소

1914년 3월 군·면 통합에 따라 옛 이름을 되찾아 오늘날의 무풍면이 되었다. 즉 풍동면과 풍남면 전역을 통폐합하고 횡천면(橫川面, 지금의 구천동·덕지리 지역)에 속해 있던 덕동 과 오정동을 편입시키면서 종전의 23개 리 총면적 98.78㎢를 현내리, 금평리, 지성리, 철목 리, 증산리, 은산리, 덕지리, 삼거리 등 8개 리로 구획하고 옛 명칭을 살려 '무풍면'이 되어 꼭 500년 만에 옛 지명을 되찾게 된 것이다.

그 후 무풍면의 골격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다만 주민 위주의 행정업무를 추구하면서리의 하부조직인 행정분리의 증가가 계속되었다. 1957년 당시에는 8개의 법정리에 14개 분리 102반으로 기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내리는 현내 1리(원촌·문평·두평, 7개 반), 2리(고도·신촌·지동,10개 반), 3리(북하리·북리, 8개 반)로 3개 리에 25개 반이었다. 금평리는 금평1리(금척·탄방·백학, 10개 반)와 2리(마속·덕평·계당·부평, 7개 반)의 2개리 17개 반이었다. 지성리는 지성 1리(분천·지산·서동, 9개 반)와 2리(율평·조동, 5개 반)의 2개 리에 14개 반 이었

33) 풍기 金鷄村, 안동 春陽面, 보은 俗離山, 운봉 頭流山, 예천 金堂洞, 공주 維鳩·麻谷, 영월 正東上流, 부안 邊山, 성주의 萬壽洞.

다. 철목리(원철목·온월·묘암·우평)는 1개 리 9개 반이었으며, 증산리(석항·사동·원 증산) 역시 1리에 8개 반이었고, 삼거리(원삼거리·상오정) 역시 1개 리 4개 반이었다. 은산 리는 1리(속동·은고·한치, 10개 반)와 2리(오산·방곡, 5개 반)의 2개 리 15개 반이었다.

1961년 10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행, 군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증산 리가 1리(미항)와 2리(증산)로 나뉘었고, 1972년 1월 1일부터는 금평리에 1개 분리가 늘어 그 당시 무풍면은 모두 16개 분리가 되었으며, 자연마을에 의한 분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 당시 16개 분리는 다음과 같다.

○ 현내리 : 원평, 고도, 상북
○ 금평리 : 금척, 마덕, 계부
○ 지성리 : 지일, 율오
○ 증산리 : 미항, 증산
○ 은산리 : 은일, 오방
○ 덕지리 : 상덕, 하덕
○ 삼거리 : 삼거
○ 철목리 : 철목

그 후 1981년 2월 1일 군조례의 개정으로 현내리의 상북이 상하와 북리로 나뉘어 1개 리가 증가됨에 따라 17개 분리가 되었다. 반의 수는 1975년 102개 반을 58개 반으로 조정한 이후 1981년에 54개 반으로 줄었으나 1982년 55반으로 늘어났다. 그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어 2001년 10월 현재, 무풍면의 행정구역은 8개 법정리, 행정상 17개 리, 55반(班), 43개 자연마을로 구획되어 있다.

(2001년도 무주군 통계자료)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현내	원평	원평	금평	금척	금척	덕지	하덕	안실
		문평			백학			덕동
	고도	두평		마곡	탄방		상덕	내갈
		고도			마곡			외갈
		신촌			덕평			북수
		지동		계부	계당			부흥
	상하	상하리			부평			도마
	북리	북리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지일	서동 부동		철목	원철목 신기		미향	서항
지성		지산	철목		온월	증산		원증산
	율오	율평 오동			우평 묘암		사동	사동
	은일	속동 온고		삼거	원삼거			
은산		한치	삼거		상오정			
	오방	오산 방곡			독가촌			

3) 설천면

설천면은 본래 마한에 속했는데, 삼국시대에 이르러 백제에 속했고 신라와 국경을 이루었다. 즉 백제의 변방인 적천현의 가장 끝머리에 위치하여 신라의 무산현과 국경선을 이루게 되어, 양국간의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병사들의 생사가 갈렸으며 국경선이 달라지기도 했던 접경지였다. 통일신라 때에는 단천현에, 고려부터 조선 초까지는 주계현에 속하여 무풍현 또는 금산군에 속하던 횡천면과 경계를 이루었다.

조선 태종 14년 행정구역 개편시 무풍 현과 주계현이 통폐합되면서 설천은 '무 주현'에 소속되어 풍서면(豊西面, 지금의 소천리·대불리·미천리·장덕리)이 되었다. 그 이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종전의 풍서면을 중심으로 상장과 하장 을 제외한 신풍면 전역과 오정동·덕동을 제외한 횡천면 전역을 통폐합시켜 설 천면으로 편제하였다. 그 당시 10개의 법 정리(기곡·길산·청량·소천·대불·미천·장덕·두길·심곡·삼공)와 24개 리, 그리고 총면적 152.12㎢이었다. 그 이후 별다른 변화는 없었는데, 1957년 기록을 보면 10개의 법정 리는 그대로이고 24개 분리가 17개 분리로 줄었고, 89개 반이 있었다.



설천면사무소

1961년에는 89개 반이 68개 반으로 줄었으며, 1963년 면출장소설치조례(面出張所設置條

例. 군조례 제43호)가 공포되어 동년 6월 18일 삼공리(三公里)에 구천출장소가 설치되었다가 1998년 11월 6일 폐지되었다. 1972년 1월 1일부터 군조례 개정으로 17개 분리의 명칭을 자연마을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그 당시 바뀐 행정분리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 기곡리 : 기곡.
○ 길산리 : 길산.
○ 청량리 : 청량·진평
○ 소천리 : 양지·평지·이남
○ 대불리 : 외북·내북
○ 미천리 : 미천
○ 장덕리 : 장덕
○ 두길리 : 하두·귀산·월현
○ 심곡리 : 원심곡·배방
○ 삼공리 : 삼공

그 후 1981년 2월 1일 군조례 제645호 리반설치조례(里班設置條例)에 따라 길산리의 길산을 길산과 신길로 나누고, 청량리의 청량을 청량과 남청으로 나누었으며, 소천리를 내양지와 외양지로, 평지를 상평지와 하평지로 각각 나누었다. 또한 두길리의 하두는 신두와 하두로 나누고 심곡리의 배방을 배방과 관서로, 그리고 삼공리의 삼공을 삼공과 보안으로 각각 나누어 17개 분리에서 24개 분리로 늘어났는데, 1986년 9월 24일 군조례 제992호에 의하여 삼공리의 삼공을 다시 삼공과 덕유로 분리시켜 25개 분리가 되었다.

리의 하부 조직인 반은 1975년 68개 반이었는데, 그 후 1975년 79반, 1981년 73반, 1982년 75반, 1986년 76반 등으로 조정되었으며, 2001년 10월 현재는 10개 법정리에 25개 분리, 그리고 75개 반에 52개의 자연마을로 구획되어 있다.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청량	원청 남청 진평	원청량 무항 하엽 비례 진평 온평	소천	내양지 외양지 하평지 상평지 이남	양지 하그동 양지 제궁 평지 평지 나림 이남 신촌 이미	두길	하두 신두 구산 월현	하두 신동 양지담 정착지 구산 방재 벌한 월현 와석 마전
심곡	심곡 배방 관서	원심곡 대평 외배방 내배방 관동 만선 듬방	길산	신길 상길	하길산 정착지 신계 지전	대불	외북 내북	외북 내북 중현 불대
기곡	기곡	원기곡 문암	미천	미천	하미 장자동 중미	장덕	장덕	수한 장영
삼공	보안 삼공 덕유	보안 원삼공 월곡 인월담						

4)적상면

삼한시대 마한에 속했던 적상면은 이후 백제의 적천현, 통일신라의 단천현, 고려의 주계현 에 속했고, 조선 태종 이후에는 주계현이 무풍현과 통폐합됨에 따라 무주현에 속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유가면[柳加面, 현재의 사천리와 사산리(마산 제외), 삼유리와 방이리, 그리고 안성면 진도리와 상곡면(裳谷面, 현재의 북창리·괴목리, 사산리의 마산 마을과 안성면의 사전리)으로 나뉘었다. 한편 적상면의 관할지는 현재의 무주읍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서 변경되어 왔다.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유가면과 상곡면이 통폐합되어 적상면이라는 이름을 새로 갖게 되었으며 용담거리(龍潭街)에 면사무소가 설치되었다. 이 때 유가면에 속하던 진도리와 상곡면에 속했던 사전리는 안성면으로 편입되었다.[34]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8개의 법정리(북창·포내·괴목·사산·사천·삼가·삼유·방이)에 22개 분리, 총면적 131.99 ㎢이었다.



적상면 사무소

적상면의 지명은 관내에 있는 적상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즉 여인 의 붉은 치마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적상산의 이름을 그대로 면의 명 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적상 산에는 산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사고지 가 있었다.

그 이후 별다른 변화는 없었는데, 1957년 기록을 보면 8개의 법정리는 그대로이고 22개 분리가 12개 분리로 줄었고, 62개 반이 있었다.

1961년 10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행과 함께 군조례가 시행되면서 적상 면은 북창리가 1리(내창)와 2리(초리)로, 포내리가 1리(개안)와 2리(중리)로, 사천리가 1리 (구억)와 2리(길왕)로 분리되어 각각 1개 리씩 늘어났다. 또한 2개 분리였던 괴목리가 1리 (원괴목), 2리(치목), 3리(하조), 4리(상조)로 분리되어 4개 분리가 되었으며, 2개 분리였던 삼유리가 1리(하가), 2리(상가), 3리(여원), 4리(광포)로 분리되어 4개 분리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적상면의 행정분리는 모두 20개 분리로 늘어나게 되었고, 반수도 62개 반에서 73개 반으로 증가하였다.

1963년에는 면출장소설치조례(面出張所設置條例)가 공포되고 동년 6월 12일 포내리(浦 內里)에 '적상출장소'가 설치되어 종전의 상곡면 지역을 관할하다가 1998년 11월 6일 폐지되었다. 1972년 1월 1일 군조례의 개정으로 사천리, 삼가리, 삼유리의 행정분리가 각각 1리씩

34) 무주군, ≪내 고장 전설집≫, 무주군, 1993, 414~415쪽. 그러나 1990년 발간된 ≪무주군지≫에는 '… 오동, 진원홀리, 도치를 제외한 유가면을 중심으로 하여 사교, 사전, 구교를 제외한 상곡면을 통폐합한 …' 것으로 기록하고있다. 후대에 편찬된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늘어나 종전의 20개 리에서 23개 분리가 되었다. 또한 행정분리의 명칭을 자연마을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새로 개칭한 명칭은 다음과 같다.

○ 북창리 : 초리·내창
○ 포내리 : 개안·중리
○ 괴목리 : 괴목·치목·하조·상조
○ 사산리 : 마산·사내
○ 삼가리 : 하가·중가·상가·여원·광포
○ 삼유리 : 하유·중유·상유
○ 사천리 : 구억, 성내, 신대, 길왕
○ 방이리 : 고방·이동

그 후 1981년 2월 1일 군조례의 개정과 함께 사천리의 구억을 구억과 성내로 분리시켰으며, 삼유리의 하유를 하유와 성도로 분리시켜 2개 분리가 더 늘어난 25분리가 되었다. 리의 하부 조직인 반은 1975년 이전까지는 73반이었는데, 70반으로 줄었으며 1981년에는 57반으로 더 줄었다. 그러다 1982년 다시 75반으로 조정되어 1988년 12월 말 75반이 되었다.

2001년 10월 현재 적상면의 행정구역은 8개 법정리, 25개 분리(分里), 75개 반, 54개 자연마을로 구획되어 있다.

(2001년도 무주군 통계자료)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사산	마산	내동	삼유	하유	하비	삼가	하가	정착농원
		평촌			상비			하가
		양지촌		성도	박도		중가	내동
		대촌			성도			외동
		독가촌			도유		상가	대촌
	사내	내사내		중유	평촌			중촌
		외사내			신촌			상촌
		상가내		사유	상유			
		용담거리						
북창	내창	내창	포내	개안	개안	괴목	괴목	주막동
		외창			옥소			원괴목
	초리	자하동		중리	하중리		치목	하치목
		초리			중중리			상치목
		운평			상중리		하조	하조
							상조	상조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사천	구억 성내 신대 길왕	구억 낙안 내서창 외서창 신대 길왕	방이	고방 이동	고방 본동 거문동 내동 임수동			

5) 안성면

안성면은 본래 대곡소(大谷所)·횡천소(橫川所)와 함께 부리현(富利縣)에 속했던 안성소 (安城所)였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에, 백제 때에는 후에 금산으로 영속된 두시이현(豆尸伊 縣)이나 진잉을군(進仍乙郡) 또는 진내현(進乃縣),[35] 통일신라 때는 진례현(進禮縣), 고려 때는 금계군(錦溪郡)에 속하였다.



안성면사무소

조선시대에는 횡천(지금의 구천 동 지역), 대곡(지금의 부남면 일대) 과 함께 금산군(錦山郡)에 속하였 다. 현종 15년(1674) 적상산사고와 관련하여 무주현이 도호부(都護府) 로 승격되면서 횡천면과 함께 무주 부에 편제되었고, 일안면(一安面, 현 공정리·죽천리·공진리)과 이안면(二安面, 현 장기리·덕산리· 금평리) 그리고 횡천면으로 개편되었다.

1914년 행정개편 때, 안성면은 일안면과 이안면 전역을 중심으로 유가면의 오동·진원· 홀리·도치 등 4개 리와 적상면의 사교(斜郊)·사전(斜田)·구교(鳩郊) 등 3개 리를 편입하여 37개 리로 개편하여 8개의 법정리(장기·공진·죽천·공정·덕산·금평·사전·진도)에 총면적 11.53㎢이었다. 그리고 옛 안성소의 이름에 따라 안성면이라 하였다.

그 이후 별다른 변화는 없었는데, 1957년 기록을 보면 8개의 법정리는 그대로이고 37개 분리가 17개 분리로 줄었고, 102개 반이었다.

35)무주군, ≪내고장 전설집≫, 무주군, 1993, 368쪽.

1961년 10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과 군조례의 시행으로 장기리와 공정 리가 각각 1개 분리씩 늘어나 19개 분리가 되었고, 102개의 반은 95개 반으로 조정되었다. 그 후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군조례에 따라 19개 분리를 36개 분리로 하고 분리의 명칭도 자연마을 명칭을 사용하였다.

○ 장기리 : 신촌·시장·하이목·상이목·중산
○ 공진리 : 공진·주고·마암
○ 죽천리 : 명천·신무·갈마·죽장·평장
○ 공정리 : 통안·용추·사탄·장내·내당·외당·돈당
○ 덕산리 : 덕곡·수락·정천·상산
○ 금평리 : 금평·궁대·두문·안기·도촌
○ 진도리 : 도치·진원·오천·오동
○ 사전리 : 사교·사전·하산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수는 종전 95개 반에서 1975년에는 112개 반으로 증가하였고, 1982 년에는 115개 반으로 조정되었다. 1988년 12월 말 현재 안성면 행정구역은 8개의 법정리에 36개 분리, 115개 반이었다. 1994년 12월 26일에는 '무주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제1366 호에 따라 무주군 안성면 공진리의 관할구역에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일부 지역이 편입되었다. 또한 무주군 안성면 공진리 일부 지역이 안성면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었다.

2001년 10월 현재 안성면은 8개 법정리, 36개 분리, 그리고 115개 반에 61개의 자연마을로 구획되어 있다.

(2001년도 무주군 통계자료)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장기	신촌	신촌	공정	통안	통안	사전	사교	사교
		시장		용추	용추			모종안
	시장	비들목			대섶피			신기
	하이목	하이목		사탄	사탄		사전	상촌
	상이목	상이목		장내	장내			양촌
		홍문안		내당	내당			평촌
		하부대		외당	돈당			동촌
	중산	중산			외당		하산	교동
		골곡		봉산	봉산			대정내
								효자촌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도치	도치
								효자촌
	공진	공진					진원	신촌
		신촌		덕곡	덕곡			회호
	주고	주고		수락	수락			별묘
공진		신월	덕산	정천	정천	진도		산촌
		보안촌		상산	상산		오천	오천
	마암	마암					오동	상오동
								하오동
								장항
								산촌
	명천	음촌						
		양촌		금평	금평			
	신무	신평		궁대	궁대			
죽천		신무	금평	두문	두문			
	갈마	갈마		안기	안기			
	죽장	죽장		도촌	도촌			
	평장	평장						

6) 부남면

삼한시대 마한에 속했던 부남면은 백제가 마한을 복속시키면서 백제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그 후 부남면은 금산에 속하게 되는데 두시이현이 이 고장의 치소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뒤에 고을 명칭을 부시이현 (富尸伊縣)으로 고치고 현재의 부리 땅에 치소를 두게 되었다.



부남면사무소

통일신라 때에는 지금의 금산인 진례군에 영속된 이성현(伊成縣)에 속한 채 고려초기까지 지속되었다. 고려 때 금산은 금계군이 되었다가 다시 현으로 축소되기도 하였는데, 이성현이 부리현(富利縣)으로 분리 개칭되는 변화를 겪었다. 이에 따라 고려 말에는 다시 군으로 승격된 금주군의 속현이 된 부리현에 속하게 되었다.

1914년 행정개편에 따라 부남면은 부동면(富東面)의 전도리(前島里)와 함께 금산군에서 전북 무주군으로 편입되었는데, 전도리는 무주면에 편입되었다. 부남이란 지명은 본래 부리현을 4개의 면으로 나눌 때 부리의 남쪽에 있었던 고을이라 하여 부리의 부와 남쪽의 남을 따서 붙여진 지명이다. 그러나 금산의 남쪽에 있는 고을이라 하여 부남면으로도 불리웠다고 한다.

이 때 종전의 평당·대티·대소·대곡·도소 등 5개 리를 가당리(종전 평당리 일부), 굴암리(종전 평당리 일부), 대유리(종전 대티리), 대소리(종전 대소리와 도소리), 고창리(종전 대곡리 일부), 장안리(종전 대곡리 일부) 등 6개의 법정리로 편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이후 별다른 변화는 없었는데, 1957년 기록을 보면 6개의 법정리에 15개 분리 그리고 64개 반으로 구획되어 있었다.

1972년 1월 1일 군조례의 개정에 따라 2개 분리였던 굴암리에 1개 분리를 더 늘려 16개 분리가 되었고, 분리의 명칭을 자연마을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 당시 부남면의 법정리와 자연마을은 다음과 같았다.

○ 굴암리 : 율소·상굴암·하굴암
○ 가당리 : 가정·하평당·상평당
○ 대유리 : 대치·유동
○ 대소리 : 대소·도소·유평
○ 고창리 : 고창
○ 장안리 : 식암·교동·장안·상대곡

리의 하부 조직인 반의 수는 종전 95개 반에서 1975년에는 112개 반으로 증가하였고, 1982년에는 115개 반으로 조정되었다. 1988년 12월 말 현재 안성면 행정구역은 8개의 법정리에 36개 분리, 115개 반이었다. 1994년 12월 26일에는 '무주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제1366호에 따라 무주군 안성면 공진리의 관할구역에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일부 지역이 편입되었다. 또한 무주군 안성면 공진리 일부 지역이 안성면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었다.

2001년 10월 현재 안성면은 8개 법정리, 36개 분리, 그리고 115개 반에 61개의 자연마을으로 구획되어 있다.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분리	자연마을
굴암	율소 상굴암 하굴암	율소 조항 상굴암 하굴암 신대	대유	대티 유동	대티 유동 봉길	장안	식암 교동 장안 상대	시목 식암 교동 당곡 장안 상대곡
가당	가당 하평당 상평당	가정 하평당 상평당	대소	대소 도소 유평	대소 도소 유평	고창	고창	고창 건너들 방곡

제3절 행정기구

1. 조선시대 행정기구 변천 개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조직은 1995년 이전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이중적인 지위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특히 1896년 지방행정에 대한 개편을 통해 근대적인 지방행정 조직으로 도·부·군의 행정체제를 갖출 때까지는 더욱 그러하였다.

조선시대 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왕조국가라는 절대군주제에 입각한 중앙집권체제로 지방관은 왕권의 대리인으로 관할 구역 내에서 행정·사법·군사·재정 등 각 분야에 걸쳐 권력을 행사하였다. 더불어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지배권의 행사와 공세(貢稅)·부역(賦役) 등의 조달과 백성에 대한 수탈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비록 민간의 유림(儒林)에 의해 전개된 향약(鄕約)과 동(洞)·리(里)·면(面)의 행정, 오가통제도(五家統制度), 향청제도(鄕廳制度) 등에서 자치적 성격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이는 국가의 제도로 인정된 것이 아닐 뿐더러 오늘날의 자치제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관찰사가 있는 지방의 감영(監營)을 비롯한 각 고을 관아의 사무는 중앙 관제를 본떠서 승정원과 같은 육방(六房)36)으로 나누어 사무를 분담하였다. 그 하나는 관찰사·수령 등이 임지(任地)로 갈 때 선발해서 데려간 비장(裨將)이 맡고, 나머지 다섯은 그 고장의 토박이 이속(吏屬)이 맡았는데, 이를 외아전(外衙前)이라 하였다.

1) 향청

향청은 지방민을 대표하는 기구로, 군(郡)·현(縣)의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鄕吏: 衙前) 의 악폐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초기에는 여러 차례 존폐를 거듭했으나, 1489년(성종 20)에 부활되었다. 우두머리는 향정(鄕正) 또는 좌수(座首: 1894년 이후 鄕長)라 하여 선거로 추천된 자를 임명했는데, 좌수는 풍속 교정·향리규찰·정령시달(政令示達)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 또 한 면의 장 또는 풍헌(風憲)·약정(約正) 등의 직원을 추천하였다. 향청은 6방을 모방하여 좌수가 이·병방을, 좌별감(左別監)이 호·예방을, 우별감이 형·공방을 각각 분장하는 것 이 통례였고, 창감(倉監)·고감(庫監) 등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향청은 향민을 대표해서 지방관을 감시할 소임을 하지 못하고, 때때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민폐를 끼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조직과 운영이 민선제(民選制)·명예직이었다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2) 향약

향약은 시행 주체나 규모 또는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렀다.37) 내용 역시 다양 했으나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예속(禮俗)을 보급하고, 농민을 향촌사회에 묶어 토지로부터의 이탈을 막아 공동체적으로 결속시킴으로써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중종 때 처음 향약을 보급하고자 할 때의 목적은 소 농민 경제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중소 지주층의 향촌 지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일단 좌절되었으나 선조대에 와서 각 지방의 여건에 따라 서원(書院)이 중심이 되어 자연촌, 즉 리(里) 단위로 시행하였다. 초기에는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잘못은 서로 바로잡아 주며, 예속을 서로 권장하고,

---

36)이방·호방·예방·병방·형방·공방의 총칭.

37)향규(鄕規)·일향약속(一鄕約束)·향립약조(鄕立約條)·향헌(鄕憲)·면약(面約)·동약(洞約)·동계(洞 契)·동규(洞規)·촌약(村約)·촌계(村契)·이약(里約)·이사계(里社契) 등이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준다38)는 취지를 살려 조선의 실정에 맞도록 하였다. 그런데 17세기 후반부터 면리제(面里制)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수령권(守令權)이 강화되자, 지방관이 주도하는 향약이 확산되어 갔는데, 면을 단위로 하여 기존의 동계·촌계를 하부단위로 편입시키고 신분에 관계없이 지역주민 전부를 의무적으로 참여 시켰다. 18세기 중엽 이후 재지사족(在地士族)을 매개로 하던 기존의 수취체제가 수령에 의한 향약의 하부 구조로서 공동납체계(共同納體系) 속에 포함되면서 그 성격이 변모되어 갔는데, 동계운영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하층민의 요구와 입장이 첨예하게 표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하층민이 참여하기를 꺼리거나 하계안이 없어지는 현상이 일반화되었고, 사족이 주도하는 동약에서의 운영권은 기층민간의 생활공동체로서의 촌계류(村契類) 조직과 마찰을 일으키고 점차 기층민의 입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19세기 중·후반에는 서학(西學)과 동학(東學) 등 주자학적 질서를 부정하는 새로운 사상 이 등장함에 따라 향약의 조직은 위정척사운동에 활용되기도 했으며, 식민지 시기에는 일본 총독부가 미풍양속이라는 미명 아래 식민통치에 이용하였다.

3) 동(洞)·면(面)·리(里)

동·리·면은 수령에 의해 지배를 받았지만, 면과 동·리는 비교적 자치적인 색채를 띠었다. 면과 동·리는 국가에 의해 강제된 촌락이 아니라, 지역민 스스로 생활의 편리를 위해 자연스럽게 구성한 행정단위이다. 따라서 동·리와 면장의 선임에는 해당 지역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었고, 필요한 경비 역시 지역민이 갹출하여 충당했으며, 연대책임제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면장의 기능을 보면, 수령의 명령을 면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으나 그 외에는 사망이나 출생의 명부 작성, 유랑민이나 수재(水災)의 지도, 면민간의 사소한 분쟁에 대한 재판, 태형집행(笞刑執行) 등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면장은 조세할당(租稅割當)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군에서는 각 면의 총액만을 분배하였고, 면장은 이를 다시 동·리별로 분배하였다. 따라서 면장의 지위는 비록 낮았으나 그 권한이 광범 위하였으므로 후에 정부가 부패됨에 따라 사리(私利)를 도모하고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지위로 변질되었고, 마침내는 악질적인 수령에 의하여 임면권(任免權)도 침탈되는 예가

38)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허다하였다.

동·리는 면내(面內)에 있는 수 개의 자연마을로 자치적 색채를 가진 최소의 행정단위 였다. 동·리에 관하여 주목할 점은 동·리 자체가 경지(耕地)·산야(山野)·제언(堤堰)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했다는 것이다. 토지의 관리는 동·리장이 맡았고, 이를 처분할 때에는 동·리민 전원 또는 유지들의 협의를 경유했으며, 동·리에 거주하는 자는 당연히 이러한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단 동·리를 떠난 자는 이와 같은 권리를 상실하였다.

주로 호구를 밝히고 범죄자의 색출·세금징수·부역의 동원·인보(隣保)의 자치조직을 꾀하기 위해 만든 오가작통(五家作統)에 대한 기록을 ≪경국대전≫에서 보면, 한성부에서는 방(坊) 밑에 5가작통의 조직을 두어 다섯 집을 1통으로 하여 통주(統主)를 두고, 방에 관령 (管領)을 두었다. 지방 역시 다섯 집을 1통으로 하고 5통을 1리(里)로 해서 약간의 이(里)로 써 면(面)을 형성하여 면에 권농관(勸農官)을 두었다. 그렇지만 시대에 따라 운영실적이 한결같지 않아 1675년(숙종 1)에는 '오가작통목 21조'를 작성하여 조직을 강화하였다.

후기에 이르러, 호패(戶牌)와 더불어 호적의 보조수단이 되어 역(役)을 피해 호구의 등록 없이 이사·유리(流離)하는 등의 만성화된 유민(流民)과 도적의 은닉을 방지하는 데 이용하였고, 현종 때에는 통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천주교도를 적발하는데 크게 이용하였다.

1894년과 1895년 지방행정제도의 개편을 통해 중앙관청과 지방관청 간에 상하관계의 법적 근거가 확립되어 명령계통이 수립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법적근거를 갖지 못하던 면과 동·리도 국가의 하급 행정구역으로써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됨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지방행정기구의 체계가 확립되었다.

1895년 지방제도 개편 당시 종전의 무주부 관아였던 와선당(臥仙堂)을 무주군청(茂朱郡廳)으로 개칭하고 무주부사 이탁(李卓)을 마지막으로 하여 부사제가 폐지되었다. 이듬해에는 전국이 13도 9부 329군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당시 무주군은 3등군(等郡)으로 전라북도에 속하였다.

2. 일제 강점기 행정기구

조선총독부 관제에 의하면, 조선총독은 일황의 친임관(親任官)으로 조선을 관할하고, 일 본 헌법상의 법률사항은 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으나, 특히 조선에 있어서는

일황의 결재를 받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바로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제령(制令)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제령에 의하여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하는 지방관제가 채택되었는데, 도지사- 군수-면장-구장-마을유지로 이어지는 철저한 피라밋적 관치제도로 운영되었다. 그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를 표방하며 개편되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식민지 통치를 원활 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지방의회가 있었으나 의결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에 불과 하였고 심의사항도 극히 제한되었던 것이다.

경술국치 이후 일제는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1인의 참여관(參與官)과 3명의 참사관(參 事官)을 두고 친일파 한국인을 임용했으나 그 인원수가 적고 직무권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 조차 없었다. 그 후 이를 폐지하고 각 도의 지방비(地方費)에 새로운 자문기관으로도 평의회(정원 10~37인)를 설치하였다.

이 당시 군 단위에는 일본인 고문과 서무주임 그리고 재무주임이 배치되어 한국인 군수를 보좌하는 형식으로 군 행정을 수행하였고, 면장은 군에 예속시키고 일반 행정을 지도·감독 하도록 하였다. 그 당시 무주군청에는 초대 고문으로 일본인 성전영삼(成田令三)이 취임하여 군정을 간섭하였다.

1934년 2월 '부·군·도(島) 사무분장 표준에 관한 건' 및 1938년 6월의 '지방청의 사무분 장에 관한 건'에 의하여 군과 도의 기구로 서무과와 내무과를 두되 군과 도의 사정에 따라 내무과와 권업과를 두도록 하였다.(1929년 현재, 군과 도에는 서무계와 재무계를 두고 있었다.) 1937년 김종순(金鍾淳) 군수는 종전의 군 청사로 사용하던 와선당을 헐고 그 자리에 일본식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때 무주군 기구는 서무과와 권업과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1917년 10월 1일 제령 제1호 '면제'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면의 사무처리 능력을 인정하고, 면장 외에 유급 면서기와 회계원 그리고 구장 등을 두었다. 이후 1930년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를 모방한 관치적 지방자치제도가 채택되었고, 1931년 '부제와 읍면제'가, 1933년부터는 '도제'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종래의 지정면을 읍으로 하고 일반면은 면으로 부르게 되었다. 면에는 자치기관인 면협의회를 존속시키는데 그 회원은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면에는 도와 부 그리고 읍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관의 감독을 받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공공사무 및 법률·칙령 또는 제령에 의하여 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또한 면은 지방주민에게 지방세(地方稅) 기타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고 재산을

소유관리하며 독자적 예산과 회계를 가지는 이른바 자치재정권과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면의 사무에 관한 규칙제정권(規則制定權: 自治立法權)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세와 사용료·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에는 10원(圓) 이하의 과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었다.[39] 즉 면은 지방행정기구의 최하위 지방자치의 단체가 되었으며,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행정 사무를 보조하였다.

1945년 8월 15일 당시 면 기구는 면장 아래 구장들이 있었으며, 직속기구로는 서무담당과 권업담당이 있었다. 또한 그 당시 무주군내에 거류하던 일본인과 그들이 소유하던 토지 및 임야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40]

읍·면별	세대수	인구수	직업별					토지			임야(정보)	비고
			계	공무원	지주	상업	기타	평	전	답		
계	42	147	45	23	3	6	13	400,115	121,081	279,034	2,319	
무주	21	75	24	11	2	3	8	28,935	18,368	10,567	198	
무풍	5	17	5	2		1	2	64,275	23,353	4,022	124	
설천	7	25	7	4	1		2	61,428	11,598	49,830	809	
적상	2	9	2	2				24,157	9,909	14,248	164	
안성	7	21	7	4		2	1	133,884	21,133	112,751	405	
부남								87,436	36,720	50,716	619	

3. 8·15 이후의 행정기구

1) 미군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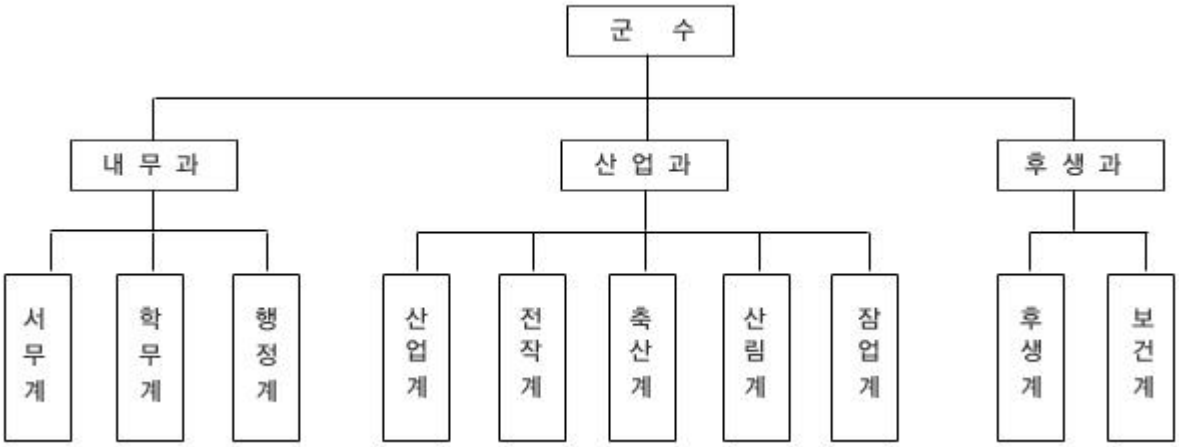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까지 2년 11개월간의 미군정은 해방 후의 혼란과 갈등이 증폭 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반면 이 기간의 행정조직은 일제의 식민정책 수행을 위한 악법 등을 제외하고는 종래의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에 기초한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였다.

1945년 9월 19일 미군정의 시작과 함께 무주군에는 허홍석(許洪錫) 군수가 초대 군수로 부임하였다. 그러나 허 군수가 1년 5개월의 기간을 지낸 반면에 후임으로 온 김종남(金鍾南 는) 군수가 1년, 그리고 최봉학(崔奉鶴) 군수가 불과 8개월을 재직하는 등 3명의 군수가

39)내무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사≫, 내무부, 1987, 38~39쪽.
40)김철수著, ≪적성지≫(人), 무주향교, 1957. ≪무주군지≫, 476쪽에서 재인용.

1948년 9월까지 평균 1년에 불과한 재직기간을 기록하였다.
미군정 당시 행정기구는 다음과 같다.

■ 미군정 당시 기구



2) 제1·2공화국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동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 써 우리나라는 미군정에서 벗어난 자주독립국가가 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동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었는데, 읍·면장은 선거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그리고 1949년 8월 15일부터 지방자치법 이 시행됨에 따라 도(道) 산하에 군(郡)을 두고 행정책임자로 군수를 두도록 하였다. 자치단체가 아닌 군은 일제의 기구가 그대로 적용되어 군수 밑에 내무과와 산업과를 두었다. 군수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를 관장하고, 관내 읍·면의 지방자치단체를 지휘·감독하도록하여 읍·면 규칙을 정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8·15이후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고, 특히 1948년 11월의 대구폭동사건, 1949년의 여·순사건(麗順事件)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등의 민족적 아픔이 거듭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은 1952년이 되어서야 시행되었다. 이 때에 이르러 비로소 읍·면은 기초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었고, 읍·면장은 지방의회의 간접선거로 선출되었다. 또한 읍·면은 자치단체로서의 고유업무와 일선 국가기관으로서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 읍·면장과 함께 서무계·회계계·재무계·사회계·호적계·농무계(農務係)·농지

계를 두었다.

그 후 1956년 2월 13일 법률 제285호가 공포되었는데, 종전의 간접선거제였던 읍·면장 선출이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불과 2년 뒤인 1958년 12월 26일 법률 제501호에 의해 직선제였던 읍·면장 선출이 군수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자유당 정권의 붕괴와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면서 1960년 11월 1일 법률 제563호가 공포되면서 다시 직선제에 의한 읍·면장 선거로 환원되었다.

무주군에서는 1952년 4월 25일 처음으로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동년 5월 5일 면의회가 구성되었다. 면의회에서 면장을 선출했는데, 1956년 8월 8일과 1960년 12월 26일 두 차례에 걸친 직접선거로 민선에 의한 면장이 탄생되었다. 또한 군 행정의 자문기관인 참사회(參事會) 구성을 위한 선출이 1952년 6월 2일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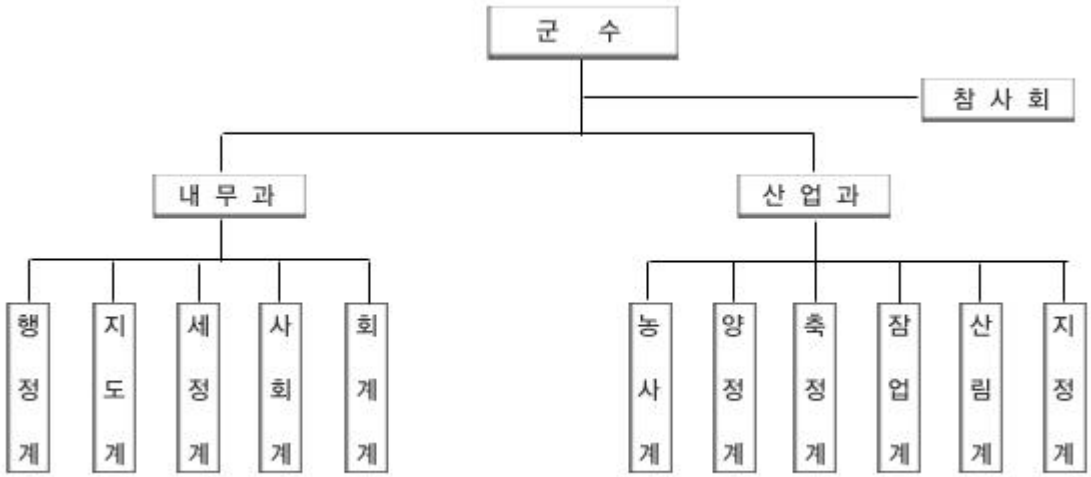
그 당시 선출된 군참사회와 민선에 의해 선출된 면장은 다음과 같았다.

면 별	참 사 회 (1952. 6. 2 선거)	면 장		비 고
		1956. 8. 8 선거	1960. 12. 26 선거	
무주면	김동헌(金東憲)	송재황(宋在晃)	김각균(金珏均)	
무풍면	송진수(宋鎭洙)	하태석(河泰錫) 하천수(河千秀)	이태철(李泰徹)	면장 사퇴. 1957. 6. 보선 하천수 당선.
설천면	백낙은(白樂殷)	성봉환(成鳳煥)	성봉환(成鳳煥)	
적상면	김판출(金判出)	송재창(宋在昶)	하명구(河明九)	
안성면	김용원(金容元)	송영구(宋永求)	박승착(朴勝錯)	
부남면	박찬국(朴贊局) 주대식(朱大植)	주성조(朱聖祚)	김용근(金容根)	주대식은 보선 당선.

1960년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 등의 실정으로 '4·19혁명'이 발발하였고, 마침내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었다. 이어서 제2공화국인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불과 1년 여를 넘기지 못한 채 '5·16군사쿠테타'를 통해 집권한 군정에 정권을 넘겨 주게 되었다. 군정이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에 가장 큰 변화가 온 것은 기초적 지방자치단체였던 읍·면의 폐지였다. 대신 시·군을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읍·면은 시·군의 보조 기관으로 편제 하였다. 이에 따라 군수가 면장을 임명하게 되었다.

1950년대 후반 군과 면의 행정기구는 다음과 같았다.

■ 군행정 기구(1957.1.1 현재)



■ 면행정 기구(1957.1.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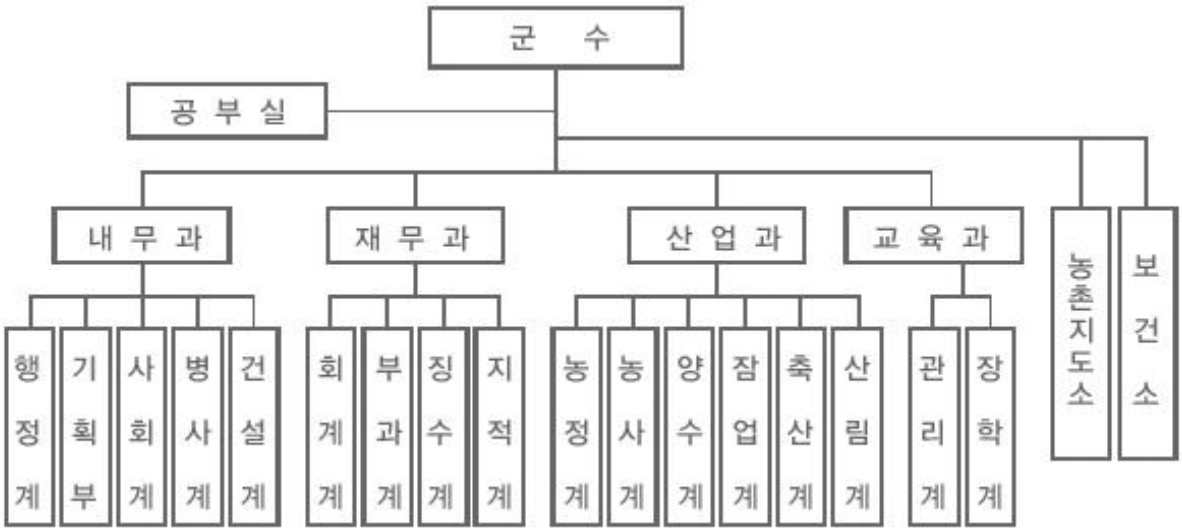


3) 제3공화국 이후

1961년 9월 1일 법률 제707호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해 그간 단순한 행정구역에 불과하던 시·군이 지방자치단체로 승격되고, 종전에 자치단체였던 읍·면은 반대로 자치단체의 지위를 상실하고 군의 단순한 지역적 보조기관으로 그 지위가 격하되었다. 이에 따라 군수 밑에 내무과와 산업과로 분류되었던 군의 행정기구가 내무과·재무과·교육과· 산업과 등 4개 과 17개의 계로 확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그 후 1962년 4월 11일 군의

외청기관으로 농촌지도소가 설치되었고, 동년 6월 23일에는 군수 직속으로 공보실(公報室) 이, 동년 12월에는 군의 외청기관으로 보건소가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1962년 12월 말 현재 무주군 행정기구는 본청에 1실 4과 17계, 외청기관으로 2개의 사무소를 두게 되었다.

■ 1962 .12 . 말 현재 행정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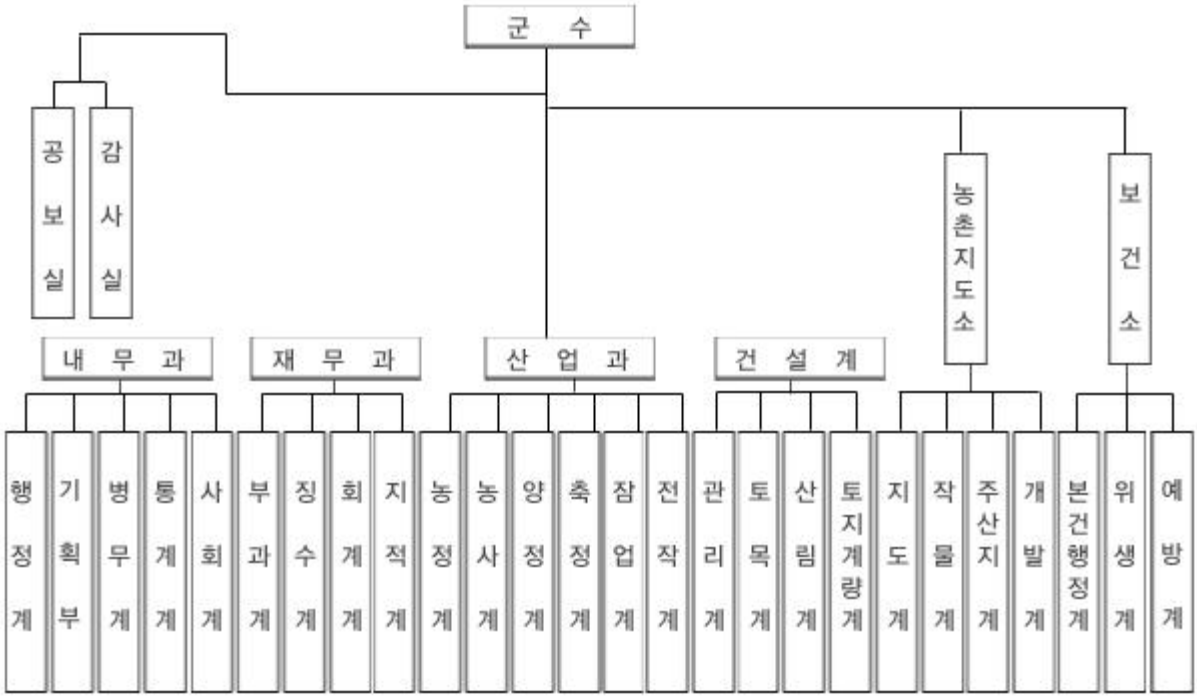


1963년 11월 1일 법률 제1435조가 공포되어 교육법이 개정되었고, 이듬해인 1964년 1월 1일부터 교육자치제가 시행되어 동년 2월 11일 시·군의 교육과가 폐지되었다. 1966년 1월 20일 건설과가 신설되고, 1968년 5월 3일에는 산림과가 설치되었다. 동년 8월에는 내무과장 이 실장을 겸하는 민원실(民願室)이 설치되었으며, 동년 9월 28일에는 종전의 공보실을 문화공보실로 바뀌게 되었다.

1969년 2월 22일 내지행 제1399호에 의거 감사실이 신설되었으며, 1972년 1월 14일에는 내행정 제329호가 공포되어 내무과에 새마을계가 신설되었다. 그 당시 무주군 행정 구조는 본청에 2실 4과 19계, 외청으로 2개 사무소에 7계가 있었다. 그러나 감사실은 1972년 6월 1일 폐지되었다.

■ 1971 .12 . 말 현재 행정기구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된 후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1973년 2월 1일 내행정 제85호에 의거 새마을계를 확대 개편하여



새마을과로 신설하였다. 동년 9월 1일 내행정 제1982호로 산림과가 신설되었다.

1974년 12월 17일 내행정 제14319호가 공포되어 '새마을 담당 부군수제'가 신설되었고, 1975년 1월 15일 초대 허승만(許承萬) 부군수가 취임하였다. 이와 함께 새마을과가 폐지되면서 부군수 밑에 새마을계·개발계·기획예산계가 설치되었다. 그 후 1975년 9월 30일 내행정 제5877호로 신설된 감사계와 1978년 2월 20일 내행정 제2030호에 의거 신설된 주택 계를 보강하여 5계를 운영했는데, 후에 다시 새마을과가 부활되면서 일부는 이에 속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부군수제는 1981년 11월 17일 내지기 제180-17197호에 의거 퇴직 또는 전출되는 부군수가 있는 군에서는 부군수제가 폐지되는 방침이 정해져 1982년 10월 27일 제6대 하호철(河浩喆) 부군수가 전임되면서 잠시 부군수제가 폐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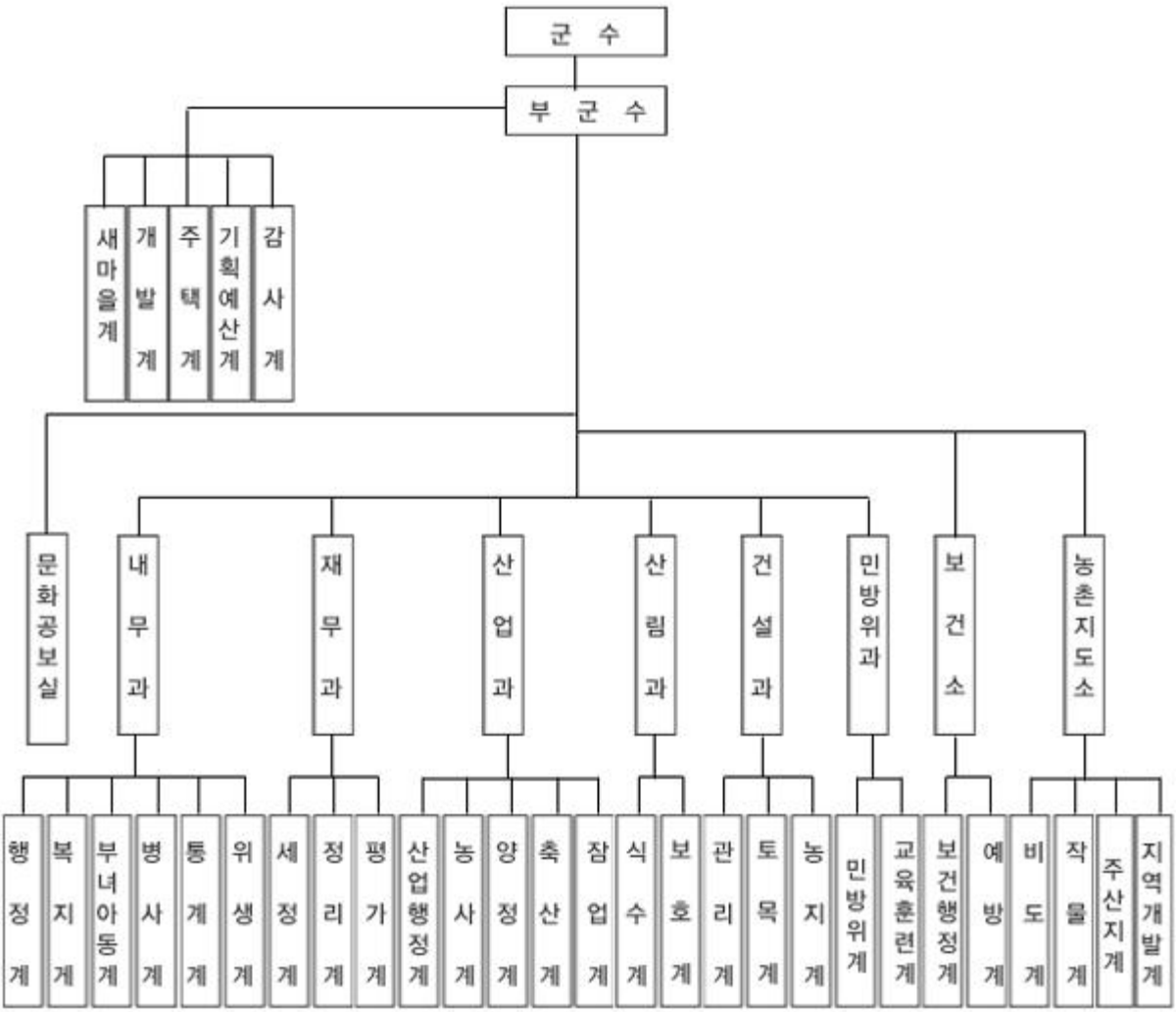
위와 같은 변화와 함께 1975년 8월 26일 내지기 제9077호에 의거 민방위과가 신설되었고, 동년 12월 26일에는 내지기 제14413호에 의거 보건소에서 담당하던 위생업무가 내무과로 이관되어 위생계가 설치되었다.

■ 1978. 12. 말 현재 행정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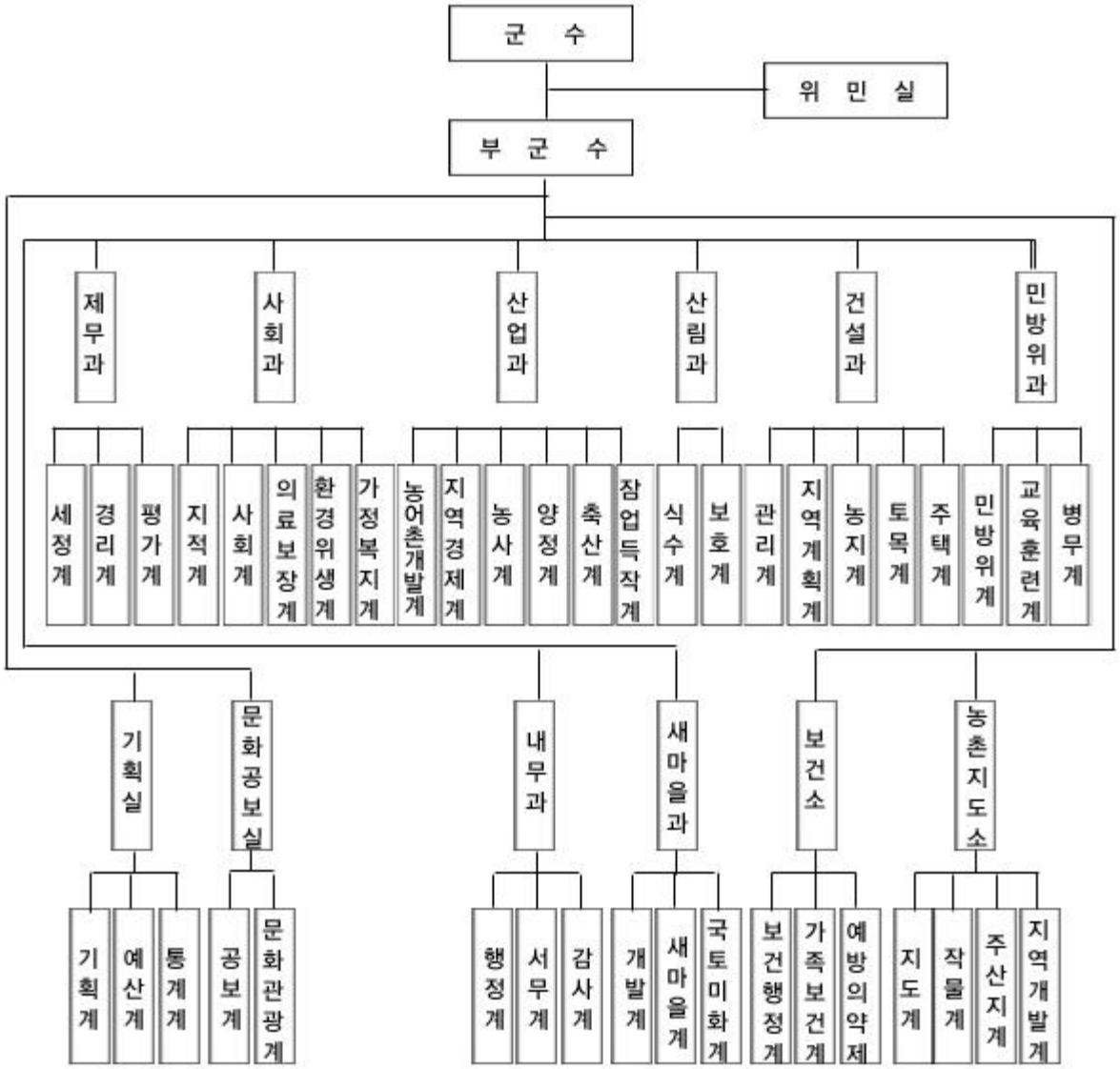
그 후 1979년 5월 1일 사회과가 신설된 것에 외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었는데, 1980년대 들어 다시 개편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정부에서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에 있을 서울

올림픽에 대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1985년 2월 16일 내지기(內地企) 제0121-2022호에 의거 이전에 폐지되었던 부군수제가 부활되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진안·장수·임실·남원·순창·무주군 등 6개 군에 부군수가 취임하게 되었는데, 무주군에는 주재만 부군수가 부임하였다.

1987년 들어 군수 직속으로 위민실(爲民室)이 설치되었고, 동년 12월 9일에는 문화공보실에 공보계와 문화관광계를 신설토록 규정되어 그 이듬해인 1988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제6공화국이 출범하던 1988년 5월 18일에는 기획실이 신설되었다. 1989년에는 전국적으로 55개 군과 자치구에 지적과가 설치되었으며, 1990년에는 시·군·구의 전산관리기능과 청 소행정기능을 보강하고자 전산계와 청소계가 신설되었다. 그 당시 무주군 행정기구는 본청에 2실 8과 35계가 있었고, 3개의 사무소에 7계가 직제로 편제 되어 있었다.



■ 1988. 10. 말 현재 행정기구



4) 지방자치시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행정기구에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바로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그에 따라 조치가 뒤따라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조국통일 때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으나,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었다. 그 후 1988년 5월 1일 지방자치법에 지방의

회 구성을 규정했으나, 정치적 상황으로 예정대로 실시되지 못하다가 1991년 3월 26일 기초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무주군의회가 구성되었고, 의회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의회사무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인사조치를 단행하여[41] 기존의 본청과 읍·면동 그리고 직속기관과 출장소에 이어 의회사무과가 추가되었다.

1993년 2월 25일 '문민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추진된 시·군 통합으로 40개의 도농통합도시가 탄생되었으나, 무주군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

1994년도에는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를 조직 운영하였다.[42]

1995년에는 민선자치제가 부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직렬) 신설을 위해 지방 정무직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가경제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실명제 토지거래허가 및 공시지가업무 등 지적 관련 행정수요의 신규정원 및 기구 설치로 본청 공무원의 정수가 211명에서 213명으로 증원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이 공포(대통령령 제14647호 '96. 5. 16)됨에 따라 무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서 삭제된 의회정원 11명이 신설되었다.[43]

이 시기 무주군은 민주화·지방화의 정착과정에서 급증하고 있는 소송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 활용하였다. 고문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44]

지방세정개혁 대책의 후속조치로 세무 관련 부정방지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 관리를 위한 세무기구 및 인력이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세정계를 부과계로, 조사평가계를 징수계로 개편 했으며, 읍·면의 세무직 5명을 군으로 정원 조정하여 인력 배치를 하였다.[45]

또한 전주소방서 무주파출소가 개소 됨에 따라 그 동안 민방위과에서 수행하던 소방관련 업무가 폐지되었으며,[46] 지방행정전산화사업 추진으로 행정전산실이 본격적으로 설치됨에

41)지방의회 사무과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42)무주군의회 사무과, ≪의정백서≫제1집, 무주군의회, 1995, 402쪽.
43)위의 책, 521. 517쪽.
44)위의 책, 478~479쪽.
45)위의 책, 506쪽.
46)위의 책, 495쪽.

따라 무주군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로 제정되었다.[47)]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후 무주군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 중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무주 군 조직진단'과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한 조직 개편이라 하겠다. 1996년 11월 15일 최종보고서로 제출된 ≪무주군 조직진단≫은 '무주군 행정내부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으로 무주군의 의뢰에 따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1996년 6월 28일에서 1996년 11월 15일까지 약 5개월 동안에 걸쳐 진행한 연구성과 였다.

무주군에서 위와 같은 연구를 실시한 것은 첫째, 무주군의 발전 목표와 전략에 따른 중장 기 군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었고, 둘째, 중장기 군정방향에 기초한 행정내부 조직·인력·기능의 합리적인 배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군 행정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서 장·단기 조직개편안의 정원 및 업무분장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무주군의 조직 및 인력관리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 후 1997년 동계U대회를 대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한시기구로 'U대회 상황 실이 설치되었다. 1997년 조직개편을 보면, 본청은 1실 12과 1한시기구(U대회 상황실) 48계 였다.[48)] 그리고 1개의 사업소가 있었으며, 직속기관으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2과, 12계) 가 있었다. 의회사무과에는 1과 1전문위원, 그리고 1계가 있었으며, 1읍 5면에 31계가 있었는데, 3곳의 출장소가 있었다.

1997년 9월 23일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부면장제도와 문화공보실을 폐지하고 대외협력 과와 지역경제과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본청의 경우 문화공보실과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대외협력과와 지역경제과를 신설하며 가정복지과는 사회과와 통폐합하는 등 기구를 종전 2실 11과 48계에서 1실 12과 48계로 조정했다.

또 출향 인사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무주군 유통사업소'를 신설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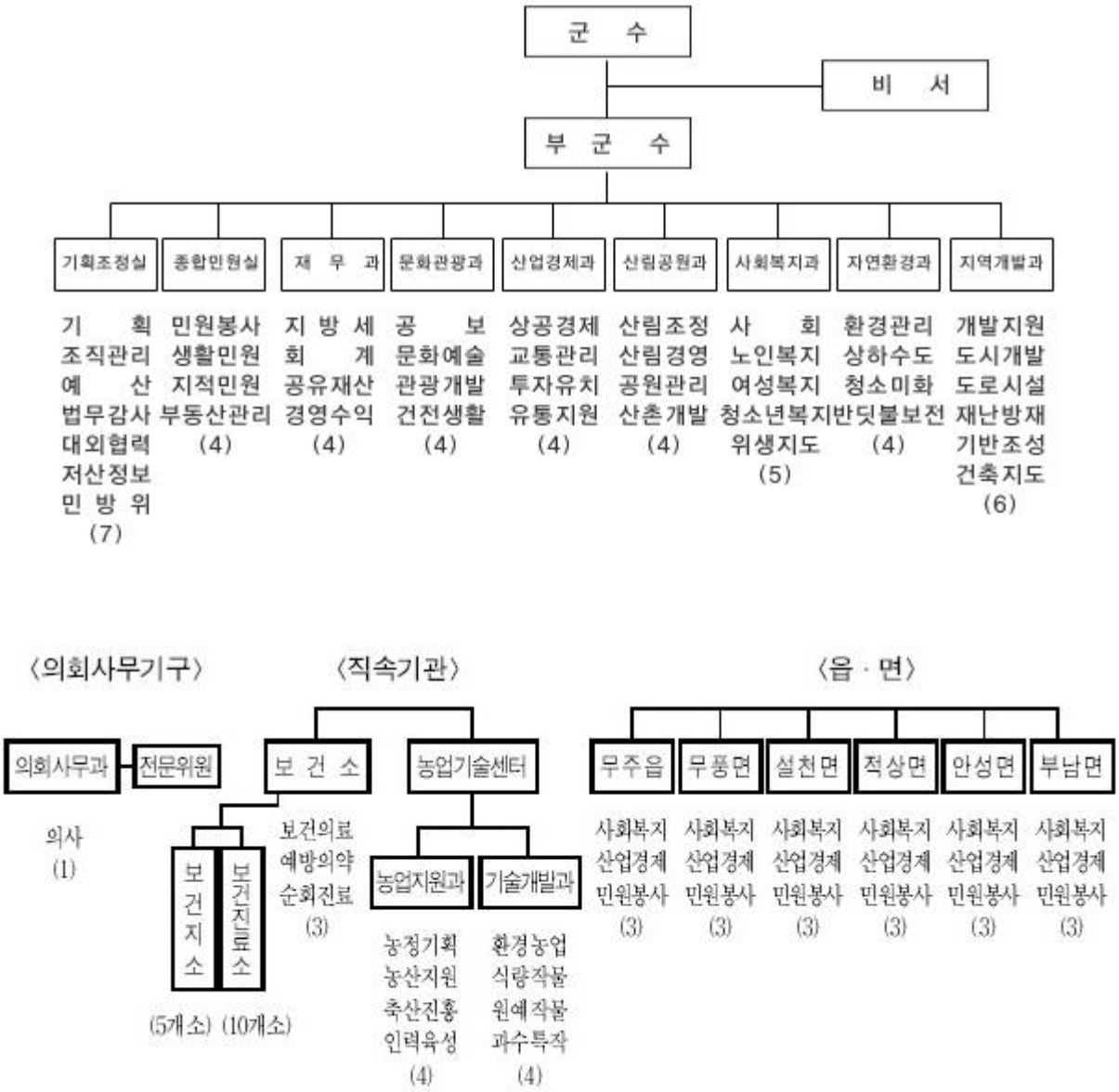
47) 위의 책, 501쪽.

48) 기획감사실[기획·예산·법무감사·정책개발] 내무과[행정관리·조직인사·주민자치] 대외협력과[대외협 력·공보·홍보지원] 재무과[지방세·세외수입·경리·공유재산] 민원지적과[지적·부동산관리·민원봉사· 정보통신] 농업지원과[농업진흥·농산경영·축산진흥·과수특작] 지역경제과[상공유통·유통지원·투자유치 -무주군 유통사업소-] 산림공원과[산림조성·산림경영·공원관리] 사회복지과[사회·노인복지·여성복지·위 생] 환경과[환경관리·청소·상하수도] 문화관광과[문화예술·관광진흥·관광홍보·생활체육] 건설도시과[건 설지원·도시개발·토목·건축·기반조성] 민방위재난관리과[민방위·재난관리·병무] U대회 지원상황실 [업무]

며 특히 무주가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사실을 중시, 문화공보실을 폐지하고 신설된 문화관광과에 관광홍보계를 따로 설치했다.

읍·면사무소는 획일적으로 편제되어있는 면장과 부면장제도가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부면장제도를 폐지하고 총무계장이 부면장직을 겸임토록 했으며, 잉여인력으로 사회 복지계를 신설하고 재무계와 산업계를 통합하여 지역개발계를 신설했다. 부면장제도 폐지는 도내에서는 처음이었다.

■ 1998. 11. 30 현재 행정기구



5) IMF와 구조조정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로 인한 국가경제가 악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1998년 6월18일 중앙정부는 지방행정 조직의 감축개편 방침을 정했고, 1999년 6월 14일 중앙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방침이 정해졌다. 이에 앞서 무주군에서는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49] 이와 함께 무주군청 내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식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실시했는데, 'IMF형 시대에 걸 맞는 작지만 효율적이고 직무를 중시하는 생산적인 개편'에 중점을 두었다.

행정조직 개편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자치경영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조직 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운용관련 조례와 규칙의 표준조례·규칙 안 시달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령 시행지침시달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계장제도'가 폐지되어 '담당제'로 전환되었으며, 직위 중심의 조직관리에서 주민 위주 수요자 중심의 봉사행정체제를 갖추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는 한편, 종전 14개 실과를 9개 실과로 축소 개편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갖춰나가도록 준비하였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 **기획조정실** : 통제기구인 기획감사실과 내무과를 통폐합하고 민방위재난과를 폐지하여 7개 계[기획·조직관리·예산·법무감사·전산정보·민방위]로 나누고, 군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총괄하고 통솔 관리하도록 하였다.

○ **종합민원실** : 민원지적과를 흡수하여 4개 계[민원봉사·생활민원·지적민원· 부동산관리]로 나누고, 주민의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다.

○ **재무과** : 4개 계[지방세·회계·공유재산·경영수익]로 나누며, 무주군의 재산관리 및 자금운용, 지방세 부과징수 및 총체적인 무주군 살림을 도맡아 하도록하였다.

○ **문화관광과** : 대외협력과와 문화관광과를 통폐합하여 4개 계[공보·문화예술· 관광 개발·건전생활]로 나누고, 각종 국·도·군정을 홍보하고 문화·관광·체육·축제

---

49)무주군은 이를 위해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장 및 인사담당실무자와 함께 무주군의회 송재호·김원수 의원,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신환철 교수, 전북대학교 강인재 교수, 청주대학교 진재구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하상복 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조직개편자문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등 무주군의 전통문화예술을 총망라하여 관장하도록 하였다.

○ **산업경제과** : 기존의 지역경제과를 산업경제과로 흡수하고 서울유통사업소 기능을 흡수하여 사업소를 폐지하면서 4개 계[상공경제·교통관리·투자유치·유통지원] 1 개 임시사무소[서울사무소]로 나누며,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교통과 유통판매 등 우리 생활에 직업 연결된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다.

○ **산림공원과** : 4개 계[산림조성·산림경영·공원관리·산촌개발]로 나누며, 맑은 공기와 자원을 소중히 간직해 주는 산림녹화와 쉼터 제공을 주업무로 하였다.

○ **사회복지과** : 5개 계[사회·노인복지·여성복지·청소년복지·위생]로 나뉘며, 어려 운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을 지향하며, 여성 및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교육을 담당

○ **자연환경과** : 기존의 환경과를 흡수하고 4개 계[환경관리·상하수도·청소미화·반딧불보전]로 나누어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관리하여 맑은 물과 공기를 제공 하도록 하였다.

○ **지역개발과** : 기존의 건설도시과의 명칭을 바꾸어 6개 계[개발지원·도시개발·도로 시설·재난방재·기반조성·건축지도]로 나누며, 도로·교량·하천·경지정리 등 기반시설과 재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의사과** : 전문위원과 1개 계[의사계]에서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집행부와의 연결고리로 군정 전반에 대한 의회의 운영관리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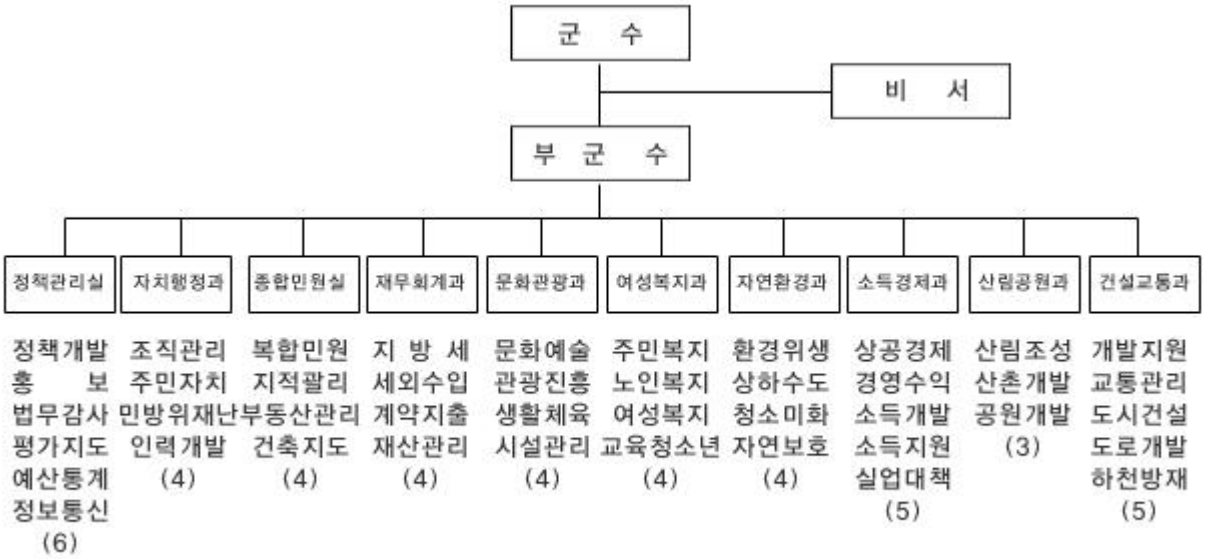
○ **보건소** : 군청의 직속기관으로 3개 계[보건의료·예방의약·순회진료]와 5개 보건지소, 10개의 보건진료소를 갖추고 군민의 건강관리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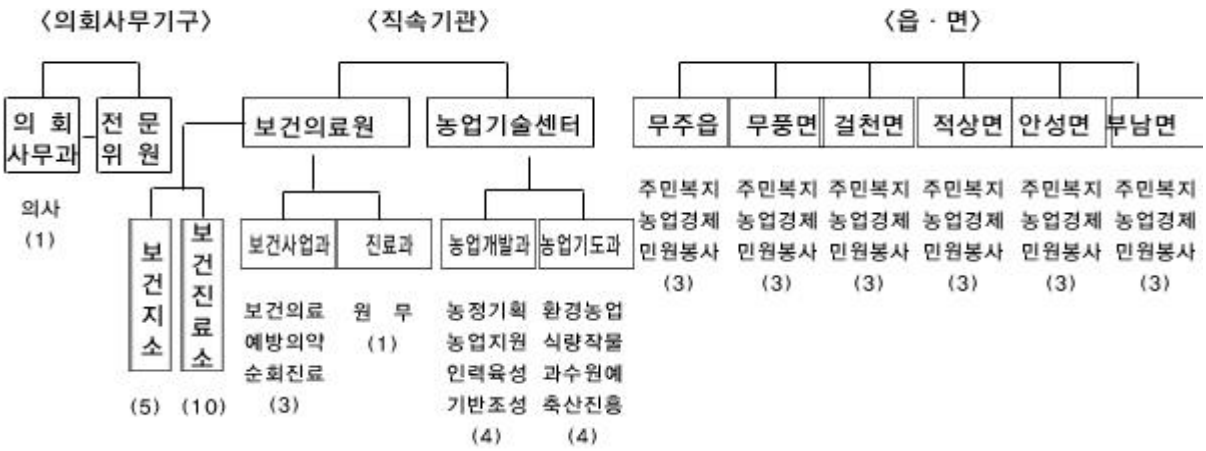
○ **농업기술센터** :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를 통폐합하여 기술개발과로 하고 농업지원과를 이관 흡수하여 2개 과 8개 계로 나누고, 농업기술전반 및 지역소득증대에 기여[농업지원과 - 농정기획·농산지원·축산진흥·인력육성] [기술개발과 - 환경농업·식량작물·원예작물·과수특작]토록 하였다.

또한 구천·상곡·가정출장소 기능을 폐지하고 해당 지역 면사무소에 이관시켰으며, 의회사무기구는 종전과 같이 의회사무과를 두어 개편하지 않았고, 농민상담소를 폐지하였다.

그리하여 1998년 행정조직 개편으로 무주군 지방공무원 총정원은 498명에서 61명이 감축 되어 437명(집행부 427명, 의회 10명)으로 조정되었으며, 1999년에는 기획조정실이 기획감사실로 2000년에는 정책관리실로 개편되었다.

■ 2001. 12. 말 현재 행정기구





■ 무주군청 행정조직 변화표(1991~2002)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기 획 실	○	○	○	○	○	○							
대 외 협 력 과							○	○					
기 획 감 사 실							○	○		○			
정 책 관 리 실											○	○	○
기 획 조 정 실								○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자치행정과										○	○	○	○
문화공보실	○	○	○	○	○	○							
문화관광과							○	○	○	○	○	○	○
내무과	○	○	○	○	○	○	○	○					
새마을과	○	○											
재무과	○	○	○	○	○	○	○	○	○				
재정경제과										○			
재무회계과											○	○	○
사회과	○	○	○	○	○	○							
사회진흥과			○	○	○	○							
가정복지과	○	○	○	○	○	○							
사회복지과							○	○	○	○			
여성복지과											○	○	○
산업과	○	○	○	○	○	○							
산림과	○	○	○	○	○	○							
건설과	○	○	○	○	○	○							
건설도시과							○	○					
지역개발과									○				
건설교통과										○	○	○	○
민방위과	○	○	○	○	○								
민방위재난관리과						○	○						
보건소(보건의료원)	○	○	○	○	○	○	○	○	○	○	○	○	○
농촌지도소(농업기술센터)	○	○	○	○	○	○	사회지도과	○	○	○	○	○	○
							기술보급과	○	○	○	○	○	○
환경보호과		○	○	○	○	○							
환경과							○	○					
자연환경과									○	○	○	○	○
U대회지원상황실					○	○		○					
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종합민원실									○	○	○	○	○
농업지원과							○	○					
지역경제과							○	○					
산업경제과									○				
소득경제과											○	○	○
무주군서울사무소								○	○	○	○	○	○
산림공원과							○	○	○		○	○	○
의회사무과								○	○	○	○	○	○

6) 농업기술센터(舊농촌지도소)

(1) 무주군 농사교도소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농촌진흥책과 기구가 설치된 것은 해방 후의 일이었다. 1947년 '농업기술교육령'이 공포되고 이에 근거하여 동년 12월 '농사개량원'[50]이 발족된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의 교도국 산하에 속하는 각 도의 지방교도국과 함께 군 단위 농사교도소가 설치되었으며, 1948년 6월부터는 각 도의 읍·면에 1명 씩의 교도원이 배치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행정기능이 마비되고, 1951년에는 농사교도사업비마저 전액 삭감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사실상 농사지도사업은 막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전후(戰 後) 복구사업이 진행되고 민간차원의 4-H 구락부 활동이 활기를 띠면서 다시 시작되었다. 즉, 1955년 3월 농림부에 농업교육과가 신설되고, 1956년 3월 6일 중앙기술원에 교도부가 부활되면서 각 도의 농업교도과와 시·군의 산업과에 농사지도소가 설치된 것이다.

그 후 1959년 1월 29일 농사교도법이 통과되고 동년 5월 28일 수원에서 농사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각 도에 농사원을 두고 시·군에도 농사교도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58년 일반행정기관에서 독립된 무주군 농사교도소가 무주향교 옆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무주군 농촌지도소의 전신으로 태동되었다. 초대 소장은 장재진(張在鎭)이었다.

1950년대 말과 1960대 초반은 정치적 격동기로 시·군당 3~4명의 교도원으로는 농민의 욕구를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더욱이 이 시기는 종전의 중앙 지시의 업무가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면서 상향식 사업계획 방식으로 전환되는 시기였으며, 또한 농사개량구락부와 생활개선구락부 등을 조직하여 집단접촉지도에 주력하던 시기였다. 1961년 10월 2일 종전의 농사교도법이 농사연구교도법으로 개정되고, 도 농사원도 도지사 산하의 외청으로 조정되면서 도 단위 이하의 교도사업은 다시 행정기관에 소속되는 2원적 지도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2) 무주군 농촌지도소

1962년 3월 1일 농사교도법의 폐지와 더불어 농촌진흥법이 공포되고, 농촌진흥청으로 개칭되면서 농사교도소 역시 농촌지도소로 이름을 바꾸어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동년

---

50) 농사개량원은 1949년 1월 농업기술원으로 개편되었으며, 1957년 5월 농사원으로, 1962년 4월 농촌진흥청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5월 9일 무주군 농촌지도소의 직제가 제정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보게 되었고, 동년 6월 20일 제정된 읍·면지소 설치 조례에 따라 1963년 10월 15일 무풍면과 안성면에 지소가 설치되었다.

그 후 1965년부터 농사개량사업과 생활개선지도, 4-H 등 학습단체의 육성과 농민훈련소 설치 등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지도소의 직제가 확장되어 지도계·기술계·지역개발계로 편제 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기술계가 폐지되고 작물계와 주산지계로 개편되어 4개의 계로 운영되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식량증산을 위한 집단재배 방식을 발전시키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향상과 녹색혁명을 태동 시킨 다수확 신품종 벼인 '통일벼'의 장려를 주도하게 되었다. 1973년에는 농촌진흥법의 취지를 살리고 식량의 완전 자급을 위한 기구의 확대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지소가 읍·면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6개소의 지소가 운영되었다. 조직의 확대와 더불어 1977년에는 기술담당관 제도가 실시되고, 그 결과 동년 12월 20일 그 성과로 '녹색혁명 성취의 탑'을 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공업화 정책에 밀려 이농(離農)현상이 증가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게 되었다. 1978년 4-H구락부를 새마을청소년회로 바꾸면서 정신교육 강화에 주력했고, 1980년대부터는 영농후계자 육성에 역점을 두고 농촌생활의 과학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복합영농 지도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도인력의 증가와 행정기구의 확대 등이 요구되어, 1983년 10월 무주읍 당산리에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고 이전하였다.

그 후 1989년 4월 3일 무주군 농촌지도 지소 설치 조례가 폐지되고 종전의 6개 지소를 통폐합, 본소의 4개 계를 전문 분야로 나누어 12개 계로 개편 운영되었다. 1989년 12월 30일에는 지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기능발휘를 위하여 기술담당관제를 폐지하여 과제로 개편하고, 사회과와 기술보급과를 신설하여 2과 12계로 운영되었다.

그 이후 1997년 1월 1일을 기



농업기술센터

해 농촌지도소 구성원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1998년 10월 20일자로 제정된 무주군 조례에 의거 이듬해인 1999년 1월 8일 무주군 인사가 단행됨에 따라 무주군 소속이 되었으며, 현재는 '농업기술센터'로 개칭되어 김복기(지방농촌지도관) 소장과 2개 과 8개 담당에서 농업기술전반 및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다음은 해당 2개 과와 8개 담당의 업무이다.

(3) 농업기술센터 업무 분장

구 분		분 장 업 무
농업개발과 (농민상담 및 농기계 기계화 사업·보관창고)	농 정 기 획	농정기획전반, 농업개발계획, 불법농지 및 전용농지 사후관리, 농업진흥지역관리, 경리·예산·물품관리, 관광농원, 차량원전 및 관리.
	농 업 지 원	농업지원업무 전반, 추·하곡수매, 양곡관리 특별회계운영, 농업인 PC 보급 및 운영, 농기계 순회수리 및 사후봉사, 농기계구입·영농회사지원, 농기계 간이 수리소 설치.
	축 산 진 흥	축산진흥팀 기획·조정, 축산진흥업무 전반, 축산경쟁력제고사업, 가축통계, 동물관리·약국관리·수의사공수의 지도감독, 가축도살처분, 가축분뇨처리사업,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기 반 조 성	기반조성 업무전반, 한해예방대책,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정·양수장비 관리, 국유재산관리, 개간허가 및 지도, 지역특화사업.
농업지도과 (농·축·특산물 생산으로 소득증대 기여)	환 경 농 업	환경농업 기획.조정, 환경농업지구 육성, 퇴비증산, 푸른들 가꾸기, 토양개량사업, 농업정보화사업 운영, 정밀토양 검정실, 공동 퇴비장 관리, 친환경농업 육성 및 교육, 유기질비료 생산공급, 농가경영컨설팅 추진.
	식 량 작 물	식량작물 업무계획 수립, 농작물재해 및 기상관리, 밭작물 지도, 농촌일손돕기, 벼농사, 병해충 방제.
	과 수 원 예	과수원예업무 전반, 화훼온실·잠업, 실증시험포장, 버섯 재배사, 원예작물전반, 수출농업, 과수전반, 특용작물, 유리온실, 조직배양.
	인 력 육 성	인력육성업무 전반, 산업기능요원 관리, 농촌지도자 육성, 농업인 교육, 4-H조직운영.

7) 보건의료원(舊보건소)

(1) 우리나라의 근대적 보건의료행정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서양의학의 보급과 시행은 1877년 부산의 개항으로 일본인이 그들을 위한 재생의원을 세운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서울과 인천 및 원산 등지에 병원이 세워졌다. 그 당시 서양의학은 한방의학과 함께 병존했으나 갑오개혁 이후부터 보건행정 및 의료인 교육제도가 서양의학 중심으로 실시되면서 널리 확산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일반의료행정을 담당하는 전의감(典醫監)과 왕실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내의원(內醫院), 서민의 구료(救療)를 담당하는 혜민서(惠民署), 전염병 환자를 격리 수용하던 활민서(活民署) 등이 있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의무관을 두어 모두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도에는 심약(審藥)을 두어 의료행정을 관장토록 했으며, 부·군·현에도 의료요원을 배치하여 지방의 의료행정과 구료사업을 담당토록 하였다.

1894년 갑오경장과 함께 내부대신 산하에 위생국을 설치하였고, 이듬해 5월에는 그 하부에 위생과와 의무과를 두어 현대적인 조직을 갖추었다. 1904년 위생국을 폐지하는 대신 지방국에 위생과를 설치했으나 1908년 다시 위생국을 부활시키고 보건과와 의무과를 두었으며, 이듬해에는 추가로 시험과를 설치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 후 조선총독부 경무총감 소속 경찰국에 위생과를 설치하고, 각 도 역시 경찰부에 위생과를 두어 의료예방 차원의 행정이 아니라 단속 위주의 행정으로 일관하였다. 식민지 이전 중앙에는 광제원과 대한의원을 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각 도에는 자혜의원과 종두사업소(種痘事業所)를 설치했는데, 1925년 총독부에서 각 도 산하로 이관하면서 도립병원으로 개칭하여 지방의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었다.

해방 후 미군정은 예방보건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생국을 보건후생국으로 개편하고, 각 도에도 보건후생국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산하에 의무과·약무과 등 6개 과의 조직을 두어 지방의 보건후생행정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2) 무주군의 보건의료

무주군에서 최초로 근대식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료활동을 시작한 것은 1933년이었다. 1927년 경성의전을 졸업하고 수원과 강원도에서 의사생활을 하던 신현돈(申鉉燉)이 무주군의 공의(公醫)로 내려와 무주읍내에 지남병원(芝南病院)을 개원하고 의료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신현돈은 경북 안동군 예안 출신으로 일찍이 신앙생활로 성장하여 대학시절에는 전국기 독학생회장을 역임한 인물로 성품이 청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였다. 그는 인술 외에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연설도 잘하여 삼남(三南)에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해방 후에는 그의 아들 신숙철(申肅徹)에게 병원장을 물려주고 정계에 진출, 제헌국회의원과 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초대 전라북도지사와 경북지사를 역임하였다. 또한 내무·보사·무임소장관 등 관계까지 두루 거쳤다. 1965년 1월 생을 마치고 무주읍 당산리 남산기슭에 묻혔다.

이 외에 1930년대 후반 한경수(韓競洙)가 만은치과의원(晩隱齒科醫院)을 개설하고 지역민의 치과보건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해방 후에는 본군 출신 김한형(金漢衡)이 현재의 무주군청 옆에 삼호병원(三乎病院)을 개설하였다. 이처럼 무주군에는 지남병원과 만은치과병원, 그리고 삼호병원 등 3개소의 의료기관이 군민의 보건의료에 기여하였다.

(3) 무주군 진료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사회부 산하에 보건국이 설치되었는데, 이듬해 7월에는 보건부가 사회부에서 분리 독립되었다. 1955년 2월 17일 보건부와 사회부가 통합되어 보건사회부가 되었다. 그 당시 도 단위의 보건의료는 정부 수립 때 사회국에 속했으나 1950년 4월 문교사회국으로 개칭되었다. 그런데 1951년 9월 25일 '국민의료법' 제정에 따라 민간봉사기관으로 하여금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과 일반진료 사업이 병행될 수 있게 되어 동년 10월 무주군에도 진료소가 설치되었다.

무주군 초대 보건진료소장은 장봉섭이었고, 1953년 2월 15일 지남의원 신숙철 원장이 2대 소장을, 1956년 4월 15일 삼호병원 김한형 원장이 3대 소장으로 위촉되어 1958년 12월이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운영되었다. 1959년 1월부터는 진료소를 도립보건소 체제로 점차 개편했다.

그런데 1961년 10월 6일 보건행정을 관장하던 도의 문교사회국이 보건사회국으로 개칭되고, 군청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사회계가 신설되는 변화가 있었는데, 이 즈음 무주군 진료소는 도립 무주보건소로 개칭되었다.

(4) 무주군 보건소

1962년 9월 24일 법률 제1169호로 구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되고 보건소의 설치 주체 및 업무 조항이 마련되었다. 즉, 보건소의 운영주체를 종래의 시·도에서 시·군으로 전환하고, 종전의 도립보건소를 시·군 보건소로 개칭한 것이다. 이에 맞추어 1963년 1월 3일 무주군 보건소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군청 앞[51]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보건행정계·예방계·위생계등 3계와 무풍·적상·안성면 등 3개 면에 지소를 두어 새로운 보건의료를 수행하였다. 그 당시 무주군 보건소 초대소장은 조윤수(趙潤秀)였다.

그 후 무의촌(無醫村) 일소 방침에 따라 1963년 9월 10일 설천면소재지에, 1968년 10월 1일 부남면에 지소가 설치되었다. 이로써 본군은 무의면(無醫面)이 해소되었으며, 지소장은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되었다.

1975년 12월 26일 보건행정기구의 직제가 개편되면서 그 동안 보건소의 업무였던 위생업무와 환경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되어, 이듬해 1월 1일부터 군청 내무과에서 처리하게 되었다. 또한 시·군·구의 보건소 설치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1977년부터 의료보호사업과 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보건소가 의료보호사업에 따른 제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역민의 진료업무를 보게 되었다.

그 후 1980년 12월 31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지소장의 대부분이 공중보건의사로 충원되었다. 또한 오지의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진료를 위한 진료소 설치가 규정되어 1981년 12월 1일 개설된 설천면 삼공리의 구천동보건진료소를 비롯하여 1986년 7월까지 10개소의 진료소가 개설되었다.

한편 정부의 진료보험 확대 실시에 따라 1983년 1월 17일 무주군 보건소가 진료보험요양 기관으로 지정되었고, 늘어나는 보건행정으로 인해 기구가 확대되어 1985년 8월 모자보건 센터 건물에 보건소 사무실을 증축하여 이전하였다. 1984년 6월부터 모자보건센터가 설립 되어 운영되었는데,[52] 1989년 12월 폐지되어 모자보건계로 행정기구에 편제 되었다. 1989년 12월 현재 무주군 보건소는 4계, 5지소, 10진료소로 편제 되어 있었다.

1991년 3월에는 보건소법을 개정하여 보건지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보건소 업무를 보완하였다. 이듬해 7월에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보건의료 전문인력 배치 기준이 마련되었다.[53] 1994년 12월에는 농어촌 특별세법이 마련되었으며, 1996년 1월 '보건소법'이 '지

51)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26-4번지. 스레트 벽돌 건축물로 넓이는 100㎡였다.
52)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352-2번지였고, 대지 3,672㎡에 건평 1,239㎡였다.

역보건법'으로 개정(법률 제5101호) 공포되었다.

1991년 지방자치의 부분적인 시작과 1995년 민선자치가 본격화되면서 보건소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보건소의 역할 및 활동방식이 모색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농어촌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기능보강사업이 전개되었고, 농어촌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육성을 통해서 농어촌 주민이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특세의 지원을 통해 통합보건소의 조직 및 인력의 확대와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물리치료실·한방진료실의 설치 및 확대, 방문보건사업의 확대 등 공공보건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성숙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민선자치의 시작과 함께 개정된 지역보건법의 주요 골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결과의 평가를 통한 경쟁요소 도입이다. 즉, 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과 함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토록 하고, 선거 때 유권자들이 보건의료부문에서의 정책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 무주군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985년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입주했던 보건소 건물의 노후화를 해소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보강한 새로운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어 군민을 위한 보건의료에 진력하고자 1999년 3월 19일 보건소 신축 이전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국제병원(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701)이 운영난으로 부도를 내고 문을 닫게 되었다. 이에 군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자는 공론이 일게 되었다.

그리하여 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이 동년 4월 14일 보건의료원 건립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의되었고, 동년 4월 26일 실시된 6차 경매 때 낙찰을 보아 동년 6월 3일 舊국제병원

53)보사부훈령 제639호.

을 매입하게 되었다. 매입가는 총 26억원으로 국비 13억원과 군비 13억원이었다. 이 사업은 의료행위를 통한 이익 창출 즉, 의료행위를 대가로 한 수익을 염두에 두었다면 감히 시행할 수 없는 일로 의료보건의 사각지대로 전락한 무주군민을 위한 일대 결단이었다.

건물 매입 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건의료원 활성화 방안 및 민간위탁관련 용역'을 주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불가라는 용역 결과에 따라 2001년 2월 20일 군 직영 운영을 결정하였다. 이를 근간으로 2001년 5월 18일 舊 국제병원 건물에 대한 대대적(지하 2층 지상6층)인 개·보수를 시작하여 2002년 1월 12일 마무리하였다.

그 이후 진행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의료장비 구입
- 구입장비 : 전자내시경외 61종
- 사 업 비 : 824,000천원
- 구입계약 : 2001. 8. 9
- 구입방법 : 조달, 일반경쟁
- 장비 검수 및 설치 : 2002. 1. 17

○ 소요 인력 확보
- 정원승인요청(행정자치부) : 2001. 4. 20일. 46명 증원 요청
- 무주군 보건의료원 설치 및 기구 정원 승인 : 2001. 9. 13. 29명 증원
- 보건의료원장 채용 : 2001. 5. 17일(이인기·49세·정형외과 전문의)
- 보건의료원장 임명 : 2002. 1. 31일
- 직원 채용 및 임명 : 2002. 4. 10일(간호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 등 22명)
- 전문의사 확보 : 2001. 4. 23 공중보건의사(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 진료과목 : 7개과(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정형외과·치과·한방과)

○ 관련 조례 제정
- 조례제정공포 : 2001. 11. 1
- 행정기구설치조례, 무주군정원조례, 구급차운영조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의료사고배상조례
- 조례제정공포예정 : 2001. 12. 24

- 무주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 공포

·조례제정공포(규정) : 2002. 3. 25

- 무주군보건의료원영안실관리규정
- 무주군 보건의료원환자급식관리규정
- 무주군 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비지급규정
- 무주군 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시행규칙
- 무주군 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2002년 7월 현재 보건의료원은 7개 과(정형외과·일반외과·내과·소아과·산부인과·치과·한방과)와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02년 현재 무주 보건의료원은 3개 담당에 5개 보건지소, 그리고 10개 보건진료소를 갖추고 군민의 건강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구 분		분 장 업 무
보건사업과	보건의료	보건의료팀 총괄관리, 보건의료원 추진, 치료실 운영관리, 진료비 청구, 보건지소·진료소·공중보건의사관리, 치과실·구강보건실 운영관리, 예산 및 회계관리, 실직자 무료진료사업, 접수실·투약실 운영관리, 건강보험공단 건강진단 업무처리, 당직관리, 보안 및 총무계획 관리, 물리치료실 운영관리, 한방진료실 운영관리, 방사선실 운영관리, 전산 및 전산보안관리, 차량운행, 소규모 수선·청사 및 차량관리, 장비 및 물품, 비품관리, 차량운행
	예방의약	예방의약 전반, 한센병관리, 의·약무관리, 결핵관리, 임시예방접종, 임상병리업무, 성병·에이즈관리, 전염병관리, 방역
	순회진료	순회진료 전반, 방문간호 사업, 노인건강관리 사업, 성인병·만선병관리 및 장애자 재활사업, 무의탁독거노인 목욕사업, 정신보건사업, 가족·모자보건사업, 각종 검진사업, 성교육·성상담, 예방접종, 간질환자관리
진료과	원 무	

○ 보건지소 : 무풍·설천·적상·안성·부남
○ 보건진료소 : [덕지보건진료소(무풍), 구천보건·대미보건진료소(설천), 상곡보건 · 삼방보건진료소(적상), 공진보건·공정보건·진도보건진료소(안성), 가정보건 · 장안보건진료소(부남)]

(6) 통계로 본 무주군 보건 행정[54)]

가. 의료기관

구 분	계	의원	치과	한방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계	31	12	3	5	1	5	10
무주읍	12	7	3	2	1		
무풍면	2					1	1
설천면	4	2		1		1	2
적상면	3					1	2
안성면	7	3		2		1	3
부남면	3					1	2

나.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

구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계
계	12	3	5		7	38	30		89
무주읍	7	3	2		6	22	15		50
무풍면									
설천면	2		1		1	8	6		17
적상면									
안성면	3		2			8	9		22
부남면									

54)무주보건의료원 회신 자료. 2002. 7.

다. 보건의료원 인력

구분	면허·자격증별											면허·자격증별 외			
	소계	의사	치과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소계	보건직	행정직	기타
33	26	4	3	1	6	5		2	1	1	3	7	4	1	2

라. 예방접종

구 분	P·D·T	D·T	소아마비	MMR	풍진	B형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결핵	기타
계	773		607	410	11	323	1,259	35	134	5,554
무주읍	553		432	281	11	231	829	12	134	1,722
무풍면	12		10	7		12	40			201
설천면	89		70	47		30	107	7		1,400
적상면	14		13	14		4	27			631
안성면	84		69	49		34	222	16		1,300
부남면	21		15	12		12	34			300

마. 모자보건 사업실적

구 분	등록사항					
	신규등록		퇴록		연말현재	
	임산부	영유아	임산부	영유아	임산부	영유아
계	67	464	69	310	36	955
무주읍	15	390	7	212	17	621
무풍면	11	5	8	8	6	35
설천면	29	36	25	47	13	181
안성면	6	16	17	22	1	54
적상면	4	6	11	14		43
부남면	2	11	1	7		21

8) 새마을운동

(1) 새마을운동의 발자취

'근면·자조·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의 제창으로 시작된 '우리 마을을 우리 힘으로 새롭게 바꾸어 보자'는 운동으로 농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새마을사업은 일반적으로 ① 정부지원을 통함 점화(點火) ② 마을총회를 통한 사업의 선정 ③ 방법 또는 계획의 수립 ④ 협동적 노력을 통한 사업의 추진 ⑤ 사업의 완성과 사후관리라는 과정을 밟아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손쉬운 사업부터 추진, 이를 통해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 그리고 자조·협조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자금과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발전하는 단계적 개발추진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처음에는 초가집 없애기(지붕개량), 블록 담장으로 바꾸기, 마을 안길 넓히고 포장하기, 다리 놓기, 농로 넓히기, 공동빨래터 설치 등의 기초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회관 건립, 상수도 설치, 소하천 정비, 복합영농 추친, 축산, 특용작물 재배 등을 통해 70년대 중반에는 농가소득이 향상됨으로써 '하면 된다'는 의식과 성취동기를 부여하게 되었다. 1974년부터는 도시지역으로 퍼져나갔는데, 도시지역사회는 물론 직장과 공장 그리고 학교까지 파급되었다. 이렇게 하여 새마을운동은 전국적으로 자리잡게 됨으로써 조국의 근대화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처럼 70년대 새마을운동은, 농촌지역에서는 자영의 발전기반을 굳히는 한편 영농기계 화에 주력하면서 식량증산과 소득증대를 기하여 농촌경제의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왔고, 도시에서는 도시 지도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솔선수범 속에 질서확립과 이웃을 돕고 아끼는 정신과 협동의 사회기풍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공장 새마을운동의 결과 원만한 노사협조에 중점을 두고 범국민적 단합과 협동의 기반을 다지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았다. 관료들의 지나친 전시 효과적인 정책시행, 유신이념과 직결되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이다.

8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사회는 정치·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겪었는데,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도 일시적인 정체기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 12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사단법인으로 발족되면서 큰 변화를 갖게 된다. 즉, 정부 주도의 새마을운동 추진방식에서 민간조직(단체) 위주로 탈바꿈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 온 것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6개의 회원단체(새마을지도자중앙회·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새마을운동중앙회·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새마을문고중앙회·새마을금고연합 회)와 2개의 연수원(중앙연수원·남부연수원)을 조직화하여 각종 사업을 전개하였다.

80년대 새마을운동의 특징은 빠른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등 주로 국민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정신적 운동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식생활 개선, 소비절약, 재활용쓰레기 모으기, 독서생활화, 근검절약, 저축, 새마을정신교육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대회를 맞이하여 새마을 지도자들이 질서·친절·청결 등 3대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였다.

'90년대 초기 민주화·개방화 흐름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다. 이른바 '한국병'[55]으로 지칭되는 사회분위기가 팽배하였고, 3D[56]현상이란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마을운동은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한 국민의식 개혁운동, 환경보전운동, 농어촌 가꾸기운동, 이웃사랑운동 등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사업으로 도덕성 회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30분 일 더하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환경운동 차원에서 재활용품수집운동과 쓰레기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안 남기기, 소하천살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97년에는 IMF사태를 전후하여 국가경제 위기극복에 앞장섰으며, '98년 이후부터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사회 만들기를 이념으로 한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을 선언하고 순수 민간자율운동으로 태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 새마을운동과 행정기관과의 관계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민간 주도의 체계적인 틀을 갖추기까지에는 정부 주도의 계획과 집행 그리고 강제가 있었다. 즉, 1972년 3월 중앙정부 각 부처의 차관급 이상을 위원으로 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차례로 시·도협의회와 시·군협의회, 그리고 읍·면협의회와 마을 단위의 리·동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지도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책임지도제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시책에 따라 농도(農道)인 전라북도는 모든 행정을 새마을운동에 집중

55)대충대충하는 적당주의, 왜곡된 교육열, 무조건 쓰고 보자는 과소비, 일확천금을 꿈꾸는 한탕주의, 빨리빨리 조급 증 등을 총칭해서 한국병이라고 하였다.

56)힘든 일, 궂은 일,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풍조.

하고 '새마을운동과 연계되지 않는 행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총력을 기울였다. 1970년 2월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① 모든 자연마을 새마을 지도자 양성 등 여섯 가지 방침을 정하였다.[57] 특히 전라북도는 인력개발에 집중하여 새마을 지도자를 양성하였다. 이 지도자 교육은 정부에 의해 채택되어 1973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에 따라 1972년 1월 무주군에 새마을계가 신설되었으며,[58] 1973년 2월에는 새마을계를 확대 개편하여 새마을과를 신설하였다.[59] 특히 1974년에 는 전국 138개 군에 새마을 담당 부군수제가 신설되었는데, 무주군에는 1975년 1월 허승만 부군수가 취임하였다. 이에 따라 1975년 새마을과를 폐지하고 부군수 밑에 새마을계·개발계·기획예산계를 신설하였으며 동년 9월에는 감사계를 신설하였다. 1978년 2월에는 주택 계를 보강하여 부군수 밑에 5개의 계를 두고 새마을운동을 총괄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1979 년 다시 새마을과가 설치되어 새마을운동은 새마을과에서 전담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한편 정부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새마을운동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강제 하였다.

1983년 들어서면서 정부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함께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서울 올림픽에 대비한 범국민 손님맞이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면서 '새마을운동 시도지회'를 설치 하였고, 시·군에 국토미화계를 신설하여 '전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1988년 3월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 구속되는 등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비리가 터지면서 새마을 운동의 긍정적인 부분마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더욱이 제6공화국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5공비리척결'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구조적인 조직 개편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년 8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를 순수한 민간기구로 개편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간 추진되어온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들의 상당수가 민간으로 이양되었고, 행정관서는 지방의 특색에 따라 존치와 폐지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무주군에서는 1993년

57)이 외 ② 산업유형별 선도마을 육성(14개 유형) ③ 영농연구농가 육성과 산학협동 ④ 자진 새마을운동 ⑤ 부녀클럽의 활성화와 마을금고 육성 ⑥ 국토보전과 자연보호의 중점 추진 등이었다.

58)무주군청에 새마을계가 신설되던 당시, 무주군 새마을 관련 현황을 수치로 보면 다음과 같았다. 총 136개 법정리 중 기초 77개 마을, 자조 46개 마을, 자립 13개 마을이었다. 지붕 개량 현황을 보면 16,632곳 중 개량 5,822, 미개량 10,810이었는데, 그 당시 가구수는 12,109이었다. [내무부, ≪새마을총람≫, 내무부, 1972, 812~818쪽.]

59)새마을과는·마을사업의 지도육성·마을주민의 교육·마을의 선정·추진사업의 문제파악 및 대책강구·성과에 대한 종합 평가·관련 기관 협조 유지 등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조직개편에 따라 새마을과가 폐지되어 사회진흥과로 바꾸었으나 일부 업무는 그대로 존속하였고, 1995년에는 다른 면사무소와는 달리 무주읍사무소에 새마을계가 존속하였다. 1996년 이후 본격적인 민선자치에 들어서면서 행정에서 담당하던 새마을운동 관련 업무의 다수는 민간에 이양되었는데, 자치시대에 걸 맞는 행정을 펼치면서 무주군 행정에서는 직접적으로 '새마을'이라는 명칭과 직결되는 사업은 자취를 감추었다.

(3) 통계로 본 무주군 새마을운동

가. 수준별 마을 현황

(단위 : 마을)

구 분	계	수 준 별					비고
		기초	자조	자립	자영	복지	
1972	136	77	46	13			
1975	136	27	85	24			
1980~1981	147			147			
1985	148			48	87	13	1980년 11마을 증설
1989	149			39	94	16	82년 마을 수준 변경(자립·자영·복지)
1992	149			25	108	16	
무주	30			8	18	4	
무풍	17			3	11	3	
설천	25			2	20	3	
적상	25			3	20	2	
안성	36			6	27	3	
부남	16			3	12	1	

나. 사업별 실적

① 주택개량 및 취락개선 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총투자액	취락개선		주택개량				비고
		마을수	투자액	주택수	투자액			
					합	정부지원	주민부담	
1977	118,257	2	11,757	71	106,500			
1980	1,374,893	1	35,021	64	416,000			
1985	79,200			9	79,200			
1989	208,650			15	208,650			
1992				15	495,000	210,000	285,000	
무주				5	165,000	70,000	95,000	
무풍				1	33,000	14,000	19,000	
설천				3	99,000	42,000	57,000	
적상				1	33,000	14,000	19,000	
안성				5	165,000	70,000	95,000	
부남				-	-	-	-	

② 새마을 도로 현황

(단위 : m)

구분	총 연 장			유 형 별								
				마 을 안 길			진 입 로			농 로		
	계	포장	미포장	소계	포장	비포장	소계	포장	비포장	소계	포장	비포장
1992	958,498	145,050	813,448	116,276	91,644	24,632	55,399	52,429	2,970	786,823	977	785,846
무주	136,692	24,812	111,880	18,854	15,904	2,950	11,038	8,908	2,130	106,800	-	106,800
무풍	139,875	15,767	124,108	15,217	11,394	3,823	3,955	3,875	80	120,703	498	120,205
설천	222,605	35,272	187,333	20,990	13,148	7,842	21,750	21,645	105	179,865	479	179,386
적상	143,910	24,868	119,042	22,695	19,698	2,997	5,430	5,170	260	115,785	-	115,785
안성	201,907	28,579	173,328	22,815	18,927	2,888	9,892	9,652	240	169,200	-	169,200
부남	113,509	15,752	97,757	15,705	12,573	3,132	3,334	3,179	155	94,470	-	94,470

③ 새마을 공동시설물

(단위 : 동, 필지)

구분	건물(동)				토지(필지)	비고
	계	회관	창고	기타		
1983	254	123	34	97	-	
1987	255	124	34	97	5,751	
1989	240	127	30	90	5,971	
1992	239	127	30	89	6,004	
무주		23	7	20	1,154	
무풍		15	4	9	741	
설천		16	2	14	981	
적상		23	7	10	1,030	
안성		36	8	25	1,448	
부남		14	2	11	650	

④ 생활개선 사업

(단위 : 개소)

구분	부엌				화장실				비고
	계	수세식	3조식	재래식	계	수세식	3조식	재래식	
1992	9,677	2,281	929	6,467	9,677	1,589	1,815	6,273	
무주	3,004	695	415	1,894	3,004	937	300	1,767	
무풍	1,040	176	69	795	1,040	79	300	661	
설천	1,572	373	150	1,049	1,572	373	272	927	
적상	1,259	269	127	863	1,259	59	248	952	
안성	2,044	621	37	1,386	2,044	127	438	1,479	
부남	758	147	131	480	758	14	257	487	

(4) 무주군 새마을운동 포상자

마을명 읍·면	마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훈격	수여일	공적내용	비고
계		31						
설천	삼공	김봉조	남	34. 11.17	석류장	1972. 8. 15	새마을 유공	지도자
〃	길산	장인록	〃	33. 2. 15	협동장	1976. 3. 15		〃
무주	굴천	정인모	〃	33. 12.11	〃	1976. 12.10		〃
안성	용추	엄복섭	〃	44. 2. 17	〃	1978. 12. 6		〃
무주	왕정	안성만	〃	38. 1. 21	〃	1980. 12.10		협의회장(사망)
적상	여원	전학권	〃	37. 5. 15	〃	1985. 10.25		〃
무풍	금척	신동춘	〃	51. 11.11	근면장	1978. 12. 6		〃
설천	신두	박인규	〃	38. 10.20	〃	1983. 9. 30		〃
〃	외북	김용철	〃	41. 1. 6	〃	1987. 11.20		〃
〃	길산	박충현	〃	32. 3. 28	대통령포상	1974. 12.10		지도자
무주	전도	이상중	〃	38. 7. 24	〃	1981. 12. 9		협의회장
설천	상평지	양규석	〃	40. 1. 15	〃	1987. 12.10		지도자(사망)
〃	길산	문기남	〃	45. 11.18	〃	1988. 11.25		부녀회
안성	사전	신정자	여		〃	1992. 11. 9		〃
설천	청량	김필배	남		〃	1993. 12. 8		협의회
무주	오산	박봉순	여		대통령훈장	1996.		군부녀회
무주	읍내	장시조	남		대통령표창	2000.		지회장
무풍	하덕	이재근	남	41. 4. 23	국무총리	1977. 12. 9		협의회장
〃	〃	〃	〃	41. 4. 23	〃	1984. 11.20		〃
설천	하두	신금순	여	42. 12. 1	〃	1979. 12.28		부녀회장
무주	내동	신현두	남	40. 4. 21	〃	1982. 12.10		지도자
〃	굴천	김을성	〃	37. 9. 20	〃	1983. 11.20		〃
안성	하산	윤정석	〃	41. 9. 20	〃	1987. 11.20		〃
부남	대유	임종남	〃		〃	1992. 11. 9		협의회장
무주	오산	박봉순	여		〃	1990.		부녀회장
〃	가옥	김인기	남		〃	1994. 12. 2		협의회장
적상	괴목	한복순	여		국무총리표창	1999.		부녀회장
설천	소천	장덕정	남		〃	2000.		군협의회장
무주	읍내	송택련	여		〃	2001.		부녀회장
적상	여원	전학권	남	37. 5. 15	내무부장관	1976. 9. 22		협의회장
〃	하유	김형만	〃	37. 3. 17	〃	1981. 1. 21	지역개발유공	지도자

마을명 읍·면	마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훈격	수여일	공적내용	비고
안성	하이목	정문길	〃	42. 8. 8	〃	1981. 1. 21		지도자
〃	사전	한동석	〃	52. 2. 9	〃	1981. 1. 21		마을문고)지도자
〃	신촌	김종형	〃	34. 8. 15	〃	1981. 6. 25		(반상회)지도자
무주	후도	박광하	〃	41. 1. 17	〃	1984. 12.20		(새마을)지도자
무풍	길도	갈옥자	여	43. 4. 28	〃	1984. 12.20		부녀회장
적상	신대	신길심	남	40. 1. 5	〃	1987. 11.25		
무풍	상덕	김해식	〃	41. 11.13	〃	1988. 11.25		
무주	하장백	김정순	여	43. 1. 11	〃	1989. 11.23		
〃	굴천	김옥순	〃		〃	1991. 12. 6		부녀회장
적상	괴목	한복순	〃		〃	1992. 11		〃
부남	대유	김순선	〃		〃	1993.		〃
적상	삼가	임종대	남		〃	1994. 12. 2		협의회장
무주	대차	최정자	여		〃	1994. 12. 2		부녀회장
부남	가당	길홍섭	남		행자부장관표창	1997.		협의회장
설천	청량	윤석임	여		〃	1997.		부녀회장
안성	장기	주희순	〃		〃	1998.		〃
무풍	현내	하이수	남		〃	1998.		협의회장
적상	삼가	이홍렬	〃		〃	1999.		〃
무풍	현내	하이수	〃		〃	2001.		〃
무주	내도	백명자	여		〃	2001.		부녀회장
부남	가당	길흥섭	남		〃	2002.		협의회장
무주	읍내	장옥님	여		〃	2002.		부녀회장
안성	상이목	송기수	남	42. 1. 23	농수산부장관	1981. 2. 21		지도자
적상	길왕	전병옥	〃	54. 5. 3	〃	1982. 2. 7		〃
무주	내도	백명자	여		중앙회장표창	1999.		부녀회장
무주	안성	주희순	〃		〃	2000.		회장
안성	장기	정문길	남		〃	2001.		협의회장

무주군민의장 새마을장 명단

표상별(년도)	소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 화
1990. 9. 9	지회	사 무 국 장	이 석 문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451	322-1451
1992. 9. 9	부녀회	군 회 장	박 봉 순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334	322-2120
1993. 9. 10	부녀회	적상면회장	한 복 순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706	322-0558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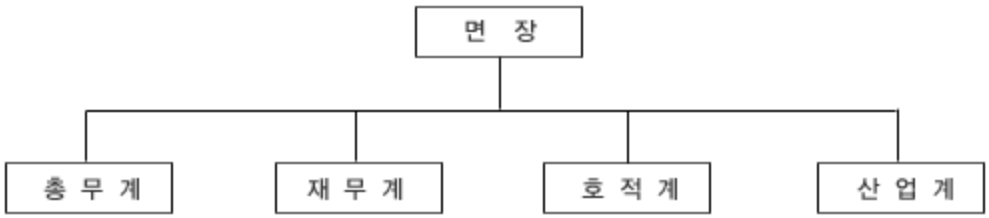
내무부, ≪새마을총람≫, 내무부, 1972
전라북도, ≪전라북도지≫ 권2권, 전라북도, 1990.
무주군지편찬위원회, ≪무주군지≫, 무주군, 1990.
무주군, ≪통계연보≫, 무주군, 1993.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 30년 자료집≫, 새마을운동중앙회, 2000.
새마을운동중앙회, www.saemaul.com. 2002.
무주군지편찬위원회, ≪무주군지≫, 무주군, 미발간.

9) 읍·면 행정기구

기초적 지방자치단체였던 읍·면이 시·군의 보조기관으로 기능이 바뀌게 된 것은 1961년 9월 1일 공포된 법률 제707호에 의해서 였다. 동년 10월 1일내지행 제894호에 의거 이전의 면장과 부면장 밑에 서무·회계·재무·호적·농무·농지계 등 7개의 계가 있었던것에서 부읍·면장제를 폐지하고 인구 2만의 면과 군청소재지의 면에 6계, 그 외의 면에는 4계를 두도록 기구가 축소 개편되었다.

■ 1961년 10. 1 현재 면기구

(무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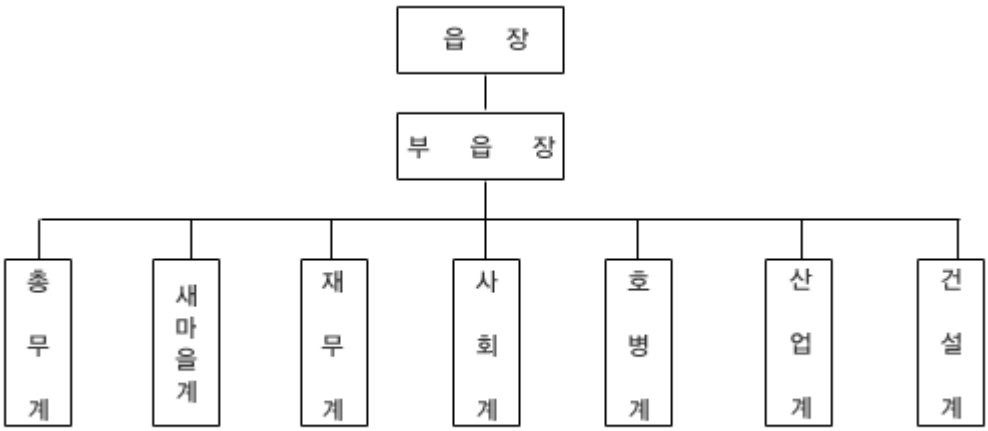
(무풍·설천·적상·안성·부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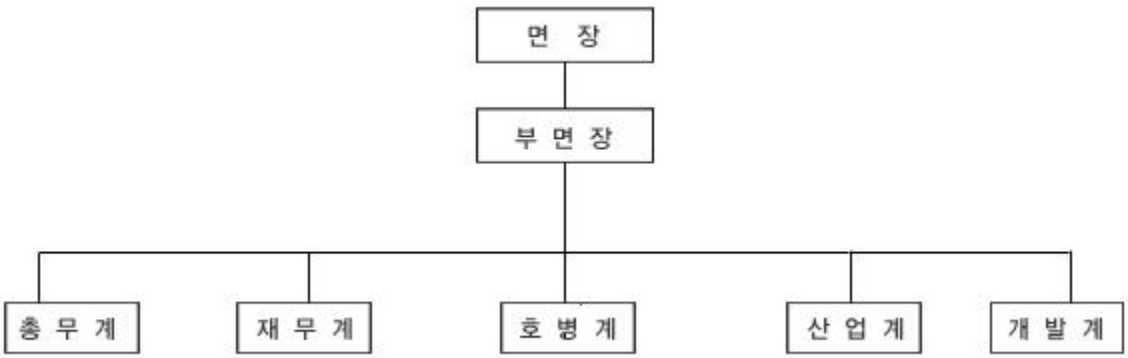
그 후 1963년 5월 1일 군 조례 제43호에 의거 설천면에 구천동출장소, 적상면에 상곡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이와 함께 1966년 6월 13일에는 부읍장(副邑長)과 부면장제가 부활되었으며,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사업을 전담하고 추진해나가기 위해 1972년에 도와 군에 새마 을계가 신설되고, 1973년부터 도에는 새마을지도과를 시와 군에는 새마을과가 각각 확대· 개편되었다. 1975년 2월 20일에는 군조례 제337호에 의거 부남면 가정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79년 5월 1일에는 군청소재지의 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무주면이 무주읍으로 승격되었고, 이에 따라 새마을계가 증설되었다. 1983년 10월 1일에는 인구 1만 이상의 면에는 개발계를 설치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성면에 개발계가 설치되었다.

■ 1988. 12. 말 현재 읍·면 행정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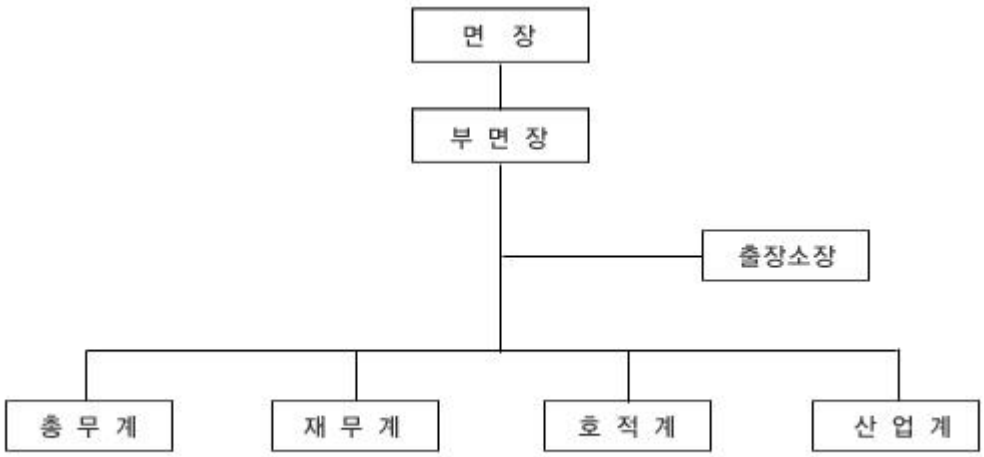
(무주면)



(안성면)



(무풍·설천·적상·부남면)



1995년에는 지방세정개혁 대책의 후속조치로 세무 관련 부정방지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 관리를 위한 세무기구 및 인력이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세정계가 부과계로, 조사평가계가 징수계로 개편되었으며, 읍·면의 세무직 5명이 군으로 정원 조정되는 인력 배치를 하게 되었다.[60]

1995년 당시 당시 각 읍·면의 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무주읍 [부읍장, 총무계·새마을계·재무계·사회계·호병계·산업계·건설계]
무풍면 [부면장, 총무계·재무계·산업계·호병계]
설천면 [부면장, 총무계·재무계·산업계·호병계·구천출장소장·설천상수도·구천상수도]
적상면 [부면장, 총무계·재무계·호병계·산업계·상곡출장소]
안성면 [부면장, 총무계·재무계·개발계·호병계·산업계]
부남면 [부면장, 총무계·재무계·산업계·호병계·가정출장소]

따라서 1읍 5면 3출장소 28계 2상수도였고, 행정하부조직으로 48개 법정리와 149개 행정분리, 그리고 515개 반에 267개 자연마을 이었다.

60)무주군의회 사무과, ≪의정백서≫제1집, 무주군의회, 1995, 506쪽.

1997년 조직개편 때에는 2개의 계가 늘어나 31개 계가 되었으며, 1999년에는 읍·면에 위임된 업무 중 현실적으로 읍·면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군으로 환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 8급 이하 공무원의 정기승급·휴직발령·읍·면 휴직 공무원의 복직발령 등의 사무가 군으로 환원되었다.[61]

10) 읍·면의 사무분장 변화[62]와 주민자치센터

1999년에 이르면, 그간 각 읍면의 총무계·주민복지계·산업경제계·민원봉사계 등 4개계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회복지담당·산업경제담당·민원봉사담당 등 3개 계로 조정되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으로 전환되었다. 그 당시 각 면의 행정공무원 현황을 보면 무주읍 26, 무풍면 16, 설천면 22, 적상면 14, 안성면 19, 부남면 13명으로 모두 110명이었다. 그리고 분장업무를 보면 다음과 같았다.

○ **사회복지담당** : 지방행정 기초사무의 기획 조정, 문서, 보안, 관인관리, 읍·면 소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선거 및 국민투표 업무, 리·반 조직운영 및 반상회 운영 등을 맡아 처리한다.

○ **산업경제담당** : 생활보호·구호 및 의료보호 대상자를 관리하고 노인·여성·청소년아동복지 관련 업무, 매·화장 인허가, 청소·환경보전·자연보호 관련 업무, 농업· 산림·축산·농지·양정·지역경제·상공업의 기초사무, 농산물유통지원 및 농촌소득금고 지원관리, 국공유재산관리 및 지방세, 지적 관련업무 등을 담당한다.

○ **민원봉사담당** : 호적·주민등록·병무·민방위 업무·인감·제증명 등 민원서류 발급, 재해예방업무, 기타 총무·주민숙원사업·산업경제 등을 담당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행정기능의 전환과 맞물려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중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초기의 구상은 읍·면·동사무소를 완전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이었지만, 추진단계에서 이 구상은 크게 후퇴하여 읍·면·동사무소의 존속과 일반 업무의 이관 그리고 남는 공간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로 변경되었다.

---

61)무주군의회 사무과, ≪의정백서≫제1집, 무주군의회, 1995, 485쪽.
62)반딧불 제31호(1999. 3. 25) 14쪽.

1999년도 하반기에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처음 시범실시가 진행되었고, 도·농 복합시 및 군의 읍·면 지역에 대한 시범실시는 2000년도에 이루어졌다. 즉 1999년 7월부터 읍·면·동사무소의 업무기능 중 상당수가 시·군·구청으로 넘어가면서 인력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동년 11월부터 농촌지역 읍·면으로 확대된 것이다.[63)]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의 읍·면·동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능과 인력을 정비하여 민원·사회복지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는 계속 수행하며, 지방세·건설·교통·환경 등 일반 행정사무는 시·군·구로 이관하고, 사무이관에 따라 관련 인력도 시·군·구로 이관하여 재배치한다는 점이다. 또한 여유시설과 공간은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편익시설 등으로 꾸며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이를 위해서 각계 주민대표(15~25명)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무주군은 이와 같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 전환에 있어서 시범실시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읍·면사무소를 지역의 사회·문화·복지·정보의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2001년 3월부터는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처리하던 각종 지도·단속·신고 등의 생활민원 사무는 군청에서 처리하게 되었다. 그 대신 민원중계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무주군은 타 시·군보다 한발 앞서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행정기능과 복지기능, 주민자치기능 등이 결합된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주군에서 문을 열게 되었다. 2001년 3월 20일 안성면 장기리 자치센터에서 주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갖은 것이다.

'안성면민의 집'으로 이름 붙여진 주민자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400㎡규모로 1층에는 면사무소와 보건소, 이·미용실, 목욕탕 등이 들어섰고, 2층에는 인터넷정보방, 농업인의 방, 솜씨공방, 여성문화방 등이 갖추어져 있다. 그 이후 적상면민의 집과 부남면민의 집이 새롭게 출발했고, 무풍과 설천면민의 집이 준비 중에 있다.

---

63)연합뉴스 2001. 3. 20

■ 읍·면사무소 기능전환

주 민 자 치 센 처

◦ 각종 민원발급
(주민등록·인감·FAX 민원 등)
◦ 사회복지·농정·민방위 업무
◦ 자치센터 운영
- 문화·복지 및 생활정보 제공
- 각종 프로그램 운영(생활체육·취미 생활 등 지역주민 선정 프로그램 운영)

◦ 군청 민원안내 및 중계처리
- 생활민원 접수 중계처리
- 각종 민원 상담 및 안내

군 청

◦ 지도·단속 사무
- 주택·건축·위생·환경·주차·광고물 등

◦ 각종 조사·송당 사무
- 통계·물가조사·고지서 송달

◦ 인·허가성 신고사무
- 건축·농지·광고물 신고 등

◦ 생활민원 처리
- 가로등·하수도·도로시설물 등 분야별 기동처리반 구성 운영.

■ 1945년 이후 역대 군수·부군수

(1) 군수

순서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비 고
1	허홍석(許洪錫)	군 수	1945. 9. ~ 1947. 1. 31	옥구 전임(미군정)
2	김종남(金鍾南)	군 수	1947. 2. 1 ~ 1948. 1. 31	사면(미군정)
3	최봉학(崔鳳鶴)	군 수	1948. 2. 1 ~ 1948.	금산 전임(정부수립)
4	유택열(柳澤烈)		1948. ~ 1950. 4. 30	정읍 전입(한국전쟁 被禍)
5	최동섭(崔東燮)		1950. 5. 1 ~ 1950. 9. 27	전주형무소 피살(1950. 9. 27)
6	김창권(金昌權)		1950. 11. 22 ~ 1954. 5. 17	도전출(무주 수복)
7	김진원(金鎭元)		1954. 5. 18 ~ 1957. 11. 25	국회의원 출마(사임)
8	송복주(宋福柱)	사 무 관	1958. 2. 18 ~ 1959. 1. 11	임실 전임
9	유상순(劉湘洵)		1959. 1. 12 ~ 1960. 6. 15	임실 전임
10	전한상(全漢相)		1960. 6. 25 ~ 1960. 7. 7	김제 전임
11	김윤백(金倫栢)		1960. 7. 8 ~ 1960. 11. 15	부안 전임
12	황봉수(黃鳳秀)		1960. 11. 19 ~ 1961. 7. 20	면직(민주당 정권)
13	이석재(李錫在)	행정사무관	1961. 7. 21 ~ 1962. 3. 11	금산 전임
14	육완기(陸完基)		1962. 3. 12 ~ 1963. 5. 8	임실 전임

순서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비 고
15	김진석(金振錫)		1963. 5. 9 ~ 1964. 6. 29	진안 전임
16	백남수(白南洙)		1964. 7. 1 ~ 1966. 5. 30	도전출(기획감사실장)
17	전병우(全炳宇)		1966. 6. 1 ~ 1967. 11. 30	도전출(내무국지방과장)
18	김영순(金榮珣)		1967. 12. 1 ~ 1968. 4. 14	도전출
19	권문학(權文鶴)		1968. 4. 15 ~ 1969. 7. 14	도전출(농림국농정과장)
20	채의석(蔡義錫)	서 기 관	1969. 7. 15 ~ 1971. 8. 20	부안 전임
21	장월하(張月河)		1971. 8. 21 ~ 1973. 6. 3	순창 전임
22	서현석(徐賢錫)		1973. 6. 4 ~ 1974. 5. 9	도전출(농림국농정과장)
23	김동철(金東喆)		1974. 5. 10 ~ 1975. 6. 12	진안 전임
24	김영배(金永培)		1975. 6. 13 ~ 1977. 2. 14	완주 전임
25	이홍열(李洪悅)		1977. 2. 15 ~ 1978. 7. 10	공무원교육원 전출
26	지동수(池東洙)		1978. 7. 13 ~ 1979. 5. 16	부안 전출
27	장윤상(張潤相)		1979. 5. 17 ~ 1980. 7. 27	완주 전임
28	최봉규(崔奉圭)		1980. 7. 28 ~ 1981. 6. 30	정주시 전임
29	국승록(鞠承錄)		1981. 7. 6 ~ 1982. 2. 9	부안 전임
30	박용제(朴龍濟)		1982. 2. 10 ~ 1984. 6. 24	면직
31	유봉영(柳鳳永)		1984. 6. 25 ~ 1985. 3. 10	내무부연수원 입교
32	임명환(林明煥)		1985. 3. 11 ~ 1987. 3. 10	진안 전임
33	허동일(許棟一)		1987. 3. 11 ~ 1988. 6. 10	진안 전임
34	서형락(徐亨樂)		1988. 6. 11 ~ 1989. 12. 27	내무부연수원 입교
35	최충일(崔忠一)		1989. 12. 28 ~ 1991. 1. 12	
36	이동구(李동구)		1991. 1. 13 ~ 1993. 5. 25	
37	한계수(韓계수)		1993. 5. 26 ~ 1994. 7. 19	
38	송억규(宋억규)		1994. 7. 20 ~ 1995. 6. 30	
39	김세웅(金世雄)	정 무	1995. 7. 1 ~ 1998. 6. 30	민선 1기
40	김세웅(金世雄)		1998. 7. 1 ~ 2002. 6. 30	민선 2기
41	김세웅(金世雄)		2002. 7. 1 ~	민선 3기

(2) 부군수

순서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비 고
1	허승만(許承萬)	지방서기관	1975. 1. 15 ~ 1977. 3. 6	
2	염동호(廉東鎬)		1977. 3. 7 ~ 1978. 2. 8	
3	공리택(孔利澤)		1978. 2. 9 ~ 1979. 5. 16	
4	원현순(元鉉舜)		1979. 5. 17 ~ 1980. 8. 10	
5	강순석(姜順石)		1980. 8. 11 ~ 1981. 7. 22	
6	하호철(河浩喆)		1981. 7. 23 ~ 1982. 10. 27	
7	주재만(朱宰萬)		1985. 3. 15 ~ 1986. 4. 6	
8	원종태(元鍾泰)		1986. 4. 7 ~ 1987. 1. 9	
9	김두옥(金斗玉)		1987. 1. 10 ~ 1988. 6. 19	
10	이흥주(李興周)		1988. 6. 20 ~ 1990. 8. 16	
11	박찬중(朴贊重)		1990. 8. 17 ~ 1991. 1. 18	
12	이흥주(이흥주)		1991. 1. 19 ~ 1991. 8. 1	
13	정은진(정은진)		1991. 8. 2 ~ 1994. 1. 21	
14	오두현(오두현)		1994. 1. 22 ~ 1995. 1. 6	
15	김석철(김석철)		1995. 1. 7 ~ 1996. 10. 23	
16	강인형(강인형)		1996. 10. 24 ~ 1997. 6 8. 25	
17	유인기(유인기)		1997. 8. 26 ~ 1999. 7. 21	
18	김정웅(김정웅)		1999. 7. 22 ~ 2002. 1. 21	
19	최일탁(최일탁)		2002. 1. 22 ~ 현재	

(3) 역대 읍·면장

가. 무주읍(면)장

순서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비 고
1	황태옥(黃泰玉)	면장	1944. 11. ~ 1945. 12. 31	
2	이우성(李禹性)	〃	1946. 1. 1 ~ 1949. 6. 30	
3	진수진(陳壽鎭)	〃	1949. 7. 1 ~ 1950. 9. 27	한국전쟁시 순직
4	김진원(金鎭元)	〃	1951. 1. 27 ~ 1952. 5. 5	
5	김진원(金鎭元)	〃	1952. 5. 6 ~ 1954. 5. 18	무주군수 승진

순서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비 고
6	송재황(宋在晃)	〃	1954. 5. 28 ~ 1960. 11. 13	제1회 민선당선(도의원출마)
7	김각균(金珏均)	〃	1960. 12. 27 ~ 1961. 6. 20	제2회 민선당선(의원면직)
8	김형오(金炯五)	〃	1961. 6. 29 ~ 1961. 8. 1	직무대리
9	이기혁(李基赫)	(면장)지방행정주사	1961. 8. 2 ~ 1962. 10. 16	군내무과 전출
10	나기백(羅基百)	〃	1962. 10. 27 ~ 1963. 5. 6	군내무과 전출
11	김부하(金富河)	〃	1963. 5. 7 ~ 1964. 3. 22	설천면장 전출
12	신주철(申珠澈)	〃	1964. 3. 23 ~ 1965. 4. 20	설천면장 전출
13	김재환(金在煥)	〃	1964. 4. 21 ~ 1972. 12. 30	의원면직
14	김부하(金富河)	(면장)별정 3乙	1972. 12. 31 ~ 1976. 4. 1	부남면장 전출
15	박동용(朴棟用)	〃	1976. 4. 2 ~ 1979. 1. 31	설천면장 전출
16	김기원(金基元)	〃	1979. 2. 1 ~ 1979. 4. 30	무주읍 승격
17	김기원(金基元)	(읍장)별정 5級	1979. 5. 1 ~ 1982. 7. 4	무주읍장. 적상면장 전출
18	전경식(全敬植)	〃	1982. 7. 5 ~ 1991. 6. 30	
19	오세득(吳世得)	〃	1991. 7. 6 ~ 1995. 1. 26	
20	신호상(申虎相)	(읍장)행정 5級	1995. 1. 27 ~ 1995. 6. 11	
21	신우철(申宇澈)	(읍장)별정 5級	1995. 6. 12 ~ 1996. 5. 9	
22	오세정(吳世晶)	(읍장)행정 5級	1996. 5. 10 ~ 1997. 10. 21	
23	박태규(朴泰圭)	〃	1997. 10. 22 ~ 1998. 7. 3	
24	정진옥(鄭鎭玉)	〃	1998. 7. 4 ~ 1999. 1. 7	
25	양희언(梁熙彦)	〃	1999. 1. 8 ~ 1999. 12. 31	
26	신호상(申虎相)	〃	1999. 1. 13 ~ 2000. 4. 25	
27	이강우(李康佑)	〃	2000. 4. 26 ~ 2001. 3. 25	
28	김용민(金容民)	(읍장)토목 5級	2001. 3. 26 ~ 2002. 2. 14	
29	김성환(金成煥)	(읍장)행정 5級	2002. 2. 15 ~ 현재	

나. 무풍면장

순서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비 고
1	이규철(李珪澈)	면장	1945. 8. 25 ~ 1946. 7. 14	
2	이태철(李泰澈)		1946. 7. 15 ~ 1948. 3. 17	
3	최지탁(崔指卓)		1948. 3. 18 ~ 1956. 7. 5	읍의회의원 출마
4	하태석(河泰錫)		1956. 8. 8 ~ 1957. 6.	제1회 민선 당선

순서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비 고
5	하천수(河千秀)		1957. 6. ~ 1960. 11. 27	補選
6	이태철(李泰澈)		1960. 12. 27 ~ 1961. 6. 20	제2회 민선 당선
7	송진동(宋鎭東)		1961. 6. 21 ~ 1961. 8. 1	직무대리
8	하호철(河浩喆)	지방행정주사	1961. 8. 2 ~ 1970. 5. 14	군산업과장 전출
9	이석철(李石澈)	별정 3乙	1970. 5. 15 ~ 1976. 6. 30	의원면직
10	주성재(周聖載)		1976. 7. 1 ~ 1979. 1. 31	안성면장 전출
11	현영희(玄永熙)	별정 5級	1979. 2. 1 ~ 1982. 7. 4	정년 퇴직
12	주성재(周聖載)		1982. 7. 5 ~ 1988. 12.31	정년 퇴직
13	김인수(金仁洙)		1989. 1. 1 ~ 1991. 10. 10	
14	김학구(金鶴九)	행정 5級	1991. 10. 12 ~ 1992. 10. 6	이동(부남면)
15	이선옥(李先玉)	별정 5級	1992. 10. 7 ~ 1995. 6. 25	퇴임
16	강창기(姜昌基)	농업 5級	1995. 6. 26 ~ 1997. 1. 7	이동(군청)
17	원종환(元鍾桓)	〃	1997. 10. 23 ~ 1999. 1. 7	퇴임
18	김용걸(金容杰)	행정 5級	1999. 1. 8 ~ 2000. 1. 12	이동(안성)
19	이상갑(李相甲)	〃	2000. 1. 13 ~ 현재	

다. 설천면장

순서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비 고
1	이우진(李愚鎭)	면장	1945. 4. 7 ~ 1947. 4. 3	
2	계병운(桂炳運)		1947. 7. 4 ~ 1951. 10. 6	
3	김태옥(金泰玉)		1951. 10. 7 ~ 1956. 7. 14	의원면직, 면장 출마
4	성봉환(成鳳煥)		1956. 8. 15 ~ 1960. 11. 20	제1회 민선(1956. 8. 8)
5	성봉환(成鳳煥)		1960. 12. 27 ~ 1961. 6. 20	제2회 민선(1960. 12.25)
6	양형구(梁炯九)		1961. 6. 29 ~ 1964. 3. 22	군보건소 전출
7	김부하(金富河)	지방행정주사	1964. 3. 23 ~ 1964. 4. 13	의원면직
8	김재환(金在煥)		1964. 12. ~ 1965. 4. 21	무주면장 전출
9	신주철(申珠澈)		1965. 4. 22 ~ 1966. 6. 1	군공보실장 전출
10	성봉환(成鳳煥)		1966. 6. 2 ~ 1969. 7. 25	의원면직
11	박동용(朴棟用)	별정 3乙	1969. 8. 11 ~ 1976. 4. 1	무주면장 전출
12	현영희(玄永熙)		1976. 4. 2 ~ 1979. 1. 31	무주면장 전출
13	박동용(朴棟用)	별정 5級	1979. 2. 1 ~ 1990. 4. 3	

순서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비 고
14	오세득(吳世得)		1990. 4. 3 ~ 1991. 7. 5	퇴임
15	송무헌(宋武憲)		1991. 7. 6 ~ 1994. 1. 9	퇴임
16	신우철(申宇澈)		1994. 1. 10 ~ 1995. 6. 11	퇴임
17	한복석(韓福錫)		1995. 6. 12 ~ 1996. 5. 9	퇴임
18	김영자(金英慈)		1996. 5. 10 ~ 1997. 10. 21	퇴임
19	최승조(崔承祚)		1997. 10. 22 ~ 1998. 3. 15	도청
20	정진옥(鄭鎭玉)		1998. 3. 16 ~ 1998. 7. 3	군청
21	박태규(朴泰圭)		1998. 7. 4 ~ 1999. 1. 7	퇴임
22	신호상(申虎相)		1999. 1. 8 ~ 2000. 1. 12	군청
23	이기택(李基鐸)		2000. 1. 13 ~ 2002. 2. 14	군청
24	김호정(金浩晶)		2002. 2. 15 ~ 현재	

라. 적상면장

순서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비 고
1	유택열(柳澤烈)	면장	1940. 1. 1 ~ 1945. 11. 20	(무주군수)
2	장호식(張昊植)		1945. 12. 1 ~ 1946. 11. 30	의원면직
3	황갑수(黃甲秀)		1946. 12. 1 ~ 1948. 12. 31	의원면직
4	송재창(宋在昶)		1949. 1. 1 ~ 1960. 12. 1	임명 및 제1회 민선 당선
5	하명구(河明九)		1960. 12. 27 ~ 1961. 6. 20	의원면직
6	김종상(金鍾相)		1961. 6. 29 ~ 1961. 8. 1	제2회 민선 당선, 의원면직
7	김부하(金富河)	지방행정주사	1961. 8. 2 ~ 1963. 5. 18	직무대리
8	신주철(申珠澈)		1963. 5. 19 ~ 1964. 3. 23	무주면장 전출
9	유용석(兪龍錫)		1964. 3. 24 ~ 1966. 5. 31	무주면장 전출
10	하명구(河明九)	별정 3乙	1966. 6. 1 ~ 1974. 3. 13	군내무과 전출
11	김기원(金基元)		1974. 5. 1 ~ 1979. 1. 31	의원면직
12	전경식(全敬植)	별정 5級	1979. 2. 1 ~ 1982. 7. 4	무주면장 전출
13	김기원(金基元)		1982. 7. 5 ~ 1990. 3. 6	무주면장 전출
14	이공석(李孔錫)	부면장	1990. 3. 7 ~ 1992. 10. 5	직무대리
15	김완종(金完鐘)	면장	1992. 10. 6 ~ 1996. 5. 9	
16	김기철(金基哲)	농업주사	1996. 5. 10 ~ 1999. 1. 7	직무대리
17	이기택(李基鐸)	행정주사	1999. 1. 8 ~ 2000. 1. 7	직무대리

순서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비 고
18	김기철(金基哲)	농업사무관	2000. 1. 8 ~ 2001. 3. 25	
19	정진옥(鄭眞玉)	행정사무관	2001. 3. 26 ~ 2002. 2. 14	
20	김재선(金在善)	행정 5級	2002. 2. 15 ~ 2002. 4. 14	
21	이기택(李基鐸)	행정 5級	2002. 4. 15 ~ 현재	

마. 안성면장

순서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비 고
1	김철수(金喆洙)	면장	1945. 8. 16 ~ 1946. 10.18	의원면직
2	이상규(李相圭)		1946. 10. 19 ~ 1947. 9. 6	〃
3	김용철(金容喆)		1947. 9 . 13 ~ 1948. 10.12	〃
4	김철수(金喆洙)		1948. 10. ~ 1950. 4. 18	〃
5	현규업(玄圭業)		1950. 4. 19 ~ 1956. 7. 10	〃
6	강영구(姜永求)		1956. 8. 15 ~ 1960. 11.15	제1회민선당선(제2회 면장 출마)
7	박승석(朴勝錯)		1960. 12. 27 ~ 1961. 6. 21	제2회 민선 당선
8	이인기(李仁基)		1961. 6. 29 ~ 1961. 8. 1	면장 대리
9	강형구(姜亨求)		1961. 8. 2 ~ 1961. 9. 30	의원면직
10	이상기(李相璣)	지방행정주사	1961. 10. 11 ~ 1968. 5. 15	〃
11	이태영(李泰永)		1968. 5. 16 ~ 1972. 6. 27	〃
12	박정서(朴晶緖)	별정 3乙	1972. 6. 28 ~ 1979. 1. 31	부남면장 전출
13	주성재(周聖載)		1979. 2. 1 ~ 1982. 7. 4	무풍면장 전출
14	강재신(姜在信)	별정 5級	1982. 7. 5 ~ 1985. 9. 8	의원면직
15	강석기(姜錫起)		1985. 9. 23 ~ 1995. 6. 7	
16	박태규(朴泰圭)	행정 5級	1995. 6. 12 ~ 1996. 5. 10	
17	한복석(韓福錫)	〃	1996. 5. 10 ~ 1998. 7. 3	
18	양희언(梁熙彦)	〃	1998. 7. 4 ~ 1999. 1. 7	
19	배 성(裵 誠)	토목 5級	1999. 1. 8 ~ 2000. 1. 12	
20	김용걸(金容杰)	행정 5級	2000. 1. 13 ~ 2001. 3. 25	
21	김성환(金成煥)	〃	2001. 3. 26 ~ 2002. 2. 14	
22	송대영(宋大永)	〃	2002. 2. 15 ~ 현재	

바. 부남면장

순서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비 고
1	주춘택(朱春鐸)	면장	1942. 7. 2 ~ 1947. 9. 10	
2	박해경(朴海晾)		1947. 9. 11 ~ 1949. 2. 6	
3	송정헌(宋正憲)		1949. 2. 7 ~ 1950. 9. 25	
4	김진헌(金鎭憲)		1950. 9. 26 ~ 1951. 4. 27	
5	유의한(柳義澣)		1951. 4. 28 ~ 1951. 10. 29	
6	김태옥(金泰玉)		1951. 11. 3 ~ 1953. 1. 29	
7	주성조(朱聖祚)		1953. 1. 30 ~ 1959. 8. 13	의원면직(제1회 민선당선)
8	김용근(金容根)		1959. 8. 14 ~ 1960. 8. 11	〃
9	주성조(朱聖祚)		1960. 8. 19 ~ 1960. 12. 1	〃
10	김용근(金容根)		1960. 12. 27 ~ 1961. 6. 21	의원면직(제2회 민선당선)
11	차용호(車鏞浩)	지방행정주사	1961. 8. 14 ~ 1962. 10. 30	군 내무과 전출
12	박정규(朴正圭)		1962. 10. 31 ~ 1963. 1. 21	〃
13	황의주(黃義周)	별정 3을	1963. 1. 29 ~ 1973. 6. 28	의원면직
14	신연균(申連均)		1967. 1. 29 ~ 1976. 6. 28	〃
15	김부하(金富河)		1976. 4. 1 ~ 1978. 3. 19	〃
16	전경식(全敬植)		1978. 3. 20 ~ 1979. 1. 31	적상면장 전출
17	박정서(朴晶緖)		1979. 2. 1 ~ 1980. 7. 21	의원면직
18	신현령(申鉉玲)	별정 5급	1980. 7. 22 ~ 1985. 7. 10	〃
19	김인수(金仁洙)		1985. 7. 15 ~ 1988. 12. 31	무풍면장 전출
20	송무헌(宋武憲)		1989. 1. 10 ~ 1991. 7. 6	
21	김완종(金完鐘)		1991. 7. 6 ~ 1993. 10. 6	
22	김학구(金鶴九)		1992. 10. 6 ~ 1996. 1. 11	
23	김종권(金宗權)		1996. 5. 10 ~ 1999. 1. 8	
24	이공석(李公錫)		1999. 1. 8 ~ 1999. 12. 3	
25	김재선(金在善)		2000. 1. 13 ~ 2002. 2. 15	
26	이기선(李基善)		2002. 2. 15 ~ 2003. 3. 17	
27	이중오(李重吾)		2003. 3. 17 ~ 현재	

제4절 일반행정

1. 지방행정기관의 정원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1950년대 한국전쟁과 복구,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1970년대 중화학공업 추진·새마을운동 전개·민방위대 창설,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등 대형 사업의 추진, 1990년대 문민정부의 출범과 지방자치제의 부활 등으로 지방행정 수요의 양적 증대와 질적 전문화를 가져오면서 점차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시기와 주요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수립에서 한국전쟁 종결까지

1945년 8월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지방공무원 수는 그 전에 비해 현저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1948년 8월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군정 당시 공무원은 그대로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었는데, 초기에는 그 수가 과다하였으나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1950년 30%, 1953년 35%가 감축되는 결과를 가져와 급속히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2) 한국전쟁 후 민주당 정권까지

이 기간에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였는데, 전국적으로 연평균 2.8%가 증가하였다. 1960년 6월 30일 현재 무주군 공무원 수는 본청에 국가공무원 15명 지방공무원 15명 등 30명이 있었고, 6개 면에는 면장과 부면장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56명으로 무주군 전체 86명이었다.

■ 무주군 공무원 정수 현황[64] (1960. 6. 30 현재)

[본청]

구분	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비고
		소계	군수	주사	기사	산림주사	서기	기원	산림주사보	노무직	소계	지방주사	지방기사	지방서기	지방기원	
본청	30	15	1	3	4	2	1	1	2	1	15	3	4	4	4	

[읍·면사무소]

읍면별	계	지방공무원						비고
		면장	부면장	지방주사	지방기사	지방서기	노무원	
무주면	11	1	1	4	1	3	1	
무풍면	9	1	1	2	1	2	2	
설천면	9	1	1	3	1	2	1	
적상면	9	1	1	3	1	2	1	
안성면	10	1	1	3	1	3	1	
부남면	8	1	1	4	1	3	1	
계	56	6	6	16	6	15	7	

3) 1960년대

‘5·16군사쿠데타’ 후 군정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인력감사를 실시하여 정원을 조정하였는데, 전국 평균 26.1%의 인원을 감원하였다. 그러나 부산시의 직할시 승격, 지방공무원 교육원 및 시·군보건소 신설, 농촌지도직과 증산 및 개간요원의 증원, 임시직 양성화, 국민운동요원의 흡수 정원화, 사세직(司稅職) 증원 등의 요인으로 1963년부터 증가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당시 무주군 일반행정 공무원은 1963년 131명, 1964년 142명, 1965년 159명, 1966년 229명, 1967년 248명, 1968년 266명, 1969년 268명으로 1962년 이후 1969년 사이에 182명이나 늘어 21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이 기간에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였는데, 전국적으로 연평균 2.8%가 증가하였다. 1960년 6월 30일 현재 무주군 공무원 수는 본청에 국가공무원 15명 지방공무원 15명 등 30명이 있었고, 6개 면에는 면장과 부면장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56명으로 무주군 전체 86명이었다.

64)무주군, ≪郡勢一覽≫, 무주군, 단기4293년 9월, 87~88쪽.

1969년 12월 말 현재 무주군 공무원은 본청직원 107명, 사업소 65명 면사무소 96명이었다.

4) 1970년대

668 제3편 정치·행정 정부에서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을 감축하였지만, 새마을 운동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기구의 설치와 민원업무 개선을 위한 읍·면의 인력을 보강하게 되어 전국적으로 연평균 26%의 증가율을 보였다.

무주군은 1969년 268명에서 1970년에는 295명으로 증가했는데, 1971년에는 309명으로 늘어나 처음으로 300명 대를 기록하였다.[65] 그렇지만 1972년 6월에 실시된 감원계획으로 1972년에는 296명으로 감축되었고 1973년에는 260명이 더 줄었다. 그러나 1974년부터 다시 증원되기 시작하여 310명의 정원을 갖게 되어 1969년에 비해 15.6%의 증가율을 보였다.

1975년 이후에는 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읍·면의 인력증원, 지방 잡급직원의 고용원화, 1977년 대민봉사 행정력 강화, 농촌지도직 보강, 1978년 농촌주택 개량업무 전담요원 등에 대한 증원이 있었다. 특히 1979년 도시행정력의 대폭적인 보강에 따라 증원이 있게 되어 전국 연평균 4.4%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 즈음 무주군은 1975년 338명, 1976년 351명, 1977년 370명, 1978년 375명, 1979년 386명, 1980년 388명으로 1974년에 비하여 25.2%의 증가율을 보였다.

5) 1980년대

1980년대는 간소한 정부운영방침에 따라 기존 인력의 정비와 필수인력의 보강을 병행하였는데, 잡급직을 정규화하는 조치 등이 따르면서 전국 연평균 2.7%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80년 5·17이후 집권한 신군부 세력에 의해 공무원 숙정작업이 진행되어 1981년 에는 19명이 줄어든 369명으로 잠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82년 373명, 1983년 374명, 1984 년 381명, 1985년 385명, 1986년 388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였고, 1987년에는 400명이 되어 처음으로 400명을 돌파하였다. 그 후 1988년 407명, 1989년 411명으로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면서 안정세를 나타냈다.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1960년 6월 무주군 공무원 86명에 비하면, 325명이 늘어난 3.78배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

65)1971년 말 감사실과 식산과가 보강되었고, 일부 군에서는 산림과와 수산과가 각각 보강되었다.

■ 무주군 일반행정 공무원 현황(1981. 12. 31 현재)(≪통계연보≫)

[본청]

구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원	소계	일반직						소계	일반직						별정직	소방직	기능직	고용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48	23	1		6	9	4	3	125	1	10	30	28	12	9	2	1	12	20
기획실	10								10		1	3	3	1					2
문화공보실	6								6		1	1	1	1					2
내무과	28	2	1			1			26	1	1	4	4	1	1			1	
새마을과	10								10		1	3	3	2	1				13
재무과	29	4			1	2	1		25		1	3	4	3	2			11	
사회과	15								15		1	5	3	1	1	2			1
산업과	19	5			1	2	2		14		1	5	5	1	2				2
산림과	10	9			2	3	1	3	1		1								
건설과	14	1			1				13		1	4	4	2	2				
민방위과	7	2			1	1			5		1	2	1						

[읍·면사무소]

구분	정원	별정5급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소방직	비고
			5급	5~6급	6급	7급	8급	9급				
계	184	6	1	5	31	34	43	22	9	32	1	
무주읍	43	1	1		7	9	7	4	3	10	1	
무풍면	23	1		1	4	4	7	4		2		
설천면 (구천출장소)	35 (6)	1		1	5 (1)	6	7 (2)	4 (1)	4	7 (1)		
적상면 (상곡출장소)	28 (6)	1		1	5 (1)	5	8 (2)	4 (2)		4 (1)		
안성면	32	1		1	5	5	8	4	2	6		
부남면 (가정출장소)	23 (6)	1		1	5 (1)	5	6 (2)	2 (1)		3 (1)		

[사업소]

구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비고
	정원	지도직			일반직						의료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소계	지도관	지도사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의사	간호사				
계	74	39	2	37	35	1	4	4	7	3	1	7	2	4	2	
보건소	29				29	1	3	3	7	3	1	7	1	2	1	
지도소	42	39	2	37	3								1	2		
위민실	3				3		1	1							1	

6) 지방자치시대

역대 정부는 공무원 수의 감축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 약간의 인력을 감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감축된 숫자 이상으로 확대되는 관행을 반복해 왔다. 이러한 관행적 행태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군사독재정권의 퇴진과 문민정부의 등장, 그리고 30여 년간 제한되었던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라는 환경과 변화와 맞물려 있다.

특히, '국민의 정부'는 개방형 임용제[66]나 계약직 및 시간제 공무원과 같은 공직 인사제도를 시도했는데, 이는 수 백년 동안 유지해 온 폐쇄형 임용제도에 토대를 둔 인사정책에 충격을 준 혁명적 변화였다. 이를 위해 국민의 정부는 1998년 12월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공무원 총정원제를 도입하였다.(국가공무원총정원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95호) 이것은 관료조직의 항구적인 확대 경향에 대한 법적인 상한선을 정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공직인사에 관한 기본틀은 각종 국가고시 등을 통해 충원된 인력이 내부적으로 폐쇄적 경쟁과 선임순위에 따라 승진하는 인사제도를 유지하여 왔다. 외부의 경쟁압력이 없어 조직의 역동성과 개방성이 전혀 발전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에 비해, 개방성과 경쟁성, 전문성을 중시하는 개방형 임용제도와 계약직의 도입 자체는 커다란 성과이자 발전이라

66)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임용하여 운용하는 제도이다.(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①) 제2차 개혁에서 행정기관의 20% 범위 내에서 계약직으로 외부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겠다.

무주군의 1990년 일반 공무원은 422명이었으나 1991년에는 455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 해 10월 1일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이 군자체로 이관되어 관내 거주자 위주로 선발하여 보충할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67] 그 후 1992년 470명, 1993년 481명으로 증가하였는데, 1994년에는 503명으로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섰다. 갈수록 인구수가 감소되었음에 비해 공무원 수가 증가했음은 그만큼 주민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가 높아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 역시 전년과 마찬가지로 503명이었으며, 1996년에는 509명으로 역대 무주군 행정공무원 수가 제일 많았다. 다음해인 1997년 505명으로 줄었는데, 다음해인 1998년에는 68명이 감소한 437명으로 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조정이 가능해진 것은 1995년 자치행정을 시작하면서 '작은 정부'의 관점에서 행정의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한 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개혁적인 조처에 대한 당위성은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로 국가경제의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뒷받침되었다. 즉, 1998년 6월 18일 중앙정부는 지방행정 조직의 감축개편을 취했던 것이다.

이듬해인 1999년 6월 14일 중앙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그 이후 해마다 감소되어 1999년 422명, 2000년 413명으로 감소되었다. 그 후 2001년 7월 31일 기준으로 416명(집행기관 406, 의회 10)으로, 동년 10월 31일 기준에는 403(집행기관 393, 의회 10)으로 감소하였다가 보건소가 보건의료원으로 개편되면서 증원되어 2001년 12월 31일 현재 436명(집행기관 426, 의회 10)으로 조정되었다.[68]

1889년부터 무주군청, 읍·면사무소, 의회사무과 및 직속기관 공무원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9]

---

67)무주군의회 사무과, ≪의정백서≫제1집, 무주군의회, 1995, 536쪽.
68)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2002. 3. 15 조례 제1624호].
69)무주군 통계연보(1989~2000)

■ 본청 공무원 현황

연도별	총계	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소방직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직				
1989	155	119	2	10	39	39	17	12			2	34	
1990	164	126	2	10	41	40	21	12			2	36	
1991	189	145	2	13	46	47	26	11			2	42	
1992	199	149	2	14	47	48	27	11			2	48	
1993	199	150	2	14	46	48	29	11			2	47	
1994	210	160	2	13	46	52	34	16			2	48	
1995	213	164	2(1)	14	48	54	25	12		1	2	46	
1996	219	169	(1)	14	49	58	26	11		1	3	46	
1997	227	173	2(1)	13	48	60	27	13		1	3	50	
1998	222	172	2	8	42	64	44	9	3	1	4	45	
1999	197	159	2	7	39	60	40	8	3	1	2	35	
2000	218	178	2	9	46	66	40	12	3	1	2	37	
2001	214	173	2	9	46	62	40	10	4	1	3	37	

■ 읍·면 공무원 현황

연도별	총계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소방직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직			
1989	182	131	1	36	34	42	18		6	40	4	
1990	184	130	1	36	34	43	16		6	43	4	1
1991	190	130	1	36	35	42	16		12	42	4	2
1992	188	129	1	36	35	46	11		13	42	4	
1993	181	117	1	36	35	31	14		7	47	4	
1994	181	123	7	36	35	31	14		7	47	4	
1995	78	118	7	36	33	29	13		7	49	4	
1996	179	118	7	36	33	29	13		7	50	4	
1997	167	115	7	34	33	28	13		7	44	1	
1998	113	79	6	18	22	20	13		6	27	1	
1999	110	76	6	18	21	17	14		1	32	1	
2000	96	66	6	18	21	14	7		1	29		
2001	95	66	6	18	22	11	9		1	28		

■ 의회사무과 및 직속기관 공무원 현황

연도별	총계	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기능직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직			
1989	74			2	4	7	10	3	42		1	5
1990	74	68		2	4	7	10	3	42		1	5
1991	76	68		2	4	7	10	3	42		1	7
1992	83	68		2	4	7	10	8	34		11	7
1993	101	65		2	4	7	27	9	34		11	7
1994	112	83		4	5	16	20	9	34		11	13
1995	112	88		4	5	20	16	9	34		11	13
1996	111	87		4	5	21	15	9	33		11	13
1997	111	78		4	8	19	16	7	33		11	13
1998	102	77		4	8	16	18	8	25		11	11
1999	115	93		5	13	22	19	10	22		11	12
2000	99	78		4	8	17	19	8	21		11	10
2001	124	100	1	5	10	23	32	11	18		11	13

※ 2001년도 의회사무과 10, 보건의료원 79(별정 10), 농업기술센터 35(별정 1)

2. 재정

1) 지방재정

재정(財政)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을 의미하는데, 지방재정은 자치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통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 즉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단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총망라한 것이다.

지방재정의 법적 기초는 많은 법률에서 찾을 수 있는데, 지방재정에 관한 일반적인 재정운영 원칙과 예·결산,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한 규정 등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법에 의거하여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의 기본적인 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재정의 운영 원칙은 '수지균형의 원칙'과 '건전재정 운영 원칙'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에 관해서는 지방세법이 있다.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절차, 지방세의 종류, 과세 물건, 과표, 세율 등을 주로

징수 주체별로 구분하여 규정한 법으로 지방세 행정의 기초가 된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인 재정조정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 밖에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이 있다.

기초단체의 재정은 크게 수입과 지출로 구분되는데, 전자에는 지방세·세외수입·지방 채·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에게서 받는 교부세·지방양여금·보조금 등이 포함되며, 후 자에는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 물품관리·군유재산 관리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2) 1960년대 재정

1960년도 무주군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86,467,503환(圜)으로 전년도인 1959년의 76,225,174환에 비해 10,242,329환이 증액된 재정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61년 일반회계는 44,892,018환으로 전년에 비해 41,575,485환이 감소되어 매우 불안정한 실정이었다. 그것은 1960년의 '4·19의거'와 이듬해에 일어난 '5·16군사쿠테타' 등의 정치·사회적인 혼란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무주군은 지방재정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는 재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특별회계로 '소방공동시설 특별회계'와 '주택자금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세출입 결산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 1960년 특별회계

(단위 : 圜)

과 목 별	세 입		세 출		비 고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소방공동시설특별회계	196,300	143,869	196,000	8,000	적상, 부남
주 택 자 금 특 별 회 계	6,577,000	1,049,496	6,577,000	1,048,704	무주, 적상,
계	6,773,300	1,193,365	6,773,300	1,056,704	부남

한편 지방재정의 재원인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상황을 보면, 1960년 도세(道稅) 7,221,000 환과 면세(面稅) 8,109,000환 등 총 15,330,000환이 징수되어 전년도 징수총액 12,212,000환 보다 3,118,000환이 증가되었다.

1960년 당시 무주군 지방세 세목별 과징상황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 지방세 세목별 과징총괄

구 분	총 액			도 세	
	부 과	징 수	%	부 과	징 수
1960	13,432,000	12,212,000	93	6,334,000	5,766,000
1961	16,759,000	15,330,000	100	7,884,000	7,221,000
영업세 및 부가세	1,340,000	1,204,000	99	670,000	602,000
자동차세부과세	1,850,000	1,850,000	100	925,000	925,000
호별세 및 동부가세	4,953,000	4,438,000	99	1,981,000	1,775,000
가옥세 및 동부가세	3,356,000	3,026,000	100	1,678,000	1,513,000
임야세 및 동부가세	470,000	438,000	100	235,000	219,000
도축세 및 동부가세	450,000	450,000	100	225,000	225,000
취득세 및 동부가세	2,924,000	2,618,000	100	1,462,000	1,309,000
특행세 및 동부가세	446,000	4,161,000	80	223,000	208,000
동력세 및 동부가세	160,000	154,000	100	80,000	77,000
면 허 세	810,000	736,000	100	405,000	368,000

■ 세입(歲入)

면별	무 주		무 풍		설 천		적 상		안 성
관별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재산수입	3,600	44,400	13,314	1,013,500	100,920	155,000	53,477	31,200	17,566
사용료 및 수수료	1,384,180	1,622,500	559,795	623,800	456,390	488,500	37,690	210,100	608,513
환 부 금	478,200	478,200	471,000	471,100	779,000	731,600	568,600	568,700	1,876,400
교 부 금	239,081	365,200	84,796	102,600	119,904	114,400	53,439	97,700	165,284
면 세	2,424,340	3,532,300	1,094,704	1,250,300	651,970	1,141,400	669,453	882,600	1,325,176
이월금조정	16,811	169,900	3,170,000	3,170,300	156,000	156,200	2,800,225	2,800,300	
지방재정 교부금	10,333,400	11,477,800	10,478,500	10,978,000	10,682,900	12,043,600	8,675,635	10,175,600	
보 조 금	2,567,213	2,004,800	593,269	753,900	713,968	985,400	361,468	530,600	6,543,700
기 부 금		100		100		2,040,100		100	845,203
수 입 금								100	
재산매각대		200	1,650,000	1,650,200	1,496,400	1,163,700		973,800	
과년도수입	395,939	1,602,600	104,070	102,800	13,556	201,300	90,973	91,700	47,789
면 책								200	
잡 수 입	565,367	1,069,200	13,182	1,001,400	32	800		1,533,100	14,372
세 입 합 계	18,408,131	22,214,200	18,232,660	21,100,000	15,171,040	19,222,000	13,410,960	17,895,800	11,444,003

■ 세출(歲出)

면별	무주		무풍		설천		적상		
관별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의회비	368,140	546,400	284,100	327,700	237,900	455,800	249,140	292,700	383,090
선거비	700,148	705,700	214,816	94,900	275,168	287,300	253,566	62,800	259,486
사무비	7,622,537	7,874,600	6,479,419	6,615,300	5,412,981	5,431,700	5,720,489	5,751,800	6,910,004
토목비	2,120,500	2,625,000		4,100	5,000	51,000		1,400	
농업비		500		500	178,925	180,600	114,600	168,100	91,780
임업비	80,000	94,300		200		5,100		1,000	
축산비		500		500	178,925	180,600	114,600	168,100	91,780
상공수산비	236,389	243700	120,000	120,900	166,740	192,400		600	156,000
보건비	68,260	70,200		200		25,200		800	30,000
사회사업비		200		300		25,200		700	5,000
교화비		200		200		15,200		800	
시국대책비	807,200	1,272,500	56,200	61,800	699,620	863,600	241,110	216,100	190,295
재산비	149,160	152,200	36,835	40,100	4,697,573	8,011,000	31,810	32,200	463,172
기본재산 조성비				5,000	1,413,400	1,413,500		300	
징수비	644,910	650,400	290,990	302,600	391,658	404,200	388,540	394,200	535,505
지방책비								200	
영선비	2,463,200	3,678,000	7,027,060	11,011,600	16,934	50,000	4,783,850	8,506,000	69,100
훈련비	305,687	314,100	34,500	37,300	173,500	270,200		500	17,000
통계비	753,050	555,700	363,300	495,300	570,460	631,800	405,870	512,000	448,300
제지출금	1,908,950	3,018,800	1,325,440	1,651,900	931,156	673,900	1,221,402	1,653,600	955,971
예산비		411,600		300,000		280,000		250,000	
세출회계	18,408,131	22,214,200	16,232,660	21,100,000	15,171,025	19,222,000	13,410,377	17,895,800	10,514,703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 및 실정 등으로 인한 퇴진, 민주당 정권의 불안정, 1961년 '5·16군사 쿠데타'와 함께 시작된 군정 경제를 회복하기위해 1962년 6월 10일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 조선은행권의 화폐를 사용하였는데, 전시(戰時) 상황이던 1950년 9월 15일 한국은행권으로 바꾸어 일에는 '긴급통화조치법'을 공포, 100대 1의 단위로 절하(切下)하고 원화를 환화로 바꾸어 사용토록 하였다. 그런데 하면서 다시 원화로 바꾸게

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화폐는 한국전쟁 이전의 화폐와 비교할 때 1,000대 1의 환율로 절하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도 무주군의 재정은 점진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1962년 지방세로 6,625,000원이 징수되었으나 1970년에는 11,960,000원이 증가된 18,585,000원이었고, 일반회계의 세출은 1962년 14,028,000원이었으나 1970년에는 176,770,000원이 대폭 늘어난 190,798,000원이었다.

특별회계 역시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다. 1962년에는 주택관리와 토지개량특별회계뿐이 었으나, 1963년 대여양곡(貸與糧穀)과 시범농촌조성특별회계가 신설되었고, 1965년 소방공동시설특별회계, 1967년 지붕개량특별회계, 1968년 지역개발·축산진흥·잠실건축특별회계 등이 신설되었다. 반면에, 1969년 시범농촌조성·축산진흥·잠실건축특별회계가 폐지 되고, 1970년에는 토지개량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써 주택관리·대여양곡·소방공동시설·지붕개량·지역개발특별회계 등으로 조정·운영되었다.

1960년대 초반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해 오던 교육비 특별회계는 1963년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교육위원회로 이관되었는데, 교육비 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은 의무교육부금이었고, 세출은 학교운영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참고로 1963년부터 1966년까지 무주군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과목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무주군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1962	1963	1964	1965	1966
재산수입			2	3	4
환부금		8			
교부금	25,879	27,418	30,091	32,974	60,796
보조금		7	2	3,236	5
기부금			1,041	923	1,366
과년도수입		357	150	99	148
잡수입		357	150	99	148
이월금		207	489	596	1,035
전입금		50	50	50	105
계	25,879	28,404	31,975	37,980	63,607

■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1962	1963	1964	1965	1966
교육위원회비		42			
행 정 비		984	1,080	1,035	1,843
학 교 운 영 비		23,250	24,132	30,050	42,872
문 화 사 업 비		50	50	65	5
재 산 비		202	357	445	341
시 설 비		2,686	5,173	4,957	14,629
보 조 금					105
이 지 출		350	437	434	518
교 육 제 비					603
계	25,672	27,564	31,229	36,986	60,916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관리하는 부동산·동산·현금·기타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라 하는데, 1960년대 무주군 소유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의 변동사항을 보면 1970년 현재 토지 613.947㎢, 건물 6,226㎡, 임야 30,901,716㎡로 총평가액은 37,769,000원이었다.

1960년대 군유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960년대 군유재산 현황

(평가액 단위 : 천원)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총평가액		19,089	19,089	19,007	19,209	18,672	18,977	17,710	37,838	37,969
토지	면적	96,602㎡	96,602	616,992	616,926	616,925	613,468	68,367	613,944	613,947
	평가액	657	657	4,078	4,121	4,112	4,364	2,997	7,600	7,698
건물	면적	5,368㎡	5,368	6,016	6,072	6,178	6,105	6,169	6,088	6,226
	평가액	8,273	8,273	4,770	4,929	5,271	5,333	5,379	20,890	20,923
임야	면적	33,584,569㎡	33,584,569	33,584,569	33,584,569	30,606,651	30,678,288	30,850,142	30,901,716	30,901,716
	평가액	10,159	10,159	10,159	10,159	9,289	9,280	9,334	9,348	9,348

다음은 1960년대 지방세과징상황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의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연도 별 과목별로 나타낸 것이다.

■ 1960년대 지방세 과징상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계		도세		군세		비고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1961	1,556	1,511	735	735	821	776	
1962	6,740	6,625	814	779	5,925	5,846	
1963	9,035	9,005	852	845	8,183	8,160	
1964	11,443	11,443	919	919	10,524	10,524	
1965	13,725	13,723	1,442	1,442	12,283	12,281	
1966	16,235	16,235	1,999	1,999	14,236	14,236	
1967	11,959	11,864	1,778	1,775	10,181	10,089	
1968	13,983	13,976	1,979	1,977	12,004	11,999	
1969	14,866	14,866	2,122	2,122	12,744	12,744	
1970	18,585	18,585	4,045	4,045	14,540	14,540	

■ 지방세 세목별 과징 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 세목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영업세부가세	144	96	136	189	253	407	104			
취 득 세	397	324	419	410	1,132	1,611	2,049	2,152	2,194	5,238
자 동 차 세	37	174	187	214	241	362	349	404	405	597
도 축 세	67	115	124	181	160	163	195	172	182	176
면 허 세	71	410	329	288	354	348	427	702	732	900
유흥음식세		73	81	125	118	186	254	422	630	1,030
재 산 세		725	822	771	799	1,219	1,301	1,226	2,306	3,413
농 지 세		4,324	6,479	8,747	9,958	11,109	7,100	8,898	8,417	6,588
소득세부가세		317	350	368	552	815	66			
소방시설세		63	67	141	143					
법인세부가세			11	9	13	15	19			
호 별 세	421									
가 옥 세	309									
임 야 세	38									
특 별 세	35									
차 량 세	4									
동 력 세	16									
기 타		4								
목 적 세										643
계	1,539	6,625	9,005	11,443	13,723	16,235	11,864	13,976	14,866	18,585

■ 1960년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

(단위 : 천원)

세목별 \ 연도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지 방 세	113	5,845	8,160	10,515	12,676	13,802	10,150	11,999	12,745	13,897
재 산 수 입	21	24	86	190	220	995	1,919	560	533	434
사용세 및 수수료	111	445	524	657	872	1,005	1,384	1,639	1,909	1,854
이 월 세	512	1,236	412	619	1,586	1,414	3,416	272	1,291	3,851
문 부 금	96	112	92	–	12,410	–	243	234	322	405
과 년 도 수 입	91	4	197	–	37	22	1,151	5,930	92	474
지 방 채	–	–	–	5	–	–	2,000	2,000	–	–
전 입 금	–	–	–	20	20	20	–	–	–	180
잡 수 입	1	3	111	75	390	644	1,340	858	919	1,470
지 방 문 부 세	2,332	3,531	6,776	9,904	–	36,483	37,800	59,330	91,100	113,319
보 조 금	967	2,694	6,255	7,402	9,073	10,360	16,833	16,518	53,980	60,357
재 산 매 각 대	–	545	269	–	–	–	–	–	–	–
환 부 금	245	–	–	–	–	–	–	–	–	–
계	4,489	14,439	22,882	29,387	37,284	64,745	76,236	99,340	162,891	196,241

■ 1960년대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

(단위 : 천원)

세목별 \ 연도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행 정 비	1,302	6,069	11,735	13,836	16,534	26,554	28,900	34,693	43,431	55,861
재 정 비	801	1,515	873	1,052	1,325	2,668	3,284	3,457	4,189	3,355
재 산 비	–	24	69	602	2,093	2,555	4,578	6,074	1,390	9,891
문 화 공 보 비	–	483	631	534	618	2,895	3,084	2,964	4,049	7,395
건 설 비	658	1,902	1,276	1,078	3,227	8,664	12,364	13,105	38,200	41,195
소 방 비	–	84	99	176	–	–	–	–	–	–
농 업 비	257	2,641	2,009	3,618	4,073	7,197	5,790	17,922	20,588	53,826
관 광 비	–	–	–	–	–	–	900	621	3214	2655
상 공 비	240	206	48	675	30	1,240	2,485	413	367	1,948
사 회 사 업 비	10	43	1,024	1,497	1,823	2,575	1,954	2,115	2,070	1,817
보 건 비	51	267	1,698	1,944	2,141	2,917	3,505	4,122	5,782	9,730
전 출 금	120	–	290	110	99	545	1,660	3,177	4,730	595
지 방 비	–	11	24	22	56	–	117	2,793	198	2,520
축 산 비	31	241	289	247	276	560	799	925	5,155	–
농 촌 진 흥 비	–	–	993	398	1,164	1,797	2,453	1,829	2,504	–
농 지 개 량 비	–	–	35	45	347	160	2,801	1,837	17,728	–
임 업 비	–	542	1,170	1,367	2,064	1,002	2,100	2,003	5,452	–
예 비 비	108	–	–	–	–	–	–	–	–	–
계	3,578	14,028	22,263	27,201	35,870	61,329	76,774	98,050	159,047	190,788

■ 1960년대 특별회계 세입정산현황

(단위 : 천원)

세목별 \ 연도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주택관리특별회계	27	244	29	74	49	84	62	15	55	51
토지개량특별회계		720	796	963	965	2,902	5,042	260	151	
대여양곡특별회계			384	356	446	739	2,871	6,504	7,082	8,772
시범농촌특별회계	120	-	120	140	140	140	240	240		
소방공공특별회계					152	286	286	345	572	675
지붕개량특별회계							737	240	1,573	1,756
지역개발특별회계								300	3,605	2,931
축산진흥특별회계								797		
잠실건축특별회계								1,710		
중소기업특별회계									640	
계	147	964	1,329	1,533	1,752	4,151	9,238	10,411	13,678	14,185

■ 1960년대 특별회계 세출결산현황

(단위 : 천원)

세목별 \ 연도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주택관리특별회계	16	239	29	74	49	84	62	15	55	51
토지개량특별회계		720	796	962	963	2,901	5,042	259	144	
대여양곡특별회계			364	356	446	739	709	758	444	1,668
시범농촌특별회계	120	-	120	140	140	140	240	240		
소방공공특별회계					150	286	286	343	561	672
지붕개량특별회계							736	240	1,512	1,750
지역개발특별회계								300	3,600	2,610
축산진흥특별회계								792		
잠실건축특별회계								1,710		
중소기업특별회계									640	
계	136	959	1,309	1,532	1,748	4,150	7,075	4,657	6,956	6,751

3) 1970년대 재정

1970년대 무주군 재정상황을 살펴보는데 있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바로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단행된 이른바 '10월유신'이라는 정치적 환경에 따른 지방재정의 큰 변화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1972년 8월 2일 대통령 긴급조치명령 제15호에서 공포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근거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제를 폐지하고 매년 국가예산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7.6% 수준이던 내국세의 지방교부세가 11%선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에 많은 위축을 가져왔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방세목 신설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73년 3월 12일 법률 제2593호에 의거 주민세를 신설하고, 1976년 12월 31일에는 법률 제2945호를 근거로 목적세인 사업소득세를 신설하였다. 더욱이 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과 주민 본위의 재정운영에 기본을 두었을 뿐 아니라 1975년에는 서정쇄신을 국가시책으로 정한데 영향을 받아, 1976년에는 변태경리(變態經理)의 일소를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1971년 무주군 지방세 세목은 취득세·면허세·자동차세·유흥음식세·도축세·재산세·농지세·목적세 등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1972년에는 종전까지 특별회계였던 소방공동시설을 편성하였고, 1973년 주민세와 도시계획세, 1977년 등록세, 1979년 사업소득세 등을 신설하여 모두 11개 세목으로 늘어났다. 지방세 과징실적을 보면, 1971년 총 20,194,000원이 1980년에는 258,286,000원으로 증가하였다.

다음은 1970년대 무주군 지방세의 세목별 과징 실적이다.

■ 1970년대 지방세 과징상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계		도 세		군 세		비 고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1971	20,335	20,194	3,444	3,434	16,891	16,700	
1972	33,660	33,411	4,747	4,745	28,913	28,666	
1973	55,252	55,252	7,245	7,245	48,007	48,007	
1974	68,295	68,293	9,382	9,381	58,913	58,622	
1975	93,163	92,831	12,209	12,209	80,954	80,622	
1976	130,068	129,959	17,460	17,460	112,608	112,499	
1977	161,868	161,868	36,579	36,579	125,289	125,289	
1978	184,686	184,686	35,744	35,744	148,942	148,942	
1979	247,200	247,200	46,734	46,734	200,466	200,466	
1980	258,286	258,286	63,423	63,423	194,863	194,863	

■ 지방세 세목별 과징 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 세목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취 득 세	3,970	5,148	7,706	11,292	14,834	21,695	23,430	25,347	35,103	47,447
자 동 차 세	738	937	1,037	1,268	1,230	1,260	2,164	3,119	6,739	12,041
유 흥 음 식 세	1,120	1,758	2,188	2,712	3,070	5,156	414	–	–	–
도 축 세	180	186	206	232	402	930	953	1,245	2,596	2,918
면 허 세	856	1,226	1,050	2,174	2,082	2,294	3,527	3,456	5,581	6,793
재 산 세	3,829	5,472	7,179	8,219	14,434	17,183	27,790	28,841	39,354	59,269
농 지 세	8,962	17,769	28,125	37,187	44,070	65,619	71,657	90,389	109,276	68,932
소방공동 시설세	–	915	1,199	1,400	2,360	2,604	2,499	2,661	3,668	5,965
주 민 세	–	–	5,614	2,711	7,000	8,961	15,887	18,422	26,715	25,242
도 시 계 획 세	–	–	948	1,098	3,349	42,256	4,138	4,265	5,657	8,143
등 록 세	–	–	–	–	–	–	9,409	6,941	6,050	9,183
사 업 소 세	–	–	–	–	–	–	–	–	6,461	12,353
목 적 세	719	–	–	–	–	–	–	–	–	–
계	20,374	33,411	55,252	68,293	92,831	167,958	161,868	184,686	247,200	258,286

1970년대 무주군 일반회계를 개괄하면, 우선 지방교부세를 비중있게 편성하여 꾸준한 성장을 보였는데, 1971년 세입액은 329,815,000원이었고, 1979년에는 2,032,956,000원으로 616%의 성장률을 보였다. 세출면에서도 1971년 329,100,000원에서 1979년 1,865,108,000 원으로 567%의 성장률을 보였다.

한편 1971년 특별회계는 주택자금·대여양곡관리·농촌진흥자금특별회계 등 3개였으나, 1972년 주택자금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지붕개량특별회계를 신설했으며, 1973년에는 복지자금과 농촌주택특별회계를 신설하였다. 1974년에는 농촌주택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특별회계를 폐지하면서 국민주택과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운영했는데, 1976 년 상수도 특별회계 신설, 1977년 국민주택을 주택사업으로 개칭하면서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신설하였고, 1977년부터는 주택사업·새마을소득금고·상수도사업·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등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다.

다음은 1970년대 무주군 재정의 운영사항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목별·연도별 세입세출결산 상황이다.

■ 1970년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세목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지방세	16,759	28,811	48,007	58,912	80,623	112,831	125,289	148,942	200,466	194,863
재산수입	972	1,146	16,467	13,658	17,555	10,662	15,407	17,408	25,011	7,761
수수료	2,520	2,724	3,450	3,977	5,357	10,670	12,066	14,819	24,473	38,688
이월금	5,472	714	1,057	16,092	11,506	39,280	75,161	124,931	73,157	167,747
문부금	455	672	2,077	3,233	4,039	2,287	20,884	18,335	44,386	41,810
과년도수입	3	127	134	2,375	3,533	2,078	5,427	1,814	4,746	706
지방책	10,326	1,327	705	–	–	–	–	1,869	–	–
잡수입	2,202	10,543	12,706	13,945	15,836	21,989	20,968	67,859	51,730	55,412
지방문부세	155,700	135,853	145,000	210,000	346,200	469,000	572,900	696,971	966,000	1,201,000
보조금	135,388	118,657	178,691	193,333	395,894	527,855	761,082	386,215	642,887	968,732
계	329,815	300,574	408,294	515,525	880,543	1,196,652	1,609,184	1,479,163	2,032,856	2,676,719

■ 1970년대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세목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행정비	74,615	95,414	100,515	146,500	214,356	302,782	410,618	535,957	682,491	1130,606
재정비	4,702	7,182	15,415	38,275	37,258	40,087	79,309	111,387	119,421	–
문화공보비	7,848	5,573	9,288	10,679	23,402	23,112	9,238	11,694	23,765	–
건설비	84,069	74,581	128,498	155,114	311,205	354,366	487,305	311,191	383,723	464,427
안전관리비	1,479	934	1,298	1,710	2,084	2,940	3,325	5,980	8,409	–
농업비	104,260	18,299	13,015	16,723	102,226	126,710	160,173	156,828	164,579	485,688
잠업비	–	8,365	37,078	9,957	7,586	9,494	70	636	2,178	–
축산비	–	2,909	2,756	3,128	5,111	6,234	5,547	10,569	9,582	–
상공비	432	1,202	687	1,757	1,548	574	252	801	111	–
농촌진흥비	–	7,387	5,595	8,657	12,302	20,746	23,463	26,162	33,704	–
농지개량비	–	9,291	10,343	3,863	–	–	–	–	–	–
임업비	–	11,253	6,373	14,922	19,648	55,548	99,315	96,027	84,966	–
관광운수비	15,077	3,328	3,257	10,999	10,942	4,446	13,412	16,859	682	–
보건비	13,505	15,219	17,226	19,116	34,395	47,501	55,214	61,896	169,380	–
전출비	2,210	14,400	18,592	19,050	19,511	67,470	94,949	28,519	35,139	28,031
지방비	391	10,570	433	–	–	–	–	–	2,151	–
사회사업비	4,298	10,139	5,774	43,539	39,104	63,723	39,270	27,885	117,826	338,138
민방위비	–	–	–	–	585	3,757	2,713	3,615	4,656	14,386
청소비	–	–	–	–	–	–	–	–	22,345	–
계	329,101	299,517	392,202	504,019	841,263	1,129,490	1,484,253	1,406,006	1,865,108	2,461,376

■ 1970년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정산현황 (단위 : 천원)

세목별	연도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주택관리	세입	1,199									
	세출	1,051									
대여양곡	세입	7,979	664	7,486							
	세출	1,610	–	–							
농촌진흥	세입	2,972	2,919	3,049							
	세출	2,960	2,683	3,040							
지붕개량	세입		15,944	20,990							
	세출		15,893	20,890							
복지자금	세입			2,900							
	세출			2,900							
농촌주택	세입			24,927	29,445	34,264	72,788				
	세출			24,774	26,888	34,264	72,618				
새마을 소득금고	세입				6,815	12,341	18,696	14,388	22,830	21,302	14,738
	세출				2,576	3,153	18,216	12,564	18,150	19,500	13,300
상수도	세입						10,066	23,251	21,059	27,844	34,744
	세출						10,056	21,824	19,214	24,842	32,619
의료보호	세입							16,280	22,555	28,543	28,303
	세출							9,770	19,808	27,779	27,929
국민주택	세입				2,310	15,715	11,271				
	세출				2,310	15,175	11,271				
계	세입	12,150	19,527	59,352	38,570	62,320	112,821	174,848	122,407	131,872	103,690
	세출	5,621	18,576	51,604	31,774	52,592	112,161	165,059	110,278	126,147	99,150

다음은 1970년대 무주군 공유재산 변동 상황이다.

■ 1970년대 군유재산현황

(단위 : 천원, m²)

구분 세목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총평가액		61,048	62,228	71,459	188,519	192,235	190,472	244,861	203,618	233,345	232,710
토지	면적	186,727	187,471	260,063	234,379	238,714	233,488	220,040	228,662	230,465	
	평가액	7,999	9,179	14,241	41,817	49,028	47,265	19,727	45,811	51,399	60,763
건물	면적	2,172	2,172	2,059	2,071	2,262	2,262	2,453	2,492	2,556	2,555
	평가액	13,701	43,709	47,944	54,564	50,667	50,647	66,158	61,010	75,149	75,150
임야	면적	9,347,769	9,347,767	9,274,355	9,263,837	9,254,184	9,254,184	9,231,949	9,217,460	9,211,916	9,211,916
	평가액	9,348	9,348	9,274	92,638	92,540	92,540	96,976	96,797	96,797	96,797

4) 1980년대 재정

1980년대 초기는 유신시대의 종말과 함께 제5공화국으로 전환되는 정치적 격변기였다. 이에 따른 변화 중 우선되는 것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시책에 맞추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간의 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수요가 증가되었다.

1981년부터 지방세목을 정비하여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 구분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과목도 과감하게 정리하여 체계화하는 등 예산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82년 4월 3일 법률 제3557호에 의거 지방교부세를 개정하였고, '8·3조치'를 통해 폐지됐던 법정교부율제를 부활시켰다. 1984년 12월 24일에는 법률 제3575에 의거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농지세를 대폭 인하하면서 담배 판매세를 신설하였다. 1986년 12월 31일에는 법률 제3874호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종전의 보조금관리법을 폐지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1981년부터 새로 구분 정리된 국세 및 지방세 목별 증수실적을 연도별, 읍·면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세징수상황

(단위 : 천원)

연별 및 읍면별	합계	직접세					간접세							과년도 수입
		계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당이득세	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방위세	
1981	367,001	150,083	145,768	4,118	197	-	191,963	162,499	747	28,705	-	12	24,955	-
1982	375,077	178,142	168,565	9,577	-	-	162,716	134,031	3,052	25,531	-	102	34,219	-
1983	414,681	200,987	192,174	7,553	1,260	-	180,940	158,500	1,214	21,226	-	-	32,754	-
1984	495,556	241,830	231,026	9,445	1,359	-	218,871	199,109	2,582	17,166	14	-	29,020	6,835
1985	615,000	320,000	305,000	14,000	1,000	7,000	214,000	195,000	2,000	17,000	-	-	65,000	9,000
1986	716,000	406,000	383,000	12,000	11,000	-	235,000	216,000	1,000	18,000	-	-	63,000	12,000
1987	632,681	404,500	391,000	13,500	-	-	228,181	209,000	630	18,551	-	-	-	-

■ 세목별 지방세 징수액

(단위 : 천원)

연별 및 읍면별	합계	보통세										목적세			
		소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계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1981	416,929	393,497	10,419	22,103	7,706	33,462	90,222	13,326	161,732	4,527			23,482	11,918	5,749	5,818	
1982	454,250	425,032	64,444	36,369	9,043	34,859	93,954	16,710	164,085	5,568	-	-	29,218	12,429	6,795	9,994	

연별 및 읍면별	보통세											목적세	
	합계	소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계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1983	523,283	495,630	104,773	62,042	9,951	33,624	102,619	21,015	156,207	5,759	–	–	27,653	13,156	8,676
1984	556,298	519,912	99,007	61,559	10,192	38,676	110,816	24,453	169,200	6,009	–	–	36,386	14,983	12,053
1985	430,379	395,565	123,197	43,988	9,798	33,679	133,978	15,026	27,295	8,604	–	–	34,814	15,779	12,925
1986	647,349	606,562	94,996	54,208	6,170	37,232	130,068	17,398	29,404	7,603	229,483	–	40,782	18,547	14,545
1987	662,221	617,858	72,076	61,016	6,500	41,323	129,623	21,651	29,137	7,922	–	258,611	44,363	20,556	14,135
무주	158,515	129,186	25,414	15,515	2,504	19,080	42,786	13,736	4,545	5,586	–	–	29,329	16,328	5,839
무풍	40,159	38,823	9,304	7,067	508	3,574	12,094	684	5,321	270	–	–	1,336	688	575
설천	81,548	72,760	11,933	12,262	1,278	5,909	34,873	3,377	2,959	169	–	–	8,788	1,242	5,259
적상	35,181	34,469	6,185	5,292	770	3,423	13,607	1,024	3,551	617	–	–	712	–	712
안성	70,158	66,189	16,057	9,062	1,129	7,045	18,936	2,544	10,434	982	–	–	3,969	2,298	1,521
부남	18,049	17,820	3,183	1,818	316	2,291	7,327	286	2,301	298	–	–	229	–	229

일반회계를 보면, 1981년부터 수입목 중에 종전의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그리고 보조금을 제외한 다른 목을 모두 정리하여 세외수입으로 바꾸었다. 세출목도 종전의 행정비·재정비·문화공보비를 일반행정비로 고치면서 사회사업비 소비를 사회복지비로, 농업비·상공비·축산비·잠업비·임업비·농촌진흥비를 산업경제비로, 건설비·관광운수비를 공익사업비로 하였다. 1987년에는 공익사업비를 지역개발비로 개칭했으며, 민방위비와 소방비를 민방위비로, 전출비와 여비 등을 지원제비로 하였다. 그리고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연관된 체육진흥을 위해서 1986 육비를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1980년대 운영된 무주군 재정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목별 세입과 세출상황은 다음과 같다. (군지 512, 513

■ 군 세입·세출 총괄

(

연 별	예산			결산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1981	4,224,768	4,085,806	138,962	3,996,478	3,870,109	
1982	4,188,939	3,882,587	306,352	3,364,861	3,094,189	
1983	6,288,243	4,643,116	1,645,127	5,755,063	4,173,328	

연 별	예 산			결 산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1984	7,102,870	6,135,990	966,880	6,077,295	5,139,551	937,744
1985	8,209,460	6,975,901	1,233,599	7,778,735	6,577,748	1,200,987
1986	7,822,741	6,832,759	989,984	7,759,349	6,809,858	949,491
1987	10,271,900	8,971,113	1,300,781	9,560,736	8,561,961	998,775
1988	13,217,022	11,980,970	1,236,025	9,591,457	8,599,708	991,749

■ 군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결산현황

연별 및 과목별	예 산		결 산		예 산 대 결산비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981	4,086,770	100	3,870,109	100	94.7
1982	3,913,984	100	3,694,188	100	94.3
1983	4,586,825	100	4,173,328	100	94.3
1984	6,370,705	100	6,135,990	100	96.3
1985	6,929,742	100	6,975,901	100	100
1986	7,315,858	100	7,194,949	100	98
1987	9,657,495	100	7,194,949	100	93
1988	12,012,538	100	11,980,070	100	99.7
지 방 세	919,513	7.7	947,198	7.9	101.9
내 외 수 인	1,782,090	14.9	1,759,726	14.7	98.7
지 방 교 부 세	5,432,000	45.2	5,432,000	45.3	100
보 조 금	3,868,935	32.2	1,842,060	32.1	99.3

■ 군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결산현황

연별 및 과목별	예 산		결 산		예 산 대 결산비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981	4,086,770	100	3,870,109	100	94.7
1982	3,913,984	100	3,694,188	100	94.3
1983	4,586,825	100	4,173,328	100	94.3
1984	6,370,705	100	6,135,990	100	96.3
1985	6,929,742	100	6,975,901	100	100
1986	7,315,858	100	7,194,949	100	98
1987	9,657,495	100	9,194,949	100	93
1988	12,012,538	100	11,980,970	100	99.7

연별 및 과목별	예산 금액	예산 구성비	결산 금액	결산 구성비	예산대 결산비율
지방세	919513	7.7	947198	7.9	101.9
내외수인	1782090	14.9	1759726	14.7	98.7
지방교부세	5432000	45.2	5432000	45.3	100
보조금	3868935	32.2	3842060	32.1	99.3

도표에서 확인했듯이 1981년 일반회계 세입액은 4,085,806,000원이었는데, 1990년에는 21,025,474,000원으로 약 5배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별회계는 1981년 138,962,000원에서 1990년 2,548,246,000원으로 18배 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 무주군 일반회계 총세입액 21,025,474,000원 중 지방세는 1,615,786,000원으로 7.6%, 세외수입은 4,331,449,000원으로 20.6%, 지방교부세는 10,487,000,000원으로 49.8%, 보조금은 4,591,239,000원으로 21.8%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의존도 구성비가 71.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주군의 재정자립도는 28.2%가 되는데, 이는 1988년 22.6%에 비해 5.6%가 증가했지만 영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1990년 무주군 총가구수 10,228호, 인구 37,183명으로 무주군에서 징수되는 지방세 1,615,786,000원은 1가구 당 평균 157,976원이며, 인구 1인 당 43,454원씩 부담한 셈이 된다.

다음은 1980년대 무주군 공유재산 보유 현황이다.

■ 군공유재산 현황

(단위 : 천원, m²)

연도별 및 읍·면별	총평가액	토지		건물		임목축	
		면적	평가액	면적	평가액	축적	평가액
1981	563,455	453,456	201,979	2,662	132,911	10,319,321	228,565
1982	631,373	8,561,876	435,061	10,691	146,312	3,333	50,000
1983	671,138	35,624,003	447,108	10,829	174,030	3,333	50,000
1984	834,926	3,588,173	480,262	12,599	304,664	3,333	50,000
1985	1,632,281	37,353,317	987,355	17,151	594,966	3,333	50,000
1986	1,752,777	37,359,974	994,013	18,640	708,764	3,333	50,000
1987	1,891,048	37,386,398	1,013,114	19,694	827,934	3,333	50,000
1988	2,296,629	37,784,185	1,112,697	15,897	1,133,932	18,045	50,000
1989	2,517,739	36,728,901	1,096,139	19,031	1,336,510	59,482	85,090
1990	3,514,217	36,756,450	2,042,805	19,748	1,421,412		50,000

연도별 및 읍·면별	총평가액	토 지		건 물		임목축	
		면 적	평가액	면 적	평가액	면 적	평가액
무주읍	2,177,111	9,129,405	1,520,621	7,188	644,000		12,490
무풍면	137,091	572,949	27,591	1,611	109,000		500
설천면	467,273	10,854,808	251,205	2,816	201,000		15,068
적상면	253,185	8,683,803	123,133	1,756	118,000		12,052
안성면	239,822	1,888,706	58,664	2,586	179,000		2,158
부남면	239,735	5,626,788	61,591	3,791	170,412		7,732

5) 지방자치시대 재정

1991년 3월 26일, 전국적으로 광역·기초의회 의원 동시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을 보게 되었다. 비록 3년 뒤인 1995년에 가서야 단체장(군수) 선거를 통해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지만, 1961년 이후 30여년 만에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1990년대 무주군 재정을 199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민선 이후와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 국가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전국민의 생활 조건이나 생산력이 성장했다는 점도 있지만, 1995년 하반기 민선 이전과 1996년 이후 현재까지 무주군의 재정상태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나타내며 눈에 띄게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년도별 예산규모 참조) 총규모에서 민선 이전 5년간 (1991~1995) 평균은 446억원으로 2년 주기로 4백억대와 5백억대를 돌파하였다.

그런데, 본격적인 민선이 시작되는 1996년 734억원 대로 늘어나 불과 1년 사이에 약 152억 원이 증가되었다. 이후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평균은 998억원으로 민선 이전과 비교할 때 약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무주군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1,000억대의 돌파가 민선 출발 5년 만인 2000년에 이루어짐으로써 역사적인 1천억원 규모의 살림살이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 년도별 예산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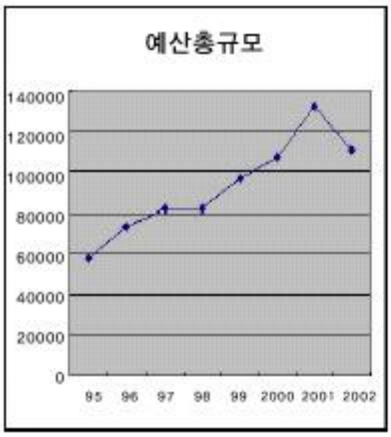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년도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고
1991	32,242	25,255	6,987	
1992	38,888	27,305	11,583	
1993	44,281	29,518	14,763	
1994	49,661	40,791	8,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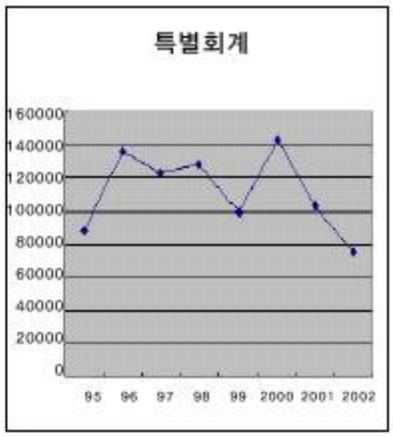
년도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고
1995	58,170	50,572	7,598	
1996	73,449	63,203	10,246	
1997	81,661	67,438	14,223	
1998	81,770	71,821	9,949	
1999	96,322	83,533	12,789	
2000	106,807	94,516	12,291	
2001	132,575	119,044	13,531	
2002	110,585	101,736	8,849	2002. 5. 현재

※ 최종예산 대비 (단, 2002년도 예산액은 1회 추경 기준임)

※ 자료제공 : 무주군청 정책관리실 예산담당







위와 같은 재정운영이 가능해진 것은 1995년 10월과 1996년 11월, 전문회계법인에게 '무주군재정운영종합진단'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적용시키면서 구조조정과 더불어 재정운영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한 데에 기인한다. 즉, 재정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치밀하고 정밀하게 예산분석작업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다.[70)]

재정의 증가 내용을 보면, 교육문화 및 보건환경분야 그리고 사회복지비 등 지방자치의 근본적 취지에 맞는 주민복지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다. 특히 교육 및 문화비는 354% 의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보건환경비는 민선 이전 평균 20억 규모에서 99년 157억

70) 반딧불 제37호(1999. 11. 30) 7쪽. 이와 함께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예산규모의 확충을 위한 대규모 시책사업 발굴, 보조금·양여금 등 의존재원 확충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예산 투쟁 전개,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상경비의 절감으로 자주재정 확충 등을 꼽을 수 있다.

원 규모로 증가하여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1995년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방향을 보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소득기반 조성사업의 투자비 확대, 농업부문 예산의 연차적 증대를 통한 소득기반 확충 및 군민소득 증대,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건설부문 사업비의 연차적 투자확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농업 및 건설사업 등 주요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별	계	비율	농업부문	비율	건설사업 부문	비율	비고
1995	19,441	33.4	9,951	17.1	9,490	16.3	
1996	23,777	32.4	11,710	15.9	12,067	16.4	
1997	35,047	42.9	16,704	20.5	18,343	22.5	
1998	33,244	40.7	12,083	14.8	21,161	25.9	
1999	31,371	32.6	11,886	12.3	19,485	20.2	
2000	49,801	46.6	11,176	10.5	38,625	36.2	
2001	47,854	36.1	16,527	12.5	31,327	23.6	
2002	39,219	35.5	17,457	15.8	21,762	19.7	

그 동안 무주군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민선 전 5억이던 이자수입을 41억으로 올렸으며, 공무원을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저비용·고효율구조로 개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적으로 신선한 화제가 되었으며, 그 성과를 인정 받아 무주군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하였다.

2000년 행정자치부에서 발간된 ≪지방재정종합분석보고서≫에 의하면, 무주군 재정분석지표에 나타나는 무주군 재정운영상태는 아래의 표와 같다.

분석지표(부문지표)	건 전 성		효
분석영역(역역지표)	자 주 성	안 전 성	생 산 성
분석단위 (단위지표)	재정자립도(32) 재정력지수(50)	경상수지비율(25) 세입세출충당비율(87) 지방채상환비율(28)	재정운영계획비율(44) 세입예산반영비율(3) 투자비비율(46)

※ ( )의 숫자는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지방재정분석보고서≫에 수록된 전국 91개 군(郡) 가운데 무주군 순위

이 분석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재정수요의 자주재원 충당능력·재정구조의 탄력성 성 등을 분석하고 측정하여 재정상태의 현재적 상황과 이를 통한 미래의 재정여건을 예측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다음연도 재정운용 방향 정립 및 재정운용에 환류 시킬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위한 중장기 비전에 부합한 재정운영과 동태적인 재정건전화 자구노력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주성 등 4개 영역의 10개 지표에 의한 재정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무주군이 점유하고 있는 지표상의 재정운영상태는 전체적으로 튼실한 재정운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6) 2001년도 무주군 재정[71)]

(1) 지방세 징수

연별및읍면별	합계	보통세											
		소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계
1996	8,092,712	7,771,955	2,605,568	1,208,465	51,544	581,332	378,647	712,205	1,260	691	280,706	1,951,537	220,041
1997	10,793,710	10,201,524	5,044,959	1,132,279	53,401	669,872	434,826	818,541	1,009	666	353,808	1,692,163	435,660
1998	7,950,691	7,414,472	1,427,703	774,586	52,123	568,482	475,036	894,030	852	607	240,044	2,981,009	412,691
1999	7,417,331	6,602,243	979,820	892,126	52,357	588,853	430,866	803,841	1,043	1,016	472,243	2,380,078	440,822
2000	7,498,394	6,930,071	1,336,499	1,078,625	51,895	781,555	419,973	897,027	930	1,005	562,519	1,800,043	439,144
2001	7,244,109	6,647,602	1,259,268	1,164,800	23,217	703,541	431,873	720,985	145	361	796,421	1,546,991	451,666
무주읍	-	-	-	-	-	-	-	-	-	-	-	-	-
무풍면	-	-	-	-	-	-	-	-	-	-	-	-	-
설천면	-	-	-	-	-	-	-	-	-	-	-	-	-

71)무주군 통계연보 2002(제42회)

연별 및 읍면별	합계	보통세												목
		소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계	도시계획세
적상면	–	–	–	–	–	–	–	–	–	–	–	–	–	–
안성면	–	–	–	–	–	–	–	–	–	–	–	–	–	–
부남면	–	–	–	–	–	–	–	–	–	–	–	–	–	–

(2) 예산결산 총괄

연도별	예산현황			세입			세출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1993	45,278,389	29,517,108	15,761,281	49,134,653	33,538,653	15,596,000	38,243,427	26,645,427	11,598,000	10,891,226
1994	50,665,530	40,790,530	9,875,000	55,099,028	45,169,028	9,930,000	40,103,382	33,192,382	6,911,000	14,995,646
1995	59,868,313	50,571,957	9,296,356	69,181,573	59,860,573	9,321,000	44,499,225	38,803,225	5,696,000	24,682,348
1996	74,461,926	63,202,633	11,259,293	90,546,283	78,187,283	12,359,000	60,084,880	53,789,880	6,295,000	30,461,403
1997	83,299,820	67,437,870	15,861,950	95,282,502	79,668,502	15,614,000	59,130,490	52,583,490	6,547,000	36,152,012
1998	105,717,327	91,546,635	14,170,692	90,843,153	90,829,253	13,900	63,325,918	57,243,837	6,082,081	27,517,235
1999	121,109,407	107,678,571	13,430,836	122,564,010	109,413,730	13,150,280	71,212,163	65,045,897	6,166,266	51,351,847
2000	143,672,791	131,054,116	12,618,675	143,649,980	131,249,533	12,400,447	87,406,740	78,971,891	8,434,849	56,243,240
2001	189,353,139	175,143,491	14,209,648	173,245,954	160,226,652	13,019,302	126,303,338	117,009,482	9,293,856	46,942,616

(3) 일반회계 세입결산

연도별 회계별	예산현액		결산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994	40,790,530	100	45,169,028	100
1995	50,571,957	100	59,860,573	100
1996	63,202,633	100	78,187,283	100
1997	67,437,870	100	79,668,502	100
1998	91,546,636	100	90,829,253	100
1999	107,678,571	100	109,413,730	100
2000	131,054,116	100	131,249,533	100
2001	160,933,844	100	160,226,652	100
지방세	467,090	2.9	4,736,621	3.0
세외수입	58,882,361	36.6	58,540,541	36.4
지방교부세	51,222,800	31.8	51,222,800	31.8
보조금	31,695,231	19.7	31,517,303	19.6
지방양여금	12,999,362	8.1	12,611,433	7.8
지방세	–	–	250,000	0.2
재정보전금	1,477,000	0.9	1,347,954	0.8

(4)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연도별 회계별	예산현액		결산액		예산대 결산비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994	40,790,530	100	33,192,382	100	81.4
1995	50,571,957	100	38,803,225	100	73.7
1996	63,202,633	100	53,789,880	100	85.1
1997	67,437,870	100	52,583,490	100	78.0
1998	91,546,636	100	57,243,837	100	62.5
1999	107,678,571	100	65,045,897	100	60
2000	131,054,116	100	78,971,891	100	60
2001	160,933,844	100	117,009,302	100	72.7
일반행정	22,188,033	13.7	20,857,683	17.8	94.3
사회개발	68,662,423	42.7	47,030,853	40.2	68.5
경제개발	63,059,548	39.2	46,254,274	39.5	73.4
민방위비	345,989	0.2	313,251	0.3	90.5
지원 및 기타경비	6,747,851	4.2	2,553,241	2.2	37.8

(5) 특별회계 예산결산

(단위 : 천원)

연도별 회계별	회 계 수	예산현액	세 입	세 출
1994	-	9,875,000	9,930,000	6,911,000
1995	-	9,296,356	9,321,000	5,696,000
1996	8	11,259,293	12,359	6,295,000
1997	8	15,861,950	15,614,000	6,547,000
1998	8	14,170,692	13,900	6,082,081
1999	8	13,430,836	13,150,280	6,166,266
2000	8	12,618,675	12,400,447	8,434,849
2001	8	14,209,648	13,019,302	9,293,856
상수도		4,030,531	3,983,693	3,908,995
주택사업		403,490	362,691	342,982
의료보험기금운영		2,998,449	2,996,384	2,971,341
농어촌 소득지원금 기금		2,614,361	1,603,814	624,200
경영사업		2,059,248	2,220,473	796,20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07,950	666,632	279,656
농공단지조성		441,531	599,898	316,806
유통사업		1,054,088	585,717	53,675

(6) 군유재산

(단위 : 천원)

연도별 읍면별	총평가액	토 지		건 물		임 목 · 죽		공작물		기 타	
		면적	평가액	면적	평가액	면적	평가액	점	평가액	수량	평가액
1994	10,921,917	37,404,528	7,169,697	26,568	3,752,220	-	-	-	-	-	-
1995	10,968,600	37,490,400	7,216,598	26,568	3,752,002	-	-	-	-	-	-
1996	15,280,665	37,593,805	11,221,412	28,520	4,059,253	-	-	-	-	-	-
1997	16,875,069	37,882,970	12,778,546	28,689	4,096,523	-	-	-	-	-	-
1998	37,707,588	37,990,590	33,604,586	28,821	4,103,002	-	-	-	-	-	-
1999	42,232,167	37,918,632	35,485,034	36,902	6,514,611	113,700	116,881	1	650	187	115,340
2000	47,817,450	37,345,000	40,896,607	38,741	6,685,694	113,700	116,881	-	-	179	118,268
2001	47,981,867	37,471,554	40,859,588	38,881	6,887,130	113,700	116,881	-	-	180	118,268
무주읍	20,806,475	8,842,665	15,956,889	24,249	4,731,318	-	-	-	-	180	118,268
무풍면	5,866,753	883,671	5,488,748	1,719	261,124	113,700	116,881	-	-	-	-
설천면	7,257,850	10,948,742	6,355,262	5,099	902,588	-	-	-	-	-	-
적상면	4,724,210	8,839,790	4,415,074	2,047	309,136	-	-	-	-	-	-
안성면	6,601,986	2,048,576	6,277,324	2,702	324,662	-	-	-	-	-	-
부남면	2,724,593	5,908,110	2,366,291	3,065	358,302	-	-	-	-		-

[집필 : 이기언]

제5장 행정시책

제1절 역대 군수의 군정지표 및 방침

군정방침은 무주군의 행정 수행에 따른 시정(施政)의 기본방침으로 민선 이전에는 새로 부임해 오는 군수들이 내세우는 군정의 기본 방향이었고, 민선시대에 들어서는 단체장의 군정에 임하는 자세와 성격, 그리고 방향을 가름하는 잣대라 할 수 있다. 즉, 군수가 내세우는 군정방침은 그의 임기 중에 펼칠 군정의 기본인 동시에 시정상의 의지가 담긴 목표이므로 군민에게 주는 이미지와 함께 비전을 제시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군수가 부임한 까닭에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시책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집권자의 국정의지를 구체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군정방침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나마 무주군 역대 군수의 군정방침은 1961년 '5·16 군사쿠테타' 이전에는 찾을 길이 없고, 이후 부임한 군수부터 ≪무주군 통계연보≫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1963년 이전 것은 없다. 즉, 1963년 5월에 부임한 김진석(金振錫) 군수부터 기록이 남아 있는데, 제18대 김영순 군수의 군정방침은 남아있지 않아 부득이 누락되었다. 1963년 이후 역대 무주군수의 군정방침을 1990년 발간 ≪무주군지≫와 ≪무주군 통계연보≫에서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제15대 김진석 군수(1963. 5. 9 ~ 1964. 6. 29)**

① 대민봉사의 철저. ② 책임행정의 구현. ③ 공무원의 인격도야. ④ 복지사업의 추진

■ **제16대 백남수 군수(1964. 7. 1 ~ 1966. 5. 30)**

① 대민행정의 강화. ② 자조정신의 발휘. ③ 농촌지도사업의 철저. ④ 산림의 육성강화

■ 제17대 전병우 군수(1966. 6. 1 ~ 1967. 11. 30)

① 인화 단결. ② 자율성 함양. ③ 향토발전. ④ 군민소득 증대 ⑤ 확인 행정

■ 제18대 김영순 군수(1967. 12. 1 ~ 1968. 4. 14)

미상(未詳)

■ 제19대 권문학 군수(1968. 4. 15 ~ 1969. 7. 14)

지표 : 푸른 새 무주 건설

① 자의적이고 ② 알차게 소득 높여 ③ 나와 내 고장 빛내자

■ 제20대 채의석 군수(1969. 7. 15 ~ 1971. 8. 20)

지표 : 푸른 새 무주 건설

① 군민의 지지를 받는 공무원이 된다. ②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③ 관광무주의 특색을 빛낸다. ④ 향토방위의 조직을 강화한다.

■ 제21대 장월하 군수(1971. 8. 21 ~ 1973. 6. 3)

지표 : 푸른 새 무주 건설

① 서로 아끼는 향토기풍을 만든다. ② 모든 지역자원을 바르게 개발한다.

③ 산과 들에 소득기반을 넓힌다. ④ 나부터 바른 공무원이 된다.

■ 제22대 서현석 군수(1973. 6. 4 ~ 1974. 5. 9)

지표 : 일하는 고장 빛나는 무주 건설

①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② 군민의 살림에 정성을 쏟는다.

③ 군역을 가꾸고 군세를 넓힌다.

■ 제23대 김동철 군수(1973. 5. 10 ~ 1975. 6. 12)

지표 : 아름다운 구천동 푸른 새 무주 건설

① 봉사하는 생산행정. ② 새로운 소득원 개발. ③ 구천동의 종합개발. ④ 균형 발전하는

밝은 풍토

■ 제24대 김영배 군수(1975. 6. 13 ~ 1977. 2. 14)

지표 : 총화로 개발 약진하는 무주

① 총화 지역안보. ② 새마을 운동 확대. ③ 총력 식량증산. ④ 지역 경제개발 ⑤ 관광권 조성

■ 제25대 이홍열 군수(1977. 2. 25 ~ 1978. 7. 10)

지표 : 밝은 사회, 부강한 무주

① 총화전진과 지역방위 ② 새마을 운동의 가속화 ③ 오지영농의 과학화 ④ 관광진흥과 산지개발

■ 제26대 지동수 군수(1978. 7. 11 ~ 1979. 5. 16)

지표 : 밝고 풍요로운 무주 건설

① 잘사는 무주 ② 다정한 무주 ③ 소문난 무주

■ 제27대 장윤상 군수(1979. 5. 17 ~ 1980. 7. 27)

지표 : 살기 좋은 무주 건설

① 총화 단결 ② 증산 개발 ③ 내실 행정

■ 제28대 최봉규 군수(1980. 7. 28 ~ 1981. 6. 30)

지표 : 살기 좋은 무주 건설

① 새 질서로 화합단결 ② 내실있는 소득개발 ③ 활기있는 소득개발 ④ 성의있는 서민봉사

■ 제29대 국승록 군수(1981. 7. 1 ~ 1982. 2. 9)

지표 : 살기 좋은 무주 건설

① 깨끗한 공직자가 된다. ② 진실되게 위민 봉사한다. ③ 증산과 개발에 주력한다.

④ 관광자원을 절대 보존한다.

■ 제30대 박용제 군수(1982. 2. 10 ~ 1984. 6. 24)
지표 : 약진하는 새 무주
① 친절과 봉사 ② 화합과 동참 ③ 증산과 개발 ④ 자원의 보존

■ 제31대 유봉영 군수(1984. 6. 25 ~ 1985. 3. 10)
지표 : 약진하는 새 무주
① 헌신봉사 ② 안정화합 ③ 적성산업 ④ 특성개발

■ 제32대 임명환 군수(1985. 3. 11 ~ 1987. 3. 10)
지표 : 약진하는 새 무주
① 화합안정 ② 위민봉사 ③ 소득증대 ④ 균형개발

■ 제33대 허동일 군수(1987. 3. 11 ~ 1988. 6. 10)
지표 : 3백만의 전진 대전북 건설
① 인화안정 ② 신뢰봉사 ③ 복지증진 ④ 개발촉진

■ 제34대 서형락 군수(1988. 6. 11 ~ 1989. 12. 27)
지표 : 서해안시대의 새 전북건설
① 민주봉사 ② 화합안정 ③ 소득증대 ④ 복지증진

■ 제35대 최충일 군수(1989. 12. 28 ~ 1991. 1. 12.)
지표 : 활기찬 무주, 함께 하는 미래
① 민본행정의 구현 ② 소득기반의 확대 ③ 주민복지의 증진 ④ 지역개발의 촉진

■ 제36대 이동구 군수(1991. 1. 13 ~ 1993. 5. 25)
지표 : 밝은 미래 활기찬 무주

① 진실한 민본행정 ② 뜻 모아 지역안정 ③ 착실한 복지증진 ④ 희망찬 지역개발

■ 제37대 한계수 군수(1993. 5. 26 ~ 1994. 7. 19)
지표 : 새 시대 다함께 새 무주 창조
① 정성어린 위민봉사 ② 내실있는 복지 증진 ③ 매력있는 지역 개발 ④ 희망찬 미래 건설

■ 제38대 송억규 군수(1994. 7. 20 ~ 1995. 6. 30)
지표 : 새 시대 다함께 새 무주 창조
① 신뢰행정 ② 힘찬 개발 ③ 선진문화

■ 제39대 김세웅 군수(1995. 7. 1 ~ 1998. 6. 30) - 민선 1기
지표 : 건강한 무주, 하나된 군민, 자랑스런 새 무주 창조
① 양질의 민본행정 ② 활기찬 자립경제 ③ 특색있는 지역개발 ④ 정성어린 사회복지
⑤ 세계적인 문화관광

■ 제40대 김세웅 군수(1998. 7. 1 ~ 2002. 6. 30 현재) - 민선 2기
지표 : 살기 좋은 무주 건설
① 총화 단결 ② 증산 개발 ③ 내실 행정

■ 제41대 김세웅 군수(2002. 7. 1 ~)
지표 : 일류를 추구하는 무주, 최고에 도전하는 행정, 모두가 살기 좋은 무주건설
① 양질의 민본행정 ② 활기찬 자립경제 ③ 특색있는 지역개발 ④ 정성어린 사회복지
⑤ 세계적인 문화관광

역대 군수의 군정방침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른 시대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표현하는 문장과 표현의 방법 역시 시대적 흐름과 함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단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와 함께 군민의 생활상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역대 군수의 군정방침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실천을 위해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지역 주민간의 화합과 안정을 추구하는 한편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의 촉진을 강력히 표방하고 있어, 지역의 최우선 과제가 개발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민선자치 이후에는 행정의 질적인면을 강조하면서 특색 있는 지역개발과 자립경제를 강조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지행정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문화관광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다가오는 21세기가 '문화와 정보의 시대'임을 내다보고 정한 지침으로 여겨진다.

제2절 1990년 이후 무주군 주요 행정시책

1. 민선 이전

1991년 무주군은 전국 최초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수상하천골재 직영사업과 읍내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하여 지방 재정력 향상과 지역개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행정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컴퓨터를 구입하여 배치했으며, 신속한 대민 봉사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전 읍·면에 업무용 차량을 배치하였다. 예방행정 강화를 위해 경운기 야광판 달아주기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경보판을 설치했으며, 수해위험지역 보완공사를 실시하여 대형사고 예방과 신뢰행정의 제고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군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이 소홀했으며, 공유재산관리대장(임목축·건축물) 및 재산평가의 일관성 있는 평가 기재가 소홀했고, 예산초과 수입재원 및 세수결함에 대한 예산조치 미흡·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결산 미흡·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이 미흡했다는 지 적을 받았다.[72)]

무주군은 1992년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활기찬 지역개발과 희망을 주는 군정'을

72)무주군의회 사무과, ≪의정백서≫제1집, 무주군의회, 1995, 133~137.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기본방향으로 '국정과 도정 의지의 차질 없는 지방적 책무 완수·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지역 개발의 추진·건전한 지방자치 정착으로 참다운 민주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국정과 도정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지방정부의 책무를 완수한다는 것인데, 전형적인 관선행정의 흔적으로 보인다.

중점업무는 '애향화합과 지역사회 안정·체감하는 봉사 행정 구현·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과 공명선거 풍토 정착·자치재정력의 확충·실속있는 군민 복지 향상·UR에 대응한 농촌 소득 증대·관광과 지역개발·향토문화의 창달과 체육 진흥' 등이었다.

1993년에는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행정규제 인허가 사항 등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동년 4월 1일부터 9월까지 부군수를 단장으로, 그 산하에 6개 분야 40명으로 구성된 '군행정쇄신기획단'을 운영하였다. 군의원·사회 지도층인사·사회단체 대표·언론인 등 11명의 자문위원을 위촉, 군민본위의 질 높은 '참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연구과제의 종합결론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그 결과 전라북도와 중앙정부에서 개선해야 될 30여 건을 발굴하여 건의하였고, 군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10여 건은 즉각 개선 시행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군·읍·면 민원실 앞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었고, 사무실 응접세트가 민원인 위주로 재배치되었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각종 행사가 대폭 축소 및 간소화되고, 각종 행사 시 현수막·유인물 제작 등의 전시행정을 지양키로 하였으며, 차후 현실성 없는 각종 조례나 잘못된 관행은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였다.[73)]

또한 민원인의 관청 방문 회수·공무원의 민원처리 자세 혁신·민원과 담당공무원의 개별 접촉 차단·민원처리 기간 대폭 단축·첨부 서류 감축을 위한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시행되었다. 시행 연도인 1993년에 429건이 접수되었고, 1994년에는 24건이 늘어난 453건으로 5.6% 증가되었다. 1995년에는 62건이 늘어난 515건으로 13.7%가 증가하였다. 시행 연도인 1993년과 비교하면 총 86건 20%가 증가한 것이다.[74)]

1994년에는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1994년의 경우 단 한 건의 열람실적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시행이 쉽지는 않았다.[75)]

---

73)무주군보, 제87호(1993. 5. 1)
74)무주관보, 제110호(1995. 4. 1)
75)무주군의회사무국, ≪의정백서≫제1집, 1995, 670쪽.

2. 지방자치 시대(민선1·2기)



민선출범 2기

김세웅 군수를 중심으로 한 무주군 민선1기가 1995년 7월 1일부터 출범하였다. '건강한 무주, 하나된 군민, 자랑스런 새 무주 창조를 위하여'를 군정지표로 정한 민선1기는 '내 고장 사랑하기 군민실천 사항'으로 10가지[76]를 정하였다. 그 후 김세웅 군수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민선2기에 당선되고, 더욱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민선3기까지 이끌게 됨으로써 무주군의 민선 초기는 김세웅 군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민선1기와 2기로 따로 나누지 않고, 김세웅 군수 재임기간인 민선1기 와 2기의 행정시책을 한데 묶어 정리하고자 한다.[77] 그런데 자치시대 행정과 시책에 대해서는 제7장 '자치행정 10년'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자 하였다.

1) 주민본위의 제도개선

(1) 행정규제개혁 전면 정비 추진

민선 이전부터 시행해 온 행정규제개혁은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억제·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 촉진·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범위는 허가·인가·승인·지정 등 군민에게서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정처분 및 감독,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등이었다. 이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한 결과, 2002년 6월 현재까지 행정규제 폐지 164건, 규제완화 27건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서 무주군은 민간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부정 부패의 추방,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

76) ① 내 고장 사랑하는 마음 갖기 ② 내 고장 담배 피우기 ③ 내 고장 물품 애용하기 ④ 내 고장 특산품 선물하기 ⑤ 내 고장 음식 대접하기 ⑥ 3절(인건비·에너지·재료비 절감)운동 생활화 하기 ⑦ 내 고장 시설 이용하기 ⑧ 바가지 요금 없는 관광지 만들기 ⑨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인식과 사고로 전환하기 ⑩ 친절한 서비스 제공하기.

77) 내용 정리는 2002년 무주군에서 발간한 ≪군민과 함께 한 민선 1·2기 주요성과≫를 참고하였다.

(2) 무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개정 시행(1998. 10. 10)

유공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제정된 조례를 더욱 다듬어 감면대상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6·25참전 군인, 6·25참전 경찰 공무원, 파월참전 군인 및 국민방위군 등으로 확대하였다. 그간 실적이 1,051건에 이르고 있는데, 유공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3) 무주군 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제정 시행(1999. 10. 5)

장애인의 자활능력배양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범위는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공공시설로 8개소 18대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활의지를 갖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4) 내수면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00. 4. 1)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 수산업법 및 어업보호령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어업행위를 한자를 적발하고 어족자원을 보호·육성 및 유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5) 주민감사청구조례 제정 시행(2000. 6. 20)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현저히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대상이 된다. 20세 이상 주민 100인 이상이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뿐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주민의 민주의식 성숙이 기대된다.

(6) 무주군 상수도급수조례개정 시행(2000. 10. 16개정)

1개월 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을 제한할 경우와 상수도 급·배수관 파손 및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될 경우에 적용된다.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한 모범업소 및 향토전통음식점, 생활보호 대상자 중 거택보호 대상자 등을 감면대상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업소의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7) 산림레포츠 동호인 육성조례 제정 시행(2000. 10. 16)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하였거나 생활체육과 관련한 연맹 또는 협회 산하지부에 가입한 단체, 자연사랑 및 산림보호를 스스로 실천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종목은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산악자전거 등이다.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레포츠의 메카화, 주민소득증대와 관광진흥,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이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8) 전자입찰제 제정 시행(2001. 10. 8)

3천만원 이상의 사업이나 물품구매 등에 적용되는데, 입찰행정의 투명성 확보·전국 지자체 파급·업체 부담경비 절감 등 경제적 파급효과 거양이라는 효과와 함께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입찰참가 수수료도 폐지하였다.(조례개정 2002. 3. 5)

(9) 야생동물보호및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정 시행(2001. 10. 24)

야생동물 및 유해수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와 유해조수(까치, 청솔모 등)을 잡았을 때 적용되며,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포획예방과 자연생태계 균형유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무주군 전지역을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2000. 10. 13)

(10) 친환경농업육성관리에관한조례 제정 시행(2001. 11. 1)

청정무주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업인과 반딧불이 서식지 주변 및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친환경적인 농업경영으로 환경오염 감소·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전개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11) 무주군 보건의료원수가조례 제정 시행(2001. 12. 24)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와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그리고 임산부의 산전·산후 분만 및 영유아의 진료비를 감면대상으로 하며, 양질의 진료서비스 및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군민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12) 아름다운건축상조례 제정 시행(2001. 12. 24 전문개정)

시상예정일 이전 3년 이내에 사용승인 된 관내 건축물과 무주군에 건립 예정인 작품을 응모대상으로 하며, 동상 이상의 수상작 설계자에게는 특전이 부여되고 시공자와 건축주에 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이 수여된다. 더불어 건축문화의 창달과 도시미관의 증진 효과를 보고 있다.

2) 경영행정 및 행정혁신사례

(1) 무료순환버스운행('95. 11.)

주차장 이전에 따른 교통대책과 주민복지, 그리고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무주시장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무료순환버스운행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읍내 전역에 걸쳐 2개 노선을 설정하고, 연중 무휴로 운행하여 군민의 손과 발이 되고 있다.

(2) '반딧불이'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95년부터)

청정무주의 상징이 된 반딧불이를 캐릭터로 개발하여 서면 또는 전자출원을 통해서 상표로 등록하였다.[78] 이를 통해서 무주의 이미지를 제고할 뿐 아니라 농특산물 등에 상표부착 을 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3)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재정진단 실시('96)

'군재정종합진단'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과 자금운영의 비효율성 을 개선하고, 정규직과 일용직의 충원을 동결시켰으며, 여유자금을 고금리 CD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 재정력 확충 및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4) 열린 행정, 공개 행정, 투명 행정 실현

전국 최초로 군청의 담장을 허물고 '무주군민의 집'으로 명명하였을 뿐 아니라('96. 7.) 무주군청 내부를 은행식의 벽 없는 청사로 정비하였다.(2000. 5. 9) 또한 행정방송을 통해

---

78)심벌 19, 로고 8 등 총 27건(업무표장 8, 상표 16, 서비스표 3)

간부회의를 일반주민에게 공개하고('97년부터), 부패체감지수 1위를 구현하기 위해 '읍참마속제'을 도입하여 추진하였다.('99. 4. 6.)

(5)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민원실 설치운영('97년)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현과 시설개선을 위해서 기존의 단순민원처리(내무과 민원처리계) 를 복합민원처리(종합민원실)로 상향 조정하고, 민원인 위주의 시설개선(은행식 민원대 설치, 사무기기OA화, 농특산물 전시, 건강상담실, 행정자료실, 민원상담실, 인터넷사랑방, 국 산차 접대, 민원인 전용주차장 시설 등)을 완료하였다. 그리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휴식공간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기존 관청의 이미지를 쇄신하였다.

(6) 부면장제도 폐지로 대표되는 행정조직 개편

업무의 양과 질을 측정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즉 부면장제도 폐지, 복지수요대비 주민복지계 신설, 유사기능 통폐합(사회과+가정복지과), 정책능력향상 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정책개발계·투자유치계) 그 결과 업무불균형을 해소 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뿐 아니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효과를 보았으며, 내무부에서 3억원의 인센티브를 교부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7)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이자수입 극대화

월별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고, 여유자금의 최소화 및 CD 등 고금리 예탁을 통해 이자수입(세외수입)을 극대화하였다. 그 결과 민선이전('95년) 대비 이자수입이 655% 증가되었다. 이자수입을 투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역개발에 적극 활용하였다.

구분	민선이전(1995)	민선2기(2001)	증감
이자수입	506백만원	3,314백만원	2,808(655%)

(8)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다면평가제 도입 추진('99년부터)

하향식의 일방적인 고과평가의 관행에서 벗어나 하급자가 상급자를, 동료가 동료를 평가 하는 다면평가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인사를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서 인사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능력 위주의 인사로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였다.

3) 자치문화 확산과 정보화사업 추진

(1) 주민자치센터 개관 운영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전제로 하는 주민자치센터 사업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논의되었다. 즉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100대시책에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1996년, 무주군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지체되었는데, 1998년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구체화되었다.

그 결과 군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1년 3월 20일 '안성면민의 집'으로 명명된 주민자치센터가 신축·개관되었다. 안성면민의 집은 주민자치회관·목욕탕·보건지소·정보의 바 다·전통솜씨방·한글교실 등 주민자치를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자치단체의 견학장으로 각광 받고 있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각 읍·면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설과 함께 자치·문화·예술·체육·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주민자치센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각 읍·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2) 다양한 주민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성숙한 자치의식 함양을 위해 일반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정규 교과 과정인 최고관리자반을 개설·운영하였다.('99. 9. 10~2000. 2. 18, 16주 32강좌) 또한 노인, 농민, 주부 등을 대상으로 계층별·기능별·세대별로 나누어 자치의식 함양과 함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더불어 수준 높은 자치의식 함양을 위해 주민정보화 교육장을 개설·운영하였다.

(3) 토론문화 정착

건전한 비판과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계층간 간담회와 주민공청회 뿐 아니라

사업설명회까지 민관(民官)이 동등한 입장에서 개최하였다. 그 결과 군정에 대한 단소리 뿐 아니라 쓴소리까지도 과감히 수렴하였고, 발전적 대안에 대해서는 여과없이 군정에 반영 하는 토론문화를 정착시켰다.

(4) 다채널 주민여론 창구 개설

주민의 여론을 굴절없이 수렴하기 위해 창구를 다원화하고 생생한 군민의 소리를 수렴하였다.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관공서의 문턱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평가를 듣게 되었다.

이를 제도적으로 완비하기 위해 군수실을 상시적으로 개방했으며, 반딧불 신문고를 설치 하여(홈페이지, 반딧불소식지) 주민의 불편사항 등 주민건의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였다.

(5) 의식 개혁운동의 확산

이사와 살고싶고 다시 찾고 싶은 무주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불결·불친절·불법과 불법주정차·불법노상적치물·차량의 인도 점유로 유발되는 보행자의 보행불리·보행불안·보행불만 등 '보행3불 추방운동' 을 군민운동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자치기반 확보와 선진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친절·질 서·청결·선행 등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펼쳐 시민의식을 고양하였다.

(6) 정보화 기반확충 및 정보화 격차 해소

가. 행정정보화 사업추진

구 분	민선1기(1995)	민선2기(2002)	비 고
공무원 PC보급	38%	100%	
전 자 우 편 (E-mai l보급)	사기업 E-mail 및 ID사용	자체서버 등 시스템 구축 E-mail ID 1,500명 부여	
정 보 통 신 망	예산과 회계부서만 LAN구축	1공무원 1LAN 구축 지식정보화 선도	

나.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마인드 확산

구 분	민선1기(1995)	민선2기(2002)	비 고
홈페이지 구축	접속속도 : 512kbps 1일 접속 : 50명	접속속도 : 2,048kbps 1일 접속 : 800명	
정 보 화 교 육	교육과목 : 문서편집 교육인원 : 100명(공무원)	교육과목 : 인터넷, 페이지 구축, 정보화교육 교육인원 - 공무원 : 400명 - 일반주민 : 1,000명	

다. 정보화를 통한 군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

구 분	민선1기(1995)	민선2기(2002)	비 고
인터넷 민원처리		접수·진행·처리 시스템 구축 추진	
지방행정정보은행 (ＬＡＩＢ) 운 영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민원처리절차 단축)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전자결재율 62%)	

4) 기초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 실현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혜 확대

군민의 기초생활 보장정책을 단순한 생계지원에서 벗어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먼저 1,406가구에 이르는 생계급여 및 자활지원 대상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였다.[79] 그리고 사회단체의 자립과 자활능력의 배양을 위한 각종 복지기금을 조성하였다.

79)민선 1기('95) 2,389백만원 => 민선2기('98~2002) 14,381백만원.

(2) 순국선열 추모사업

구한말 의병의 장엄한 순국지인 칠연의총 및 애국지사 묘역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였다.

(3) 장애인에게 안정감을 부여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및 기금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자립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99. 5. 14)하고, 기금을 조성하였다. 또한 장애인 단체의 자활능력배양과 자립심 고취를 위한 자판기 구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재활보조기구·의료비·간병비 등 장애인 지원경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4) 노후생활 기반 마련

노인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에 대한 지원 확대와 '노인복지카드제'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한 사회활동을 영위하도록 '노인 일감 드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인위안잔치'를 정례화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납골당 신축 및 공설묘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5) 여성의 권익 증대와 사회참여 확대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제고 시켰다.(15% → 30%)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의 확대를 위해 여성자치대학·여성전문기술반·취미교실·반딧불주부합창단·자원봉사활동 등을 운영하였고,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의 폭 넓은 활동과 권위신장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여성회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6) 청소년 육성지원사업 확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야영장'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참여와 교류를 통한 건전한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 홈스테이 교류·어울마당 운영·역사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경찰과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5) 완벽한 보건행정 추진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1) 보건의료원 개원(2002. 5. 8)

의료 사각지대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舊)국제병원 건물을 매입, 종합병원급(내과·외과·정형외과·소아과·산부인과·치과·한방과 등 7개과)으로 리모델링하고 최상의 의료기관으로 탄생시켜 2002년 4월 10일부터 진료업무를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보건소의 보건행정을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있다.(종합병원+보건소 = 헬스케어)

(2)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

구(舊)보건소 내에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을 개설하여 운영했으며,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통합적 방문간호사업을 전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의치지원사업 실시와 함께 완벽한 방역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6) 무주의 가치를 인정 받은 문화예술 창달

(1) 무주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반딧불 축제

1997년부터 시작한 반딧불 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위상과 질이 격상되어 지역축제에서 국가축제로 나아가 세계화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에는 국가지정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으며, 무주하면 '반딧불'이라는 마케팅 전략으로 포지셔닝(positioning)에 성공하였다.

한편 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양측면 모두에 부가가치를 제공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문화도시의 위상을 제고 시켰으며, 축제 관람객의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가져왔다. 나아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문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2) 무주문화의 우수성 입증

국보이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적상산사고를 널리 알리고 문화관광과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적상산사고 실록 봉안식 고증보고서

및 재현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적상산사고와 조선왕조실록≫를 발간하여 향토지적재산권으로 확보하였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제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부남 방앗거리놀이' 축제를 계승발전 할 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지역문화운동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3) 문화기반 시설확충



무주예체문화관

빈약한 독서문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외공연장을 비롯한 '열린문화 마당'을 조성하였다. 또한 소공연과 전통산업전수 및 전시를 위해 군민회관 2층을 리모델링하여 '전통문화의 집'으로 조성했으며, 수영장·실내체육관·공연장·예식장·도서관등을 갖춘 다목적용 '예체문화관'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도예작업장·교육실·전시실 등을 갖춘 예술창작스튜디오가 조성될 예정이며, 2003년 완공을 예정으로 '곤충박물관'이 건립될 계획이다.

7) '97동계U대회 성공적 개최 및 사업유치 활동

1997년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11일간 48개국이 참가한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302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보았으며, 나아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모든 군민이 합심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전국 24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하는 '국립태권도공원' 유치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무주군은 전북지역의 단일 후보지로 선정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통태권도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 생태문화도시 기반 마련과 지역의 균형개발

(1)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금강 상류지역인 남대천의 환경오염원 제거 및 인위적 재난 등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1단계로 둔치정비, 어도시설, 우·오수관로 및 분리시설 등을 정비했으며, 2단계로 총 6.5㎞에 이르는 제방정비와 천변도로 확 포장을 하였다. 남대천 제방공사는 2002년 8월에

있은 유사이래 가장 큰 수해를 이겨냈다.

이와 함께 자연 친화형 하천정비사업으로 무풍 미령천과 안성 구량천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수해 상습지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와 도시계획 재정비

테마가 있는 생태문화도시의 발전모델로 평가받는 무주읍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자연 친화형 소재인 돌과 점토벽돌 등을 활용했으며, 보행자 위주의 설계 시공으로 인간중심 의 도시 가로망을 확충하고, 가로수 식재 및 지중화 사업도 자연과 조화로운 시가지로 정비하였다.

또한 주민의 경제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덜어주는 생산적인 도시계획으로 재정비하여 경실련 도시계획센터에서 주관한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3) 지역의 균형개발 도모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각 읍·면의 균형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각 읍·면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량을 가설할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과 컨셉을 가미하여 관광 명소화(내도교, 후도교, 상굴교 등) 하도록 하였다.

특히 각 읍·면의 지역특색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예체문화관 건립, 머루단지, 사과단지, 감나무단지, 생태공원조성사업 등이 추진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4) 생태마을 조성 사업

생태적으로 건강한 무주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아름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5)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무주

환경기초시설 및 오염방지시설 확충 등 완벽운영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성하고 있다.[80] 이와 함께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건설하고, 비위생 매립지 정비 및 관리를 철저히

80) 무주하수종말처리장은 완공되었고 무풍·설천·안성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다.

하며 공공재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적상면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19㎞에 달하는 송수관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간이 상·하수도 시설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설천면 청량리 일대에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1)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운동' 전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 마을과 가정의 특산품을 발굴, 특화전략을 통해 다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모두 41개 품목 중 72종을 발굴하고 판매유통망 확보 및 집산화를 통해 안정성 있는 전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전통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각 마을별 전통기능 보유자를 조사하여 지원 및 육성하였고, 이를 다시 노인들의 소일거리로 제공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6회 반딧불 축제 때 '제1회 무주전통공예 한국대전'을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쳤다.

(2)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역기능과 순기능 분석

무주군은 2002년에 개통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무주 관통에 대비, 1997년부터 이에 따른 기능을 분석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무주군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집객기반 인프라 시설 확충을 포함시켜 '테마관광지개발'(생태·문화·역사·관광·스포츠·안보관광지 등), '남대천 정비사업·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반딧불 장터 조성·예체문화관 건립' 등 생태문화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집객을 유도할 장치를 마련하였다. 반딧불 장터는 재래식 시장을 현대화하면서 전통적 요소를 살린 시장으로 탈바꿈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단체 주도의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서비스개선, 가격인하, 좋은 품질 등 상가의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무주경제살리기 100일 작전 등 단기적 처방과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등 장기적 대책마련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3) 고부가가치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 유치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연수원을 유치하고 경쟁력 있는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 성과로 정보통신부 연수원을 유치하여 기반시설을 닦는데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게 되었으며, 무풍면에 준비 중인 사과단지 조성이 머지 않아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해없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비용·고효율의 유통구조개선으로 가공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 간이 집하장 건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에 공모하여 산머루 공장이 당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10) 고부가가치 환경농업 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

(1) '농업개발계획' 수립, 무주농업의 비젼과 발전방향 제시

군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수립하여 무주농업의 비젼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2000. 6. 20) 즉 무주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무주농업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중국의 WTO가입에 대비하여 경지정리 사업,[81] 농업기계화경작로 확 포장 사업[82],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사업,[83] 농촌 편익시설 및 소득증대 사업 등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 농촌생활용수 및 암반관정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3) 환경농업의 성과 가시화

경쟁력과 농가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실시한 농업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 성과 중의 하나가 2001년 친환경 농업분야 품질인증과 안전 농산물 생산분야 1위를 차지

---

81) 민선이전('95이전) : 550ha(16.3%), 민선1기('95~'97) : 1,008ha(29.8%), 민선2기('98~2002) : 1,822ha (53.9%). 2010년까지 3,380ha 100% 경지정리사업 추진완료 계획.

82) 민선1기('95~'97) : 2개 지구 8.3km, 민선2기('98~2002) : 23개 지구 43km.

83) 민선1기 농로포장 : 61건·수리시설 : 44건. 민선2기 농로포장 : 249건·수리시설 : 130건

한 것이다.

무주군은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타 내 농업지도과에 환경농업팀을 신설하였고('99. 1. 8),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2001. 11. 1), 환경농업지구 지정운영 및 환경농업 실천농가를 확대하였다. 또한 환경농업 실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목재파쇄기 및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였고,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유통판매망 확충에 주력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농업의 근간인 유기질비료 생산공급시설을 확충하였다.

(4)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업의 과학화·정보화 실현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1마을 1PC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2000년에 완료했으며, 인터넷 운용 등을 위해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경쟁품목, 가격동향, 유통정보 등을 수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목적홀·농민사랑방·정보화실 등 시설 농업인의 정보 교환 등 농업인 복지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목적 농업인 회관을 건립 중에 있다.

(5) 경쟁 및 특화작목의 집중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이를 위해 집산화 등 경쟁품목의 집단화[84]을 유도하고 '산촌종합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85]

(6) 농특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확충사업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하여 농특산물 직판 및 전시행사를 추진하고, 생산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규격출하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통상품 용기 및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또한 산지유통 및 가공산업을 위해 농산물가공공장, 간이집하장, 산머루와인공장, 덕유산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집필 : 이기언]

---

84)과수단지(312ha), 사과단지(13ha), 산머루단지(16ha), 옥수수단지(413ha), 감자종서단지(13ha)
85)적상면 이동 산촌전통발효식품가공단지(2.5ha), 적상면 서창 산머루단지조성(1ha)

제6장 행정기관

1. 전라북도경찰청 무주경찰서

근대적 의미의 우리나라 경찰제도는 1895년 종전의 포도청(捕盜廳)을 경찰서로 개칭하고 경찰사무를 총괄하면서 비롯되었다. 그 후 1906년부터 각 지방에 경찰업무를 위한 경무서(警務署)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바로 근대경찰의 시초로 1907년부터 경찰서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일제의 조선 침략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국민을 위한 근대적 경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보지도 못한 채 1910년 6월 경찰권은 일제에 넘어갔다.

무주군의 경찰업무는 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 순검(巡檢) 3인이 배치되고, 장청(將廳)에 헌병분견소가 설치되면서 업무가 시작되었는데, 초대 권임(權任)으로 김동주(金東柱)가 임명되었다. 그 후 일본인의 고문정치가 시작되면서 초대 고문으로 성전영삼(成田令三)이 부임해 왔으며, 헌병분견소는 내동헌으로 옮겨졌다.

이 시기 경찰 업무는 1910년을 전후해서는 의병을 토벌하고 진압하는데 집중되었고, 이후에는 식민통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던 1919년 8월 20일, 지방관제의 개편과 함께 헌병경찰이 주재하던 헌병분견소가 폐지되고 무주경찰서로 개칭되었다. 사무실도 객사(客舍)인 적성관(赤城舘)으로 옮겨졌는데, 초대 경찰서장으로 일본인 천판우아문(千坂右衙門)이 부임하였다. 이어 각 면에 주재소가 설치되고 식민통치를 위한 경찰업무가 수행되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경찰은 사회 질서의 유지와 안정을 위한 봉사행정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식민통치를 위해서 존재하였다. 그러기에 1930년대 초반 일본인 경찰서장 하촌청송(下村淸松)은 무주군의 유서 깊은 문화재인 적성관[86]을 사전 정지작업 하나 없이 아무런 미련 없이 헐어 버렸고, 그 자리에 경찰청사를 신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87]

---

86) 적성관은 객사(客舍)로 수 백년 동안 조선왕조의 전폐(殿牌)가 봉안된 곳이다.

87) 이 때 건축된 청사는 1971년 헐리고 새 청사가 지어졌으며, 2001년 무주읍 당산리에 새 청사를 짓고 이전하였다. 본래 객사인 적성관은 2001년 말 현재 무주군민을 위한 무료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방되고 1달이 더 지난 9월 18일이 되어서야 일제로부터 경찰서를 인수받는 등 무주의 경찰업무는 더디게 진행되었는데, 명칭도 보안서(保安署)로 바뀌게 되었다. 초창기 무주보안서는 경무·보안·수사·경비·통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동년 12월에는 조선경찰이 국립경찰로 개편됨에 따라 무주의 경찰 역시 변화를 겪게 된다. 즉, 이듬해인 1946 년 4월 11일 6관구 경찰청 제4지구 경찰서로 개칭되었다가 1948년 8월 15일 다시 무주경찰서로 개칭된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는 무질서와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특히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좌·우익의 대치 상황은 결국 전쟁으로 치닫는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다. 이 시기 경찰본연의 업무는 치안의 안정이었는데, 특이한 것은 식민지 당시 보았던 위생관계 업무를 잠시 보았다는 것이다.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해 위생 관련 업무는 보건부 후생국으로 이관되었는데, 한국전쟁을 계기로 다시 경찰에 맡겨졌다가 1953년 12월 14일 이후 내무부로 이관된 것이다.

한국전쟁 중인 1950년 7월 20일 무주가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갔는데, 후퇴한 경찰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한 인민군은 '내무서'로 명칭을 바꾸고 무주지역 치안유지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전선이 역전되면서 동년 11월 10일 무주를 수복하게 되었다. 그 전후 시기 보안과 경비업무가 한 때 흔들리기도 하였으나, 휴전을 전후하여 업무가 급증 되어 치안행정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비극을 무주 경찰 역시 비켜갈 수 없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경찰은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시대적인 어려움 즉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 5·16을 통해 집권한 군사정권의 독재와 장기집권으로 인해 파생된 사회의 민주화 요구와의 틈새에서 힘든 걸음을 해야만 했다. 거기에다 날로 지능화되고 포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업무는 급증된 반면, 처우 개선은 뒤따르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경찰은 민주국가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허다한 국가의 역경과 고난을 같이 하면서 민중의 지팡이로 임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다.

1957년 당시 무주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무주경찰서 기구는 경무계·사찰계·보안계·경리계로 나뉘어 있었으며, 1960년 6월 30일 현재 정원수는 경감 1, 경위 9, 경사 21, 순경 65, 노무원 4명 등 모두 100명이었다. 그 후 28년이 지난 1988년 말 현재 정원은 총경1, 경감 4, 경위 2, 경사 16, 경장 23, 순경 47, 의경 11, 전경 15, 경비원 19명 등 모두 114명으로

41명이 증원되었다.

2000년 말 현재는 경정 1, 경감 1, 경위 7, 경사 28, 경장 30, 순경 45, 의경 12, 전경 21, 기능직 4, 고용직 4명으로 112명이다. 본서는 무주읍에 있으며, 무주읍의 주계파출소 1곳과 무풍·설천·구천·적상·괴목·안성·부남 등 7곳의 지서, 그리고 가옥검문소가 있다.

무주경찰서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15일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773번지에 신청사를 짓기 위한 공사에 착공, 2001년 9월 22일 신청사로 이전하였다. 70여 년간 한 곳에 머물면서 무주군의 치안을 담당했던 유서깊은 땅을 떠나 새로운 곳에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민원실·사격장 등 첨단 시스템과 배구장·테니스장 등 여가 및 신체단련을 위한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신청사 준비와 함께 본래의 경찰 임무인 치안에 우선하면서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1년 1월 18일 전국 최초로 전직원의 관광도우미화 시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청정 자원을 활용한 '자연의 나라 무주'를 전국민과 세계인에게 알리는 데 경찰 역시 앞장서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시작한 사업이었다. 특히 2001년도 스키 시즌에는 무주경찰서 스키패트롤을 발족하여 200여 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 언론과 매스컴(SBS-TV 등 6개 언론사 보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동년 6월 4일에는 전국 최초로 '포돌이 봉사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불우한 이웃 돌보기와 독거노인 보호활동 전개·112순찰차 제공·농촌일손돕기 등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활동을 전개하는, 자칫 소홀하기 쉬운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순수 자원 봉사대이다. 또한 무주경찰서는 지속적으로 3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공 좌익사범 척결,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사건청탁 안하고 안받기 운동,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사고 줄이기 등에 역점을 두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02년 7월 현재 무주경찰서는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청문감사실과 경무과, 방범수사과, 정보·보안과 등 1실 3개 과가 있으며, 파출소 6(주계·안성·구천·무풍·적상·부남), 초소 1(설천), 분소 1(괴목), 검문소 1(가옥) 등의 기구가 있다. 그리고 군민과 경찰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무주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는 경찰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 그리고 군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경찰행정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군민과 경찰서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역대 무주경찰서장

순서	성 명(한자)	재 임 기 간	비 고
1	김희문(金喜文)	1945. 12. 2 ~ 1946. 3. 16	
2	손예환(孫禮煥)	1946. 3. 16 ~ 1946. 6. 17	
3	이영화(李榮華)	1946. 6. 17 ~ 1947. 8. 20	
4	신도종(申道宗)	1947. 8. 20 ~ 1948. 3. 11	
5	김형기(金炯麒)	1948. 3. 11 ~ 1949. 4. 20	
6	송석조(宋錫祚)	1949. 4. 20 ~ 1949. 8. 9	
7	한용명(韓用明)	1949. 8. 9 ~ 1950. 1. 10	
8	허재창(許在昶)	1950. 1. 10 ~ 1950. 11. 25	
9	김두운(金斗云)	1950. 11. 25 ~ 1952. 5. 4	
10	박태서(朴泰緖)	1952. 5. 4 ~ 1952. 9. 10	
11	차일혁(車一赫)	1952. 9. 10 ~ 1953. 3. 16	
12	전배룡(全培龍)	1953. 3. 16 ~ 1953. 9. 18	
13	고준환(高俊桓)	1953. 9. 18 ~ 1954. 5. 10	
14	성봉규(成奉圭)	1954. 5. 10 ~ 1955. 9. 9	
15	윤병하(尹柄夏)	1955. 9. 9 ~ 1956. 7. 8	
16	김현모(金現模)	1956. 7. 8 ~ 1956. 12. 10	
17	최순희(崔順熙)	1956. 12. 10 ~ 1957. 3. 25	
18	최송기(崔松基)	1957. 3. 25 ~ 1959. 8. 19	
19	김재연(金在淵)	1959. 8. 19 ~ 1960. 7. 10	
20	박태서(朴泰緖)	1960. 7. 10 ~ 1960. 12. 15	
21	이건평(李建平)	1960. 12. 15 ~ 1961. 6. 21	
22	조기형(趙箕衡)	1961. 6. 21 ~ 1961. 7. 17	
23	현금룡(玄錦龍)	1961. 7. 17 ~ 1962. 1. 13	
24	정덕주(丁德柱)	1962. 1. 13 ~ 1964. 4. 25	
25	전옥현(全玉鉉)	1964. 4. 25 ~ 1966. 6. 10	
26	김종천(金鍾千)	1966. 6. 10 ~ 1967. 9. 22	
27	김봉관(金奉官)	1967. 9. 22 ~ 1969. 8. 12	
28	김종성(金鍾聲)	1969. 8. 12 ~ 1971. 8. 18	

순서	성 명(한자)	재 임 기 간	비 고
29	서문현(西問現)	1971. 8. 18 ~ 1973. 6. 27	
30	문일수(文日洙)	1973. 6. 27 ~ 1973. 1. 21	
31	백찬기(白讚基)	1973. 1. 21 ~ 1974. 2. 28	
32	정순식(鄭淳植)	1974. 2. 28 ~ 1974. 12. 28	
33	신주현(申周鉉)	1974. 12. 28 ~ 1976. 4. 10	
34	최기성(崔起星)	1976. 4. 10 ~ 1977. 3. 7	
35	김동한(金東漢)	1977. 3. 9 ~ 1979. 2. 20	
36	박천금(朴千金)	1979. 2. 20 ~ 1980. 7. 16	
37	임사규(林士圭)	1980. 7. 22 ~ 1980. 11. 13	
38	양재권(梁在權)	1980. 11. 13 ~ 1981. 11. 26	
39	한만석(韓萬錫)	1981. 11. 26 ~ 1983. 12. 12	
40	유두현(柳斗鉉)	1983. 12. 12 ~ 1984. 8. 31	
41	임사규(林士圭)	1984. 8. 31 ~ 1985. 3. 4	
42	양덕환(梁德煥)	1985. 3. 4 ~ 1986. 7. 28	
43	전상환(全相煥)	1986. 7. 28 ~ 1988. 6. 3	
44	조길석(曺吉石)	1988. 6. 3 ~ 1989. 3. 1	
45	박종옥(朴鍾沃)	1989. 3. 1 ~ 1989. 9. 5	
46	김삼남(金三南)	1985. 9. 6 ~ 1991. 1. 3	
47	김경곤(金炅坤)	1991. 1. 3 ~ 1992. 7. 28	
48	이상규(李尙奎)	1992. 7. 28 ~ 1993. 3. 25	남원서장(후)
49	노승구(盧丞九)	1993. 3. 26 ~ 1994. 6. 2	지방청방범(후)
50	배성수(裵星洙)	1994. 6. 3 ~ 1995. 3. 5	고창서장(후)
51	양낙운(梁洛雲)	1995. 3. 6 ~ 1995. 12. 20	충남흥성(후)
52	김용무(金容茂)	1995. 12. 21 ~ 1997. 7. 3	대전동부(후)
53	김삼남(金三南)	1994. 7. 4 ~ 1998. 7. 1	전북경무(후)
54	오형재(吳炯采)	1998. 7. 1 ~ 2000. 1. 14	익산서(전)-익산서장(후)
55	강태근(康泰根)	2000. 1. 14 ~ 2001. 1. 11	전북청보안계-전북청보안2계
56	임봉택(林奉澤)	2001. 1. 11 ~ 2002. 1. 14	전주중부서-전주중부서(후)
57	이전길(李田吉)	2002. 1. 14 ~ 현재	전주중부서-

■ 통계로 본 무주경찰서

무주경찰서 공무원 현황

(단위 : 명) - 2000. 12. 말

구 분	총 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의경	전경	기능직	고용직
	정원	현원											
1995	159	110	1	-	5	3	22	25	55	10	18	4	15
1996	159	107	1	-	5	4	21	24	51	9	19	4	13
1997	158	108	1	-	5	2	16	27	57	9	19	4	12
1998	111	104	1	-	5	4	17	37	40	9	20	4	12
1999	114	110	1	-	4	5	20	30	50	9	20	4	12
2000	101	112	-	1	1	7	28	30	45	12	21	4	9
본서	52	58		1	1	5	16	17	18	7	21	4	8
주계	10	10				1	1	3	5	1			
무풍	6	7					1	2	4	1			
설천	1	5					1	1	3	-			
구천	12	10					2	3	5	1			
적상	7	7					1	2	4	1			
괴목	1	1					1	-	-	-			
안성	7	7					2	1	3	1			
부남	5	7					3	1	3	-			
검문소	-	-					-	-	-	-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강 력 범		절 도 범		폭 력 범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1995	605	598	4	4	26	12	96	100
1996	650	597	8	6	28	16	111	105
1997	658	671	5	5	45	24	62	71
1998	916	928	6	6	33	32	70	70
1999	777	883	4	5	20	21	85	94
2000	719	748	5	6	38	18	78	81
2001	638	632	3	2	31	8	81	87

연도별	지능범		풍속범		기타형사범		특별법범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1995	57	37	5	5	17	21	400	419
1996	62	48	10	10	26	23	405	389
1997	64	69	6	7	13	17	463	478
1998	59	62	9	6	17	20	722	732
1999	61	79	-	-	16	19	591	665
2000	40	51	1	2	17	24	540	566
2001	29	53	10	13	22	21	462	448

연령별 피의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14세 미만			14~19세			20~29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95	720	705	15	-	-	-	75	75	-	224	220	4
1996	759	663	96	1	1	-	70	58	12	213	197	16
1997	812	731	81	-	-	-	90	79	11	221	207	14
1998	1,077	962	115	-	-	-	64	51	13	307	271	36
1999	1,058	953	105	8	8	-	45	33	12	315	280	35
2000	912	803	109	-	-	-	27	22	5	234	208	26
2001	810	736	74	-	-	-	12	11	1	172	160	12

구분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95	224	222	2	106	101	5	62	59	3	29	28	1
1996	243	212	31	133	118	15	82	62	20	17	15	2
1997	274	238	36	133	121	12	62	56	6	32	30	2
1998	374	347	27	245	216	29	67	59	8	20	18	2
1999	371	339	32	213	201	12	91	79	12	15	13	2
2000	343	309	34	19	165	25	64	52	12	54	47	7
2001	281	258	23	195	174	21	93	85	8	57	48	9

학력별 피의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불취학	기타
		졸업	중퇴	재학	졸업	중퇴	재학	졸업	중퇴	재학	졸업	중퇴	재학		
1995	720	58	10	12	244	24	38	98	22	10	117	12	-	29	46
1996	759	63	7	13	272	33	30	102	24	5	131	20	-	40	19
1997	812	73	9	13	351	35	48	106	14	13	95	14	-	21	20
1998	1,076	139	14	22	419	61	25	139	30	6	157	36	-	23	5
1999	1,058	149	12	23	361	52	24	149	40	14	165	27	1	28	14
2000	912	132	16	30	351	39	12	113	21	3	107	25	-	40	23
2001	810	114	16	19	296	35	4	129	28	0	129	28	1	23	12

교통사고 발생(자동차)

(단위 : 건, 명)

구 분	계			충 돌			전 복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1995	233	30	264	18	26	223	4	-	7
1996	246	21	268	218	14	228	2	4	3
1997	225	25	260	185	12	197	9	3	17
1998	175	25	228	144	15	182	-	-	-
1999	214	16	236	210	16	232	-	-	-
2000	222	18	232	212	17	223	1	-	1
2001	206	9	236	204	8	231	-	-	-

구 분	추 락			전 도			기 타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1995				-	-	-	31	4	34
1996				10	3	13	16	-	24
1997				11	2	18	20		28
1998	1		1	2	-	3	-	-	-
1999	2			2	-	4	-	-	-
2000				3	-	3	6	1	5
2001	1		4	1	1	1	-	-	-

자동차 단속 및 처리사항

(단위 : 건)

구분	건수	위반사항												
		속도	추월	회전	음주	무면허	차선	신호	정원초과	주정차	불법영업	적재	장비불량	기타
1995	4,457	1,634	245	6	67	24	1	16	10	175	-	48	-	2,231
1996	4,736	874	103	9	66	30	8	7	1	209	-	25	-	3,404
1997	9,596	2,290	62	8	105	89	13	18	4	451	-	28	-	6,528
1998	10,546	2,917	64	1	218	317	-	3	-	313	-	5	-	3,721
1999	5,182	1,607	109	1	122	240	27	5	-	68	-	1	-	3,002
2000	3,445	1,238	270	4	141	130	34	2	-	53	-	52	-	1,521
2001	8,243	4,940	56	3	124	3	2	13	23	307	-	19	-	2,753

구분	차종별					용도별				처리상황				
	버스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기타	관용	자가용	영업용	기타	입건	즉심	훈방	통고처분	기타
1995	309	2,35	1,193	12	590	4	3,599	287	567	91	1	-	4,365	-
1996	23	3,094	898	6	715	-	4,313	104	319	-	-	-	4,736	-
1997	605	6,451	1,908	1	631	-	6,451	477	2,668	194	524	-	8,878	-
1998	514	4,560	1,716	2	767	-	7,215	344	-	535	739	-	6,285	-
1999	-	3,714	874	7	865	-	5,254	206	-	362	334	-	3,395	1,369
2000	-	1,755	966	2	722	25	3,420	365	3,080	271	-	-	3,174	-
2001	-	84	68	123	22	-	158	19	120	-	671	-	4,441	-

참고자료 : 무주군지, 무주군 통계연보, 무주경찰서 홈페이지, 무주군 제공.

2. 전주소방서 무주파출소

1) 소방행정에 대한 개요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에 필요한 소방전반에 관한 종합행정.

2) 무주소방파출소 및 출장소 연혁

○ 1995. 1. 10 : 무주파출소 개소(1파출소- 6출장소 : 구천, 무풍, 부남, 적상, 안성, 설천)

○ 1997. 3. 28 : 설천파출소 개소 및 무풍·구천출장소 폐소(2파출소 - 4출장소)

○ 1998. 10.24 : 설천파출소 폐소 및 구천출장소 개소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감축, 1파출소 - 5출장소)

○ 1998. 10.26 : 설천출장소 폐소(1파출소 - 4출장소)

○ 2000. 3. 31 : 적상출장소 폐소(1파출소 - 3출장소)

○ 2000. 6. 22 : 부남출장소 폐소(1파출소 - 2출장소)

○ 2000. 12. 5 : 설천출장소 개소(1파출소 - 3출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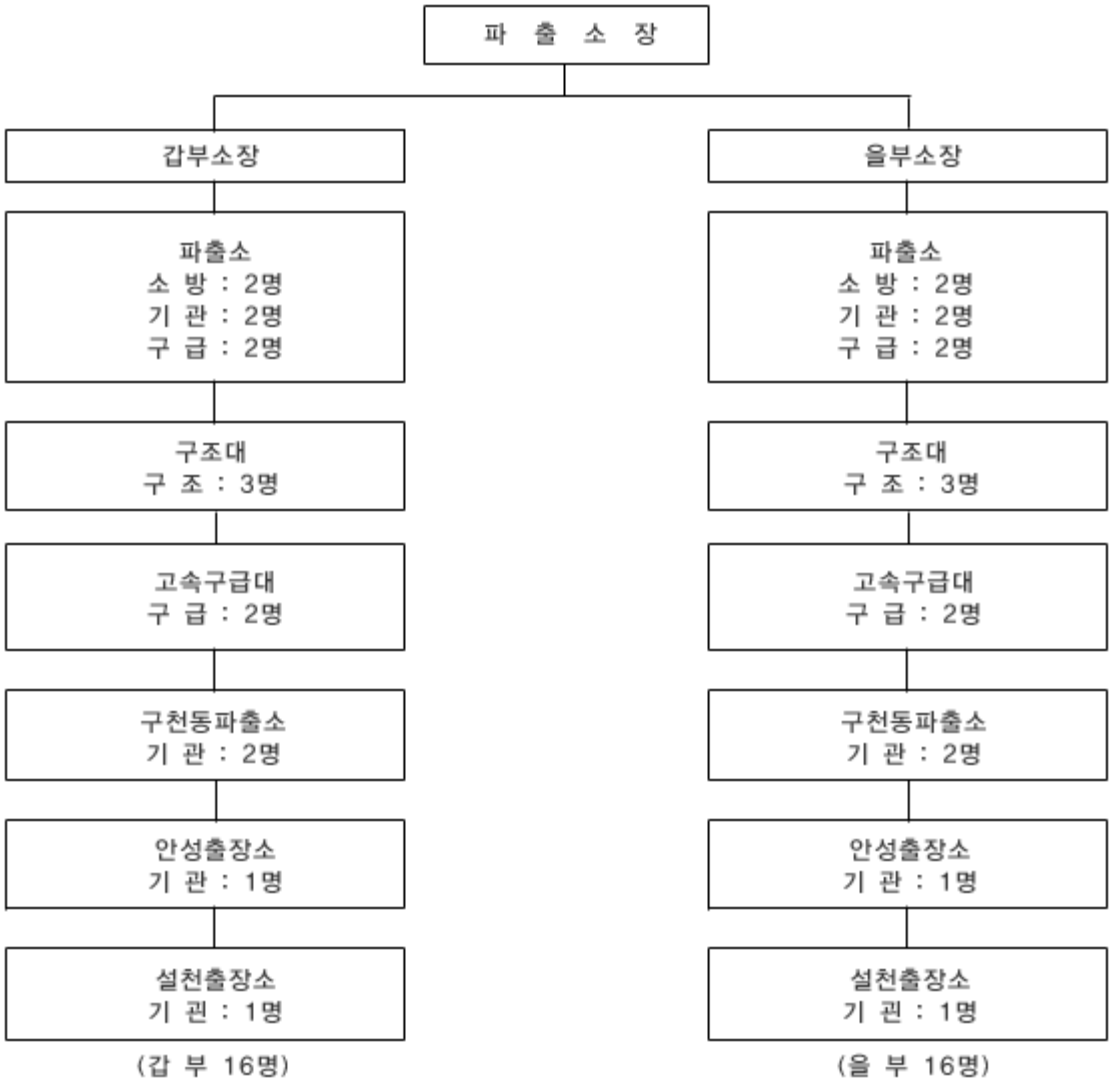
○ 2002. 7. 25 : 구조대 및 고속도로 구급대 개소 (1파출소 - 1구조대 - 1고속구급대 - 3출장소)

3) 인력 현황 및 기구표

(1) 인력현황

총원	지방소방위(파출소장)	지방소방장(부소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33	1명	2명	18명	12명

(2) 기구표



4) 주요활동

(1) 화재예방활동

소방대상물 470개소(대형화재취약대상 3, 방화관리대상 78, 기타대상 389), 위험물 제조소 등 77개소, 다중이용시설 96개소 등 정기소방검사 및 특별소방 검사로 예방활동 실시

(2) 기구표

각종 화재 시 파출소 및 인근 출장소에서 신속히 출동 화재진압 활동 실시(펌프차 5대)

(3) 구조·구급활동

각종 사건 사고 시 구조 및 구급장비이용 구조·구급활동 실시(구조차 1, 산악구조차 1대, 구급차 3대, 각종구조·구급장비 보유)

(4) 대민활동

사랑의 119봉사대 매월 1회 운영
생활용수 등 급수지원 및 침수 등 배수지원

(5) 훈련·홍보활동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기타 훈련대상 합동훈련, 민방위의 날 등 민·관·군 합동훈련 등 덕유산 등반객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파출소 특수시책, 매월 1회 실시)
인터넷, 각종신문·정보지 등 언론매체에 소방활동, 소방상식, 안전사고수칙 등 홍보

(6) 기타

독거노인 등을 위한 무선 페이징 설치(280개소)

5) 각 읍·면 의용소방대 현황

읍·면별	대 명	대원수	비고	읍·면별	대 명	대원수	비고
무주읍	무주읍의용소방대	50		설천면	설천면의용소방대	30	
	무주읍부녀소방대	30			구천의용소방대	20	
무풍면	무풍면의용소방대	30		안성면	안성면의용소방대	50	
적상면	적상면의용소방대	30			안성면부녀소방대	20	
부남면	부남면의용소방대	30		총계		290	

6) 화재 통계

(1) 원인별

연도별	계	전기	유류	가스	난로	아궁이	담뱃불	불티	불장난	방화	기타	피해액(천원)
1993	9	3	2								4	7,112
1994	7	2							1		4	34,230
1995	19	8	1	1	2	1				1	5	14,050
1996	35	14			1		5	6			9	20,849
1997	50	25		3			4		2	2	14	79,332
1998	12	6						1	1	1	3	71,499
1999	25	8		2		1		1	2	1	10	90,593
2000	24	9					3	3	1	2	6	79,230
2001	18	8		2		1	2	2	1		2	36,325

(2) 장소별

연도별	계	주택	사업장	점포	학교	공장	창고	병원	시장	아파트	호텔여관	음식점	기타	부동산의례(천원)	동산피해(천원)	피해면적(㎡)
1993	9	6	2										1	3,481	3,631	539.9
1994	7	3	1							1			2	4,100	30,130	611.0
1995	19	8	3	4		1							3	9,555	4,495	880.0
1996	35	15	2	1		1	1	1				1	13	11,521	9,328	490.1
1997	50	19	1	2			6					1	21	53,776	25,556	1,138.5
1998	12	3					2			1			6	29,789	41,710	511.5
1999	25	7		2			2			1	1		12	40,771	49,822	676.0
2000	24	11		2			2				1		8	49,749	29,481	491.0
2001	18	10			1					1			6	24,522	11,803	255.8

(3) 구급발생통계

연도별	신고건수	이송건수	이송인원	질환별 이송내역								
				만성질환	급성질환	임산부	사고부상	가스중독	약물중독	화상환자	교통사고	기타
1999	191	579	644	75	123	5	158		16	9	203	55
2000	911	653	783	158	168	4	179		10	4	235	25
2001	1071	800	901	80	346	4	171	1	11	9	247	32

7) 구조발생 통계

(1) 사고종별 구조건수

연도	계	화재	교통	수난	기계	단순문개방	기타
2001	9	1	4	1	1	2	

(2) 사고종별 구조인원

연도	계	화재	교통	수난	기계	단순문개방	기타
2001	18	2	9	2	2	3	

(3) 사고장소별 구조건수

연도	계	단독주택	작업장·공사장	도로·교통	하천·바다	기타
2001	9	3	1	4	1	

8) 소방장비 및 용수시설

(1) 소방장비

· 차량 10대(펌프차 : 5대, 구조차 : 1대, 구급차 : 3대, 산악구조차 : 1대)
· 동력펌프 5대
· 무선장비 : 기지국 1, 중계국 1, 차량용 9, 휴대용 11
· 공기호흡기 : 37대
· 유압장비 : 유압펌프
· 스프레다(절단기) 2셋트
· 자동식 산소소생기 4개
· 각종 구조·구급·산악장비

(2) 소방용수 시설

소방용수시설	소 화 전		급 수 탑	비 고
	지하식	지상식		
계(107)	88개소	16개소	3개소	

3. 무주우체국

우리나라 우체국의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조선정부는 종래 역참제(驛站制)에서 탈피하여 근대적 통신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을 위해 우정총국(郵政總局)을 설치하고 1884년(고종21) 11월 17일 근대적인 우편제도의 사무를 시작하였다. 이 때 서울의 총국과 인천의 분국이 제1차로 개국하였다. 그러나 개국 17일 만인 12월 4일 우정총국 청사 개업 축하연에서 벌어진 '갑신정변(甲申政變)의 발발로 동년 12월 9일 우정총국은 폐쇄되고, 1895년 우체사가 설치될 때까지 10년 동안 다시 구제(舊制)인 역참에 의한 통신업무가 계속되었다.

그렇지만 통신업무의 중요성을 절감한 정부는 1885년(고종 22) 9월 28일, 처음으로 서울과 인천간에 전신이 개통된 것을 계기로 '조선전보총국'을 개국하고 서울에는 한성총국(漢城總局)을, 인천에는 분국(分局)을 설치하였으며, 곧 이어 평양과 의주에도 분국을 두었다. 그 당시 전신시설은 청나라의 기기와 장비 그리고 기술에 의해 가설되었고, 전보국의 기술요원도 대부분 중국인이었다. 그 후 1894년 8월 14일 조선전보총국을 '전우총국'으로 개편하고, 이듬해인 1895년 6월 통신국 소속으로 24개의 우체사(郵遞司)가 설치됨으로써 근대적인 우편업무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편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는데, 전북지역은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125호에 의거 1896년 2월 16일 나주우체사와 함께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전주와 남원우체사가 개국 되었는데, 무주는 남원우체사에서 관할하였다. 1898년에는 전국의 군청 소재지에 공문전달을 위한 임시 우체사를 두어 체송업무를 개시하였다.

한편 일제는 한국 침탈을 본격화하기 위해 자국민의 통신편의를 제공한다는 핑계로 전국 주요 지역에 일본인 우체사를 불법적으로 개설하고 별도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1899년과 1902년에 개설된 군산우편국과 전주우편취급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일제는 1904년 '노일전쟁(露日戰爭)' 이후 통신검열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나라 우체사를 불법으로 점거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는 '한일통신합동조약'을 체결하여 통신권 마저 강탈하고 침략을 위해 악용하였다. 출발부터 순탄치 못했던 우리나라의 우편제도는 결국 일제의 침략 야욕에 이용당하는 불운을 겪었으며, 1940년대부터는 일제의 전쟁수행을 위한 전쟁자금 수탈이 우편국을 통해 징수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1908년 무주에도 우체사가 개설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무주군 관내 최초의 우체국은 1910년 9월 26일 개설된 부내우편취급소(府內郵便取扱所)로 무주군 일원을 관할

하였다. 그 후 1936년 3월 20일 김봉수(金琫洙)가 안성면 일원과 진안군 동향면 일원을 관장하는 특정 사설 우편소를 인가 받고, 이듬해인 1937년 3월 1일 안성면 장기리에 '신안성우편소'로 개국하였다. 1938년 2월 14일에는 중산중길(中山重吉)이라는 사람이 무풍면과 설천면을 관할하는 우편취급소 설치인가를 받아 무풍면소재지에 '무풍우편소'를 설치하고 동년 2월 21일 개국하였다. 그리하여 3개의 우편소가 무주군 일원과 진안군 동향면 일원을 관장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3년 동안은 미군정에 의해 우편제도가 운영되었다. 1949년 정부조직법이 제정되고 지방체신관서설치법이 공포됨과 함께 명칭이 우체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전국 관할지역으로 하여 1면(面) 1국(局)의 원칙 하에 우체국의 숫자는 급속히 증가되었다.

1956년 6월 25일 설천면 일원과 충북 영동군 용화면 일원을 관할하는 '설천우체국'이 개국되었고, 1963년 9월 23일 임재규(林在圭)에 의해 별정우체국으로 적상면 일부를 관할하는 '적상우체국'이 개국 되었으며, 1964년 7월 1일에는 최재기(崔在基)에 의해 부남면 일원을 관할하는 별정 우체국인 '전북부남우체국'이 개국되었다.[88] 따라서 무주군에는 각 면마다 1개 이상의 우체국이 개설되었는데, 이것은 1961년부터 시작된 통신사업 5개 년 계획의 1면 1우체국 설치, 1961년 8월 17일 공포된 별정우체국 설치법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1960년대 들어 무주구천동이 전국의 명소로 부각되어 관광객이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관광객과 상인들을 위한 우정 업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66년 7월 1일 설천우체국에서 구천동 지역만을 관할하는 '구천동분국'을 개국하게 되었다. 그 당시 무주군의 체신기관은 일반우체국 4, 별정우체국 2, 분국 1 곳 등 7개소가 있었다.

1975년에는 무주우체국에 600회선의 자동식 다이얼전화시설이 설치되면서 전화 수용가가 급속히 증가했고, 구천동분국이 일반국으로 승격되어 5개의 일반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더불어 산간오지의 주민을 위해 33개소의 전신전화취급소를 설치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런데 1982년 전기통신공사가 발족되어 통신업무와 함께 인력이 이관되었으며, 시설과 장비도 크게 개선되었다. 이와 함께 1979년부터 이륜차 집배가 시행되었고, 1981년 특급우

88) 우체국의 장은 국장으로 서기관·행정사무관의 직위이나 규모가 작은 우체국은 행정주사를 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우체국은 일반우체국과 별정우체국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우체국은 국가가 설치·운영하며, 별정우체국 은 개인 부담으로 청사와 기타 시설을 갖추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국가의 위임 하에 체신업무를 수행한다.

편, 1982년 민원우편, 1984년 전자우편, 1986년 우편주문제도와 우체국 택배 등이 시행되는 등 고객 위주의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였다. 특히 1994년 10월에 단행된 빠른 우편제도는 우리나라 우정 110년 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1987년 체신금융의 전산화를 계기로 각종 금융업무가 시중은행과 연결되어 통합서비스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2000년부터 무주우체국을 비롯한 관내 우체국에서는 ADSL의 초고속 인터넷플라자를 설치·운영하여 주민에게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

2000년 현재 우체국을 관할하는 체신청은 전국에 8개(서울·부산·충청·전북·전남· 경북·강원·제주)가 있으며, 우체국 총수는 2,807개국이다. 2001년 말 현재, 무주군에는 총괄국 1(무주우체국), 주사국 3(무주무풍·무주안성·무주설천), 별정국 2(무주적상·무주부남), 우편취급소 1(무주구천동) 곳 등 모두 7곳으로 58명(상시 집배 4명 제외)이 종사하고 있다. 2002년도에 무주우체국 청사의 개축을 위해 무주읍 124-2번지에 청사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우체국의 주요업무는 우편과 체신업무 뿐 아니라 금융사업도 포함된다. 예금·적금·대출·신용카드·보험 등의 금융상품 이외에도 공과금 수납을 취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의 특산품을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특산품 우편주문 판매도 하고 있다. 전화·팩시밀리·컴퓨터 등의 첨단통신시설이 대중화되면서 우체국 고유의 우편업무는 갈수록 그 의미가 줄어들고 대신 전국 분포망을 이용한 금융업무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공사업의 등록신청, 전파방송(무선국 허가업무 등), 택배, 인터넷 쇼핑, 민원우편접수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인터넷의 발달을 계기로 '인터넷 우체국'을 지향하고 있다.

1) 편제 및 규모

(1) 편제

○ 총괄국 : 2과 1실
○ 소속국 : 일반국 3, 별정국 2, 취급소 1

(2) 정원 및 현원

○ 정원 : 일반직 16, 기능직 29, 별정국 13
○ 총괄국(정원) : 일반직 12, 기능직 19, 상시집배 2 = 총 31(2)

○ 관내국(정원) : 일반직 4, 기능직 10, 별정국 13, 상시위탁 2 = 총 27(2)

(3) 우편시설

구 분	우체통			사설함 시설수	수송장비			우표류판매소
	계	갑	을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계	106	46	60	9	4	26	-	104
무주읍	25	16	9	9	3	16	-	26
무풍면	12	3	9	-	-	-	-	9
설천면	29	16	13	-	1	8	-	33
적상면	14	2	12	-	-	-	-	13
안성면	14	5	9	-	-	-	-	12
부남면	12	4	8	-	-	2	-	11

(4) 우편물 취급

(단위 : 천통)

구분	국내								국제							
	총계		보통		특수		소포		총계		보통		특수		소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1995	1,346	2,418	1,255	2,288	83	88	8	42	2.60	2.00	1.80	1.90	0.10	-	0.70	0.10
1996	1,481	2,667	1,388	2,551	83	100	10	16	1.45	2.20	1.20	1.24	0.10	0.88	0.15	0.08
1997	1,521	2,616	1,417	2,482	88	116	16	18	7.40	2.00	7.10	1.70	0.10	0.10	0.20	0.20
1998	1,716	2,223	1,575	2,096	124	112	17	15	2.40	3.61	1.57	2.15	0.66	0.53	0.17	0.93
1999	2,290	2,777	2,170	2,644	90	115	30	18	2.25	3.03	1.91	2.74	0.24	0.13	0.10	0.16
2000	2,178	3,605	2,046	3,462	90	123	42	20	2.52	1.67	1.96	1.21	0.25	0.09	0.31	0.37
2001	2,495	4,352	2,361	4,193	87	124	47	35	2.11	1.27	1.70	1.00	0.29	0.11	0.12	0.16
무주읍	1,174	2,681	1,101	2,569	55	89	18	23	1.13	0.85	0.89	0.64	0.15	0.08	0.09	0.13
무풍면	153		142		3		8		0.09		0.06		0.03			
설천면	225	1,256	201	1,214	13	31	11	11	0.19	0.36	0.16	0.30	0.03	0.04		0.02
적상면	348		343		4		1		0.51		0.48		0.01		0.02	
안성면	300		283		9		8		0.14		0.08		0.06			
부남면	294	415	291	410	2	4	1	1	0.03	0.06	0.03	0.05	-			0.01

(5) 우편요금수입

(단위 : 천원)

구분	총 계			보 통			특 수			소 포		
	계	국내	국제	계	국내	국제	계	국내	국제	계	국내	국제
1995	270,791	267,692	3,099	177,493	176,624	869	63,589	63,312	277	29,709	27,756	1,953
1996	315,937	312,288	3,649	208,565	207,824	741	70,319	69,934	385	37,053	34,530	2,523
1997	366,950	358,978	7,972	231,333	228,089	3,244	83,653	83,207	446	51,964	47,682	4,282
1998	401,966	396,450	5,516	272,204	270,939	1,265	84,027	83,422	605	45,735	42,089	3,646
1999	549,178	540,557	8,621	360,036	359,019	1,017	116,280	110,883	5,397	72,862	70,655	2,207
2000	526,131	515,895	10,236	349,025	347,741	1,284	69,677	63,128	6,549	107,429	105,026	2,403
2001	685,507	672,724	12,783	411,326	410,063	1,263	123,063	114,456	8,605	151,120	148,205	2,915
무주읍	330,870	323,245	7,62	187,945	187,156	792	76,595	71,758	4,83	66,327	64,331	1,996
무풍면	51,413	50,995	418	25,862	25,802	60	4,980	4,670	310	20,569	20,523	46
설천면	84,555	82,455	2,100	33,998	33,887	111	18,147	16,635	1,512	32,411	31,934	477
적상면	72,041	71,116	925	64,382	64,167	215	4,689	3,979	710	2,970	2,970	-
안성면	86,679	85,177	1,502	48,517	48,450	67	15,287	14,167	1,120	22,895	22,560	315
부남면	59,950	59,736	214	50,618	60,600	18	3,363	3,248	115	5,969	5,888	81

(6) 국내 전보 취급

(단위 : 건)

연도별	총계	발 신			수 신		
		계	유료	무료	계	유료	무료
1995	23,769	9,494	9,493	1	14,275	14,275	-
1996	22,794	10,358	10,358	-	12,436	12,436	-
1997	12,333	3,385	3,385	-	8,948	8,948	-
1998	15,507	4,409	4,409	-	11,098	11,098	-
1999	6,467	911	911	-	5,556	5,556	-
2000	5,925	265	265	-	5,660	5,660	-

2) 무주우체국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25-1

(1) 연혁

1910. 9. 26	부내우편취급소 개소
1913. 4. 1	무주우편소로 개칭
1931. 2. 1	새 청사 신축 - 무주면 읍내리 225번지
1941. 2. 1	무주우편국 개국
1949. 11. 12	무주우체국 개칭
1950.	한국전쟁으로 업무 중단
1950. 11. 13	가청사에서 업무 재개(黃聖秀織造工場)
1956. 5. 1	광주체신청 지원으로 신청사 준공
1971. 4. 1	사무관국 승격
1975. 11. 25	청사 확장 신축(무주읍 225-1) - 자동전화(ST) 설치
1982. 1. 1	한국전기통신공사 발족
1986. 1. 1	전신전화국 개국으로 전신전화업무 이관 우편·우편환·우편대차 ·체신예금 ·체신보험·전신전화 수탁 등
1990. 6. 30	청사 대보수 준공
2000. 11. 20	총괄국으로 개칭
2001. 5. 1	조직개편(우편물류과·영업과·마케팅지원실)

(2) 조직

국장 - 2과(우편물류과·영업과) 1실(마케팅지원실)

(3) 관내 우체국

일반국 3(무주안성·무주무풍·무주설천)
별정국 2(무주적상·무주부남)
취급소 1(무주구천동)

(4) 정원

일반직 16, 기능직 29, 별정국 직원 13
총괄국(정원) : 일반직 12, 기능직 19, 상시집배 2 => 31(2)
관내국(정원) : 일반직 4, 기능직 10, 별정국 직원 13, 상시집배 2 => 27(2)

(5) 임무

우편업무(우표류판매, 우편물접수·배달, 택배 등)
금융업무(우체국 예금 및 우체국 보험 업무, 우편환·대체, 공과금 수납 등)
전파업무(간이무선국 관리)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

(6) 역대 무주우체국장

연 번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	행 정 주 사	김 창 원	1945. 10. 02 - 1946. 07. 05	
2	행 정 주 사	박 세 창	1946. 07. 06 - 1950. 11. 07	
3	행 정 주 사	백 광 용	1950. 11. 08 - 1951. 08. 03	
4	행 정 주 사	김 홍 권	1951. 08. 04 - 1952. 04. 15	
5	행 정 주 사	김 홍 권	1951. 08. 04 - 1952. 04. 15	
6	행 정 주 사	백 광 용	1952. 04. 16 - 1961. 04. 17	
7	행 정 주 사	한 경 환	1970. 01. 11 - 1973. 04. 10	
8	행 정 주 사	김 용 재	1973. 04. 11 - 1973. 08. 15	
9	행 정 사 무 관	장 창 근	1973. 08. 16 - 1974. 07. 03	
10	행 정 사 무 관	양 병 희	1974. 07. 04 - 1975. 07. 05	
11	행 정 사 무 관	안 광 현	1975. 07. 06 - 1976. 07. 06	
12	행 정 사 무 관	김 용 현	1976. 07. 07 - 1977. 03. 07	
13	행 정 사 무 관	김 준 승	1977. 03. 08 - 1978. 10. 05	
14	행 정 사 무 관	황 관 수	1978. 10. 06 - 1980. 11. 06	
15	행 정 사 무 관	이 성 현	1980. 11. 07 - 1981. 07. 11	
16	행 정 사 무 관	양 인 식	1981. 07. 12 - 1985. 01. 11	
17	행 정 사 무 관	이 태 신	1985. 01. 12 - 1986. 01. 15	

연 번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8	행 정 사 무 관	정 진 창	1986. 01. 16 ~ 1987. 12. 31	
19	행 정 사 무 관	김 재 원	1988. 01. 01 ~ 1992. 04. 06	
20	행 정 사 무 관	김 준 승	1992. 04. 07 ~ 1993. 07. 21	
21	행 정 사 무 관	유 태 길	1993. 07. 22 ~ 1996. 01. 20	
22	행 정 사 무 관	김 정 옥	1996. 01. 21 ~ 1997. 04. 03	
23	행 정 사 무 관	최 서 규	1997. 04. 04 ~ 1998. 06. 30	
24	행 정 사 무 관	하 종 식	1998. 07. 01~ 2000. 12. 30	
25	행 정 사 무 관	김 동 룡	2000. 12. 30 ~ 2002. 01. 16	
26	행 정 주 사	이 대 규	2002. 01. 16 ~	

3) 무주무풍우체국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314-3번지

(1) 연혁

1938. 2. 21 무풍우편소 개설
1950. 1. 12 무풍우체국으로 개칭
1950. 4. 17 전신전화업무 취급
1962. 12. 4 전화교환업무 개시
1971. 8. 20 청사 개축
1984. 10. 27 전화교환업무 폐지
1989. 12. 31 온라인 개통
1994. 12. 31 청사 신축
2000. 7. 1 무주무풍우체국으로 개칭
2002. 1. 인터넷플라자 운영

4) 무주설천우체국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904번지

(1) 연혁

1956. 6. 25 설천우체국 개국(전신·전화·우편)
1966. 7. 1 구천동 분국 개설
1969. 1. 1 신청사 개축 이전
1990. 11. 20 청사 이전 개축
2000. 7. 1 무주설천우체국으로 개칭
2002. 1. 인터넷 플라자 운영

5) 무주적상우체국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322-1

(1) 연혁

1963. 8. 30 청사 신축(별정우체국)
1963. 9. 23 적상우체국 개국
1974. 10. 22 전화교환업무 개시(40회선)
1979. 12. 21 전화 증설(200회선), 전화취급소 개통
1986. 3. 1 자동전화 개통으로 교환업무 폐지
1988. 8. 30 신청사 신축 준공
2002. 1. 인터넷 플라자 운영

6) 무주안성우체국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32-1

(1) 연혁

1936. 12. 31 청사 신축
1937. 3. 1 신안성우편소 개소
1950. 1. 12 신안성우체국으로 개칭

1973. 10.20　신청사 개축 이전
1996. 11.31　청사 개축
2000. 7. 1　무주안성우체국으로 개칭
2002. 1.　인터넷 플라자 운영

7) 무주부남우체국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49-2

(1) 연혁

1964. 7. 1　별정우체국으로 지정됨.
1964. 11. 10　전북부남우체국으로 개국
1990. 6. 30　청사 신축
2000. 7. 1　무주부남우체국으로 개칭
2002. 1.　인터넷 플라자 운영 - 우편·금융·택배

8) 무주구천동취급소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411-23번지

(1) 연혁

1966. 7. 1　설천우체국 구천동분국 개국
1975. 5. 1　구천동우체국 승격
1982. 7. 12　전화교환업무 폐지(무주로 통합)
1985. 12. 15　청사 신축 이전
2001. 8. 16　무주구천동 우편취급소 개소
2002. 6. 4　현 우편취급소로 이전

자료 : 무주군지. 무주군 통계연보. 무주우체국 홈페이지. 전북체신청 홈페이지

4. 농업기반공사 전주지부 무주지소

1) 주소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845번지 (우: 567-804)

2) 개요

‘농업인을 사랑하는 공기업, 지역과 함께 하는 농업기반공사’를 지향하며 농업생산성 증진을 통한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인간·기술·환경의 가치 창조, 자율과 창의적 활동, 기술의 고도화 실현,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경영이념으로 삼는다. 21C 한국농업을 선도하는 친환경 농어촌개발·용수관리 전문 공기업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며, 이와 함께 맑은 물·깨끗한 환경·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을 경영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

주요사업은 농업기반시설관리(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이용,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보존·이용), 농어촌정비사업시행[농업생산기반정비(농촌용수개발)·경지정리·배수 개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지표수보강개발·수리시설 개 보수 등·농어촌생활환경정비(문화마을·농공단지 조성)],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 촉진(농지매매, 임대차, 교환분합,농지이용증진) 등이다.

3) 연혁 및 기구

(1) 연혁

1908. 2.	전북 옥구서부수리조합 설립 (수리조합 효시)
1938. 5.	조선토지개량협회(朝鮮土地改良協會) 발족
1940. 7.	조선수리조합연합회(朝鮮水利組合聯合會) 발족
1949. 6.	조선수리조합을 대한수리조합으로 개칭
1953. 3. 3	구이수리조합 설립인가 (2,479 ha)
1962. 1.	대한수리조합연합회를 토지개량조합연합회로 개칭
1969. 2.	지하수개발공사(地下水開發公社) 설립
1970. 1.	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

1970. 1. 12	전주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변경
1970. 2.	농업진흥공사 발족(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 합병)
1981. 3.	농지개량조합 통폐합 조정
1990. 7. 2	농어촌진흥공사 설립(농업진흥공사 흡수)
1997. 5. 28	무주군 무풍면 구역 편입 (270ha)
2000. 1. 1	농업기반공사 설립(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통합) 구)전주농지개량조합, 구)농어촌진흥공사 완주군·임실군, 진안군지부가 통합되어 '농업기반공사 전주지사'로 명칭 변경
2002. 3. 4	무주지소 폐쇄, 진안지소에서 통합관리

4) 전주지사 기구 및 인원

기구 : 3부 8과 3팀 2지소(임실, 진안)
인원 : 진안지소 6명

5) 2002년 주요 추진사업

(1)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단위 : ha, 백만원)

사업별	지구위치 읍·면	지구위치 리	사업규모 면적	사업규모 총사업비	2001년까지 실적	2002년 계획	비고 (공사기간)
계				48,033	19,731	6,889	
농촌용수	소계	2지구	670	44,088	19,535	5,186	
- 공정지구	안성	공정	340	20,257	17,371	2,886	'97. 12~'07. 12.
- 대불지구	설천	대불	330	23,831	2,164	2,300	'00. 11~'04. 12.
수리시설개보수	적상	괴목	용수로 5,044m	1,946	100	500	'01. 9~'03. 12
일반경지정리 (수탁포함)	소계	3지구	59	1,739	96	995	'02. 11~'03. 5.
- 진원지구	안성	진도	30	810		162	
- 차산들	무주	대차	25	809	88	721	'01. 11~'02. 5.
- 독파구	적상	방이	4	120	8	112	'01. 11~'02. 5.
기계화경작로	무풍	증산	2.5km	260	-	208	'02. 4~'02. 10.

(2) 영농규모화사업

가. 쌀전업농 선정관리

(단위 : 명)

시·군별	계	기선정인원(1995~2001)	2002년 선정인원	비 고
계	1,712	1,654	58	
전 주	189	179	10	
완 주	527	514	13	
임 실	454	430	24	
진 안	362	354	8	
무 주	180	177	3	

나. 논농업 직불사업

(단위 : ha)

시·군	농 가	필 지	면 적	비 고
무주군	3,953	17,078	2,350	

6) 시설현황

(1) 주요 시설물 현황

(단위 : ha)

구 분	관 리 면 적					
	계 (100%)		공사 관리(35%)		무주군 관리(65%)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230	1,636	21	520	209	1,116
저 수 지	74	853	7	432	67	421
양 배 수 장	4	57	0	0	4	57
취 입 보	101	667	13	88	88	579
집 수 암 거	4	6	0	0	4	6
대 형 관 정	47	53	1	0	46	53

(2) 농업용수 이용자 조직현황

(단위 : 명)

시·군별	운영대의원	농업용수이용자	용수관리회	쌀전업농
무주군	3	1,557	22	180

(3) 관할지역

(단위 : ha)

시·군	읍·면	관리면적	관할저수지	비고(마을명)
계		520.2		
무주군	무주읍	112.2	압수제, 모시제	당산리 : 당산 오산리 : 오산, 왕정 장백리 : 상장백, 하장백
무주군	무풍면	160.5	무풍제	현내리 : 원촌, 북리 상하, 고도 철목리 : 철목, 묘암 지성리 : 서동, 부등, 모산 증산리 : 석항, 사동, 실미 은산리 : 한재, 은고, 속동
무주군	부남면	36.9	장안제	장안리 : 상대곡, 하대곡, 교동, 식암
무주군	안성면	163.4	덕산제, 금평제	덕산리 : 덕곡, 수락, 정천, 상산 사전리 : 하산, 사전, 사교 금평리 : 금평, 긍대, 두문 공정리 : 외당
무주군	적상면	47.2	괴목제	괴목리 : 상조, 하조, 치목, 괴목 포내리 : 상중리, 하중리 북창리 : 초리

(4) 역대 무주지소장

순서	성 명(한자)	재 임 기 간	전 임 지	후 임 지	비 고
1	김석동(金錫東)	2000. 1. 1~2000. 7. 10	농 연 전 북 도 지 회	순 창 지 사	
2	진용섭(晉容燮)	2000. 7.11~2001. 7. 8.	전주지사구이지소장	전 주 지 사 진안지소장	
3	박종춘(朴鍾春)	2001. 7. 9~2002. 3. 3.	구 례 지 사	전 주 지 사 기반조성부	
-		2002. 3. 4.	무주지소 폐쇄, 진안지소에서 통합관리		
4	최규칠(崔圭七)	2002. 3. 4 ~ 현 재	전주지사개보수과장	-	진안지소장

5. 산림청 서부지방산림관리청 무주국유림관리소

1) 위치

무주읍 읍내리 126-3번지

2) 연혁

1908.	삼림법 공포와 함께 덕유산 일대의 16,505㏊를 총독부 주관 하에 전라북도에서 관리
1912.	일본 북해도제국대학에서 덕유산 일대를 1945년 8월 15일까지 총독부에서 무상대부 받아 농학부 연습림으로 사용
1950. 2. 9	영림관서 설치법 제정으로 서울 영림서와 강릉영림서 설치
1952. 5. 30	대통령령 제353호 영림서 직제를 공포하면서 서울영림서 무주관리소 설치
1967. 8. 28	산림청 발족과 함께 안동영림서를 신설하면서 구역이 변경되어 안동 영림서 무주관리소로 개칭
1969. 11. 1	영림서 직제 개편으로 남원관리소에 편입됨. 안동영림서 남원관리소 무주보호구로 개칭
1972. 9. 20	영림서를 동부·남부·중부영림서로 변경하면서 남부영림서 남원관리소 무주보호구로 개칭
1987. 12. 5	영림서 직제개편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하면서 남부영림서 남원관리소 무주출장소로 개칭
1991. 5. 31	남원영림서 신설. 남원영림서 무주관리소
1995. 12. 29	서부지방 산림관리청으로 개칭. 무주관리소
1999. 5. 24	서부지방산림관리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무주국유림관리소로 개칭
2001. 6. 20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정읍 관리소에 편입

3) 주요 업무

(1)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

· 산림경영계획의 체제확립
· 국유림 경영철저로 보존 활용 제고
· 임도의 확장과 임업노동의 전문화

(2) 국유임산 자원의 보호 육성

· 쾌적한 국토경관 및 경제림 조성
· 임목의 형질향상과 생장 촉진
· 산림생태계의 균형 유지로 건전한 산림육성

(3) 선진임업기술에 의한 국유림 경영개선

· 임목생산 위주에서 다목적 경영
· 산림사업의 모델 개발 및 교육장화
· 산림작업의 생력화로 임업생산성 제고

(4) 국유림의 공익 증진

· 국토증진과 환경림 조성
· 국민 휴양공간의 확충과 편익시설
· 휴양임업의 개발

4) 정원 및 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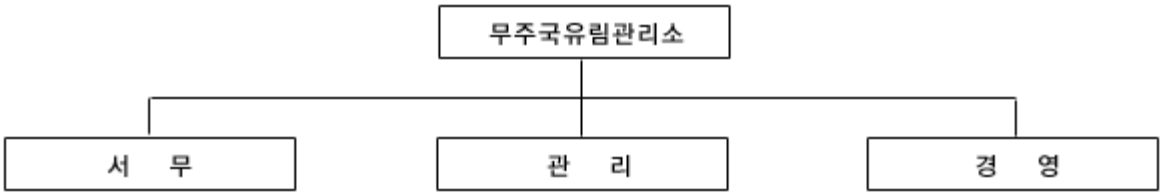
(1) 직능별(정원/현원)

총 23/22　행정직 2/1
임업직 16/16
기능직 3/3
청원산림보호직 2/2

(2) 부서별(정원/현원)

부서별	합계	일반직				기능직	청원산림보호직
		계	5급	6급	7～급		
합계	23/22	18/17	1/1	5/5	12/11	3/3	2/2
서무	5/5	3/3	1/1	1/1	1/1	2/2	-
관리	4/4	4/4	-	1/1	3/3	-	-
경영	14/13	11/10	-	3/3	8/7	1/1	2/2

(3) 기구표



경영(경영총괄팀·경영1팀·경영2팀·휴양림경영팀)

5) 무주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

구 분	국유림면적(ha)	전체산림면적(ha)	비율(%)
5 개 시 · 군	45,484	243,897	19
남 원 시	9,441	47,968	20
무 주 군	18,711	52,018	36
진 안 군	8,363	61,162	14
장 수 군	7,994	40,835	20
임 실 군	975	41,914	I2

6) 역대 출장소장

순 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	김 현 식	1991. ～ 1992. 9. 22	

순 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2	최 덕 호	1992. 9. 23 ~ 1995. 1. 6	
3	윤 도 혁	1995. 1. 7 ~ 1996. 1. 14	
4	조 해 수	1996. 1. 15 ~ 1997. 1. 9	
5	김 용 태	1997. 1. 10 ~ 1998. 9. 30	
6	남 욱 현	1998. 10. 1 ~ 1999. 5. 24	
7	김 의 용	1999. 5. 25 ~ 1999. 12. 31	
8	윤 문 중	2000. 1. 1 ~ 2001. 1. 7	
9	신 기 수	2001. 1. 8 ~ 현재	

6.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무주등기소

1) 위치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831-2번지

2) 무주군 법원

(1) 개요

종래 중소도시나 군 단위에서는 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순회 심판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순회 상설화 되지 않은 심판소 체제는 사건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많았고, 이에 따라 신속한 재판이 개최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995년 9월 1일, 대법원은 시·군 법원을 상설법원으로 설치하여 개원토록 하였다. 그리고 비교적 간이한 소송사건(소액·독촉·즉결심판·공탁·협의이혼의사확인·민사신청·민사조정사건)에 관해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시·군민의 불편을 없애도록 하였다.

(2) 연혁

1995. 9. 1 개원

(3) 역대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장

순서	성 명	재 임 기 간	비고
1	박 철 원	1995. 9. 1 ~ 1997. 2. 28	
2	김 선 태	1997. 3. 1 ~ 1998. 2. 28	
3	이 민 호	1998. 3. 1 ~ 2000. 2. 28	
4	한 익 수	2000. 3. 1 ~ 현재	

(4) 기구 및 정원

법원판사(판사 1) : 군법원 재판 및 사무총괄
계장(법원주사 1) : 재판 참여 및 재판사무
주임(법원서기 1) : 재판 참여 및 사무보조

(5) 사건처리현황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소액	38	38	152		168	168	165	165	172	172	186	186	211	211
조정			2				4	4	3	3	5	5	9	9
신청	52	52	185		205	205	226	226	233	233	258	258	311	311
독촉	68	68	241		294	294	325	325	386	386	419	419	590	590
즉결	105	105	282		308	308	337	337	363	363	408	408	524	524
협의이혼			1		2	2	4	4	5	5	4	4	9	9

(6) 금전사건 처리현황

구 분	금 전				비 고
	공 탁		출 금·회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95	1	200,000	1	200,000	
1996	6	7,681,690			
1997	48	472,543,200	32	253,688,700	
1998	56	587,699,325	41	376,700,322	

구 분	금 전 공 탁		금 전 출 금·회 수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99	54	676,191,493	37	315,646,899	
2000	19	483,147,734	27	152,475,144	
2001	16	368,572,590	13	57,888,100	

3)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등기소

(1) 연혁

1916. 11.25	총독부령(98호)에 의거 광주지방법원 무주출장소 개설
1916. 12. 1	부동산등기령 시행으로 행정관서에서 취급하던 등기 및 공증사무 취급 개시
1922. 7. 1	전주지방법원 개설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무주출장소로 개칭
1947. 1. 1	전주지방심리원 무주등기소로 개칭
1948. 6. 1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로 개칭
1980. 9. 1	전주지방법원 무주순회심판소 개설로 순회심판과 등기업무 병행
1995. 9. 1	대법원의 시·군법원 설치방침에 따라 판사 비상주 법원으로 개원
2001. 11. 7	부동산 등기부 전환 및 전산화

(2) 기구표 및 정원

무주군법원 조정위원 12명, 법무사 2명.

(3) 정원 대비 현원

구 분	정 원	현 원	비 고
법원사무관	1	1	
법원서기보	1	1	
사 무 원	1	1	
위 생 원	1	1	

(4) 주요 업무

등기신청 사건처리와 등기부 등·초본 발급 업무로 구분된다. 등기신청 사건은 부동산과 상업등기사건이 있는데, 부동산등기는 등기권리자·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당사자 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고, 상업등기는 대표이사의 신청이 원칙이나 부동 산과 마찬가지로 대리인에 의해 할 수 있다.

(5) 등·초본 현황

구 분		2000년			2001년			비 고
		건 수	통 수	수 수 료	건 수	통 수	수 수 료	
등·초본	직 접 신 청	16,422	44,990	53,998,000	29,954	49,129	58,924,200	
	팩 스 신 청	603	971	58,034,800	908	1,233	2,466,000	
	우편·전화	875	2,326	2,791,200	1,068	2,212	2,629,200	
	소 계	17,900	48,287	58,034,800	31,930	52,574	64,019,400	
열 람		249	249	298,800	246	246	295,200	
인 감 증 명		437	2,307	2,768,400	370	1,666	1,999,200	
확 정 일 자		50	50	30,000	39	39	23,400	
총 계		18,636	50,893	61,132,000	32,585	54,525	66,337,200	

(6) 사건 처리 현황

구 분	2000년		2001년		증감		비율(%)	
	건수	신청수수료	건수	신청수수료	건수	신청수수료	건수	신청수수료
부동산	6,864	41,774,000	9,809	70,436,000	+2,945	28,662,000	+42.9	+68.6
상 업	59	248,000	76	517,000	+17	269,000	+28.8	+108.4
법 인	40	112,000	46	143,000	+6	31,000	+15	+27.6
계	6,963	42,134,000	9,931	71,096,000	+2,968	28,962,000	+42.6	+68.7

(7) 역대 등기소장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	박 학 순	1968.		16	최 정 욱	1984. 4. 10~1986. 1. 19	
2	강 병 연	1969.		17	최 기 곤	1986. 1. 20~1987. 2. 28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비고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비고
3	김 종 복	1970.		18	김 명 협	1987. 3. 1~1988. 3. 9	
4	황 경 재	1971.		19	전 방 열	1988. 3. 10~1988. 8. 9	
5	김 종 림	1971. ~1973. 3. 5		20	오 봉 익	1988. 8. 10~1989. 6. 30	
6	나 진 복	1973. 9. 1~1975. 2. 27		21	양 충 남	1989. 7. 1~	
7	이 윤 호	1975. 2. 28~1975. 6. 30		22	위 운 석	1993. 11. 21~1994. 6. 30	
8	정 웅 래	1975. 7. 1~1976. 12. 26		23	신 인 기	1994. 7. 1~1995. 6. 30	
9	임 세 빈	1976. 12. 27~1977. 8. 25		24	조 춘 기	1996. 7. 1~1998. 1. 20	
10	허 성 철	1977. 8. 26~1979. 9. 4		25	황 규 문	1998. 1. 21~1998. 2. 28	
11	임 세 빈	1979. 9. 5~1981. 7. 31		26	한 영 욱	1998. 3. 1~1999. 3. 31	
12	김 영 박	1981. 8. 1~1982. 7. 31		27	윤 덕 구	1999. 4. 1~2000. 6. 30	
13	최 정 욱	1982. 8. 1~1982. 12. 19		28	정 문 태	2000. 7. 1~2001. 3. 5	
14	이 정 윤	1982. 12. 20~1983. 4. 9		29	노 영 덕	2001. 3. 6~2002. 1. 11	
15	정 충 명	1983. 4. 10~1984. 4. 9		30	송 종 엽	2002. 1. 12~현재	

7.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

1) 위치

무주읍 읍내리 352-2번지

2) 개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으로 1963년 1월 창설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를 비롯하여 16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243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고려하여 읍·면·동별로 13,783개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3) 연혁

1963. 1. 2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정공포로 전라북도 제5지역선거구선거관리 위

원회 창설(34개 투표구)

1971. 2. 15 전라북도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36개 투표구)

1973. 1. 20 전라북도 제3선거구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40개 투표구)

1981. 2. 26 전라북도 제4선거구로 개칭

1987. 11. 7 전라북도 진안·무주·장수군 선거구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

4) 주요 업무

○ 선거와 국민투표 관리[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지방의회 의원선거, 국민투표 관리, 위탁선거관리(시·도 교육위원선거, 시·도교육감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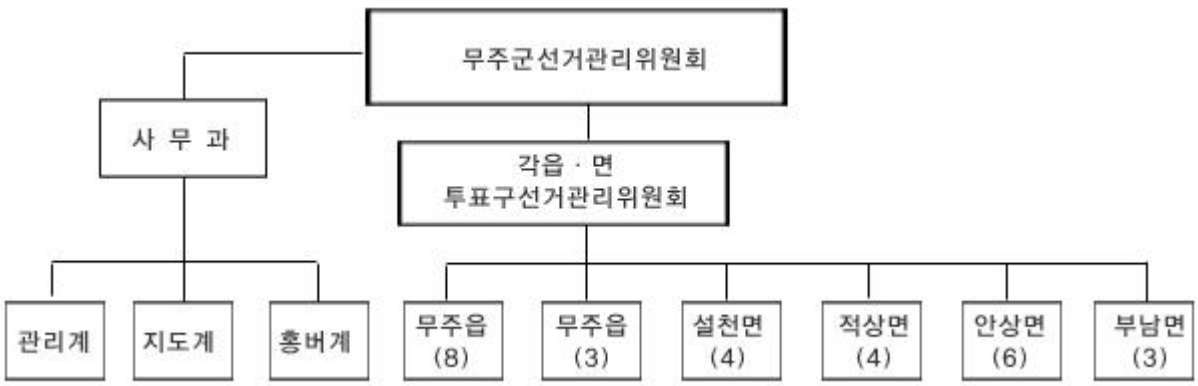
○ 국민의식 개선활동 및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홍보[공명선거 강연·선거지원 등을 통한 선거문화 개선, 미래의 유권자인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종교· 시민단체와 연계한 시민의식개선운동 전개]

○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및 선거비용 조사활동[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대한 확인조사]

○ 정당과 정치자금 사무 관리[정당 등록·지원 등 정당사무 관리, 후원회 등록 및 보조금 배분·지급 등 정치자금 사무 관리]

○ 선거연수 등 기타[정당·선거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에 대한 교육·연수, 선거·정당 관련 법률의 제(개)정 의견 제출, 선거·정당관련 제도 연구]

5) 기구표



6) 역대 위원장

대수	성명	재임기간	비고	대수	성명	재임기간	비고
1	길남렬	1963. 2. 19 ~1967. 2. 20		10	정충모	1986. 10. 8 ~1989. 3. 14	판사
2	길남렬	1967. 2. 21 ~1971. 3. 31		11	이태종	1989. 3. 15 ~1989. 12. 31	판사
3	조용만	1971. 4. 2 ~1973. 1. 26	교육장	12	양재영	1990. 9. 17 ~1992. 2. 28	판사
4	조용만	1973. 1. 27 ~1978. 1. 28	교육장	13	김광수	1992. 2. 28 ~1995. 3. 7	
5	조용만	1978. 2. 10 ~1980. 8. 28	교육장	14	김흥준	1995. 3. 7 ~1996. 9. 16	
6	소순종	1980. 8. 29 ~1981. 7. 13	교육장	15	한규현	1996. 9. 16 ~1998. 3. 16	
7	황선기	1981. 7. 14 ~1982. 3. 20		16	이재희	1999. 3. 15 ~2000. 2. 25	
8	황선기	1982. 5. 20 ~1984. 8. 25		17	이민호	2000. 2. 25 ~2001. 2. 28	
9	윤우진	1984. 9. 7 ~1986. 10. 5	판사	18	강성명	2001. 2. 28~ 현재	

8.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89)]

1) 위치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173-1

2) 연혁

1980. 12. 16 내무부 자연학습원 조성지침에 의거 설립
1985. 12. 27 전라북도 자연학습원 조례 개정
1986. 1. 31 전라북도 자연학습원 개원(사무 개시)
1986. 10. 6 학습원 연수 개시
1998. 9. 22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통합 -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자연학습원
2001. 10. 15 수탁기관 확정(원불교 천지보은회)
2002. 1. 1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업무 개시

89)2001년 12월 31일까지 전라북도에서 직영한 관계로 본 군지에 수록한 것임.

- 초기의 설립목적 : 자연의 이해와 애호, 심신의 단련과 정서의 함양, 질서의 체육과 애국심 고취.
- 주요 사업 : 자연보호 교육, 심신단련 교육, 극기훈련, 야간담력훈련, 레크레이션

3) 일반 현황

- 인력 : 원장 이선종(연자)외 10명

계	원장	부원장	부장	교수요원	영양사	기능원	조리사	청소원	비고
11	1	1	2	3	1	1	1	1	

4) 주요 기능

- 자연학습 및 환경교육
- 청소년의 생태탐사 및 심신단련
- 애향·애국심 참 시민정신 고취를 위한 교양 강좌
- 기타 도민 교육 참여

5) 시설현황

- 부지면적 : 67,888㎡(20,536평) 도유지(13,754㎡), 국유지(54,134㎡)
- 건물면적 : 10동 2,347㎡(710평). 연수동 : 1,724㎡, 숙박동(2동) : 696㎡ 직원숙소 : 162㎡, 오수정화시설 : 105㎡, 기타(5동) : 110㎡
- 수용능력 : 최대 200명/1일(회당 : 40~148명)

6) 주요 교육시설

시 설 명	규 모	내 용	비 고
연 수 동	1,724㎡	강당·식당·박물관 등	본관 3층
숙 박 동	696㎡	40~148명/1기	2동, 2층
인 공 습 지	332㎡	창포등 10종	

시설명	규 모	내 용	비 고
운 동 장	12,554㎡	축구장, 모험시설(11종)	
새천년가족수련원	1,200㎡		
등 산 로	15㎞	3개 노선	
야 생 수 목 원	14,956		
관 찰 로	1,7㎞		

7) 연수 현황(2002. 1. ~ 6.)

구 분		회수	단체수	연수인원	비고
계	계	44	44	6,898	
	자 연 환 경 연 수	11	11	1,788	
	시 설 이 용	8	8	1,140	
	순 회 교 육	25	25	3,970	
1월	계	5	5	1,056	
	자 연 환 경 연 수	1	1	26	
	시 설 이 용	3	3	680	
	순 회 교 육	1	1	350	
2월	계	3	3	220	
	자 연 환 경 연 수	0	0	0	
	시 설 이 용	1	1	40	
	순 회 교 육	2	2	180	
3월	계	3	3	316	
	자 연 환 경 연 수	2	2	196	
	시 설 이 용	1	1	120	
	순 회 교 육	0	0	0	
4월	계	11	11	2,317	
	자 연 환 경 연 수	0	0	0	
	시 설 이 용	0	0	0	
	순 회 교 육	11	11	2,317	

	구 분	회수	단체수	연수인원	비고
5월	계	13	13	1,433	
	자 연 환 경 연 수	3	3	350	
	시 설 이 용	0	0	0	
	순 회 교 육	10	10	1,083	
6월	계	9	9	1,556	
	자 연 환 경 연 수	5	5	1,216	
	시 설 이 용	3	3	300	
	순 회 교 육	1	1	40	

8) 역대 원장

연번	성 명	재 임 기 간	직 위	비 고
1	이선종(이연자)	2002. 1. 1 ~ 현재	원불교 천지보은회 대표	

9.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관리사무소

1) 위치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411-8번지

2) 연혁

1969. 1. 21 국민관광지 지정(교통부장관)

1971. 12. 1 전라북도 도립공원(구천동)으로 지정(전라북도 공고 제133호)

1975. 2. 1 국립공원덕유산(구천동)으로 지정(건설부 공고 제25호)

1975. 8. 1 덕유산(구천동) 국립공원 전라북도관리사무소 개소(전라북도조례 제705호)

1976. 5. 17 국립공원기본계획공고(건설부 고시 제52호)

1977. 4. 20 덕유대 야영장 조성

1980. 1. 20 집단시설지구 조성

1980. 10. 27 인월담 구단지 철거
1986. 4. 15 만선스키장 공원계획 결정
1987. 7. 1 건설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
1987. 8. 5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관리사무소 개소
1991. 1. 1 자연휴식년제 도입 시행
4. 23 국립공원관리공단 내무부 이관
1995. 2. 10 국립공원 자연생태 보전종합계획 수립
1998. 2. 28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이관
4. 28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
7. 1 국립공원 계곡휴식년제 시행
1999. 6. 12 삿갓재 대피소 신축
2001. 9. 9 적상(북창) 매표소 신축
2001. 9. 15 국립공원대회 개최
2002. 7. 1 향적봉 대피소 보수 완료

3) 주요 업무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1968년부터 1987년 7월까지 약 20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17개 공원을 42개 기관이 분할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음. 이에 따라 1986년 국가에 서 직접 관리하는 방침을 정하고 전문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기 위해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

① 국립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의 공원자원의 보호 및 조사·연구
② 국립공원시설의 유지, 관리와 운영
③ 공원사업의 시행
④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
⑤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및 공원의 원상회복 면제승인
⑥ 공원입장료 징수,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및 허가
⑦ 공원 점용료 또는 사용료, 부당 이득금 징수
⑧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 및 공원 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

⑨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에서 타법에 의거 인·허가를 할 경우 공원관리청과 협의
⑩ 타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등

4) 공원시설물

(1) 행정구역별 공원 구역 현황

(단위 : ㎢)

구분	계	전라북도			경상남도		
		소계	무주군	장수군	소계	거창군	함양군
계	228,893	189.265 (82.7%)	178.328 (77.9%)	10.987 (4.8%)	39.628 (17.3%)	33.930 (14.8%)	5.698 (2.5%)

(2) 관리사무소

구 분	위 치	규모(㎡)	건축년도	비고
본 소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411-8	211.6	1977	전 라 북 도
남 덕유 분 소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1697-1	78.93	1993	환 경 부
적 상 분 소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119-1	65.43	1994	환 경 부
안 성 매 표 소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산 6	64.05	1991	환 경 부
영 각 매 표 소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산 9-1	57.12	1990	환 경 부

(3) 대피소

대피소명	면적(㎡)	수용 인원	설치년도
향적봉대피소	91.93	60명	1984
삿갓재대피소	159.71	69명	1999

(4) 야영장

야영장명	면적(㎡)	수용인원	조성년도
덕유대야영장	947.246	10,000명	1977
자동차야영장	20.400	300명	1996

(5)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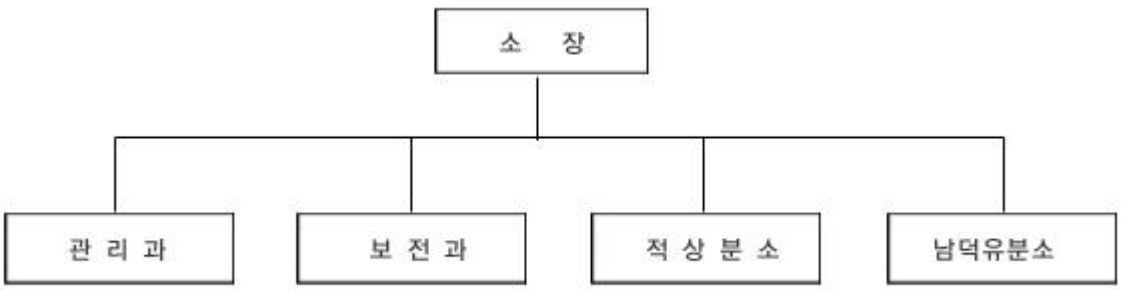
주차장명	면적(㎡)	수용인원	조성년도	비고
삼 공 주 차 장	20.874	대 : 168대 소 : 180대	1977	
야영장내 주차장	8.120	대 : 100대 소 : 80대	1978	
파 회 주 차 장	9.791	대 : 7대 소 : 147대	1999	주차장 4.888㎡ 야영장 4.903㎡

(6) 덕유산국립공원 입장객 현황

(단위 : 명)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1994년도	805,203	337,097	742,995	584,773	2,470,068
1995년도	767,341	419,847	871,740	632,029	2,690,957
1996년도	649,531	143,975	365,440	462,584	1,621,800
1997년도	930,136	274,074	729,643	493,028	2,426,881
1998년도	347,970	606,457	906,574	751,619	2,612,622
1999년도	570,050	710,643	981,298	470,833	2,732,823
2000년도	675,227	336,337	456,514	513,116	1,981,194
2001년도	786,729	340,989	559,962	633,560	2,321,240

(7) 기구 및 정원



(8) 기구표(도표 처리)

구 분	성 명	재임 기간	비 고
1대	염 동 련 (廉東運)	1987. 8. 5 ~ 1991. 10. 10	
2대	정 상 욱 (鄭相旭)	1991. 10. 11 ~ 1992. 9. 8	
3대	신 범 항 (申帆桓)	1992. 9. 9 ~ 1995. 9. 18	
4대	이 만 우 (李萬禹)	1995. 9. 19 ~ 1996. 8. 10	
5대	정 권 섭 (鄭權燮)	1996. 8. 11 ~ 1998. 8. 9	
6대	이 한 수 (李漢洙)	1998. 5. 21 ~ 1998. 8. 9	
7대	김 정 기 (金政起)	1998. 8. 10 ~ 1999. 6. 14	
8대	이 형 우 (李亨雨)	1999. 6. 15 ~ 2001. 1. 18	
9대	고 광 선 (高光宣)	2001. 1. 19 ~ 2001. 3. 6	직대 : 3급 정석원 (2001. 3. 7~3. 15)
10대	서 팔 석 (徐八錫)	2001. 3. 16 ~	

10. KT무주지점(한국전기통신공사 무주전신전화국)

1) 위치

무주읍 읍내리 839번지

2) 연혁

1910. 9. 26 부내우편취급소 개설
1910. 10. 21 전신업무 개시
1911. 3. 21 전화업무 개시
1931. 12. 26 전화교환업무 개시
1975. 12. 24 자동전화(ST) 600회선 개통
1981. 12. 10 한국전기통신공사 설립
1982. 1. 1 한국전기통신공사 무주사무소 발족
1983. 8. 1 국제자동전화(ISD) 개시

1986. 1. 1 우체국과 분리, 한국전기통신공사 무주전신전화국 개국
1986. 2. 28 전전자교환기(TDX-1B) 6,000회선 개통(국내 최초)
1986. 11. 30 전전자교환기(TDX-1A/1B) 2,000회선 증설
1987. 7. 1 전국전화자동화 완성
1988. 9. 20 전전자교환기(TDX-1) 300회선 증설
1990. 1. 5 무주전화국 기관 명칭 변경
1992. 11. 15 전전자교환기(TDX-1B) 7,000회선 개통
1994. 11. 15 무궁화위성 관제소 완공
1995. 2. 13 주화·카드 겸용 공중전화기 등장
1996. 3. 18 무궁화위성 상용 서비스 개시
1997. 10. 1 한국통신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
1998. 1. 1 WTO협정에 따라 한국 통신시장 개방
1998. 9. 6 전국 전화국번 세자리수 전환 완료
1999. 7. 1 남원전화국(광역전화국), 무주전화국(일반전화국)으로 조직 개편
1999. 9. 5 무궁화위성 3호 발사 성공
2000. 7. 1 초고속 인터넷(메가페스) 개통
2000. 7. 2 전국 시외전화 지역번호 광역화 시행
2000. 8. 14 남북간 최초 광통신망 개통(서울 - 판문점 - 평양)
2000. 12. 15 IMT - 2000 사업권 획득
2001. 12. 10 KT남원지사 무주지점으로 명칭 변경
2002. 5. 1 무선 초고속인터넷(네스팟) 개통

3) 주요 업무

- 공중전기통신 시설 설치 및 운용관리 유지 보수
- 시설에 관한 영업.

4) 시설 현황

- 일반전화·공중전화

5) 전화시설물 및 가입자수

(단위 : 회선, 명·대)

구분	전화시설수	전화가입자수				공중전화기 대수
		계	업무용	주택용	사업용	
1995	16,624	12,361	2,592	9,769	-	359
1996	15,472	12,909	3,106	9,803	-	552
1997	16,423	13,273	3,432	9,841	-	247
1998	15,359	13,448	3,568	9,729	151	220
1999	17,372	13,487	3,671	9,645	171	229
2000	13,674	13,452	3,748	9,520	184	222
무주읍	4,799	4,593	1,657	2,936	148	58
무풍면	1,237	1,230	206	1,024	2	5
설천면	2,762	2,634	1,009	1,600	20	133
적상면	1,458	1,44	252	1,192	4	10
안성면	2,543	2,522	539	1,983	6	15
부남면	875	870	85	785	4	1

구분	시설수	가입자수	100명당보급율	공중전화	1000명당보급율
TDX-1A	7,072	5,098		141	
TDX-1B	10,300	8,353		316	
계	17,372	13,451	44,8대	457	15,2대

6) 정보통신, PCS

정보통신			PCS	비고
ADSL (초고속인터넷)	네스팟 (무선초고속인터넷)	코넷 (인터넷)		
2,221	10	397	1,259	

7) 기구표



총원	편제요원	고객서비스과	시설운용과
34명	3명	8명	23명

8) 역대 지점장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	이 태 신	1986. 12~ 1987. 7.	
2	함 상 량	1987. 7~ 1989. 2.	
3	정 진 성	1989. 2~ 1989. 12.	
4	김 지 호	1989. 12~ 1992. 2.	
5	원 창 진	1992. 2~ 1994. 2.	
6	이 학 동	1994. 2~ 1997. 3.	
7	정 굉	1997. 3~ 1998. 12.	
8	오 동 환	1998. 12~ 2002. 3.	
9	최 영 구	2002. 3~ 현 재	

11.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무주지점

1) 위치

무주읍 읍내리 1280번지

2) 연혁

1938. 8. 1	남선합동전기주식회사 대전지점 무주출장소 개설
1961. 7. 1	정부, 기존의 조선전업·경성전기·남선전기를 통합하여 한국전력 (주) 설립. 이에 따라 한국전력(주) 충남지점 무주출장소로 개칭.
1977. 8. 1	한국전력주식회사 영동영업소 무주출장소로 개칭
1982. 1. 1	주식회사에서 공기업 체제로 전환.
1986. 1.	한국전력공사 충남지사 영동지점 무주출장소로 개칭
1986. 9. 1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진안지점 무주출장소로 개칭
1988. 4. 15	무 주 양수건설사무소 개소
1988. 5. 1	무주 양수 1, 2호기(30만㎾×2) 착공
1989.	국민주를 개각하여 부분적인 민영화 추진
1990. 5.	진안지점 관할 무주지점(4급)
1990. 7. 13	무주 양수 가배수터널 관통식 개최
1991. 5. 11	무주 양수 1, 2호기 주기기 공급계약 체결
1991. 6. 3	무주지점 사옥 준공
1992. 9. 16	무주 양수 상부댐 정초식 개최
1992. 11.	한국전력 전북지사 무주지점 발족
1994. 6. 10	무주 양수 하부댐 담수식 개최
1994. 11. 5	345㎸무주분기 송전선로 준공(93. 8. 19 착공. 22.5㎞, 철탑 58기)
1995. 2. 14	무주양수 1호기(30만㎾) 최초 양수식 개최
2. 28	무주양수 1호기(30만㎾) 준공(준공식 5. 23)
4. 3	무주양수 2호기(30만㎾) 준공(준공식 5. 23)
1997. 3. 6	무주수련원 입소(무주 리조트 내 콘도형 가족 호텔 74실)
1997. 6.	전북지사 무주지점(4급) 1998.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마련
2001. 2. 23	무주양수발전처,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라 발전소 준공 후 5년간 실시 하는 자연환경생태계 조사 완료.
2001. 4. 2	발전사업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리

- 발전소 분야 공기업에서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민영화)
- 무주양수발전처는 한국남동발전(주)에 속하게 됨.

2002. 6. 현 사옥으로 이전.

3) 주요 업무

전기 공급과 배전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확장

4) 전기 수용 현황

- 2002년 6월 말 현재 20,000호에 102,378㎿h의 전력을 판매하여 연간 80억원의 전기판매 수익을 올림.

5) 기구표

- 지점장 산하에 영업과(지점장 포함 10명)와 배전과(12명) 2과(22명) 운영

6) 역대 출장소장 및 지점장

순서	성명	재 임 기 간	직급	비고
1	함병주(咸炳周)	1961. ~ 1969.		출장소장
2	이재운(李在雲)	1969. ~ 1970.		출장소장
3	안창희(安昌熙)	1970. ~ 1972.		출장소장
4	강종규(姜鍾圭)	1972. ~ 1973.		출장소장
5	배희종(裵喜宗)	1973. ~ 1975.		출장소장
6	이춘화(李春華)	1975. ~ 1986.		출장소장
7	강남원(姜南遠)	1986. ~ 1992.		출장소장
1	박일규	1992. 6. 30 ~ 1994. 2. 27	4	지점장
2	박찬조	1994. 2. 28 ~ 1996. 3. 1	4	지점장
3	김순근	1996. 3. 2 ~ 1997. 3. 16	4	지점장
4	조기옥	1997. 3. 17 ~ 1998. 1. 19	4	지점장
5	유태영	1998. 1. 20 ~ 1999. 7. 4	3급 대우	지점장
6	강대선	1999. 7. 5 ~ 2000. 2. 25	3급 대우	지점장

순서	성명	재 임 기 간	직급	비고
7	오준교	2000. 2. 26 ~ 2001. 4. 22	3	지점장
8	이영수	2001. 4. 23 ~ 2002. 2. 4	3	지점장
9	장상현	2002. 2. 5 ~ 현재	3	지점장

12. 한국담배인삼공사 무주지점

1) 위치

무주읍 읍내리 817-3번지

2) 연혁

1921. 7. 1	조선연초전매령 실시에 따라 전주연초원 매팔 주식회사 대전출장소 무주영업소 발족
1931. 7. 1	관영(官營)실시에 따라 전주지방전매국 대전출장소 무주연초판매소로 개칭
1943. 12. 1	전주지방전매국 대전지국 무주판매소로 개칭
1946. 7. 1	대전전매지국 무주전매서로 개칭
1949. 2. 1	대전지방전매국 무주전매서로 개칭
1951. 4.	전매청으로 개칭
1952. 4. 3	전매청 발족으로 전주지방 전매청 대전지국 무주전매서로 개칭
1963. 12. 1	대전전매지청 무주전매서로 개칭
1972. 12.	담배 전매법 제정·공포
1981. 11.	담배차량배달 매도제 실시
1982. 11. 1	대전전매지청에서 전주전매지청 무주전매서로 감독청 변경
1987. 4	한국전매공사 창립
1989. 4. 1	한국담배인삼공사 창립으로 무주지점으로 개칭
1997. 10.	한국담배인삼공사 출자 기관으로 체제 전환
1998. 12.	남북한담배사업교역 본격 추진

1999. 1. 홍삼사업 자회사로 분리
1999. 7. 21 무주영업소로 개칭
2002. 5. 1 무주지점으로 개칭

3) 주요 업무

- 담배·홍삼 및 홍삼제품의 제조와 판매
- 식음료품·의약품·의약부외품 제조와 판매
- 담배사업과 관련한 재료품의 제조와 판매
- 위 각 호와 관련한 연구사업·무역업·유통업·방송업 및 부동산업
- 잎담배 경작지도
- 위 목적 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투자·출연·융자·지원 등 부대 사업일체

4) 연도별 담배 판매량

(단위 : 갑, 원)

구 분	2000년		2001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3,505,385	3,795,790,230	3,124,388	3,893,817,910
시 마 (경)			51,302	91,021,600
에 쎄 (경)	355,310	479,668,500	476,070	726,561,100
리 치 (경)	102,410	147,470,400	74,699	114,289,470
심 플 (경)	231,545	312,585,750	179,379	258,305,760
시 나 브 로 1 0 0 ' s	3,600	4,860,000		
타 임 (경)	166,268	209,497,680	304,580	436,728,700
한 마 음	12,770	17,239,500	2,400	3,240,000
겟 투 (연)	28,600	36,036,000	9,680	12,196,800
겟 투 (경)	2,660	3,351,600		
마 운 트 (연)	11,840	14,918,400	6,210	8,383,500
마 운 트 (경)	11,374	14,331,240	103,465	139,677,750
하 나 로	91,380	115,138,800	69,410	87,456,600
오 마 샤 리 (연)	67,830	85,465,800		
오 마 샤 리 (경)	4,630	5,833,800		

구분	2000년		2001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시나브로(경)	43,930	55,351,800	23,590	29,723,400
디스플(연)	1,240	1,450,800		
디스플(경)	149,870	175,347,900	192,022	241,947,720
디스(연)	1,385,140	1,371,288,600	876,476	1,025,476,920
엑스포	9,690	10,465,200	9,040	10,576,800
한라산	90,206	97,422,480	71,980	84,216,600
88디럭스	47,270	46,797,300	39,099	42,226,920
88라이트	130,840	117,756,000	88,760	88,872,400
라일락멘솔	47,250	46,777,500	56,770	56,202,300
라일락	234,760	232,412,400	239,993	237,593,070
도라지	18,090	17,909,100	19,680	19,483,200
장미	121,652	120,435,480	107,660	106,583,400
88골드	5,260	4,734,000	14,310	12,879,000
88멘솔	38,680	34,812,000	56,623	50,960,700
솔	91,290	16,432,200	51,190	9,214,200

5) 기구표

구조조정으로 지점장외 현인원 3명

6) 역대 지점장

대수	성명	재임기간	비고	대수	성명	재임기간	비고
1	장재우	1997. 12. 26~1980. 8. 21		11	이해복	1998. 5. 1~1998. 12. 31	
2	임덕순	1980. 8. 21~1983. 10. 21		12	윤남호	1998. 12. 31~1999. 7. 20	
3	김종수	1983. 10. 21~1986. 5. 1		13	박현곤	1999. 7. 20~2000. 2. 21	
4	박태출	1986. 5. 1~1988. 11. 1		14	김세중	2000. 2. 21~2001. 8. 31	
5	김동주	1988. 11. 1~1989. 12. 31		15	박현곤	2001. 8. 31~2002. 3. 18	
6	임창수	1989. 12. 31~1992. 6. 10		16	고원석	2002. 5. 1~현재까지	
7	지완수	1992. 6. 10~1992. 12. 21					
8	소진만	1992. 12. 21~1995. 1. 31					
9	오남택	1995. 1. 31~1996. 4. 21					
10	송동용	1996. 4. 21~1998. 5. 1					

13. 대한지적공사 전라북도지사 무주군출장소

1) 위치

무주읍 읍내리 1423-4번지

2) 개요

국가의 고유 업무인 지적측량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고객의 만족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38년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로 창설, 1949년 대한지적협회, 1977년 대한 지적공사로 명칭 변경하여 신뢰 받는 공사상 구현을 위하여 창설되었다.

3) 연혁

1938. 1. 20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 창설
1946. 5. 1	조선지적협회 광주지부 전주출장소 신설
1949. 5. 1	재단법인 대한지적협회로 명칭 변경
1953. 5. 21	지적측량기술원 및 교육훈련기관 설치
1960. 12. 31	국무원령 제176호로 지적측량업무 대행 근거 규정
1962. 1. 1	재무부장관에서 내무부장관으로 감독이관. 전라북도지부 무주군 분소 설치
1968. 1. 1	전라북도지부 무주군 출장소로 개칭
1969. 1. 1	출장소 직원의 실비 변상제에서 일부 월급여제 실시
1969. 12. 29	임원 및 지사장, 내무부장관 직접 임면제로 정관 개정
1976. 1. 1	출장소 직원에게 전면 급여제 실시
1976. 11. 6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
1977. 7. 1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 전라북도지사 무주군 출장소로 개칭 지적법령 개정에 따른 정관 전면 개정
1994. 4. 1	지적기술연구소 설치
1999. 3. 1	교육연구원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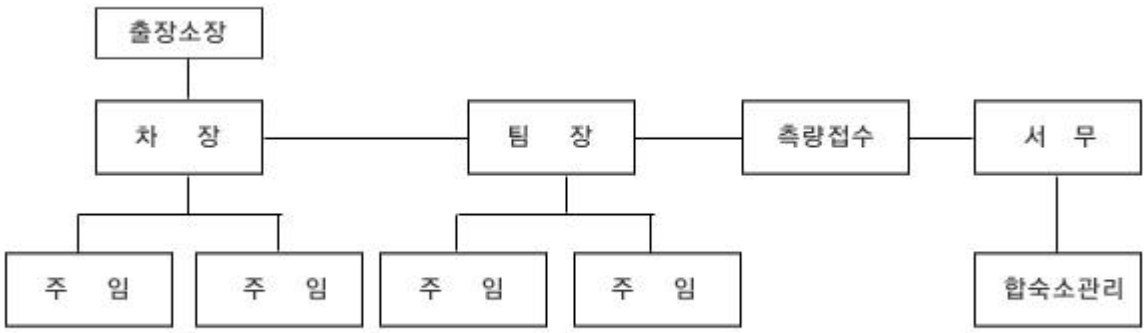
4) 주요 업무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며 지적측량기술의 개발 및 지적제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① 국민이 위탁한 토지 및 부동산에 관한 측량과 정부의 사업발주에 따른 측량 업무 수행, ② 지적도를 비롯한 지적도면 작성 및 토지등급도 대책, ③ 지하시설물 측량과 사진 측량 등 지적업무와 관련된 토지 측량 및 부대업무, ④ 지적시술 연수원 설치 운영 등.

5) 역대 출장소장

순서	성 명	재 임 기 간	전 임 지	후 임 지	비고
1	정 재 철	1995. 4. 20~1996. 1. 31	전북 전주시	전북 부안군	
2	오 종 태	1996. 2. 1~1996. 11. 30	전북 임실군	전북 임실군	
3	이 신 근	1996. 12. 1~1997. 9. 9	전북 군산시	퇴직	
4	리 민 태	1997. 9. 10~1998. 11. 19	전북 고창군	전북 고창군	
5	강 남 인	1998. 11. 20~1999. 10. 8	충남지사	경기지사	
6	조 병 윤	1999. 10. 9~2001. 12. 31	전북 덕진구	전북 임실군	
7	정 재 철	2002. 1. 1~현재	전북 진안군		

6) 기구표



7) 주요 업무 현황

년도	일반업무			특수업무			합 계			비고
	건수	필수	금액 (천원)	건수	필수	금액 (천원)	건수	필수	금액 (천원)	
1999	638	1,428	155,210	322	6,182	194,128	960	7,610	349,338	
2000	568	1,293	139,117	165	5,039	220,319	733	6,332	359,436	
2001	612	1,377	176,135	154	6,642	332,573	766	8,019	508,708	
평균	606	1,366	156,820	214	5,954	249,007	820	7,320	405,827	

8) 시설현황

- 소 재 지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423-4 번지
- 대지면적 : 935.1 ㎡(283 평)
- 건물규모 : 지하 1 층, 지상 3 층
  연면적 : 869.3 ㎡(263 평)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스라브조
- 준 공 일 : 1997. 9. 12.

14.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주지사

1) 위치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966-9번지

2) 개요

1987년 무주군의료보험조합 설립, 지역주민의 의료보험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하던 중 정부 정책에 의거 1998년 1차 통합, 2000년 2차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주지사로 발족. 가입자 및 피부양자들의 건강보험 업무와 의료보호세대의 급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3) 연혁 및 기구

(1) 연혁

1987. 11. 1　무주군의료보험조합 설립

1998. 10. 1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전국의료보험조합과 공·교 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

2000. 7. 1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 및 전국 직장의료보험조합 완전 통합)

(2) 역대 지사장

구분	성 명	재 임 기 간	전임지	후임지	비 고
1	이상용	1987. 11. 1~1991. 1. 10		퇴직	대표이사
2	김인수	1991. 1. 11~1994. 6. 30		퇴직	대표이사
3	전일창	1994. 7. 1~2000. 6. 30		퇴직	지사장
4	김태봉	2000. 7. 1~2000. 10. 22	장수지사	퇴직	지사장
5	홍준표	2000. 10. 23~2002. 6. 30	진안지사	함평지사	지사장
6	전정기	2002. 7. 1~ 현재	장수지사		지사장

(3) 기구표(정원 10명. 현원 9명)



(4) 정원

구 분	계	2급	3급	4급	5급	6급
정 원	10	1	2	3	2	2
현 원	9	1	2	2	4	-

4) 주요 업무 현황 (2002. 5. 31 현재)

(1)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계	지역(A)		직장(B)		의료급여대상자	관할사업장수
	세대수	가입자(A)	가입자	피부양자		
5,732	5,814	15,392	2,107	8,233	2,967	9

(2) 보험료 부과 징수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비 고
2000년	1,641,308	1,529,299	93.2	
2001년	1,739,661	1,721,729	99.0	
2002. 5.	769,656	755,047	98.1	

(3) 보험급여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진료건수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건당급여비	징수액	보험료/급여비율
2000	176,241	5,398,352	3,813,026	21,635	1,529,299	249
2001	231,973	6,962,625	5,194,614	22,393	1,721,729	301

5) 시설현황

자체 사옥 없음. 무주새마을금고 2층 임대

15.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

1) 위치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335번지

2)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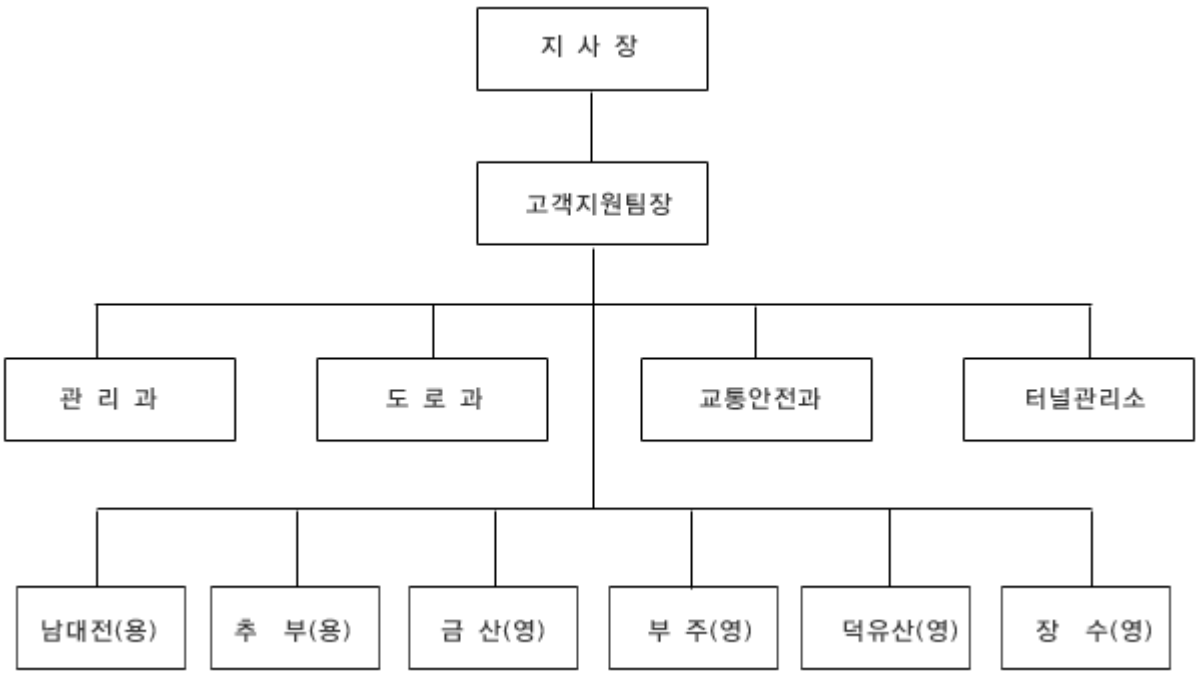
1995. 12. 23　대전-통영 고속도로 착공
2000. 11. 1　무주지사 개소
2000. 12. 22　대전-통영 고속도로 대전-무주구간 개통 (4차로, 43.6km)
2001. 11. 21　대전-통영 고속도로 무주-함양구간 개통 (4차로, 59.4km)

3) 주요 업무

대전 ↔ 통영간 고속도로 중 대전 ↔ 서상간 유지관리

4) 기구 및 인원

(1) 기 구



(2) 인 원

구 분	총 계	사무직	기술직	영업직	별정직	비 고
정 원	77	5	23	24	25	
현 원	65	5	22	24	14	
과(△)부족	△12	-	△1	-	△11	

5) 주요 시설물 현황

구 분	시설물명	단 위	수 량	비 고
시설물	지 사	개소	1	무주지사
	영 업 소	개소	6	남대전, 추부, 금산, 무주
	휴 게 소	개소	4	덕유산, 장수
	분 기 점	개소	2	인삼랜드(상,하), 덕유산(상,하)
구조물	터 널	개소/M	7/7,103	산내 JCT, 장수 JCT
	장 대 교	개소/M	45/13,268	육십령터널외 6개소
	소 교 량	개소/M	47/1,581	적문교외 44개소

6) 주요 업무현황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교통량		통행료수입		휴게소 매출액	
	총 대 수	1일평균대수	총수입액	1일평균수입액	총 매출액	1일평균 매출액
2001년도	5,125,871	16,351	13,270	45	7,554	42
2002년도 (1~6월)	3,074,843	16,988	8,345	46	13,667	75

7) 역대 지사장

구분	성 명	재 임 기 간	전임지	후임지	비고
제1대	유수형(柳壽馨)	2000. 11. 1 ~ 2001. 12. 18	본 사	대전지사	
제2대	장동화(張東和)	2001. 12.19 ~현재	본 사		

[집필 : 이명환]

제7장 자치행정 10년

-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의 길 -

제1절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 배경

1. 지방자치의 부활

1961년 '5·16'으로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중단된 한국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의 부활은 5·16 이후 3공화국과 유신정권, 5공화국, 6공화국 등 군부에 의한 집권이 지속되는 동안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다.

1991년 광역(광역시·도)의회와 기초(기초 시·군·구)의회 의원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출범하였고, 1995년에는 민선자치단체장 시대가 개막되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의 개막은 한국정치사의 획을 긋는 큰 의미를 가진다. 중앙중심의 사고가 피동적이었다면, 지방화 시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능동적인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이자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부활된 지방의회와 민선행정에 순기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의회와 행정의 '견제와 협조'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축은 일방적인 사고에 의해 양자가 붕괴직전까지 도달하는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전국적인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면, 해당 단위 의회와 행정에 대한 불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갈등, 정당공천 허용으로 야기되는 자치단체장과 지구당 위원장과의 마찰 등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역기능과 갈등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과도기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 자체가 정치적인 측면을 내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요소는 항상 잠재되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에서 오는 역기능으로 인하여 지방자치 본래의 이념과 목적이 훼손당할 수도 있으므로 갈등의 원인에 대한 처방과 자정능력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무주군 역시 지난 10여년 동안 감동과 환희의 순간도 있었지만, 갈등으로 인한 역기능도 겪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분명 지방자치는 발전의 길을 걸어 왔다.

2.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극복

정치권력의 영역에서 '개혁과 변화'라는 화두는 시공을 초월 할 만큼 늘 존재해왔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결코 생소하지 않은 용어 역시 변화와 개혁이라는 화두속에서 지방화시대,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민(民) 중심의 행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동안 행정은 최소한의 영역에 국한되면서 행정편의주의적 경향을 보여왔다. 민간의 정부 의존성으로 인해 자율이 침해 받고, 주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경향에 기인한다.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행정만능주의 또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관료주의의 악습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기업과의 결탁이 흔히 있어왔다.

이와 같은 왜곡된 현상을 단절시키기 위한 정부조직과 행정의 기업식, 또는 경쟁력이 내재된 경영혁신 장치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90)]

변화는 철학의 기초 이론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주변과 일상에서 항상 존재하고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변화 또는 행정개혁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필연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변화의 영역이 공적인 상황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는가, 아니면 시장 메카니즘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는가의 차이일 뿐이다. 즉 변화는 역사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며 내용에 있어서 차이일 뿐이다.

행정혁신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는 것 자체에 어려움은 있으나 추이를 보면, 시장 메카니즘과 고객을 전제로 한 성과 중심의 경영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쟁요소 도입의 기조는 주민위주 행정·행정의 투명성·시장경제 원리 도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3. 이념과 목표

손태원은 <기업식 정부에 대한 기대>라는 논문에서, 국영기업인 영국항공사가 도산위기를 극복한 과정이 성공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킨 사례로 경영학과 행정학 문헌에 소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관료적 타성을 극복하고 고객지향적 기업문화를 창출한 모범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또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는 챈들러(Chandler)의 격언처럼 실천행동에 앞선 설계, 목표에

90)손태원, 기업식 정부에 대한 기대, 1999.

따른 이념의 정비를 실천하였다. 무주군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된 반딧불이의 활용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반딧불이가 살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과 청정한 공기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산림이 전제되어야 하며, 만일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반딧불이가 아닌 희미한 형광등에 불과 할 것이라는 냉소적 비판이 앞설 것이다.

무주군은 자치행정의 이념적 방향으로 첫째,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인 직접민주주의 실천을 설정하였다. 지방단위에서의 정치권력은 지방의회와 행정이라는 공간을 통해 외화되고 있는 만큼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인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천이며, 수요자(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의 첫 번째 이념이다.[91)]

두 번째는 자치행정의 책임성이다. 지방자치의 내용은 분권과 자율이다. 이 때 발생되는 문제는 권력분산에 대응하는 결과에 따른 자치행정의 책임이다. 그 책임은 지방자치를 이끄는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이들을 직접 선출하는 주민에게도 있다.

선출직에 대한 주민들의 탄핵소추권이 보장되지는 않았지만 주민감사청구제, 주민감독제, 각종 위원회의 주민참여(무주군 조례) 등 방법으로 주민참여의 통로가 확보되어 있다.

4.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군민은 당연히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군민에게 열과 성을 다하여 친절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 "[92)] 무주군 공직자의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의 일부분이다.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은 기업경영 기법을 자치행정에서 도입한 것이지만, 일반 시민과 고객의 입장은 다르다. 일단 수요자(주민)에게 제품과 행정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는 입장이 동일하지만,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의사결정권을 갖는 고객과 행정서비스 수혜 의 권리와 동시에 납세의무·국방의무·선거참여 등 의무를 갖는다는 면에서 다르다.

또 기업은 수여창출과 이윤증대의 수단으로 고객만족이지만, 행정에서는 고객만족이 목 표이자 이념이면서 종착점이다.[93)]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벤취마킹, 종합품질경영(Total Quality Management = TQM) 등이 대표적인 기법들이며 이중 TQM기법이 가장 널리 활

91)무주군, 군정업무계획, 1997.
92)무주군, 무주군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 1999.
93)김광주, 고객지향의 지방행정체제 구축방안,

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미국의 인디에나주 폴리스시, 틸버그시, 피닉스시, 크라이스쳐치시 등은 행정에 품질경영기법을 도입하여 ISO로 부터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였다. 선진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사례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군정방향을 설정한 무주군의 행정을 오스본과 게블러가 고객만족의 정부재창조를 위한 10가지 항목과 비교해 보면 다음 과 같다.

<표 3-7-1> 오스븐과 게블러의 고객만족 정부10대 지표와 무주군의 비교

연번	오스븐과 게블러의 10대 지표	무주군의 실제사례
1	경영기법 도입 (전통적 관료제→경영정부)	경영마인드 도입(군예산 이자소득 확대. 법원경매 참여 등)
2	촉진적 정부 (노젓기→방향잡기)	합리적 조직개편(지원부서 단일화 및 정책개발 기능 부여)
3	지역사회가 주도 (서비스제공→지역사회권한부여)	공공기능 민간이전
4	경쟁적 정부 (공공독점→경쟁도입)	정보공개와 경쟁유도
5	사명지향적 정부 (규칙중심→경쟁도입)	합목적적 운영 및 집행
6	성과지향적 정부 (투입→성과연계 예산배분)	인센티브제 시행
7	고객지향적 정부 (관료제→고객요구 충족)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제정, 민원착오 보상제 실시
8	기업가적 정부 (지출→수익창출)	경영기법(서울사무소 개설)
9	분권적 정부 (위계조직→참여와 팀웍)	팀제(Team制)운영
10	시장지향적 정부 (행정→시장메카니즘)	인사 및 관리의 경쟁적 요소 도입

제2절 자치행정의 정립 과정

1. 자치행정의 탄생

자치행정이 탄생하기 전 무주군 행정에 일대 변화를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90년 12월 15일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만선동 일대에 메머드급 휴양시설인 무주리조트가 (주)쌍방울에 의해 완공됨으로써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를 발판으로 1997년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무주가 세계로부터 주목 받는 단초를 무주리조트가 제공한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 선거로 무주군 의회가 최초로 구성되었는데, 김광성 의장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었다. 제1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원년을 상징하였으나, 자치행정의 양대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축인 행정분야는 관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안', '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조례안', '무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등이 제정되어 주민자치를 향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 조사특위 등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는데, 1992년 2월 25일 구성된 '여당후보지원보도 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같은 경우는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지방의회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준 사례로 들 수 있다.[94)]

2. 자치행정의 두 축 완성

1995년 7월 1일 주민선출에 의한 민선행정(민선1기 김세웅 군수)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자치행정 1기와 2기(1기 : 1995. 7. 1~1998. 6. 30. 2기 : 1998. 7. 1~2002. 6. 30)의 성과를 총론적으로 밝히자면 패배의식을 극복한 점을 들 수 있는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계기는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반딧불 축제(1997년 제1회 개최), 군정전반에 대한 개혁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산간오지의 대명사로 각인되고 낙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던 무주군은 산간오

94) 특위는 199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당후보 지원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친여성향 유권자의 무주군 전입을 종용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와 지역여론을 근거로 군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였다. 특위활동 결과 무주군 경찰서 실무자가 작성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등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지라는 악조건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지역'이라는 이른바 환경마켓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딧불 축제는 '환경'을 주제로 하여 기존의 축제와는 발상에서부터 독창 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였다. 문화관광부 지정축제(1999년 제3회)와 국가밀레니엄 축제(2000년 제4회), 그리고 문화관광부 지정 민속축제(2001년 제5회) 등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무주군은 반딧불이를 브랜드화 하여 군의 심볼화 작업, 각종 상표 등록 및 무주군 생산품 포장재 등으로 이용하여 환경 마켓팅에 접목하였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각종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동계U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아 각종 도로망 확충 등 사회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를 이끌어낸 결과, 이 대회 이후 관광지로서 면모를 일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군민의 패배의식을 극복 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그 동안 관청이라는 권위주의의 상징을 없앤 각종 행정개혁에서 찾을 수 있다. 전국 최초로 군청의 담장을 허물었으며, 조직진단을 토대로 부면장제를 폐지한 사례, 각종 공청회와 군정설명회 등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3.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무주군

자치행정이 시작되면서 무주군은 가장 많은 변화와 주목을 받은 곳 중의 하나가 되었다. 관내 65세 이상 군민에게 시행한 무료진료, 무료순환버스 운행, 열린 군청사 정비, 보건의료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인수에 있어서 법원 경매를 통한 최저가 낙찰 등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것들이다.

민원행정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1999년 1월부터 기존의 민원실을 종합민원실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택 전자민원, 팩스민원 발급, 민원인 후견인제, 민원행정정보화 등 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빠르고 정확한 민원 행정'을 정착시켜 1999년 말에는 민원행정 전국 최우수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지역개발 분야는 2001년부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됨에 따라 무주는 인접한 대전권을 비롯하여 경인지역과 대구 및 부산권과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해 졌다. 2001년 완공된 남대천 하천정비를 비롯한 자연 친화형 하천 정비사업, 무주읍 가로환경 정비 사업은 이 사업 본래의 목적과 더불어 주민의 쉼터 역할과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반딧불이 살리기로 환경운동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 할 정도로 무주군의 환경분야에 대한

노력은 매우 컸다. 1997년 환경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하수종말 처리장 건립(무주읍),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적상면 방이리 일대), 반딧불이 환경테마 공원 조성사업 추진 (설천면 청량리 일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 등의 성과가 있었다.

각종 수상현황을 보면서, 1991년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자치행정 1기와 2기의 성과를 대신하고자 한다.



'97국제 ILE수 푸른지구상 시상식



2000년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

○ 푸른지구상 수상 ('97. 국제환경노동문화원)
○ 환경시범자치단체선정 ('98. 환경부)
○ 제3회 지방자치경영혁신단체대상 ('98. 한국능률협회)
○ 제2기 지방자치1주년모범자치단체 ('99. 새정치국민회의)
○ 경찰행정우수기관 ('99. 행정자치부)
○ 도로관리유지평가 우수기관 ('99. 전라북도)
○ 민원행정전국최우수기관 ('99. 행정자치부)
○ 민원행정전북최우수기관선정 ('99. 전라북도)
○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최우수기관 (2000. 전라북도)
○ 제1회 경영행정우수단체상 (2000. 한국능률협회.대한매일)
○ 제5회 지방자치경영대상최우수자치단체상 (2000. 한국능률협회)
○ 제2회 공공부문혁신대회우수사례선정 (2000.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
○ 경영행정대상 (2000. 국무총리기관 표창)
○ 제1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우수사례선정 (2000. 행정자치부.경실련)
○ 노인복지시책평가최우수상 (2000. 전라북도)

○ 제41회 한국민속예술축제우수상 (2000. 문화관광부)
○ 무주반딧불사과 과실부문 금상 (2000. 한국농업인중앙연합회)
○ 전국으뜸농산물품평회대상 (2000.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 지속가능한도시대상 (200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중앙일보. 건설교통부)
○ 구조혁신(조정)우수군 (2001. 행정자치부)
○ 반딧불축제향토지적산업사업선정 (2001. 행정자치부)
○ 산머루와인공장지역특화공모사업당선 (2001. 농림부)
○ 산불없는 우리 고장우수기관선정(2001. 산림청)
○ 도로정비실적평가우수상 (2001. 전라북도)
○ 산불없는 우수기관선정 (2001.10.31 산림청)
○ 국가유공자공헌우수단체 (2001. 보훈처)
○ 식량생산우수단체 (2001. 전라북도)
○ 푸른고속도로만들기 (2001. 한국도로공사)
○ 제3회 자치경영혁신전국대회우수상 (2002. 3.15 한국능률협회.대한매일)
○ 제10회 조선일보 환경운동대상 수상 (2002. 5.23 조선일보.환경부)

제3절 자치행정의 시스템 정비

1. 조직·인력의 합리적 운용

조직과 인력운용의 측면을 들여다보면, 그간 사업부서보다 지원부서가 요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지원부서가 비대해 지면서 사공이 많아 항로를 일탈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 실제로 지원부서가 비대한 조직은 사업의 합목적성보다는 합법성을, 실질적인 처방보다 는 처방을 위한 명분을, 현장보다는 책상을 더 먼저 더 많이 찾게 됨으로써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으로 농촌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행정인력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1997년 말 경제위기로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 실시되었으나, 무주군은 이미 1995년 자치행정을 시작하면서 '작은 정부'라는 관점에서 행정의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기 시작하였다.

예외없는 구조조정은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고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주체로 전문가와 실무자를 투입하여 진단용역을 실시하였다.[95] 우선 전체적으로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슬림화 작업을 하였다.

1997년 공무원 수는 505명이었으나, 1998년에는 전년에 비해 68명이 감소한 437명으로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1996년부터 정년연장제도 폐지,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시간외 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하여 고비용 구조를 혁파하였다. 또한 조직과 인력측면에서 절약한 예산은 사회복지와 인센티브를 위한 포상금 등으로 지급하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였다.

중앙단위 구조개혁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면장제 폐지와 정년연장 제도의 폐지는 행정자치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조직진단으로 읍·면사무소의 부읍·면장제 폐지와 사회복지기능 강화, 지원부서 단일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기획실, 내무과, 공보실 등으로 분산된 지원부서를 통폐합하여 기획조정실로 단일화하고 인력은 전체 인력의 약15%수준으로 구성하였다. 실제로 선진국의 지원부서 비율은 15%미만이다. 미국의 퍼시픽시는 7%, 영국의 완즈와슨구는 12.6%, 일본의 무사시노시는 14.2% 수준이다.

2. 전문회계법인에 재정진단의뢰, 군 재정운영 근본적 수술

지방자치 이후 각 자치단체는 지방세 재원확보와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눈에 띄게 전개하고 있지만, 정작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제기는 되지 않았다.

무주군은 전문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여 1995년 10월과 1996년 11월 '군재정운영진단용역'을 실시하였다. 이는 법규의 준수여부·적발·위반의 시정·징계 등을 목적으로 한 감사와는 달리 재정운영의 효율성·제도의 개선·전부문의 최적화를 목표로 하여 진단하였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세입확충방안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처방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비효율적인 관료체제를 신축적이고

95)한국행정연구원, 무주군 조직진단, 1996.

능률적인 기업경영체제로 체질을 개선해야 하며, 인사·예산·조달·회계 등 관리제도가 자치원리에 적합하고 시장의 역동성에 부합하는 기업경영방식의 경영마인드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995년 이전 3년간 결산 및 회계관리에 대한 진단결과는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들이 도출했다.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고, 특히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14.6%, 전북 15.8%에 비하여 무주군은 25%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비대한 공룡조직 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군금고 운영과 관련한 이자수입은 거액의 여유자금을 1%에 가까운 보통예금으로 처리하고 있어 비효율성이 드러났다. 또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재고, 각종 수당 지급방법의 재고, 세수증대방안 등 많은 문제와 처방전을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인건비의 경우 1998년 기준으로 12.5%까지 낮추고, 세출예산은 월별 지급준비금을 정확히 분석하여 준비금 한계치를 10억원으로 축소하여 여유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여유자금을 11%-13%의 CD 등 고금리 예금을 15일 단위로 예치하여 한해 4~5억원에 불과하던 이자수입을 30억원 대로 증가시켰다.

<표 3-7-2> 군금고 이자수익 현황

년도	관선행정					민선행정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액수(천원)	498,957	397,503	505,975	1,001,853	1,686,029	2,451,150	3,264,809	2,872,424	3,330,107	3,314,093

3. 다면평가에 의한 입체적 인사평가 근거 마련

상명하달(上命下達)이라는 관료주의의 병폐는 중앙과 지방의 문제이면서 조직내부의 시스템에서 출발한다. 조직운영의 측면에서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일방적인 평가는 하급자로 하여금 모험적인 요소가 다분한 창의적 사고나 벤취마킹과 같은 현대적 감각의 신사고를 막고 있는 병폐 중의 일부분이 된다.

그러나 다면평가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하급자가 상급자를 같은 직급과 직위에 있는 동료간에 유기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선진적 의식이 전무한 상태에서는 하급자의

항명이나 조직내부의 분열 등의 단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 제도는 수직적 행정을 수평적이고 팀웍 체제로 이끌 수 있는 시스템이다.

1998년 10월, 최초로 실시한 결과 인사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였고 기존 인사의 주요 기준이었던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능력위주의 인사를 단행하였다.

4. 벽을 허물고 만난 군민의 집

"무주군청의 담장이 허물어지자 전국 관공서의 담장이 하나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관선행정의 상징인 문턱 높고 폐쇄적인 관공서가 개방형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전국 최초로 실행된 군청 담장 허물기에 참여한 무주군민의 표현이다.

자치행정 1기 실시 직후 주민과 함께 군청 담장을 허물어 주민공원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아이의 손을 잡고 시원한 그늘에서 피서를 하고 있는 모습, 놀이기구를 이용하고 있는 장면이나 분수대를 배경으로 멋진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1999년에는 은행식 개방형 사무실로 청사를 정비하였다. 부서간 업무는 구분되지만 부서간 공간은 없애는 개방형 사무실은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고 부서업무 협조를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위한 시설이다. 인터넷 카페는 청내 직원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5. 선진견학지로 자리잡은 종합민원실

1998년 완공한 종합민원실은 기존 75평에서 235평으로 확장이전하면서 '민원인의 천국이자 요람'으로 바꾸어 민원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3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최첨단시설과 설비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500명 설문조사) 99.9%의 신화적 만족도를 창출했다.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을 연출하였고, 관광안내 시설, 향토차 대접, 건강교실, 민원인 대화공간, 건강상담실, 편안한 근무복, 인터넷 교실, 유아대기실 및 놀이시설 등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특히 타 자치단체의 선진견학지로 무주군 민원실이 각광을 받고 있어 가장 이상적인 민원실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6. 주민감사청구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주민감사청구제가 군조례로 제정되었다. 국가나 국민적 차원에서 선출직에 대한 탄핵 및 소환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으나, 지방자치 차원의 이 제도는 일정하게 나마 선출직에 대한 주민견제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사안이나, 주민권리 침해, 의무부과에 대하여 군민 50인 이상의 연서나 마을주민 2/3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면 가능하다.

7. 1마을 1PC사업

21세기라는 초고속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은 국가와 지역을 초월하여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고 추진되었다. 무주군은 전국 최초로 1마을 1PC사업을 실천하였다. 1999년 완료된 이 사업은 48개 법정리 단위까지 각 마을에 PC를 설치하여 농촌정보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 1마을 1PC사업을 위한 준비사업으로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매년 1천여명 이상 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군 전산직 공무원들이 직접 강의에 나섰으며 교육교재를 만들어 보급하였다.

각 마을에 보급된 PC를 이용하여 호적초본, 토지대장 등을 안방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안방 재택민원 서비스를 실현하였다. 또 각 농가에서는 PC를 통해 정보공동체 실현과 농업정보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8. 지방채 제로(Zero) 자치단체

무주군은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여 지방채 제로선언을 하였다. 2001년 4월 지방채 잔여금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68억 중 도비와 국비 부담금을 제외한 무주군 부담금 24억9천2 백만원을 조기에 상환한 것이다.

지방채는 의존재원이 군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재원조달을 위해 국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게 된다. 즉, 의존재원인 교부세·양여금·국고보조금과 같은 형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지방채 부담의 주요원인은 낙후지역의 개발사업과 주민의 소득기반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이를 위한 투자사업 재원의 확보가 되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상·하수도 사업, 공공단지 조성 등 투자규모가 큰 사업을 위해 시행한 다. 그러나 이자율이 매우 낮고 상환부담 역시 도와 국가 등이 보존해 주고 있어 일반적인 의미에서 '빚'과는 크게 성격이 다르다.

무주군은 지방채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 청사정비, 무주시장현대화, 상수도 사업, 주택사업 등 규모가 큰 액수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무주군에서는 지방채 제로화 시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군민의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해 2000년도부터 지방채 우선 상환 시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것은 지방재정의 건전화·군민의 재정불안감 해소·행자부의 지방채 경감시책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관계부처(재정경제부)와 협의를 전개(2002년 3월)하여 2002년 4월 4일자로 무주군 하수종말처리상 사업의 지방채를 조기상환 함으로써 지방채 제로 선언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무주군은 지방채가 전혀 없는 우수한 재정력을 보유한 자치단체로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다.

<표 3-7-3> 년도별 지방채 상환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 도 별									비 고
	95.이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5,172 (1,577)	6,599 (4,429)	8,842 (4,429)	8,287 (4,429)	1999	3,321 (14,286)	2,492 (14,126)	- (14,126)	
무주하수종말처리장	5,673	278 (1,577)	781 (4,429)	781 (4,429)	781 (4,429)	9,755 (14,286)	2,521 (14,286)	2,492 (14,126)	- (14,126)	
청 사 정 비		140	101	62	31	2,521 (14,286)	300			
무 주 시 장 현 대 화	186					311	500			
상 수 도	2,514	3,077	4,190	6,652	6,381	6,111				
주 택 사 업	603	572	543	484	417	360				
농 어 촌 소 득 금 고	604	539	418	297	176	56				
농 공 단 지 조 성	766	566	566	566	501	396				
경 영 사 업	1,000	-	-	-	-	-				

※( )는 국도비 부담금임.

제4절 자치행정 3기의 탄생과 과제

모든 사회가 어느 정도 분화과정을 겪지만 지나친 분화와 통합은 피리미드형 체계를 만들 어 내고 상층부 또는 일부 엘리트 중심의 관료주의를 만들어 이른바 관료현상론을 제기한다. 행정개혁이란 관료주의인 비인격적 규칙, 의사결정의 상부집중, 계층별로 동질적이고 폐쇄적인 집단형성, 비공식적 권력관계 구축 등 총체적으로 보면 동맥경화현상에 대한 수술을 말한다.

군의회와 민선행정의 시작으로 무주군의 관선행정에 대한 개혁의 기조는 “관료사회의 무기력증을 타파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단위를 세분화 할 것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다기능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의 탄생으로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이 부활되고 민선 1기와 2기에 이어 2002년 6·13지방선거를 통해 자치행정 3기가 탄생되었다.

1기와 2기를 통해 자치행정이 정착되었다면 3기는 개혁의 성과를 거두어 내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 각종 개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와 문화를 다시 재정비하는 점진적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치 개혁을 찬성하는 편에 선 부류들이 개혁에 성공하고 나면, 거기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개혁의 잠재력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와 이를 어떻게 외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개혁의 지속성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하는 점이 극복되어야 한다.

자치행정 3기는 잠재되어 있는 개혁의 역량과 새로운 문화를 지속적으로 습득하게 하고 적절히 활동게임을 변경해야 성공적 혁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민선출범 제3기

[집필 : 이명환]